지식과 교양

Knowledge and Liberal Arts

통권 제21호, 2026년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차 례

[지식과 문화]

▌안부영▐

초등학생의 비판적 읽기에서 나타나는 논리적 고착 현상 분석: 근거 생성 양상을 중심으로 ····· 13

▌문의정▐

다문화청소년의 이중언어능력이 청소년과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외국인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의 조절효과 ····· 35

▌박주희▐

공존적 학습을 위한 게임 기반 학습: 게이미피케이션 적용 사례 중심 연구 ····· 65

▌방진숙▐

초등학생의 큐로AI 활용 경험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자아인식과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79

▌유리 · 김은송▐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의 글쓰기 주도권 강화 방안 연구: 대학 글쓰기 교육 목표의 새로운 설계를 중심으로 ····· 117

▌이미옥▐

시각적 사고 전략을 활용한 외국인 유학생 비평문 쓰기 수업 설계 연구: 르네 마그리트의 《이미지 배반》을 중심으로 ····· 145

▌이선정▐

ChatGPT를 활용한 영문이력서(Resume) 비교과 프로그램의 효과와 학습자 인식 연구 ····· 177

▌이정호▐

14세기 고려의 기후변동과 민심동요 현상 ····· 209

▌천민경▐

클래식-재즈 크로스오버의 양가적 비평 담론과 미들브로우 수용사적 의미: 클로드 볼링의 ≪Suite for Flute and Jazz Piano Trio≫를 중심으로 ····· 257

[지식과 교육]

▌강경균 · 성은모 · 한슬기▐

초등학교 진로연계교육 활동 운영에 대한 요구 분석 ····· 285

▌강선하▐

2022 개정 중학교 음악교과서 국악 감상곡 수제천 분석 연구 ···· 311

▌김덕신▐

어휘형성법과 문제해결학습(PBL)을 중심으로 한 신조어 교육 방안 연구 ····· 337

▌김도희▐

SoTL(Scholarship of Teaching and Learning) 관점에서 플립러닝 기반의 '고전 읽기' 강의 사례 연구 ····· 369

▌김혜경 · 문정경▐

대학 집중이수제 운영에 대한 학습자와 교수자의 인식 분석: A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 399

▌문일진▐

영어트랙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영어매개강의(EMI) 한국어 교육의 사례 연구 - 권역별 성취도 변화를 중심으로 ····· 429

▌이은경 · 곽봉화 ▐

티칭포트폴리오 활용과 학업만족도 간 관계 연구: 교수피드백과 메타인지 매개효과 ····· 455

▌최민지 · 최은지 ▐

AI 기반 한국어 학습 환경에서 중앙아시아 출신 유학생의 자기효능감 형성 경험 연구: 자기결정이론 관점을 중심으로 ····· 483

▌최선화 ▐

각색영화를 활용한 교양 수업에서의 변형적 학습 경험 탐색: 학습자의 회고적 서술 분석을 중심으로 ····· 505

▌최정아 · 한현석 ▐

4년제 대학생의 학적 이행경로 유형화 분석 ····· 545

▌한규은 · 오경은 ▐

정답을 의심하는 힘: 생성형 AI 응답 유형 분류에 기반한 비판적 실천 학습 교수모형 개발 ····· 571

▌황혜란 ▐

대학 교양교육에서 문학 기반 자전적 글쓰기 수업 연구: 오정희 「중국인 거리」를 활용한 외국인 유학생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 605

[지식과 사회]

▌김지영 · 한상헌 · 오세섭 ▐

'핫 플레이스'는 어떻게 지역정체성을 생산하는 '랜드마크'가 되는가?: 대전 '성심당' 내외부의 문화 실천을 중심으로 ····· 635

▌김창원 ▐

성경적 인간 이해에 근거한 총체적 치유 교육 모델 연구 ····· 667

▌박상호 · 김경 ▐

목회사역자의 인지적·사회적 특성이 지속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과 정서적 몰입의 연속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693

▌신광민 ▐

주디스 버틀러의 이론으로 본 한국 시위의 공연적 전환: 2015-2017년 광장 집회에 나타난 미학적 양식을 중심으로 ····· 741

▌오한승 · 서빛나래 ▐

롤랑 바르트의 게노-송 개념으로 본 한국 대중음악 보컬 유형론: 트로트와 발라드의 후렴 창법 분석을 중심으로 ····· 777

▌이화형 · 이희성 · 김수지 · 최용석 ▐

지역공동체 기반 마을축제의 지속가능성 연구: 홍성군 마을축제 사례를 중심으로 ····· 807

[지식과 과학]

▌오상훈 ▐

AI 연구의 발전과 사회적 책임: 기술에서 통제와 거버넌스까지 ·· 837

▌손정원 ▐

응급의료 종사자의 환자 취급(인력, 장비, 기술)과 근골격계 질환 사이의 연관성: 서술적 문헌 고찰 ····· 869

❖ 교양교육혁신센터 『지식과 교양』 논문투고 규정 ····· 895

❖ 교양교육혁신센터 『지식과 교양』 논문심사 규정 ····· 905

❖ 교양교육혁신센터 『지식과 교양』 연구윤리 규정 ····· 909

❖ 교양교육혁신센터 『지식과 교양』 편집위원회 규정 ····· 921

❖ 교양교육혁신센터 『지식과 교양』 인공지능 활용 윤리 지침 ··· 923

Knowledge and Liberal Arts

VOL 21. 2026

Liberal Arts Innovation Center, Mokwon University
DAEJEON, KOREA

TABLE OF CONTENTS

[Knowledge and Culture]

▌An, Bu Young ▌

Analysis of logical fixedness in critical reading among elementary students: centered on argument generation patterns ····· 13

▌Moon, Ui Jeong ▌

The Effects of Bilingual Ability on Adolescents' and Mothers' Self-Esteem in Multicultural Families: The Moderating Effect of Foreign Mothers' Korean Proficiency ····· 35

▌Park, Joo Hee ▌

Game-Based Learning for Coexistent Education: A Study on Gamification Application Cases ····· 65

▌Bang, Jin Suk ▌

The Effect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Curo AI Learning Experience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The Mediating Roles of Self-Awareness and Entrepreneurship ····· 79

▌Yu, Ri · Kim, Eun Song ▌

A Study on Strategies for Strengthening Writing Agency in the Era of Generative AI: Focusing on the Redesign of Education Objectives in College Writing Education ····· 117

▌Lee, Mi-ock ▌

A Study on Designing a Critical Writing Instruction Model for International Students Using Visual Thinking Strategies(VTS): Focusing on René Magritte's The Treachery of Images ····· 145

▌Lee, Sun Jung ▌

The Effects and Learners' Perceptions of a ChatGPT-Assisted Extracurricular English Resume Program ····· 177

▌Lee, Jung Ho ▌

Climate Change and Public Unrest in Goryeo Dynasty in the 14th Century ····· 209

▌Chun, Min Kyeong ▌

Critical Ambivalence and the Middlebrow Reception of Classical-Jazz Crossover: Focusing on Claude Bolling's ≪Suite for Flute and Jazz Piano Trio≫ ····· 257

[Knowledge and Education]

▌KyoungKyoon, Kang · Eunmo, Sung · Seulki, Han ▌

A Needs Analysis on Career-Linked Education Activities in Elementary Schools ····· 285

▌Kang, Sun Ha ▌

An Analytical Study of Sujecheon In the 2022 Revised Middle School Music Textbooks of the Korean Traditional Music Appreciation Curriculum ····· 311

▌Kim, Deokshin ▌

A Study on Teaching Korean Neologisms through Word Formation and Problem-Based Learning ····· 337

▌Kim, Do Hee ▌

A Case Study of 'classical reading' lecture based on flip learning from SoTL (Scholarship of Teaching and Learning) ····· 369

▌Hyekyung Kim · Jeong-kyung Moon ▐

An Analysis of Student and Faculty Perceptions of the University Intensive Course System: A Case Study of University A ····· 399

▌Moon, Il Jin ▐

An Analysis of the Effects of English-Mediated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English Track: International Students: Focusing on Changes in Achievement by Region ····· 429

▌Lee, Eun Kyung · Kwak, Bong Hwa ▐

A Study of Academic Satisfaction with Teaching Portfolio Use: The Mediation Effects of Professor Feedback and Metacognition ····· 455

▌Minji Choi · Eunji Choi ▐

A Study on Self-Efficacy Formation Experiences of Central Asian International Students in AI-Based Korean Language Learning Environments: Focusing on the Perspective of Self-Determination Theory ····· 483

▌Seonwha Choi ▐

Exploring Transformative Learning Experiences in a Liberal Arts Course Using Film Adaptations: Focusing on an Analysis of Learners' Retrospective Accounts ····· 505

▌Choi, Jungah · Han, Hyunsuk ▐

A Typology of Academic Status Trajectories among Students at Four-Year Universities ····· 545

▌Han, Kyueun · Oh, Gyungeun ▐

The Power to Question the Answer: Development of a Critical Action Learning Instructional Model Based on Generative AI Response Type Classification ····· 571

▌Hye-ran Hwang ▐

Literature-Based Autobiographical Writing Instruction in University General Education: A Case Study of International Students Using Oh Jung-hee's "Chinatown" ····· 605

[Knowledge and Society]

▌Kim, Ji Young · Han, Sang-heon · Oh, Se Seop ▐

How Does a 'Hot Place' Become a 'Landmark' That Produces Regional Identity?: Focusing on Cultural Practices Within and Around 'Sungsimdang' in Daejeon ····· 635

▌Kim, Chang Won ▐

A Study of a Holistic Healing Educational Model Based on the Biblical Understanding of Humanity ····· 667

▌Sangho Park · Kyung Kim ▐

The Effects of Pastoral Workers' Cognitive and Social Characteristics on Continuance Commitment: Focusing on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and Affective Commitment ····· 693

▌Shin, Kwang Min ▐

The Performative Turn in Korean Protests: A Perspective from Judith Butler's Theory: Focusing on the Aesthetic Forms Observed in the 2015–2017 Public Square Protests ····· 741

▌Oh, Hanseung · Seo, Bitnarae ▐

A Typology of Korean Popular Music Vocals Based on Roland Barthes' Concept of the Geno-Song: Focusing on the Analysis of Chorus Singing Techniques in Trot and Ballad ····· 777

▌Lee, Hwa Hyung · Lee Hee Sung · Kim, Su JI · Choi, Young Seok ▌
Sustainability of Community-Based Village Festivals: A Case Study of Village Festivals in Hongseong County ····· 807

[Knowledge and Science]

▌Oh, Sang-Hoon ▌
Advancements in AI Research and Social Responsibility: From Technology to Control and Governance ····· 837

▌Son, Jeong Won ▌
Association between patient handling tasks (personnel, equipment, and techniques factors) and musculoskeletal disorders among emergency medical services personnel: A narrative review ····· 869

● ● ● https://doi.org/10.54698/kl.2026.21.13
지식과 교양, 제21호,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Knowledge and Liberal Arts, Vol. 21, LIC, pp.13-34.

초등학생의 비판적 읽기에서 나타나는 논리적 고착 현상 분석

: 근거 생성 양상을 중심으로

안 부 영*

목 차

1. 연구의 필요성
2. 이론적 배경
3. 대상 및 연구 방법
4. 분석 결과
5. 결론 및 제언

1. 연구의 필요성

정보가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현대 사회에서 정보의 타당성을 주체적으로 평가하는 '비판적 읽기'는 읽기 교육의 핵심 가치 중 하나가 되었다. 이제 우리 사회는 텍스트의 주장에 매몰되지 않고 타당한 준거나 관점을 바탕으로 텍스트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며 읽는 역량을 독자에게 요구한다.

그러나 독자들은 비판적 읽기를 실제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빈번히 어려움을 겪는다. 이 어려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텍스트의 권위이다. Bennett[1]은 자신이 알고 있는 실재(지식)가 형태화되어 나타나는 것이

* 대구교육대학교 강사

1) Bennett, T. *Texts in history: The determinations of readings and their texts,* In Post-structuralism and the question of hist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텍스트라는 전제로 인해 읽기에서 텍스트는 특정한 방식으로 '읽혀야 하는 대상'으로, 독자는 '특정한 방식으로 읽어야 하는 주체'라는 관점이 통용(p. 70)되어 왔다고 비판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텍스트의 의미가 이미 저자에 의해 결정되었기 때문에 독자는 그 의미를 충실히 복원하는 읽기만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텍스트가 객관성을 가진다고 규정하기에는 텍스트의 생산 배경인 현대 사회는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하다. 단일한 가치가 지배하던 과거와 달리, 현대 사회에는 고유한 가치들이 끊임없이 충돌하면서 상호작용한다. 필자는 이러한 복잡한 현실의 단면을 포착한 후 자신만의 관점을 투영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생산된 텍스트는 필연적으로 특정 가치를 지지하는 성격을 지닌다. 그러므로 텍스트가 내세운 논리는 해당 사안을 바라보는 여러 관점 중 하나를 지지하기 위하여 구조화되었으며 따라서 이것이 언제나 절대적인 정당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텍스트의 이러한 특성은 독자가 텍스트의 내적 논리에 사고가 고착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읽기를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한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모든 가치가 동일한 층위에 존재하지 않으며 사안에 따라 우선시되어야 할 가치의 위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독자는 텍스트가 내세우는 논리가 다양한 관점에서 타당하고 합리적인지를 평가하며 읽기를 해야 한다.

독자의 읽기 수행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이 과정은 텍스트에서 제기하는 문제를 독자가 새로운 시각에서 조망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하지만 미숙한 초등학생들에게는 자신의 인지 체계를 유연하게 재구조화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일반적인 미숙한 독자는 자신의 기존 입장이나 배경 지식이 독해 과정에서 강화되거나 유지되는 '확증 편향'을 보이기도[2]하지만 텍스트의 내용과 관련한 배경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 텍스트의 내용과 관련한 배경 지식이 충분하지 않을 때에는

2) 김동욱, 「고등학생의 논증적 텍스트 독해에서 드러나는 편향 양상 연구」, 『독서연구』 44권, 한국독서학회, 2017, 69-94쪽.

텍스트에 대한 판단을 내릴 준거가 없기 때문에 텍스트에 대한 권위에 기대어 그것의 논거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대체로 초등학생들은 텍스트를 비판적 읽기의 대상이 아닌 절대적인 지식의 원천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배경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초등학생의 읽기에서는 텍스트의 논리 내에서 사고가 머무르는 '논리적 고착(logical fixation)'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비판적 읽기를 수행하는 데 일정한 한계를 보일 수도 있다.

초등학생의 비판적 읽기에서 나타나는 이와 같은 특성에 대해 심층적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초등학생 독자가 텍스트의 논거에 고착되는 구체적인 양상에 대한 실증적 탐색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결국 교실에서 초등학생의 비판적 읽기 능력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단초가 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초등학생 독자가 텍스트의 논거에 고착되는 현상을 근거 생성 양상을 통해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비판적 읽기 교육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1) 인지적 고착의 개념과 기제

고착(fixation)이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때 과거의 경험이나 특정 정보에 사로잡혀 대안적인 사고를 수행하지 못하는 심리적 상태[3]를 말한다. 가지고 있는 스키마나 고정관념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방해하고 이를 토대로 결과적으로 문제 해결을 가로막는 인지적 장애물로 작용할 때 인지 구조가 고착에 빠진 것으로 볼 수 있다.

3) Luchins, A. S. "Mechanization in problem solving: The effect of Einstellung", *Psychological Monographs*, vol. 54, no. 6, 1942, pp.i-95.

고착에 관한 초기 이론을 정립한 Maier[4]는 '두 줄 문제(two-string problem)' 실험을 통해 방향성 고착을 체계화하였다. 그는 피험자들이 도구의 본래 용도에만 집중한 나머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구의 용도를 변경하는 사고 단계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특히 Maier는 피험자들이 외부의 자극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기존의 사고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마련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Maier의 연구는 인간의 사고가 특정 방향으로 고착되면 그것을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Duncker[5]는 Maier의 논의를 이어 기능적 고착(functional fixedness) 개념을 제시하였다. 그는 '양초 문제' 실험을 통해 도구가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장면이 먼저 제시될 경우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은 제시된 용도로만 해당 도구의 기능을 인식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즉, 먼저 제시된 장면에 사고가 고정되어 다른 방식으로 그 도구를 활용할 수 있음을 떠올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고착이 단순히 지식 부족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사고가 다른 사고의 발생을 차단함으로써 일어나는 인지적 현상임을 보여준다.

도구의 사용에만 한정되었던 고착에 대한 연구는 Smith[6]에 의해 인지적 영역에서의 고착으로 확장되었다. Smith는 전형적인 예시가 사전에 제공될 경우 이로 인해 독창적 사고가 억제되는 현상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때 사전에 제시된 예시를 명료한 정답으로 인식하고 이를 무의식적으로 복제하려는 인지적 특성 때문이다. 따라서 사전에 제시된 예시는 사고의 확장을 제한하는 인지적

4) Maier, N. R. F. "Reasoning in humans. II. The solution of a problem and its appearance in consciousness", *Journal of Comparative Psychology*, vol. 12, no. 2, 1931, pp.181-194.

5) Duncker, K. "On problem-solving", Psychological Monographs, vol. 58, no. 5, 1945, pp.i-113.

6) Smith, S. & Ward, T. & Schumacher, J. "Constraining Effects of Examples in Creative Generation Task", Memory & cognition, 21, 1993, pp.837-845.

구속으로 작용하며 이로 인해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생성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또한, Smith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가 먼저 제시되었을 때에도 피험자들은 처음에 접한 잘못된 논리를 무의식적으로 추종한다는 사실도 실증하였다. 사전에 제시된 정보보다 더 타당한 방법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사고에 있어 우선순위를 차지하였기 때문에 사고가 확장되지 못하는 것이다.

Maier, Duncker, Smith로 이어지는 고착 관련 연구들은 특정한 사고가 한번 형성되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사고를 하기가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탈 고착(defixation)' 사고가 어려운 이유는 고착 현상이 일어나도 인간이 그것을 자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Bilalić 등[7]은 피험자들이 고착 현상에 빠져 있으면서도 스스로는 그에 벗어난 사고를 하고 있다고 확신하는 현상에 주목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 Blech 등[8]은 특정한 정보가 제공되면 이와 관련한 특정 기억이 활성화되는데 이때 활성화된 기억은 제공된 정보와 관련된 요소에만 주의를 집중하도록 인지를 편향시키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인지적 고착 현상은 독자의 읽기 행위에서도 나타난다. 적절성과 정합성을 따지지 않고 텍스트가 내세운 논리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면서 텍스트의 논거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것은 텍스트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따지는 과정을 생략하게 만들어 결국 비판적 읽기의 실패를 야기한다.

2) 논리적 고착의 개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물이나 도구의 기능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시작된 고착 현상에 대한 연구는 Smith에 의해 사고의 영역으로 확장되었

7) Bilalić, M., McLeod, P. & Gobet, F. "Why good thoughts block better ones: the mechanism of the pernicious Einstellung (set) effect", Cognition, 108, 2008, pp.652-661.

8) Blech, C., Gaschler, R. & Bilalić, M. "Why do people fail to see simple solutions? Using think-aloud protocols to uncover the mechanism behind the Einstellung (mental set) effect", *Think Reason*, 26, 2020, pp.552-580.

다. 고착 현상을 발견한 대상은 달랐지만 이들의 연구는 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산출하는 영역에 한정되었다. Maier나 Duncker은 고착 상태에서 사물이나 도구의 본래의 속성이나 기능에서 벗어나는 아이디어를 마련할 수 있는지를 살폈고, Smith는 제시한 예시를 벗어나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담긴 디자인을 산출할 수 있는지를 살폈다. 이들은 모두 창의적 사고를 저해하는 요인으로서 고착에 주목한 셈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고착 현상은 창의적 사고의 저해 요인으로서가 아니라 텍스트가 제시하는 논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읽기 과정으로서의 고착이다. 본 연구는 이를 '논리적 고착'으로 명명한다. 본 연구는 논리적 고착을 텍스트가 제시한 특정 가치나 논거를 절대적 기준으로 삼아 그에 반하는 외부 정보나 대립되는 관점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현상으로 정의한다.

예를 들어, '종이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자'는 주장을 제시하는 텍스트가 있다고 해 보자. 이 텍스트는 쉽게 쓰고 버리는 종이컵 때문에 환경이 파괴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여러 번 쓸 수 있는 텀블러를 사용하는 것이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을 핵심 논거로 제시하였다. 이 경우 독자는 환경이라는 가치와 파괴 혹은 보호라는 이분법적 대비로 인해 텍스트의 논거를 쉽게 수용하는 논리적 고착이 일어날 수 있다. 논리적 고착이 일어난 독자는 스테인리스 텀블러의 경우 최소 220회 이상 사용해야만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환경 개선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과 이 소재의 텀블러를 생산하고 폐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종이컵의 최대 10배 이상이라는 점[9]등은 간과한다. 그리하여 텀블러를 구매하고 소유하는 행위가 곧바로 환경 보호의 실천이라는 인식이 고착화되면서 텀블러가 환경을 보호하는 도구라는 오개념을 형성한다. 논리적 고착에 빠진 독자는 환경 보호 도구로서의 텀블러의 위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회 사용이라는 필수 전제를 인식하지 못할 뿐더러 환경 보호

9) 윤서하, "텀블러, 200번 이상 써야 '친환경' 효과 있다", <조선일보>, 2021.10.18.

라는 본질적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더 우선시되어야 할 행위(예: 물건을 하나 사서 오래 쓰기)와 단순한 행위(예: 텀블러 구매하기) 사이의 위계도 판단하지 못하게 된다.

이처럼 논리적 고착은 단순히 정보를 잘못 이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텍스트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과정을 생략하게 하여 텍스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지 못하게 만든다. 또한, 자원을 낭비하는 텀블러의 과다 소비(생산)와 같이 오히려 본질을 해치는 집단적 실천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독자의 논리적 고착은 이해관계와 가치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대 사회에서 공동체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가로막는 중대한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논리적 고착은 초등학생 독자에게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 초등학생은 정보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인지적 능력이 발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텍스트의 권위나 일면 합리적으로 보이는 그럴싸한 논거에 매몰될 가능성이 더 높다. 특히 텍스트의 논거를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경험이 누적될 경우 비판적 읽기 주체로 성장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본 연구는 초등학생 독자에게서 나타나는 논리적 고착의 실제적 양상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초등학생 독자의 비판적 읽기 역량을 강화하고 논리적 고착을 해소할 수 있는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3. 대상 및 연구 방법

1) 참여 대상

본 연구는 초등학생 독자에게 나타나는 논리적 고착의 실제적 양상을 규명하기 위해 강원도, 경기도, 경상도 지역의 초등학교 5개교에 재학 중인 3, 4학년 학생 96명을 참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참여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표 1] 참여 대상

지역	학년 및 인원
강원도	3개교 4학년 58명
경기도	1개교 3학년 27명
경상도	1개교 4학년 11명

학년군에 따른 이해력 차이를 고려하여 참여 대상자의 연구 참여 기간 차이를 한 학기 정도 두었다. 3학년 학생들은 2025년 1월 연구에 참여하였고 4학년은 같은 해 6월에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격적인 비판적 읽기를 학습하는 5, 6학년이 아닌 3, 4학년 학생들을 참여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첫째,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과 관련이 있다.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따르면 3-4학년군은 단순히 정보 확인이나 정서적 반응을 확인하는 차원을 넘어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고 글이나 자료의 출처 및 신뢰성을 평가하는 등 비판적 읽기가 시작되는 단계이다. 이 시기의 학습자는 텍스트의 논리를 분석하고 필자의 의견과 자신의 생각을 비교하며 읽기를 하는 등 비판적 읽기 주체로서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한다. 그러므로 이 시기의 학습자들에게 나타나는 논리적 고착 양상을 점검하는 것은 학습자의 비판적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둘째, 읽기 발달 관점에서 볼 때 3-4학년군은 고착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시기이다. Chall[10]의 읽기 발달 단계에 따르면, 3학년은 글자를 해독하는 단계를 넘어 내용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학습을 위한 읽기(Reading to Learn)' 단계로 진입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의 독자는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 텍스트를 전적으로 신뢰하려는 경향과 텍스트에 대한 비판적 의심 사이에서 인지적 갈등을 겪게 되는데 이때 텍스트의 권위에 압도될 경우 논리적 고착이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독

10) Chall, J. S. *Stages of reading development* (2nd ed.), Fort Worth, TX: Harcourt Brace College Publishers, 1996.

자의 논리적 고착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비판적 읽기와 관련한 효율적인 교육적 처치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된다.

연구자는 본격적인 자료 수집에 앞서 참여자의 자발적 참여 의사를 확인하였다. 우선 연구에 참여하기로 한 각 학교의 교사들과 면담을 실시하여 연구의 목적과 전체적인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였으며 연구 과정에서의 유의 사항을 공유하였다. 이후 해당 학급의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구의 취지 및 데이터 활용 범위를 설명하고 연구 참여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약속한 후 서면 동의를 획득하였다.

자료 수집은 학습자의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구자가 아닌 각 학급의 담임 교사가 직접 수행하였다. 담임 교사는 연구자와 사전에 협의된 절차에 따라 근거 생성 과제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학생들의 활동지는 연구자에게 제공되었다. 연구자는 제공받은 자료에서 개인정보를 비식별화 처리 후 활용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쟁점 중에 초등학생들에게 낯설지 않은 쟁점을 다룬 텍스트를 검사 도구로 활용하였다. 해당 텍스트는 A광역시 4학년 학생 평가 도구로 개발된 문항의 지문으로 일부의 문장이나 표현은 학년성을 고려하여 수정되었다. 제공된 텍스트는 전체 4개 문단으로 구성되었고, 각 문단은 3~4개의 짧은 문장으로 이루어졌다. 수정된 텍스트에 대해 본 연구의 자료 분석에 참여한 6인의 교사가 학년 적절성이나 내용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텍스트는 최근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된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차량의 강제 파손 문제를 다루고 있다. 제시된 텍스트는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개인의 재산을 함부로 파손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제시한다. 이 텍스트는 개인의 재산권은 보호받아야 하고 불법 주차로 인해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다면 불법

주차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차 구역 마련이나 소방차 통행로 확보와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논거를 제시한다.

텍스트를 다 읽고 나서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텍스트가 제시하는 주장과 반대되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구성하는 과제가 부여되었다. 즉, "나는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차량은 파손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라는 반대 주장이 이미 제공된 상태에서 참여자들은 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한 문장으로 쓰는 과제를 수행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초등국어교육을 전공하여 석사 학위를 소지한 현직 교사 6인이 수행하였다. 이들은 연구 참여자들이 생성한 근거가 텍스트가 제시한 논거를 벗어나 타당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내용 분석법(content analysis)을 활용하였다. 부연하자면, 연구 참여자가 텍스트가 강조하고 있는 '재산권 보호' 논거에 고착되어 반대 근거 생성에 실패하는지, 아니면 재산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생명 존중'의 가치를 도출하여 텍스트의 논거를 타당하게 반박하는지가 주요 분석 기준이 된 것이다.

분석자들은 수집된 자료에서 타당한 근거와 그렇지 않은 근거를 구별하고, 타당하지 않는 근거의 유형을 분류화하였다. 또한 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6인의 분석진은 참여자들의 응답을 반복 검토하며 유사한 사고 유형을 유목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분석자들은 각자 수행한 자료 분류 결과가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교차 검토를 수행하였다. 분석자 간 의견이 상충하는 사례는 토의를 거쳐 합의된 결과만을 최종 선택하였다.

4. 분석 결과

수집된 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응답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는 연구에 참여한 6인과 함께 각 유형을 '단순 재현', '완전 고착', '인지 갈등', '탈 고착'으로 명명하였다. 이 중에서 탈-고착은 논리적 고착에서 벗어나 교육적 방향과 부합하는 논리적 사고를 수

행한 경우에 해당하고 나머지 3가지 유형은 그렇지 않은 논리적 고착으로 판정하였다.

먼저, 각 유형에 대해 살펴보면 '단순 재현'은 텍스트의 세부 정보를 단순 반복 경우이다. 이들은 새로운 논거를 생성하지 못하고 텍스트에 제시된 내용을 단순히 반복하는 형태로 근거를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소방차 전용 구역에 주차했기 때문이다' 혹은 '해당 차량이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또는 '지금 소방차가 급한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소방차가 지나가는데 불법 주차를 했기 때문에'와 같은 응답이 대표적으로, 이들은 텍스트에서 제공한 정보 이외의 다른 논리적인 근거를 떠올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비판적 읽기가 아예 작동을 하지 않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즉, 자신만의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텍스트의 논거를 수용하였는지 혹은 불수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따라서 이는 엄밀하게는 논리적 고착이 일어난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텍스트가 내세우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한 여러 가지 사실(정보)을 자신의 논거로 차용(借用)하고 있다는 것은 텍스트의 논거를 거부하거나 비판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역시 논리적 고착으로 포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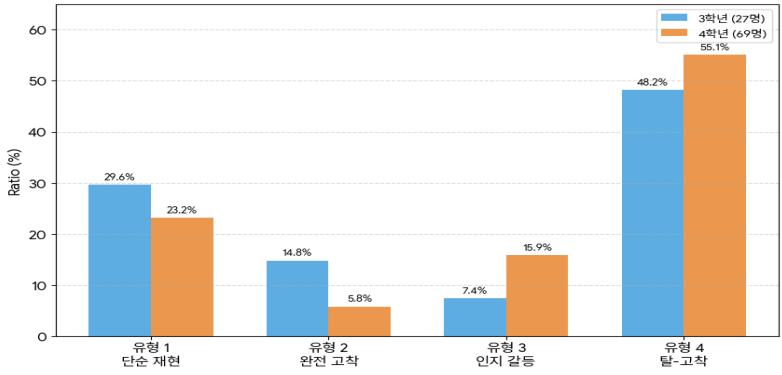
두 번째, '완전 고착'은 텍스트에서 내세우는 논거에 고착되어 반대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적극적으로 생산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이들은 텍스트의 주장과 반대되는 주장을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텍스트가 내세운 논거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예를 들어 '차 주인도 차를 파손하면 슬프고 억울하기 때문이다' 혹은 '생명만큼 재산도 소중하기 때문이다' 또는 '차를 부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기 때문' 와 같은 응답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논리적 고착에 빠져 텍스트가 내세운 '재산권 보호'를 반대하는 가치 창출을 차단하는 모습을 보였다.

세 번째, '인지 갈등'은 텍스트가 내세운 논거와 그보다 상위의 가치 사이에서 충돌을 느끼며 판단을 유보하는 경우이다. 이들은 텍스트가 내세운 논거를 깨려는 시도를 하나 텍스트의 '재산권'이라는 강력한 논거 때문에 명

확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산도 중요하지만 소방활동도 중요하다', '부서진 차는 보상해 주면 되기 때문이다' 혹은 '재산도 소중하지만 그곳에 생명이 있을 수 있다', '불이 난 곳의 주인도 재산을 잃고 있기 때문에 차를 부수어 그 집 재산을 지켜주어야 한다'와 같은 응답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텍스트의 논거와 반대 주장의 논거 사이에서 자신만의 비판적 관점을 정립하지 못하고 경제적 보상 같은 방법으로 '재산'과 '생명'의 가치를 수평적으로 나열하였다.

마지막 유형은 논리적 고착에서 벗어난 '탈 고착'의 경우이다. 이들은 적절한 근거를 찾아 텍스트 논거를 성공적으로 이탈하였음을 의미한다. 해당 유형에 속한 학생들은 재산권보다 더 상위의 가치인 생명 존중을 떠올려 텍스트의 주장을 타당하게 비판하였다. 즉, 텍스트가 설정한 재산권 보호보다 인류 보편적인 가치인 생명 존중을 반대 근거로 제시함으로써 텍스트에 대한 타당성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였다. '차는 돈으로 살 수 있지만 목숨은 살 수 없다' 혹은 '재산은 계속 생겨도 생명은 1개다'와 같은 응답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은 재산의 대체 가능성과 생명의 대체 불가능성의 비교를 통해 타당한 비판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므로 이들은 논리적 고착이 일어나지 않고 비판적 읽기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각 유형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논리적 고착에서 벗어나 텍스트 논거를 성공적으로 반박한 탈 고착화(유형 4)의 경우가 51명(약 53.1%)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새로운 논거를 생성하지 못하고 텍스트의 내용을 되풀이한 단순 재현(유형 1)이 24명(약 25%)으로 그다음으로 많이 나타났다. 텍스트의 논거에 고착되지는 않았으나 논리적으로 타당한 논거를 마련하였음에도 텍스트를 비판적으로 평가하지 못한 인지 갈등(유형 3)이 13명(약 13.5%)으로 세 번째로 많은 분포를 보였다. 반면, 텍스트의 논거에 고착되어 반대 주장을 펼치지 못한 완전 고착(유형 2)은 8명(약 8.4%)으로 가장 적은 빈도를 보였다.



[그림 1] 학년에 따른 논리적 고착 유형

대다수의 학생들이 논리적 고착에 빠지지 않고 주어진 텍스트의 논리를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텍스트에 대한 비판적 읽기를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한 학생들도 33.3%에 이르렀다. 이는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 중 1/3에 이르는 수치로, 적지 않은 학생들이 비판적 읽기를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학년에 따른 차이도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났다. 먼저 읽기 방법 중 사실적 읽기에 중점을 두고 학습을 하였던 3학년 학생들은 대체로 비판적 읽기를 활발하게 수행하지 못함을 보였다. 텍스트의 세부 정보를 단순히 재현하거나 완전 고착에 빠져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관점을 비판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유형이 44.4%에 달했다. 이중에서도 텍스트의 세부 내용을 그대로 재현하는 수준이 완전 고착에 빠져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반박하지 못하는 유형보다 대략 2배 정도 더 많이 나타났는데 이는 3학년 수준에서는 비판적 읽기가 대단히 어려운 읽기 방법이라는 점과 이 수준의 학생들은 정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기보다 수용적 읽기를 하는 경우가 많음을 의미한다.

4학년의 경우는 텍스트의 논거를 다른 관점을 통해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탈 고착 현상이 비교적 잘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4학년 학생 중 텍스트의 논거를 타당하고 합리적으로 반박하며 비판적 읽기를 수행한 학생들은 연구에 참여한 이들의 반이 넘는 수치(55.1%)였다. 3학년 학생 중 이와 같이 답한 유형도 48.2%로 그 수치가 낮지는 않으나 3학년 학생에 비해 4학년 학생들이 비판적 읽기를 더 잘 수행할 수 있고 따라서 이들이 비판적 읽기 역량을 더 갖출 수 있다고 보여진다. 결과적으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논리적 고착에서 벗어나 텍스트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이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학년별 논리적 고착 양상을 비교해 보면,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텍스트의 내용을 표면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텍스트의 논거를 다양한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이해하려는 읽기가 시도됨을 확인할 수 있다. 텍스트의 내용을 단순 반복하는 유형 1(표면적 정보의 단순 재현)이 3학년에서는 29.6%가 나타났지만, 4학년에서는 23.2%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년이 낮을수록 텍스트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읽기를 수행하기보다 텍스트에 담겨 있는 단순한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에 목적을 둔 읽기를 수행함을 의미한다.

무엇보다도 4학년 학생들 중 텍스트가 제시한 논거와 그보다 더 상위의 가치 사이에서 인지적 충돌을 느끼는 경우(유형 3)가 3학년 학생들에 비해 2배 이상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텍스트에서 내세우는 논거에 대해 그 타당성이나 신뢰성을 따져보려는 읽기를 시도한다는 점을 드러낸다. 이는 텍스트의 주장을 합리적이고 정확하게 비판하며 텍스트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비판적 읽기 역량의 획득 신호로 볼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비판적 읽기에서 논리적 고착 현상이 어떠한 양

상으로 나타나는지를 텍스트 주장에 반대되는 주장에 합당한 근거를 생성하는 과제를 통해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의 비판적 읽기 과정에서 논리적 고착 현상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초등학생들은 텍스트에서 내세운 논거를 수용하여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견해를 배제하는 고착 현상을 보이기도 하였지만, 일부의 경우는 텍스트가 제시한 내용을 그대로 재현하거나 텍스트가 내세운 논거와 그 논거를 반박할 수 있는 다른 논리적 근거 사이에서 더 타당한 가치를 선택하지 못하고 동치(同値)를 선택하는 논리적 고착 현상을 보이기도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둘째, 학년이 낮을수록 읽기에서 논리적 고착 현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3학년의 경우 텍스트 정보를 단순 재현하거나 텍스트 논거를 그대로 수용하여 텍스트에서 내세우는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적절하고 타당한 근거를 생성하지 못하는 학생이 4학년 학생에 비해 많았다. 이는 비판적 읽기가 어려운 읽기 방법이며 따라서 3학년 수준에서는 텍스트에서 내세우는 주장이 틀릴 수도 있음을 인식하도록 하고 4학년 수준에서는 텍스트의 주장이 어떠한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지를 분석할 수 있도록 교육적 비계를 마련해 주어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대체로 초등학생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합리적이고 적절한 근거를 사용하여 텍스트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인하는 비판적 읽기를 더 잘 수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텍스트를 비판적으로 읽지 못하는 학생들도 매우 많음을 확인하였다. 3학년 학생의 경우는 과반이, 4학년 학생의 경우는 과반보다 조금 적은 수의 학생들이 비판적 읽기를 정확하게 수행하지 못함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론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비판적 읽기를 실질적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교과서의 제재가 다양화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주장과 관련하여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서 다루었던 제재는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를 그대로 담고 있는 주제에 치중

한 경향이 있었다. 예를 들어 '환경 보호'나 '우리 전통 음식을 사랑하자', 혹은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처하는 자세', '우리말을 바르게 사용하자'와 같은 것인데 이러한 주장은 사회적으로 합의한 정답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학습자 입장에서는 이 글을 읽고 다른 관점으로 사고를 전개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이러한 유형의 제재를 반복적으로 다루게 되면 학습자들은 특정한 문제에 서로 다른 관점이 얽혀 있음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이는 곧 논리적 고착을 더욱 심화시켜 비판적 읽기의 연습을 방해하게 된다. 따라서 다양한 가치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실제 우리 삶의 문제를 다루는 텍스트를 발굴하여 이를 활용하여 교과서를 구성해야 한다.

둘째, 교사의 교수 방법 중 발문 전략과 관련하여 관점을 다양화하는 구체적인 발문과 그 적용 사례가 개발되어야 한다. 교사의 발문은 다양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 특히 학습자의 사고를 자극하는 발문은 학습의 방향을 전환시키고 새로운 관점의 획득을 유도하기 때문에 교수 과정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예를 들어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차 차량을 부수는 것은 재산권의 침해라는 텍스트에 대해 교사가 텍스트에서 내세우는 주장과 그 주장에 대한 근거 그리고, '이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려면 어떤 근거를 드는 것이 좋을까?'와 같이 텍스트의 논거를 반박할 수 있는 사고를 유도하는 발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발문은 텍스트의 논거를 주어진 사실이 아닌 비판적 검토 대상으로 전환시키기 때문에 학생들은 텍스트의 주장에 매몰되는 논리적 고착에서 벗어나 비판적으로 텍스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발문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업에서 교사는 인지·기억적 발문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반면 사고력을 자극하는데 효과적인 확산적 사고 발문과 평가적 사고 발문 유형을 매우 드물게 사용[11]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학생의 사

11) 조연순·우재경,「초등 과학 수업에서 교사의 발문과 반응 유형 분석-사고력 신장의 측면에서-」,『교육과학연구』27권 1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 1998, 51-69쪽.

고력 자극과 관련한 다양한 발문의 유형과 이를 실제 수업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PCK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판적 읽기를 수행할 때 필자의 관점을 확인하는 질문, 글에 드러나 있지 않지만 필자가 전제로 하는 사실, 필자가 특정 대상에 대해 취하고 있는 태도 등과 관련한 다양한 발문 전략과 이를 실제 수업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마련하여 현장에 보급해야 한다.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비판적 읽기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논리적 고착 현상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논의된 논리적 고착의 양상과 교육적 대안들이 교육 현장에 반영되어 학습자의 비판적 읽기 능력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기초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단행본

Bennett, T. *Texts in history: The determinations of readings and their texts*, In Post-structuralism and the question of hist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Chall, J. S. *Stages of reading development* (2nd ed.), Fort Worth, TX: Harcourt Brace College Publishers, 1996.

논문

김동욱,「고등학생의 논증적 텍스트 독해에서 드러나는 편향 양상 연구」,『독서연구』44권, 한국독서학회, 2017, 69-94쪽.

안부영,「교과서 수록 제재 중 논설문의 정보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교원교육』38권 1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원, 2022, 27-42쪽.

조연순·우재경,「초등 과학 수업에서 교사의 발문과 반응 유형 분석-사고력 신장의 측면에서-」,『교육과학연구』27권 1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 1998, 51-69쪽.

Bilalić, M., McLeod, P. & Gobet, F. “Why good thoughts block better ones: the mechanism of the pernicious Einstellung (set) effect”, *Cognition*, 108, 2008, pp.652-661.

Blech, C., Gaschler, R. & Bilalić, M. “Why do people fail to see simple solutions? Using think-aloud protocols to uncover the mechanism behind the Einstellung (mental set) effect”, *Think Reason*, 26, 2020, pp.552-580.

Duncker, K. “On problem-solving”, *Psychological Monographs*, vol. 58, no. 5, 1945, pp.i-113.

Maier, N. R. F. “Reasoning in humans. II. The solution of a problem and its appearance in consciousness”, *Journal of Comparative Psychology*, vol. 12, no. 2, 1931, pp.181-194.

Luchins, A. S. “Mechanization in problem solving: The effect of Einstellung”,

Psychological Monographs, vol. 54, no. 6, 1942, pp.i-95.

Smith, S. & Ward, T. & Schumacher, J. "Constraining Effects of Examples in Creative Generation Task", *Memory & cognition*, 21, 1993, pp.837-845.

신문기사

윤서하, "텀블러, 200번 이상 써야 '친환경' 효과 있다", <조선일보>, 2021.10.18.

국문초록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비판적 읽기에서 텍스트의 논거에 대한 무비판적 수용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비판적 읽기 교육에 시사점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에서 제시하는 논거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현상을 인지심리학의 고착(fixedness)개념을 빌려 '논리적 고착'으로 명명하였다. 논리적 고착이란, 텍스트가 제시하는 특정 가치나 논거를 절대적 기준으로 삼아 그에 반하는 외부 정보나 대립되는 관점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현상을 말한다.

본 연구에는 경기도, 강원도, 경상도 소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3~4학년 총 96명이 참여하였다. 연구자는 이들에게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차 차량과 관련한 주장이 담긴 텍스트를 제공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해당 텍스트와 반대되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과제에 참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초등국어교육을 전공한 석사 학위 소지 현직 교사 6인이 내용 분석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다양한 유형의 논리적 고착 현상이 발견되었다. 첫째는 텍스트의 표면적 내용을 그대로 재현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다른 논거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엄밀히는 논리적 고착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텍스트가 내세우는 주장과 관련 있는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논리적 고착의 범주에 포함하였다. 둘째는 텍스트의 논거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경우이다. 셋째는 텍스트의 논거와 그에 반하는 논거 사이에서 충돌을 느끼며 두 관점을 등치하는 경우이다.

논리적 고착 현상은 학년이 낮을수록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텍스트 논거에 탈 고착화하는 비판적 읽기를 수행함을 확인하였다. 전체적으로 비판적 읽기를 적절히 잘 수행하는 비중이 높았으나, 약 33.3% 정도의 학생들은 비판적 읽기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

러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첫째, 사회적 정답이 이미 정해져 있어 다른 관점의 사고를 전개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기존 교과서 제재의 한계를 지적하며 교과서의 제재의 변화를 제언하였다. 또한, 실제 수업에서 교사가 학습자의 사고력을 자극하는 확산적 사고 발문의 사용 빈도가 낮음을 지적하며 관점을 다양화하는 구체적인 발문과 그 적용 사례가 개발되어야 함도 제언하였다.

주제어 ● 비판적 읽기, 논리적 고착, 초등학생의 읽기, 읽기 교육, 근거 생성

Abstract

Analysis of logical fixedness in critical reading among elementary students
: centered on argument generation patterns

An, Bu Young/Daeg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is study analyze the process of critical reading comprehension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To this end, it proposes the concept of ‘logical fixedness’ and analyzes its occurrence during the critical reading of argumentative texts among 96 student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content analysis by six teachers with master's degrees in elementary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study identified various types of logical fixedness. Some students merely reproduced the surface-level content of the text, while others uncritically accepted arguments. Additionally, some treated conflicting perspectives as equally valid without further evaluation. Second, although a high percentage of students generally performed critical reading, approximately 33.3% could not unable to engage in the process. Third, students' ability to engage in critical reading by overcoming logical fixedness improved as their grade level increased.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first suggests diversifying the types of reading materials in textbooks. Second, it emphasizes the necessity of providing teachers with specific questioning strategies and practical resources.

Keyword ● Critical Reading, Logical Fixedness, Elementary Students' Reading, Reading Education, Argument Generation

▌논문투고일:2026.05.06. ▌심사완료일:2026.06.19. ▌게재확정일:2026.06.24. ▌

● ● ● https://doi.org/10.54698/kl.2026.21.35
지식과 교양, 제21호,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Knowledge and Liberal Arts, Vol. 21, LIC, pp.35-64.

다문화청소년의 이중언어능력이 청소년과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 외국인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의 조절효과

문 의 정*

목 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연구의 방법
4. 연구의 결과
5. 결론 및 제언

1. 서론

한국 사회는 상당한 기간 동안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학적 위기를 겪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0명에 불과하며, 이는 2000년 1.48명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한 결과이다[1]. 출산율 저하는 학령기 인구 감소로 이어져 왔으나, 다문화학생의 증가로 인해 이러한 추세가 부분적으로 보완되고 있다. 학국교육개발원의 2025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 다문화 학생 수는 약 20만 명 이상으로 전체 학생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다문화 학생 중 초등학생은 116,601명, 중학생은 51,172명, 고등학생은 33,622명으로 향후 다문화

* 한남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부교수
1) 국가데이터처, 『2025년 출생·사망통계(잠정)』,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6.

아동이 청소년기로 빠르게 진입할 것을 보여준다.[2] 청소년기는 신체적·정서적·사회적 변화가 집중되는 시기로, 학업성취와 진로설계, 정체성 형성, 또래관계 등 사회진출 준비의 핵심 단계이기도 하다. 그런데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성취는 비(非)다문화청소년에 비해 꾸준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학업중단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3] 이들의 학교 및 사회적응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이에 다문화청소년의 학교 부적응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차원에서의 노력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

성평등가족부의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2023~2027)」에서는 '다문화 아동과 청소년의 동등한 출발선 보장'을 목표로 다문화가족 자녀의 기초학력지원과 한국어 교육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이중언어 역량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는데, 다문화가족 자녀의 이중언어 능력을 강점으로 개발하여 글로벌 인재로서의 성장을 지원하며, 정서적 안정 및 부모와의 소통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4] 교육부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2023~2027)」에서는 이중언어능력을 갖춘 다문화청소년이 글로벌 문화적 가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러한 이중언어능력이 부모와의 원활한 소통을 가능하게 하여 정서적 유대감과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5] 이렇듯 국가정책에서 이중언어교육은 학업을 넘어 심리적 적응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다문화청소년의 이중언어능력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출신 국가의 언어를

2)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25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 발표」, 2025.

3) 이채영, 「지역 규모별 사교육과 공적 교육지원이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이민정책연구원 워킹페이퍼 시리즈 No. 2025-01, 이민정책연구원, 2025.

4) 성평등가족부,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2023~2027)」, 성평등가족부 정책자료, 2023.

5) 교육부,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2023~2027)」, 2023.; 교육부, 『2024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2024.

구사할 수 있는 다문화청소년은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감이 높았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기능 발휘에 대한 믿음 또한 높았다.[6] 다문화청소년은 이중언어능력으로 부모와의 긍정적 관계 형성이 용이하여,[7] 부모의 지지를 높게 지각할 수 있었으며 이는 자아존중감 증가로까지 이어졌다.[8] 또한, 다문화청소년의 이중언어능력은 부모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부모와 자녀 간 원활한 의사소통이 된다는 것은 부모의 생각과 감정이 공유되고, 서로에 대한 기대와 가치가 세대 간 갈등 없이 자연스럽게 전이될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으로써,[9] 다문화가족 내 외국 출신 어머니들은 이러한 과정에서 긍정적 경험을 하였다.[10]

한편 선행연구들은 다문화청소년의 이중언어능력이 청소년과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때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다. 다문화청소년의 이중언어능력이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정서적 교류를 촉진하여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한다면, 청소년 자녀의 이중언어능력은 한국어능력이 부족한 어머니를 둔 가족에서 더욱 큰 보상적 효과를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11] 반면, 이중언어를 통한 원활한 의사소통이 두 개의 문화

6) 고은선·김성훈,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언어능력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중언어학』, 2018, 1-23쪽.

7) 송채수, 「이중언어사회화가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자기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동남아출신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인 아버지의 자녀를 중심으로」, 『아시아문화연구』 48호, 2018, 245-280쪽.

8) 박정윤·박현지,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언어능력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부모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2021, 157-181쪽.

9) Benner, A. D., Boyle, A. E. & Sadler, S., "Parental involvement and adolescents' educational success: The roles of prior achievement and socioeconomic statu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45, no. 6, 2016, pp.1053-1064.

10) 이상균·박현선·노연희·이채원, 「다문화가족 아동의 문화변용스트레스 및 문화자본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 자기개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38호, 2012, 235-264쪽.

11) Mouw, T. & Xie, Y., "Bilingualism and the Academic Achievement of First- and Second-Generation Asian Americans: Accommodation with or Without

권에 대한 정보 접근성과 정서적 연대감을 확장된 정서적지지로 인식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면,[12] 한국어능력이 높은 어머니를 둔 가족에서는 청소년의 이중언어능력이 지니는 긍정적 효과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다문화청소년의 이중언어능력이 청소년 자신의 자아존중감과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경로 과정에서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수준에 따른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이중언어능력이 청소년과 외국 출신 어머니에게 미치는 영향에서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수준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다문화청소년의 이중언어능력이 개인의 심리적 차원을 넘어, 가족체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어머니의 언어능력 수준을 고려한 차별화된 개입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대부분을 차지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 출신 어머니로 이루어진 다문화가족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였으며, 청소년기 발달학적 남녀의 차이를 고려하여 청소년 성별을 구분하여[13] 검증하고자 한다. 다문화가족 내 여자 청소년은 남자 청소년보다 이중언어 사용 가능성이 높으며, 부모는 딸의 이중언어능력에 더 큰 기대를 한다는 가족 내 역동[14]이 보고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기 동안 남자보다 여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더 가파르게 감소하는 경향[15]이 있어, 이러한

Assimil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64, no. 2, 1999, pp.232-252.

12) Zhou, M. & Bankston, C., "Social capital and the adaptation of the secend generation: The case of Vietnamese youth in New Orlean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 28, 1994, pp.821-845.

13) Umaña-Taylor, A. J. & Guimond, A. B., "A Longitudinal Examination of Parenting Behaviors and Perceived Discrimination Predicting Latino Adolescents' Ethnic Identity", *Journal of Latina/o Psychology,* vol. 1, no. S, 2012, pp.14-35.

14) Cook-Gumperz, J. & Szymanski, M. "Classroom "families": Cooperating or competing girls' and boys' interactional styles in a bilingual classroom", *Research on Language and Social Interaction*, vol. 34, 2001, pp.107-130.

15) Robins, R. W., & Trzesniewski, K. H. "Self-esteem development across the lifespan",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vol. 14, no. 3, 2005, pp.158-162.

성별 차이와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남녀를 구분하여 분석모형을 검증하였다. 궁극적으로 다문화청소년의 이중언어 역량이 가족구성원 모두의 심리적 적응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다문화가족 지원정책과 실천적 개입 방안의 구체화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다문화청소년의 이중언어능력과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은 청소년과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2.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은 청소년의 이중언어능력이 청소년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가?

연구문제3.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은 청소년의 이중언어능력이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가?

2. 이론적 배경

1) 다문화청소년의 이중언어능력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청소년의 이중언어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긍정적인 영향을 보고하고 있다. 두 개의 언어를 구사한다는 것은 양립되는 다른 문화를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다른 문화권에서 온 부모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여 가족연대감을 증가시키고, 이는 청소년 자신의 자아존중감 향상으로 이어지게 된다.[16] 이중언어능력은 다문화청소년으로 하여금 두 개의 문화권에서의 정보와 기회에 대한 노출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얻는 이득을 가정한다. 이중언어능력을 보유한 다문화청

16) Salazar, L. R., Diego-Medrano, I., García, N. & Castillo, Y., "An Examination of Family Cohesion and Self-Esteem as Mediators of Bilingualism and Reading Achievement among Second-Generation Immigrant Students", *Journal of Latinos and Education*, vol. 22, no. 4, 2022, pp.1660-1675.

소년은 학업적·사회적 측면에서의 자아존중감이 높았는데, 교육적 학업 성취에 대한 기대와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컸으며, 두 문화권에서의 사회적 성공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17]

이러한 이중언어능력의 영향은 우리나라 다문화청소년에게도 발견된다. 다문화청소년의 어머니 나라 언어능력 수준의 향상은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부모의 관심과 정서적 지원을 민감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18] 이중언어능력으로 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다문화청소년은 자아존중감이 증가하였으며, 사회적 환경에서의 적응력도 증진되었다.[19] 다문화자녀를 대상으로 한 이중언어교육은 자녀와 부모의 감정적 교류를 증대시켰으며, 대화의 빈도가 많아지고, 갈등해결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자녀는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어머니로부터 수용되고 인정받고 있다는 인지 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20]

2) 다문화청소년의 이중언어능력과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부모는 자신의 행동과 태도가 자녀에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할 때 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한 가치감과 자신에 대한 존중감이 증가한다.[21] 청소년 자녀일 경우에는 청소년의 발달과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

17) Lee, J. W. S., "The Effect of Ethnic Identity and Bilingual Confidence on Chinese Youth's Self-Esteem", *Alberta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 54, no. 1, 2008.

18) 박정윤·박현지, 앞의 논문, 157-181쪽.

19) 고은선·김성훈, 앞의 논문, 1-23쪽.

20) 원인숙, 「다문화가정 자녀의 이중언어 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과 부모자녀관계에 미치는 효과」,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6권 1호, 2012, 89-105쪽.

21) 김민정·도현심·신나나·최미경,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4권 2호, 2013, 101-119쪽; Ardelt, M. & Eccles, J. S., "Effects of Mothers' Parental Efficacy Beliefs and Promotive Parenting Strategies on Inner-City Youth", *Journal of Family Issues*, vol. 22, no. 8, 2001, pp.944-972.

으로 민주적이고 지지적인 부모의 지도와 감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22] 다문화 부모는 주류문화와 다른 양육태도로 인해 청소년 자녀와의 갈등의 가능성이 커지고, 이러한 갈등은 부모의 자아존중감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23] 그러나 다문화청소년의 이중언어능력은 부모가 성장했던 문화에 대한 이해가 가능해지고, 부모의 기대와 가치가 전이될 수 있는 소통을 가능하게 해줌으로써, 다문화 부모가 겪을 수 있는 양육에서의 부정적 정서의 가능성을 줄여줄 수 있다.[24]

실제로 자녀가 다문화 어머니 나라의 문화에 관심을 보이고 어머니 나라의 언어를 많이 사용할수록 어머니는 더욱 적극적으로 양육에 참여하였는데,[25] 이는 자녀의 이중언어사용이 어머니의 심리·정서적 측면에 영향을 미쳐 양육행동으로 표현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자녀의 이중언어능력 향상으로 다문화 어머니는 자녀와 정서적 교감과 교류의 빈도가 증가하였다고 느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어머니들은 자존감이 높아졌다고 보고하였다.[26] 다문화 어머니는 자녀가 이중언어를 사용하게 되면서 어머니의 모국 문화에 대한 자녀의 호기심이 높아졌다고 인식했으며, 이러한 경험이 자신들의 모국 문화와 언어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고, 나아가 자신의 존재 가치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보았다.[27]

---

22) Jones, J. D. & Cassidy, J., "Parental Attachment Style: Examination of Links with Parent Secure Base Provision and Adolescent Secure Base Use",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vol. 16, no. 5, 2014, pp.437-461.

23) Boruszak-Kiziukiewicz, J. & Kmita, G., "Parenting Self-Efficacy in Immigrant Families—A Systematic Review", *Frontiers in Psychology*, vol. 11, 2020, p. 985.

24) Eccles, J. S., "School and Family Effects on the Ontogeny of Children's Interests, Self-Perceptions, and Activity Choices", in J. Jacobs (ed.),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vol. 40, 1992, pp.145-208.

25) 이상균 외, 앞의 논문, 235-264쪽.

26) 조승석·김희순, 「다문화가정 어머니가 경험한 자녀의 이중언어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4권 11호, 2013, 5549-5558쪽.

27) 권경숙·황인애·이승숙, 「근거이론 분석으로 본 결혼이민자가정 어머니의 자녀 이중언어 교육 경험」, 『유아교육학논집』 제23권 제5호, 2019, 247-274쪽.

3)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의 조절효과 가능성

Mouw와 Xie(1999)는 다문화청소년의 이중언어능력의 긍정적 효과는 다문화부모가 주류사회의 언어에 유창하지 못한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하였다.[28] 특히 학업적 성취 측면에서, 이중언어의 긍정적 효과는 두 개의 언어를 사용하여 두뇌발달을 촉진한 결과라기보다,[29]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가능했던 결과로 보고 있다. 즉 이중언어의 긍정적 효과는 부모의 신념과 태도가 전이될 수 있는 도구적 활용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다문화청소년의 이중언어능력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때, 부모가 주류 언어능력이 부족하여 자녀가 여러 상황에서 통번역의 역할을 하며 가족을 돕게 되면서 그 긍정적 영향이 더욱 증가하였다는 연구에서 부모의 주류사회 언어능력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유추할 수 있었다.[30] 또한 우리나라 다문화청소년들은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이 높을수록 청소년 자신의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31] 이는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이 자녀의 이중언어능력의 긍정적 효과를 강화하는 조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선행연구는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수준에 따른 차이 가능성을 보여준다. 청소년 자녀가 이중언어능력을 활용하여 부모나 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 부모는 자녀에 대한 자부심과 자랑스러움 등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2] 이는 주류 사회의 언어에 취약한 부모일수록 자녀의 이중언어능력

28) Mouw & Xie, op.cit., pp.232-252.

29) Bialystok, E. & Craik, F., "Cognitive and Linguistic Processing in the Bilingual Mind",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vol. 19, 2010, pp.19-23.

30) Crosnoe, R. & Turley, R. N. L., "K-12 Educational Outcomes of Immigrant Youth", *The Future of Children,* vol. 21, no. 1, 2011, p.129.

31) 김순규, 「다문화가족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2012, 109-128쪽; 이진경·이혜정, 「이중언어요인과 이중문화요인이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019, 81-100쪽.

이 가족 내 의사소통을 보완하고, 부모가 경험하는 정서적 안정과 자아존중감에 더 큰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다문화가족에서 자녀가 이중언어능력을 활용해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이주배경으로 인한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하는 것은 부모의 자아존중감 유지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33]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부모는 주류 사회 언어능력 부족으로 인해 자녀에게 의존하게 되면서 부모의 역할과 권위에 도전을 받기도 한다. 가족체계이론에 따르면, 이러한 의존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역할 전도 및 자녀의 부모화 경향으로 이어지게 되는 등 건전한 가족 위계구조를 약화시키고, 부모에게 부정적 경험을 초래할 가능성을 높인다.[34] 이처럼 기존 연구들은 다문화 부모의 주류 사회 언어능력에 따른 차이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분석이나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정책과 서비스는 청소년의 이중언어능력 향상과 그로 인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바,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과 어머니의 언어능력이 가족 내 의사소통을 보완하는 보상적 기능을 할 것이라는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가설 1: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이 낮을수록 다문화청소년의 이중언어 능력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증가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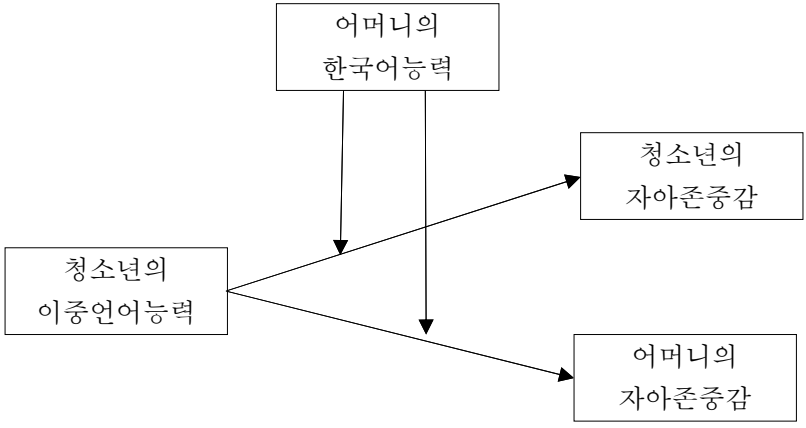
---

32) Sloan, L., "Language brokering: A parent's perspective", Theses Digitization Project, no. 2416, 2003. Available at: https://scholarworks.lib.csusb.edu/etd-project/2416/

33) Narchal, R. & Hembrow, R., "Hidden Care: A Qualitative Exploration of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Language Brokers", *International Journal of Qualitative Studies on Health and Well-being,* vol. 19, no. 1, 2024, 2371536.

34) Oznobishin, O. & Kurman, J., "Parenting Immigrant Parents: Role Reversal, Language Brokering,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among Immigrant Adolescents in Israel", *Parental Roles and Relationships in Immigrant Families,* 2018, pp.233-251.

가설 2: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이 낮을수록 다문화청소년의 이중언어 능력이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증가할 것이다.



[그림 1] 연구모형

3. 연구의 방법

1) 분석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NYPI)에서 실시한 다문화청소년패널연구(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urvey)의 2기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2024년에 수집된 6차년도 중학교 3학년 다문화청소년들의 응답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6차년도 응답자 1,773명 중 어머니가 외국출신인 다문화청소년 중 청소년과 외국인 어머니 모두 언어능력과 자아존중감 문항에 응답한 총 1,744명 쌍의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2) 측정도구

(1)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의 척도를 청소년종

합실태조사에서 일부 수정된 것을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가 발췌한 문항을 사용하였다.[35]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등 총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부터 '매우 그렇다'로 측정 되었며, 3개 문항의 평균점수를 산출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하며, 척도의 Cronbach's α계수는 .89로 나타났다.

(2)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의 척도를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가 발췌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등 총 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부터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으며, 9개 문항의 평균점수를 산출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하며, 척도의 Cronbach's α계수는 .84로 나타났다.

(3) 다문화청소년의 이중언어능력

다문화청소년의 한국어능력은 외국 출생 청소년에게만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한국어의 말하기, 읽기, 쓰기, 듣기 능력에 '전혀 못한다' 또는 '못하는 편이다'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전체의 1% 미만으로 나타났다. 다문화청소년패널 조사에 참여한 다문화청소년 80% 이상은 국내 출생자로서 한국어능력의 기본적인 유창성을 전제하여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문화청소년의 이중언어능력은 어머니 나라의 언어능력 수준을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이에 '학생은 어머니 나라의 말을 얼마나 할 수 있나요?'라는 문항에 '전혀 못한다'에서부터 '매우 잘한다'로 4점 Likert 척도로 응답한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이중언

35) Rosenberg, M., "Rosenberg Self-Esteem Scale (RSE)", Measures Package, 1965.

어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4)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보호자용 설문에 응답한 어머니의 한국어 수준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귀하는 현재 한국어를 얼마나 잘 할 수 있습니까?'라는 문항에 '전혀 못한다'에서부터 '매우 잘한다'로 4점 Likert 척도로 측정된 응답을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는 자신의 한국어능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5) 통제변수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머니 연령, 어머니 학력, 부모의 결혼상태, 가구 월수입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어머니의 연령이 낮을수록,[36] 어머니의 학력과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37] 그리고 부모가 결혼상태를 유지하고 있을수록,[38] 청소년과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이 증가하였다. 이에 변수들을 다음과 같이 재코딩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부모의 학력은 어머니의 학력을 '중졸이하', '고졸', 대학(2-3년제) 졸업', '대학(4년제) 졸업', '대학원(석박사 포함)'의 응답들을 '0=고졸이하'와 '1=전문대졸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부모의 결혼상태는 '0=이혼, 별거, 사별 등'과 '1=결혼'으로 구분하였으며, 가구의 월 소득은 자연로그로 환산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3) 분석방법

SAS9.4를 사용하여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주요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Mplus8.0을 사용하여 다

36) 차승은·유정균,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외국인 어머니를 둔 청소년의 이주배경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2019, 55-81쪽.

37) 황여정, 「청소년의 가정배경과 자아존중감 및 학습동기」, 『한국의 사회동향』, 2014, 1-9쪽.

38) 박한샘·연문희, 「부모 이혼 후 자녀의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2004, 11-29쪽.

문화청소년의 이중언어능력이 청소년과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문화청소년의 이중언어능력과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의 주효과 분석을 실시한 후, 조절효과 검증에서 다중공선성 감소를 위해 청소년의 이중언어능력과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을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하여 상호작용항을 산출하여 사용하였다. 주효과분석과 조절효과 분석 과정에서 통제변수를 투입하였으며, 모든 분석은 청소년의 성별을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4. 연구의 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1-4점 범위에서 전체 평균 3.23이었으며, 남자 청소년은 평균 3.29로 여자 청소년의 평균 3.17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은 1-5점 범위에서 전체 평균 3.94점이었으며, 이는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 사이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문화청소년의 이중언어능력은 전체 평균 2.36이었으며,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은 전체 평균 3.67로 청소년의 성별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전체 다문화청소년 중 남자 청소년은 52%를 차지하였다. 어머니 연령은 최소 33세에서 최고 60세 범위에서 전체 평균 42.63이었고, 전문대 졸업 이상은 전체의 24%였으며, 다문화청소년 부모 전체의 86%는 결혼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어머니 연령, 전문대 졸업 이상 비율, 결혼상태 유지 비율은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거나 많았다. 가구 월 수입은 평균 약 367만원이었으며, 이는 청소년 성별 간 차이는 없었다.

[표 1] 기술통계

	전체		남		여		*T test*
	M/%	SD	M/%	SD	M/%	SD	
청소년 자아존중감	3.23	0.56	3.29	0.54	3.17	0.57	***
어머니 자아존중감	3.94	0.52	3.96	0.54	3.93	0.51	
청소년 이중언어능력	2.36	1.12	2.37	1.16	2.35	1.08	
어머니 한국어능력	3.67	0.74	3.66	0.76	3.67	0.72	
남자	52%						
어머니 연령	42.63	5.63	43.04	5.69	42.19	5.54	**
어머니 학력(전문대졸)	24%		27%		21%		**
결혼상태(결혼)	86%		88%		83%		**
가구 월수입	367.1	148.5	371.6	149.6	362.2	147.2	
N	1,744		901		843		

*p<.05, **p<.01, ***p<.001

[표 2]는 변인들의 상관관계 결과이며, 대각선 아래는 남자 청소년, 대각선 위는 여자 청소년의 상관관계 계수값을 보여준다. 남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어머니의 자아존중감과 어머니의 한국어능력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은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 학력, 결혼상태, 가구 월 수입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남자 청소년의 이중언어능력은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어머니의 연령, 학력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여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청소년의 이중언어능력,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 가구 월 수입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은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연령, 학력, 결혼상태, 가구 월 수입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여자 청소년의 이중언어능력은 어머니의 한국어능력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어머니의 학력, 결혼상태, 가구 월 수입가는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표 2] 변인들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1	1	.20***	.11**	.11**	-.03	.04	.02	.10**
2	.26***	1	.02	.28***	.10**	.13***	.10**	.24***
3	.01	.05	1	-.12***	.06	.12***	.08*	.09**
4	.11**	.30***	.09*	1	.10**	.11**	-.03	.16***
5	.01	.05	.09**	.08*	1	.28***	.03	.11**
6	.05	.12***	.19***	.05	.22***	1	.02	.14***
7	.05	.12***	.05	.05	.01	.11**	1	.39***
8	.06	.20***	.06	.18***	-.03	.13***	.37***	1

*p<.05, **p<.01, ***p<.001
대각선 아래는 남자, 대각선 위는 여자
1 청소년 자아존중감, 2 어머니 자아존중감, 3 청소년 이중언어능력, 4 어머니 한국어능력, 5 어머니 연령, 6 어머니 학력(전문대졸 이상), 7 결혼상태(결혼), 8 가구 월 수입

2)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조절효과분석 결과

다문화청소년의 이중언어능력과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의 주효과와 조절효과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남자 다문화청소년의 주효과 분석 결과는 어머니의 연령, 학력, 결혼상태, 가구 월수입을 통제 한 후, 청소년의 이중언어능력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 = 0.04, SE = 0.02, p < .05). 조절효과 분석결과는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은 남자 다문화청소년의 이중언어능력이 청소년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때 유의한 조절의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여자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청소년의 이중언어능력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증가에 유의한 영향(b = 0.06, SE = 0.02, p < .001)을 미쳤지만,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조절효과 분석결과는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은 여자 다문화청소년의

이중언어능력이 청소년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때 유의한 조절의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표 3]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남자		여자	
	b(SE)	*β*	*b(SE)*	*β*
Constant	1.39(0.27)***		0.79(0.29)**	
주효과				
청소년 이중언어능력Ⓐ	0.01(0.01)	0.01	0.06(0.02)***	0.12
어머니 한국어능력Ⓑ	0.04(0.02)*	0.06	0.04(0.02)	0.05
상호작용 효과				
Ⓐ × Ⓑ	0.01(0.02)	0.02	-0.01(0.02)	-0.02
개인 및 가족배경				
어머니 연령	0.01(0.01)	-0.01	0.01(0.01)	-0.04
어머니 학력	0.02(0.04)	0.02	0.02(0.04)	0.01
결혼상태	0.01(0.05)	0.01	-0.03(0.05)	0.05
가구 월수입	0.01(0.04)	0.01	0.07(0.05)	0.05
R^2	0.30		0.27	

*p<.05, **p<.01, ***p<.001

3)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조절효과분석 결과

다문화청소년의 이중언어능력과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의 주효과와 조절효과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남자 다문화청소년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주효과 분석결과는 개인 및 가족배경을 통제 한 후, 청소년의 이중언어능력이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어머니 자신의 한국어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자아존중감이 증가하였다(b = 0.10, SE = 0.02, p < .001).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청소년의 이중언어능력이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때 유의한 조절효과도 나타냈다(b = -0.03, SE = 0.02, p < .05). 이는 청소년의 이중언어능력이 높을 경우에는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었지만, 청소년의 이중언어능력이 낮을 경우에는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에 대한 평가가 높을 때에만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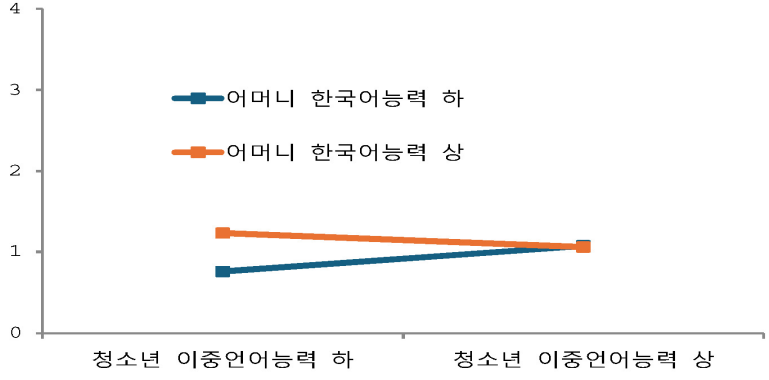
상승하였음을 보여준다[그림 2].

여자 다문화청소년의 어머니는 자신의 한국어능력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b = 0.07, SE = 0.02, p < .01)을 미쳤으나, 유의한 조절효과는 보이지 않았다.

[표 4]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남자		여자	
	b(SE)	*β*	*b(SE)*	*β*
Constant	0.64(0.26)*		0.71(0.25)**	
주효과				
청소년 이중언어능력Ⓐ	0.01(0.01)	-0.01	-0.01(0.01)	-0.02
어머니 한국어능력Ⓑ	0.10(0.02)***	0.14	0.07(0.02)**	0.10
상호작용 효과				
Ⓐ × Ⓑ	-0.03(0.02)*	-0.05	0.01(0.02)	0.02
개인 및 가족배경				
어머니 연령	0.01(0.01)	0.04	0.01(0.01)	0.05
어머니 학력	0.02(0.03)	0.02	0.04(0.04)	0.03
결혼상태	0.15(0.05)	0.00	0.03(0.04)	0.02
가구 월수입	0.15(0.04)***	0.12	0.12(0.04)**	0.10
R^2	0.35		0.37	

*p<.05, **p<.01, ***p<.001



[그림 2] 남자 다문화청소년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의 조절효과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이중언어능력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의 조절효과를 청소년의 성별로 나누어 검증하였다. 한국다문화청소년패널 2기 데이터 중 1,744명의 중학교 3학년 다문화청소년과 어머니의 응답자료를 사용하여, 청소년의 이중언어능력과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의 주효과를 분석하고,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의 상호작용 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에 대한 요약과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은 자신의 이중언어능력이 아니라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자 청소년은 자신의 가치를 형성하는데 있어 어머니의 역할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수준은 어머니가 주류 사회에서의 적응의 정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인지될 수 있으며,[39] 자녀는 어머니가 주류사회에서 주변 상황에 대처하고 대응하는 능력을 안전한 기지로 인식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반면, 여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은 청소년 자신의 이중언어능력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자 다문화청소년은 스스로의 역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를 바탕으로 자신감을 형성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남녀의 차이는 Moon & Hofferth(2016)의 연구에서도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여자 다문화청소년은 스스로의 노력에 대한 믿음이 강하게 작용하는 반면, 남자 다문화청소년은 부모의 지도와 감독 및 모델링 역할이 남자 청소년의 성과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40]

모든 청소년 성별에서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청

39) 조승석·김희순, 앞의 논문, 5549-5558쪽.

40) Moon, U. J. & Hofferth, S. L., "Parental Involvement, Child Effort, and the Development of Immigrant Boys' and Girls' Reading and Mathematics Skills: A Latent Difference Score Growth Model", *Learning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 47, 2016, pp.136-144.

소년의 이중언어능력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때 유의한 조절의 효과는 없었다. 남자 청소년들에게는 자신들의 이중언어능력 수준 차이에 상관없이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수준이 자아존중감 향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여자 청소년들에게는 자신들의 이중언어능력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에 대한 긍정적 인식 수준에 따라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즉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측면에서, 청소년의 이중언어능력과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에 대한 인식은 비교적 독립적으로 역할을 하며, 상호보완적이거나 강화적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모든 청소년 성별에서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청소년 자녀의 이중언어능력이 아니라 어머니 자신의 한국어능력에 대한 인식이었다. 어머니 자신의 한국어능력을 높게 평가할수록 자아존중감이 증가하였는데, 이민자들의 주류 사회의 언어에 대한 자신감은 도전과 어려움 극복에 유의한 심리적 자원이 된다는 연구[41]와도 맥을 같이한다. 이는 주류사회 언어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성적 지표보다는 대인관계에서 의사소통에 대한 자신감이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킨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42] 본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은 객관적 측정이 아닌 어머니의 자기보고식 설문에 대한 응답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어머니의 높은 한국어능력은 한국사회에 동화 또는 통합에 대한 노력과 주류사회 적응에 대한 높은 동기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태도는 어머니 자신의 정서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청소년 자녀가 어머니 나라의 언어를 잘한다는 것이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이는 대부분의 다문화가족 어머니들은

41) Dalton, J. H., Elias, M. J. & Wandersman, A., Community Psychology: Linking *Individuals and Communities*, Belmont, CA: Wadsworth, 2001.

42) Gaudet, S. & Clément, R., "Identity Maintenance and Loss: Concurrent Processes among the Fransaskois", *Canadian Journal of Behavioural Science*, vol. 37, 2005, pp.110-122.

자녀들이 어머니 나라 언어를 배우는 것에 대한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효용가치를 낮게 인식할 수도 있으며, 무엇보다 자녀들이 학교에서의 성취를 위한 한국어교육에 더욱 관심과 걱정이 많다는 보고와 맥을 같이한다.[43] 입시경쟁이 치열한 한국사회에서, 다문화가족의 외국 출신 어머니들에게는 자녀가 어머니 출신 국가의 언어능력보다 한국어능력이 자녀의 사회 적응과 학업성취에 보다 직접적으로 기여한다고 인식한 결과로 이해될 수도 있다.

반면, 남자 청소년 자녀를 둔 경우, 청소년의 이중언어능력이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에 대한 인식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조절효과를 보였다.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이 부족할수록 청소년의 이중언어능력이 갖는 긍정적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이 충분하면 청소년의 이중언어능력이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추가적인 기여는 상대적으로 작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머니는 한국어능력이 부족하고, 청소년의 이중언어능력도 낮은 경우에는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언어적 자원이 제한되어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이해될 수 있다. 다문화자녀의 이중언어능력은 언제나 보편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와의 소통의 도구로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는 연구와도 맥을 같이한다.[44] 다문화가족 어머니는 자신의 모국어가 아니어도 자녀와의 소통이 가능한 수준의 언어능력이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중요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과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 및 어머니의 언어능력의 영향을 검증하였다. 남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는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이, 여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는 자신의 이중언어능력이 독립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43)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기도 다문화가족 자녀양육 실태 및 지원방안』, 2024.
44) Mouw & Xie, op.cit., pp.232-252.

에는 어머니 자신의 한국어능력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은 남자 청소년의 이중언어능력이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정책적·실천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한 개입에서 일률적으로 청소년의 이중언어능력과 부모의 한국어능력만을 강조하기 보다는 성별에 따라 이중언어교육의 차별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자 청소년의 이중언어능력은 자신의 가치 인식 증진에 도움이 되지만, 남자 청소년에게서는 동일한 효과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성별에 따른 언어사용 환경과 상호작용 맥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여자 청소년은 자신이 언어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부모와의 정서적 교감과 교류에서 의사소통의 과정의 질을 높이는 반면, 남자 청소년들은 과정 자체보다는 어머니가 한국어학습으로 원활한 의사소통 결과를 경험할 때 긍정 정서를 더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이중언어교육의 목표와 개입 방향을 성별 특성에 맞게 차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은 어머니 자신이 자아존중감을 유지하고 강화하는데 중요한 보호요인이 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국어능력이 단순히 의사소통 수단을 넘어, 부모로서의 역할 수행과 가정 내 권위 유지, 그리고 자아존중감 형성에까지 연결됨을 보여준다. 특히 이러한 경향이 남자 청소년의 어머니에게서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중언어교육 정책은 청소년과 어머니를 분리된 대상으로 접근하기보다 가족 단위의 상호작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현장에서는 가족구성원이 공유 언어를 기반으로 일상적이면서도 의미있는 정서적 인지적 교류를 나눌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아울러 남자 청소년 자녀를 둔 어머니에게는 한국어능력 향상지원과 함께 자녀의 발달 특성과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교육적 개입도 병행함으로써, 가족 내 상호작용의 질을 높이고 정서적 안정을 도모할 필요

가 있다.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횡단자료를 사용하여 주요 변인들과 통제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의 검증이 명확하지 못하였다.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출신국, 국내 거주 기간, 학교 적응의 변인이 일관되게 보고되지 않거나 응답의 분포가 특정 범위에 치우쳐 있어 통제 변인으로 포함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또한 청소년과 어머니의 언어능력을 자기보고식 응답을 사용하여 실제 언어능력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변인 간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으며, 언어능력의 객관적 지표 데이터를 포함하여 분석할 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족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변인들을 통제 변인으로 포함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기도 다문화가족 자녀양육 실태 및 지원방안』, 2024.

국가데이터처, 『2025년 출생·사망통계(잠정)』,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6.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25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 발표」, 2025.

교육부,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2023~2027)」, 2023.

교육부, 『2024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2024.

성평등가족부,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2023~2027)」, 성평등가족부 정책자료, 2023.

Dalton, J. H., Elias, M. J. & Wandersman, A., Community Psychology: Linking Individuals and Communities, Belmont, CA: Wadsworth, 2001.

Eccles, J. S., "School and Family Effects on the Ontogeny of Children's Interests, Self-Perceptions, and Activity Choices", in J. Jacobs (ed.),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vol. 40, 1992, pp.145-208.

Rosenberg, M., "Rosenberg Self-Esteem Scale (RSE)", Measures Package, 1965.

논문

고은선·김성훈,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언어능력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중언어학』, 2018, 1-23쪽.

김민정·도현심·신나나·최미경,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4권 2호, 2013, 101-119쪽.

김순규, 「다문화가족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2012, 109-128쪽.

권경숙·황인애·이승숙, 「근거이론 분석으로 본 결혼이민자가정 어머니의 자녀 이중언어 교육 경험」, 『유아교육학논집』, 23권 5호, 2019, 247-274쪽.

박정윤·박현지,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언어능력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부모 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2021, 157-181쪽.

박한샘·연문희,「부모 이혼 후 자녀의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청소년상담연구』, 2004, 11-29쪽.

송채수,「이중언어사회화가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자기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동남아출신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인 아버지의 자녀를 중심으로」,『아시아문화연구』48호, 2018, 245-280쪽.

이상균·박현선·노연희·이채원,「다문화가족 아동의 문화변용스트레스 및 문화자본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 자기개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한국아동복지학』38호, 2012, 235-264쪽.

이진경·이혜정,「이중언어요인과 이중문화요인이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사회과학연구』, 2019, 81-100쪽.

이채영,「지역 규모별 사교육과 공적 교육지원이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이민정책연구원 워킹페이퍼 시리즈 No. 2025-01, 이민정책연구원, 2025.

원인숙,「다문화가정 자녀의 이중언어 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과 부모자녀관계에 미치는 효과」,『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16권 1호, 2012, 89-105쪽.

조승석·김희순,「다문화가정 어머니가 경험한 자녀의 이중언어교육에 관한 연구」,『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14권 11호, 2013, 5549-5558쪽.

차승은·유정균,「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외국인 어머니를 둔 청소년의 이주배경을 중심으로」,『한국인구학』, 2019, 55-81쪽.

황여정,「청소년의 가정배경과 자아존중감 및 학습동기」,『한국의 사회동향』, 2014, 1-9쪽.

Ardelt, M. & Eccles, J. S., "Effects of Mothers' Parental Efficacy Beliefs and Promotive Parenting Strategies on Inner-City Youth", *Journal of Family Issues,* vol. 22, no. 8, 2001, pp.944-972.

Benner, A. D., Boyle, A. E. & Sadler, S., "Parental Involvement and Adolescents' Educational Success: The Roles of Prior Achievement and Socioeconomic Statu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45, no. 6, 2016, pp.1053-1064.

Boruszak-Kiziukiewicz, J. & Kmita, G., "Parenting Self-Efficacy in Immigrant Families—A Systematic Review", *Frontiers in*

Psychology, vol. 11, 2020, p.985.

Bialystok, E. & Craik, F., "Cognitive and Linguistic Processing in the Bilingual Mind",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vol. 19, 2010, pp.19-23.

Cook-Gumperz, J. & Szymanski, M. "Classroom "families": Cooperating or competing girls' and boys' interactional styles in a bilingual classroom", *Research on Language and Social Interaction*, vol. 34, 2001, pp.107-130.

Crosnoe, R. & Turley, R. N. L., "K-12 Educational Outcomes of Immigrant Youth", *The Future of Children,* vol. 21, no. 1, 2011, p.129.

Gaudet, S. & Clément, R., "Identity Maintenance and Loss: Concurrent Processes among the Fransaskois", *Canadian Journal of Behavioural Science,* vol. 37, 2005, pp.110-122.

Jones, J. D. & Cassidy, J., "Parental Attachment Style: Examination of Links with Parent Secure Base Provision and Adolescent Secure Base Use",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vol. 16, no. 5, 2014, pp.437-461.

Lee, J. W. S., "The Effect of Ethnic Identity and Bilingual Confidence on Chinese Youth's Self-Esteem", *Alberta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 54, no. 1, 2008.

Salazar, L. R., Diego-Medrano, I., García, N. & Castillo, Y., "An Examination of Family Cohesion and Self-Esteem as Mediators of Bilingualism and Reading Achievement among Second-Generation Immigrant Students", *Journal of Latinos and Education*, vol. 22, no. 4, 2022, pp.1660-1675.

Moon, U. J. & Hofferth, S. L., "Parental Involvement, Child Effort, and the Development of Immigrant Boys' and Girls' Reading and Mathematics Skills: A Latent Difference Score Growth Model", *Learning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 47, 2016, pp.136-144.

Mouw, T. & Xie, Y., "Bilingualism and the Academic Achievement of First-

and Second-Generation Asian Americans: Accommodation with or Without Assimil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64, no. 2, 1999, pp.232-252.

Narchal, R. & Hembrow, R., "Hidden Care: A Qualitative Exploration of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Language Brokers", *International Journal of Qualitative Studies on Health and Well-being,* vol. 19, no. 1, 2024, 2371536.

Oznobishin, O. & Kurman, J., "Parenting Immigrant Parents: Role Reversal, Language Brokering,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among Immigrant Adolescents in Israel", *Parental Roles and Relationships in Immigrant Families,* 2018, pp.233-251.

Robins, R. W., & Trzesniewski, K. H. "Self-esteem development across the lifespan",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4(3), 2005, pp.158-162.

Sloan, L., "Language brokering: A parent's perspective", Theses Digitization Project, no. 2416, 2003. Available at: https://scholarworks.lib.csusb.edu/etd-project/2416/

Umaña-Taylor, A. J. & Guimond, A. B., "A Longitudinal Examination of Parenting Behaviors and Perceived Discrimination Predicting Latino Adolescents' Ethnic Identity", *Journal of Latina/o Psychology*, vol. 1, no. S, 2012, pp.14-35.

Zhou, M. & Bankston, C., "Social capital and the adaptation of the secend generation: The case of Vietnamese youth in New Orlean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 28, 1994, pp.821-845.

국문초록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이중언어능력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소의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의 2기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중학교 3학년 다문화청소년 1,744명과 그들의 외국인 어머니의 응답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남자 다문화청소년은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반면, 여자 다문화청소년은 자신의 이중언어능력이 자아존중감 향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분석결과는, 남녀 청소년의 어머니 모두 어머니 자신의 한국능력이 자아존중감 향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의 조절효과는 남자 다문화청소년에게서만 나타났는데,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이 낮을수록 남자 청소년의 이중언어능력의 긍정적 효과가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청소년의 이중언어교육이 청소년 및 외국인 어머니에게 개인의 심리적 적응에도 기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청소년의 성별과 어머니의 언어능력을 고려한 차별화된 개입 및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주제어 ● 다문화청소년, 외국인 어머니, 이중언어능력, 한국어능력, 조절효과

Abstract

Effects of Bilingual Ability on Adolescents' and Mothers' Self-Esteem in Multicultural Families
: The Moderating Effect of Foreign Mothers' Korean Proficiency*

Moon, Ui Jeong / Hannam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moderating effect of foreign mothers' Korean proficien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bilingual ability and self-esteem among multicultural adolescents and their mothers. Using data from the second wave of the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urvey conducted by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the analysis included responses from 1,744 multicultural adolescents in the ninth grade and their foreign-born mothers. The results showed that, for male adolescents, mothers' Korean proficiency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adolescents' self-esteem, whereas, for female adolescents, their own bilingual ability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self-esteem. However, the moderating effect of mothers' Korean proficiency was not significant. In the analysis of mothers' self-esteem, both mothers of male and female adolescents showed significantly higher self-esteem when their Korean proficiency was greater. The moderating effect of mothers' Korean proficiency appeared only among male adolescents; specifically, when mothers' Korean proficiency was lower, the positive effect of male adolescents' bilingual ability on self-esteem became stronger. These findings suggest that bilingual education for multicultural adolescents contributes to the psychological adjustment of both adolescents and foreign-born mothers, and highlight the need for differentiated intervention and policy support that takes adolescents'

*영문 초록의 표현 교정에 생성형 AI(Perplexity)를 활용하였다.

gender and mothers' language proficiency into account.

Keyword ● Multicultural adolescents, Foreign-born mothers, Bilingual ability, Korean proficiency, Moderating effect

▌논문투고일:2026.05.22. ▌심사완료일:2026.06.19. ▌게재확정일:2026.06.23. ▌

https://doi.org/10.54698/kl.2026.21.65
지식과 교양, 제21호,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Knowledge and Liberal Arts, Vol. 21, LIC, pp.65-78.

공존적 학습을 위한 게임 기반 학습

: 게이미피케이션 적용 사례 중심 연구*

박 주 희**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몰입과 게이미피케이션의 적용
3. 게임기반 학습 수업모형 사례
4. 공존적 학습을 위한 교육학적 가치
5. 나가는 말

1. 서론

디지털 교육시대, 게임의 교육학적 가치에 관한 논의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게임이 더 이상 단순한 놀이 그 이상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며 교육학적 소스가 녹아서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게임에 교육학적 요인 연구 즉, 게임의 교육적 세계관에 관한 연구이다. 둘째, 교육 게이미피케이션 연구, 즉 단순한 행동주의나 보상이 따르는 시스템의 교육이 아닌 구성주의 교육이라 할 수 있는 교육의 본질적 특성에 관한 연구이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의 거대한 물결이 몰려오는 시대에 디지털 교육을 하는데 있어 가장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게임에 관한 가상현실과 현실에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2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5S1A6B5A02004223)
** 전남대학교 인문융합연구원 HK연구교수

서의 인간이라는 기로에서 그 의미를 찾아보는 교육학적 연구이다. 즉, 디지털 교육 시대에 게임이 가지는 교육학적 가치를 탐구하고, 특히 게이미피케이션을 적용한 수업모형 콘텐츠 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그 의미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먼저 게이미피케이션의 개념과 적용 방식을 살펴보고, 실제 게임기반 학습 수업모형 사례를 통해 교육 현장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이어서 이러한 접근이 단순한 학습 효과를 넘어 공존적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학적 가치를 지닌다는 점을 논증한다. 궁극적으로 본 논문은 디지털 시대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며, 게임과 게이미피케이션이 학습자들의 참여, 협력, 그리고 인간적 성장을 촉진하는 중요한 매개가 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그래서 게임과 그 교육적 속성인 게이미피케이션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가상현실과 실제가 공존하는 미래사회에서 게임의 인문학적이고 교육학적 가치 연구는 그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게이미피케이션을 활용한 수업모형 및 콘텐츠 개발을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하며 진행하려고 한다.

최근의 사회 변화 속도와 방향에 비추어 볼 때, 현재 한국의 초중등 그리고 대학 교육과 교육기관에서의 교수방법이 적합한가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과거 활자 중심으로 공부하던 세대가 지금 모든 것이 영상인 세대의 학생들에게 수업하고 가르치며 함께 교육하고 있는 것이다. 사고 구조에서부터 영상이 먼저인 학생들에게 즐겁고 재미있는 수업을 만든다는 것은 말만큼 쉬운 것이 아니다. 교육학에서는 항상 흥미로운 수업이야말로 정말 필요하다고 누누이 말하지만 막상 그러한 수업을 만드는 것은 어렵기만 하다.

그러한 점에서 교육에 관한 관점이 매우 달라지고 있는 시대가 되었다. 메타버스를 비롯하여 근래에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 혼합현실(Mixed Reality: MR)과 같은 새로

운 기술들의 등장으로 더욱 더 어떤 교육을 필요로 하는지 고민이 늘어나는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철학적, 교육학적 주요 개념들을 통해서 게임과 그 교육학적 속성인 게이미피케이션의 관점을 재해석하여 어떤 방식으로 활용가능한지 알아보려고 한다. 그에 맞춰 수업모형을 제시하여 하나의 모델로써 안을 만들어 보려고 한다. 이러한 방식은 게임 리터러시에 관한 이해라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 제시하는 수업모형은 사례들은 교육에 대한 통합적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이론적인 기반을 제안하고 그에 따라 교육현장에서 활용가능한 내용으로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2. 몰입과 게이미피케이션의 적용

그렇다면 게임을 활용한 수업,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교육방법이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게임과 교육은 사실 완전히 다른 영역으로 보이지만 항상 함께하는 방식으로 활용되었다. 따라서 많은 수업에는 게임을 접목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마치 어린이나 어른이나 게임을 좋아하듯이 이것을 배움의 현장에서 활용하는 것이 보다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다. 게임, 나아가 게이미피케이션에 관한 연구는 주로 게임학 쪽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최근 들어 교육학 분야에서도 관심있게 보고 있다. 다만, 인문학이나 철학 분야에서 이에 대해 근본적인 접근으로써 연구는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게이미피케이션이란 게임과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먼저 게임이란 놀이의 일종으로 다양한 정의를 가지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게임은 스마트 폰이나 게임기를 활용한 게임이 있으며 과거에는 전통적인 놀이 방식으로 게임이 존재한다. 보드게임과 같이 온라인 게임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모여서 하는 게임도 있으며, 야외에서 활동을 하며 규칙을 가진 놀이로써 게임도 있다. 그러나 대개는 콘솔 등을 활용한 게임기계를 이용하여 하는 게임이 있으며, pc방에서 이루어지는 컴퓨터를 활용한 다양한 게임이

있다.

게임은 그 동안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사행성 게임이나 도박과 같은 문제로 터부시해온 측면이 있으며, 게임은 공부와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근래에는 기능성게임과 같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게임이 출시되면서 게임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게임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학자들에게 게임이 연구의 가치가 충분함을 보여주어 다각적인 게임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게이미피케이션은 게임이 아닌 분야에서 게임의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게임화를 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즉, 지루하고 재미없는 분야에서 게임적 요소를 포함시킴으로써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활동을 말한다. 혹은 게임과 커뮤니케이션의 혼합적인 의미로 설명하기도 한다. 놀이와 의사소통에 대한 혼합적 개념의 의미인 것이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은 이제 단지 지식전달을 넘어서서 다양한 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무엇보다 과거 암기식 지식이 아닌 창의적 인간을 필요로 하는 시대에 단순한 지식 그 이상의 교육적 경험이야말로 교육으로서 가치를 지니게 되는 시대가 된 것이다. 따라서 교수학습방법의 하나로 게이미피케이션의 수업모형 콘텐츠 개발 역시 미래 학교교육의 변화에 발맞춘 새로운 교육적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또, 게임은 이제 문화예술의 영역에 포섭될만큼 예술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예술교육의 한 영역으로 게임의 역할 역시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융합인재교육(STEAM)은 스팀 교육을 제안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과학기술기반의 융합적 사고와 문제해결력을 배양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게이미피케이션은 과학과 인문학, 예술을 아우르는 각종 교육 활동에 적용 가능한 교육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수업을 이해하고 잘 고안하기 위한 게이미피케이션 수업모형을 개발하고 관련한 콘텐츠를 활용 수단으로 제시하여 온라인 원격 교육이 활성화

되어가는 시대에 게이미피케이션을 교육의 하나의 방법이며 모델로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교육혁신의 기본 개념으로 분석됨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평생교육적 차원과 인간의 본성적 차원에서 놀이와 게임을 근간으로 한 연구는 기술이 발달한 인간사에 더욱 요구되는 연구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게이미피케이션은 게임 속 문제 해결과 같이 교육활동에서 문제 해결을 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안상혁(2010)[1] 연구에 따르면 희랍어 아곤(agon)에 해당하는 게임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분류	재미 요소
경쟁(competition) (아곤, agon)	세부목표, 성취, 목표, 준비에 대한 기대, 목표완료 성취, 목표 수행 규칙 준수, 친밀감, 사회적 교류, 정서적 유대감, 지적 성취감, 기술 성장 성취감, 시간투자 보상감
모의(situation) (미미크리, mimicry)	역할 체험감, 대리 만족감, 자기 표현감, 행동의 현실일치감, 물리적 일체감, 조작편리감, 실제공간감, 타격체험감, 일탈경험 체험, 환상, 몰입, 극적 상황 체험, 감정이입
기회(chance) (알레아, alea)	새로운 추가 요소에 대한 기대감, 지속적 탐험, 창조, 상상력, 보상에 한 기대, 예측 불가한 진행, 기발한 아이디어, 탐험
현기증(vertigo) (일링크스, ilinx)	다양한 공간체험, 새로운 환경의 체험, 시각적 최적화, 실제 공간감, 위험의 스릴

<표1> 로제 카이와의 놀이에 대한 4가지 분류, 놀이영역을 기반으로 구조화된 재미요소

이러한 과정은 희랍어로 '파이디아(paidia)' 와 '루두스(ludus)' 라는 개념 사이에서 교육과 놀이라는 특성에 긴장감을 유지하는 활동으로 그 구성요소라고 할 수 있다. 파이디아(paidia)는 파이다고고스(paidagogos)라는 플라톤 철학의 개념에서 연결 지점을 찾을 수 있다. 교육학의 어원이

1) 안상혁, 「 로제 카이와의 놀이론을 통한 온라인 게임 고찰」,『디자인학연구』 17권 12호, 한국디자인학회, 2010, 47-56쪽.

자 큰 의미에서 파이데이아(paideia) 즉, 교육에 대한 개념과 루두스라는 놀이의 개념이 역시 게임에서 담고 있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서 교육적 활동에 위와 같은 구성요소를 녹이면 매우 흥미로운 수업 진행이 가능한 것이다. 수업이 단조롭고 무미건조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닌 마치 소설처럼 기승전결을 만들어야 몰입하여 집중할 수 있다. 몰입을 위한 수업 방식이 곧 게이미피케이션이 가진 중요한 역할이며 그에 대한 고민과 결과가 게임처럼 등장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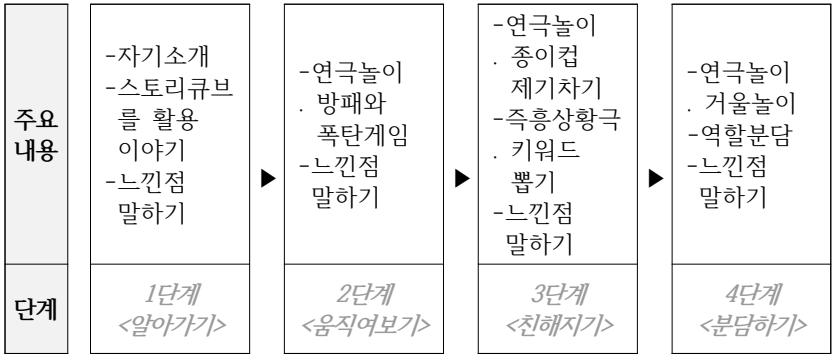
몰입감(flow)은 연구자 칙센트미하이(Csikszentmihalyi)를 통해 이미 많이 알려져 있다. 그는 몰입에 대한 연구로 몰입이 인간에게 주는 의미에 대하여 심도깊은 연구를 진행하였다. 몰입이란 어떤 활동에 대해 깊이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것과 같은 1차적인 의미를 가지며, 더 나아가 힘들게 집중하는 어려운 것이 아닌 스스로 아주 자연스럽게 빠져드는 행위를 말한다. 억지로 하는 활동이 아니라는 점에서 게임이 가진 재미있어서 지속적으로 하는 행위와 유사한 면이 있다. 이처럼 몰입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이 지향하는 매우 이상적인 교육적 경험과 현상이며, 이러한 몰입을 만들기 위한 교육자의 고민이 곧 게이미피케이션이 지향하는 것과도 일치한다. 몰입이야말로 아주 이상적인 교육에 대한 결과이자 현상이며 인간 본연의 놀이 활동과 일치하는 개념이다.

보통 우리가 어떤 학습과정이나 공부를 하면서 배우는 과정에서 몰입을 경험(Immersive Experience)하는 것은 개개인의 역량과 관심을 기반으로 하지만, 그처럼 몰두하기 전에 이미 사전 지식이나 사전 공부가 필요로 한다는 측면에서 교육이 가지는 단계적 속성도 함께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학습의 과정이 그저 고통이 아니라 즐거운 몰입의 시간이라면 매우 가치있는 활동이 될 것이다. 칙센트미하이는 몰입을 위해서 하고 싶다는 의지, 도전 의식이 요구되며, 잘할 수 있는 숙련의 정도에 따라 능동적으로 스스로 참여하는 긍정적인 정서 상태와 의식의 상태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는 인간의 인지적 속성과 지각적 속성으로 분류하여 설명할 수 있다. 그것은 보상, 스스로 성취에 따른 능력 변화, 관계 변화 등이다. 목표를 설정하고 성취하는 것은 학습의 기본적인 룰이기는 하나, 몰입의 경우는 어떤 목표설정 없이도 가능한 것이다.

3. 게임기반 학습 수업모형 사례

수업모형이란 수업의 실제를 기술하기 위하여 수업의 주요한 특징을 요약해 설계 또는 계획한 것이다. 문화예술 분야의 수업모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아래 수업의 차시별 내용은 문화예술분야에서 게임기반학습의 하나로 게이미피케이션을 활용한 기본적인 수업모형이다. 기승전결을 담는 수업방식을 기본으로 하며 사이사이 게임 활동을 넣는 방식이다. 게임을 할 때는 규칙이 있으며 보상도 주어진다. 레벨을 상승시키는 과정도 포함한다.



문화예술 교육에서 스토리큐브를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하여 어떤 수업, 어떤 종류의 학생일지라도 일단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수업 모형을 구조화한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큐브 안에 게이미피케이션의 속성을 집어 넣

어 보상과 레벨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을 적용하여 게임과 관련한 또 다른 수업모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주요 내용	자기소개 → 플레이어가 자신의 캐릭터를 만든다. 스토리큐브 활용 이야기 → 주사위를 굴려 스토리를 확장하는 퀘스트. 느낀점 말하기 → 경험치 획득(자기 표현력 점수)	연극놀이: 방패와 폭탄게임 → 협력과 반응 속도 훈련. 느낀점 말하기 → 팀워크 점수 획득.	연극놀이: 종이컵 제기차기 → 집중력과 균형력 테스트. 즉흥상황극: 키워드 뽑기 → 랜덤 이벤트 미션 수행. 느낀점 말하기 → 창의력 점수 획득.	연극놀이: 거울놀이 → 동기화 훈련, 서로의 움직임을 반영. 역할분담 → 파티 구성(탱커, 힐러, 딜러처럼 역할 나누기). 느낀점 말하기 → 협력 점수 획득, 다음 레벨로 진입.
회차	*1단계: 알아가기 (Level 1 - 캐릭터 생성)*	*2단계: 움직여보기 (Level 2 - 액션 훈련)*	*3단계: 친해지기 (Level 3 - 협력 미션)*	*4단계: 분담하기 (Level 4 - 팀 빌딩)*

이와 같은 활동은 구성주의 수업모형의 기본적인 형태에 게이미피케이션을 가미한 수업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구성주의 수업모형은 1단계(modeling)에서 문제 해결의 전 과정을 시범으로 보이는 시연단계이다. 2단계(scaffolding)는 교사가 학습자의 학습 행위를 도와주는 교수적 도움의 단계를 포함하는 과정이다. 3단계(fading)는 교수자 없이 학습자 스스로 독립적으로 학습하는 과정으로 교수자 도움이 소멸되는 단계이다, 이러한 구성주의 교육은 창의적인 수업을 가능하게 하고 교수자는 촉진자의 역할을 한다는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구성주의 수업모형에

게이미피케이션이 활용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질적인 교육콘텐츠를 선택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위의 여러 연구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은 욕구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그것이 삶의 동기가 되어 보상(충족)을 받기위해 노력을 하게 된다. 게임을 즐기는 사용자의 심리상태 역시 이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고, 칙센트미하이의 '플로우 상태'를 경험하기 위해, 라캉의 잉여 쾌락을 쫓는 현상이 게임 속으로 빨아들이는 원천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매슬로우 '5가지 욕망'에 대한 내용은 현재의 욕구를 충족했을 때 새로운 욕구를 갈망하는 인간의 심리적 현상으로, 게임에서는 게임의 변화와 확장으로 해석할 수 있고, 흥미를 지속적으로 유발시키는 요소로 볼 수 있다. 위의 내용들을 보아 사용자는 자신의 어떠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게임을 플레이 한다고 볼 수 있고 이는 자신의 욕구 보상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고 할 수 있다.

게임은 현실 세계의 시뮬레이션이며 나아가 현실계의 보조수단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인간이 어떤 형태로든 동기가 부여되고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취하는 행위는 인간 본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위 연구들을 통해 욕구의 충족, 즉 게임의 재미 요소와 패턴을 도출해 볼 수 있다. 게임의 재미를 도전과 목표, 행위와 보상, 변화와 확장으로 구분할 수 있고 게임의 재미요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게임은 자신의 욕구충족을 위해 도전하고, 그에 따른 행위를 한다. 도전할만한 가치 있는 목표, 즉 욕구가 필요하고 이를 해냈을 때 그에 합당한 보상(충족)을 해줘야 하는 것이다.

4. 공존적 학습을 위한 교육학적 가치

공존적 학습을 위하여 게임이 가지는 교육학적 가치는 다음과 같다. 핵심적으로는 단순한 오락을 넘어 학습과 성장의 도구로 기능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게임은 재미와 도전을 통해 학습자의 흥미를 끌어내고, 자발적

인 참여를 유도한다. 이는 학습 동기를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다양한 상황과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논리적 사고, 창의적 사고, 전략적 사고를 기를 수 있다. 협동 게임이나 멀티플레이 환경에서는 의사소통, 협력, 역할 분담을 통해 사회적 기술을 학습할 수 있다. 게임은 목표 달성을 위해 스스로 탐구하고 시도하는 과정을 제공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강화한다. 즉각적인 피드백과 성취감을 통해 학습자는 자신의 발전을 확인하고, 지속적인 학습 의지를 유지할 수 있다. 게임은 스토리, 음악, 그래픽, 규칙 등이 결합된 복합적 매체로서, 다양한 영역의 지식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길러준다. 즉, 게임은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학습을 촉진하는 강력한 매개체로서, 교육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게임이 이용자에게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심리적 인지적 측면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심리적 측면의 긍정적 효과는 '사회적 친숙성'과 '개인의 자존감'을 들 수 있다. Yee(2006)는 심리적 측면의 사회적 친숙성을 강조한 대표적인 연구로, Massively-Multiplayer Online Role-Playing Games(MMORPGs) 이용자 3,000명에 대한 조사를 통해, 게임이용자들이 가상환경에서 다른 이용자들과 채팅 및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실제 생활에 필요한 사회적 기능을 습득하며 타인과의 의미 있는 관계를 통해 상호작용해 간다는 것을 밝혀냈다. 조환익과 조희원(2013)도 청소년은 게임을 통해 다양한 교우관계를 형성한다고 주장했으며, 용혜련 외(2019)는 사회적 동기가 게임 리더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인지적 측면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한 연구로는 남기춘(2019)이 대표적이다. 그는 게임의 가장 보편적, 긍정적 특성으로 인지능력의 향상을 들면서 인지적 측면의 긍정적 효과를 밝힌 연구들을 소개하였다. 주의력 통제의 향상(Belchior, Marsiske, Sisco, Yam, Bavelier, Ball와 Mann, 2013; Dye, Green & Bavelier, 2009a; Green & Bavelier, 2003; Oei &

Patterson, 2013), 공감각적 능력의 향상(Okagaki & Frensch, 1994), 집행기능의 향상(Cain, Landau와 Shimamura, 2012), 인지적 기억 및 작업기억의 향상(Oei& Patterson, 2013) 등이 인지적 측면의 긍정적 효과를 검증한 연구들이다[2].

하지만 모든 게임에서 이러한 긍정적 효과를 끌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회성을 증가시키고 자존감을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폭력성이 없는 게임일 경우이며, 따라서 긍정적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게임 종류와 시간 선정이 필요하다(남기춘, 2019). 가상현실을 눈앞에 두고 있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게임은 더이상 특정인의 전유물이 아니며 누구에게나 유효한 삶의 일부분이라 할 수 있다. 게임이 가진 융합적이고 복합적인 성격은 게임을 선용할 때 더욱 빛을 발한다고 할 수 있다.

5. 나가는 말

게임은 무궁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부정적 요인보다 인간에게 이로운 쪽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욱 유용하다. 지금의 세상은 더 이상 오프라인 세계만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가상현실 분야로의 다양한 후속 연구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다. 게임의 교육학적 가치를 제시하는 것은 여러 교육기관, 다양한 학교 현장에서 교과과정, 교양교육 커리큘럼 등에 콘텐츠 개발과 과목 연계 개발 등으로 확산될 것이다. 공학자, 게임 개발자, 예술가, 교육자 등의 지식기반 확장과 창의적이고 발산적인 사고에 조력할 것이며 게임과 게이미피케이션 관련 연구자의 학문적 성취 의욕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학제간 융합 교육의 영역이므로 전문 연구자 간에 네트워크 및 커뮤니티 구축이 가능하다. 학문 간의 경계를 넘어 각 전문 영역의 지평을 넓히고 창조적인 연구 성과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게임의 교육학적 가치 연구를 통해 게임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파악된다.

2) 남기춘 외, 「 게임이 이용자에게 미치는 효과 연구」, 한국콘텐츠진흥원, 2019.

참고문헌

단행본

권보연, 『게이미피케이션』, 커뮤니케이션북스, 2015.

남기춘, 『게임이 이용자에게 미치는 효과 연구』, 한국콘텐츠진흥원, 2019.

논문

김상균, 「인력교육에서 게이미피케이션의 한계와 역효과에 대한 관찰연구」,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15권3호, 한국게임학회, 2015, 87-96쪽.

김정태, 「게이미피케이션을 통한 학습효과 증진 역학모델」,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2014.

김황기, 「몰입 이론으로 본 듀이의 교육적 경험」, 『미술교육논총』 21권1호, 한국미술교육학회, 2007, 307-326쪽.

권보연, 「SNS의 게임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1.

안상혁, 「로제 카이와의 놀이론을 통한 온라인 게임 고찰」, 『디자인학연구』 17권12호, 한국디자인학회, 2010, 120-121쪽.

이병탁, 『전율로서 미적 경험』, 철학연구, 2012, 121권, 131-155쪽.

이재준, 「미적 경험과 인과성과 인간-기계의 상호작용」, 『미학예술학연구』 43권, 한국미학예술학회, 2015, 65-94쪽.

이지훈, 「현대시 교육에서 교육적 경험의 형성 방안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4권9호,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4, 147-168쪽.

이정음, 「게이미피케이션 성공 사례와 e-Book 적용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정책·산업대학원, 2012.

Hamari J., Koivisto J., Sarsa H., “Does Gamification Work? A Literature Review of Empirical Studies on Gamification”, IEEE, 2014, pp.3025-3034.

Hicks G. L., “Gamification: Fuelish or foolish?”, Elsevier Science B.V., 2015, pp.1059-1060.

Hookham G., Nesbitt K., Cooper J., Croft H., Rasiah R., “Gamification for Education: Designing a Pharmacy Education Game”, Springer-Verlag, 2015, pp.157-165.

Hyungsup Yoon ,“Gamification: Its Importance and Limitations”, 한국컴퓨터게임학회, 2013, pp.27-34.

국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디지털 교육의 시대에 게임의 교육학적 가치에 관한 연구를 게이미피케이션을 적용한 수업 모형 콘텐츠 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적 차원에서 게이미피케이션을 적용한 수업을 고안하여 교육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밝힘으로써 교육과 게이미피케이션의 연관성을 명확하게 제시하려고 한다.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게이미피케이션, 나아가 게임 리터러시의 의미를 교육적, 철학적으로 개념화하여 학술적 고찰을 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둘째, 교육이 가지는 추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 구체적인 수업모형 콘텐츠를 제시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때 콘텐츠는 게임을 기반으로 한다. 기능성 게임, 나아가 교육용 게임의 내용과 스토리텔링, 구현방식 등을 제시하여 그에 따른 교육학적 가치를 탐구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다. 나아가 몰입의 의미를 통해 공존적 학습을 게임이 구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탐색한다.

주제어 ● 게이미피케이션, 몰입, 게임, 수업모형, 게임기반학습

Abstract

Game-Based Learning for Coexistent Education
: A Study on Gamification Application Cases

Park, Joo Hee / Chonnam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educational value of games in the digital education era, focusing on the development of instructional model content through the application of gamification. Specifically, the study aims to achieve the following: First, by designing gamification-based lessons and examining how they are concretely implemented in educational settings, the research seeks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education and gamification. This involves conceptualizing the widely known notion of gamification, as well as game literacy, from educational and philosophical perspectives to provide scholarly insights. Second, the study intends to move beyond the abstract meaning of education by presenting concrete instructional model content grounded in games. Functional games and educational games are analyzed in terms of their content, storytelling, and implementation methods, thereby investigating their educational value. Furthermore, the study explores the possibility that games, through the concept of immersion, can realize coexistent learning.

Keyword ● **Gamification, Immersion, Game, Instructional Model, Game-Based Learning**

▌논문투고일:2026.05.31. ▌심사완료일:2026.07.01. ▌게재확정일:2026.07.07. ▌

● ● ● https://doi.org/10.54698/kl.2026.21.79
지식과 교양, 제21호,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Knowledge and Liberal Arts, Vol. 21, LIC, pp.79-116.

초등학생의 큐로AI 활용 경험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 자아인식과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방 진 숙**

목 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연구의 방법
4. 실증분석
5. 연구의 결과
6. 결론 및 제언

1. 서론

최근 초등교육에서는 지식 전달 중심의 수업을 넘어 학생이 직접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경험 중심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늘봄학교, 방과후학교, 디지털새싹 등 AI·SW 체험 프로그램이 확대되면서 초등학생이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자신의 아이디어를 표현하고 결과물로 구현해 볼 수 있는 교육 기회가 증가하고 있다[1)2)]. 이러한 변화는

* "본고는 초고 작성 과정에서 문헌 조사 및 문장 교정을 위해 생성형 AI(ChatGPT, GPT-4o, OpenAI)를 보조적으로 활용하였으며, 모든 내용은 저자가 검토·검증하였다."

** 호서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1) <교육부(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 자료실)>,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97914&lev=0&m=020402&opType=N&page=1&s=moe&searchType=null&statusYN=W, 2025.05.14.

초등 AI·SW교육이 단순한 기능을 학습하기 보다는 문제 해결능력, 창의적 사고력, 자기표현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초등교육에서 이루어지는 AI·SW 교육은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디자인씽킹, 메이커교육, 프로젝트 기반 활동과 연계하여 운영되고 있다[3][4]. 이러한 교육은 학생이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자신의 아이디어를 다양한 결과물로 구현하는 과정을 통해 능동적인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 학생들은 문제를 정의하고, 아이디어를 도출하며, 결과물을 제작하고 공유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을 구체화한다[5]. 또한 학생들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문제를 개선하고 해결하는 경험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성취감과 자기효능감을 형성하게 되며, 이는 자신의 역량과 강점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자아인식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6]. 이러한 경험은 초등학생의 자아인식 형성과도 관련될 수 있다.

최근 초등 창업교육은 경제 개념과 직업 이해를 전달하는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생활 속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경험 중심의 교육으로 발전하고 있다[7]. 초등학생 단계에서의 창업교육은 실제 창업 실행보다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 자기주도적 문제해결 경험, 협업을 통한 아이디어 실현 과정에 더 큰 의미가 있다. 이는 기업가정신의 주요 요소인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과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AI·SW 체험활동은 창

2) <교육부>, https://www.moe.go.kr/boardCnts/fileDown.do?fileSeq=effc4ba6eab8c2f365304192f0b20223&m=&s=moe&utm_source=chatgpt.com, 2025.05.14.

3) 한국과학창의재단, 『디지털새싹 사업 운영 사례집』, 한국과학창의재단, 2024, 25-27쪽.

4) *Tim Brown,* Change by Design: How Design Thinking Transforms Organizations and Inspires Innovation, New York: HarperBusiness, 2009, pp.25-27.

5) 교육부,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 교육부』,교육부, 2024, 2-4쪽.

6) <교육부(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 자료실)>,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97914&lev=0&m=020402&opType=N&page=1&s=moe&searchType=null&statusYN=W, 2025.05.14.

7)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창업가정신 함양 교육 콘텐츠 활용 매뉴얼』,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2023, 6-7쪽.

업교육과 분리된 활동이 아니라, 학생의 문제해결 태도와 기업가적 사고를 형성하는 교육적 경험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큐로AI는 초등학생의 AI 기반 체험학습을 지원하는 도구로 주목할 수 있다. 큐로AI는 얼굴인식, 이미지 분류, 포즈 인식, 머신러닝 기능 등을 학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 교구이면서 교육 플랫폼으로, 학습자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결과물로 구현하고 실시간으로 수정할 수 있다[8]. 학생들은 큐로AI 활동을 통해 문제를 탐색하고 해결 방법을 시도하며, 친구들과 협력하여 결과물을 제작하고 발표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한 기술 활용을 넘어 자기표현, 자기이해, 도전적 태도 형성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자아인식은 자신의 강점과 약점, 감정, 흥미 및 역할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과정으로, 학습자의 자신감과 문제해결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심리적 요인이다[9][10]. 초등학생 시기의 자아인식은 이후 학습태도, 진로인식, 도전 행동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한 기업가정신은 창업의지를 설명하는 주요 요소로 논의되어 왔으며, 기존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과 도전 경험이 기업가정신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11]. 그러나 기존 연구는 주로 청소년이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AI 기반 체험활동과 자아인식, 기업가정신, 창업의지 간의 관계를 함께 분석한 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특히 큐로AI와 같은 체험형 AI 도구를 활용한 활동이 초등학생의 자기이해와 기업가정신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나아가 창업의지와 어떠한 구조적 관계를 갖는

8) <큐브로이드>, https://www.cubroid.co.kr, 2025.05.14.

9) OECD, "Self-awareness (OECD Learning Compass 2030)", <OECD>, 2024, https://www.oecd.org/en/data/tools/oecd-learning-compass-2030.html

10) *Daniel Goleman*,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Bantam Books, 1995, p. 43.

11) *Icek Ajzen,* Attitudes, Personality and Behavior,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1988. pp.43-45.

지에 대한 실증적 논의는 제한적이다. 기존 초등 AI교육은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 학습 흥미 및 태도 변화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어 왔다. 이에 따라 AI 활용 경험이 창업교육과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며, 창의적 문제해결과 기업가정신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큐로AI 활용 경험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자아인식과 기업가정신이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초등 AI·SW교육과 창업교육을 연계한 교육적 가능성을 밝히고, 체험 중심 AI교육 프로그램 설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1) AI활용경험과 자아인식

(1) AI 활용경험의 교육적 특성

초등교육에서는 지식 전달 중심의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이 직접 참여하고 경험하는 활동 중심 학습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AI·SW교육 역시 단순한 기능 습득을 목표로 하기보다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과 협업 역량, 자기표현 능력을 기르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 디자인씽킹, 메이커교육 등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학습 경험은 단순히 기술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학습자의 자신감과 문제해결 태도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Kong et al.(2024)은 디지털 기술 활용 경험이 혁신역량과 기업가적 행동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며, 특히 디지털 기술 자기효능감이 혁신 행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임

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AI 기반 체험활동 역시 학생들의 자기이해와 문제해결 역량 발달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디자인씽킹은 문제 상황에 대한 공감에서 출발하여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방안을 탐색한 뒤 결과물을 구현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메이커교육과 프로젝트 기반 학습 또한 학생들이 직접 결과물을 제작하고 수정하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능동적인 학습 참여를 유도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을 구체화하고 다른 학생들과 협력하며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AI융합교육과 메이커교육을 결합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창의적 문제해결력과 자기주도성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고 있다.

큐로AI는 얼굴인식, 이미지 분류, 포즈인식, 머신러닝 기능 등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개발된 교구이면서, 교구를 활용한 구동을 위한 교육 플랫폼이다. 학생들은 큐로AI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결과물로 구현하고, 결과를 확인하면서 수정·보완하는 경험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히 인공지능 기능을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 문제를 탐색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경험하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미가 있다. 또한 자기 생각을 결과물로 표현하고 개선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 경험을 축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2) AI 활용경험과 자아인식의 관계

자아인식은 자신의 감정과 강점, 약점 등을 이해하고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능력을 의미한다[12]. 자아인식은 학습자의 행동과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심리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자기이해와 자기조절의 기초가 된다.

큐로AI 기반 체험활동은 학생들에게 반복적인 문제 해결 경험과 결과물 제작 경험을 제공한다. 학생들은 활동 과정에서 자신의 강점과 흥미를

12) Ibid., pp.43-46.

발견하고 실패를 수정하며 성취감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큐로AI와 같은 체험형 AI교육은 학생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직접 구현하고 발표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어 자기표현 경험을 확대할 수 있다. 또한 협력 활동 과정에서 자신과 타인의 역할을 이해하게 된다는 점에서 자아인식 형성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최근 연구에서도 프로젝트 기반 AI교육 활동이 초등학생의 자기효능감과 문제해결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최근 생성형 AI 기반 교육 연구에서는 AI 활용 경험이 학습자의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I를 활용한 창작 및 문제해결 활동은 학습자가 자신의 강점과 가능성을 인식하도록 돕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AI 활용 경험이 자아인식 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AI 활용경험은 자아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 AI 활용경험과 기업가정신

(1) AI 기반 문제해결 활동과 기업가정신

기업가정신은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이를 실행으로 연결하려는 태도와 행동적 특성을 의미하며,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 등의 요소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일반적으로 기업가정신은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으로 구성된다.

최근 초등 창업교육은 디자인씽킹, 메이커교육, 프로젝트형 수업과 결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학생들은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 방안을 탐색하며 결과물을 제작하는 경험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창의적 사고와 도전 행동을 촉진하며 혁신성과 진취성 형성의 기반이 될 수 있다. AI 기반 체험활동은 학습자가 다양한 아이디어를 시도하고 결과를 반복적으로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이는 문제해결 과정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도록 유도하며 기업가정신 형성에 필요한 경험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2) AI 활용경험과 기업가정신의 관계

초등학생 대상 창업교육은 실제 창업 활동 자체보다 생활 속 문제를 발견하고 창의적인 해결방안을 제안하는 과정에 의미를 둔다. 따라서 기업가정신은 경제교육의 개념보다는 문제해결력과 도전정신 형성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AI 활용 경험은 학생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하고 다양한 해결방안을 탐색하는 경험을 제공한다. 특히 큐로AI 기반 활동은 학생들에게 창의적 사고와 문제해결 행동을 촉진하고 새로운 시도를 경험하도록 한다. 기존 연구에서도 디지털 기술 활용 경험이 혁신적 사고와 진취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AI 활용경험은 기업가정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uropean Journal of Innovation Management에 게재된 Kong 등(2025)의 연구에서는 기술지향성과 기업가지향성이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며, 디지털 혁신은 디지털 기업가정신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디지털 기술 자기효능감은 디지털 혁신과 디지털 기업가정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AI 활용 경험 역시 새로운 문제를 탐색하고 다양한 해결 방안을 실험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기업가정신 형성과 관련성을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3) 자아인식과 기업가정신

(1) 자아인식의 개념

자아인식은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인식하고 조절하며,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특히 초등학생 시기의 자아인식 형성은 이후 학습태도, 진로인식 및 사회적 관계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최근 교육에서는 학생 스스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이해하는 경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프로젝트형 활동과 협력 중심 수업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역할과 강점을 발견할 기회를 제공하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자기이해 경험이 형성될 수 있다.

(2) 자아인식이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

자신의 강점과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개인은 새로운 과제에 대한 자신감과 도전 의식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Bandura(1986)는 자기효능감이 높은 개인일수록 새로운 과제에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기업가정신은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과 같은 행동 특성을 포함하기 때문에 자신의 역량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학습자일수록 기업가정신 수준도 높게 나타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과 자아인식 수준이 높은 학습자일수록 새로운 활동에 대한 도전 행동과 문제해결 의지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자아인식은 기업가정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4) 자아인식·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

(1)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

창업의지는 미래에 창업활동을 수행하려는 개인의 계획된 의도와 행동의향을 의미하며, 이러한 의도는 실제 행동을 예측하는 중요한 선행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창업의지는 실제 창업행동 이전 단계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요인으로 다양한 연구에서 중요한 변수로 다루어지고 있다.

기업가정신은 창업의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Linan과 Chen(2009)은 기업가정신 관련 특성이 창업의도를 설명하는 핵심 변수임을 제시하였으며, Zhao 등(2005)은 자기효능감이 창업의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선행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최근 연구에서도 디지털 혁신 역량과 기업가적 지향성이 창업의지 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Kong et al., 2024). 혁신성과 진취성이 높을수록 창업의지 역시 긍정적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Linan & Chen, 2009). 따라서 기업가정신은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 자아인식과 창업의지

초등학생 대상 연구에서 창업의지는 실제 창업 자체보다 새로운 활동에 도전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 형성의 측면에서 접근된다. 자신의 능력과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학습자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 적고 미래 행동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

기존 연구에서도 자아인식 수준이 높은 학습자일수록 자기주도적 행동과 도전 의지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자아인식은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3) 매개효과의 이론적 근거

큐로AI 활용 경험은 학습자가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역량과 가능성을 스스로 확인하도록 돕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은 자신에 대한 이해를 높여 자아인식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긍정적으로 형성된 자아인식은 새로운 기회를 탐색하고 도전하려는 성향을 강화하여 기업가정신의 발달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기업가정신은 창업을 실현하려는 의사결정과 행동 의도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큐로AI 활용 경험은 자아인식과 기업가정신을 매개로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더 나아가 자아인식이 기업가정신을 거쳐 창업의지로 연결되는 순차적인 영향 관계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최근 큐로AI 기반 창업교육에서는 AI 활용 경험이 창업의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 자기효능감과 같은 심리적 요인을 매개로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Liu 등(2019)은 창업교육이 창업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며, 향상된 창업 자기효능감은 창업의지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볼 때, 큐로AI 활용 과정에서 형성되는 긍정적인 학습 경험은 학습자의 자아인식을 향상시키고, 향상된 자아인식은 기업가정신의 발달을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형성된 기업가정신은 창업의지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큐로AI 활용 경험이 자아인식과 기업가정신을 매개로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함께, 자아인식과 기업가정신이 순차적으로 매개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3. 연구의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큐로AI 활용 경험이 자아인식과 기업가정신을 매개로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소재 초등학교 및 늘봄학교, 방과후학교, 디지털새싹 프로그램에 참여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은 큐로AI 기반 프로젝트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로 선정하였으며, 연구 목적과 설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한 후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은 초등학생의 이해 수준을 고려하여 문항 표현을 수정·보완하였으며, 담임교사 및 프로그램 운영 강사의 도움을 받아 응답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응답 과정에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였다.

2) 연구 절차

본 연구는 문헌조사와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수행하였다. 먼저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큐로AI 활용 경험, 자아인식, 기업가정신 및 창업의지의 개념과 구성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모형과 설문문항을 구성하였다. 이후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측정 문항을 참고하여 초등학생 수준

에 적합하도록 설문 문항을 수정·보완하였다.

연구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선행연구 및 문헌조사 : 기존 AI·SW교육, 디자인씽킹, 기업가정신, 창업의지 관련 연구를 분석하여 연구모형과 측정요인을 구성하였다.
- 설문 문항 구성 : 본 연구의 설문지는 큐로AI 활용 경험, 자아인식, 기업가정신, 창업의지의 네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각 측정문항은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문항을 참고하여 연구 목적과 대상에 적합하도록 내용을 재구성한 후 사용하였다.
- 예비조사 실시 :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문항 이해도 및 표현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어려운 표현이나 중복 문항을 수정하였다.
- 본 조사 실시 : 최종 설문지를 활용하여 큐로AI 체험활동의 참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 자료 분석 : 수집된 자료는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빈도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 분석, 회귀분석 및 매개효과 분석을 수행하였다.

3) 연구 가설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큐로AI 활용 경험이 자아인식과 기업가정신을 매개로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관련 선행연구를 토대로 주요 요소 간의 관계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1) 큐로AI 활용 경험

큐로AI 활용 경험은 학생들의 AI 기반 체험활동 참여 정도와 활동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측정문항은 학생들이 큐로AI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결과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의 경험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2) 자아인식

자아인식은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 역할 및 강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초등학생의 자기표현과 자기이해 경험을 반영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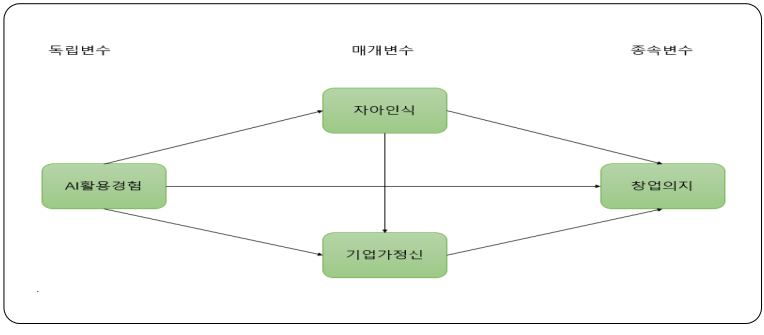
(3) 기업가정신

기업가정신은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을 중심으로 설문을 구성하였다. 학생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하였다.

(4) 창업의지

창업의지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천으로 옮기고 새로운 활동에 도전하려는 의지와 태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하였다. 초등학생 수준을 고려하여 실제 창업 개념보다 도전 행동과 창의적 활동 참여 의지를 중심으로 문항을 수정하였으며, 모든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4) 연구모형



[그림 1] 연구모형

5) 연구가설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큐로AI 활용 경험이 자아인식과 기업가정신을 통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선행연구(D'Zurilla & Nezu, 1990; Chang et al., 2004; Darvishi et al., 2023; Heapy et al., 2024; McCullough et al., 2002)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AI 활용 경험은 자아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AI 활용 경험은 기업가정신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자아인식은 기업가정신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자아인식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 기업가정신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6. AI 활용 경험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7. 자아인식은 AI 활용 경험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H8. 기업가정신은 AI 활용 경험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H9. 자아인식과 기업가정신은 AI 활용 경험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에서 순차적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각 연구가설에 설명은 다음과 같다.

H1. AI 활용경험은 자아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Goleman(1995)은 자아인식을 자신의 감정과 능력, 행동에 대한 이해 과정으로 정의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통한 자기성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최근 AI 기반 교육 연구에서는 프로젝트 중심 AI 활동이 학습자의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성훈·박지연, 2023). 또한 AI 메이커교육에 참여한 학습자들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결과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자기이해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AI 활용경험은 자아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H2. AI 활용경험은 기업가정신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Lumpkin & Dess(1996)는 기업가정신을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으로 구성되는 행동 특성으로 설명하였다. AI 활용 경험은 문제를 탐색하고 새로운 해결방안을 시도하는 경험을 제공하며, 이는 혁신적 사고와 도전 행동을 촉진할 수 있다. 김은정·최유리(2023)는 AI 융합 프로젝트 교육이 학생들의 창의적 문제해결력과 도전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메이커교육과 디지털 창작활동 경험은 학습자의 혁신성과 진취성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rown, 2009). 따라서 AI 활용경험은 기업가정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H3. 자아인식은 기업가정신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아인식은 자신의 능력과 가능성을 이해하고 행동을 조절하는 심리적 특성이다(Daniel Goleman, 1995). Bandura(1986)는 자신의 역량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개인일수록 새로운 과제에 적극적으로 도전한다고 설명하였다. 김대수(2018)는 자기효능감이 높은 개인일수록 혁신성과 진취성 수준이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Zhao, Seibert & Hills(2005) 역시 자기효능감이 기업가정신 형성의 중요한 선행요인임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자아인식은 기업가정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H4. 자아인식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Ajzen(1991)의 계획행동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신념과 태도는 행동의도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자신의 능력과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가진 개인은 새로운 활동에 대한 두려움이 적고 도전 행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Zhao et al.(2005)은 자기효능감이 창업의지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며, 김대수(2018)의 연구에서도 자기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창업의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아인식은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H5. 기업가정신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업가정신은 창업의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선행요인으로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왔다. Lumpkin과 Dess(1996)는 기업가정신을 새로운 기회를 탐색하고 이를 실행하려는 행동적 성향으로 정의하였으며, 혁신성, 위험감수성 및 진취성을 핵심 구성요소로 제시하였다. Linan과 Chen(2009)은 기업가정신과 관련된 특성이 창업의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고, Zhao 등(2005)은 자기효능감과 기업가적 특성이 창업의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다. 국내 선행연구인 김대수(2018) 논문에서도 기업가정신은 창업의지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H6. AI 활용경험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AI 기반 프로젝트 활동은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을 직접 활용하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결과물로 구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김은정·최유리, 2023). 이러한 경험은 학습자의 자신감과 도전 의식을 높이고, 새로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태도를 형성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Zhao 등(2005)은 자기효능감이 창업의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임을 제시하였으며,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창업과 관련된 행동 의도 역시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AI 활용 경험은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H7. 자아인식은 AI 활용경험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Bandura(1986)는 개인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능력과 가능성을 평가하며, 이러한 인지적 과정이 이후의 행동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다. AI 활용 경험은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신의 강점과 가

능성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같이 형성된 자아인식은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자신감을 높여 창업의지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Zhao 등(2005)은 자기효능감이 경험과 창업의도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심리적 요인임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종합해 볼 때, 자아인식은 AI 활용 경험과 창업의지 사이에서 매개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H8. 기업가정신은 AI 활용경험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AI 활용 경험은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하는 과정을 통해 혁신적인 사고와 도전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은 새로운 기회를 탐색하고 실행하려는 기업가정신의 발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Lumpkin & Dess, 1996), 형성된 기업가정신은 창업의지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Linan & Chen, 2009). 또한 김대수(2018)는 기업가정신이 창업의지 형성 과정에서 중요한 매개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종합해 볼 때, 기업가정신은 AI 활용 경험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H9. 자아인식과 기업가정신은 AI 활용경험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에서 순차적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큐로AI 활용 경험은 학생들이 자신의 역량과 가능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제공하여 자아인식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향상된 자아인식은 새로운 기회를 탐색하고 도전하려는 성향을 강화함으로써 기업가정신의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Lumpkin & Dess, 1996), 형성된 기업가정신은 창업의지를 높이는 중요한 선행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Linan & Chen, 2009). 또한 Zhao 등(2005)의 연구는 긍정적인 심리적 특성이 창업의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볼 때, 큐로AI 활용 경험은 자아인식과 기업가정신을 순차적으로 거쳐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4. 실증분석

1)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4.0과 AMOS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어서 측정도구의 내적 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활용한 신뢰도 분석을 수행하였다[13)14)].

변수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큐로AI 활용 경험과 자아인식, 기업가정신 및 창업의지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자아인식과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 및 순차적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기반의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15)].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큐로AI 활용 경험이 창업의지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단순한 AI 기능 습득 여부보다 자기이해 경험과 문제해결 경험, 도전 행동 변화에 초점을 두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연구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계적 유의수준은 $p<.05$로 설정하였다.

2) 표본의 특성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천안에 있는 디지털새싹교육을 듣는 초등학생를 대상으로 작성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25년 6월 1일 ~10월 10일까지 일간 진행되었다. 연구모형에서 제시된 변수들을 중심으로 설문

13) 배병렬, 『AMOS 24 구조방정식모델링』, 청람, 2017, 55-63쪽.

14) 우종필,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한나래아카데미, 2016, 84-89쪽.

15) Joseph F. Hair, Multivariate Data Analysis, 8th ed., Boston: Cengage Learning, 2019, pp.769-790.

을 작성하여 온라인 설문조사 사이트를 통하여 총 300개의 설문 응답을 받았으며 결측치 6건을 제외하고 총 294개를 활용하였다.

인구 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 분포 특성을 살펴보면 남자(58.5%) , 여자(41.5%)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분포 되어 있었다. 학년은2학년, 3학년이 72명으로 24.5%로 공동으로 분포가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4학년 46명으로 15.6%로 나타났다. 큐로AI 사용 유무는 예가 101명 , 아니오는 193명으로 나타났다.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표 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항목	구분	빈도	구성비
성별	남	172	58.5
	여	122	41.5
	합계	294	100
학년	1학년	38	12.9
	2학년	72	24.5
	3학년	72	24.5
	4학년	46	15.6
	5학년	44	15.0
	6학년	22	7.5
	합계	294	100
큐로AI 사용 유무	예	101	34.4
	아니오	193	65.6
	합계	294	100

3) 신뢰성과 타당성 분석

측정도구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해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내적 일관성은 Cronbach's α 계수를 통해 검증하였다. 일반적으

로 Cronbach Alpah 계수가 0.6이상이면 문항들 간에 신뢰도가 있다고 판단한다. 타당성분석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였느냐 하는 문제로써,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베리맥스회전)을 통해 타당성 검정을 실시하였다[16]. 신뢰성, 타당성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신뢰성, 타당성 분석 결과

요인	설문문항	요인 부하량	Alpha if item deleted	신뢰계수 (α)
큐로AI 활용경험	큐로AI활용경험1	.828	.961	.963
	큐로AI활용경험2	.828	.961	
	큐로AI활용경험3	.678	.961	
	큐로AI활용경험4	.867	.961	
자아인식	자아인식1	.766	.961	
	자아인식2	.600	.962	
	자아인식3	.702	.962	
	자아인식4	.666	.962	
	자아인식5	.668	.962	
기업가정신	기업가정신1	.510	.962	
	기업가정신2	.596	.961	
	기업가정신3	.671	.961	
	기업가정신4	.742	.961	
	기업가정신5	.719	.960	
	기업가정신6	.507	.961	
	기업가정신7	.687	.960	
	기업가정신8	.785	.959	
	기업가정신9	.702	.960	
창업의지	창업의지1	.778	.960	
	창업의지2	.770	.960	
	창업의지3	.676	.960	
	창업의지4	.639	.961	
	창업의지5	.670	.962	
요인분석의 타당성	KMO		.753	
	카이제곱		11369.958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유의수준		.000	

16) 배병렬, 앞의 책, 55-63쪽.

(1) 독립변수의 일반속성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독립변수인 큐로AI활용의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결과는 [표 3]와 같다. 요인분석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KMO(Kaiser-Meyer-Olkin) 표본 적합도 검정과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표 3] 독립변수 유형의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항목	요인분석	신뢰도	
	요인1	Alpha if item deleted	Cronbach (α)
큐로AI활용경험1	.935	.935	.934
큐로AI활용경험2	.935	.935	
큐로AI활용경험3	.833	.833	
큐로AI활용경험4	.693	.830	
요인분석의 적 절 성		KMO	.747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유의수준	.000

분석 결과, KMO 값은 0.747로 나타나 요인분석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p=.000), 변수들 간 상관관계가 충분하여 요인분석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자료임을 확인하였다. 큐로AI 활용경험의 4개 문항은 모두 요인적재량이 0.693~0.935의 범위로 나타나 기준값인 0.4를 상회하였으며, 각 문항이 동일한 개념을 안정적으로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신뢰도 분석에서도 Cronbach's α 값이 0.934로 나타나 측정항목 간 내적 일관성이 매우 높은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큐로AI 활용경험 측정도구는 타당성과 신뢰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 후속 분석에 활용하는 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매개변수 2가지 유형의 일반 속성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매개변수의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매개변수 2개의 유형의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항목	요인분석	신뢰도	
	요인1	Alpha if item deleted	Cronbach (α)
자아인식1	.861	.817	.754
자아인식2	.745	.854	
자아인식3	.796	.839	
자아인식4	.810	.835	
자아인식5	.819	.834	
요인분석의 적 절 성		KMO	.870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유의수준	.000
기업가정신1	.772	.925	.925
기업가정신2	.792	.917	
기업가정신3	.725	.922	
기업가정신4	.825	.915	
기업가정신5	.849	.913	
기업가정신6	.757	.919	
기업가정신7	.814	.915	
기업가정신8	.903	.908	
기업가정신9	.803	.916	
요인분석의 적 절 성		KMO	.916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유의수준	0.000

자아인식의 요인분석 결과, KMO 값은 0.870으로 나타나 표본의 적합성이 양호하였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도 유의하게 나타나(p=.000) 요인분석에 적합한 자료임을 확인하였다. 각 문항의 요인적재량은 0.745~0.861로 모두 기준치(0.4)를 상회하였으며, Cronbach's α 값은

0.754로 나타나 타당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가정신의 요인분석 결과에서도 KMO 값은 0.916으로 나타났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은 p=.000으로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 문항의 요인적재량은 0.725~0.903으로 모두 기준치를 충족하였으며, Cronbach's α 값은 0.925로 높은 내적 일관성을 보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자아인식과 기업가정신 측정항목은 모두 타당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의 매개변수를 측정하고 후속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종속변수의 이직의도의 일반속성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종속변수인 창업의지에 대한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종속변수의 유형의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항목	요인분석	신뢰도	
	요인1	Alpha if item deleted	Cronbach (α)
창업의지1	.882	.860	.895
창업의지2	.869	.864	
창업의지3	.878	.862	
창업의지4	.857	.869	
창업의지5	.720	.905	
요인분석의 적 절 성		KMO	.853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유의수준	0.000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요인분석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KMO(Kaiser-Meyer-Olkin) 표본적합도 검정과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을 실시하였다[17].

17) 우종필, 앞의 책, 95-107쪽.

창업의지 측정항목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KMO 값은 0.853으로 나타나 표본의 적합성이 양호하였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p=.000) 요인분석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자료임을 확인하였다. 각 문항의 요인적재량은 0.720~0.882의 범위로 모두 기준치인 0.4 이상을 나타내어 창업의지 구성개념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α 값은 0.895로 나타나 측정항목 간 내적 일관성이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창업의지 측정항목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었음을 보여주며, 본 연구의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과 가설 검증에 활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4) 확인적 요인 분석

본 연구에서는 AMOS 24.0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측정모형의 적합도(χ^2/df=2.30, CFI=.982, TLI=.951, RMSEA=.046)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측정항목의 표준화 요인적재량, 개념신뢰도(CR) 및 평균분산추출값(AVE)이 권장 기준을 충족하여 측정도구의 수렴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였다.[18] [표 6]은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CFA)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표 6]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구성개념	측정항목	표준화계수	CR	AVE
큐로AI활용경험	큐로AI활용경험1	.834	.943	.807
	큐로AI활용경험2	.853		
	큐로AI활용경험3	.950		
	큐로AI활용경험4	.950		
자아인식	자아인식1	.859	.896	.635
	자아인식2	.687		
	자아인식3	.795		

18) 우종필,앞의 책, 147-174쪽.

	자아인식4	.811		
	자아인식5	.821		
기업가정신	기업가정신1	.672	.939	.633
	기업가정신2	.792		
	기업가정신3	.725		
	기업가정신4	.825		
	기업가정신5	.849		
	기업가정신6	.757		
	기업가정신7	.814		
	기업가정신8	.903		
	기업가정신9	.803		
창업의지	창업의지1	.8882	.925	.711
	창업의지2	.869		
	창업의지3	.878		
	창업의지4	.857		
	창업의지5	.720		

본 연구에서는 측정모형의 구성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AMOS 24.0 프로그램을 활용한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였다[19]. 분석 결과 모든 측정항목의 표준화 요인적재량이 .5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개념신뢰도(CR)는 .896~.943, 평균분산추출값(AVE)은 .633~.807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렴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Fornell과 Larcker(1981)의 기준에 따라 판별타당성을 검증한 결과 대부분의 구성개념에서 판별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7]은 판별타당성 검증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분석 결과, 각 구성개념의 AVE 제곱근 값(대각선)이 해당 구성개념과 다른 구성개념 간 상관계수보다 크게 나타나 Fornell-Larcker 기준을 충족하였다. 따라서 각 잠재변수는 서로 구별되는 개념으로 확인되어 판별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된다.

19) 우종필, 앞의 책, 147-174쪽.

5. 연구의 결과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한 후 구조방정식 모형(SEM)을 이용하여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분석은 AMOS 24.0을 사용하였으며, 경로계수, 표준화계수, 표준오차(S.E.) 및 임계비(C.R.)를 기준으로 각 경로의 유의성을 검토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 분석 결과, $\chi^2/df=2.30$으로 권장 기준(3.0 이하)을 충족하였으며, GFI=.982, AGFI=.876, NFI=.980, CFI=1.000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다. 또한 RMR은 .180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본 연구의 구조모형은 적합한 수준으로 판단되며, 연구가설을 검증하는 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은 경로분석의 주요 결과를 [표 9] 로 제시하였다.

[표 9] 연구모형의 검증 결과

가설	경로계수	표준화계수	S.E.	C.R.	P	채택여부
H1	자아인식 ← 큐로AI활용경험	.687	.075	9.186	***	채택
H2	기업가정신 ← 큐로AI활용경험	.766	.072	10.689	***	채택
H3	기업가정신 ← 자아인식	.385	.057	6.751	***	채택
H4	창업의지 ← 자아인식	-.003	.058	-.054	.957	기각
H5	창업의지 ← 기업가정신	1.225	.117	10.512	***	채택
H6	창업의지 ← 큐로AI활용경험	-.260	.100	-2.594	.009	채택
H7	자아인식 ← 큐로AI활용경험	.687	.075	9.186	***	기각
	창업의지 ← 자아인식	-.003	.058	-.054	.957	
H8	기업가정신← 큐로AI활용경험	.385	.057	6.751	***	채택
	창업의지 ← 기업가정신	1.225	.117	10.512	***	

H9	자아인식 ← 큐로AI활용경험	.687	.075	9.212	***	채택
	기업가정신 ← 자아인식	.766	.072	10.689	***	
	창업의지 ← 기업가정신	1.225	.117	10.512	***	
	창업의지 ← 큐로AI활용경험	-.260	.100	-2.594	.009	
	큐로AI활용경험 → 자아인식 → 기업가정신 → 창업의지	순차적 매개효과 확인				

본 연구에서는 큐로AI 활용경험이 자아인식, 기업가정신 및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인식 및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큐로AI 활용경험은 자아인식(β=.687, C.R.=9.186, p<.001)과 기업가정신(β=.766, C.R.=10.689, p<.001)에 모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큐로AI를 활용한 문제 해결과 탐색 경험이 자신의 역량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높이고, 도전성과 혁신성을 포함한 기업가정신 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음을 의미한다.

자아인식은 기업가정신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β=.385, C.R.=6.751, p<.001), 자신의 역량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기업가적 태도가 강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자아인식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β=-.003, C.R.=-0.054, p=.957). 이는 자아인식만으로는 창업의지가 형성되기보다 기업가정신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보여준다.

기업가정신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β=1.225, C.R.=10.512, p<.001). 즉, 혁신성, 도전성 및 진취성이 높을수록 창업의지도 함께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기존 선행연구와도 일치한다.

큐로AI 활용경험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부(-)의 방향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β=-.260, C.R.=-2.594, p=.009). 이는 큐로AI 활용 자체가 창업의지를 직접 향상시키기보다는 자아인식과 기업가정신의 형성을 통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다.

[표 10] Bootstrapping을 이용한 간접효과 검증

가설		간접효과	Boot S.E.	95% CI	p	결과
H7	큐로AI→자아인식→창업의지	.032	.028	-.018~.093	.182	기각
H8	큐로AI→기업가정신→창업의지	.441	.068	.295~.563	.001	채택
H9	큐로AI→자아인식→기업가정신→창업의지	.198	.054	.115~.324	.001	채택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Bootstrapping(5,000회)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표 10]과 같다. 큐로AI 활용경험이 자아인식을 거쳐 창업의지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032로 나타났으나,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182). 따라서 자아인식의 단독 매개효과는 확인되지 않아 H7은 기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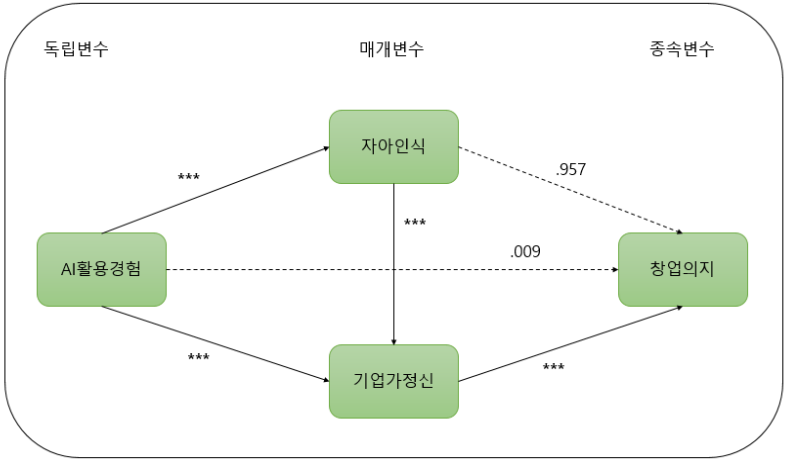
반면, 큐로AI활용경험이 기업가정신을 거쳐 창업의지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441로 나타났으며, 95% 신뢰구간(.295~.563)에 0이 포함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p=.001). 따라서 H8은 채택되었다.

또한 큐로AI 활용경험이 자아인식과 기업가정신을 순차적으로 거쳐 창업의지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198로 나타났으며, 95% 신뢰구간(.115~.324)에 0이 포함되지 않아 순차적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p=.001). 따라서 H9는 채택되었다. 위의 결과는 큐로AI 활용경험이 창업의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기업가정신을 통한 매개효과와 자아인식 및 기업가정신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통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

본 연구 결과는 큐로AI 활용경험이 자아인식과 기업가정신을 매개로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기업가정신이 창업의지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을 보여준다. 최종 연구모형은 [그림 3]과 같다.

본 연구의 가설 검증 결과, 큐로AI 활용경험은 자아인식과 기업가정신에 모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큐로AI를 활용한 다양한 학습 경험이 자신의 역량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하고, 도전성과 혁신성을 포함한 기업가정신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함을 의미한다.



[그림 2] 연구모형 결과

자아인식은 기업가정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창업의지에 대한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p=.957). 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만으로는 창업의지가 형성되기보다 기업가정신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보여준다.

기업가정신은 창업의지에 가장 강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혁신성, 도전성 및 진취성이 높을수록 창업의지도 함께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큐로AI 활용경험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직

접효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p=.009), Bootstrapping 분석 결과를 고려하면 큐로AI 활용경험은 기업가정신과 자아인식 및 기업가정신의 순차적 매개를 통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큐로AI 활용경험은 자아인식과 기업가정신을 통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과정에서 기업가정신이 핵심적인 매개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생의 창업의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큐로AI 활용 교육과 함께 자기이해, 창의적 문제해결 및 기업가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6.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큐로AI 활용경험이 자아인식과 기업가정신을 통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최근 AI·SW교육이 기능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프로젝트 및 체험 중심 학습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큐로AI 활용경험이 학습자의 심리적 특성과 창업의지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분석 결과는 큐로AI 활용경험은 자아인식과 기업가정신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인식은 기업가정신을 향상시키는 데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창업의지에 대한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기업가정신은 창업의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으며, Bootstrapping 분석에서도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와 자아인식 및 기업가정신의 순차적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큐로AI 활용경험이 창업의지를 직접 향상시키기보다는 자아인식과 기업가정신의 형성을 통해 창업의지로 이어지는 과정을 거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 AI교육이 단순한 디지털 기술 습득을 넘어 자기이해,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및 기업가정신을 함께 함양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학생이 스스로 문제를 탐색하고 해결하

며 결과를 개선하는 체험 중심 학습은 자기인식과 도전적 태도를 강화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창업의지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초등 AI·SW교육은 코딩 기술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문제 해결과 프로젝트 기반의 체험형 교육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학생이 직접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결과물을 제작하는 과정은 자기이해와 창의적 사고를 증진하는 데 중요한 교육적 경험이 될 수 있다.

둘째, 큐로AI 기반 교육은 기업가정신 교육과 연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AI 활용 교육과 디자인씽킹, 메이커교육 등을 융합한 프로그램은 문제해결력, 도전정신 및 협업역량을 함께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인 교육모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초등학생의 발달 수준을 고려한 체험형 창업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실제 창업 경험보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색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경험을 제공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과 학년을 대상으로 연구 범위를 확대하여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기효능감, 디지털 리터러시, 학습몰입, 협업 경험 등 다양한 심리적·환경적 변수를 함께 고려한다면 AI 활용경험이 미래역량과 창업의지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심층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는 디지털 기술 활용 경험이 기업가정신을 통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Kong et al., 2024; Xie & Wang, 2025)의 결과를 초등학생 대상 AI교육 환경에서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가진다. 이는 큐로AI 기반 체험활동이 초등학생의 창업역량과 미래역량을 함께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적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존에는 특정 지역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므로 연구 결과

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과 학교급을 대상으로 연구 범위를 확대하고, 자기효능감, 디지털 리터러시 등 다양한 변수를 함께 고려하여 큐로AI 활용경험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양한 생성형 AI 기반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초등 AI교육의 교육적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교육부, 『디지털새싹 및 늘봄학교 운영계획』, 교육부, 2024.

배병렬, 『AMOS 24 구조방정식모델링』, 청람, 2017.

우종필,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한나래아카데미, 2016.

한국과학창의재단, 『디지털새싹 사업 운영 사례집』, 한국과학창의재단, 2024, 25-27쪽.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창업가정신 함양 교육 콘텐츠 활용 매뉴얼』,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2023, 6-7쪽.

Bandura, Albert,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1986.

Daniel Goleman,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Bantam Books, 1995.

Icek Ajzen, *Attitudes, Personality and Behavior*,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1988.

Tim Brown, *Change by Design: How Design Thinking Transforms Organizations and Inspires Innovation*, New York: HarperBusiness, 2009, pp.25-27.

논문

김대수, 「자기효능감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 『벤처창업연구』 13권 2호, 한국벤처창업학회, 2018, 71-84쪽.

김성훈·박지연, 「AI 기반 메이커교육이 학습자의 자기주도성과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 『교육정보미디어연구』 29권 3호, 한국교육정보미디어학회, 2023, 133-154쪽.

김은정·최유리, 「초등학생 대상 AI융합교육 프로그램이 창의적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영향」, 『정보교육학회논문지』 27권 2호, 한국정보교육학회, 2023, 88-104쪽.

김현철·이수정, 「초등 AI·SW교육의 방향과 과제」, 『정보교육학회논문지』 26권 4호, 한국정보교육학회, 2022, 45-47쪽.

박지훈,「초등학생의 창업의지 형성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2021.

조진오,「문제중심학습 기반 생성형 AI 활용 교육이 초등학생의 인공지능 리터러시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2023.

Cronbach, Lee J, "Coefficient Alpha and the Internal Structure of Tests", Psychometrika, vol. 16, no. 3, 1951, pp.297-334.

Fornell, C. & D. F, Larcker.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 18, no. 1, American Marketing Association, 1981, pp.39-50.

Icek Ajzen, I,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vol. 50, no. 2, Academic Press, 1991, pp.179-211.

Kong, L., S. Bano, U. N. Saraih, N. Shah & B. A. Soomro, "Digital Technology and Entrepreneurship: Unveiling the Bridging Role of Digital Innovation", European Journal of Innovation Management, vol. 28, no. 7, Emerald Publishing, 2025, pp.2940-2968.

Linan, F. & Y. W. Chen, "Development and Cross-Cultural Application of a Specific Instrument to Measure Entrepreneurial Intention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vol. 33, no. 3, Wiley, 2009, pp.593-617.

Liu, X., C. Lin, G. Zhao & D. Zhao, "Research on the Effects of Entrepreneurial Education and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on College Students' Entrepreneurial Intention", Frontiers in Psychology, vol. 10, Frontiers Media, 2019, Article 869.

Lumpkin, G. T. & G. G. Dess, "Clarifying the Entrepreneurial Orientation Construct and Linking It to Performanc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 21, no. 1, Academy of Management, 1996, pp.135-172.

McClelland, David C, "Characteristics of Successful Entrepreneurs", The Journal of Creative Behavior, vol. 21, no. 3, Creative Education

Foundation, 1987, pp.219-233.

Xie, Y. & S. Wang,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in Entrepreneurship Education Enhances Entrepreneurial Intention Through Self-Efficacy and University Support”, Scientific Reports, vol. 15, Springer Nature, 2025, Article 22938.

Zhao, H., S. E. Seibert & G. E. Hills, “The Mediating Role of Self-Efficacy in the Development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vol. 90, no. 6,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5, pp.1265-1272.

인터넷 사이트

<교육부(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 자료실)>,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97914&lev=0&m=020402&opType=N&page=1&s=moe&searchType=null&statusYN=W, 2025.05.14.

<교육부>, https://www.moe.go.kr/boardCnts/fileDown.do?fileSeq=effc4ba6eab8c2f365304192f0b20223&m=&s=moe&utm_source=chatgpt.com, 2025.05.14.

<큐브로이드>, https://www.cubroid.co.kr, 2025.05.14.

<OECD>, https://www.oecd.org/en/data/tools/oecd-learning-compass-2030.html, 2026.6.26.

<OpenAI(2025)>, ChatGPT (Aug 14 version) [Large language model]. https://chat.openai.com, 2026.6.26.

국문초록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큐로AI 활용 경험이 자아인식과 기업가정신을 매개로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초등 AI·SW교육은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문제 해결과 창의적 사고를 강조하는 체험 중심 교육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큐로AI와 같은 AI 기반 교육도구는 학생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직접 구현하고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자기이해와 도전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충청남도 소재 초등학교와 늘봄학교, 방과후학교 및 디지털새싹 프로그램에 참여한 초등학생 29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4.0과 AMOS 24.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신뢰도 분석, 타당도 분석, 상관관계 분석 및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큐로AI 활용 경험은 자아인식과 기업가정신을 향상시키는 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아인식은 기업가정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기업가정신은 창업의지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아인식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매개효과 분석에서는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와 자아인식 및 기업가정신의 순차적 매개효과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생의 큐로AI 활용 경험이 기술 활용 능력의 향상에 그치지 않고 자기이해와 기업가정신의 발달을 통해 창업의지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초등 AI교육은 디지털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자기이해, 창의적 문제해결력, 도전정신 및 기업가정신을 함께 함양할 수 있는 융합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주제어 ● 큐로AI, 자아인식, 기업가정신, 창업의지, 초등 AI교육, 디지털새싹

Abstract

The Effect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Curo AI Learning Experience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 The Mediating Roles of Self-Awareness and Entrepreneurship

Bang, Jin Suk / Hoseo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ffect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experience with Curo AI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with self-awareness and entrepreneurship serving as mediating variables. Recently, AI and software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s has shifted from a technology-oriented approach to an experience-based approach that emphasizes problem-solving and creative thinking. In particular, AI-based educational tools such as Curo AI enable students to transform their ideas into tangible outcomes, providing opportunities to enhance self-understanding and develop a willingness to embrace challenges.

To achieve this objective, a survey was conducted with 294 elementary school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elementary schools, Neulbom School programs, after-school programs, and the Digital Saessak Program in Chungcheongnam-do, Republic of Korea.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4.0 and AMOS 24.0. Reliability analysis, valid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were performed to test the proposed research model.

The results revealed that experience with Curo AI had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both self-awareness and entrepreneurship. Self-awareness was found to positively influence entrepreneurship, while entrepreneurship exerted the

strongest positive effect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However, the direct effect of self-awarenes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Furthermore, the mediation analysis confirmed the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of entrepreneurship as well as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 of self-awareness and entrepreneurship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uro AI experience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Curo AI learning experiences in elementary education contribute not only to the development of digital competencies but also to the enhancement of self-awareness and entrepreneurship, ultimately fostering entrepreneurial intention. Therefore, elementary AI education should move beyond technology-oriented instruction and be expanded into integrated educational programs that cultivate self-awareness, creative problem-solving skills, a willingness to take on challenges, and entrepreneurship.

Keyword ● Curo AI, AI Experience, Self-Awareness,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ial Intenti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논문투고일:2026.05.31. ▌심사완료일:2026.06.26. ▌게재확정일:2026.06.30. ▌

● ● ● https://doi.org/10.54698/kl.2026.21.117
지식과 교양, 제21호,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Knowledge and Liberal Arts, Vol. 21, LIC, pp.117-144.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의 글쓰기 주도권 강화 방안 연구

: 대학 글쓰기 교육 목표의 새로운 설계를 중심으로*

유 리 · 김 은 송**

목 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글쓰기 주도권 약화를 초래하는 요인과 교육적 과제
4. 글쓰기 주도권 강화를 위한 대학 글쓰기 교육 목표 설계
5. 결론

1. 서론

2022년 11월 ChatGPT가 대중에게 공개된 후 4년째에 접어드는 지금, 분야를 막론하고 글쓰기의 과정과 결과에 이전과는 큰 변화가 있었다. ChatGPT가 2022년에 처음 공개되었을 때는 GPT-3.5 버전이었고, 이때는 지능이나 문맥 이해력이 기본적인 수준으로 복잡한 문제 처리가 제한적이었다. 또한 문서 추론 능력도 비교적 간단하여 단순 대화를 하거나 기본 정보를 제공하는 데 활용되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이해력이나 복잡한 문제 처리 능력은 처음 공개되었을 때보다 비약적으로

* 본고는 아이디어 탐색, 문장 교정, 영문초록 초안의 표현 점검을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을 보조적으로 활용하였고, 모든 내용은 저자가 검토·수정하였다.

** 유리(제1저자) 국립공주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김은송(교신저자) 동명대학교 학부교양대학 교수

발전하였고, 문서 요약은 물론 기술적인 분석도 가능해져 글쓰기와 데이터 분석까지 그 활용 범위가 폭넓게 확대되었다. ChatGPT가 생성한 텍스트의 수준과 내용은 이미 일반 대중의 호기심을 충족하는 단계를 넘어 넓은 의미의 지적 만족감을 제공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러한 현상은 효율성을 중시하는 시대적 흐름과 맞물려 자연지능을 가진 사람들이 '설마, 아닐 거야. 그렇게까지는 안 될 거야'라며 근거 없이 자기 위안을 삼는 사이, 깊은 사고가 필요한 많은 윤리적 고려를 '건너 뛴 채', 짧은 시간 내에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경제적으로 최소한의 노력을 들여 결과를 획득하고자 하는 인간에게 정답에 가까운 혹은 정답처럼 보이는 결과물들을 질문 즉시 답하는 생성형 인공지능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식에 들어맞는 방법으로 그 활용도를 넓히고 있다.

ChatGPT를 비롯한 생성형 인공지능의 급속한 확산은 대학 글쓰기 교육 환경 전반에도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글쓰기의 전 과정, 즉 계획하기, 내용 생성과 조직하기, 표현하기, 고쳐쓰기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활용될 수 있다. 이는 글의 구조를 설계하고, 문장을 생성하고, 표현을 수정하는 등 전통적으로 학습자의 사고 과정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던 글쓰기의 핵심 과정을 빠르게 대체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도구로서 높은 활용 가능성을 지닌다. 이에 따라 글쓰기 교육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활용의 허용 범위, 과제의 공정성, 평가 방식의 타당성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을 글쓰기에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이 도래함에 따라 글쓰기 교육의 과제와 방향을 새롭게 제안하는 논의들(박상석, 2023; 주민재, 2023; 윤재연, 2024; 이윤빈, 2025)에서는 기존의 글쓰기 교육과는 다른 차원에서 교육 모델을 제시하거나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의 글쓰기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탐색하고 교육 현장을 중심으로 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이들 논의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 방법이나 교육적

대응 전략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생성형 인공지능이 글쓰기 과정의 핵심 사고 활동에 개입하는 상황에서 글쓰기의 주도권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대학 글쓰기 교육의 목표 자체를 어떠한 방향으로 재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는 상대적으로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교수법 제안이 아니라 작문 주체로서 인간의 위치를 재정립하는 동시에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의 글쓰기 상황에서 전통적으로 중시되어 온 글쓰기 교육 목표가 어떻게 강화되어야 하는지를 탐구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를 통해 글쓰기 교육의 목표를 철학적·구조적 차원에서 재설계하고자 한다.

글쓰기 교육의 본질적인 목표인 사고력 함양과 학습자 주체성의 문제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은 과거 인터넷 기반의 기술 개발에 따른 새로운 글쓰기 환경에 놓일 때와는 또 다른 차원과 속도로 글쓰기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글쓰기 과정 전반에 개입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대학 글쓰기 교육은 단순히 새로운 도구에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 글쓰기 행위의 주도권을 누가 지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해 있으며, 이에 대한 답을 모색해야 하는 국면에 놓여있다.

이미 많은 학습자들은 글쓰기 과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깊이 있는 사고 이전에 인공지능이 생성한 문장과 구조에 의존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글쓰기가 고도의 사고를 통해 결과물을 생성하는 인지적인 과정이라기보다, 이미 생성된 텍스트를 선택하고 편집하는 작업으로 전환될 위험이 제기된다. 이러한 변화는 글쓰기 과정의 문제 설정에서부터 방향을 결정하고 의미를 구성하는 핵심 판단 권한이 학습자에게서 인공지능으로 이동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고, 이는 곧 필자의 주도권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글쓰기 주도권이 약화된 상황에서 학습자들은 자신의 사고를 텍스트로 구성하는 경험을 충분히 축적하지 못하게 되고, 이는 대학 글쓰기에서 지향하는 비판적 사고력과 자율적 학습 역량의 형성을 저

해할 수 있다. 따라서 생성형 인공지능 환경에서의 대학 글쓰기 교육은 인공지능 사용의 허용 여부를 넘어서 학습자가 글쓰기의 주체로서 어떤 위치를 점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중심으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생성형 인공지능 환경에서 대학 글쓰기 교육이 지향해야 할 핵심 목표로서 '글쓰기 주도권 강화'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토대로 한 새로운 교육 목표를 탐색하는 데 있다. 여기에서는 글쓰기 주도권을 개념화하고, 이 개념이 대학 글쓰기 교육 목표 설정에서 갖는 교육적 의의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학 글쓰기 교육의 일반적 목표, 인공지능 시대의 글쓰기 교육 방향과 관련된 선행 연구 및 관련 문헌을 분석하는 탐색적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을 전제한 글쓰기 환경 속에서도 학습자의 주도권과 판단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목표가 어떠한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하는지를 검토하는데 초점을 둔다. 이를 통해 대학 글쓰기 교육이 기술 변화 속에서도 교양 교육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1)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 글쓰기의 개념 변화

UNESCO는 교육 및 연구 분야에서의 생성형 인공지능 가이드를 제시하며, 생성형 인공지능 시스템의 교육적·윤리적 적절성에 대한 검증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국제사회가 생성형 인공지능이 지식, 교수, 학습, 평가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 성찰할 것을 촉구했으며,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이 인간의 주체성을 보호하고, 학습자와 교사, 연구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되도록 설계하기 위한 권고사항도 제시하였다.[1)]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은 단순한 도구 사용의 차원을 넘어 인간의 사

1) UNESCO, *Guidance for generative AI in education and research*, Paris: UNESCO, 2023.

고 결과물과 유사한 산출물을 생산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주체성에 대한 재고를 요구한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복합적인 지식 산출을 수행함에 따라 인간의 인지 활동과 기계의 자동화된 생성 과정 간의 경계가 점차 모호해지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인 특성은 인간이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하며 의미를 구성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교육의 본질적인 목표의 붕괴와도 긴밀하게 맞닿아 있다. 교육은 학습자가 단순히 지식을 획득하는 과정이 아니라 비판적 사고와 성찰을 통해 능동적으로 지식을 구성하는 주체로 성장하도록 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생성형 인공지능이 학습 과정에서 핵심적인 활동을 대체하거나 과도하게 지원하는 경우 학습자의 참여와 사고는 축소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교육 분야에서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은 기술적인 효율성에 앞서 인간의 주체성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한편 '자연스럽게 언어를 다루는 것이 인공지능이 넘어야 할 가장 힘든 산'[2]이었으나, 자연어 처리 분야의 비약적인 발전은 대화형 언어 모델의 확산을 촉진하였다. 이에 따라 다양한 맥락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이 활용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자연스러운 언어 구사에 큰 어려움이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는 글쓰기 교육에 중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글쓰기는 필자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사고를 조직하고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대화형 언어 모델이 글쓰기의 전 단계에 걸쳐 핵심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경우에 필자는 사고 작용을 통해 글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의 결과물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수용자의 입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글쓰기 과정에서 요구되는 문제 인식, 관점 설정, 문장 구성 등의 사고 활동이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될 경우 학습자는 사고를 '외주화'함으로써 자신의 목소리와 책임을 지닌 필자로 성장할 기회를 글쓰기 교육을 통해 확보하기 어렵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전술한 바와 같이 글쓰기 분야에 있어 단순한 보조

2) 레이 커즈와일 저, 김명남·장시형 역, 『특이점이 온다』, 김영사, 2021, 392쪽.

도구를 넘어 비교적 완성도가 높은 텍스트를 자동으로 산출하는 주체로 인식되면서 인간 고유의 활동이었던 글쓰기 과정에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 글쓰기 교육은 완성도 높은 결과물 도출을 최종 목표로 삼기보다는 사고 과정 중심의 교육을 통해 인간 고유의 판단력과 가치 형성 능력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2) 글쓰기 주도권의 개념 및 교육적 의의

전통적으로 글쓰기 교육의 현장에서 학습자는 자신의 사고와 판단을 중심으로 글의 목적과 주제를 설정하고, 내용을 구성하며, 표현 방식을 선택하고, 수정하는 역할을 하는 존재였다. 이 과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은 주제를 제안하고, 아이디어를 생성하며, 문장을 작성하고, 구조를 설계하는 등 글쓰기의 핵심 단계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고 여겨진 글쓰기를 포함한 창작 분야에서 기술이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시점에 창작자로서의 필자와 그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글을 쓴 사람을 가리켜 필자라고 한다. 비슷한 의미로 글로 써서 책을 지어 낸 사람을 가리키는 말은 저자로 쓰인다. 필자와 저자는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지만 글을 쓰는 행위에 초점을 둔 필자(writer)와 필자의 발전된 형태로서 그 나름의 목소리를 지니고 한 편의 글을 쓸 수 있는 저자(author)[3]로 구별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글쓰기 행위 주체에 대한 질문은 작문 이론의 고전적 논의에서도 핵심적으로 다루어져 왔다. Flower & Hayes(1981)는 글쓰기를 필자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따라 하위 목표를 조율하며 의미를 구성해 나가는 목표 지향적 사고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이는 글쓰기가 단순한 텍스트 산출 행위가 아니라 필자의 인지적 주도 아래 이루어지는 능동적 의미 구성 과정임을 이론적으로

3) 장지혜, 「작문 교육 관점에서 저자성 논의를 위한 시론」, 『국어교육』 165권, 한국어교육학회, 2019, 142쪽.

뒷받침하는 논거가 된다.

이러한 인지적 주도성은 저자성 논의와도 긴밀하게 맞닿아 있다. 장지혜(2019)는 대학 글쓰기에서 논의되어야 할 핵심으로 저자성 개념을 도입하며, 쓰기 주체가 글쓰기 과정에서 '저자성을 담지한다'는 것은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자 작문교육의 본질인 쓰기를 통한 인간의 형성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저자로서의 인식은 쓰기를 탐구의 과정으로 여기도록 한다는 점에서 대학 글쓰기 교육이 지향하는 바와 긴밀하게 연결된다. 대학 글쓰기 교육에서 학습자는 저자로서 자신의 관점과 논리를 형성하고, 이를 언어적으로 구조화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또한 이들은 학문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외부 정보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수준을 넘어, 문제를 재정의하고 관점을 선택하며 텍스트로 조직하는 능동적인 학습자로 자리하게 된다. 허준행(2025) 역시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의 저자의 역할은 복수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조율하는 큐레이터이자 네트워크 설계자로 재정의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다만 큐레이션과 조율 역시 무엇을 선택하고 배제할지에 대한 판단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저자의 위상 변화는 주도권의 소멸이 아니라 주도권이 행사되는 국면의 이동으로 이해하는 편이 적절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인공지능의 사용 여부 자체보다 글의 의미 형성과 판단 과정에서 '누가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는가'에 주목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글쓰기 주도권'은 글을 쓰는 사람이 글쓰기의 모든 과정에서 자신의 사고와 판단을 중심에 두고 글의 목적을 설정하고, 내용을 구성하며, 표현 방식을 선택하고, 수정 및 성찰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능동적으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역량을 의미한다. 이는 외부의 도움 없이 한 편의 글을 완성하는 독립성과는 구별된다. 즉, 인공지능의 산출물을 활용하더라도 최종 의미 구성과 글의 방향에 대한 통제권은 글을 집필하는 당사자가 유지하는 상태가 핵심이 된다. 이처럼 글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사고의 전개를 스스로 조정하는 자기 주도적 태도는 글쓰기 교육이 비

판적 사고와 더불어 학문적 자율성을 함양하는 교육으로 기능하기 위한 핵심 전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말하는 글쓰기 주도권의 개념은 주체성, 저자성과 유사하지만, 한편 서로 구별된다. 주체성은 필자가 사고의 주체로 존재하는 상태를 말하고, 저자성은 자기 정체성을 확립한 필자의 속성에 해당한다. 주도권은 글쓰기의 의사결정 국면에서 그 주체성이 행사되는 통제권이 어디에 놓이는가에 주목한다. 따라서 주도권은 주체성을 대체하는 개념이 아니라, 생성형 인공지능이 글쓰기 산출물에 개입하는 환경에서 의미 구성의 최종 판단을 누가 보유하는가를 중심으로 이해되는 개념적 틀이다. 이 구별을 전제하면 생성형 인공지능이 프롬프트에 따라 텍스트를 만들어내는 행위 자체는 주도권의 행사로 보기 어렵다. 주도권의 본질은 텍스트를 생성하는 것을 넘어 글의 최종 의미와 방향을 누가 결정하는가에 있기 때문이다. 결국 글쓰기 주도권 강화란 글쓰기 결과물의 외주화가 진행되는 조건에서도 그 통제권을 필자에게 붙들어두려는 교육적 지향으로 볼 수 있다.

3) 기존 대학 글쓰기 교육 목표의 한계

2000년대 들어와 각 대학에서 교양 필수 과목으로 대학 글쓰기가 자리잡은 이후, 글쓰기 교육의 목표와 내용은 다양해져 왔다. 연구자들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대학 글쓰기 교육의 목표와 방향은 크게 의사소통 능력, 사고력 계발과 더불어 자아성찰의 기회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4] 넓은 의미에서 대학의 글쓰기 교육은 이러한 목표들을 지향하고 있지만, 글쓰기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목표는 이보다 구체적으로 설정될 수밖에 없다. 임택균·지현배(2022)에서는 대학 기초 글쓰기 목표 및 내용에 대해 탐색하기 위하여 10년 이상 대학 글쓰기 교육 경험이 있는 교수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활용하여 교육 현장에서 실제 활용

4) 김현정, 「국내 주요 대학 글쓰기 교육의 목표와 내용」, 『리터러시연구』 9권 1호, 한국리터러시학회, 2018, 13쪽.

되고 있는 글쓰기 교육 목표 및 내용에 대하여 파악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내용, 표현, 상황 및 맥락 측면에서의 교육 목표 요인들로 정리한 바 있다. 여기에서 상황 및 맥락 측면은 글쓰기의 목적과 의도 달성, 창의성, 예상독자 고려에 대한 요인으로 글쓰기 주도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지만, 더 많은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 및 표현 측면에 대한 목표는 대체로 글쓰기 결과물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글쓰기 목표에 대한 설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대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학 글쓰기가 교양교육 차원에서 기초 학업 역량을 보완하고, 일정한 규칙과 절차를 토대로 글쓰기를 수행하는 기능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측면도 대학 글쓰기 교육이 지향해야 할 목표에 해당하지만, 이에 치중한 나머지 학습자의 주체적인 사고 형성과 판단 과정에 대한 교육적 개입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제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글쓰기 교육 현장에서 대체로 글쓰기 산출물의 완성도를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는 글쓰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사고 과정의 중요성을 간과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평가 방식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자유롭게 활용하여 글을 쓸 수 있는 시대에 학습자가 자신의 판단과 선택에 책임을 지는 경험들을 축소시킬 수 있어 글쓰기의 주도권 형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생성형 인공지능 확산 이전에 설정된 교육 목표는 기계가 글쓰기 과정에 현재와 같이 깊이 개입하는 상황을 조율하지 못한다. 따라서 학습자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면서도 사고의 주체로서 글 쓰는 과정을 주도하는 기준과 목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에 더욱 중요해진 윤리와 책임성 문제가 교육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더욱이 대학 글쓰기는 문제 의식을 형성하고, 다양한 자료와 관점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새로운 의미를 구성하는 학술적 글쓰기(Academic

Writing)의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관점에서 글쓰기는 쓰기 과정 자체를 통해 사고를 발전시키고 이해를 심화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생성형 인공지능의 대화형 인터페이스는 학습자가 수행해야 할 탐색, 해석, 조직, 논증의 상당 부분을 대신하여 지식 구성 과정에 대한 학습자의 직접적인 참여를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글쓰기 주도권은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 대학 글쓰기 교육이 새롭게 주목해야 할 목표이다.

3. 글쓰기 주도권 약화를 초래하는 요인과 교육적 과제

1) 생성형 인공지능 의존에 따른 사고 주도권 상실 문제

생성형 인공지능은 텍스트 생성 과정을 자동화하여 글쓰기 수행을 보조하는 유용한 도구이다. 하지만 이를 과도하고 반복적으로 활용하면 학습자는 사고 활동 자체를 인공지능에 의존하게 되고, 고차적인 사고를 수반하는 글쓰기 과정에서 결국 사고의 주도권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5]

글쓰기 과정에 많이 활용되는 생성형 인공지능인 ChatGPT의 사용에 있어서도 이러한 의존 문제와 주도권 상실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 ChatGPT와의 상호작용 중에 충동 시스템(impulsive system)은 불균형적으로 관여하고, 반성적 시스템(reflective system)은 제한된 조절 통제력을 행사하여 중독적으로 사용할 위험이 크게 증가하며, 이는 깊이 있는 사고와 분석적인 추론에 대한 동기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6] 이은주

5) 이 현상은 인지 작문 이론의 관점에서 보다 정밀하게 설명된다. Flower & Hayes(1981)에 따르면 글쓰기는 필자가 목표를 세우고 하위 목표를 조율하며 의미를 탐색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초안과 논리 구조를 처음부터 완성된 형태로 제시하면 필자가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 경로를 더듬는 '문제 공간 탐색'의 단계가 막혀버린다. 또한 필자는 자신의 사고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상위인지 통제력'을 행사할 기회를 잃는다. 이것이 단순한 의존을 넘어 사고 주도권을 잃게 만드는 인지적 기제다.

6) Deng, Z., & Deng, Z., "Becoming a cognitive miser?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addictive ChatGPT use", *Social Science & Medicine*, Elsevier Ltd, vol. 383, 2025.

(2023)는 대학 글쓰기 교육과정에서 생성된 학습자의 논리적 글쓰기 포트폴리오 결과물과 ChatGPT 생성 텍스트를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습자는 융복합적, 비판적 사고를 하며 방사형으로 사고를 확장하거나 논리적 흐름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창의성, 포괄적 사유 능력을 발휘하지만 챗GPT는 핵심어 범주 안에서 텍스트를 생성하고, 지정된 영역 안에서 병렬적인 작업을 반복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물론 생성형 인공지능과의 심도 있는 대화 과정을 통해 학습자의 사고가 확장될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에 대한 정의에서부터 자신의 관점을 형성하지 못한 채 의미를 구성하는 모든 경험의 과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는 경우 인공지능은 학습자의 사고 활동 자체를 대체하는 도구로 활용되어 학습자의 인지적인 확장을 도울 수 없게 된다.

무분별한 인공지능 활용은 표면적으로는 이해의 폭을 넓혀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깊이 있는 이해에 도달하는 것을 방해하고, 자기만의 관점을 형성하는 능력을 점차 약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사용이 학습자의 인지적 참여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 연구(Kosmyna et al., 2025)에서도 확인된다.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글을 쓸 때 제시된 과제에 대해 인공지능이 바로 글을 작성하게 한 후 학습자가 약간의 수정 과정만 거쳐 글을 완성하게 되면 이 과정의 어떤 부분에서도 인간 필자가 주도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지금으로부터 약 10여 년 전에도 디지털 시대에 대학 글쓰기 교육 목표와 인문적 교양의 회복에 대한 논의 속에서 학생들이 글쓰기의 필자로서 자기 주체성을 회복[7]하는 것의 중요성이 강조된 바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을 글쓰기 과정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된 시점에는 이에 더해 다양한 인공지능의 특성을 이해하고, 글의 목적에 따른 적절한 인공지능 도구를 비교·선택하며, 생성된 산출물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활용하는,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한 상위

7) 정희모, 「디지털 시대 주체 회복을 위한 대학 글쓰기 교육의 필요성」, 『리터러시연구』 12호, 한국리터러시학회, 2015, 26쪽.

인지 역량을 함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고 확장의 보조 도구로서 적절하게 선택하고 활용하도록 지도하여 학습자가 글쓰기의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

2) 정보 신뢰도 판단과 검증 기반 문해력 결핍

글을 쓰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글쓰기의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디지털 환경에서는 방대한 양의 정보가 빠르게 생산되고 확산되며, 이러한 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방법 역시 다양하다. 이에 따라 과거에 비해 학습자들은 쓰기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많아지고, 정보에 대한 접근이 쉬워졌다. 하지만 그만큼 신뢰도를 판단하고, 적절성을 검증하여 활용해야 하는 정보도 많아졌다고 볼 수 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문해력은 텍스트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에 초점을 두었다. 반면 디지털 환경에서의 문해력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안전하고 적절하게 탐색, 관리, 이해, 통합, 소통, 평가, 창조할 수 있는 능력[8]을 포괄한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기술적인 역량 측면보다 윤리의식을 가지고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문제해결력을 토대로 정보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대학생은 기술적·도구적 디지털 문해력은 높지만, 비판적 읽기와 집중적 읽기, 성찰 등 고차적 역량은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이 있다.[9] 이러한 경향은 기술을 능숙하게 활용하여 많은 정보를 접할 수는 있으나 정보의 신뢰성과 질을 평가하는 능력은 제한적이어서 글을 쓰기 위해 데이터를 활용함에 있어 정보 검증 능력의 부족이라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는 생성형 인공지능 등장 이전부터 디지털 환경에 이미 내재해 있던 구조적인 문제이다.

---

8)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디지털 전환과 교육: SDG4 이행과 Post-SDG4 의제 설정』, 2025, 11쪽.

9) 박찬흥·윤천탁, 「디지털 기반 읽기·쓰기 맥락에서 본 대학생의 디지털 문해력과 글쓰기 윤리」, 『독서연구』 78호, 한국독서학회, 2026, 209쪽.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글을 쓸 경우 정보 검증 문제는 더욱 중요하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학습된 다양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텍스트를 생성하지만, 그 결과가 항상 정확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생성된 결과물을 검증 과정 없이 글쓰기에 수용하는 경우 잘못된 정보가 그대로 글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비판적 사고 과정이 생략된 글쓰기는 단순히 오류를 포함한 글을 쓰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문해력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로 작용한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이 정보를 요약, 정리하는 기능을 수행하면서 많은 학습자들은 자료를 검증하는 과정을 생략한 채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반해 탐색 및 검증 능력이 높은 학생들은 문제와 검색한 정보를 연결시켜 외부 정보가 문제해결을 위해 적절한지 고민하고, 더 적합한 정보를 찾기 위한 행동양식을 보일 수 있다.[10] 이러한 학습자들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글쓰기의 과정에서도 수집한 정보를 자신의 논지에 적합하게 재구성하고, 정보 활용의 과정에서 주도권을 유지하며 자신의 판단에 근거한 글쓰기를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적 차원에서 단순한 정보 활용 능력을 넘어 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하고, 검증하는 능력을 핵심 문해력 요소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3) 필자 고유성과 정체성 약화 현상

글쓰기는 본래 필자가 자신의 경험, 사고, 가치, 관점을 바탕으로 의미를 구성하는 행위이므로 글에는 개인의 사고 방식과 표현 방식에서의 고유성이 드러나며, 이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다. 글쓰기에서 고유성은 창의성과는 구별된다. 창의성은 교육을 통해 형성하고 길러내야 할 능력으로 볼 수 있지만 고유성은 모든 개인이 언제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교육을 통해 발견해야 할 특성으로 볼 수 있다.[11]

10) 장나영, 「대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탐색」, 『교양교육연구』 17권 5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23, 94쪽.

11) 이재기, 「저자의 고유성 강화를 위한 글쓰기 교육의 의의와 방향」, 『작문연구』 46호,

고유성이 드러나는 글쓰기는 비범한 통찰, 독창적인 아이디어, 심오한 사유를 담은 글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탁월성을 전제로 하는 글쓰기가 아니라 일상적인 언어 사용과 평범한 서술 방식 속에서도 충분히 고유성이 드러날 수 있다. 필자의 경험이나 인식의 방식, 미세한 표현 방법의 차이는 글 속에 자연스럽게 반영되며, 이러한 차이가 필자만의 고유성을 구성한다. 고유성은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내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언어를 어떠한 방식으로 배열하고, 필자의 사고나 경험과 어떻게 결합시키는가와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이미 존재하는 담론과 필자가 가진 생각의 관계 설정을 통해 구체화되는 입장의 구성 및 표현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글에서의 고유성은 얼마나 큰 차별성을 절대적으로 지니고 있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맥락 속에서 드러나는 상대적인 특이성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필자의 고유성과 정체성이 드러나는 글을 쓰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경험과 관점을 중심으로 글을 구성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생성형 인공지능이 제시하는 구조와 표현 방식에 익숙해질 경우 글쓰기에서 글을 쓰는 사람의 고유하고, 개인적인 목소리가 희미해질 수 있다. 이는 학습자가 글을 쓰는 과정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표현하는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안정적이고 일관된 문장으로 글을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 과정에서 결과물 간의 차별성이 축소되고, 개별 필자들의 경험과 인식이 반영될 여지가 제한됨으로써 글쓰기의 고유성이 약화될 수 있다. 또한 학습자는 자신의 생각을 바탕으로 글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내용을 구성하는 경험을 충분히 할 수 없게 되어 개인적인 의미 구성 능력과 표현 능력을 신장시킬 수도 없게 된다. 따라서 글쓰기 교육에서는 필자가 자신의 경험과 관점을 바탕으로 고유한 목소리를 발견하고, 이를 글로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작문학회, 2020, 38쪽.

4. 글쓰기 주도권 강화를 위한 대학 글쓰기 교육 목표 설계

1) 글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비판적 사고력 강화

글쓰기 과정에서 필자가 문제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형성하며 논리를 구성하는 데에는 비판적 사고력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생성형 인공지능이 글쓰기 결과물을 자동으로 산출하는 환경에서는 글쓰기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고 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특히 인공지능에 대한 의존은 문제 정의와 논리 설계를 약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글의 시작점에서부터 학습자가 주도권을 잃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물론 글쓰기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성형 인공지능이 무용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글쓰기에 대한 정의를 생성된 결과물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주체적으로 재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새로운 질문을 생성하는 비판적인 사고 과정을 거치는 활동으로 본다면, 이는 교육적으로 수용 가능하다.[12] 즉 생성형 인공지능이 산출한 결과물을 단순히 글에 활용되는 텍스트가 아니라 비판적으로 검토되고 재구성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에도 형식에 부합하는 완성도 높은 글을 작성하는 경험과 글쓰기의 기본 원리 및 장르별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실제 글쓰기 수행에 적용해 보는 경험을 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교육 내용에 해당한다. 다만 글쓰기 교육의 초점은 이를 넘어서 글쓰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사고 활동 자체를 중심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는 다양한 사회적·학문적 문제를 분석하고, 서로 다른 관점을 비교하며 비판적 사고를 토대로 이해하고, 혹은 자신과 다른 입장을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기도 하면

12) 주민재, 「생성형 인공지능과 인간의 글쓰기 작동 원리 비교 분석-디지털 리터러시 전환기에서 쓰기 교육의 이론적 재구성 모색」, 『리터러시연구』 16권 3호, 한국리터러시학회, 2025, 57쪽.

서 자신의 입장을 형성하며 글쓰기에 참여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글쓰기 교육은 학습자가 글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주도적으로 의미를 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글의 구조를 교육할 때에도 구조에 관한 이론적 토대를 미리 제공하기보다는 학습자가 스스로 글의 구조를 설계하고, 그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글쓰기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모범적인 글의 형식을 모방하는 수준을 넘어서 글의 구조를 조직하는 것 자체도 하나의 사고 과정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학습자가 자신의 논리를 주체적으로 구성하고, 비판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 설계 경험은 글의 방향과 전개 방식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을 형성시킬 수 있다.

비판적 사고력 강화는 글쓰기 교육에서 새로운 목표는 아니지만, 글쓰기 주도권 확보 차원에서 이를 재해석할 때에는 학습자가 글을 쓰는 주체로서 다양한 정보와 생성형 인공지능이 산출한 결과물을 마주하는 과정에서 자신만의 준거 틀을 설정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즉 비판적 사고는 글을 생성하고 조직하는 과정에서 외부의 권위에 매몰되지 않고, 자신의 인지적 판단을 문장화할 수 있는 주체적 역량으로 기능해야 한다.

나아가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의 글쓰기에서는 비판적 사고의 의미를 보다 확장하여 목적에 따라 적절한 도구를 선택·비교·활용하는 과정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글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비판적 사고력을 강화하는 대학 글쓰기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학습자가 무엇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데에 있지만, 동시에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 방식을 스스로 판단하고 조절할 수 있는 상위인지 역량을 함양하는 방향으로까지 확장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글쓰기 과정에서도 학습자가 자기 주도적으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과정임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검증 기반 정보 문해력 및 윤리적 활용 능력 신장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한 글쓰기의 확산은 학습자로 하여금 정보의 질적 수준을 식별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음모론이나 허위 정보도 통계, 그래프, 전문가 담론 등의 '생성된' 형식을 활용하여 설득력을 갖춘 정보로 제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대학 글쓰기 교육에서는 데이터의 출처와 맥락을 추적하도록 하는 검증 기반의 정보 문해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글쓰기에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는 기술을 넘어 정보의 생산 의도와 신뢰성까지도 다각도로 검증하고, 이를 자신의 글쓰기에 활용할지의 여부를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사고'를 의미한다.

특히 글을 쓰기 위해 인공지능을 도구로 활용할 때에는 학습자가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검증 및 텍스트를 생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읽기'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는 단순히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읽기와는 구별된다. 이 과정에서 정보의 진위를 충분히 점검하지 않으면 이를 토대로 작성된 글은 타인 혹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오류를 재생산하는 데 그칠 가능성이 있게 된다. 이는 필자로서의 책임을 저버리고 부정확한 지식의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잠재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학습자는 글쓰기의 내용 생성 단계에서 수용하게 되는 자료의 신뢰성이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한편 정보 활용 과정에서의 윤리적 책임 역시 중요한 교육 목표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 글쓰기에서 윤리적 책임은 기존에도 지속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생성형 인공지능이 글쓰기 과정에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윤리적 성찰을 글쓰기의 주도권과 연계하여 더욱 핵심적인 요소로 강조할 필요가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의 윤리적 책임은 글쓰기의 주도권이 필자에게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성립하며, 필자가 글쓰기 과정의 의사 결정과 최종 판단을 주도할 때 비로소 인

공지능 활용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천을 위해서는 교육 목표의 설계와 함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글쓰기 교육 현장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글쓰기 윤리 기준도 마련되어야 한다.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글쓰기 윤리의 하위 범주로 투명성과 책무성을 둘 수 있는데 투명성은 필자가 인공지능 활용 과정과 결과를 모두 공개하고 근거를 밝히는 것, 책무성은 인공지능 활용 과정과 결과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것이 필자 자신의 사회적 책임임을 인식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13] 이러한 하위 범주를 토대로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글쓰기 교육 현장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글쓰기 윤리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생산한 텍스트나 정보를 사용할 경우 그 출처와 활용 방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표절, 저작권 문제와 같은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기준의 필요성과 적용 방식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학습자는 인공지능 산출물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윤리적 책임 의식을 갖지 못한 채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태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태도의 고착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윤리적 책임 의식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건전한 글쓰기 문화를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글쓰기 윤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필자의 윤리적 책임 의식을 교육 목표로 강조함으로써 글쓰기 윤리를 체계적으로 익히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생성형 인공지능 산출물의 한계와 활용 범위를 이해하고, 인공지능 활용 여부 및 산출물에 대한 적절한 인용·표기 방식 등을 교육 내용에 포함하여 학습자가 올바르고, 주체적으로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책임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3) 김희동 외, 「인공지능 활용 글쓰기의 윤리적 쟁점 탐색-표절 문제를 중심으로-」, 『국어교육』 189권, 한국어교육학회, 2025, 166쪽.

3) 필자 정체성 기반 고유한 목소리 창출 역량 배양

대학에서의 글쓰기는 필자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교육에도 주력할 필요가 있다. 대학 교육은 전공을 토대로 한 학술 공동체에 참여하는 일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어 나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에서 학습자가 단순한 지식 수용자를 넘어 생산자로서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대학 글쓰기에서 필자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은 단순히 글쓰기의 스타일, 양식의 독창성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단순히 개인적 경험을 드러내는 것만이 아니고, 글을 쓰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글쓰기의 수행이 판단을 지연시키는 데 얼마나 기여하는지 그 과정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어떻게 조정되는지 등과 관련한 것이 핵심[14]이라고 볼 수 있다.

대학에서 교양교육으로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글쓰기를 가르칠 때는 학습자가 자신의 경험과 기존 담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관점을 종합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의미를 재구성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필자 정체성 기반의 고유한 목소리는 완전히 새로운 생각의 창출이 아니라, 선행 논의와의 대화 속에서 자신의 입장을 정교화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능력으로 드러날 수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 시대의 글쓰기 교육은 기존 지식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새롭게 확장하고 재맥락화하는 실천적 역량을 기르는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학습자는 자신의 사고를 수정하고, 관점을 정립하는 힘을 기르며 필자 정체성에 기반한 고유성을 드러낼 수 있다.

필자 정체성 기반의 고유한 목소리는 처음부터 완결된 형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주도적으로 점검하고 조정하는 가운데 발

14) 장지혜, 앞의 논문, 162쪽.

견되고, 표현될 수 있다. 글쓰기는 새로운 정보와 타인의 논의를 수용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능동적으로 설계해 나가는 과정이다. 따라서 대학 글쓰기 교육은 학습자가 텍스트 생산의 주도권을 갖고, 필요에 따라 자신의 생각을 수정하고 보완하며 정교하고 설득력 있는 목소리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이 장에서 제안하는 세 가지 교육 목표를 핵심 역량과 구체적 수행 성취 기준으로 구체화 할 수 있다. 이는 최근 고등 교육이 지식의 축적과 전달 중심의 교육 패러다임에서 학습자의 실제 역량 함양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여기에서의 핵심 역량은 전공 분야와 관계없이 모든 대학생이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역량에 해당한다. 따라서 많은 대학에서 교양필수 교과목으로 운영되는 대학 글쓰기 역시 핵심 역량을 중심으로 그 교육 목표와 내용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표 1] 글쓰기 주도권 강화를 위한 교육 목표 구체화

교육 목표	핵심 역량	수행 성취 기준
비판적 사고력 강화	문제 정의 및 논리 설계 역량	인공지능이 제시한 정보와 논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자신의 문제 의식과 관점을 바탕으로 글의 주제설정 및 논리 구조와 전개 방식을 설계한다.
	상위인지적 인공지능 활용 및 조정 역량	글쓰기 목적에 따라 다양한 인공지능 산출물을 비교·분석하고, 그 한계와 편향을 비판적으로 평가하여 전략적으로 활용한다.
검증 기반 정보 문해력 및 윤리적 활용 능력 신장	정보 신뢰성 검증 및 평가 역량	자료의 출처와 생산 의도를 확인하고, 정보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여 활용한다.
	인공지능 활용 윤리 실천 역량	인공지능 활용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결과물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며 윤리적으로 활용한다.

필자 정체성 기반 고유한 목소리 창출 역량 배양	의미 재구성 역량	다양한 자료와 인공지능 산출물을 자신의 맥락에서 재해석하고 새로운 의미를 구성한다.
	자기 표현 및 정체성 형성 역량	기존 담론과의 대화 속에서 자신의 입장을 정교화하고 필자 고유의 목소리로 표현한다.

이상에서와 같이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교육 목표를 핵심 역량과 구체적인 수행 성취 기준을 통해 제시한 것은 대학 글쓰기 교육의 목표를 실제 교수·학습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수준으로 명료화하고, 학습자의 성취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5. 결론

생성형 인공지능이 글쓰기의 과정에 깊이 개입하게 된 것은 단순히 펜에서 키보드로 넘어가는 도구 전환의 문제가 아니다. 인간만의 영역으로 생각되었던 사고의 영역에 직접적으로 기술이 관여하게 된 시점에 고도의 사고를 거친 결과물을 만들어가는 글쓰기를 교육함에 있어 교육의 목표와 방법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확산으로 인하여 대학 글쓰기에서 학습자의 글쓰기 주도권이 약화되는 현상에 주목하여 그 요인을 분석하고, 대학 글쓰기 교육 목표를 재설계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문헌 연구를 중심으로 글쓰기 주도권 약화의 원인과 교육적 과제들을 도출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학습자의 주체성과 비판적 사고를 강화할 수 있는 글쓰기 교육 목표를 새롭게 설계하였다.

글쓰기 주도권 약화의 주요 요인으로는 인공지능 의존에 따른 사고 주도권의 상실, 정보 신뢰도 판단 및 검증 기반의 문해력 결핍, 필자 고유성과 정체성의 약화를 도출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글쓰기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비판적 사고력의 강화, 검증 기반 정보 문해력과 윤리적 활용 능

력의 신장, 그리고 필자 정체성에 기반한 고유한 목소리 창출 역량의 배양을 핵심으로 하는 대학 글쓰기 교육 목표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교육 목표는 개인 차원에서의 성장을 기대하는 데 한정되어 있지만, 다수의 학습자가 함께하는 대학 글쓰기 교육에 있어서는 교육에 참여하는 학습자들 간의 협상과 담화 공동체 활동을 통한 의미 구성 과정 역시 고등 사고력 신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기대할 수 있다. 고립된 개인적 차원에서의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의존은 다양한 생각을 가진 담화 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생성형 인공지능을 단순히 개인의 글쓰기 보조 도구로 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습자 간 상호작용과 협력적 의미 구성 과정 속에서 비판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적 설계 역시 필요하다. 특히 다양한 관점이 교차하는 학술 공동체 안에서 학습자들이 생성형 인공지능의 산출물을 검토하고 조정하며 재구성하는 경험은 고등 사고력과 책임 있는 글쓰기 태도를 동시에 함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문헌 분석에 기반한 탐색적 연구로서의 한계를 지닌다. 제안한 교육 목표를 실제 강의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교수자가 학습자의 인공지능 활용 양상과 수준에 따라 교육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고,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까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대학별 교육 환경과 학습자의 디지털 역량 차이를 고려하여 동일한 교육 목표가 다양한 교육 맥락에서 동일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교육 목표를 반영한 구체적인 강의 모형과 교수·학습 방안을 개발하고, 이를 실제 수업에 적용하여 교육적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의 변화된 글쓰기 환경을 고려하여 대학 글쓰기 교육이 지향해야 할 목표를 재검토하고, 학습자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과정에서도 자신의 판단과 표현을 바탕으로 주도적이

고 책임감 있게 글쓰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둔 교육 목표를 설계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향후 실증적 연구를 통해 이러한 교육 목표의 적용 가능성과 효과가 구체적으로 검증된다면,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 대학 글쓰기 교육의 실천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레이 커즈와일 저, 김명남·장시형 역, 『특이점이 온다』, 김영사, 2021.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디지털 전환과 교육: SDG4 이행과 Post-SDG4 의제 설정』, 2025.

UNESCO, *Guidance for generative AI in education and research*, Paris: UNESCO, 2023.

논문

김현정, 「국내 주요 대학 글쓰기 교육의 목표와 내용」, 『리터러시연구』 9권 1호, 한국리터러시학회, 2018, 9-40쪽.

김희동·김종윤·오은하, 「인공지능 활용 글쓰기의 윤리적 쟁점 탐색-표절 문제를 중심으로-」, 『국어교육』 189권, 한국어교육학회, 2025, 181-213쪽.

박상석, 「챗GPT 시대 대학 글쓰기 교육의 대응 방안 연구-과정중심 글쓰기의 가치 재인식과 내실화를 중심으로」, 『리터러시연구』 14권 6호, 한국리터러시학회, 2023, 259-292쪽.

박찬흥·윤천탁, 「디지털 기반 읽기·쓰기 맥락에서 본 대학생의 디지털 문해력과 글쓰기 윤리」, 『독서연구』 78호, 한국독서학회, 2026, 181-215쪽.

윤재연, 「인공지능 글쓰기 시대의 대학 글쓰기」, 『교육과학연구』 26권 4호, 제주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 2024, 1-30쪽.

이윤빈, 「생성형 AI 시대, 대학 글쓰기 교육의 재구성 방안-과정 중심·장르 기반 교육과 AI 리터러시 교육을 통합한 'AI 협력 글쓰기 교육 모형' 제안」, 『리터러시연구』 16권 4호, 한국리터러시학회, 2025, 175-207쪽.

이은주, 「챗GPT 시대, 대학 글쓰기 교육의 방향: 챗GPT 생성 텍스트와 대학생 글쓰기 포트폴리오 사례 비교분석」, 『국제언어문학』 56호, 국제언어문학회, 2023, 329-347쪽.

이재기, 「저자의 고유성 강화를 위한 글쓰기 교육의 의의와 방향」, 『작문연구』 46호, 한국작문학회, 2020, 35-70쪽.

임택균·지현배, 「대학 기초 교양 글쓰기의 교육 목표 구체화 연구」, 『문화와 융

합』 44권 9호, 한국문화융합학회, 2022, 33-48쪽.

장나영, 「대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탐색」, 『교양교육연구』 17권 5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23, 93-111쪽.

장지혜, 「작문 교육 관점에서 저자성 논의를 위한 시론」, 『국어교육』 165권, 한국어교육학회, 2019, 141-171쪽.

정희모, 「디지털 시대 주체 회복을 위한 대학 글쓰기 교육의 필요성」, 『리터러시연구』 12호, 한국리터러시학회, 2015, 11-32쪽.

주민재,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의 글쓰기 교육 방향 모색-'쓰기 전 단계'에서 ChatGPT 활용에 대한 대학 학습자의 효용성 인식 분석을 중심으로-」, 『돈암어문학』 44권, 돈암어문학회, 2023, 71-103쪽.

주민재, 「생성형 인공지능과 인간의 글쓰기 작동 원리 비교 분석-디지털 리터러시 전환기에서 쓰기 교육의 이론적 재구성 모색」, 『리터러시연구』 16권 3호, 한국리터러시학회, 2025, 39-72쪽.

허준행,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 저자의 위상 변화 연구」, 『영주어문』 61권, 영주어문학회, 2025, 377-401쪽.

Deng, Z., & Deng, Z., "Becoming a cognitive miser?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addictive ChatGPT use", *Social Science & Medicine*, Elsevier Ltd, vol. 383, 2025.

Flower, L., & Hayes, J. R., "A cognitive process theory of writing", *College Composition and Communication*, vol. 32, no. 4, 1981, pp.365-387.

Kosmyna, N., Hauptmann, E., Yuan, Y. T., Situ, J., Liao, X.-H., Beresnitzky, A. V., Braunstein, I., & Maes, P., "Your brain on ChatGPT: Accumulation of cognitive debt when using an AI assistant for essay writing task", arXiv, 2025, https://doi.org/10.48550/arXiv.2506.08872

국문초록

본 연구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확산이 대학 글쓰기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였다. 특히 학습자의 글쓰기 주도권이 약화되는 현상과 그 요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이를 바탕으로 대학에서의 글쓰기 교육 목표를 새롭게 설계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이 학습자의 글쓰기 과정에서 일반화됨에 따라 학습자가 주도권을 발휘하며 사고하고 글을 구성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관련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문헌 연구를 중심으로 학습자의 글쓰기 주도권 약화의 주요 원인과 교육적 과제들을 살펴보았다. 글쓰기 주도권 약화의 주요 요인으로는 첫째, 인공지능 의존에 따른 사고 주도권의 상실, 둘째, 정보 신뢰도 판단 및 검증 기반의 문해력 결핍, 셋째, 필자 고유성과 정체성의 약화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대학 글쓰기 교육 목표를 재설계하고자 하였으며, 구체적으로 글쓰기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비판적 사고력의 강화, 검증 기반 정보 문해력과 윤리적 활용 능력의 신장, 그리고 필자 정체성에 기반한 고유한 목소리 창출 역량의 배양을 핵심 목표로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이 확산되는 시대 속에서 대학 글쓰기 교육이 직면한 과제들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 목표를 제시했다는 점에 있다. 단순히 기술 활용 능력을 높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학습자가 글쓰기 과정에서 사고의 주도권을 유지하고, 정보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판단하며, 필자로서의 고유한 정체성과 목소리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적 방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글쓰기 교육 분야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의 가능성과 한계를 균형 있게 고려하는 가운데 본 연구가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에 적합한 글쓰기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학습자의 능동적이고 주도적이며 책임감 있는 글쓰기 역량을 회복하고, 강화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생성형 인공지능, 대학 글쓰기 교육, 글쓰기 주도권, 비판적 사고력, 정보 문해력, 필자 정체성

Abstract

A Study on Strategies for Strengthening Writing Agency in the Era of Generative AI
: Focusing on the Redesign of Education Objectives in College Writing Education

Yu, Ri / Kongju National University
Kim, Eun Song / Tongmyong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the widespread adoption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AI) on university writing education. In particular, it focuses on the phenomenon of the weakening of students' writing agency and analyzes its underlying causes, with the aim of redesigning educational objectives in university writing instruction. As the use of generative AI has become increasingly common in the writing process, concerns have emerged that students' ability to think independently and exercise writing agency in composing texts has relatively declined. To address this issue, this study reviews relevant prior research and conducts a literature-based analysis of the major causes of the weakening of students' writing agency and the associated educational challenges. The analysis identifies three primary factors contributing to this phenomenon: (1) the loss of cognitive agency resulting from overreliance on AI, (2) insufficient information literacy, particularly in evaluating and verifying the credibility of information, and (3) the weakening of authorial identity and individual voice.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proposes a redesigned framework for educational objectives in university writing instruction. Specifically, it suggests three core goals: strengthening critical thinking to secure students' writing agency, enhancing verification-based information literacy and ethical use of AI, and cultivating the ability to develop

an authentic authorial voice grounded in students' authorial identity.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in its analysis of the challenges facing university writing education in the era of generative AI and in its proposal of educational objectives that respond to these challenges. Rather than focusing solely on improving technical proficiency in the use of AI tools, this stud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writing agency throughout the writing process, critically evaluating the reliability and accuracy of information, and forming a distinctive authorial identity and voice. By balancing both the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of generative AI in writing education, this study aims to suggest an appropriate direction for writing pedagogy in the AI era and to contribute to fostering students' active, autonomous, and responsible writing capabilities.

Keyword ●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University Writing Education, Writing Agency, Critical Thinking Skills, Information Literacy, Authorial Identity

▌논문투고일:2026.05.29. ▌심사완료일:2026.07.01. ▌게재확정일:2026.07.07. ▌

● ● ● https://doi.org/10.54698/kl.2026.21.145
지식과 교양, 제21호,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Knowledge and Liberal Arts, Vol. 21, LIC, pp.145-176.

시각적 사고 전략을 활용한 외국인 유학생 비평문 쓰기 수업 설계 연구

: 르네 마그리트의 《이미지 배반》을 중심으로*

이 미 옥**

목 차

1. 서론
2. 시각적 사고 전략(VTS)과 비평문 쓰기
3. 비평문 쓰기 수업 설계
4. 실제 수업에서의 적용과 질적 사례 분석
5. 결론

1. 서론

최근 국내 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1],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양 글쓰기 교육의 질적 재구성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교양필수 글쓰기 과목은 전공을 불문하고 모든 학습자가 이수하는 공통 교육 영역으로서, 비판적 사고력과 근거 기반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대학 핵심 역량을 형성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외국인 유학생도 마찬가지다. 학부에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 또한 내국인 유학생과 마찬가지로 교양 글쓰기는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과목 중 하나이

* 이 논문은 2026학년도 홍익대학교 학술연구진흥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 홍익대학교 교양교육원 조교수
1) 지난 25년간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 수는 3,418명(1999년)에서 20만 명 이상(2024년)으로 약 61배 증가하였으며, 정부는 2027년까지 3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는 'Study Korea 300K Project'를 추진하고 있다.

며 그들을 가르침에 있어서는 내국인과는 다른 교수법이 요구된다.

그동안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양 글쓰기 연구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유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는 교육과정 운영 현황과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로 이들 연구에는 외국인 유학생 전용 분반 운영 사례와 교양 글쓰기 교육에 있어서의 한계와 같은 외국인 학생들의 학습 적응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그에 따른 제도적 차원의 개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2] 한편 내국인 학생과는 다소 차별화된 유학생을 위한 글쓰기 교육의 목표와 내용 체계를 재검토하거나[3], 교양 교육으로서의 한국어 쓰기 교육과정 개발의 기초 방향을 모색한 연구들도 적지 않게 이루어졌다.[4]

앞의 것이 제도적 차원의 접근이라면 두 번째는 수업 진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교재와 수업 설계에 대한 논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양 글쓰기 교재 개발 연구[5], 특정 장르의 쓰기를 위한 교재 분석 연구[6], 수업 진행에 직접 필요한 한국어 쓰기 수업 모형 개

2) 원해영,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교양 글쓰기 수업의 현황과 과제」, 『우리말연구』 55호, 우리말학회, 2018, 281쪽; 강민희,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교양 글쓰기의 운영과 개선방안」, 『동아인문학』 51호, 동아인문학회, 2020, 315쪽; 백애송, 「외국인 유학생 교양 글쓰기 운영과 개선방안」, 『리터러시 연구』 14권 6호, 한국리터러시학회, 2023, 325쪽.

3) 유현정, 「학부 유학생을 위한 글쓰기 교육의 목표와 내용에 관한 고찰」, 『한성어문학』 40권, 한성어문학회, 2019, 179쪽.

4) 김지영·김정숙,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교양 교육으로서의 한국어 쓰기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ㅡ쓰기 교재 개발 원리에 의한 교재 분석을 중심으로ㅡ」, 『이중언어학』 58호, 이중언어학회, 2015, 1쪽; 김지영, 「외국인 대학생을 위한 교양 한국어 쓰기 교육과정 개발 방안」, 『Journal of Korean Culture』 38권, 국제한국언어문화연구소, 2017, 73쪽.

5) 박나리·조선경, 「학문적 목적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재 개발」, 『Foreign Languages Education』 10권 1호, 2003, 245쪽; 이유경·박현진, 「외국인 학부생 대상 대학 글쓰기 과목의 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어교육』 27권 4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16, 155쪽.

6) 손다정·정다운, 「외국인 학부생을 위한 교양 글쓰기 교재 분석ㅡ보고서 쓰기를 중심으로ㅡ」, 『Journal of Korean Culture』 56권, 국제한국언어문화연구소, 2020, 121쪽.

발 연구[7] 등과 같은 연구들이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또한 쓰기 교재 개발 원리에 근거한 교재 분석 연구[8]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연구들은 실제 수업 현장에서 학습자의 학문적 문식성 신장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학술적 의의를 지닌다.

세 번째는 다양한 교수 학습 방법에 대한 통찰적 접근으로 수업 방법에 대한 연구들인데 예컨대, PBL을 적용한 교양 글쓰기 수업 설계 및 사례 연구[9], 플립러닝 기반 한국어 글쓰기 교육 방안[10], 성찰적 글쓰기를 활용한 수업 설계[11] 등 교수법을 적용하거나, 최근에는 유행처럼 부상한 ChatGPT를 활용한 기초 교양 쓰기 수업 사업 사례 연구[12] 등 연구들이 이루어졌고 개념 은유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사고 확장을 도모한 흥미로운 연구들도 다양하게 시도되었다[13]. 이 외에도 더 많은 흥미로운 연구들이 누적되어 있으나 지면상 생략하도록 한다.

주목할 것은 이러한 다양한 연구들에도 불구하고, '비평문 쓰기'와 같은 특정 장르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비평문이 외국인들이 접근하기에 어려운 장르라고 인식되는 것이 가장

7) 장향실,「외국인 대학생을 위한 교양 한국어 쓰기 수업 모형 개발 연구」,『한국어교육』20권 2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9, 255쪽.

8) 김지영·김정숙,「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교양 교육으로서의 한국어 쓰기 교육 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ㅡ쓰기 교재 개발 원리에 의한 교재 분석을 중심으로ㅡ」,『이중언어학』58호, 이중언어학회, 2015, 1쪽.

9) 박정은·김경연·오선경 외 2명,「PBL을 적용한 외국인 유학생 대상 교양 글쓰기 수업 설계」,『교양교육연구』14권 6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20, 223쪽; 백은아,「외국인 유학생 대상 교양 글쓰기 수업의 PBL 적용 사례 연구」,『한국언어문학』112호, 한국언어문학회, 2020, 251쪽.

10) 김재희,「플립러닝 기반 한국어 글쓰기 교육의 상호텍스트적 방안 연구」,『텍스트언어학』45권, 한국텍스트언어학회, 2018, 45쪽.

11) 박수진,「외국인 유학생 대상 성찰적 글쓰기를 활용한 수업 방안ㅡ교양 글쓰기 수업 사례를 바탕으로ㅡ」,『교양교육연구』15권 1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21, 121쪽.

12) 이광훈·구민지,「챗GPT를 활용한 외국인 유학생 기초 교양 쓰기 수업 사례 연구」,『한국과 세계』6권 5호, 한국국회학회, 2024, 593쪽.

13) 정미진,「개념 은유를 활용한 외국인 학부생 대상 교양 글쓰기 수업 연구」,『한국언어문학』76호, 한국언어문학회, 2011, 507쪽.

큰데, 신윤경, 방혜숙[14]의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원인을 언어적 부담과 장르 경험 부족으로 진단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텍스트 확장과 비교 방법을 활용한 단계적 비평문 쓰기 수업을 제안하고 있다. 즉 비평의 대상을 문학 작품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텍스트로 확장함으로써, 외국인 유학생의 비평 활동 접근 가능성을 넓히고 있다. 본고에서 또한 이와 같은 시각에 동의하며 외국인 유학생들이 교양 글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상을 글자 텍스트에서 시각적 텍스트로 확장하여 활동 범주를 더 넓히고자 하였다.

대학에서의 비평문 쓰기는 감상문과 같은 문학적 글쓰기와는 또 다르게 비평 대상에 대해 관찰하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며 어떤 가치를 부여하기까지의 과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을 논리적으로 설파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비판적 사고 활동으로 볼 수 있다. 비록 한국어 실력이 부족한 외국인 학습자라고 하더라도[15] 비평문을 작성하는 과정에 있어 대상 작품의 요소와 표현 방식을 분석하고, 그것이 어떠한 의미와 맥락으로 형성되었는 지를 추론하고 탐색하며, 그 이유를 타당한 근거를 통해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비판적 사고력과 논리적 표현 능력을 함께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 학습자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비판적 사고와 자신의 비평적 관점을 표현하기에 앞서 언어적 부담이

14) 신윤경·방혜숙,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비평문 쓰기 수업 방안 모색—텍스트 확장과 비교 방법을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13권 3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19, 353쪽.

15) 물론 비평문 쓰기에서 요구되는 관찰, 해석, 판단, 근거 제시의 능력은 외국인 유학생에게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는 대학 교양 글쓰기 교육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핵심 역량이며, 내국인 학습자에게도 중요한 교육 과제이다. 그러나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이러한 사고 과정을 한국어라는 제2언어를 통해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별도의 교육적 고려가 필요하다. 이들은 작품을 관찰하고 해석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이나 비판적 사고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사고를 한국어의 학문적 문장과 논증 구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더 큰 부담을 경험한다. (따라서 본 연구가 외국인 유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한 이유는 이들이 논리적 사고력이 부족한 학습자라는 전제 때문이 아니라, 시각적 인식과 해석을 한국어 글쓰기의 논증 구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교수·학습적 매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라는 장애물에서 우선적으로 좌절하기 쉽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평 대상을 접하고 바로 글쓰기로 넘어가는 것이 아닌, 관찰, 추론, 근거 제시의 과정을 충분히 거친 후에 글쓰기를 할 수 있는 시각적 사고 전략(VTS)를 하나의 방법론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시각적 사고 전략은, 문자 텍스트가 아닌 시각적 이미지로서의 미술 작품을 비평 대상으로 삼음으로 한국어 독해 실력이 수준이 다양한 유학생들이 텍스트 읽기에서 오는 어려움 또한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 생각한다. 즉 시각적 사고 전략(VTS)은 미술 작품과 같은 시각적 대상을 바탕으로 하여, 관찰, 추론, 근거 제시의 과정을 단계화하여 진행함으로 일차적으로 비평 대상에 대한 난이도를 현저하게 낮춘다. 이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들은 자신의 사고를 먼저 말하기와 활동지 기록을 통해 구체화시키고, 이를 다시 비평문 쓰기의 구조로 연결하도록 돕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외국인 유학생 대상 비평문 쓰기 교육의 필요성과 VTS의 교육적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과정으로 2장에서는 우선 시각적 사고 전략의 원리를 바탕으로 외국인 학생들의 비평문 쓰기에 어떻게 도움을 주며, 대상으로 왜 르네 마그리트의《이미지의 배반》을 선택했는 지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밝히고자 한다. 3장에서는 본격적으로 VTS를 활용한 비평문 쓰기 수업 모형을 설계하고 실제 수업에 적용한 뒤, 학습자의 사고 변화 양상을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VTS의 핵심 요소인 관찰, 추론, 근거 제시의 과정을 외국인 유학생의 비평문 쓰기 교육에 적합한 단계적 활동으로 재구성하였으며, 이후 실제 수업에 적용하여 학습자의 발화, 활동지 기록, 비평문 결과물도 같이 분석하였다. 그 과정에서 비평문 쓰기를 단순한 결과물 작성이 아니라 시각적 인식이 해석과 논증으로 전환되는 사고 과정으로 이해하고, 그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안을 설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 비평의 소재로 활용한 르네 마그리트의《이미지의 배반》은 특정 작품 자체의 우수성 때문만이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 대상 비평문 쓰기 교육에 적합한 교육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선정되었다.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시각 텍스트는 첫째, 언어 수준과 관계없이 관찰이 가능할 정도로 시각적 구조가 비교적 명확해야 하며 둘째, 단일한 정답으로 수렴되지 않는 다양한 해석 가능성을 지녀야 하고 셋째, 학습자가 자신의 해석을 작품 내부의 근거와 연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이미지의 배반》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활용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VTS 기반 비평문 쓰기 수업은 특정 작품에 한정된 절차라기보다, 이와 같은 특성을 지닌 다양한 시각 텍스트에도 적용 가능한 교수·학습 모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 시각적 사고 전략(Visual Thinking Strategies)과 비평문 쓰기

시각적 사고 전략(Visual Thinking Strategies, 이하 VTS)라고 불리는 이 방법론은 1990년대 미국 뉴욕현대미술관(MoMA)의 교육 프로그램 맥락에서 Philip Yenawine과 Abigail Housen에 의해 개발된 미술 감상 교육 방법이다. 이 방법론의 특징은 정답에 없다는 데에서부터 출발한다. 학습자는 작품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이 대상을 관찰하고 교수자 또한 정답이나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순수하게 자신만의 관찰에 기반하여 감상하고 유의미한 자신만의 관점을 갖도록 하는 데 있다.

Yenawine은 VTS의 기본 질문을 “1. What’s going on in this picture? 2. What do you see that makes you say that? 3. What more can we find?”와 같은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16] “이 그림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 근거는 무엇인가?”, “더 찾아볼 수 있는

16) Philip Yenawine, *Visual Thinking Strategies: Using Art to Deepen Learning Across School Disciplines*, Harvard Education Press, 2013, p.25.

건 없는가?"로 구성된 이 세 가지 질문은 매우 단순한 것 같지만 무엇보다 대상에 대한 관찰을 촉진하고, 그 관찰을 자신의 말로 표현하고 추가적으로 다시 깊이 있게 통찰하게 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두 번째 질문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단순히 관찰에서 왜 그런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게 함으로 작품에 대한 인상이 관찰에서 의미 구성으로 나아가게끔 한다. 이 과정에서 교사의 역할은 학습자의 발화나 표현에 직접적으로 평가를 하거나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주기보다는 좀 더 관조적인 상태에서 대화를 통해 학습자의 사고를 유도함으로써, 스스로 의미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 즉 교수자는 높은 위치에서 가르치기보다는 학습자 스스로가 자신의 생각이 수면 위에 드러날 때까지 학습자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도움을 주는 역할로 어느 정도 제한을 두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VTS는 성인에게 적합한 방법론같이 보이지만 사실상 이 방법론은 그동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미술 감상 교육 방법에서 많이 사용되어 왔다. 미술 작품에 대한 주입식 교육보다는, 저학년에서부터 자신의 독창적인 관점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 창의적인 교육법으로 많이 제시된 것이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VTS가 특정 연령대에 한정된 교수 기법으로 인식되는 경향도 존재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VTS를 특정 발달 단계에 종속된 교수법이 아닌, 시각적 정보를 토대로 관찰·유추·전이를 수행하는 사고 과정을 구조화한 전략으로 재개념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17] 중요한 것은 VTS를 "연령"이 아닌 "사고"에 초점을 맞춰서 이해하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VTS가 사고의 확장이나 발달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도움을 주고 있는가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에 있다. 실제로 VTS 방법을 적용한 후 학생들이 작성한 미술 비평문을 분석한 결과를 데이터화 했을 때 관찰의 구체성, 해석의 다양성, 근거 제시의 명확성 측면에서 유의미한 향

17) 심지영,「미술감상교육의 유추능력 증진 효과와 시각적 사고 전략(VTS)의 교과과정화 방안 연구」,『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20권 6호,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0, 8-12쪽.

상이 나타나기도 했다.[18] 이를 통해, VTS가 문장 생성이나 표현보다도 자신의 관찰에 기반한 구체성과 근거 제시와 같은 비평적 사고 형성과 비평문 전개에 분명한 도움을 준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VTS가, 문장 구성 능력이나 표현력은 다소 부족하더라도 작품 분석 능력과 사고력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적합한 방법론임을 알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이 비평문 글쓰기를 수행할 경우,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일차적으로 언어화한 텍스트를 독해하는 것이며 이차적으로는 비평 대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한국어로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이다. VTS는 우선 비평 대상이 언어 텍스트가 아닌, 시각적 자료에 있으므로 텍스트 독해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전혀 따르지 않는다. 또한 비평 대상을 언어로 표현함에 있어서도 바로 글쓰기로 전환하지 않고 질문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접근함으로, 쓰기에 대한 부담을 대폭 줄일 수가 있다. 처음부터 한국어로 글쓰기를 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 그림에 대한 감상에서부터 추론하기, 근거 찾기와 같은 일련의 과정들은 비평문이라는 학문적 담화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점진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위와 같은 이유에서 VTS가 외국인 유학생 비평문 쓰기에 언어적 장벽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 준다고 보았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작품 선정에 있을 것이다. 전공 관계없이 비평문 쓰기를 할 수 있는 적절한 미술 작품을 고르는 일은, VTS 방법론의 출발이자 끝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그 기준의 첫 번째는 이미지가 너무 복잡하거나 난해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전문적인 미술사적 지식이 있어야 한다거나, 전공자 수준의 난해한 작품은 다양한 전공 학생들이 모인 교양 글쓰기 수업에 적합하지 않다. 어떤 전공의 학생이라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주제 또한 특별한 거부감이 없이 보편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범주

18) 조민우·손지현, 「미술 비평문 쓰기 활동을 활용한 VTS 교육방법의 효과 연구」, 『미술교육연구』 53권, 한국초등미술교육학회, 2018, 51쪽.

의 것이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쉬운 그림에도 불구하고 그 해석에 있어서는 단일하지 않은,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 확장 가능성이 열린 작품이어야 할 것이다. 셋째는, 그림을 통해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비평의 여지가 있는 작품이어야 하며, 넷째는 학생들이 그림 자체에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요소가 있는 작품이면 더할 나위가 없이 완벽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VTS 기반한 비평문 쓰기 수업의 대상 미술 작품으로 르네 마그리트(René Magritte)의《이미지의 배반》을 선택하고자 했다. 그 이유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이 작품은 구성은 비교적 단순해서 시각적으로는 바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의도를 추론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열린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선《이미지의 배반》은 그림 중앙에는 파이프가 적혀져 있고 그 아래에는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는 문장이 적혀있어 관람자는 자신의 인식과 작가가 주장하는 견해 사이에서 일순 모순을 경험하게 된다. "그렇다면 작가는 왜 파이프를 그려놓고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인가?" 관람자는 이 지점에서 단순한 그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관찰하게 되고,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작가는 현실에 있는 파이프만 진짜 파이프라고 생각한다.", "그림 속 사물은 파이프처럼 생겼지만 사실은 다른 용도가 있는 물건이다."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추측을 하게 된다. 즉《이미지의 배반》은 VTS의 핵심 절차인 관찰과 추론 및 근거 제시가 활발하게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작품이다.



[그림 1] 그네 마그리트의《이미지의 배반》

미셸 푸코는『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Ceci n'est pas une pipe)』라는 책에서 마그리트의《이미지의 배반》을 단순한 역설이 아닌 재현의 체계 자체를 문제화하는 작품으로 해석하였다. 푸코에 따르면 파이프의 형상을 낯설게 만드는 것은 "이미지와 텍스트 사이의 '모순'이 아니라……도식적이고, 교과서적인 그림의 기능이 재현을 주저함 없이 분명하게 드러내기 때문"[19]이라고 보았다. 즉, 그림이 다소 추상적이고 이미지가 모호했다면 우리는 그것이 파이프인지 한 번쯤 의심해 볼 여지가 있었지만, 마그리트는 너무나 전형적인 파이프 그림을 배치하고 있어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그림이 주는 기호를, 사물 그 자체의 재현으로 오해하게 되는 것이다.

즉, 작품은 우리가 평소에 익숙한 이미지를 접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규정짓는 가의 문제를 다시금 되돌이켜 보게 한다. 우리가 의심의 여지없이 이름 붙이고 확정했던 대상들이 사실은 다른 존재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문득 직시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감상을 넘어 사물의 실체와 의미 구현의 과정까지 생각하게 만든다. 나아가서 이 그림뿐만 아니라 우리가 습관적으로 "옳다"고 생각했던 상식과 관념에도 사실은 큰 괴리가 있음을 통찰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비판적 사고를 갖춘 관람자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미지의 배반》은 작품 자체는 이미지가 난해하거나 복잡하지 않아 한국어 숙달도가 서로 다른 학습자들도 관찰 단계에서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에서는 관점의 차이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생성될 수 있으며 그 또한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좀 더 논리적으로 보강될 여지가 있다. 즉 작품은 다양한 언어 수준의 차이를 가진 학습자 집단에서도 쉽게 관찰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의견들이 표현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추론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좀 더 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19) 미셸 푸코 저, 김현 역,『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고려대학교출판부, 2013, 17-18쪽.

오늘날처럼 읽는데 시간이 걸리는 꽤 걸리는 문자 텍스트보다 보다 편리하고 자극적인 영상이나 이미지 소비가 많은 시대일수록, 학습자에게 보다 요구되는 것은 단순한 이미지 감상 능력을 넘어, 이미지가 어떠한 방식으로 의미를 구성하고 현실을 재현하며 수용자를 설득하는지를 비판적으로 해석하는 '시각적 문해력(visual literacy)'[20]일 것이다. 따라서 《이미지의 배반》은 단순히 특정 전공자만을 위한 작품이 아니라,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한 번쯤은 접하고, SNS나 미디어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교육 자료로서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위와 같은 맥락에서는 내국인 학습자들의 비평적 글쓰기 수업에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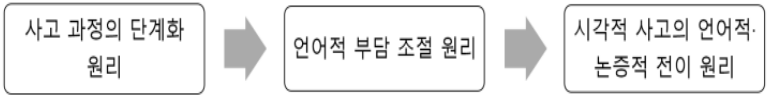
다만 외국인 학습자들한테 유리한 지점은 시각적 이미지가 분명하고 두드러져서 특별한 정보 없이도 한 번에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언어적 제약 때문에 비평문 쓰기를 힘들어하는 학습자한테는 흥미로운 텍스트일 뿐만 아니라, 글쓰기에 대한 접근 부담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어려운 지점은 이미지와 글이 왜 모순되는지를 추론하는 과정에서 철학적이고 추상적인 사고와 표현이 필요하며, 사고는 전개가 되더라도 표현은 여전히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비평문 쓰기의 교육 목적 자체가 수려하고 정확한 문장 표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관찰한 내용을 얼마나 비판적으로 전개하는가에 있으므로 최종 평가 과정에서는 언어의 정확성보다는 논리적 사고의 전개에 있음을 학생들한테 제시한다. 즉, 평가의 초점이 무엇보다 "비판적 사고력 신장"에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

3. 시각적 사고 전략(VTS)을 활용한 비평문 쓰기 수업 설계

이 장에서는 본격적으로 VTS를 활용한 비평문 쓰기 수업을 설계해 보

20) 손지현, 「시각적 사고 전략(VTS)의 효과와 교육적 활용」, 『교육과 학습: Global Creative Leader』 12권 3호, 2022, 121쪽.

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VTS가 갖고 있는 중요한 교수 학습 원리 세 가지를 먼지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2] 교수 학습 원리

무엇보다 수업은 “사고 과정의 단계화 원리”에 의해서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사고 과정의 단계화 원리”는 처음부터 비평적 사고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비평적 사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첫 번째 단계는 학습자들이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감상 즉 관찰에서부터 시작되며, 관찰은 “이 그림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라는 VTS 질문을 바탕으로 진행된다.

특히 관찰 단계는 글쓰기로 바로 이어지지 않고 간단한 발화를 통해 자신의 관찰 결과를 공유한다. 그다음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그 근거는 무엇인가?”, “더 찾아볼 수 있는 건 없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자신의 관찰을 단순한 감상이 아닌, 논리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한 관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비평문을 본격적으로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먼저 자신의 비평에 대한 기준을 하나 정하고, 교사가 제공하는 자료를 참조하여 “내 해석은 어디에 놓일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나는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라는 비평 관점을 선택하고, 비평문 구조를 쓴 뒤에 비로소 마지막 단계로서 비평문 작성에 들어가는 것이다.

두 번째는 “언어적 수업 설계”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의 언어적 부담을 고려하여 몇 가지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감상 단계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포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틀리는 것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여 학습자들이 심리적인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해석 단계에서는 관련된 표현이나 전문적인 비평 용어를 대량으로 제시하기보다는 최소한의 문장 틀이나 어휘를

제시하여, 언어의 정확성보다는 사고의 전개에 보다 초점을 맞추도록 한다. 마지막 비평문 쓰기 단계에서도 완성도 높은 문장보다는 자신의 관찰과 자신만의 해석 및 그것에 따른 근거로 구성된 사유의 흐름이 구조적으로 잘 드러나는지에 초점을 맞추도록 한다.

세 번째, 수업 설계의 핵심은 시각적 사고를 언어적, 논증적 사고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여기서 시각적 사고라고 함은, 감상 단계에서 포착된 자신의 생각을 일컫는 것인데, 이것은 언어화되기 이전이거나 언어화되더라도 단순하고 감정적인 단어로 표현으로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일차적인 감상 표현을 좀 더 주장과 근거를 갖춘 논증적 사고로 전환시키는 것이 수업 설계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외국인 유학생들한테는 어려운 작업이지만, VTS를 활용한 단계적 접근을 통해 가능해진다. VTS는 원래 시각적 대상에 대한 자신의 감상을 말을 통해 표현하고 교수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인식을 확장하는 전략이지만, 본고에서는 이 사고 결과를 비평 글쓰기로 이어지기 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을 글로 연결할 수 있는 좀 더 다양한 활동 연습지를 제공한다.

위의 세 가지 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구체적인 수업 설계를 단계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수업은 실습 한 시간을 포함하여 총 4시간에 걸쳐 이루어지며 아래, 수업 구성은 시수에 의한 구분이 아닌 운영 원리에 기반하여 아홉 가지 단계로 구분하였다.

[표 1] 수업 구성 단계

	1. 관찰: “생각나는 대로 메모하기”
1단계	목표 연결: 관찰-추론-근거의 첫 단계 확보 침묵 관찰 1분 • 교사 안내: “보이고 생각나는 것을 적으세요.” 관찰 목록 쓰기 3분(읽기 활동처럼 ‘시각 텍스트 읽기’) • 활동지 빈 칸에 명사/형용사 중심으로 적기
	2. 추론: 이유를 메모하기
2단계	목표 연결: 자신의 해석을 말로 설명

	추론 질문 던지기 Q1. “그림에서 무엇이 보이는가?” Q2.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Q3. “그렇게 보이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3. 근거: 작품 안에서 증거 찾기
3단계	목표 연결: 비평 재료 생성 1. 근거 찾기 • 이미지와 문장의 배치 • 파이프의 사실적 묘사 방식 • 문장과 이미지 사이의 충돌 • 화면 구성과 시선 유도 • 언어적 정보와 시각적 정보의 관계 교사 체크 문장: • “그 해석을 지지하는 부분이 작품 어디에 있나요?”
	4. 평가 기준 1개 세우기
4단계	목표 연결: 비평문 쓰기의 사고 재료 생성 1. 비평 기준 선택 학생이 아래 중 하나를 선택해 ‘평가 기준’으로 삼게 한다. • 이미지와 언어의 관계 • 익숙한 사물을 새롭게 인식하게 하는 것. • 관람자의 사고를 깨고 질문을 유도하는 것 • 시각적 아이러니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는가
	5. 자료 참조 – “내 해석은 어디에 놓일 수 있을까?”
5단계	목표 연결: 개인적 해석의 점검·확장 1. 자료 읽기(교사가 간단한 맥락 자료 제시) • 초현실주의(surrealism) • 이미지와 언어의 관계 • 재현(representation)의 문제 • 기호와 의미(signification) • “보이는 것”에 대한 철학적 질문 학생 과제: → “이 정보가 내 해석과 만나는 지점에 밑줄 긋기”
	6. 비평 관점 세우기 — “나는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
6단계	목표 연결: 비평문 구조 조직 준비 비평 관점 선택

	학생은 아래 중 하나를 선택해 자신의 글의 중심 축으로 삼는다. • 이미지와 언어의 관계 • 현실과 재현의 차이 • 시각적 아이러니의 효과 • 이미지가 의미를 구성하는 방식
	7. 비평문 구조 설계 – “해석을 글의 뼈대로 만들기”
7단계	목표 연결: 비평문 구조 조직 교사가 제공하는 구조 틀: 서론 • 작품 소개 + 첫 인상 본론 • 근거 + 작품 요소 분석 결론 • 해석의 의미 정리
	8. 비평문 쓰기 – “자신의 관점을 글로 쓰기”
8단계	목표 연결: 비평문 쓰기 • 분량: 3단락 • 필수 조건: 1. 주장(해석+평가)이 분명할 것 2. 근거를 제시할 것
	9. 공유 및 비평적 피드백
9단계	목표 연결: 비평문 쓰기 • 자신의 비평문을 1분 이내로 발표 • 교사 피드백 제공

본 수업의 학습 목표는 학습자가 작품을 먼저 관찰하고, 관찰을 기반으로 하여 작품을 해석하며 다시 근거를 찾아 최종 비평문을 작성하게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수업의 첫 출발이 되는 ‘감상 중심의 감상 단계’에서는, 작품과 관련된 정보들을 일부러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자 자신의 관찰만으로 진행하게 하였다. 습관적으로 정답을 찾는 학생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교수자는 원래 비평에는 정답이 없음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언어가 숙달되지 않아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한다.

1단계의 감상이 끝나면 2단계에서는 VTS의 질문 세 가지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작품을 관찰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첫 번째 질문인 “이 그림에서 무엇이 보이는가”라는 질문에 다수의 학습자들은 어려움 없이 “파이프”, “글씨” 등을 대답할 것이다. 교수자는 파이프 밑의 글씨에 대해서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는 내용임을 제시해 주고 두 번째 질문인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를 “작가는 왜 이렇게 썼는가?”로 질문을 조금 변형하여 제시한다. 학습자들은 여기에서 갸우뚱하며 자신의 생각을 다양하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는데 어느 정도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이 단계에서 교수자는 학습자가 빨리 답을 내도록 설명을 보충하거나,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사고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어서 세 번째 질문인 “더 찾아볼 수 있는 건 없는가?”는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무엇인가?”로 변형한다. 그림 자체가 단순하기 때문에 VTS의 질문을 그대로 적용하기 보다는 좀 더 “파이프와 글씨”에서 오는 모순을 찾는 것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다.

근거를 제시하는 세 번째 질문에서부터 외국인 학습자들은 자신을 분명히 내재하고 있어도 한국어로 표현함에 있어서는 여전히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최초로 교수자가 언어적 지원을 해 주는 단계로, 관련 단어나 문장들을 지원은 해 주되 이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을 동시에 전제한다. 전문적인 문장 표현보다는 자신의 사고를 논리적으로 개진하는 것이 더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됨을 지나칠 정도로 강조하는 것이다.

6단계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비평문을 작성하는 단계로 학습자는 흩어진 생각 중에서 하나의 관점을 중심 생각으로 설정하여 글의 뼈대를 조직하고 그동안의 생각들을 연결하여 한 편의 비평문으로 완성한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서론, 본론, 결론에서 써야 할 기본적인 구조 틀은 제시하되 문장은 자유롭게 작성하도록 한다. 글이 어느 정도 완성되면, 비평문의 관점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학생들의 비평문을 공유하여, 다양한 관점과

해석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한다. 이를 위해 교수자는 학생들이 비평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미리 대표자가 될 만한 사례들을 우선적으로 선별한다.

4. 실제 수업에서의 적용과 질적 사례 분석

본 장은 위의 수업 설계를 실제 수업에서 적용했을 때 실제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분석한 장에 해당한다. 수업은 총 4시간에 걸쳐 진행이 되었고 1, 2 교시에는 6단계까지에 해당되는 비평적 관점을 세우고 3교시에는 비평문을 작성하였으며 마지막 4교시에서는 발표를 통해 공유하고 교사의 피드백을 공개적으로 제공하였다.

연구는 2025년 2학기 국내 H대학 <논리적 사고와 글쓰기>라는 교양 글쓰기 교과목에서 진행되었으며, 총 59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참여하였다.

[표 2] 학습자의 TOPIK 급수 분포

토픽 급수	인원	비율
토픽 3급	32명	54.2%
토픽 4급	7명	11.9%
토픽 5급	14명	23.7%
토픽 6급	6명	10.2%
합계	59명	100%

학습자들의 TOPIK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59명 가운데 TOPIK 3급이 32명(54.2%)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TOPIK 5급이 14명(23.7%), TOPIK 4급이 7명(11.9%), TOPIK 6급이 6명(10.2%) 순으로 나타났다.[21] 특히 전체 학습자의 절반 이상이 TOPIK 3급에 집중되어

21) TOPIK(Test of Proficiency in Korean)은 외국인의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한국어 능력 시험으로, 일반적으로 TOPIK 3급은 일상생활과 제한적인 학업 수행이 가능한 중급 수준으로 평가되며, TOPIK 5급은 비교적 복잡한 학문적 주제에 대한 이해와 표현이 가능한 고급 수준에 해당한다.

있다는 점은 본 수업의 주요 학습자층이 중급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 유학생임을 보여준다.

위와 같은 분포는 통상 외국인 전용 수업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풍경에 해당된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경험 때문에 특정한 수준의 학습자만을 대상할 수 없는 것이다. 3급에서 6급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급수의 학생들을 포섭하기 위해서는 난이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 학습 전략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특히 3급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다수의 분포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학 실력이 몇몇 고급 학습자와 비교되는 상황에서 미리 위축되기 쉬움으로, 이 수업은 언어 실력으로 평가하는 수업이 아님을 수업 중간중간에 반복해서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들의 언어 수준에 집중하기보다는 다양한 언어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비평적 사고가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주목하기 위해서 각각 TOPIK 3급과 TOPIK 5급 학습자의 사례를 대표적인 사례로 선정하였다. 사례 1은 TOPIK 3급 학습자로, 당연히 5급에 비해서는 부족한 한국어 실력을 보이지만 언어적 표현보다는 해석과 논리를 구성해가는 과정에 초점을 두었으며 TOPIK 5급 학습자 또한 표현에 있어서는 매끄럽고 자연스러운 한국어 표현을 보이고 있지만 작품을 보고, 자신만의 관점으로 분석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TOPIK 3급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VTS 적용에 따른 사고 변화를 보다 섬세하기 추적하기 위해서, 활동지 기록을 참고하여 이들의 사고 변화를 추적하였다.

[표 3] VTS 적용 과정에 따른 사고 변화 사례

구분	사례1: 토픽 3급	사례2: 토픽 5급
초기 반응	“파이프 그림인데 왜 아니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조금 이상한 그림인 것 같다.”
VTS 질문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무엇이 이상하게 느껴졌나요?”

중간 발화	“그림은 파이프처럼 보이지만 진짜는 아니다.”	“우리는 그림을 보면 먼저 이름을 붙이는 것 같다.”
활동지 기록	“진짜로 사용할 수 없다.”	“사람들은 보면 바로 이름을 붙인다.”
최종 비평문	“그림 속 파이프는 진짜 물건이 아니라 파이프를 그린 이미지라고 생각한다.”	“작품은 관람자의 생각을 바꾼다.”
변화 양상	감상적 반응 → 작품 내부 근거 활용	직관적 인상 → 해석적 의미 구성

우선 표3에서 사례1의 TOPIK 3급 학습자의 초기 반응은 “잘 모르겠다.”로 이미지와 글자 사이의 괴리에 대해 다소 혼란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또한 그 이유를 생각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렸던 학습자였다. 그러나 VTS 질문을 통해 “진짜”와 “가짜”의 대비를 찾아내고 이를 적용해서 “그림의 파이프는 진짜 파이프처럼 보이지만 진짜가 아니다.”라는 해석을 내렸으며 최종 비평문에서는 “그림 속 파이프는 진짜 물건이 아니라 파이프를 그린 이미지”라고 하여 이미지와 실체 사이를 구분하는 사고의 변화를 보여주었다. 사례 2 또한 초기 반응은 “이상한 그림”이라고 하여 작가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했으나 VTS 질문을 통해서 “사람은 습관적으로 이름을 붙인다.”라는 것으로 해석해 냈다. 이 학습자는 최종 비평문에서 “작품은 보는 사람의 생각을 바꾼다.”라고 하여 작가와 관람자의 관계에까지 접근하고 있다. 변화 양상을 비교해 보면 사례1 학습자는 감정적 반응에서, 작품 속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는 근거를 활용해서 “진짜와 가짜”라는 쉬운 어휘를 사용했음에도 실재와 이미지의 차이를 비판적으로 통찰했으며, 사례2는 직관적으로 포착한 것에서 출발해서 그림이 가지는 의미에까지 접근하고 있다.

[표 4] 두 사례의 최종 결과물 비교

사례1: 토픽 3급	사례2: 토픽 5급
르네 마그리트의 《이미지의 배반》은 파이프 그림이다. 처음 봤을 때 나는 왜 그림 아래에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고 썼는지 잘 몰랐다. **하지만 생각해 보니까 그림 속 파이프는 진짜 파이프가 아니다. 진짜 파이프는 사용할 수 있지만 그림은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은 파이프 그림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작가가 사람들이 그림을 보면 진짜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다. 이 작품은 재미있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림이라고 생각한다.	르네 마그리트의《이미지의 배반》은 처음 보면 단순한 파이프 그림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림 아래에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고 쓰여 있어서 조금 이상하게 느껴졌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림을 보는 순간 그것이 무엇인지 바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는 사람들이 어떤 이미지를 보면 먼저 이름을 붙이고 의미를 결정하려는 습관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 작품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림을 보자마자 "파이프"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작가는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는 문장을 사용해서 우리의 생각을 다시 보게 만든다.** 이 작품은 단순히 파이프를 그린 그림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미지를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 질문하는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작품은 보는 사람에게 새로운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표4의 최종 비평문 사례를 비교해 보면, 두 학습자는 동일한 작품을 대상으로 하였음에도 작품 의미를 조직하는 방식에서 차이를 보였다. 먼저 사례1(TOPIK 3급)은 작품의 구체적인 시각 요소에 대한 직접적 관찰에서 출발하여 의미를 형성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학습자는 "진짜 파이프는 사용할 수 있지만 그림은 사용할 수 없다"라는 설명을 통해 작품 내부 요소를 근거로 자신의 해석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감상적 반응 수준에서 작품 내부 근거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사고가 확장되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작품을 '진짜 파이프가 아닌 그림'으로 이해하는 과정은 이미지와 실제 대상 사이의 차이를 직관적으로 인식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사례2는 처음에는 사례1과 비슷하게 접근하고 있으며 "이상하게 느껴

졌다."라고 첫인상을 서술하였다. 그러나 이어지는 본론에서는 "이미지를 보면 먼저 이름을 붙이고 의미를 결정하려는" 사람들의 습관을 통찰해 내고 있으며, 작가는 그림 아래의 파이프를 부정하는 문장을 통해서 이를 의도적으로 꾀하고 있음을 해석해 낸다. 결론에서는 그림을 보는 사람 즉 관람자의 인식에 그림이 어떤 변화를 주는 지까지 서술하고 있다.

두 사례는 한국어 표현이나 근거 서술, 사유의 전개 등에 있어 각각 다른 양상을 보이며 특히 사례2 같은 경우는 관람자의 시각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식의 확장이 사례1보다는 더 나아간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좀 더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두 사례 모두 관찰을 통해서 추론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작품 안에서 작품 안에서 파이프를 부정하는 문장을 근거로 자신의 해석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표 5] 사례 비교 분석

분석 항목	사례1 (TOPIK 3급)	사례2 (TOPIK 5급)
관찰 기준	그림 파이프와 실제 파이프	이미지에 붙인 이름
근거 찾기	작품 속 문장	작품 속 문장+관람 경험
의미 구성 방식	구체적/직접적	추상적/해석적
재현 인식 수준	이미지와 실제 사물의 차이 인식	이미지와 의미 형성 과정에 대한 성찰
사고 변화	단순 감상 → 근거 활용	단순 인상 → 재현 체계에 대한 해석
공통점	작품 속 문장을 근거로 활용	작품 속 문장을 근거로 활용

표5에서는 두 결과물을 좀 더 목록화하여 비교를 한 것이다. 비평 대상을 감상함에 있어서 어디에 관찰을 기준점의 두고 있는지, 의미 구성 방식은 무엇인지에서부터 시작해서 사고 변화에 이르기까지 두 학생은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가장 큰 차이는 사례1이 "그림 파이프와 실제 파이"의 차

이 즉 가짜 이미지와 진짜 사물의 차이를 발견했다면 사례2는 관람자가 이미지를 인식하는 방식에 보다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찰의 차이는 비평문을 서술하는 과정에서도 드러나는데 사례1에서는 근거 제시를 작품 내부에 쓰여진 문장에서 찾는 데 반해, 사례2에서는 이에 관람자의 경험이 더 해 작품과 그것을 감상하는 관람자 사이에 일어나는 인식의 변화에 대해 보다 초점을 주고 있다. 이는 사례1보다는 관찰의 대상이 조금 더 확장된 사유의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통점은 두 학생 모두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는 대상을, 관찰을 통해 자신만의 관점을 찾아냈으며 이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차이는 있을 지라도, 모두 작품 내부에서 그 근거를 찾아 제시했다는 점이다. 의미를 조직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사례1은 “파이프”, “가짜” 등과 같이 보다 직접적인 단어를 활용하고 사례2는 “의미”, “방법”과 같이 좀 더 추상적인 단어를 활용하고 있어 표현 수준은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결과적으로 두 학생 모두 사유의 전개에 있어서는 처음에 비해 뚜렷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위의 비교가 시사하는 바는 비교적 명확하다. 개인의 언어 실력이나 관점에 따른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VTS 활동이, 단순히 감상에 그쳤던 대상을 비판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유도하여 글쓰기 과정에 분명히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비평문 쓰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신의 관점 찾기, 근거를 제시하여 논리적으로 증명하기를 단계적으로 수행하게 하여, 언어적 제약이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한테 특히 적합하고 볼 수 있다. 이들의 최종 결과물이 비록 내국인 학생들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할 수 있어도, 첫 감상에서 비평까지 전개해 나간 부분은 엄청난 사고의 발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표5에서 대표적인 두 사례를 선정하여 그들의 사고 변화를 살펴 보았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모범적인 사례에 해당하므로 전체를 대변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표6에서는 학습자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

되 초기 단계의 VTS 질문지와 최종 비평문을 자료 대상으로 삼았다. 분석 기준은 다섯 가지로 삼았는데, 각각 감정적이고 직접적인 인상에 의한 서술이 얼마나 차지하는지, 작품 요소에 대한 관찰이 드러나고 있는지, 근거 없는 해석을 제시하고 있는지, 작품 내부에서 근거를 찾고 있는지, 비평문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지 등 다섯 가지로 구분하였다.

[표 6] 전체 비평문 분석 범주 및 출현 양상

분석 범주	초기 단계	최종 단계
감정·인상 중심 서술	31	12
작품 요소 관찰	18	42
근거 없는 해석	26	9
작품 내부 근거 제시	11	48
주장-근거 구조 형성	7	39

표6은 단계별 기록 중에서도 작품의 첫 인상을 서술하는 초기 단계와 최종 비평문을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초기 단계에서는 어휘 사용에 있어서도 감정 및 인상 중심의 단편적인 서술이 주를 이루고, 작품의 관찰 또한 꼼꼼하게 서술되지 않은 데 비해 최종 비평문 단계에서는 감정적 표현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관찰에 기반한 자신의 생각을 보다 구체화하여 서술하고 있는 점이 확인되었다.

가장 큰 변화는 해석을 할 때 나름대로의 근거를 제시한 것인데, 특히 주목할 점은 많은 학생들이 외부에서 자료를 활용하지 않고, 작품 내부에서 근거를 찾아서 서술한 부분이다. 교사가 추후에《이미지의 배반》에 대한 미술사적 맥락에서의 작품 설명 및 작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추가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학생들은 자신의 관찰 즉 작품 안에서 그 근거를 찾고 제시하였다.

이는 VTS 기반 활동이 가장 크게 기여 한 부분이 '관찰'임을 알 수 있

다. VTS는 그 어떤 자료도 없이 '관찰'에서부터 접근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자신의 고유한 관점을 관찰을 통해 수립해 나가고, 해석과는 과정에서 근거를 찾을 때 또한 외부의 자료 보다는 작품 내부에서 찾게 된다는 점이다.

표6까지가 학생들의 비평문 분석에 대한 통계라면 아래 표7에서는 학생들이 수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어떤 변화를 겪게 되었는지를 설문지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초기 단계에서 최종 단계에 이르기까지 쓰기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변화를 느꼈는지 학생이 직접 주관식으로 서술하게 하되, 한국어 표현에 대한 심리적 부담, 사고 과정에서 변화, 태도의 변화, 인식의 변화 등의 보기를 주어 참조하게 하였으며, 아래는 그중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발췌한 것이다.

[표 7] 학습자 반응 발췌

구분	학생 반응
글쓰기 부담 완화	처음에는 무슨 말을 써야 할지 몰랐는데 질문을 따라가니까 쓰기가 쉬웠다.
해석 변화	그림을 보고 이야기한 후 생각이 더 많아졌다.
참여 변화	틀린 답이 없어서 말하기 편했다.
근거 활용 인식	전에는 그냥 느낌만 말했는데, 이번에는 그림 안에서 이유를 찾으려고 했다.
사고 확장	처음에는 파이프 그림만 봤는데 다른 친구 이야기 듣고 더 생각하게 되었다.
비평문 구조 이해	생각한 것을 바로 쓰는 것보다 이유를 같이 쓰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자신감 형성	한국어가 완벽하지 않아도 내 생각을 말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시각 자료 활용 효과	글부터 읽는 것보다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더 쉬웠다.
의미 구성 경험	처음에는 이상한 그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왜 이상한지 설명할 수 있었다.

우선 의도했던 대로 비평문 접근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었다는 반응들이 가장 눈에 띄었다. 그 이유로는 비평 대상이 텍스트가 아닌 그림이어서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점, VTS 질문이 있어서 "질문을 따라가다 보니"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는 점, 또한 "틀린 답이 없어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에 수월했다는 점 등이 있었으며, 쓰기 뿐 아니라 쓰기 전 단계인 말하기에 있어서도 자신감을 드러내는 학생도 있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비평문을 쓰는 과정에서 스스로 변화를 경험했음을 인지한 부분이다. "그림 안에서 이유를 찾으려고 했다.", "그림을 보고 이야기한 후 생각이 더 많아졌다.", "왜 이상한지 설명할 수 있었다."와 같은 서술들은 학생들이 외부의 도움이 아닌, 오로지 자신의 관찰을 통해서 해석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단순한 감상이 아닌, 비평적 사고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변화의 경로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서술들은 비판적 사고의 향상을 보여주며 그 바탕에는 VTS 기반의 질문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VTS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림 텍스트를 비평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르네 마그리트의《이미지의 배반》또한 그에 적합한 비평 텍스트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7에서 설문을 통해 학생들의 주관적 의견을 수집하고 그 가운데에서 유의미한 몇몇 반응들만 대표적으로 발췌했다면 표8에서는 학습자 집단 전체의 인식 변화를 좀 더 정확하게 관측하기 위해, 폐쇄형 질문을 사용하여 문항을 만들었으며 각 문항은 1점부터 5점까지 점수화하여 측정하였다.

[표 8] VTS 기반 비평문 수업에 대한 학습자 인식 변화

문항	평균	표준 편차	긍정 응답 비율
한국어로 말할 때 느끼는 긴장/부담이 줄었다.	4.2	0.6	85%
VTS 관찰/해석이 비평문 쓸 때 아이디어를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4.0	0.7	80%
비평문 쓰는 과정에서 내 생각을 잘 반영할 수 있었다.	3.8	0.8	72.5%
비평문을 완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3.9	0.9	75%

표8의 문항 또한 크게 두 가지, VTS 기반 전략이 관점을 구성하고 비평문을 작성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는지와 심리적인 측면에서 부담을 줄였는지에 대한 것으로 구분하였다. 전자는 VTS 관찰 및 해석이 비판적 사고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글쓰기에 실제 반영되었는지에 대해 체크하는 것이고 후자는 수행 과정에서 느낀 난이도에 대한 평가에 해당된다.

결과적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 것은 접근성에 대한 것으로 작품 대상에 대한 자신의 의견에 대해 발화하거나 간단한 의견을 작성할 때에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VTS 질문들이 비평문 구성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그다음으로 많았으며, 외부의 자료보다 자신의 관점을 잘 드러냈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고, 비평문 전체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는 응답은 가장 낮았다. 이 결과는 해당 과제에 대한 접근은 수월했으나 전체 비평문 장르에 대한 어려움은 아직 좀 남아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에서 교양 과목으로 글쓰기를 수강하는 외국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각적 사고 전략(VTS)을 활용하여 비평문을 가르치되, 르네 마그리트의《이미지의 배반》을 비평 대상으로 삼아 일차적으로 비평문 접근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차적으로 비판적 사고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글쓰기 훈련을 진행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교수 학습 원리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수업을 설계하고 적용해 보았다.

적용 결과, 가장 큰 변화는 학생들이 외부 자료에 의존하지 않고 관찰을 통해서 작품 대상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자연스럽게 수립하게 된 점이다. 비평 대상이 한국어 텍스트가 아니라 이미지라는 점에서 작품 대상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었으며 VTS 질문을 통해서 작품 자체에 오로지 몰입하여 관찰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구축해 갈 수 있었다. 나중에 교수자가 작품에 대한 설명을 추가했을 때에도 대다수의 학생들은 외부 자료가 아닌, 작품 내부에서 근거를 찾았다는 점이 VTS 학습의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비평문이라는 낯선 장르에도 불구하고 단계별 질문을 통한 접근은 장르에 대한 부담감을 현저히 낮춰 과제를 끝까지 수행할 수 있게 했다. 비평문에서 요구하는 비판적 사고는 관찰-추론-근거 제시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현되었으며 언어 수준에 따른 차이와 관점은 다를지라도, 비평문의 구조에 따른 사고의 논리적 전개는 큰 차이 없이 진행되었다. 이는 외국인 학생들 또한 비평의 대상에 대한 흥미 있는 접근과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면, 비평적 글쓰기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특징 및 의의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귀결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는 외국인 학생들에게는 난이도가 높은 비평문 쓰기를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비평 대상을 르네 마그리트의《이미지의 배반》으로 설정하였으며 둘째, 비평문 쓰기 구조를 VTS 방법 즉 관찰-추론-근거의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익히게 하였고 셋째, 외부의 지식이나 자료에 쉽게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으로 비평적 관점을 마련하기 위한 '관찰'과 '몰입'을 무엇보다 중요한 교육 환경으로 조성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그 효과를 검증함에 있어서 여전히 몇 가지 한계가 존재한다. 우선 표본 집단이 59명으로 한정되어 있고, 수업도 단기적으로 시행되어 더 많은 사례를 광범위하게 수집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또한 작품 대상 또한 르네 마그리트의《이미지 배반》이라는 한 작품에만 제한되어 있어서 VTS 기반 비평문 쓰기의 효과를 좀 더 폭넓게 입증하지는 못했으며, 분석 또한 질적 분석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외국인 학생들이 비평문 쓰기에 있어서 흔히 겪는 언어의 장벽과비판적 사고의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자신만의 관점을 수립하고 비판적 사고를 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초점을 두고, 이를 거부감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미셸 푸코 저, 김현 역,『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고려대학교출판부, 2013.

Philip Yenawine, *Visual Thinking Strategies: Using Art to Deepen Learning Across School Disciplines*, Harvard Education Press, 2013.

논문

강민희,「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교양 글쓰기의 운영과 개선방안」,『동아인문학』 51호, 동아인문학회, 2020, 315-336쪽.

김지영·김정숙,「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교양 교육으로서의 한국어 쓰기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ㅡ쓰기 교재 개발 원리에 의한 교재 분석을 중심으로ㅡ」,『이중언어학』58호, 이중언어학회, 2015, 1-31쪽.

김지영,「외국인 대학생을 위한 교양 한국어 쓰기 교육과정 개발 방안」,『Journal of Korean Culture』38권, 국제한국언어문화연구소, 2017, 73-99쪽.

김재희,「플립러닝 기반 한국어 글쓰기 교육의 상호텍스트적 방안 연구」,『텍스트언어학』45권, 한국텍스트언어학회, 2018, 45-71쪽.

박나리·조선경,「학문적 목적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재 개발」,『Foreign Languages Education』10권 1호, 2003, 245-265쪽.

박수진,「외국인 유학생 대상 성찰적 글쓰기를 활용한 수업 방안ㅡ교양 글쓰기 수업 사례를 바탕으로ㅡ」,『교양교육연구』15권 1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21, 121-134쪽.

박정은·김경연·오선경·이아름·장미정,「PBL을 적용한 외국인 유학생 대상 교양 글쓰기 수업 설계」,『교양교육연구』14권 6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20, 223-236쪽.

백애송,「외국인 유학생 교양 글쓰기 운영과 개선방안」,『리터러시 연구』14권 6호, 한국리터러시학회, 2023, 325-352쪽.

백은아,「외국인 유학생 대상 교양 글쓰기 수업의 PBL 적용 사례 연구」,『한국언어문학』112호, 한국언어문학회, 2020, 251-285쪽.

손다정·정다운,「외국인 학부생을 위한 교양 글쓰기 교재 분석ㅡ보고서 쓰기를 중

심으로ー」, 『Journal of Korean Culture』 56권, 국제한국언어문화연구소, 2020, 121-156쪽.

손지현, 「시각적 사고 전략(VTS)의 효과와 교육적 활용방안 연구」, 교육과 학습: 『Global Creative Leader』 12권 3호, 숭실대학교 영재교육연구소, 2022, 113-135쪽.

신윤경·방혜숙,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비평문 쓰기 수업 방안 모색 ー 텍스트 확장과 비교 방법을 중심으로 ー」, 『교양교육연구』 13권 3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19, 353-368쪽.

심지영, 「미술감상교육의 유추능력 증진 효과와 시각적 사고 전략(VTS)의 교과 과정화 방안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권 6호, 학습자중심교과 교육학회, 2020, 21-25쪽.

원해영,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교양 글쓰기 수업의 현황과 과제」, 『우리말연구』 55호, 우리말학회, 2018, 281-306쪽.

이광훈·구민지, 「챗GPT를 활용한 외국인 유학생 기초 교양 쓰기 수업 사례 연구」, 『한국과 세계』 6권 5호, 한국국회학회, 2024, 593-621쪽.

이유경·박현진, 「외국인 학부생 대상 대학 글쓰기 과목의 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어교육』 27권 4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16, 155-188쪽.

장향실, 「외국인 대학생을 위한 교양 한국어 쓰기 수업 모형 개발 연구」, 『한국어 교육』 20권 2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9, 255-279쪽.

정미진, 「개념 은유를 활용한 외국인 학부생 대상 교양 글쓰기 수업 연구」, 『한국 언어문학』 76호, 한국언어문학회, 2011, 507-532쪽.

조민우·손지현, 「미술 비평문 쓰기 활동을 활용한 VTS 교육방법의 효과 연구」, 『미술교육연구 』 53권, 한국미술교육학회, 2018, 51-90쪽.

국문초록

본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시각적 사고 전략(Visual Thinking Strategies, VTS)을 활용한 비평문 쓰기 수업을 설계·적용하고, 그 교육적 의미를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존 외국인 유학생 대상 비평문 쓰기 교육은 언어 숙달도 향상이나 텍스트 중심 해석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는 학습자의 인지적 특성과 사고 과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이에 본 연구는 VTS를 단순한 미술 감상 기법이 아니라 관찰–추론–근거 제시를 중심으로 한 사고 전략으로 재개념화하고, 이를 비평문 쓰기 교육과 결합한 수업 모형을 제안하였다.

연구는 국내 H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59명을 대상으로 설계기반연구의 관점에서 수행되었으며, VTS 기반 비평문 쓰기 수업을 설계·운영하였다. 자료는 활동지 기록, 학생 비평문, 학습자 반응 및 설문 자료를 수집하여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대표 사례 분석과 전체 비평문 분석을 통해 학습자의 사고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VTS 기반 비평문 쓰기 수업은 학습자의 작품 관찰 방식과 의미 조직 방식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자들은 초기 단계에서 감정적·인상적 반응에 머무르는 경향을 보였으나, 수업 이후 작품 내부 요소를 근거로 자신의 해석을 조직하고 주장–근거 구조를 형성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학습자 반응 분석에서는 언어적 부담 완화, 참여도 증가, 글쓰기 자신감 향상 등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 비평문 쓰기를 언어 능력 중심의 과제가 아니라 사고 구조 형성 과정으로 재구성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또한 시각적 사고와 학문적 글쓰기를 연결하는 교수·학습 모델을 제안함으로써 외국인 유학생 대상 교양 글쓰기 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 시각적 사고 전략(VTS), 외국인 유학생, 비평문 쓰기, 교양 글쓰기, 시각적 문해력, 질적 사례 분석

Abstract

A Study on Designing a Critical Writing Instruction Model for International Students Using Visual Thinking Strategies(VTS)

: Focusing on René Magritte's *The Treachery of Images*

Lee, Mi-ock / Hongik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design and implement a critical writing instructional model using Visual Thinking Strategies (VTS) for international students and to explore its educational implications. Previous approaches to critical writing instruction for international students have primarily focused on improving linguistic proficiency or text-based interpretation, often overlooking learners' cognitive characteristics and thinking processes. To address this limitation, the present study reconceptualizes VTS not merely as an art appreciation technique but as a thinking strategy centered on observation, inference, and evidence-based reasoning, and integrates it into critical writing instruction.

This study was conducted from the perspective of design-based research (DBR) with 59 international students enrolled at H University in Korea. A VTS-based critical writing program was designed and implemented, and qualitative data were collected from worksheets, students' written texts, learner responses, and survey results. Representative case analyses and overall writing analyses were conducted to examine changes in learners' thinking processes.

The findings revealed that VTS-based critical writing instruction brought positive changes to learners' approaches to artwork observation and meaning construction. In the initial stage, students tended to rely on emotional and impressionistic responses; however, after participating in the instructional process, they increasingly organized their interpretations based on visual

evidence and developed claim–evidence structures in their writing. In addition, learner response analyses indicated reduced linguistic burden, increased participation, and enhanced confidence in writing.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in reconceptualizing critical writing for international students as a process of developing thinking structures rather than merely a language-centered task. Furthermore, by connecting visual thinking with academic writing, this study proposes a new instructional possibility for general education writing courses designed for international students.

Keyword ● Visual Thinking Strategies(VTS), International Students, Critical Writing, General Education Writing, Visual Literacy, Qualitative Case Analysis

▌논문투고일:2026.06.01. ▌심사완료일:2026.06.24. ▌게재확정일:2026.07.06. ▌

● ● ● https://doi.org/10.54698/kl.2026.21.177
지식과 교양, 제21호,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Knowledge and Liberal Arts, Vol. 21, LIC, pp.177-208.

ChatGPT를 활용한 영문이력서(Resume) 비교과 프로그램의 효과와 학습자 인식 연구*

이 선 정**

목 차

1. 서론
2. 연구방법
3. 연구결과 및 논의
4. 결론

1. 서론

본 연구는 ChatGPT를 활용한 영문이력서(resume) 작성 비교과 프로그램의 효과와 학습자 인식을 분석하여, 인공지능 기반의 효율적인 영문이력서 비교과 수업 모델을 제안하고, 나아가 대학생들의 글로벌 의사소통능력 향상과 진로·취업 설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학에서 운영되는 비교과 프로그램은 정규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전공 중심의 학문적 지식을 넘어, 학생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요구되는 다양한 핵심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제공되는 모든 비정규 교육활동을 의미한다.[1] 특히 급속한 세계화가 진행되는 현대 사회에서 국제

* 본 논문은 2024학년도 국립한밭대학교 대학회계 연구비를 지원받아 작성되었음.
** 국립한밭대학교 인문교양학부 부교수
1) 최정희·이규원, 「대학생의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실태 및 인식에 대한 사례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22권 14호,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2, 641쪽.

경쟁력을 갖춘 인재 양성이 중요해짐에 따라, 다수의 대학은 글로벌 역량을 핵심역량으로 설정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2)3)]

이 가운데 영어 비교과 프로그램은 글로벌 역량 함양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왔는데,[4)5)] 이는 글로벌 역량이 타 문화와 언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며 국제적 수준에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6)7)8)9)10)] 영어가 국제 사회에서 공용어로 기능하며 글로벌 교류와 업무 수행의 주요 의사소통 도구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대학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영어 비교과 프로그램은 주로 토익 준비 과정,[11)] 원어민과의 영어 회화,[12)] 영어 발표 능력 향상 프로그램 [13)] 등으로 구성되어 왔다.

---

2) 박선영, 「영어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사례를 통한 글로벌 역량 효과 연구」, 『문화와 융합』 제45권 3호, 인문사회예술융합학회, 2023, 188쪽.

3) Lee, S. “Effects of an extracurricular English cover letter writing program on Korean university students’ English cover letter writing skills”, *Journal of Liberal Arts Education Studies*, vol. 10, no. 2, 2025, pp.329-357.

4) 박선영, 앞의 논문, 189쪽.

5) 배연숙, 「비교과 영어 클리닉 프로그램 변화가 학생 만족도와 학습 경험에 미치는 영향: A 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과교육연구』 제6권 1호, 한국비교과교육학회, 2025, 22쪽.

6) 박선영, 앞의 논문, 188쪽.

7) 배연숙, 앞의 논문, 22쪽.

8) 김부자, 「글로벌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역량 배양을 위한 교육내용 개발에 대한 기초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7권 2호,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19, 91-100쪽.

9) 신소영·노은미, 「글로벌 역량 측정도구 개발 및 양호도 검증」, 『Studies in English Education』 제18권 2호, 글로벌영어교육학회, 2013, 339-359쪽.

10) 진미석·손유미·주휘정, 「대학생 핵심역량 진단체제 구축 방안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제29권 4호, 한국교육행정학회, 2011, 461-486쪽.

11) 유지성·윤소영, 「영어 비교과 운영을 통한 학업성취와 핵심역량 제고 연구」, 『교양교육 연구』 제19권 1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25, 283-297쪽.

12) 신영헌·김영아, 「글로벌역량 강화를 위한 영어 비교과프로그램 운영사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1권 5호, 한국콘텐츠학회, 2021, 338-348쪽.

13) 김우형, 「Speaking Confident English 비교과 과정 프로그램 사례 연구」, 『신영어영문학』 제86권, 신영어영문학회, 2023, 25-46쪽.

그러나 학생들이 경쟁적인 글로벌 환경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해외 인턴쉽, 해외 취업, 글로벌 기업 취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영문이력서 작성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인 실정이다. 영어와 한국어 이력서 작성 방식의 차이를 이해하고, 영어권 문화와 의사소통 관행에 부합하는 자기표현 및 설득 전략을 습득하도록 돕는 영문이력서 작성 비교과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글로벌 채용 시장에서 자신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경쟁력을 갖추어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역량 향상에 의미있는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영문이력서(resume)는 지원자의 학력, 경력, 기술, 성과 등을 요약하여 정리한 문서로써, 해외 인턴쉽, 해외 취업, 글로벌 기업 취업 지원시 필수적으로 제출하는 서류이며, 일반적으로 채용담당자가 지원자를 선별하기 위해 가장 먼저 살펴보는 자료 중 하나이다. 이력서는 지원자 본인을 마케팅하는 도구로서, 지원자의 역량이 지원하고자 하는 조직/회사의 필요 및 지원하는 포지션의 역할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보여줌으로써, 채용담당자를 설득하여 인터뷰 기회를 얻고 성공적인 취업에 이르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14)15)] 이와 같은 영문이력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며, 지금까지 이루어진 약간의 영문이력서 수업 관련 선행연구들에서도, 다음과 같은 한계들이 보고되어 왔다: (1) 피드백 측면의 어려움, 즉 교수자 한 명이 다수의 학생들 개개인에게 피드백을 제공하기 어려운 시간적·물리적 한계와, 학생들의 동료 피드백 역량 부족의 한계, (2) 학생들이 본인의 진로·취업 방향을 다양하게 알아보고, 그에 필요한 학력·경력·기술 관련 정보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집하는 측면에서의 어려움 등이 보고되고 있다.[16)17)18)19)]

14) Campbell, E. "Resume writing in English: Comparing the beliefs and practices of Mexican university students with conventions in English-speaking countries", *MAXTESOL Journal*, vol. 44, no. 4, 2020, p.4.

15) Tillotson, K., & Osborn, D. "Effect of a resume-writing workshop on resume-writing skills", *Journal of Employment Counseling*, vol. 49, 2012, pp.110-111.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터 기반의 시공간적으로 제한이 없는 즉각적인 개인별 피드백 기능과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ChatGPT를 영문이력서 비교과 수업에 적용하고자 한다.[20][21][22][23] 이와 같은 ChatGPT 활용 영문이력서 비교과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학습자 인식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는 영어 비교과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효율적인 수업 모델 제시, 그리고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향상과 진로·취업 설계에 기여하고자 하며,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ChatGPT를 활용한 영문이력서 비교과 프로그램은 대학생의 영문이력서 작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2. ChatGPT를 활용한 영문이력서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16) 이선정, 「플립러닝을 적용한 영문이력서(Résumé)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사례연구」, 『교양 교육 연구』 제18권 6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24, 329-347쪽.

17) Campbell, E., op. cit., pp.1-18.

18) Laker, D., & Laker, R. "The five-year resume: A career planning exercise", *Journal of Management Education*, vol. 31, no. 1, 2007, pp.128-141.

19) Zakharova, A., Evers, K., & Chen, S. "Optimal scaffolding method for resume writing in the supplementary online writing course", *Interactive Learning Environments*, vol. 31, no. 10, 2022, pp.1-15.

20) 곽면선, 「대학생의 ChatGPT 활용에 관한 인식 고찰: 교양 비교과 영어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언어연구』 제40권 4호, 한국현대언어학회, 2025, 415-432쪽.

21) 신동광, 「유도(guided)쓰기 활동에서 ChatGPT의 활용방안」, 『영어교과교육』 제22권 2호, 한국영어교과교육학회, 2023, 197-217쪽.

22) 임희주, 「교양영어수업에서 챗GPT 활용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및 태도 연구」, 『문화와 융합』 제45권 9호, 인문사회예술융합학회, 2023, 1335-1342쪽.

23) Bok, E., & Cho, Y. "Examining Korean EFL college students' experiences and perceptions of using ChatGPT as a writing revision tool", *Journal of English Teaching through Movies and Media*, vol. 24, no. 4, 2023, pp.15-27.

2.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A대학교에서 진행한 영문이력서 작성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49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학생들은 한국의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환경에서 10년 이상 영어를 학습해 왔으며, 참여한 학생들 중 유학이나 해외 연수 경험이 있는 학생은 없었다. 학생들의 성별은 여학생 21명(42.9%), 남학생 28명(57.1%) 이었으며, 단과대학별로는 공과대학 18명(36.7%), 정보기술대학 12명(24.5%), 건설환경조형대학 10명(20.4%), 인문사회대학 4명(8.2%), 경상대학 5명(10.2%) 으로 구성되었다. 사전 기초설문조사결과, 참여학생들 모두 ChatGPT를 사용해 본 적은 있으나, ChatGPT를 영어글쓰기에 활용해 본 적이 있는 학생은 30% 정도로, 70%의 학생들이 ChatGPT를 영어글쓰기에 활용해 본 경험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 수업설계

본 영문이력서 비교과 프로그램은 총 4주간 매주 1회 수업 프로그램으로 설계되었다. 1주차 수업에서는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후, 학생들 본인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5년 후 영문이력서를 작성해 보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2주차 수업에서는 영문이력서 작성 방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였고, 과제로는 학생들이 ChatGPT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진로와 취업 방향, 그리고 그에 필요한 학력, 경력, 기술 등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여 진로·취업 로드맵을 설계해 보도록 하였다. 학생들이 과제 수행을 위한 정보 탐색 과정에서 ChatGPT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프롬프트 작성 방법 교육과 예시들이 제공되었으며, 학생들은 본인의 진로·취업 설계를 위해 ChatGPT와 주고받은 질문과 답변을 복사·붙여넣기 하여 기록한 ChatGPT 활동지를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에 과제로 제출하였다. 3주차 수업에서는 강의 내용에 대한 이해와 본인의 진로·취업 로드맵을 토대로, 학생들이 자신의 5년 후 영문이력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ChatGPT에 대한 과잉 의존을 방지하기 위해, 학생들은 제공된 종이 양식에 영문이력서를 직접 작성하였고, 작성한 영문이력서를 사진으로 찍어 LMS에 업로드하도록 하였다. 또한 학생들은 수업 시간 중 직접 작성한 영문이력서를 MS-Word로 타이핑한 문서파일을 LMS에 업로드하도록 하여, 다음 주 4주차 ChatGPT 피드백 활동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4주차 수업은 교내 컴퓨터실에서 진행되었고, 학생들은 ChatGPT를 통해 본인의 영문이력서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 수정본을 완성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은 피드백을 받기 위해 ChatGPT와 주고 받은 질문과 답변을 복사·붙여넣기하여 기록한 ChatGPT 피드백 활동지와 본인의 영문이력서 수정본을 함께 LMS에 제출하였다.

[표 1] ChatGPT 활용 영문이력서 비교과 프로그램 수업설계

	교수 · 학습 활동
1주차	· 오리엔테이션 및 사전 영문이력서 작성
2주차	· 영문이력서 작성 방법 강의 · ChatGPT 활용을 위한 효과적인 프롬프트 작성 방법 교육 · ChatGPT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학생 본인의 진로·취업 로드맵 설계(과제) · ChatGPT 진로·취업 로드맵 설계 활동지 LMS 제출(과제)
3주차	· 영문이력서 작성 방법 강의 내용에 대한 이해와 본인의 진로·취업 로드맵을 토대로, 학생 본인의 5년 후 영문이력서 작성
4주차	· ChatGPT의 피드백을 받아 영문이력서 수정본 작성 · ChatGPT 피드백 활동지 LMS 제출

3) 연구도구

(1) 영문이력서 강의자료

본 영문이력서 비교과 수업을 위하여, 영어권 유명 대학들(Princeton

University, Columbia University, Harvard University 등)이 본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작한 이력서(resume) 작성 교육 자료들을 참고하여, 강의자료(PowerPoint 자료, 유인물, 활동지 등)가 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영문이력서의 정의와 목적, 영문이력서의 구성, 각 섹션에 포함해야 할 내용 및 해당 내용 작성 방법과 작성시 유의사항, 서식 등을 예시와 함께 설명하였다.

(2) 프롬프트 교육 자료

학생들이 영문이력서 작성시 ChatGPT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영어권 국가들에서 출판된 AI 활용 Resume 작성 가이드 관련 도서들[24)25)26)]을 참고하여 프롬프트(Prompt) 교육자료가 제작되었다.

우선 효과적인 프롬프트의 구성요소인, 주제, 옵션, 답변의 양, 포맷, 방법, 역할 부여, 예시 제공 등을 설명하고, 이러한 구성요소들이 포함된 진로 탐색 프롬프트의 예시를 제시하여(예: Act as a career counselor. I have a degree in [majors and/or minors] and [amount] of experience in [field/job title]. Generate 10 specific job titles that fit my background.), 학생들이 효과적인 프롬프트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학생들이 본인의 학력(Education) 섹션 작성을 위한 정보 탐색에 활용할 수 있는 프롬프트 예시(예: 'What courses can I take to improve my chances of being hired as [role]?'), 그리고 학생들 본인의 경력(Experience) 섹션 작성을 위한 정보 수집에 활용할 수 있는 프롬

24) Gold, B. *Find your next job with ChatGPT: A guide for everyone*, New York: Beyond Publishing, 2023, pp.6-47.

25) Leykam, G. *AI powered job hunting: How to leverage ChatGPT to land your dream job*, North Haven: Garrison Leykam, LLC., 2023, pp.1-47.

26) Washington, E. *Boost your career with ChatGPT: The ultimate guide to AI in job searching*, New York: Work Life Win, Inc., 2023, pp.5-96.

프트 예시(예: ‘What skills are typically required for a digital marketing specialist/a data analyst role?’) 등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취업에 필요한 학력·경력·기술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진로·취업 로드맵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ChatGPT에게 피드백을 요청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프롬프트 예시들(예: ‘Can you review my resume and provide feedback or edits to improve its overall quality and effectiveness?’ 등)도 제공하여, 학생들이 ChatGPT의 피드백을 받아 본인의 영문이력서를 수정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3) 영문이력서 평가표

학생들이 작성한 영문이력서 평가를 위해, [표 2]와 같은 영문이력서 평가표가 제작되었다. 평가표는 영어권 유명 대학들의 Resume 작성 교육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Campbell(2020)[27], Zahkarova 외(2022)[28]의 평가항목들을 참고하여 제작되었다. 평가표는 총 6영역 17항목으로, 구성(Organization) 1항목, 지원자 정보(Contact Information) 2항목, 학력(Education) 2항목, 경력(Experience) 8항목, 기술(Skills) 2항목, 언어 사용(Language Use) 2항목으로 구성되었다.

(4) 사전-사후 단계별 영문이력서

본 연구에서는 ChatGPT 활용 영문이력서 비교과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1차, 2차, 3차 단계별로 학생들이 작성한 영문이력서를 활용하였다. 1차 영문이력서는 사전 영문이력서로서, 1주차 비교과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직후, 학생들 본인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5년 후 영문이력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였다. 2차 영문이력서는, 2주차 영문이력서 작성 방법 강의를 듣고, 과제로서 ChatGPT를 활용하여 자신의 진로·취업 설계 관련 정보를 탐색한 후, 이와 같은 강의 내용에 대한 이해와 정

27) Campbell. E., op. cit., pp.9-10.
28) Zakharova, A., Evers, K., & Chen, S., op. cit., pp.14-15.

보 탐색 결과를 토대로 3주차 수업 중에 학생들 스스로 영문이력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였다. 3차 영문이력서는, 학생들이 3주차에 작성한 본인의 영문이력서에 대해 4주차 수업 중에 ChatGPT의 피드백을 받아 수정하여 작성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의 단계별 영문이력서는 [표 2]의 평가표에 따라 채점되었다. 각 항목에 대해 '예' 에는 1점, '아니오'에는 0점, 해당 항목의 내용이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을 경우 포함된 내용의 정도에 따라 부분점수 0.25점, 0.50점, 0.75점으로 부여되어, 17항목 총 17점 만점으로 채점되었다.

[표 2] 영문이력서 평가표

		Yes	No
구성 (Organization)	(1) 지원자 정보, 학력, 경력, 기술/기량 섹션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지원자 정보 (Contact Information)	(2) 지원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가 포함되어 있다		
	(3) 개인정보(생년월일, 나이, 성별, 인종, 혼인, 장애, 사진 등)를 포함하지 않았다		
학력 (Education)	(4) 학력이 시간상 역순으로 (가장 최근 학력이 제일 처음에) 배열되어 있다		
	(5) 대학교 이름, 위치, 학위, 전공, 졸업(예정)일이 포함되어 있다		
경력 (Experience)	(6) 경력들은 시간상 역순으로 (가장 최근 경력이 제일 처음에) 배열되어 있다		
	(7) 회사/기관의 이름, 위치, 직함, 근무기간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8) 담당 업무와 주요 업적들은 불렛포인트(bullet point)를 사용하여 서술되어 있다		
	(9) 담당 업무와 주요 업적을 서술할 때, 무엇을, 왜, 어떻게 했는지, 결과는 어떠했는지를 포함하였다		
	(10) 담당 업무와 업적을 서술할 때, 행위동사(action verb)로 시작하였다		
	(11) 담당 업무와 업적을 서술할 때, 일인칭 대명사(예: I, me, mine, myself)를 사용하지 않았다		
	(12) 담당 업무와 업적을 서술할 때, 숫자를 사용하여 수량화 하였다		
	(13) 전문 용어, 줄임말 등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지 않았다		
기술 (Skills)	(14) 컴퓨터 능력 및 외국어 능력과 같은 기술/기량을 포함하였다		
	(15) 능숙도의 수준(예: 초급, 중급, 고급)을 서술하였다		
언어사용 (Language Use)	(16) 능동적이고 견결하며 프로페셔널한 표현을 사용하였다		
	(17) 문법과 철자가 정확하도록 점검하였다		

(5) ChatGPT 활동지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ChatGPT와의 상호작용 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ChatGPT 활동지를 사용하였다. 학생들은 ChatGPT를 활용하여 자신의 진로·취업 방향과 이에 필요한 학력·경력·기술 관련 정보를 탐색하는 과정, 그리고 본인이 작성한 영문이력서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 수정하는 과정에서 ChatGPT와 주고받은 질문과 답변들을 복사·붙여넣기하여 기록한 ChatGPT 활동지를 LMS에 제출하였다.

(6) 사후 설문지

ChatGPT 활용 영문이력서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참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후 설문이 진행되었다. 설문지는 신동광(2023)[29], 임희주(2023)[30]의 설문을 참고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게 제작되었으며, ChatGPT 활용 영문이력서 비교과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진로·취업 설계, 글로벌 의사소통역량에 미치는 영향, 프로그램의 유용성과 만족도 등에 대한 총 9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표 4] 참조). 각 설문 문항은 '(1)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6)매우 그렇다'까지 6점 척도로 응답되었다(Cronbach's α = .92). 설문의 마지막에는, 본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좋았던 점, 어려웠던 점, 개선점 등을 서술형으로 기술하도록 하였다.

4)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는 총 4주에 걸쳐서 진행되었다. 1주차에는 본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영문이력서에 대한 학생들의 사전 지식을 진단하기 위한 사전 영문이력서가 작성되었다. 2주차에는 영문이력서 작성 방법과 효과적인 프롬프트 활용 방법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었고, 과제로는 ChatGPT를 활용하여 자신의 진로·취업 방향과 이를 위해 필요한 학

29) 신동광, 앞의 논문, 204-205쪽.
30) 임희주, 앞의 논문, 1338-1340쪽.

력·경력·기술 등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여 진로·취업 로드맵을 설계해보는 과제가 주어졌다. 3주차에는 2주차 영문이력서 작성 방법 강의와 진로·취업 로드맵 과제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 스스로 본인의 영문이력서를 작성하였다. 4주차에는 학생들이 3주차 수업에서 작성한 본인의 영문이력서에 대해 ChatGPT의 피드백을 받아 수정본을 작성하였다. 비교과 프로그램 종료 직후, 본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사후 설문이 실시되었다. 학생들의 단계별 영문이력서의 점수와 사후 설문 결과는 t-검정과 빈도분석을 통해 분석되었다.

3. 연구결과 및 논의

1) ChatGPT를 활용한 영문이력서 비교과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영문이력서 작성에 미치는 영향

ChatGPT를 활용한 영문이력서 비교과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영문이력서 작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영문이력서 점수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영문이력서 점수 t-검정 결과

		평균	표준편차	*t*	*p*
1	강의 전 (1차)	4.92	2.07	-19.39	< .001
	강의 후 (2차)	12.73	2.13		
2	강의 후 (2차)	12.73	2.13	-14.05	< .001
	ChatGPT 피드백 후 (3차)	15.13	1.53		

본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 학생들의 영문이력서 평균 점수는 4.92점(17점 만점)으로, 학생들의 영문이력서 작성에 대한 사전 지식이 매우 낮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프로그램에서 영문이력서 작성 방법

강의를 수강한 후 학생들 스스로 작성한 이력서의 평균 점수는 12.73점(17점 만점)으로, 평균 7.81점 정도의 전반적으로 유의한 향상(t = -19.39, p < .001)을 나타내었다. 이는 본 비교과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이 영문이력서 작성 방법 강의를 통해 영문이력서의 구성, 포함해야 할 내용, 유의사항 등을 학습함으로써 영문이력서 작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영문이력서 강의가 학생들의 영문이력서 작성 오류 감소에 도움이 되었음을 서술적으로만 보고했던 Campbell(2020)[31]의 선행연구 결과를, 본 연구의 영문이력서 강의 효과 통계적 유의성 분석을 통해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강의 수강 후 학생들 스스로 작성한 이력서에 대해 ChatGPT의 피드백을 받아 수정한 학생들의 영문이력서 평균 점수는 12.73점(17점 만점)에서 15.13점(17점 만점)으로 상승하여 추가적인 유의한 향상(t = -14.05, p < .001)을 나타내었다. 이는 학생들이 본인 스스로 작성한 영문이력서에 대해 ChatGPT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부족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보완할 수 있었던 결과로 해석할 수 있으며, ChatGPT 피드백에 대한 학생들의 긍정적 인식 중심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한 곽면선(2025)[32], 임희주(2023)[33], Bok과 Cho(2023)[34]의 선행연구를, 성취도 점수 통계 분석을 통해 ChatGPT 피드백의 효과를 검증하는 실증적 연구로 확장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ChatGPT의 피드백이 영문이력서 작성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학생들의 ChatGPT 활동지를 분석하였고, 영문이력서 평가표 영역별(학력, 경력, 기술, 언어사용)로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31) Campbell, E., op. cit., pp.1-18.
32) 곽면선, 앞의 논문, 415-432쪽.
33) 임희주, 앞의 논문, 1335-1342쪽.
34) Bok, E., & Cho, Y., op. cit., pp.15-27.

(1) 학력(Education) 섹션 관련

① 졸업(예정)연월 기재

학력(Education) 섹션에서, 학생들은 대학교명과 전공을 위주로 기재하고, 졸업(예정)연월을 누락하는 경우들이 있었다. 이에 대해 ChatGPT는 "Education 학력 부분에서 대학교 졸업(예정)연월이 포함되지 않았으니, 졸업(예정)연월을 추가하세요."와 같은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졸업(예정)연월을 기재했더라도 잘못된 형식으로 기재한 경우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Expected Graduation: 2028 February"와 같이, 한국의 연월 표기 방식에 따라 연도를 먼저 쓰고, 월을 나중에 쓰는 경우들이 있었다. 이에 대해 ChatGPT는 "Expected Graduation: 2028 February를 Expected Graduation: February 2028 으로 변경하세요. 이 순서가 표준적인 날짜 형식입니다."와 같은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이와 같이 ChatGPT는 학생들이 누락한 항목을 보완하거나, 한국의 연월 표기 방식에 따라 작성한 졸업(예정)연월을 영어의 방식으로 변경하도록 피드백하여 학생들이 오류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관련 과목 기재

학력(Education) 섹션에서, 학생들은 대학교명과 전공을 위주로 기재하고, 지원분야와 관련하여 수강한 과목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기재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었다. 이에 대해 ChatGPT는 "대학교에서 배운 과목 중 해당 직무와 관련 있는 과목을 Relevant Coursework에 나열하면 해당 분야에 대한 준비도가 강조될 수 있습니다. 은행 및 금융 직무와의 연관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화폐금융론', '재무회계', '파생금융상품론'과 같은 과목이 있다면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와 같은 피드백을 통해, 학생들이 직무와 관련된 과목을 수강하고 이를 충분히 기재함으로써 지원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기르고 이를 강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경력(Experience) 섹션 관련

① 근무 기관의 위치 및 근무 기간 기재

경력(Experience) 섹션에서, 학생들은 근무 기관명과 근무 내용을 위주로 기재하고, 근무 기관의 위치와 근무 기간을 누락하는 경우들이 있었다. 이에 대해 ChatGPT는 "경력마다 근무 기관의 위치와 근무 시작 및 종료 연월을 명시하세요."와 같은 피드백을 통해, 학생들이 누락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경력의 시간상 역순 배열

경력(Experience) 섹션에서 가장 최근의 경력이 제일 처음에 오도록 시간상 역순으로 경력을 나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시간 순서대로 경력을 나열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대해 ChatGPT는 "가장 최근의 경험이 위로 오도록 작성하세요. LG이노텍에서의 활동이 최근이므로 맨 위로 배치하고, 다른 경험들도 시간상 역순으로 정리하세요."와 같은 피드백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본인의 경력을 영문이력서에서 요구하는 형식에 따라 배열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경력 서술시, 행위 동사(Action Verb)로 시작

경력(Experience) 섹션에서 담당했던 업무와 주요 업적들을 서술할 때, 각 항목을 불렛포인트(bullet point)와 함께 행위 동사(action verb)로 시작해야 하지만(예: • Designed promotional materials for campus events, increasing student participation by over 30%), 학생들은 주어 'I'를 포함한 문장으로 시작하거나(예: I conducted experiments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자신이 담당했던 업무를 명사형으로 간략하게 나열하거나(예: Analysis of market trends in the semiconductor industry), 종속절로 시작하거나(예: While I worked on a team project, I analyzed…), 전치사구로 시작하는 등(예: During the internship period, I developed…) 다양한 형태의 오류들을 나타내었다. 이에 대해 ChatGPT는 "모든 경험 항목을 행동 동사(Action Verb)

로 시작하세요."와 같은 피드백과 함께, 해당 오류 문장들을 행동 동사로 시작하는 문장으로 수정한 예시를 제공하여 줌으로써(예: "Research on consumer purchasing behavior"를 "Conducted research on consumer purchasing behavior"로 수정), 학생들이 영문이력서에 적절한 문장 형식을 사용하도록 지원하였다.

④ 담당 업무와 업적 서술시, 구체화 및 수치화

경력(Experience) 섹션에서 담당했던 업무와 주요 업적들을 서술할 때, 구체적으로 무엇을, 왜, 어떻게 했는지, 결과는 어떠했는지 서술하고, 성과를 수치화하는 것이 영어권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에서 매우 중요함에도, 많은 학생들이 무엇을 했는지 서술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학생의 경험 서술 "Supported marketing campaign execution"에 대해, ChatGPT는 "실제로 어떤 방법이나 툴을 사용했는지 업무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넣으면 더 좋습니다."라는 피드백과 함께, 수정한 예시 "Designed and executed a social media marketing campaign using Instagram and Facebook analytics tools, increasing post engagement by 30% and follower growth by 18%"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본인의 경력을 보다 구체적이고 수치화하여 자신을 마케팅하고 설득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3) 기술(Skills) 섹션 관련

① 컴퓨터 능력(Technical Skills)

기술(Skills) 섹션 컴퓨터 능력(Technical Skills) 항목에서, 학생들은 Microsoft Office 와 같은 기본적인 소프트웨어만 기재하고, 숙련도에 대해서도 명시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었다. 이에 대해 ChatGPT는 "Microsoft Office 외에 현재 지원하는 직무와 연관될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이나 기술이 있다면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Python, R, SQL 같은 도구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기술의 숙련

도를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Proficient in Python and R 과 같이 숙련도를 덧붙여 기술적인 전문성을 강조하면 해당 분야에서 실무 능력을 갖춘 인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와 같은 피드백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지원하는 직무와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도구를 추가하고 숙련도를 명시하여 기술적인 역량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외국어 능력(Languages)

기술(Skills) 섹션 외국어 능력(Languages) 항목에서, 학생들은 본인이 구사하는 외국어의 종류만 나열하고, 능숙도의 수준은 표시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었다. 이에 대해 ChatGPT는 "언어(English, Chinese)를 각 언어의 능숙도 수준과 함께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구체적인 언어 시험 점수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격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Proficient in English (TOEIC 900), Proficient in Chinese (HSK Level 6)"와 같은 피드백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영문이력서에서 요구되는 형식에 따라 언어의 능숙도 수준을 명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언어 사용(Language Use) 관련

① 능동적인 표현

경력(Experience) 섹션에서 담당했던 업무와 주요 업적들을 서술할 때, 학생들은 자신의 기여도를 능동적이고 강하게 강조하기 보다는 수동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었다. 이에 대해 ChatGPT는 "이력서 내용에서 수동적인 어투로 인해 본인의 실제 기여도와 주도성이 다소 약화됩니다. 보다 능동적인 어휘와 강한 어조로 자신의 기여도를 강조하는 문장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Support 와 같은 단어 보다는 Conduct, Improve 와 같이 본인의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기여를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Supported data analysis for sales reports 보다는, Conducted data analysis for sales reports to improve accuracy 와 같이 표현하여 역할을 더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와 같은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각 경력 사항에서 수동적인 표현을 수정하여, 본인의 역할과 책임을 더 능동적으로 표현하고 자신의 성과를 강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간결한 표현

경력(Experience) 섹션에서 담당했던 업무와 주요 업적들을 서술할 때, 학생들은 짧게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을 더 길게 표현하거나 같은 표현을 반복하여 사용하는 등 간결한 표현 측면에서 부족한 경우들이 있었다. 이에 대해 ChatGPT는 "문장 구조를 좀 더 간결하게 다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Collected survey responses and analyzed the collected survey responses to understand customer opinions 는 반복이 많으므로, Collected and analyzed survey responses to identify customer insights 와 같이 간결하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와 같은 피드백을 제공하여, 문장의 단어 개수를 줄이되 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예시를 보여줌으로써, 학생들이 자신의 경력을 보다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프로페셔널한(Professional) 표현

경력(Experience) 섹션에서 담당했던 업무와 주요 업적들을 서술할 때, 학생들은 구어체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프로페셔널한 표현 측면에서 부족한 경우들이 있었다. 이에 대해 예를 들어 ChatGPT는 "Took care of customer questions 는 구어체에 가까워 이력서에는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대신 Handled customer inquiries and resolved issues in a timely manner 와 같이 공식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와 같은 피드백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이력서에 적절한 보다 프로페셔널한 표현을 사용하도록 조언하였다.

④ 문법 및 철자

학생들의 영문이력서 전체적으로 문법적인 오류들도 나타났는데, 예를

들어, 경력(Experience) 섹션에서 담당했던 업무와 주요 업적들을 서술할 때, 과거의 일에 대해서는 과거 시제를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제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었다. 이에 대해 ChatGPT는 "문법에서 다소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manage project schedules 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데, 과거에 일어난 일을 표현하려면 managed로 바꿔야 합니다."와 같은 피드백을 통해, 학생들이 문법적 오류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철자 측면에서도 오타나 대문자 사용 오류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 ChatGPT는 "영어 표현에서 오타가 있습니다. Janurary는 January로, reserach는 research로 수정해야 합니다. 이력서에서 기본적인 맞춤법 실수는 지원자의 세심함과 주의깊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이는 지원자에 대한 채용담당자의 신뢰도와 직결되므로 정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와 같은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이력서에서 정확한 철자 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학생들은 학위나 직함에서 대문자 사용의 오류를 많이 나타내었는데, 이에 대해 ChatGPT는 "학위에서 적절한 대문자를 사용하세요: Bachelor of science in computer engineering → Bachelor of Science in Computer Engineering", "경험 항목에서 역할 명칭 Research assistant → Research Assistant로, 직함은 일반적으로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합니다."와 같은 피드백을 통해, 학생들이 흔히 실수하는 학위나 직함에서의 대문자 사용 오류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ChatGPT는 학력, 경력, 기술, 언어 사용 등 영문이력서의 다양한 영역에서, 학생들이 (1) 누락했던 정보를 보완하고, (2) 한국어 방식으로 작성한 표현을 영어의 방식으로 수정하고, (3) 영어권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에서 중요한 구체적이고 수치화된 경력 서술 등을 통해 본인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조하여 자신을 마케팅하고 설득력을 높이며, (4) 한국적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겸손하고 수동적인 표현 대신, 영어권 문화에서 선

호하는 능동적인 표현과 강한 어조로 자신의 주도성과 기여도를 강조하고, (5) 구어적인 표현 대신, 영문이력서에서 선호하는 간결하고 프로페셔널한 표현을 사용하고, (6) 문법 및 철자 오류를 수정하여 부주의한 지원자로 인식됨으로 인한 서류 탈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피드백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영어권 문화와 언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글로벌 환경에서 소통할 수 있는 글로벌 의사소통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었고, 이는 영어 비교과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향상에 긍정적으로 기여함을 보고한 김우형(2023)[35], 신영헌과 김영아(2021)[36], 유지성과 윤소영(2025)[37]의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본 비교과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은 영문이력서 작성 방법 강의를 통해 영문이력서의 구성과 내용을 학습하고, ChatGPT 정보수집 기능을 활용하여 본인의 진로·취업 방향 및 그에 필요한 학력·경력·기술 관련 정보를 탐색하고, 본인 스스로 영문이력서를 작성한 후, ChatGPT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부족한 부분을 수정보완함으로써, 영문이력서 작성 능력에 있어 유의한 향상을 나타내었다. 아울러, 이선정(2024)[38], Zakharova 외(2022)[39] 등의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한계점, 즉 한 명의 교수자가 다수의 학생들 개개인에게 피드백을 제공하기 어려운 시간적·물리적 한계, 그리고 학생들의 동료 피드백 역량 부족의 한계를, ChatGPT는 방대한 영문이력서(resume) 관련 데이터를 토대로 시공간적 제한없는 즉각적인 개인별 피드백 제공을 통해 해결해주고 있다. 또한 이선정(2024)[40], Laker와 Laker(2007)[41] 등에서 보고한 진로·취업 설계를 위한 종합적이고 효율

35) 김우형, 앞의 논문, 25-46쪽.
36) 신영헌·김영아, 앞의 논문, 338-348쪽.
37) 유지성·윤소영, 앞의 논문, 283-297쪽.
38) 이선정, 앞의 논문, 329-347쪽.
39) Zakharova, A., Evers, K., & Chen, S., op. cit., pp.1-15.
40) 이선정, 앞의 논문, 329-347쪽.
41) Laker, D., & Laker, R., op. cit., pp.128-141.

적인 정보수집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ChatGPT는 도움을 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 학생들이 본인의 진로·취업 방향 및 그에 필요한 학력·경력·기술 관련 정보를 탐색할 때, 다양한 진로 분야별 전문 상담자들과의 예약상담이 필요없이, ChatGPT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정보수집 기능 활용으로 한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의 결과는, ChatGPT 활용 영문이력서 비교과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글로벌 의사소통능력 향상과 진로·취업 설계에 기여하는 효과적인 비교과 모델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하며, 기존의 토익·영어회화 중심의 글로벌 역량 강화 영어 비교과 수업에 영문이력서 관련 프로그램을 포함함으로써 글로벌 역량 관련 프로그램을 다양화한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기존 영문이력서 수업의 피드백 측면에서의 한계와 진로·취업 설계를 위한 효율적인 정보수집의 어려움에 대해,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해결책을 제시하며, 학습자 인식 조사 위주의 기존 ChatGPT 활용 영어 비교과 연구를, 성취도 점수 데이터 통계 분석을 통한 실증적 연구로 확장함으로써 관련 문헌에 기여한다.

2) ChatGPT를 활용한 영문이력서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

ChatGPT를 활용한 영문이력서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사후 설문 분석 결과는 [표 4] ~ [표 5]와 같다.

[표 4] ChatGPT 활용 영문이력서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번호	항목	구분	1	2	3	4	5	6
1	ChatGPT 활용 영문이력서 작성은 향후	응답	0	0	1	14	24	10
	직업에 대한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된다	%	0	0	2.0	28.6	49.0	20.4
2	ChatGPT 활용 영문이력서 작성은 향후	응답	0	0	1	13	28	7
	대학생활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된다	%	0	0	2.0	26.5	57.1	14.3
3	ChatGPT는 시간/노력 절약의 효율성	응답	0	0	0	4	25	20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	%	0	0	0	8.2	51.0	40.8

4	ChatGPT는 정보를 얻어 이력서의 내용을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응답	0	0	0	5	24	20
		%	0	0	0	10.2	49.0	40.8
5	ChatGPT는 유용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응답	0	0	0	2	26	21
		%	0	0	0	4.1	53.1	42.9
6	ChatGPT는 영어 표현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된다	응답	0	0	1	9	23	16
		%	0	0	2.0	18.4	46.9	32.7
7	ChatGPT 활용은 영문이력서 작성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응답	0	0	2	6	24	17
		%	0	0	4.1	12.2	49.0	34.7
8	ChatGPT 활용 영문이력서 작성 활동은 글로벌 의사소통역량 향상에 도움이 된다	응답	0	0	1	17	24	7
		%	0	0	2.0	34.7	49.0	14.3
9	ChatGPT 활용 영문이력서 비교과 프로그램에 만족한다	응답	0	0	1	2	35	11
		%	0	0	2.0	4.1	71.4	22.4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다소 그렇지 않다; 4=다소 그렇다; 5=그렇다; 6=매우 그렇다

[표 4]에서 98%의 학생들이 ChatGPT 활용 영문이력서 작성 활동은 향후 직업에 대한 계획 수립과, 대학 생활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는데, 이는 [표 5]에 제시된 학생들의 서술형 응답과 연결지어 설명될 수 있다. 서술형 응답에서 학생들은, 본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 본인의 진로를 탐색하고, 본인이 목표로 할 회사와 그에 필요한 자격증, 전공, 수강해야 할 과목, 인턴 등의 경력, 컴퓨터 및 외국어 능력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앞으로 이루어야 할 가까운 목표부터 먼 목표까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었고,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되어 유익한 시간이었으며, 이렇게 계획 세운 본인의 미래의 경력을 직접 이루어 정말 자신의 경력으로 만들고 싶은 열정이 생겼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표 5] 서술형 설문문항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

문항	학생들의 응답
ChatGPT 활용 영문이력서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좋았던 점	(1) 진로·취업 관련 효율적 정보 수집 측면 · ChatGPT를 통하여 내 진로 분야에서 하는 일과 필요한 자격증 및 인턴 활동에 관한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 있었다. · ChatGPT가 앞으로 어떤 자격증이나 어떤 경력들이 내 전공과 관련된 회사에 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는지 다 알려줘서 신기했고, 진로 탐색하는데도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 내가 목표로 하는 회사에 취업을 할 경우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그 회사에서 일하는 분 말고는 물어보기 어려운데, ChatGPT를 이용해 유용한 정보를 얻은 것 같다. · 정보를 인터넷에서 일일이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ChatGPT를 사용하여 정보를 빠르게 찾고 서치하는 시간을 줄여줘서 이력서를 효율적으로 작성 가능했다. · 기존 자료를 참고하거나 찾아보는 시간을 줄여주어 더 효율적으로 영문이력서를 완성할 수 있었다. (2) 미래 설계 경험 측면 ·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됨. · 이 프로그램을 통해 내가 들어가고 싶은 회사는 어떤 곳이고 어떤 부서에서 일하고 싶은지를 알아볼 수 있어서 좋았다. 또 그 부서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성취를 이뤄내면 좋은지 알게 되어서 가까운 목표부터 먼 목표까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 · 이번에 쓴 경력을 진짜 저의 경력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 이력서에 쓴 내 미래의 경력을 직접 이루어보고 싶다고 생각이 들어서 열정이 더 생겼다. (3) 개인별 피드백 측면 · ChatGPT의 구체적인 피드백을 통해 내 이력서의 문제점을 알게 되고 고칠 수 있어서, 영문이력서의 퀄리티가 훨씬 나아졌다. · ChatGPT의 피드백을 통해 원어민이 사용하는 언어 문장 표현 및 간결한 표현으로 고칠 수 있었고, 몰랐던 단어와 문법도 알게 되었다. · 몰랐던 지식을 빅데이터를 통해 알려주고, 철자나 오류가 있는 부분들을 바로잡아 주어서 좋았다. (4) 글로벌 역량 측면 · 영문이력서와 우리나라 이력서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영문이력서 쓰는 방법은 무엇인지, 어떤 것들을 추가하면 좋은지 알게 되어, 나중에 영문이력서를 쓰게 될 때 이번 일을 경험삼아 능숙하게 쓸 수 있을 것 같다. · 나중에 해외취업을 생각하고 있기에 상당히 실용적인 경험을 했다. · 정말 해외에 지원해보고 싶다. · 해외 인턴쉽이나 외국계 회사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 자신이 없었는데, 이번에 영문이력서를 쓰면서 나도 지원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ChatGPT 활용 영문이력서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어려웠던 점	· 영문이력서를 처음 작성하다보니, 어떤 일을 하면 좋을지 그리고 회사들에 대해서도 처음 조사해 보는 거였어서, 처음 시작할 때 조금 막막했던 것 같다. · ChatGPT가 너무 방대한 자료를 알려주다 보니, 오히려 원하는 정보를 도출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어려웠습니다. · ChatGPT가 알려준 답변이 맞는지 인터넷을 통해 한번 더 찾아보고 검토해 보는 것이 힘들었다. · 질문을 잘 해야 제가 원하는 답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가끔 엉뚱한 답변들이 나오는 부분에서 원하는 답변을 얻기 위해 질문을 계속 수정해야 하는 부분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 영어로 질문하면 영어로 답변해주어 해석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 영어실력이 부족하여 ChatGPT가 피드백해준 영어표현이 옳은 표현인지 아닌지 확신이 어려웠던 점.
ChatGPT 활용 영문이력서 비교과 프로그램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	· 무료서비스에서는 시간 내 질문량이 정해져 있어 활동 중 서비스가 막히는 상황이 발생해 유료 버전 대표 아이디를 이용하면 좋을 것 같다. · ChatGPT가 영문이력서 말고도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예시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ker와 Laker(2007)[42]의 연구에서, 학생들이 5년 후 이력서 작성 활동을 통해 자신의 직업적 목표를 정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교육, 경력, 활동 등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며, Laker와 Laker(2007)[43]가 언급했듯이 많은 대학생들이 진로계획 부족으로 인해 4학년에 이르러서야 자신의 이력서가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지만, 이미 했어야 했던 일을 과거로 되돌아가서 할 수 없어 취업에 실패하거나 수년간의 진로 방황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본 비교과 프로그램이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ChatGPT 활용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관련하여서는, 100%의 학생들이 ChatGPT가 정보 제공을 통한 영문이력서 내용 작성과 시간/노력 절약의 효율성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하였는데, [표 5] 서술형 응답에서도 학생들은 같은 맥락의 응답으로, 인터넷이나 다른 자료들을 일일이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ChatGPT를 사용하여 종합적인 정보를 빠르게 얻을

42) Laker, D., & Laker, R., op. cit., pp.128-141.

43) Ibid., pp.128-141.

수 있어서 시간이 절약되고 이력서를 효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100%의 학생들이 ChatGPT가 유용한 피드백을 제공하여 영문이력서 작성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고, 95% 이상의 학생들이 ChatGPT의 피드백이 영어 표현의 질적 향상과 영문이력서 작성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는데, [표 5] 서술형 응답에서도 학생들은 ChatGPT의 피드백을 통해 본인 이력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었고, 문법·어휘·철자 오류 등을 바로잡고 보다 자연스럽고 간결한 영어 표현으로 수정하게 되어 영문이력서의 퀄리티가 훨씬 나아졌다는 만족감을 나타내었다. 이는 ChatGPT의 정보수집 및 피드백 기능이 영어 글쓰기의 다양한 측면에서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학생들의 인식을 보고한 곽면선(2025)[44], 신동광(2023)[45], 임희주(2023)[46], Bok과 Cho(2023)[4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ChatGPT 활용 비교과 프로그램이 영문이력서 비교과 프로그램을 위한 하나의 바람직한 수업 모델로 고려될 수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98%의 학생들이 ChatGPT 활용 영문이력서 작성 활동은 글로벌 의사소통역량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는데, [표 5] 서술형 응답에서도 같은 맥락의 응답을 살펴볼 수 있다. 학생들은 본 프로그램의 강의를 통해 영문이력서 작성 방법을 배우고, 영문이력서와 우리나라 이력서의 차이점에 대해 이해하게 되어, 나중에 영문이력서를 쓰게 될 때 능숙하게 쓸 수 있을 것 같고, 나중에 해외 취업을 생각하고 있기에 상당히 실용적인 경험을 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해외 인턴쉽이나 외국계 회사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 자신감이 생기고, 더욱 지원해보고 싶다고 하여, 이와 같은 프로그램이 해외 인턴쉽, 해외 취업, 글로벌 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필요를 돕고,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향상에 동기를 부여하는 교육적 효

44) 곽면선, 앞의 논문, 415-432쪽.
45) 신동광, 앞의 논문, 197-217쪽.
46) 임희주, 앞의 논문, 1335-1342쪽.
47) Bok, E., & Cho, Y., op. cit., pp.15-27.

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어려웠던 점으로, 영문이력서를 처음 작성하면서 미래의 진로와 지원할 회사들에 대해 조사하다보니, 처음에 조금 막막함이 있었음을 언급하였다. 또한, ChatGPT가 너무 방대한 자료를 알려주어 원하는 정보를 도출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ChatGPT가 알려준 내용이 맞는지 인터넷을 통해 한번 더 찾아보고 검토해 보는 것이 힘들었던 점, ChatGPT에게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다보니 내가 원하는 것에서 조금씩 벗어난 답변이 나올 때 마다 원하는 답변을 얻기 위해 질문을 계속 수정해야 하는 점 등을 언급하였다. 아울러, ChatGPT가 영어로 제공한 답변을 해석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본인의 영어 실력이 부족하여 ChatGPT가 피드백 해 준 영어 표현이 본인의 의도와 맞는 표현인지 아닌지 확신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언급하였다. 또한 개선점으로는, ChatGPT 무료 버전에서는 사용량에 제한이 있어 영문이력서 활동 중 사용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유료 버전 대표 아이디를 이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학생들의 학습활동 편의를 위해 향후 프로그램 운영에 적용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4. 결론

본 연구는 ChatGPT를 활용한 영문이력서(resume) 작성 비교과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학습자 인식을 분석하여, 인공지능 기반의 효율적인 영문이력서 비교과 수업 모델을 제안하고, 나아가 대학생들의 글로벌 의사소통능력 향상과 진로·취업 설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비교과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은 영문이력서 작성 방법 강의를 통해 영문이력서의 구성과 내용을 학습하고, ChatGPT 정보수집 기능을 활용하여 본인의 진로·취업 방향 및 그에 필요한 학력·경력·기술 관련 정보를 탐색하고, 본인 스스로 영문이력서를 작성한 후, ChatGPT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부족한 부분을 수정보완함으로써, 영문이력서 작성 능력에 있어

유의한 향상을 나타내었다. 특히 학생들은 영어 문화권의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방식, 즉 구체적이고 수치화된 경력 서술 등을 통해 자신을 마케팅하고 채용담당자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거나, 한국적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겸손하고 수동적인 표현 대신, 영어권 문화에서 선호하는 능동적인 표현과 강한 어조로 자신의 주도성과 기여도를 강조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영어권 문화와 언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글로벌 환경에서 소통할 수 있는 글로벌 의사소통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또한 ChatGPT의 정보검색 기능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본인의 진로취업 방향과 이를 위해 필요한 교육·경력·자격증 등과 같은 정보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학 생활 계획을 세움으로써, 고학년 무렵에 부족한 준비로 인한 취업 실패와 진로 방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도와, 학생들의 미래설계경험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인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ChatGPT 활용 영문이력서 비교과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글로벌 의사소통능력 향상과 진로·취업 설계에 기여하는 효과적인 비교과 모델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하며, 기존 영문이력서 수업 연구에서 보고된 피드백 측면에서의 한계와 진로·취업 설계를 위한 정보수집의 어려움에 대해, ChatGPT의 개인별 피드백 제공 기능과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정보수집 기능을 통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본 연구는 기존의 토익·영어회화 중심의 글로벌 역량 강화 영어 비교과 수업에 영문이력서 관련 프로그램을 포함함으로써 글로벌 역량 관련 영어 비교과 프로그램을 다양화한다는 의의가 있으며, 학습자 인식 조사 위주의 기존 ChatGPT 활용 영어 비교과 연구를, 성취도 점수 데이터 통계 분석을 통한 실증적 연구로 확장함으로써 관련 문헌에 기여한다.

본 연구가 단일 대학에서 실시된 프로그램 사례에 기반하고 있어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으나, 영문이력서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설계·운영 방식과 학생들의 개선의견은 향후 다른 대학에서 유사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데 있어 유의미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

이라 생각된다. 후속 연구에서는, 대학, 전공, 영어 수준 등 보다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보다 큰 표본을 대상으로 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다양한 교육 맥락에서 살펴보는 것도 교육적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단행본

Gold, B. *Find your next job with ChatGPT: A guide for everyone*, New York: Beyond Publishing, 2023.

Leykam, G. *AI powered job hunting: How to leverage ChatGPT to land your dream job*, North Haven: Garrison Leykam, LLC., 2023.

Washington, E. *Boost your career with ChatGPT: The ultimate guide to AI in job searching*, New York: Work Life Win, Inc., 2023.

논문

곽면선,「대학생의 ChatGPT 활용에 관한 인식 고찰: 교양 비교과 영어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언어연구』 제40권 4호, 한국현대언어학회, 2025, 415-432쪽.

김부자,「글로벌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역량 배양을 위한 교육내용 개발에 대한 기초연구」,『디지털융복합연구』 제17권 2호,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19, 91-100쪽.

김영아·현일선,「글로벌 역량 제고를 위한 글로벌역량-교양영어 융합수업 운영의 효과 연구」,『교양 교육 연구』 제15권 1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21, 135-148쪽.

김우형,「Speaking Confident English 비교과 과정 프로그램 사례 연구」,『신영어영문학』 제86권, 신영어영문학회, 2023, 25-46쪽.

박선영,「영어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사례를 통한 글로벌 역량 효과 연구」,『문화와 융합』 제45권 3호, 인문사회예술융합학회, 2023, 187-197쪽.

배연숙,「비교과 영어 클리닉 프로그램 변화가 학생 만족도와 학습 경험에 미치는 영향: A 대학 사례를 중심으로」,『비교과교육연구』 제6권 1호, 한국비교과교육학회, 2025, 21-46쪽.

신동광,「유도(guided)쓰기 활동에서 ChatGPT의 활용방안」,『영어교과교육』 제22권 2호, 한국영어교과교육학회, 2023, 197-217쪽.

신소영·노은미,「글로벌 역량 측정도구 개발 및 양호도 검증」,『Studies in

English Education』 제18권 2호, 글로벌영어교육학회, 2013, 339-359쪽.

신영헌·김영아, 「글로벌역량 강화를 위한 영어 비교과프로그램 운영사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1권 5호, 한국콘텐츠학회, 2021, 338-348쪽.

유지성·윤소영, 「영어 비교과 운영을 통한 학업성취와 핵심역량 제고 연구」, 『교양 교육 연구』 제19권 1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25, 283-297쪽.

이선정, 「플립러닝을 적용한 영문이력서(Résumé)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사례연구」, 『교양 교육 연구』 제18권 6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24, 329-347쪽.

임희주, 「교양영어수업에서 챗GPT 활용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및 태도 연구」, 『문화와 융합』 제45권 9호, 인문사회예술융합학회, 2023, 1335-1342쪽.

진미석·손유미·주휘정, 「대학생 핵심역량 진단체제 구축 방안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제29권 4호, 한국교육행정학회, 2011, 461-486쪽.

최정희·이규원, 「대학생의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실태 및 인식에 대한 사례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22권 14호,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2, 641-658쪽.

Bok, E., & Cho, Y. "Examining Korean EFL college students' experiences and perceptions of using ChatGPT as a writing revision tool", *Journal of English Teaching through Movies and Media*, vol. 24, no. 4, 2023, pp.15-27.

Campbell, E. "Resume writing in English: Comparing the beliefs and practices of Mexican university students with conventions in English-speaking countries", *MAXTESOL Journal*, vol. 44, no. 4, 2020, pp.1-18.

Laker, D., & Laker, R. "The five-year resume: A career planning exercise", *Journal of Management Education*, vol. 31, no. 1, 2007, pp.128-141.

Lee, S. "Effects of an extracurricular English cover letter writing program on Korean university students' English cover letter writing skills", *Journal of Liberal Arts Education Studies*, vol. 10, no. 2, 2025, pp.329-357.

Tillotson, K., & Osborn, D. "Effect of a resume-writing workshop on

resume-writing skills", *Journal of Employment Counseling*, vol. 49, 2012, pp.110-117.

Zakharova, A., Evers, K., & Chen, S. "Optimal scaffolding method for resume writing in the supplementary online writing course", *Interactive Learning Environments*, vol. 31, no. 10, 2022, pp.1-15.

국문초록

본 연구는 ChatGPT를 활용한 영문이력서(resume) 작성 비교과 프로그램의 효과와 학습자 인식을 분석하여, 인공지능 기반의 효율적인 영문이력서 비교과 수업 모델을 제안하고, 나아가 대학생들의 글로벌 의사소통능력 향상과 진로·취업 설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본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은 영문이력서 작성방법 강의를 듣고, ChatGPT 정보수집 기능을 활용하여 본인의 진로·취업 방향 및 그에 필요한 학력·경력·기술 관련 정보를 탐색하고, 본인 스스로 영문이력서를 작성한 후, ChatGPT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하였다. 사전-사후 영문이력서 작성과 사후 설문에 참여한 학생 49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본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영문이력서 작성 능력에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구체적이고 수치화된 경력 서술을 통해 자신을 마케팅하는 영어 문화권의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방식, 그리고 한국적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겸손하고 수동적인 표현 대신, 영어권 문화에서 선호하는 능동적인 표현과 강한 어조로 자신의 주도성과 기여도를 강조하는 표현 등에서 향상이 나타나, 영어권 문화와 언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글로벌 환경에서 소통할 수 있는 글로벌 의사소통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또한 학생들은 본 프로그램이 본인의 진로·취업 로드맵 설계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인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본 프로그램이 영문이력서 수업을 위한 하나의 효과적인 모델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하며, 기존의 토익·영어회화 중심의 글로벌 역량 강화 영어 비교과 수업에 영문이력서 프로그램을 포함함으로써 글로벌 역량 관련 영어 비교과 프로그램을 보다 다양화하고, 학습자 인식 조사 위주의 기존 ChatGPT 활용 영어 비교과 연구를, 성취도 점수 데이터 통계 분석을 통한 실증적 연구로 확장함으로써 관련 문헌에 기여한다.

주제어 ● 영문이력서, 챗지피티, 비교과 프로그램, 글로벌 의사소통역량, 진로·취업 설계

Abstract

The Effects and Learners' Perceptions of a ChatGPT-Assisted Extracurricular English Resume Program

Lee, Sun Jung / Hanbat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a ChatGPT-assisted extracurricular English resume-writing program and learners' perceptions of the program to propose an efficient AI-based instructional model for English resume education. In the program, the students first attended a lecture on English resume writing. Then, they used ChatGPT's information-gathering functions to explore career and employment options and identify the relevant educational backgrounds, work experiences, and skill sets required for their target fields. The students independently drafted their English resumes and then revised them by incorporating the feedback provided by ChatGPT. Data from 49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pre- and post-English resume-writing tasks and a post-program survey were analyzed.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program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students' English resume-writing skills. In addition, the students perceived the program as highly beneficial for designing their own career and employment roadmaps.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extracurricular program can serve as an effective model for English resume instruction.

Keyword ● Resume, ChatGPT, Extracurricular Program, Global Communication Skills, Career Planning

▌논문투고일:2026.05.21. ▌심사완료일:2026.06.24. ▌게재확정일:2026.07.03. ▌

● ● ● https://doi.org/10.54698/kl.2026.21.209
지식과 교양, 제21호,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Knowledge and Liberal Arts, Vol. 21, LIC, pp.209-256.

14세기 고려의 기후변동과 민심동요 현상

이 정 호*

목 차

1. 서론
2. 기후변동의 추세
3. 복합적 위기
4. 민심동요
5. 결론

1. 서론

지난 2019년 12월부터 알려지기 시작한 이른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1]는, 인류로 하여금 큰 충격에 휩싸이게 만들였다. 인류는 과연 무한히 발전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더욱이 이러한 팬데믹이 자연환경의 변화와 함께 인류가 자초한 결과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러한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었다.

그런 가운데 역사학계 역시 환경변화와 역사·사회의 관계에 대한 관심

* 목원대학교 역사학과 부교수

1) COVID-19 팬데믹은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전 세계적 대유행(pandemic)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면서 시작되었다. 다만 실제 발병은 그보다 앞선 2019년 12월, 중국 武漢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 사례들이 보고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에 대한 한국에서의 공식 명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다(질병관리청 홈페이지[https://www.kdca.go.kr/kdca/index.do] 「감염병정보」 참조).

이 더욱 고조되면서, 환경사 혹은 생태환경사 분야의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2] 한국역사학계 또한 마찬가지여서, 최근 과거 역사 속 기후변동, 자연재해 등 환경문제를 연구할 뿐만아니라 향후 생태환경의 개선을 모색한다는 취지하에 한국생태환경사학회가 결성되기도 하였다.[3]

그러나 한편 한국환경사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규명해야 할 과제가 아직 다수 남아 있는 상황이다. 기후변화가 당시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한 고찰이 그 가운데 하나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사의 전개과정에서 그와 같은 모습을 잘 고찰할 수 있는 시기를 재검토하여 환경사의 관점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특히 이전과 비교해 큰 기후변동 현상이 나타나고 이로 말미암아 자연재해의 발생 빈도가 높았던 시기를 주목하여 연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기후변동과 자연재해의 발생은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고, 이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여, 사회변화를 야기할 가능성이 그 어떤 시기보다 높은 시기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본고에서 주목하는 시기는 14세기이다.

주지하듯이 한국사에서 14세기는 국내외적으로 정치세력의 갈등, 사회경제적인 변화, 외적의 침입과 대외관계의 변화, 왕조의 교체 등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난 시기였다. 환경사의 관점에서도 14세기 발생한 자연재해와 기후변동의 전반적인 추세,[4] 遷都論을 비롯해 女眞 이주민의 동

2) '환경사' 혹은 '생태환경사'의 개념 및 연구경향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저 참조. 김기봉, 「환경사-'성찰적 현대화'를 위한 역사」, 『역사비평』 46호, 1999 ; 「환경사란 무엇인가-환경과 인간의 상호작용의 역사」, 『서양사론』 100호, 2009 ; 홍금수, 「環境史研究序說-마쉬의 비판적 환경인식에서 성찰에 기초한 탈근대적 환경윤리의 정립까지」, 『문화역사지리』 17권 3호, 2005 ; 「環境史(Environmental History)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震檀學報』 116호, 2012 ; 도날드 휴즈 저, 최용찬 역, 『환경사란 무엇인가?』, 앨피, 2022. 한편 '환경사'와 '생태환경사'의 연구분야가 대체로 인간의 역사에서 환경 혹은 생태상황을 연관지어 고찰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다만, '생태환경사'의 경우 인류가 초래한 환경과 생태계 변화라는 문제를 극복하려는 실천적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다(고태우, 「생태환경사란 무엇인가?」, 『관악사론』 4집, 2023, 50-51쪽).

3) 「한국생태환경사학회 창립 발기문」, 『생태환경과 역사』 창간호, 2015 참조.

향과 기후변동의 연관성,[5] 祈雪祭 분석[6] 등에 대한 연구가 이뤄져, 이 시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당시의 기후변동·자연재해의 발생과 사회변화에 대해서는 그 실상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아직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14세기 기후변동이 당시 사회의 '민심동요' 현상과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고찰함으로써, '기후변동·자연재해 발생과 사회변화'의 관계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14세기 기후변동의 내용과 특징을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또한 당시 사람들의 상황이 이러한 기후변동, 자연재해 발생, 국내외적 조건 속에서 어떠했는지 고찰해 보겠다. 이를 바탕으로 14세기 발생한 '민심동요' 현상을 분석함으로써, 기후변동·자연재해 발생과의 관계를 이해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14세기 기후변동이 사회부문에 미친 영향을 이해하는 데 일조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2. 기후변동의 추세

일반적으로 세계기후의 역사에서 14세기는 이전의 이른바 '중세온난기(Medieval Warm Period)'가 끝나고, 점차 기후가 한랭화되기 시작해 '소빙기(Little Ice Age)'로 진입한 시기로 파악되고 있다.[7] 서양 역사학

4) 김연옥, 「高麗時代의 氣候環境-史料分析을 中心으로」, 『韓國文化硏究院 論叢』 44집, 1984, 129-131쪽 ; 「中世 溫暖期의 氣候史的 硏究」, 『문화역사지리』 4호, 1992, 300-301쪽 ; 須長泰一, 「高麗後期の異常氣象に關する一試考」, 『朝鮮學報』 119·120合輯, 1986 ; 이정호, 「여말선초 자연재해 발생과 고려·조선정부의 대책」, 『韓國史學報』 40호, 2010 ; 김문기, 「'중세온난기'에서 '소빙기'로-14세기 동아시아의 기후변동」, 『생태환경과 역사』 13호, 2024.

5) 한정수, 「고려 우왕대 재이·병란과 천도론의 정치적 의미」, 『서울과 역사』 106호, 2020 ; 이바른, 「14세기 고려 동북지역 인구 이동과 생태환경-女眞 이주를 중심으로」, 『생태환경과 역사』 13호, 2024.

6) 이승민, 「10~14세기 동아시아(한·중) 온난-건조 기후와 기설제(祈雪祭)의 시행」, 『한국중세사연구』 76호, 2024, 283-285쪽.

7) 중세온난기(Medieval Warm Period)는 중세 기후 최적기(Medieval Climate

계의 경우 14세기는 기후전환 뿐만아니라 흑사병, 대기근, 전쟁, 교역로의 변경, '사회-생태 시스템'의 전환 등이 나타난, '14세기 위기(The Crisis of the 14th Century)'라고 표현할 정도의 전환기로 파악하고 있다.[8)]

한편 한국의 경우, 14세기의 기후변동에 대해 역사학 분야와 아울러 최근에는 자연과학 분야에서도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9)] 우선 10~11세기 기후상황에 대해, 대체로 온난 건조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12~13세기의 경우(특히 12세기 전반기)에는 한랭시기, 온난시기, 불규칙한 이상기후(이상고온, 이상저온) 시기 등 의견 차이가 많은 편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점차 '전반적인 온난기 속 한랭기', 혹은 '온난기 속 불규칙한 이상기후

Optimum Period) 혹은 중세 기후 이상기(Medieval Climatic Anomaly Period)라고도 한다. 이 용어는 950 ~ 1250년경 유럽과 북대서양 지역에서 지속된 온난한 기후 시기를 일컫는 말이다. 중세온난기라는 용어는 처음 유럽 중세시기의 기후를 연구하는 가운데 등장하였다. 1965년 영국의 고기후학자인 휴버트 램(Hubert Lamb)은 기후변동을 추정할 수 있는 대용 자료(proxy)와 문헌 자료를 기반으로 지난 1,000여 년 동안의 추세를 고찰하였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인류는 중세온난기(Medieval Warm Period[MWP])와 뒤따른 소빙기(Little Ice Age[LIA])를 경험했다는 견해를 발표하였다.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따뜻한 기후가 1000년경부터 1300년경까지 지속되었는데, 이 시기의 온난화 정도를 1941~1960년의 평균기온보다 1~2℃ 가량 높은 수준이었던 것으로 추정했다. 그후 14세기경부터 기온이 저하되어 1500~1800년경에는 마지막 빙하기(지금으로부터 110,000~12,500년 전의 최종빙기) 이후 가장 추운 시기를 맞이하였다고 보았다(H.H.Lamb, "The early medieval warm epoch and its sequel", *Palaeogeography, Palaeoclimatology, Palaeoecology* 1, 1965 ; H.H. 램 지음/김종규 옮김, 「중세 말에 다시 악화된 기후」, 『기후와 역사』, 한울아카데미, 2004 ; 박정재, 「작은 기후 변화가 인간 사회를 뒤흔들다-중세 온난기와 소빙기-」, 『기후의 힘』, 바다출판사, 2021).

8) 박흥식, 「기후변화, 흑사병 그리고 대전환」, 『역사학보』 252집, 2021. 특히 브루스 캠벨은 '사회-생태시스템'의 관점에서 14세기를 유럽의 '대전환' 시기로 이해하였다(Bruce Campbell, *The Great Transition: Climate, Disease and Society in the Late Medieval Worl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6 : 브루스 M. S. 캠벨 저, 박흥식·노의근 옮김, 『대전환』,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4).

9) 10~14세기 고려시대의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성과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에서 정리된 바가 있어, 참고가 된다. 채웅석, 「고려시대사 연구와 재이(災異) 사료의 활용」, 『한국중세사연구』 71호, 2022, 33-38쪽 ; 이정호, 「12세기 전반기 고려(高麗)에서의 자연재해 발생과 사회변화-'기후위기론'의 검토와 새로운 연구방법의 모색-」, 『한국중세사연구』 76호, 2024, 176-179쪽,

시기'로 보는 견해가 증가하고 있다.[10]

한편 본고에서 고찰하는 14세기에 대해서는 이전의 온난한 기후가 한랭하게 바뀐 기후전환기로 파악하고 있는 점에서 학자들 사이에 공통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11] 이와 같은 견해는 14세기 동아시아 및 세계 각지역의 기후사를 과학 분석을 통해 조사한 결과와도 부합되는 것이어서,[12] 신뢰도를 높여준다.

그러면 14세기 고려시대 사람들은 기후상황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었던 것일까? 14세기 기후가 한랭해 졌다는 점은『고려사』를 비롯해 당시 사람들이 저술한 글들을 통해 여러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가-1) 충선왕 원년(1309) 6월 병인(15일)[양력 7월 22일] 찬바람이 불자, 겨울옷을 입는 사람도 있었다.(『고려사』 권53 오행지1 오행일왈수)
2) (충선왕) 2년(1310) 5월 신묘(15일)[양력 6월 12일] 찬바람이 부니, 겨울옷을 입는 사람도 있었다.(상동)

---

10) 김문기, 「중세온난기의 작은 V 계곡-12세기 동아시아의 기후변동」, 『생태환경과 역사』 9호, 2022 ; 이정호, 앞의 논문, 2024, 179-186쪽. 이와 같은 견해의 변화는, 기존의 문헌 위주로 이뤄진 연구와 달리 자연과학계의 연구가 진전되면서, 나무테·석순 등 기후변동을 추정할 수 있는 대용 자료(proxy)가 활용됨으로써, 보다 정확한 사실 규명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E. R. Cook, P. J. Krusic, K. J. Anchukaitis, B. M. Buckley, T. Nakatsuka, M. Sano, & PAGES Asia 2k Members, "Tree-ring Reconstructed Summer Temperature Anomalies for Temperate East Asia since 800 C.E.", *Climate Dynamics* 41(11-12), 2013 ; 葛全胜, 『中国历朝气候变化』, 科学出版社, 2011.

11) 14세기 기후가 한랭하였다는 점에 대부분 의견의 일치를 보이지만, 분석 지역과 방법(제주도, 화분 분석)에 따라 온난한 상황으로 파악하는 견해도 있다. 또한 14세기 습윤·건조 정도에 대해서도 대체로 습윤한 상황으로 이해하지만, 일부 의견 차이가 있다. 그 후반기는 대부분 습윤한 상황으로 이해하지만, 전반기는 연구자에 따라 건조기, 소강기 등으로 파악하는 등 의견의 차이가 있다(이정호, 앞의 논문, 2024, 177쪽의 <표 1> 참조). 연구지역과 방법에 따른 분석결과의 차이로 여겨지지만, 이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가 진척될 필요가 있다.

12) Cook et al. ibid, 2013, p.2966 ; Bruce Campbell, ibid, 2016 ; 브루스 M. S. 캠벨 저, 박흥식·노의근 역, 앞의 책, 2024, 18쪽.

3) 충숙왕 6년(1319) 8월 임자(30일)[양력 9월 14일] 날씨가 몹시 추웠다.(상동)

4) (충숙왕) 11년(1324) 4월 무진(13일)[양력 5월 6일] 비와 우박과 눈이 내려, 얼어 죽는 사람이 있었다.(상동)

위 사료들은 14세기 초기의 상황(1310년대~1320년대)을 살펴볼 수 있는 사례들인데, 일반적인 계절 날씨에 맞지 않는 갑작스런 추위 현상이 나타났음이 드러난다. 갑작스런 추위는 이전에도 살펴볼 수 있지만(1270년대 후반),[13] 14세기부터는 비교가 될 만큼 관련 기사가 증가하여 나타난다.[14] 예를 들어, 초여름 혹은 여름의 한 가운데 해당하는 5월 중순 혹은 6월 중순(양력 6월 중순 혹은 7월 하순)에 찬바람으로 겨울옷을 입는 자가 있었다(가-1), 2)).[15] 가을철에 접어드는 8월말(양력 9월 중순)에 날씨가 몹시 추웠고(가-3)), 심지어 4월 중순(양력 5월 초순)에 비·우박·눈이 내려 얼어 죽는 사람도 발생하였다(가-4)). 이와 같은 기록들은 14세기에 이르러 기후가 한랭하게 전환된 것을 반영한다. 기후 한랭화 현상은 13세기 후반기에 그 조짐이 나타나다가, 14세기에 이르러 한랭한 기후로 전환된 것으로 여겨진다.

---

13) 天寒 人或有衣裘者(『고려사』 권53 오행지1 오행일왈수 충렬왕 3년[1277] 5월 무오(30일)[양력 7월 2일] ; 大雪(충렬왕 4년[1278] 3월 임진[9일][양력 4월 2일] ; 川水皆凍(갑오[11일][양력 4월 4일])

14) 『고려사』 권53 오행지1 오행일왈수 기사들 가운데에는 갑작스런 추위로 기후가 바뀐 상황에 대한 내용이 모아져 있다. '항한(恒寒)' 항목이라 불릴 만한 기사들인데, 이 가운데 약 59.4%가 14세기에 집중되어 있다(「항한」은 때아닌 시기에 추위가 지속되는 기상이변을 일컫는다[김일권, 『『고려사』의 자연학과 오행지 역주』,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1, 195쪽]). 고려초기 기록이 거란과의 전쟁 과정에서 소실되어 소략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처럼 14세기에 '항한' 기사가 다수 기록된 것 역시 당시 기후의 한랭화 현상을 짐작하는 데 도움이 된다.

15) 『고려사』의 자연재해 및 재이 기록은 정치적 해석에 영향 받아 가감된 부분이 있다. 충선왕이 1308년 8월에 복위한 이듬해 기사여서, 혹시 실제와 다른 정치적 해석이 가미된 기록일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1)과 2)가 연속된 해의 기록인 점을 감안한다면, 실제로 한랭한 기후가 나타났던 상황을 기록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기후 한랭화 현상은 1330 ~ 1340년대 일시적인 소강상태를 보이다가[16] 14세기 중반 이후, 특히 14세기 후반기부터 다수의 관련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뿐만아니라 장기간 추위가 지속되었음이 나타난다.

나-1) 공민왕 3년(1354) 5월부터 6월까지 기후가 가을과 같았다.(『고려사』 권53 오행지1 오행일왈수)

2) (공민왕) 16년(1367) 4월 계유(28일)[양력 5월 26일] 서풍이 불었는데 매우 차가웠다.
(공민왕 16년[1367]) 6월 임신(28일)[양력 7월 25일] 북풍이 불어 매우 추웠으므로, 城 안 사람들이 모두 갖옷을 겹으로 입었다.(상동)

3) (공민왕) 17년(1368) 3월 기묘(9일)[양력 3월 27일] 바람이 불고, 매우 추웠으며, 얼음이 얼었다. 신사(11일)[양력 3월 29일] 또 바람이 심하게 불었다. 임오(12일)[양력 3월 30일] 얼음이 단단하게 얼어 물이 흐르지 못하였고, 또 큰 눈이 내렸다.
(공민왕 17년(1368) 8월 경인(22일)[양력 10월 4일] 얼음이 얼었다.(상동)

나-1) 공민왕 3년 기사에 따르면 초여름 시기인 5월 ~ 6월에 걸쳐 장기간 기후가 가을과 같았다. 또 나-2)에 따르면 공민왕 16년 한해만 해도

16) 1330~1340년대에도 기후한랭화 현상을 엿볼 수 있는 기사가 찾아진다.
雨雹 大如李梅(『고려사』 권53 오행지1 오행일왈수 충숙왕 17년[1330] 8월 병자[28일][양력 10월 10일]) ; 大雨雹 大如李梅(충혜왕 후4년[1343] 4월 병오[11일][양력 5월 5일]) ; 大寒 放囚(권37 충목왕 원년[1345] 11월 기해)
그러나 상대적으로 관련 기사가 적은 편이다. 한편 El Niño는 동아시아 지역의 몬순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만약 El Niño가 여름철에 발생하면 강수량이 증가하는 여름 몬순을 더욱 강화시키고, 겨울철에 발생하면 중국 남동부와 한국은 평년보다 따뜻하고 습윤한 특징을 보인다(임소민·현유경·강현석·예상욱, 「GloSea5의 과거기후 모의자료에서 나타난 El Niño와 관련된 동아시아 강수 및 기온 예측성능」, 『대기』 28권 1호, 한국기상학회, 2018, 38쪽). 이를 감안할 때 1330~1340년대에 한랭화 현상이 일시적인 소강상태에 접어든 것은, 이와 같은 El Niño에 따른 영향일 가능성이 있으나, 이에 대한 확실한 사정은 아직 알기 힘들다.

4월 계유와 6월 임신에 매우 춥고 심지어 갖옷을 겹으로 입었다. 이제 한랭화 현상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17] 더욱이 이듬해 공민왕 17년에도 3월과 8월에 얼음이 얼 정도로 추웠다(나-3)). 공민왕 16년(1367)과 17년(1368) 2년간 혹은 3년간 해를 이어 추위가 나타난 셈인데,[18] 이제 한랭화 현상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며, 적어도 14세기 후반기는 기후한랭화 현상의 한 가운데 있었다. 이후 1370년대 ~ 1390년대 모두 기후한랭화 현상은 동일하게 발견된다.[19]

특히 다음의 사례는 이 시기 기후한랭화 현상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준다.

> 다) (공민왕 20년[1371] 11월 을해) 中書省에 咨文을 보내 이르기를, "… 우리나라에서 京師로 갈때 바다 길은 매우 멀고, 날씨는 추워지고 물이 얼어 배를 띄우기 어려우니, 신년을 축하하는 기일을 어길까 두렵습니다. …"(『고려사』 권39 세가)

다)에 따르면 기후가 한랭해져 물이 언 까닭에 배를 띄우기 어렵다는 내용까지 살펴볼 수 있다. 공민왕 20년(1371년) 11월 고려 조정에서 명나라 중서성에 자문을 보내어, 고려에서 바다를 건너 京師(大都)로 가서 신년을 축하하기 어려우니, 바닷길 대신 육로를 이용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런

17) 한랭한 기후 상황이 여름철과 이듬해 겨울철에 연속하여 나타난 것으로 여겨지는 사례도 찾을 수 있다. 이에 앞서 공민왕 12년(1363) 6월의 경우, 3일 동안 바람과 날씨가 가을과 같았다고 하였고(『고려사』 권53 오행지1 오행일왈수 공민왕 12년 6월 정미), 이듬해인 공민왕 13년(1364) 정월의 경우, 비록 西北面이라는 북방지역의 사례이기는 하지만, 당시 군인들이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면서 심지어 사망자가 발생하였다(『고려사』 권40 공민왕 13년 정월 임오).

18) 앞선 공민왕 15년(1366)에도 8월 정묘(18일)[양력 9월 22일]에 서리가 내려 콩이 죽었다는 기사가 있다(『고려사』 권53 오행지1 오행일왈수). 이 기사를 한랭화 현상으로 간주한다면, 공민왕 15년부터 17년까지 3년 연속하여 추운 해로 볼 수 있다.

19) 대표적인 사례로, 『고려사』 권53 오행지1 오행일왈수 우왕 5년(1379) 8월 경오(7일)[양력 9월 17일] ; 우왕 10년(1384) 6월 을유[(19일)][양력 7월 7일] ; 공양왕 4년(1392) 7월 병술(7일)[양력 7월 26일] 기사 참조.

데 바닷길을 이용하기 힘든 이유 가운데 하나로, "우리나라에서 경사로 갈때 바다 길이 매우 멀고, 날씨는 추워져 물이 얼어 배를 띄우기 어렵다"라고 하였다. 겨울철임을 감안하더라도 물이 얼어 배를 띄우기 어렵다는 표현은 적어도 오늘날보다 훨씬 한랭한 상태였음이 잘 드러나는 것이다.

이외에도 계절에 맞지 않게 내리는 雨雹이나 서리 역시 기후한랭화 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고려사』에 따르면 14세기, 특히 14세기 후반기에 그러한 사례가 자주 발견된다.

라-1) (충렬왕 27년[1301] 5월 무진[30일][양력 7월 6일]) 경상도 安東 지역에 큰 우박이 내려서, 사슴과 새들이 맞아서 죽기도 하였다. 우박 한 덩이를 여러 사람이 들 수 없었다.(『고려사』 권32 세가)

2) (충숙왕 8년[1321년] 5월) 경진(7일)[양력 6월 3일]에 雨雹이 내렸는데, 크기가 오얏과 매실 같았다(『고려사』 권35 세가)

3) 우왕 6년(1380) 7월 갑인(26일)[양력 8월 26일] 서리가 내렸다. 을묘(27일)[양력 8월 27일] 또 서리가 내렸다.(『고려사』 권53 오행지1 오행일왈수)

4) 공양왕 원년(1389) 7월 병자(10일)[양력 8월 1일] 바람이 세차게 불고, 우박이 쏟아졌다.(『고려사』 권55 오행지3 오행오왈토)

5) (공양왕 4년[1392] 7월) 신묘(12일)[양력 7월 31일] 서리가 내리고, 몹시 추웠다.(『고려사』 권53 오행지1 오행일왈수)

물론 우박·서리 관련 기사가 모두 이상저온현상으로 해석될 수는 없을 것이다. 오늘날도 우박은 주로 봄 ~ 초여름(양력 4~6월) 가장 많이 내리고, 가을(양력 9월 ~ 11월)에 내리는 경우도 관측되기 때문이다. 또한 서리도 여름(양력 6 ~ 8월)을 제외한 대부분의 달에 내리는 것으로 관측된다.[20] 더욱이 우박·서리 관련 사료 가운데는 정치사건에 영향을 받거나

20)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 – 우박일수, 서리일수>, https://data.kma.go.kr/cmmn

혹은 정치적 해석에 의해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있어, 사실 여부를 판단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할 부분들도 있다.[21] 그러나 위 기사들은 여름철 우박이 내린 경우이거나, 추위를 동반하여 우박·서리가 내린 경우로서, 이 시기 기후한랭화 현상을 반영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라-1)에 따르면 충렬왕 27년 5월 30일(양력 7월 6일)에 경상도 안동에서 큰 우박이 내려 사슴, 새들이 맞아 죽었는데, 우박 한 덩이를 여러 사람이 들 수 없었다. 초여름에 거대한 우박이 내려, 동물이 피해를 입은 사례인 것이다. 여름철 서리 혹은 우박이 내린 사례로서, 라-3), 4), 5) 역시 마찬가지이다.

한편 라-2)에 따르면, 충숙왕 8년 5월초(양력 6월초)에 오얏과 매실 같은 큰 우박이 내렸다. 5월초에 일상적으로 우박이 내린 경우라 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우박의 크기가 특별히 커서 오얏, 매실 등에 비유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면, 그만큼 평소의 우박과 차이가 났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한랭한 기후와 연관된 현상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다음의 [표 1]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우박의 크기를 사물에 비유한 기록들이 나타난 시기는 대체로 14세기 한랭화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표 1] 우박의 크기를 사물에 비유한 사례(14세기의 경우)

연도	왕대 연월일	사료	전거[22]
1303	충렬왕 29년 4월 정해	雨雹 大如李梅	사32, 사53(수)
1321	충숙왕 8년 5월 경진	雨雹 大如李梅	사35

/main.do, 2026.05.04.

21) 대표적인 사례로 충숙왕 9년 8월 병술의 '우박' 기사는, 이 시기 진행된 '심왕 옹립운동'과 그에 따른 위기감 및 비판적인 정치적 해석 등이 관련되어 있다.
漢功等復會慈雲寺 署呈省書 未半 天忽大雨雹(『고려사』 권35 충숙왕 9년 8월 기축)
'심왕 옹립 운동'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 참조. 金塘澤, 「高麗 忠肅王代의 瀋王 옹립운동」, 『歷史學硏究』 12호, 1993 ; 이익주, 「14세기 전반 고려, 원관계와 정치세력 동향-충숙왕대의 심왕옹립운동을 중심으로-」, 『한국중세사연구』 9호, 2000.

1322	충숙왕 9년 9월 을미	震電以雹 大如李梅 四角如蒺藜	사53(수)
1330	충혜왕 즉위년 8월 병자	雨雹 大如李梅	사53(수)
1343	충혜왕 후4년 4월 병오	大雨雹 大如李梅	권36
1347	충목왕 3년 5월 계해	雨雹 大如梨(사37), 雨雹 大如梨 大風飛瓦 震人及木(사53수)	사37, 사53(수)
1348	충목왕 4년 4월 계미	雨雹 大如梅子	사53(수)
1350	충정왕 2년 4월 무술	雨雹 大如李梅 殺禾	사37, 사53(수)
1350	충정왕 2년 9월 병인	雨雹 如李	사53(수)
1373	공민왕 22년 5월 병인	雨冰于平州 大如升	사53(수)
1375	우왕 원년 3월 갑신	雨雹 大如彈丸	사133, 사53(수)
1385	우왕 11년 4월 임진	朔 大雨雹 大如拳 數日乃消(사135), 雨雹 暴風 草木皆摧(사53수)	사135, 사53(수)

[표 1]은 14세기 우박 기사 가운데, 그 크기가 커서 오얏, 매실, 되박[升], 탄환 등에 비유한 사례들이다. 이와 같은 기록이 14세기 초기부터 발견되고, 특히 그 중후반기에 증가하여 나타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이 시기 한랭화현상의 추세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비록 서리·우박이 내린 시기가 계절상 벗어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관련된 사료를 감안할 때 한랭화현상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경우도 있다.

라- 6) 공민왕 15년(1366) 8월 정묘(18일)[양력 9월 22일] 서리가 내려, 콩을 죽었다.

(공민왕) 15년 9월 갑오(15일)[양력 10월 19일] 큰 벼락이 떨어지고, 천둥이 쳤으며, 우박이 쏟아졌다.(『고려사』 권53 오행지1 오행일왈수)

7) (공민왕) 16년(1367) 4월 을묘(10일)[양력 5월 8일] 우박이 크

22) [표 1]의 전거를 표기함에 있어, '『고려사』 권1'과 '『고려사』 권54 오행지2 오행사왈금'은 각각 '사1'과 '사(54)금'의 형식으로 略稱하였다(이하의 [표] 역시 동일함).

> 게 떨어졌다. 임술(17일)[양력 5월 15일] 우박이 크게 떨어지고 벼락이 떨어지고 벼락이 쳤는데, 平壤이 더욱 심하여 밭머리에 둔 밥그릇이 모두 깨졌다. 당시 辛旽이 집 자리를 보려고 마침 평양에 있었다. 계해(18일)[양력 5월 16일] 우박이 떨어졌다. 갑자(19일)[양력 5월 17일] 또 우박이 떨어졌다.(상동)

먼저 라-6)에 따르면, 공민왕 15년 8월 중순(양력 9월 중순)에 서리가 내려 콩이 폐사하는 피해를 입혔다. 가을로 접어드는 시기에 이른 서리가 내린 상황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하지만 이달 9월 중순(양력 10월 중순)에도 우박이 떨어진 점이 나타나는데, 8월과 9월에 연속하여 서리와 우박이 내린 셈이다. 이를 감안한다면, 이러한 현상은 이해 가을 추워진 날씨 때문으로 간주해도 좋을 것이다.

또한 라-7)에 따르면, 공민왕 16년 4월에는 을묘(10일), 임술(17일), 계해(18일), 갑자(19일) 등 유난히 우박이 자주 내렸다. 임술일 기사에 辛旽이 평양에 집 자리를 보기 위해 머물고 있었다는 내용이 부기되어 있어, 우박과 같은 자연재해를 신돈의 행위와 연관지어 해석하고 있음도 엿보인다. 그러나 한편 이달은 우박 이외에도 계유(28일)에 "서풍이 불어 매우 차가웠다"[23]는 기사가 있어, 적어도 이때 내린 우박이 기후한랭화에 따른 현상이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하겠다.

이처럼 14세기 기후는 대체로 이전 시기에 비해 한랭화되었음이 여러 가지 면에서 확인된다. 한편 그 와중에 14세기 후반기에는 불규칙한 기후 변동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러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이상고온 현상이다.

『고려사』 기록 가운데 이상고온 현상과 관련된 기록은 고려시대 전체 가운데 대부분 14세기에 찾아볼 수 있다. 특히 그 후반기가 그러하다.[24]

23) 西風甚寒(『고려사』 권53 오행지1 오행일왈수 공민왕 16년 4월 계유)
24) 이정호, 『고려시대의 농업생산과 권농정책』, 경인문화사, 2009, 11쪽.

예를 들어 "공민왕 6년(1357) 11월 병진(16일)[양력 12월 27일]에 따뜻하기가 마치 3월과 같았다"[25]라고 하거나, "우왕 4년(1378) 12월에 얼음이 얼지 않았다"[26]라고 하였다. 이러한 기록들이 음력 11월~12월(양력으로는 대체로 12월 혹은 1월) 겨울철의 것임을 감안하면, 14세기 후반기에 이상고온 현상이 자주 나타났던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14세기의 경우 전반적으로 한랭화된 상태에서 그 후반기에는 자주 이상고온 현상이 나타나는 등 기후가 불규칙하게 변화하는 모습 또한 나타나고 있었다. 한편 이러한 기후변화는 그 자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연재해의 발생과 연관되어 당시 사회에 큰 피해를 야기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장을 달리하여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3. 복합적 위기

14세기 기후변동은 당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던 것일까? 먼저 그러한 기후변동으로 말미암아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가 발견된다. 대표적인 경우가 혹한으로 인한 凍死者의 발생이다.

마-1) (충숙왕 11년[1324]) 여름 4월 무진(13일)[양력 5월 6일] 우박과 눈이 내려서, 얼어 죽는 사람도 있었다.(『고려사』 권35 세가)
2) (우왕 10년[1384]) 11월 갑자(1일)[양력 12월 13일] 날씨가 추워, 길에서 죽는 사람도 있었다.(『고려사』 권53 오행지1 오행일왈수)
3) (공양왕 2년[1390] 9월) 병오(17일)[양력 10월 25일] 큰 비가 내리고 천둥과 번개가 쳤으며, 사람과 가축이 얼어 죽었다.(『고려사』 권54 오행지2 오행삼왈목)

위 사례는 14세기 기후한랭화 및 불규칙한 변동으로 사람들이 동사하

25) 『고려사』 권53 오행지1 오행이왈화 공민왕 6년 11월 병진
26) 『고려사』 권53 오행지1 오행이왈화 우왕 4년 12월

는 등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이다. 여름철에 이상저온 현상으로 동사자가 발생하였고(마-1)), 겨울철 혹한으로 길에서 죽은 사람이 있었으며(마-2)), 때이른 추위로 인해 사람과 가축이 얼어 죽었다(마-3)).

이와 같은 14세기 한랭한 기후와 불규칙한 변동은 농산물에도 직접 피해를 미치고, 물가가 급등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

바-1) (충정왕) 2년(1350) 4월 무술(14일)[양력 5월 20일] 우박이 떨어졌다. 그 크기가 오얏이나 매실과 같았는데, 벼를 죽였다.(『고려사』 권53 오행지1 오행일왈수)

2) (공민왕) 17년[1368]) 윤7월 임술(24일)[양력 9월 6일] 서리가 내려, 콩을 죽었다.(상동)

3) (공민왕) 11년(1362) 11월 얼음이 얼지 않고, 날씨가 봄처럼 따뜻하여, 밭에 떨어져 있던 콩에서 싹이 나기까지 하였다.(『고려사』 권53 오행지1 오행이왈화)

4) 공민왕 21년(1372) 겨울인데도 눈이 오지 않아, 산이 무너지고 우물과 샘물이 모두 말라버려서, 베 1필의 값이 쌀 1두 5승과 같았다.(상동)

바-1), 2)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이상기후 현상은 벼, 콩과 같은 농산물에도 직접 피해를 주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이상기후는 수확물 감소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는 바-3)과 4)를 통해 추정해 볼 수 있다. 바-3)에 따르면 공민왕 11년 겨울에 이상고온 현상으로 밭에 떨어져 있던 콩에서 싹이 났다. 이후 겨울철 내내 고온 상태였다면 모르지만, 이내 겨울의 추위가 나타나 이처럼 때이르게 싹튼 콩이 성장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와 같은 사례는 바-4)에서도 엿보인다. 공민왕 21년 겨울의 경우 눈이 오지 않을 정도로 이상고온 현상이 나타나, 물가가 급등하였다. 겨울철 이상고온 현상은 농산물 수확에 지장을 초래했기에 물가가 급등하는 원인으로 작용

했던 것이다.

아울러 생태계의 변화를 초래하였을 가능성도 엿보인다.

사-1) 내가 전에 배를 타고 驪江에서 돌아올 때(我初舟泛驪江回)
竹嶺에서 내려온 물이 나를 따라 왔었는데(竹嶺之水隨我來)
당시에 가뭄 끝에 비가 너무도 안 내려서(是時旱餘雨甚少)
漢江은 이제 막 발효하는 포도주 빛이었지(漢江葡萄初發醅)
(『목은시고』 권32 大雨行)

2) (우왕) 8년(1382년) 7월에 宮中에 배꽃이 피었다.(『고려사』 권53 오행지1 오행이왈화 「草妖」)

사-1) 시는 李穡(생몰년 : 1328년 ~ 1396년)의 문집인 『牧隱詩藁』에 수록된 것인데, 제작시기는 1382년 7월 7일 ~ 31일 사이인 것으로 추정된다.[27] 이에 따르면 이색은 전에 배를 타고 여강에서 돌아왔는데, 그때 보았던 강물을 "막 발효하는 포도주 빛"과 같았다고 표현하였다. 그러면서 그 이유로 당시에 가뭄 때문에 비가 너무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고려사』 오행지2 오행이왈화 「草妖」 항목에 따르면 이해 7월에 궁중에서 배꽃이 피었다는 기사(사-2))를 수록하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체로 오행지 「초요」 항목의 기사는 이상고온 현상에 따른 開花의 사례인 것을 감안한다면,[28] 7월의 배꽃 개화는 이 시기 이상고온 현상이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색의 시에 표현된 강물의 녹조 혹은 적조 현상은 가뭄 뿐만아니라 이때 발생한 이상고온 현상에 기인한 자연생태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이처럼 기후변동이 직접 피해를 준 경우를 찾아볼 수 있지만, 기록

27) 이익주, 「[부록] 『목은시고』 작품연보」, 『이색의 삶과 생각』, 일조각, 2013, 446쪽.

28) 예를 들어 『고려사』 권53 오행지1 오행이왈화 「草妖」 항목에는 "경종 5년 12월에 진달래꽃이 피었다", "충정왕 3년 10월에 해바라기와 장미꽃이 피었다" 등 대부분 이상고온 현상에 따른 開花 사례가 수록되어 있다.

상 그와 같은 사례는 그다지 많지 않다. 그렇다 하여 기후변동이 당시 사회에 큰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보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14세기 기후변동은 그 자체로서 직접 피해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는 그러한 기후변동이 자연재해를 자주 발생시킴으로써 큰 피해를 주었기 때문이다.

기후변동은 旱災·水災·雨雹·서리·風災 등 각종 자연재해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고려시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기존에도 양자의 관계 및 이에 따른 피해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어 있다.[29] 고려시대 전체 기간 가운데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높은 시기와 기후변동 시기가 대체로 일치한다는 점은 이를 잘 증명해 준다. 14세기 역시 그 대표적인 시기로서, 고려시대 가운데 자연재해의 발생과 피해가 가장 빈번히 발생한 때였다. 특히 불규칙한 기후변동 현상이 발생한 14세기 후반기의 경우 고려시대 전체 자연재해 발생 기록 가운데 약 22%가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30]

본고에서는 그러한 실상을 잘 살펴볼 수 있는 사례를 추가로 제시하면서, 기존 견해를 보완하도록 하겠다. 또한 그러한 상황이 '복합적 위기'라고 불릴 만한 것이었음도 지적하고자 한다.

아) 가뭄이 지금 바야흐로 극심해서(旱暵今方甚)
櫻桃도 살지지 못했구나(櫻桃亦不肥)
(『목은시고』 권29 「嘗園中櫻桃」)

아) 시는 이색이 우왕 7년(1381) 5월 ~ 7월 7일 사이에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31] 이색이 園에서 자라고 있는 櫻桃를 맛보며 지은 것인데, 평소

29) 이정호, 앞의 책, 47-55쪽 ; 앞의 논문, 2010, 358-364쪽 ; 한정수, 앞의 논문, 268-279쪽.

30) 『고려사』 등 기록에 나타나는 고려시대 자연재해 가운데 약 33%가 14세기에 집중되어 있다. 그 가운데 불규칙한 기후변동 현상이 발생한 14세기 후반기는 전체의 약 22%에 해당할 정도이다(이정호, 앞의 책, 6-7쪽의 '<표A-1> 고려시대 自然災害 발생 기록수' 참조).

같았으면 잘 익었을 테지만 가뭄이 극심해 살지지 못했다고 표현했다. 이 해는 大雪, 가뭄, 水災, 風災 등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32] 기근을 구휼하는 조처를 여러번 내릴 정도[33]로 피해가 심했다. 이러한 상황이 앵도의 결실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더욱이 해를 거듭한 자연재해는 피해를 가중시켰다. 이는 李穀(생몰년 : 1298년 ~ 1351년)이 쓴『稼亭集』의「小圃記」를 통해 잘 살펴볼 수 있다. 이곡은 元나라에서 관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원의 수도인 京師(大都)에 집을 얻어 거주하였는데, 마침 주변에 땅이 있어 채소를 재배한 적이 있었다. 첫째해는 기후조건이 좋은 탓에 자신이 먹을 양보다 많이 생산되어, 이웃에게 나눠주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둘째해의 경우 자연재해(여름 가뭄, 충재, 장마)로 첫째해의 1/2의 수확에 그쳤고, 셋째해는 또다시 자연재해(이른 가뭄, 늦은 장마)로 심지어 둘째해의 1/4밖에 수확하지 못했다.[34] 비록 원나라 경사에서의 경험이지만, 거듭된 자연재해가 농산물 수확에 큰 피해를 초래한 실상을 잘 드러내 주고 있다.

한편 주지하듯이 14세기는 12세기 전반 이래 권세가에 의해 대토지겸병 현상, 이른바 '農莊'이 확대되어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한 시기였다.[35] 또한 국외적으로도 紅巾賊의 침입, 倭寇의 빈번한 출몰과 약탈 등으로 거의 전국이 피폐할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36] 특히 이 시기 왜구로 인한 피해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당시 왜구의 침입에 따른 피해의 실

31) 이익주, 앞의 책, 2013, 433쪽 참조.

32) 우왕 7년(1381)의 자연재해 발생에 대해서는, 뒤의 [표 4] 참조.

33)『고려사』권80 식화지3 賑恤 水旱疫癘賑貸之制 우왕 7년 2월 ; 권134 우왕 7년 3월 ; 5월. 또한 우왕 7년의 기근은 자연재해와 함께 잦은 왜구의 침입이 겹쳐 발생한 것으로 이해된다.

34)『가정집』권4「小圃記」

35) 姜晋哲,「田柴科體制의 崩壞」,『高麗土地制度史硏究』, 高麗大出版部, 1980 ;「高麗의 農莊에 대한 一硏究-民田의 奪占에 의하여 형성된 權力型 農莊의 實體追求-」,『史叢』24집, 1980.

36) 신석호,「여말 선초의 왜구와 그 대책」,『국사상의 제문제』3집, 1959 ; 羅鍾宇,「高麗 末期의 麗·日關係-倭寇를 中心으로-」,『全北史學』4호, 1980 ;「대외관계의 전개」,『신편한국사-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20권, 국사편찬위원회, 2002.

상은 이색의 시에도 잘 드러난다.

자) 沔州의 해안가는 왜구들의 마당이라(沔州近海是倭場)
田野는 年來에 또 모두 황폐해졌기에(田野年來又盡荒)
우리 하인이 오랫동안 그곳에서 살다가(我有蒼頭久棲息)
지금 백발 나이에 (타지로) 流亡하려 하네(今垂白髮欲流亡)
(『목은시고』 권20 「紀事」)

1379년 10월 1일 ~ 6일 사이에 지은 시인데,[37] 沔州과 같은 해안가 지역에 왜구의 침입으로 농촌이 황폐해 지고 고을 사람들이 유망을 떠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시기에 기후조건마저 악화되고 자연재해가 발생하였던 것이다. 14세기는 이른바 '복합적 위기' 상황이라 불릴만한 시기였던 것이다.

당시 관료였던 尹紹宗이 올린 다음의 글은 이와 같은 '복합적 위기' 상황을 잘 보여준다.

차) 국가가 경인년(충정왕 2년, 1350) 이래 동쪽의 왜구를 막고 병신년(공민왕 5년, 1356) 이후에는 북쪽의 韃靼을 막았습니다. 기해년(공민왕 8년, 1359)·신축년(공민왕 10년, 1361)의 전쟁으로 우리 民으로 사망한 사람이 절반이나 되며, 3년이 못되어 다시 계묘년(공민왕 12년, 1363)의 난리에는 죽은 사람이 신축년의 배나 되었습니다. 기해년(공민왕 8년, 1359)부터 지금까지 15년 사이에 水災와 가뭄이 계속 이어져 餓死者들이 계속되어, 民 가운데 남은 사람들은 겨우 열에 하나였습니다. 전라·경상도의 두 도에서는 해마다 큰 기근이 이어졌고, 금년에는 더욱 심하였습니다. 3월도 큰 추위가 계속되고 4월에는 비가 오지 않아 보리가 영글지 않았고

37) 이익주, 앞의 책, 2013, 389쪽.

> 볍씨를 심지도 못했으니, 우리 民이 장차 무엇으로 살아가겠습니까?(『고려사』 권120 열전 尹紹宗傳)

윤소종은 공민왕대 장원급제하여[38] 史官으로 선발되고 正言이 되었는데, 우왕 9년(1383)[39]에 時事를 아뢰는 상소를 올리는 가운데 충정왕 이후 그동안 고려가 처한 상황을 언급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외적으로 경인년(1350) 이래의 왜구, 병신년(1356) 달단, 기해년(1359)·신축년(1361)의 홍건적 등 외적의 침입으로 받았고, 국내적으로도 계묘년(1363) '興王寺의 난'과 같은 정치사건이 발생하여,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국내외적 혼란 뿐만 아니라 특히 기해년(1359) 이래 15년 동안 장기간 수재와 가뭄 등 자연재해가 계속되어 아사자와 유망민, 기근 등이 발생하였음을 지적하고 있어 주목된다. 그런데다 금년마저 3월까지 큰 추위가 계속되고, 4월에 비가 오지 않아 보리가 영글지 못하고 볍씨마저 심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였다. 이른바 '외우내환'의 시기에 '기후한랭화'와 '자연재해'가 겹쳐 발생한 '복합적 위기' 상황이었던 것이다.

14세기의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다음 장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민심동요 현상이 나타났다. 그런 점에서 14세기 기후변동은 이 시기 '복합적 위기'를 가져온 한 요인이자, 민심동요의 배경 가운데 하나였던 것이다.

4. 민심동요

『고려사』 권54 오행지2 오행사왈금 「訛言」 항목에는 민심동요를 반영하는 유언비어 등이 기록되어 있다.[40] 이외에도 『고려사』 세가 등에 관련

38) 『고려사』 권41 세가 공민왕 14년 윤10월 갑자 ; 권73 선거지1 科目1 凡選場 공민왕 14년 윤10월

39) 윤소종이 차)의 상소문을 올린 시기는 우왕 9년으로 추정된다. 상소문의 내용 중에 기해년(1359) 이래 지금까지 15년이라 하였고, 상소문을 올리는 해에 3월 大寒과 4월 가뭄이 있었던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고려사』에서 우왕 9년 3 ~ 4월에 가뭄 관련 기사(『고려사』 권54 오행지2 오행사왈금 우왕 9년 3월 임자 ; 4월 경인 ; 권135 우왕 9년 4월)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사를 찾아볼 수 있다. 14세기의 경우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14세기 민심동요 사례

연도	왕대 연월일	내용	전거
1300	충렬왕 26년 5월 신축	승려 天固가 거북 등에 붉은 글씨를 쓴 후, 미리 석탑 아래 묻었다가 파내면서 사람들을 현혹	사31
1313	충선왕 후5년 2월 갑술	승려 曉可가 꿀물과 쌀가루로 사람들을 현혹	사34
1328	충숙왕 15년 7월 경인	胡僧 指空의 계율과 관련하여, 鷄林府 사람들이 돼지를 모두 살해하는 소동	사35
1329	충숙왕 16년 정월	訥倫公主의 무덤 도굴	사35
1343	충혜왕 후4년 4월	개경에서 왕이 민가의 어린 아이를 잡아 새로 짓는 궁궐 주춧돌 아래에 묻는다는 와언	사35
1343	충혜왕 후4년 10월 갑인	외부인이 內廚에 침입하여 만두를 절취하였다가 처벌	사36
1356	공민왕 5년 7월 임오	南京으로 수도를 옮긴다는 소문	사39
1361	공민왕 10년 11월	홍건적 침입으로 공민왕이 福州에 갔을 때, 暎湖樓에 행차하여 경치를 감상하자, 어떤 자가 讖言을 읊으며 탄식	사54 (금, 와언)
1363	공민왕 12년 6월 갑자	(외적 침입 소문으로) 闕內 사람들이 놀람	사54 (금, 와언)
1366	공민왕 15년 12월 기미	郭永錫이 箕子廟를 방문한 후 지은 詩에 麥秀歌가 언급됨	사41
1367	공민왕 16년	5~6월에 사람들이 모두 죽을 것이라는 소문	사54 (금, 와언)

40) 『고려사』 오행지 「와언」 항목 이외에도 세가 등에서 다수의 민심동요 관련 기사들을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와언」 항목만을 대상으로 전체 민심동요 현상을 분석하기는 힘들다. 다만 「와언」 항목 가운데 14세기에 해당하는 기사들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둔다.

1368	공민왕 17년 윤7월	影殿 건축을 멈추면 비가 올 것이라는 탄식	사41
1369	공민왕 18년 2월 병진	唐船이 이미 西江에 들어왔다는 소문	사54 (금, 와언)
1369	공민왕 18년 9월	건축 자재를 馬岩으로 옮길 때, 사람들의 소리가 소 우는 것 같음	사41
1372	공민왕 21년 6월 경진	唐人들이 도성 안팎에서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소문	사54 (금, 와언)
1373	공민왕 22년 4월	義成 庫洞에 巫女가 꿈 속에서 두꺼비, 靑衣女, 黃衣女를 보았는데, 黃衣女가 影殿 공사를 중지하라고 언급	사54 (금, 와언)
1380	우왕 6년 5월	요사스런 무당 6명 처벌	사134
1381	우왕 7년 5월	개경의 비구니가 彌勒을 사칭	사134
1382	우왕 8년 2월	私奴 無敵이 彌勒의 化神을 사칭	사134
1382	우왕 8년 5월	경상도 陜州의 私奴가 劒大將軍을 사칭	사134
1388	우왕 14년	“木子得國”이라는 童謠	사54 (금, 와언)
1391	공양왕 3년 11월	帝使가 童女를 구하러 온다는 소문	사54 (금, 와언)

14세기 민심동요를 반영하는 와언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나타났다. 우선 정치운영 및 정책, 사건 등 정치적 변동이 심할 때 와언이 발생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런 遷都 소식에 따라 관련 지역민이 동요하거나[41] 외적의 침입 등 대외관계에 따른 불안감에 동요 현상이 나타났다.[42] 경우에 따라 백성들의 국왕에 대한 원망이나 불만을 讖言이나 와언을 통해 표출하기도 하였다.[43]

41) 禁人挈家出城 自相地南京 人心動搖 負戴南行者 如歸市 故禁之(『고려사』 권39 공민왕 5년 7월 임오)

42) 闕內 驚(『고려사』 권54 오행지2 오행사왈금 와언 공민왕 12년 6월 갑자)

43) 공민왕이 홍건적의 침입을 피해 복주에 왔을 때 영호루에 행차하여 경치를 감상하자, 참언을 통해 그 행위를 비난한 사례를 들 수 있다(『고려사』 권54 오행지2 오행사왈금 와언 공민왕 10년 11월)

또한 기후변동이나 자연재해와 무관한 민심동요 현상도 발견된다. 예를 들어 충렬왕 26년(1300) 5월에 승려 天固가 거북 등에 붉은 글씨를 쓴 후 미리 석탑 아래 묻었다가 파내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킨 사례,[44] 충선왕 후5년(1313)에 승려 曉可가 꿀물과 쌀가루를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술수를 벌인 사례[45] 등이 있었다. 충숙왕 15년(1328)에는 胡僧 指空의 無生戒(살생하지 말라는 계율)에 따라 鷄林府에서 城隍에 제사지낼 때 고기를 쓰지 못하게 하자, 주민들이 하루 만에 돼지들을 모두 죽이는 소동이 발생하기도 하였다.[46]

한편 본고에서 주목하는 것은 14세기처럼 기후변동과 자연재해 발생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그 속에서 민심동요 현상이 나타나는 사례들이다. 14세기 들어 기후변동·자연재해와 관련된 혹은 이를 배경으로 한 민심동요 현상이 증가하여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A) 충숙왕 16년(1329) 4월 경인 訥倫公主를 장사지냈는데, 이튿날 도둑이 그 무덤을 도굴하였다.(『고려사』 권35 세가)

눌륜공주는 瀋王(王暠)의 공주로서 원나라에서 사망후 충숙왕 16년 정월에 고려에 상여가 도착했다.[47] 그후 4월에 장사를 지냈는데, 이튿날 도둑이 그 모덤을 도굴하였다. 단순한 도굴 사건, 혹은 정치세력 간의 갈등 속에 나타난 사건으로 볼 수도 있다.[48] 그러나 주목되는 것은 이 사건을 전후한 시기에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고, 국왕의 조처와 행동 때

44) 『고려사』 권31 충렬왕 26년 5월 신축
45) 『고려사』 권34 충선왕 후5년 2월 갑술
46) 『고려사』 권35 충숙왕 15년 7월 경인
47) 『고려사절요』 권24 충숙왕 16년 정월
48) 瀋王(王暠)과 충숙왕은 이른바 '심왕 옹립 사건'이 발생할 정도로 대립 관계에 있었고(金塘澤, 앞의 논문 ; 이익주, 앞의 논문, 2000), 심지어 1321년에 충숙왕은 심왕의 참소를 받아 國王印을 빼앗기고 원에 억류당한 적이 있었다(『고려사』 권35 충숙왕 8년 4월 정묘). 이러한 대립·갈등 속에 나타난 도굴 사건일 가능성도 있다.

문에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었다는 점이다.

즉 충숙왕 16년 3월에는 비바람, 우박, 화재의 피해가 있었고,[49] 4월부터 5월까지 장기간 가뭄이 들어, 비가 내리길 기원하며 禁酒, 聚巫, 禱雨 등 각종 조처를 취하였다.[50] 한편 전해인 충숙왕 15년 8월부터 충숙왕이 天神山 아래 假屋을 짓고 지내는 과정에서 건설에 필요한 재료를 채취하느라 백성들이 매우 괴로워했다.[51] 12월에도 국왕의 입조 비용을 마련하는 일이 백성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던 것이 나타난다.[52] 그런 경험이 있은 후인 이듬해 충숙왕 16년 가뭄이 들었을 때 공주의 장례 다음날 묘를 도굴하는 사건이 발생했던 것이다.[53] 이 사건을 전후한 시기에 국왕의 조처로 인한 고통이 재해와 겹치면서 백성의 반감으로 표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1329년 ~ 1342년까지는 다른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심동요 현상을 찾아보기 힘든 특이한 시기이다. 또한 이 시기는 큰 재해 기록이 나타나지 않는 반면, 지진, 이상기후 현상 등과 천문현상 기록이 다수를 차지한다.[54] 앞서 본고에서 고찰했듯이 14세기 가운데 1330 ~ 1340년대 기후한랭화 현상과 자연재해 발생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었다는 점과도 연관하여 생각해 볼 문제라고 여겨진다. 민심동요 현상은 한동안 드물다가 1343년부터 재해 발생과 이에 따른 피해가 증가하면서, 다시 나타나기 시작한다.

---

49) 雨大風(『고려사』 권54 오행지2 오행삼왈목 충숙왕 16년 3월 기묘) ; 大雨雹 震樹木(권53 오행지1 오행일왈수 충숙왕 16년 3월 병술) ; 奉先庫失火 延燒民家三十六戶 老小多焚死.(권53 오행지1 오행이왈화 충숙왕 16년 3월 병자)

50) 『고려사』 권35 충숙왕 16년 4월 ; 5월 경신·정묘

51) 『고려사』 권35 충숙왕 15년 정월

52) 『고려사』 권79 식화지2 科斂 충숙왕 15년 12월

53) 충숙왕 15년 8월에 도둑이 寢園의 祭器를 훔쳐간 일이 발생했는데(『고려사』 권35 충숙왕 15년 8월 계축), 이 사건도 당시의 민심동요 현상과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54) 다만 1329년 ~ 1342년의 시기에 '禱雨'·'徙市'·'禁酒' 등의 조처가 내려진 기사가 있어(대표적으로 『고려사』 권35 충숙왕 후즉위년 5월), 가뭄이 들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른 큰 피해를 기록한 부분은 찾기 어렵다.

B-1) (충혜왕 후4년[1343] 4월) 경자 왕이 승려 鬻仙을 옥에 가두었다. 학선은 거문고와 그림과 의술에 능했고, 또한 漢語와 몽골어[蒙語]도 이해하였으므로 왕이 공경히 여겨 師傅라 불렀는데, 궁궐 전각에 올라와서도 왕에게 절하지 않아 당시 사람들은 그를 미워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학선이 왕의 敎旨를 위조하여 죄수를 석방시키자 왕이 노하여 監察司에 명하여 국문하고 濟州로 유배 보냈다.(『고려사』 권36 세가)

2) (충혜왕 후4년 4월) 경술 개경의 도성 사람들 사이에 유언비어가 돌았는데, 왕이 민가의 어린 아이 수십 명을 잡아다가 새로 짓는 궁궐의 주춧돌 아래에 묻는다는 것이었다. 집집마다 경악하여 아이를 안고 도망쳐 숨는 자들도 있었다. 惡小輩들은 그 틈을 타서 재빠르게 도둑질을 자행하였다.(상동)

B-1), 2) 사료는 충혜왕 후4년(1343년) 4월의 기사이다. 이해에는 봄부터 여름 4월까지 비가 오지 않았다.[55] 3월에는 치료기관인 東西大悲院을 확충하고 都城 안 病者들을 모아 치료하고 옷과 음식을 주었다.[56] 그만큼 그 사이에 질병 등으로 피해를 입은 백성들이 증가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피해가 발생한 시기에 승려 학선이 무례함과 교지를 위조한 죄로 유배보내는 처벌을 받았다(B-1)). 당시에 승려 가운데는 의술에 능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57] 무리한 추정일지 모르나,

55) 自春徂夏不雨 至是雷雨大至(『고려사』 권54 오행지2 오행사왈금 충혜왕 후4년 4월)

56) 罷習射場 屬東西大悲院 聚城中病人 救藥 贍衣食(『고려사』 권36 충혜왕 후4년 3월 병자)

57) 夜黃氏邀王 宴其家 王命醫僧福山 治黃氏淋疾(『고려사』 권36 충숙왕 후즉위년 5월 계미) 불교에서는 보살이 반드시 지녀야 하는 다섯 가지 지혜[五明] 가운데 醫方明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불교 고승은 의학 지식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김성순, 「한국 불교의학의 전래와 醫僧들의 활동에 관한 일고찰」, 『불교학연구』 39호, 2014, 348쪽). 고려시대에는 승려가 呪力으로 전염병을 치료하거나, 埋骨僧(죽은 자의 뼈를 수습하여 매장해 주는 승려)으로 활동한 기록들이 있다(김수연, 「고려~조선 전기 불교계의 전염병 대응과 대민 구료」, 『불교학연구』 71호, 2022, 108-112쪽).

학선의 경우 의술에 능했다는 점도 이와 관련해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재해로 인해 발생한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해 의술이 필요할 때, 그 능력을 가진 자의 위상은 높아지기 마련이다. 그러한 학선이 왕에게 절을 하지 않으며 왕의 교지를 위조할 정도의 행동을 했다는 것이다.

또한 B-2)에서 보듯이 개경 도성에 유언비어가 돌아 민가의 어린 아이를 궁궐 주춧돌에 묻는다고 하여 도주하는 등 소요현상이 나타났고, 이를 틈타 도둑질이 자행되었다. 이러한 유언비어의 유포와 소요현상이 한참 가뭄이 심할 때 나타난 점을 우연이라고만 보기 힘들 것이다. 이해에 新宮 건설과정에서 비용이 과도하게 들어 부담으로 고통받는 일이 있었다.[58] 또 아마도 이러한 신궁 건설 비용을 조달하기 위함으로 여겨지는데, 7월에는 사원으로 하여금 銅甁을 高價에 구입하여 바치도록 하여, 그 가격이 오르는 현상도 나타났다.[59] 이로 인한 백성의 부담과 어려움, 그리고 궁핍함은 가중되었을 것이다. 10월에는 內廚에 침입하여 饅頭를 절취하였다가 처벌받는 일도 있었던 점[60]은 이러한 상황을 짐작케 한다.

자연재해·기후변동과 민심동요 현상의 발생은 일정 정도 상관성을 지닌다고 여겨진다. 아울러 14세기 기후변동의 특징과 관련하여 그러한 현상이 살펴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러한 모습을 잘 살펴볼 수 있는 사례 가운데 하나가 공민왕 15년 ~ 16년의 경우이다.

C-1) (공민왕 15년[1366] 12월) 기미 郭永錫이 (元나라로) 돌아가다가 平壤府에 이르러 箕子廟를 보고 시를 지어 이르기를, "어찌하여 머리를 풀어헤치고 거짓으로 미친 척 하였는가, 殷나라의 왕업을 홀로 지탱하고자 한 것인지. 떠나간 것은 다만 몸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였음이라, 諫言하다 죽으면 누가 나라의 위기를 근심

58) 『고려사』 권36 충혜왕 후4년 5월 을유 ; 권83 병지3 工役軍 충혜왕 후4년 5월

59) 令各寺院 買古銅甁 隨等差以進 少不下三十口 甁價更高(『고려사』 권79 식화지2 화폐 충혜왕 후4년 7월)

60) 有人 入內廚 取饅頭 王怒以爲盜 卽命殺之(『고려사』 권36 충혜왕 후4년 10월 갑인)

할 것인가. 魯나라 땅 한 언덕에 소나무와 측백나무 남아 있으니, 만고의 忠魂은 귀신도 알아주리. 해질 무렵에 朝鮮의 길에 말을 세우니, 麥秀의 詩가 들리는 것만 같구나."라고 하였다.(『고려사』 권41 세가)

2) (공민왕) 16년(1367) 민간에 訛言이 돌기를, 5 ~ 6월에 사람들이 모두 죽을 것이라고 하였다. 사람들이 각자 아름다운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죽을 날을) 기다리므로, 憲司가 금지하였으나 더욱 떠들썩하여 졌다.(『고려사』 권54 오행지2 오행사왈금 와언)

위 기사는 공민왕 15년 ~ 16년 당시의 '복합적 위기' 상황 속에서 나타난 민심동요 현상을 살펴볼 수 있는 사례라고 여겨진다. C-1)에 따르면 郭永錫은 河南王이 고려에 파견한 사신이었는데,[61] 돌아갈 때 平壤府의 箕子廟를 방문한 후 시를 지었다. 내용 중에 왕조의 멸망을 암시하는 '麥秀歌'[62]를 언급하고 있다. 대상 왕조가 기자가 왔던 朝鮮을 의미하는지 혹은 高麗를 의미하는지 명확하지는 않다. 그러나 곽영석이 고려에 체류하는 동안 겪었던 경험과 행적을 감안한다면,[63] 조선에 빗대어 당시 고려의 사정을 가리키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61) 『고려사』 권41 공민왕 15년 11월 신축. 郭永錫은 고려사신 金齊顔이 고려에 귀국할 때 함께 왔다.

62)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국역 고려사』 10권, 경인문화사, 2006, 233쪽.

63) 『고려사』 열전 林樸傳에 따르면, 사신 곽영석을 맞이하여 館伴使 林樸이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곽영석은 고려에 아직 箕子의 풍속이 남아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면서, 고려의 地圖, 禮樂, 官制를 보길 희망했다(『고려사』 권111 열전 林樸傳). 그러나 곽영석은 체류중 연회에서 詩를 돌아가면서 짓자고 제안했으나 그 자리에 참석한 고려의 관료가 모두 武人이어서 응하지 못한 경험을 하였다. 그래서인지 고려측에서 선물을 주어도 받지 않았다(『고려사』 권111 공민왕 15년 12월 신해, 계축). 또한 자신과 함께 고려에 온 金齊顔의 경우 辛旽에 의해 좌천되고 결국 죽임을 당하였다(『고려사』 권104 열전 金齊顔傳). 이러한 곽영석의 행적과 경험을 미루어 볼 때, 그는 고려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이해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C-2)에 따르면 공민왕 16년에는 이해 5월 ~ 6월 사이에 사람들이 모두 죽을 것이라는 와언이 퍼졌다. 사람들이 이를 믿고 죽을 날만 기다리자 憲司에서 단속하였음에도 그치지 않았다. 민심동요가 극에 달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었던 셈인데, 이 시기가 자연재해, 기후변동 뿐만아니라 국내외적으로도 큰 피해와 혼란을 맞이한 때라는 점을 연관지어 생각해야 할 부분이다.

[표 3] 공민왕 15년 ~ 16년의 자연재해

연도	왕대	성격	사료	전거
1366	공민왕 15년	이상고온 현상	冬無冰	사53(화)
1366	공민왕 15년 4월 임술	雨雹	大雨雹	사41, 사53(수)
1366	공민왕 15년 5월 갑오, 을사	地震	甲午 百官會于辛旽家 地大震(사41), 甲午 地大震(사55토), 乙巳 京城地大震(사55토)	사41, 사55(토)
1366	공민왕 15년 5월 신묘	안개	大霧	사55(토)
1366	공민왕 15년 8월 정묘	서리	隕霜殺菽	사53(수)
1366	공민왕 15년 9월 갑오	震電, 雨雹	大震電雨雹	사53(수)
1366	공민왕 15년 9월 경인	풍재	夜大風雨	사55(토)
1366	공민왕 15년 10월 갑자	黃霧	夜黃霧	사55(토)
1366	공민왕 15년 10월 계축, 병진	地震, 震電	癸丑 地震, 丙辰 又震(사41), 癸丑 大震雷地震(사53수)	사41, 사53(수)
1366	공민왕 15년 11월 갑진, 을사	木稼	甲辰 木稼 乙巳 亦如之	사54(목)
1366	공민왕 15년 11월 기해, 계묘, 12월 을축	안개	十一月 己亥 大霧, 癸卯大霧三日, 十二月 乙丑黃霧四塞	사55(토)
1366	공민왕 15년 12월 계유	이상고온 현상	無冰	사41

1367	공민왕 16년 2월 임술, 계해, 3월 신묘	풍재	十六年 二月 壬戌 大風終夜 癸亥 亦如之, 三月 辛卯 王幸演福寺 大設文殊會 辛旽從焉 暴風終日 黃塵漲天 人不能開目 會凡七日而暴風三日大霜三日	사55(토)
1367	공민왕 16년 2월 정사	붕괴	松岳祠南虎岩頹	사55(토)
1367	공민왕 16년 4월 을묘, 임술, 계해, 갑자	雨雹	乙卯 大雨雹, 壬戌 大雨雹(사41), 壬戌 大雨雹 震電 平壤尤甚 田頭饁器 皆碎 時辛旽以相宅方在平壤(사53수), 癸亥 雨雹 甲子亦如之(사53수)	사41, 사53(수)
1367	공민왕 16년 4월 계유	이상저온 현상	西風甚寒	사53(수)
1367	공민왕 16년 4월 병인	가뭄	命放影殿役夫 止留工匠及僧徒 時徵發六道丁夫 督役太急 逃者相繼 以久旱放之 乃雨	사41
1367	공민왕 16년 5월 갑진	가뭄	大雨 民始播種(사41), 大雨 時南方大旱 行旅不得水 熊津渡淺 纔濡馬足 至是乃雨 民始播稻(사54목)	사41, 사54(목)
1367	공민왕 16년 6월 경신	大雨	大雨五日	사54(목)
1367	공민왕 16년 6월 경오	이변현상	漣州澄波渡水赤三日	사53(화)
1367	공민왕 16년 6월 신미	풍재	大風	사55(토)
1367	공민왕 16년 6월 임신	이상저온 현상	北風甚寒 城中皆着重裘	사53(수)
1367	공민왕 16년 7월 병신	地震	地震	사41, 사55(토)
1367	공민왕 16년 10월 경신, 을축, 공민왕 16년 11월 을해, 무인, 기묘, 갑신, 병술	안개	十月 庚申 霧 乙丑 亦如之, 十一月 乙亥 霧 戊寅 己卯 甲申 亦如之 丙戌 大霧	사55(토)
1367	공민왕 16년 11월 정유	地震, 뇌전	地震(사41), 雷地震(사55토)	사41, 사55(토)
1367	공민왕 16년 12월 정미, 무신	이상고온 현상	丁未 山嵐如春 戊申 亦如之	사53(화)

위의 [표 3]은 공민왕 15년 ~ 16년에 발생한 자연재해와 기후변동 상황

을 정리한 것이다. 먼저 이 시기는 대표적으로 자연재해와 기후변동(기후한랭화 및 이상변동 등)이 자주 나타난 때였다. 기후변동과 관련한 사항만 하더라도, 14세기 기후변동의 특징, 즉 전반적인 기후한랭화 현상 속에서 불규칙한 기후변동(이상고온, 이상저온) 현상이 나타났다. 공민왕 15년 12월의 이상고온 현상과 16년 4월의 이상저온 현상 등 기후의 불규칙한 변동현상이 나타났다.

자연재해 또한 빈번히 발생해, 16년 2월 ~ 3월에는 풍재가 발생했고, 4월 ~ 5월에는 오랜 가뭄에 시달렸다. 가뭄으로 남쪽에서는 行旅가 물을 구하지 못하고 熊津 나루도 수심이 얕아져 겨우 말의 다리를 적실 정도였다. 5월 갑진(29일)[양력 6월 26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볍씨를 뿌릴 수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 가뭄이 심해 벼농사에 피해를 가져왔을 것으로 예상된다. 6월 경오(25일)[양력 7월 22일] 漣州 澄波渡의 물이 3일간 붉게 변했다는 기사는, 정치적 해석에 따른 과장된 표현일 가능성도 있다.[64] 그러나 사실을 반영한 것이라면, 앞서 살펴보았듯이(사-1) 참조) 강물의 색이 바뀔 정도로 무더위 혹은 이상고온에 의한 적조현상일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은 기후변동과 자연재해 속에서 농업생산활동에 큰 지장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한 피해 사례로 8월 정묘에 서리로 콩이 죽은 기사가 있지만, 실제 피해는 더 컸을 것이다.

또한 왜구의 침입에 따른 피해[65] 뿐만아니라 신돈 등용을 통한 국정 운영으로 여러 가지 정치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던 때였다.[66] 노국대장공주

64) 이 시기가 辛旽의 등용을 통해 정치운영이 이뤄지면서, 이에 대한 반발이 나타나고 있던 시기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각주 66) 참조.

65) 『고려사』 권41 공민왕 15년 5월 을사·임오 ; 9월 정미 ; 16년 3월 기축. 이 시기 왜구에 의한 피해가 심하여, 공민왕 15년 11월에는 고려 사신을 일본에 파견하여 海賊을 금압할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고려사』 권41 공민왕 15년 11월 임진).

66) 공민왕 14년 5월에 신돈에게 국정을 자문한 데 이어, 12월에 신돈에게 실권을 부여하게 되면서(『고려사』 권41 공민왕 14년 5월, 12월 정축), 공민왕 15년에는 신돈의 전횡(권41 공민왕 15년 6월 을축, 병인 ; 16년 정월 경오, 병오 ; 4월 을묘)과 공민왕의 지지(권41 공민왕 16년 9월 갑신, 기미, 신유, 12월 을사), 그리고 이에 대한 대간의 비판이 제기(권41 공민왕 15년 4월 갑자)되는 등 정치세력간의 갈등이 심각하게

의 사망 후 影殿과 正陵 공사로 재정이 부족해지고 공사에 동원된 인원도 큰 어려움에 처한 시기였다.[67] 이른바 대표적인 '복합적 위기' 상황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때 민심동요 현상이 극에 달한 점은 양자(위기와 민심)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좋은 시사점을 준다고 하겠다.

와언의 발생에 기후변화와 자연재해가 배경의 하나였다는 점은 공민왕 17년 ~ 18년의 사례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D) (공민왕) 18년(1369) 2월 병진 寅時에 중국 배[唐船]가 이미 西江에 들어왔다는 訛言이 돌았다. 도성 안이 흉흉해 졌고, 집을 떠나 떠돌아다니는 이들이 많았다.(『고려사』 권54 오행지2 오행사왈금 와언)

공민왕 18년(1369년) 2월 寅時(새벽 5 ~ 7시 사이)에 唐船이 이미 개경 인근의 西江(예성강)에 들어왔다는 와언으로 도성의 민심이 동요하고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많았다. 이는 앞서 공민왕 17년부터 명나라가 원을 공격하여 大都를 함락시킨 상황에서[68] 혹시 이어서 명나라가 고려를 침공해 올지 모른다는 위기감 속에서 나타난 소요사태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와언과 민심동요는 그 전해 공민왕 17년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공민왕 17년에도 기후변동·자연재해 발생의 양상은 앞서 살펴본 15년 ~ 16년의 상황과 유사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공민왕 17년의 경우, 이 시기의 기후현상, 즉 14세기 한랭화 속 이상기

대두되었다.

67) 『고려사』 권41 공민왕 15년 5월 계사

68) 이 시기 명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고 참조. 한명기, 「원명교체, 명청교체와 한반도」, 『세계정치』 12(30집 2호), 2010 ; 이왕무, 「원명교체기 한중 외교 관계의 전환 고찰」, 『포은학연구』 21집, 2018.
한편 공민왕 17년 8월에 명나라 군사가 원의 수도를 포위할 정도로 위급하다는 소식을 접하고, 고려 정부에서는 북방지역의 경비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고려사』 권41 공민왕 17년 8월 을미).

후 현상이 살펴진다. 이상저온 현상이 3월에 나타나, 기묘일(9일)[양력 3월 27일]에 바람이 불고 몹시 추워 얼음이 얼었고, 신사일(11일)[양력 3월 29일]에도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임오일(12일)[양력 3월 30일]에도 얼음이 얼어 물이 흐르지 못했으며, 큰 눈이 내렸다.[69] 5월에는 기존에 王輪寺에 있던 공주의 影殿이 협소하다고 하여 이전을 물색하고 마침내 馬岩으로 옮기면서 백성들의 원성이 크게 일어났다.[70] 이때는 가뭄이 심하게 들어 심지어 定妃宮의 유모[乳媪]가 공사 중지를 요청할 정도였고,[71] 가뭄을 해소하려는 소재행위로 도살을 금하고 寬刑을 베풀기도 하였다.[72] 6월에 卽知峴의 우물이 붉게 끓어올랐다는 기사[73]도 이와 같은 심한 가뭄에 따른 고온 현상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다.

이와 같은 가뭄과 고온 현상 속에서 영전 공사를 강행하는 국왕의 행위는 백성들의 원성과 불만 목소리 등 민심동요를 야기하였다.

E-1) (공민왕 17년 윤7월) 임인 비가 내렸다. 나라 사람들이 서로 말하기를, "影殿의 건축을 조금 늦추자 하늘이 비를 조금 내려주니, 만약 (영전의 건축을) 그만둔다면 하늘이 반드시 큰 비를 내려 주리라."라고 하였다.(『고려사』 권41 세가)

2) (공민왕 18년 9월) 이 달에 崇仁門 밖에서 주춧돌을 잘라 馬岩까지 운반하였는데, 그 크기가 집채만 하였고, 끄는 소리와 사람들이 내지르는 소리가 소가 우는 것 같았다. 또 州縣에서 장정[丁]들을 징발하여 재목들을 水路로 실어 왔는데, 눌리거나 물에 빠져 죽은 자를 셀 수가 없었다. (그로 인해) 온 나라가 괴롭고 피곤해

69) 『고려사』 권53 오행지1 오행일왈수 공민왕 17년 3월 기묘·신사·임오

70) 『고려사』 권41 공민왕 17년 5월 임진·갑오·을미. 마암으로의 이전 공사는 坊里의 장정과 42都府의 인원을 모두 동원하여 鑿溝 공사를 할 정도로 많은 인원이 동원되었다(『고려사』 권41 공민왕 17년 6월 신축).

71) 『고려사』 권41 공민왕 17년 6월 을사

72) 『고려사』 권41 공민왕 17년 6월 경신

73) 卽知峴井赤湧(『고려사』 권53 오행지1 오행이왈화 공민왕 17년 6월 무신[9일][양력 6월 24일])

졌으나, 감히 (왕에게) 말하는 자가 없었다.(상동)

E-1)에 따르면 심한 가뭄과 영작 동원이라는 이중의 고통 속에서 잠시 비가 내렸다. 그러자 백성들은 영전 건축을 조금 늦추자 비가 조금 내렸으니, "만약 그것을 그만둔다면 하늘이 반드시 큰 비를 내려 주리라"라고 하였다. 가뭄이 심한 상태에서 영작 공사마저 진행되면서 백성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던 상황에서 민심동요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다.[74]

한편 이 시기에도 이상기후 변화와 이에 따른 농작물의 피해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윤7월 임술(24일)[양력 9월 6일]에 서리가 내려 콩 재배에 피해를 줄 정도[75]로 이상저온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8월 기축(21일)[양력 10월 3일]에는 기와가 날리고 나무가 뽑힐 정도로 바람이 부는 등 태풍으로 추정되는 기록[76]이 있어, 수확기 농작물에 피해가 있었을 것이다. 이상저온 현상은 경인일(22일)[양력 10월 4일]에 얼음이 얼고, 갑오일(26일)[양력 10월 8일]에 눈이 내린 기사[77]를 통해 확인된다. 이해 역시 14세기 기후상황의 영향을 받고 있었음이 확인되는 것이다. 한랭화 현상과 함께 이상고온과 이상저온 등 불규칙한 기후변동 현상을 나타나고 있었고, 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피해 경험을 겪으면서 민간에서는 동요현상이 진행 혹은 내재된 상태로서, 언제라도 계기가 마련하면 와언과 같은 형태로 발현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더욱이, 비록 E-2)는 E-1)의 소요사태가 있은 이후의 기사이지만, 이와 같이 민심동요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음을 살펴볼 수 있게 해준다. 즉 E-2)에서 따르면, 영작 공사는 이후에도 재개되어 백성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마치 소가 우는 것 같았

74) 결국 영전 공사는 가뭄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해 윤7월에 중지되었다(『고려사』 권41 공민왕 17년 윤7월).
75) 『고려사』 권41 공민왕 17년 윤7월 임술
76) 『고려사』 권55 오행지3 오행오왈토 공민왕 17년 8월 기축
77) 『고려사』 권53 오행지1 오행일왈수 공민왕 17년 8월 경인•갑오

다고 표현했다. 목재를 수로로 옮기는 과정에서는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였다. 이처럼 온나라가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왕에게 이를 말하는 자가 없었다는 것이다. 결국 공민왕 18년의 와언은 14세기 기후변동, 자연재해, 국내 상황(영전 공사), 국외 상황(명나라의 동향)이 함께 작용하는 가운데 나타난 현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78]

한편 기후변동, 재해발생 등으로 피해가 증가할 때, 이를 해소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존재가 부각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모습을 잘 살펴볼 수 있는 시기가 우왕 7년 ~ 8년의 사례이다.

[표 4] 우왕 7년 ~ 8년의 자연재해

연도	왕대 연월일	성격	사료	전거
1381	우왕 7년 3월 무술	雪災	大雪二日	사134, 사53(수)
1381	우왕 7년 4월 경진, 신사, 임오, 계미	가뭄	庚辰 禱雨于演福寺 辛巳 亦如之, 壬午 以旱 錄囚, 癸未 又禱于群望	사134, 사54(금)
1381	우왕 7년 4월 기사	雨雹	雨雹	사134, 사53(수)
1381	우왕 7년 5월 임인, 갑진, 임자	가뭄	壬寅 以旱鑿城中池 又禱雨于演福寺, 甲辰 巷市, 壬子 遣密直提學張夏及判事楊宗眞禱雨于開城大井 是日雨 書雲觀言 旱旣太甚 請禁屠殺 罷土木之役	사134, 사54(금)

78) 공민왕 21년의 와언도 이와 동일한 해석이 가능하다. 이해 6월에 唐人이 도성 안팎에서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와언이 있었다(『고려사』 권54 오행지2 오행사왈금 공민왕 21년 6월 경진). 그런데 이를 전후한 시기의 기후변동과 자연재해를 살펴보면, 공민왕 20년 11월 얼음이 얼어 배를 띄울 수 없을 정도로 한랭화 현상이 있었고(권43 공민왕 20년 11월 을해), 4월 ~ 5월에 가뭄이 발생하였다(4월 신묘 ; 5월 계축). 큰 비가 오는 가운데 영전 공사를 강행하였다는 기사(5월 갑술)를 비롯해 겨울철에 이상고온 현상이 있었던 점(권53 오행지1 오행이왈화 공민왕 21년)도 참고된다. 또한 이해에는 왜구의 침입도 잦아(권43 공민왕 20년 7월 계축·10월 경인·12월 을미 ; 21년 2월 경진·임오·3월 계해·4월 임진·6월 계묘·기해·신사·을유), 민심동요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여겨진다. 왜구의 침입이 잦았을 때, 이와 관련한 와언이 퍼진 사례로는 『고려사』 권82 병지2 鎭戍 우왕 2년 7월 참조.

1381	우왕 7년 7월 계묘	가뭄	禱雨于演福寺 徙市	사54(금)
1381	우왕 7년 7월 신해, 계해	수재	辛亥 大雨, 癸亥 大雨 水溺死者多	사134, 사54(목)
1381	우왕 7년 8월 무진	풍재	大風拔木	사55(토)
1381	우왕 7년 10월 신유	안개	大霧	사134, 사55(토)
1381	우왕 7년 11월 계미, 병술	震電, 雨雹	癸未 雷, 丙戌 震電 雨雹	사134, 사53(수)
1382	우왕 8년 4월 신사, 병오	가뭄	辛巳 禱雨于佛宇神祠, 丙午 又禱于朴淵及開城大井	사54(금)
1382	우왕 8년 5월 기미	수재	大雨	사54(목)
1382	우왕 8년 5월 임자	가뭄	禱雨于山川	사54(금)
1382	우왕 8년 7월	이상고온 현상	宮中梨華	사53(화)
1382	우왕 8년 10월 정해	木稼	木稼	사54(목)
1382	우왕 8년 12월 을유, 갑술	木稼	乙酉 木稼 甲戌 亦如之	사54(목)

위의 [표 4]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우왕 7년 ~ 8년은 가뭄, 수재, 풍재, 안개 등 자연재해가 다수 발생한 시기이다. 특히 가뭄이 장기간 지속되었고, 우왕 8년 7월에는 이상고온 현상도 나타난다. 그런데 이때 스스로 신비한 능력을 지닌 것처럼 사칭하는 인물들의 기록이 증가하여 나타나고 있었다.

F-1) (우왕 6년[1380] 5월) 요사스런 무당 6명을 처벌하였다.(『고려사』 권134 세가)

2) (우왕 7년 5월) 開京에 어떤 비구니가 있었는데, 스스로 彌勒이라고 사칭하였다. 사람들이 모두 그녀의 말을 믿고서 앞 다투어

米와 布를 시주하자, 憲司에서 그녀를 장형에 처하고 유배 보냈다.(상동)

3) (우왕 8년 2월) 私奴 無敵이 스스로를 彌勒의 化神이라 사칭하다가 형벌을 받아 죽임을 당하였다.(상동)

4) (우왕 8년) 5월 경상도 陜州에 어떤 私奴가 있었는데, 자신을 劒大將軍, 그 일당 1인을 抄軍將軍, 다른 1인을 散軍將軍이라고 사칭했다. 그리고 많은 무리를 모아서 몰려다니면서 재물을 약탈하고 자신의 주인 및 수령을 죽이려고 난을 일으켰다. 按廉使 安景恭이 州軍를 보내 그들을 체포한 뒤 목을 베었다.(상동)

가뭄이 들 경우, 消災儀式으로 기우제를 지낼 때 무당을 통해 거행하는 경우가 많았다.[79] F-1)의 경우, 자세한 것은 알기 힘드나, 우왕 6년(1380) 5월에 무당 6명이 요사스런 행동을 하여 처벌을 받을 정도로 민간에서 무당의 행동이 횡행하고 있었다. 자연재해 관련 기록이 『고려사』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색의 『목은시고』에 따르면 우왕 6년에 이르기까지 수년간 흉년이 들고, 이해 5월 5일 端午 때 가뭄 때문에 擊毬 행사에 국왕이 불참한 내용이 살펴진다.[80] 또한 6월 물가 급등이 있었던 점을 감안한다면,[81] F-1)의 사례는 사회가 동요하는 가운데 나타난 현상일 것이다.

또 F-2), 3), 4)의 경우, 우왕 7년과 8년에 비구니, 私奴 등이 스스로 彌勒 혹은 劒大將軍을 사칭하면서, 백성들을 현혹시키거나 모반을 꾀하다

79) 무당을 동원해 기우행사를 거행한 것은 고려시대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대표적인 사례로 『고려사』 권4 현종 12년 5월 경진 ; 권32 충렬왕 30년 4월 을미 참조. 또한 공민왕 22년 4월의 와언으로, 義成 庫洞에 사는 巫女가 두꺼비와 靑衣를 입은 여인이 등장하는 꿈을 꾸는 가운데 神이 내려와 영전 공사의 중지를 지시받았다는 기사가 있기도 하다(『고려사』 권54 오행지2 오행사왈금 공민왕 22년 4월).

80) 풍년 든 해가 지금까지 몇 번이나 되던고(大有年今問幾回)(『목은시고』 권22 「夏甲子雨」) ; 『목은시고』 권23 「聞端午罷擊毬」. 「夏甲子雨」와 「聞端午罷擊毬」은 각각 우왕 6년(1380) 4월과 5월 5일에 지어진 시이다(이익주, 앞의 책, 2013, 399쪽, 404쪽).

81) 是月京城饑 布一匹 直米五升(『고려사』 권134 우왕 6년 6월)

가 형벌을 받았다. 이들의 등장은 그만큼 당시 사회가 동요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우선 우왕 7년의 경우 가뭄과 왜구의 침입이 유난히 심했던 시기로,[82] 기근으로 심지어 棄兒者, 餓死者 등이 발생한 시기였다. 2월 경상도와 전라도에 기근이 발생[83]한 이래 상황은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3월에는 전라도에 餓死者가 발생하고 戍卒과 백성 가운데 대다수가 도망하여 흩어졌다.[84] 5월에 경상도 高靈郡에서는 기근으로 아이를 버리는 자가 거리에 가득할 뿐만아니라 餓死者가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85] 이달 京城에도 기근이 발생해 물가가 급등했고,[86] 이와 같은 상황은 진정되지 못해 8월에도 물가가 급등했다.[87] 이와 같은 상황은 이듬해 우왕 8년에도 이어져, 정월 ~ 2월 경상도, 전라도, 강릉도 등에 기근이 발생했다. 농작물의 피해가 나타난 것도 사료를 통해 나타난다.[88] 7월에는 경성에 기근이 들어 물가가 급등했다.[89]

이러한 심각한 피해는 이 시기 왜구로 인한 피해와 함께 [표 4]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나타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시기에 F-2), 3), 4)처럼 비구니, 사노 등이 미륵 혹은 검대장군을 사칭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 혹은 난을 일으키는 등 사회를 동요시키는 자들이 등장했던 것이다. 이들의 출현은 그만큼 백성들 역시 동요하고 있었고, 뛰어난 능력을 가진 자에 의지하고자 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14세기 중후반의 기후변동, 자연재해의 발생은 이로 말미암은 피해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백성들의 열망 속에, 이들이

82) 우왕 7년의 왜구 침입에 따른 피해는, 우왕 7년 2~7월•9월에 걸쳐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려사』 권134).
83) 『고려사』 권134 우왕 7년 2월
84) 『고려사』 권134 우왕 7년 3월 ; 권80 식화지3 賑恤 수한역려진대지제 우왕 7년 3월
85) 『고려사』 권134 우왕 7년 5월
86) 『고려사』 권55 오행지3 오행오왈토 우왕 7년 5월
87) 『고려사』 권79 식화지2 화폐 市估 우왕 7년 8월
88) 無麥苗(『고려사』 권134 우왕 8년 윤2월)
89) 京城饑 布一匹 直米三四升(『고려사』 권55 오행지3 오행오왈토 우왕 8년 7월)

등장하는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이 비록 기만적인 사칭 행위라 하더라도, 당시의 조건이 미륵 혹은 검대장군처럼 뛰어난 능력이나 지위를 소지한 존재를 사칭하는 자들이 등장하게 만든 배경이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사례는 사회를 동요시키는 부정행위에 속하지만, 한편으로는 관료사회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나 주목된다. 이 시기에 자연재해, 천문현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관서 및 관료들의 위상이 높아져, 정치문제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음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G-1) (우왕 7년 5월) 書雲觀에서 건의하기를, "가뭄이 너무 심하니, 가축의 도축을 금지하시고 토목 공사를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였다.(『고려사』 권134 세가)

2) 우왕 8년(1382) 2월 계해 곡식이 비처럼 쏟아졌는데, 기장[黑黍], 팥[小豆], 메밀[蕎黍]과 비슷한 것도 있었다. 왕이 물으니 日官이 대답하기를, "占書를 살펴보건대, 기근이 계속 닥쳐서 사람들이 서로 잡아먹을 징조입니다."라고 하였다.(『고려사』 권53 오행지1 오행이왈화)

3) (우왕 8년 2월) 判書雲觀事 張補之 등이 上書하여, 변괴가 자주 나타나니 수도를 옮겨 재앙을 피하자고 건의하였다. 우왕이 그 글을 都堂에 내렸으나, 李仁任이 불가하다고 고집하여, 마침내 (논의가) 수그러들었다.(『고려사』 권134 세가)

위의 사료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우왕 7년 ~ 8년의 경우 書雲觀이 가뭄으로 토목 공사 중지를 건의하고(G-1)), 이변현상에 대해 日官이 占書를 근거로 기근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잡아먹을 징조라고 해석하였다(G-2)). 또한 書雲觀 관원이 변괴를 이유로 재앙을 피하기 위해 천도를 건의하였다(G-3)). 우왕 7년 ~ 8년과 같이 왜구 침입, 재해 발생 등으로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자연재해를 비롯한 災異를 관측하고 해석하는 서운관 관

원이 遷都와 같은 국가의 중대 사안을 건의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재해 발생과 관련된 관서 및 관원의 위상이 제고된 때문으로 보아 무방하리라 여겨진다.[90] 이 건의는 李仁任의 반대로 논의가 그치게 되었지만, 얼마 안있어 이번에는 우왕의 한양 천도 시도를 諫官이 반대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91] 자연재해 등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서운관 관원의 건의로 촉발된 천도 논의가 얼마안있어 諫官과 같은 다른 관직자(혹은 간관으로 대표되는 정치세력)에게도 논의 대상이 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재해가 초래한 피해 및 이에 대한 대책 논의가 이제 정치세력 사이의 논의로 나타난다는 점이다.[92]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14세기의 경우처럼 기후변동·자연재해 등 환경변화는 당시 사회의 민심동요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이다. 피해의 발생이 불안감을 조성하고 원망 내지 희망이 와언 등의 형태로 표출되고 있었다. 그런 점에서 14세기 기후변동이 사회부분에 미친 영향을 어느 정도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것이지만, 이러한 기후변동과 사회변화의 관계에 대해서는, 사회부분 이외에도 정치, 경제부분의 영향 등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질 때 제대로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90) 이처럼 14세기 재해 발생이 빈번할 때 관련 관서 및 관원의 위상이 제고된 점은, 마찬가지로 재해 발생이 빈번했던 12세기 전반기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는 점을 참고할 만하다. 예를 들어, 妙淸 등이 재이 발생을 근거로 西京 遷都를 주장할 때, 이에 반대하는 金富軾 등의 의견에 日官이 동조함으로써 힘을 실어 주었다(채웅석, 「고려시대 日官 災異 占辭의 자료적 특징과 기능」, 『韓國史學報』 90호, 2023, 173-174쪽). 또 12세기 전반기 재이 발생이 빈번해 지면서, 日官·太史 등 재이 관련 업무 관서의 관원이 정치관료의 활동을 비롯해 정치운영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이정호, 「12세기 전반기 고려(高麗)에서의 자연재해 발생과 사회변화-'기후위기론'의 검토와 새로운 연구방법의 모색-」, 『한국중세연구』 76호, 2024, 199-201쪽).

91) 議定遷都漢陽 諫官上疎止之 不聽(『고려사』 권134 우왕 8년 8월)

92) 이러한 모습은 재해가 정치계에 미친 영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찰을 요한다 하겠다.

5. 결론

본고는 14세기 기후변동이 당시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 고찰할 것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특히 14세기 '기후변동·자연재해의 발생'과 '민심동요 현상'을 연관지어 고찰하였다.

14세기는 기존의 따뜻한 '중세온난기' 기후가 한랭해져 '소빙기'로 바뀌는 전환기였다. 14세기에 기후가 한랭해졌다는 점은 여러 가지 사료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여름철에 추워져 겨울옷을 입거나, 계절에 맞지 않는 우박과 눈 때문에 凍死者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기후 한랭화 현상은 1330 ~ 1340년대 일시적인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14세기 중반기에 다수의 기록이 나타날 뿐만아니라 장기간 추위가 지속되었다. 이 시기에 얼음이 얼어 배를 띄울 수 없다는 내용도 발견된다. 큰 우박이 내려 그 크기를 오얏, 매실 등에 비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사례가 14세기 중후반에 다수 나타난다. 한편 14세기 후반에는 이상고온 현상과 같은 불규칙한 기후변동의 모습도 나타났다. 14세기 기후상황은 전반적인 한랭화 경향 속에 그 후반기에 불규칙한 기후변동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14세기 기후변동은 인명의 살상은 물론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물가 급등, 생태계의 변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영향을 미쳤다. 아울러 이 시기는 국내외적인 상황 역시 피해를 초래한 때로서, 특히 紅巾賊과 倭寇의 침입으로 피해가 가중되었다. 이 시기는 이른바 '복합적 위기'라고 불릴 만한 때였다. 그런 점에서 14세기 기후변동은 이 시기의 '복합적 위기'를 가져온 한 요인이자, 민심동요의 배경 가운데 하나였다.

14세기 민심동요 현상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기상변동에 영향을 받아 나타났다. 유언비어, 왕조 멸망 혹은 사람의 죽음과 관련된 소문, 외적이 침입했다는 소문에 따른 소동 등이 기상변동·자연재해로 큰 피해를 입은 시기에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14세기 후반기인 공민왕 15년 ~ 18년, 우왕 7년 ~ 8년 등의 사례에서 그러한 모습을 잘 살펴볼 수 있었다.

한편 민심동요 현상과 연관된 사례로, 무당·승려·私奴 등이 彌勒 혹은

劒大將軍을 사칭하며 백성들을 현혹시키는 사례도 나타났다. 이것은 사회를 동요시키는 부정행위에 속하지만, 14세기 기후변동·자연재해의 피해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백성들의 염원 속에 새로운 능력의 소지자가 부각되어 나타나게 된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관료사회에서도 자연재해를 관측·해석하는 書雲觀 소속 관료나 日官 등의 위상이 높아져, 재해를 계기로 국가의 중대사인 遷都 문제까지도 건의하였다. 더나아가 이러한 건의가 諫官에 의해서도 논의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14세기 기후변동·자연재해의 발생이 '민심동요'와 같은 사회 분야와 아울러 '관료사회'와 같은 정치 분야에도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참고문헌

사료

『高麗史』

『高麗史節要』

『稼亭集』

『牧隱詩藁』

『新增東國輿地勝覽』

단행본

김일권, 『『고려사』의 자연학과 오행지 역주』,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1.

도날즈 휴즈 저, 최용찬 역, 『환경사란 무엇인가?』, 앨피, 2022.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국역 고려사』 10권, 경인문화사, 2006.

박정재, 『기후의 힘』, 바다출판사, 2021.

이익주, 『이색의 삶과 생각』, 일조각, 2013.

이정호, 『고려시대의 농업생산과 권농정책』, 경인문화사, 2009.

H.H. 램 저, 김종규 역, 「중세 말에 다시 악화된 기후」, 『기후와 역사』, 한울아카데미, 2004.

葛全胜, 『中国历朝气候变化』, 科学出版社, 2011.

Bruce Campbell, *The Great Transition: Climate, Disease and Society in the Late Medieval Worl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6 : 브루스 M. S. 캠벨 저, 박흥식·노의근 역, 『대전환』,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4.

논문

姜晋哲, 「田柴科體制의 崩壞」, 『高麗土地制度史硏究』, 高麗大出版部, 1980. 311-328쪽.

姜晋哲, 「高麗의 農莊에 대한 一硏究-民田의 奪占에 의하여 형성된 權力型 農莊의 實體追求-」, 『史叢』 24집,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1980, 1-59쪽.

고태우, 「생태환경사란 무엇인가?」, 『관악사론』 4집, 서울대학교 역사연구소, 2023, 50-51쪽.

김기봉, 「환경사-'성찰적 현대화'를 위한 역사」, 『역사비평』 46호, 역사비평사, 1999, 101-116쪽.

김기봉, 「환경사란 무엇인가-환경과 인간의 상호작용의 역사」, 『서양사론』 100호, 한국서양사학회, 2009, 5-37쪽.

金塘澤, 「高麗 忠肅王代의 瀋王 옹립운동」, 『歷史學硏究』 12호, 전남대학교 사학회, 1993, 355-384쪽.
김성순, 「한국 불교의학의 전래와 醫僧들의 활동에 관한 일고찰」, 『불교학연구』 39호, 불교학연구회, 2014, 348쪽.
김수연, 「고려~조선 전기 불교계의 전염병 대응과 대민 구료」, 『불교학연구』 71호, 불교학연구회, 2022, 108-112쪽.
김연옥, 「高麗時代의 氣候環境-史料分析을 中心으로」, 『韓國文化硏究院 論叢』 44집,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1984, 129-131쪽.
김연옥, 「中世 溫暖期의 氣候史的 硏究」, 『문화역사지리』 4호,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1992, 300-301쪽.
김문기, 「중세온난기의 작은 V 계곡-12세기 동아시아의 기후변동」, 『생태환경과 역사』 9호, 한국생태환경사학회, 2022, 3-81쪽.
김문기, 「'중세온난기'에서 '소빙기'로-14세기 동아시아의 기후변동」, 『생태환경과 역사』 13호, 한국생태환경사학회, 2024, 5-71쪽.
박흥식, 「기후변화, 흑사병 그리고 대전환」, 『역사학보』 252집, 역사학회, 2021, 93-119쪽.
신석호, 「여말 선초의 왜구와 그 대책」, 『국사상의 제문제』 3집, 국사편찬위원회, 1959, 120-187쪽.
羅鍾宇, 「高麗 末期의 麗·日關係-倭寇를 中心으로-」, 『全北史學』 4호, 전북대사학회, 1980, 49-93쪽.
羅鍾宇, 「대외관계의 전개」, 『신편한국사-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20권, 국사편찬위원회, 2002, 383-415쪽.
이바른, 「14세기 고려 동북지역 인구 이동과 생태환경-女眞 이주를 중심으로」, 『 생태환경과 역사』 13호, 한국생태환경사학회, 2024, 113-143쪽.
이승민, 「10~14세기 동아시아(한·중) 온난-건조 기후와 기설제(祈雪祭)의 시행」, 『한국중세사연구』 76호, 한국중세사학회, 2024, 283-285쪽.
이왕무, 「원명교체기 한중 외교 관계의 전환 고찰」, 『포은학연구』 21집, 포은학회, 2018, 67-107쪽.
이익주, 「14세기 전반 고려, 원관계와 정치세력 동향-충숙왕대의 심왕옹립운동을 중심으로-」, 『한국중세사연구』 9호, 한국중세사학회, 2000, 137-174쪽.
이정호, 「여말선초 자연재해 발생과 고려·조선정부의 대책」, 『韓國史學報』 40호, 고려사학회, 2010, 347-379쪽.
이정호, 「12세기 전반기 고려(高麗)에서의 자연재해 발생과 사회변화-'기후위기

론'의 검토와 새로운 연구방법의 모색-」,『한국중세사연구』76호, 한국중세사학회, 2024, 176-179쪽.
임소민·현유경·강현석·예상욱, 「GloSea5의 과거기후 모의자료에서 나타난 ElNiño와 관련된 동아시아 강수 및 기온 예측성능」,『대기』28권 1호, 한국 기상학회, 2018, 38쪽.
채웅석, 「고려시대사 연구와 재이(災異) 사료의 활용」,『한국중세사연구』71호, 한국중세사학회, 2022, 33-38쪽.
한명기, 「원명교체, 명청교체와 한반도」,『세계정치』12,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2010, 61-98쪽.
한정수, 「고려 우왕대 재이·병란과 천도론의 정치적 의미」,『서울과 역사』106호, 서울역사편찬원, 2020, 265-303쪽.
홍금수, 「環境史硏究序m-마쉬의 비판적 환경인식에서 성찰에 기초한 탈근대적 환경윤리의 정립까지」,『문화역사지리』17권 3호,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05, 69-100쪽.
홍금수, 「環境史(Environmental History)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震檀學報』116호, 진단학회, 2012, 149-181쪽.
須長泰一, 「高麗後期の異常氣象に關する一)考」,『朝鮮學報』119·120合輯, 朝鮮學會, 1986, 292-326쪽.
E. R. Cook, P. J. Krusic, K. J. Anchukaitis, B. M. Buckley, T. Nakatsuka, M. Sano, and PAGES Asia 2k Members, "Tree-ring Reconstructed Summer Temperature Anomalies for Temperate East Asia since 800 C.E.", Climate Dynamics 41(11-12), 2013, pp.2957-2972.
H.H.Lamb, "The early medieval warm epoch and its sequel", Palaeogeography, Palaeoclimatology, Palaeoecology 1, 1965, pp.13-37.

인터넷 사이트

질병관리청 - 감염병정보, https://www.kdca.go.kr/kdca/index.do, 2026.05.02.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 - 우박일수, 서리일수, https://data.kma.go.kr/cmmn/main.do, 2026.05.04.

국문초록

본고는 14세기 기후변동이 당시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 고찰할 것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특히 14세기 '기후변화, 자연재해의 발생'과 '민심동요 현상'을 연관지어 고찰하였다.

14세기는 기존의 따뜻한 '중세온난기' 기후가 한랭해져 '소빙기'로 바뀌는 전환기였다. 14세기에 기후가 한랭해졌다는 점은 여러 가지 사료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여름철에 추워져 겨울옷을 입거나, 계절에 맞지 않는 우박과 눈 때문에 凍死者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기후 한랭화 현상은 1330 ~ 1340년대 일시적인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14세기 중반기에 다수의 기록이 나타날 뿐만아니라 장기간 추위가 지속되었다. 이 시기에 얼음이 얼어 배를 띄울 수 없다는 내용도 발견된다. 큰 우박이 내려 그 크기를 오얏, 매실 등에 비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사례가 14세기 중후반에 다수 나타난다. 한편 14세기 후반에는 이상고온 현상과 같은 불규칙한 기후변동의 모습도 나타났다. 14세기 기후상황은 전반적인 한랭화 경향 속에 그 후반기에 불규칙한 기후변동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14세기 기후변동은 인명의 살상은 물론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물가 급등, 생태계의 변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영향을 미쳤다. 아울러 이 시기는 국내외적인 상황 역시 피해를 초래한 때로서, 특히 紅巾賊과 倭寇의 침입으로 피해가 가중되었다. 이 시기는 이른바 '복합적 위기'라고 불릴 만한 때였다. 그런 점에서 14세기 기후변동은 이 시기의 '복합적 위기'를 가져온 한 요인이자, 민심동요의 배경 가운데 하나였다.

14세기 민심동요 현상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기상변동에 영향을 받아 나타났다. 유언비어, 왕조 멸망 혹은 사람의 죽음과 관련된 소문, 외적이 침입했다는 소문에 따른 소동 등이 기상변동·자연재해로 큰 피해를 입은 시기에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14세기 후반기인 공민왕 15년 ~ 18년,

우왕 7년 ~ 8년 등의 사례에서 그러한 모습을 잘 살펴볼 수 있었다.

한편 민심동요 현상과 연관된 사례로, 무당·승려·私奴 등이 彌勒 혹은 劒大將軍을 사칭하며 백성들을 현혹시키는 사례도 나타났다. 이것은 사회를 동요시키는 부정행위에 속하지만, 14세기 기후변동·자연재해의 피해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백성들의 염원 속에 새로운 능력의 소지자가 부각되어 나타나게 된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관료사회에서도 자연재해를 관측·해석하는 書雲觀 소속 관료나 日官 등의 위상이 높아져, 재해를 계기로 국가의 중대사인 遷都 문제까지도 건의하였다. 더나아가 이러한 건의가 諫官에 의해서도 논의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14세기 기후변동·자연재해의 발생이 '민심동요'와 같은 사회 분야와 아울러 '관료사회'와 같은 정치 분야에도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주제어 ● 환경사, 기후변동, 자연재해, 민심동요, 복합적 위기, 사회변화

Abstract

Climate Change and Public Unrest in the Goryeo Dynasty in the 14th Century

Lee, Jung Ho / Mokwon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in the 14th century on society in the Goryeo Dynasty at that time. To this end, two factors in particular were considered in connection: 'climate change, occurrence of natural disasters' and 'public unrest phenomena'. The 14th century was a turning point in which the existing warm Medieval Warm Period climate became cold and turned into a Little Ice Age. It can be seen from various historical sources that the climate became cold in the 14th century. Winter clothes were worn year-round because it got cold even in summer, and there were instances of person freezing to death due to unseasonal hail and snow. Not only a number of such records appeared in the mid-14th century, but also the long-term cold continued. It was also found that the sea was frozen during this period, making it impossible to float ships. Meanwhile, in the second half of the 14th century, irregular climate changes such as abnormally high temperatures also appeared. The climate situation in the 14th century was characterized by irregular climate fluctuations in the second half of the period amid the overall cold trend. Such climate change in the 14th century affected not only human damage, but also crops, soaring prices, and changes in ecosystems. In addition, during this period, domestic and foreign situations also caused damage, especially due to the invasion of Honggeonjeok (紅巾賊) and Japanese pirates (倭寇). This period was a time to be called a 'complex crisis'. In the 14th century, the phenomenon of public unrest was often directly or indirectly affected by weather changes. Rumors, the collapse of the dynasty or the death of people, and disturbances caused by rumors of an

invasion from outside appeared during the period when natural disasters occurred amid weather changes. Representatively, such a scene could be well seen in cases such as King Gongmin (恭愍王) 15-16 and King Wu (禑王) 7-8 in the late 14th century. On the other hand, as examples related to the phenomenon of public unrest, there were cases in which shamans, monks, and private slaves (私奴) misled the people by impersonating Maitreya (彌勒) or Gumdaeganggun (劍大將軍). In the same vein, bureaucrats and government officials who observed and interpreted natural disasters increased their status in the bureaucratic society, and even proposed the issue of the relocation of the capital (遷都), a major national issue, in the wake of the disaster. Furthermore, these suggestions were discussed by political forces such as Gan-gwan (諫官). This phenomenon is noteworthy in that it is possible to examine the mechanisms by which the occurrence of climate change and natural disasters in the 14th century affects not only social fields such as public unrest but also political fields such as bureaucracy.

Keyword ● Environmental history, Climate change, Natural disasters, Public unrest, Complex crises, Social change

▌논문투고일:2026.05.12. ▌심사완료일:2026.06.08. ▌게재확정일:2026.06.25. ▌

● ● ● https://doi.org/10.54698/kl.2026.21.257
지식과 교양, 제21호,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Knowledge and Liberal Arts, Vol. 21, LIC, pp.257-284.

클래식 - 재즈 크로스오버의 양가적 비평 담론과 미들브로우 수용사적 의미

: 클로드 볼링의 ≪Suite for Flute and Jazz Piano Trio≫를 중심으로

천 민 경*

목 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연구의 방법
4. 연구의 결과
5. 논의
6. 결론 및 제언

1. 서론

오늘날 음악 창작과 대중의 수용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비평 매체와 방송 및 음반 산업의 확산은 음악 작품이 특정 양식의 틀 안에서 이해되던 방식을 변화시켰으며, 이에 따라 장르의 경계 역시 한층 유동적으로 재편되고 있다. 하나의 음악은 더 이상 특정 장르의 범위 안에서만 고정되지 않고, 플랫폼의 분류 방식과 청취자의 사용 맥락 속에서 여러 장르적 의미를 동시에 갖게 되었다[1].

* 성결대학교 융합학부 객원교수
1) 박기웅·조정연, 「현대소비사회에서의 취향과 유행의 상관성과 대중문화의 역할」,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0권 제2호, 2010, 165-175쪽.

이러한 흐름 속에서 과거의 크로스오버 사례를 다시 살펴보는 일은 현재의 음악문화 변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클래식과 재즈의 결합은 20세기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시도되었고, 크로스오버에 대한 연구는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와 상업성 논쟁 등을 다루어 왔다[2].

클래식-재즈 크로스오버는 이미 20세기 후반부터 장르적 경계와 정체성에 대한 변화, 협업을 통한 실험적 창작, 고급문화(highbrow)와 대중음악의 결합을 드러낸 결과물로 논의되어 왔다[3]. 특히 서드 스트림(Third Stream)[4] 논의는 두 장르의 형식적·기법적 결합을 이해하는 중요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다. 또한 장르 이론과 미들브로우 문화 연구로는 음악 장르와 문화적 권위가 산업, 비평, 유통 구조, 취향 형성의 과정 속에서 구성된다는 점을 설명한다. 이처럼 기존의 연구는 주로 클래식과 재즈의 작곡 기법, 장르적 성격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두어 왔다.

반면 특정 클래식-재즈 크로스오버 작품이 실제 비평 담론 안에서 어떠한 장르명으로 불리고, 어떠한 가치 판단을 받았으며, 음반 산업과 후대 연주 실천을 거치며 어떤 문화적 의미를 획득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 연구는 클로드 볼링(Claude Bolling)의 ≪Suite for Flute and Jazz Piano Trio≫를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이 작품은 1975년 볼링과 클래식 플루티스트 장-피에르 랑팔(Jean-Pierre Rampal)의 협업으로 발표된 클래식-재즈 크로스오버 작품이다. 클래식

2) Daniel Tracy, "Investing in 'Modernism': Smart Magazines, Parody, and Middlebrow Professional Judgment," The Journal of Modern Periodical Studies, Vol. 1, No. 1, 2010, pp.38-63; Sally Faulkner, "Introduction: Approaching the Middlebrow: Audience; Text; Institution," in Middlebrow Cinema, ed. Sally Faulkner, London: Routledge, 2016, pp.1-12.

3) 이태윤, 「대중음악 편곡 기법을 활용한 클래식곡의 연주에 관한 연구: 리듬섹션을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7권 제9호, 2016, 458-463쪽.

4) 서드 스트림은 클래식 음악과 재즈의 기법 및 연주 관습을 창조적으로 결합하려는 음악적 흐름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1950년대 후반 Gunther Schuller에 의해 제시되었다.

플루트와 재즈 피아노 트리오의 결합은 장르 경계의 발현을 보여주며, 랑팔의 참여는 클래식 음악의 권위와 연결되는 방식을 살펴보게 한다. 또한 이 작품은 발매 이후 음반 시장에서 장기간 성과를 보였으며, 후대 공연·편곡·재녹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재맥락화되었다는 점에서 수용사적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5].

본 연구의 목적은 해당 작품이 1970년대 이후 비평 담론, 음반 산업, 대중적 접근성, 후대 연주 실천 속에서 어떠한 수용사적 의미를 형성했는지를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의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첫째, 이 작품은 비평 담론 속에서 어떠한 장르적 위치를 부여받았으며, 그 평가는 어떤 기준에 의해 형성되었는가.

둘째, 랑팔의 참여와 음반 유통, 차트 기록은 작품의 대중적 수용과 예술적 정당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셋째, 후대의 공연과 편곡, 재녹음은 이 작품이 크로스오버 레퍼토리로 다시 해석되는 과정을 어떻게 보여주는가.

넷째, 이러한 수용 양상은 미들브로우 문화의 관점에서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본 연구는 기존의 크로스오버 연구가 주로 양식적 결합과 작곡 기법에 초점을 두어 온 흐름에서 나아가, 특정 작품이 비평과 음반 유통, 후대 연주 실천을 거치며 문화적 의미를 형성하는 과정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또한 미들브로우 문화론을 클래식-재즈 크로스오버 수용사에 적용함으로써, 클래식 음악의 권위와 대중적 접근성이 음악 수용 과정에서 함께 구성되는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5) Neil Genzlinger, “Claude Bolling, Jazzman With Crossover Appeal, Dies at 90,” The New York Times, January 9, 2021.

2. 이론적 배경

1) 1970년대 클래식-재즈 크로스오버의 수용 환경

본 절에서는 1970년대 프랑스와 미국의 음악문화에서 클래식-재즈 크로스오버가 형성되고 수용될 수 있었던 문화적 조건을 검토한다. 이 시기 대중음악은 라디오와 텔레비전, 음반 산업과 같은 미디어를 통해 광범위하게 확산되었고, 청년문화와 소비문화의 주요 매개로 기능하였다. 특히 록은 1960년대 반문화의 상징으로 부상한 뒤 1970년대에는 대중음악 시장의 중심에 자리 잡았으며, 블루스, 포크, 재즈, 클래식, 세계음악 등의 요소를 흡수하면서 장르 경계를 유동화하였다[6]. 이와 함께 대중음악은 상업적인 유통과 음악적 진정성 논쟁 속에서 평가되었고, 클래식 음악은 여전히 문화적 권위와 교양의 기준에 위치하였다.

클래식과 재즈의 결합은 1950년대 이후 서드 스트림을 중심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되어 왔다. Stuessy는 1950년부터 1970년까지 전개된 클래식-재즈 결합 작품들을 검토하면서, Gunther Schuller, Dave Brubeck, Leonard Bernstein, Lalo Schifrin, John Lewis, Joseph Horovitz 등 여러 작곡가의 작업을 통해 두 장르의 결합이 광범위하게 실험되었음을 제시한다[7]. 이들 작업에서는 재즈의 즉흥성, 스윙 리듬, 블루스적 어법, 재즈 콤보의 음색이 클래식의 형식, 관현악법, 대위법, 모음곡적 구성과 연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은 두 장르의 요소를 병치하거나 선택적으로 차용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으며, 그 결과 클래식과 재즈의 경계가 완전히 해소되기보다는 서로 다른 평가 기준이 한 작품 안에서 동시에 제기되는 조건을 형성하였다.

---

6) Keir Keightley, “Reconsidering Rock,” in The Cambridge Companion to Pop and Rock, eds. Simon Frith, Will Straw & John Stree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pp.109-142.

7) Clarence Joseph Stuessy Jr., “The Confluence of Jazz and Classical Music from 1950 to 1970,” University of Rochester, 1977.

이러한 배경은 재즈의 사회적 위치 변화와도 관련된다. Stanbridge는 1950-1960년대 재즈가 영화와 텔레비전에서 널리 사용되었으나 도시화, 밤문화, 일탈과 같은 주변성의 기호와 함께 수용되었다고 설명한다[8]. 이 시기의 재즈는 대중매체 안에서 높은 인지도를 확보했지만, 그 의미는 여전히 사회적 주변성과 결부되어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재즈 퓨전과 스무스 재즈의 부상은 재즈의 문화적 위치를 새롭게 재배치하는 계기가 되었다. 재즈는 점차 세련됨과 취향, 문화적 자본을 나타내는 기호로 이해될 수 있었고, 이는 대중음악과 예술음악 사이에서 재즈가 갖는 중간적 위상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배경이 된다. DeVeaux 역시 재즈가 예술적 정당성을 추구하며 콘서트홀화, 정전화, 제도화, 유산화의 과정을 겪었다고 설명한다[9]. 이러한 논의는 1970년대 이후 재즈가 대중적 친숙함과 예술적 정당성 사이에서 새롭게 의미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재즈는 대중음악의 한 영역으로 소비되면서도 동시에 세련된 취향과 문화적 자본을 나타내는 장르로 재배치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는 클래식 음악의 권위와 재즈의 대중적 감각이 결합될 수 있는 수용 환경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1970년대 클래식-재즈 크로스오버의 수용 환경은 장르 혼합의 음악사적 흐름, 음반 산업을 중심으로 한 유통 구조, 재즈의 사회적 위상 변화, 클래식 음악의 제도적 권위가 함께 형성한 문화적 조건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2) 미들브로우 문화

미들브로우 문화는 20세기 초 영미권에서 고급문화와 대중문화의 관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문화적 범주이다. 하이브로우(highbrow)와 로우브로우(lowbrow)가 지적 권위와 대중적 오락 사이의 위계를 나타

8) Alan Stanbridge, “From the Margins to the Mainstream: Jazz, Social Relations, and Discourses of Value,” Critical Studies in Improvisation / Études critiques en improvisation, Vol. 4, No. 1, 2008.

9) Scott DeVeaux, “Constructing the Jazz Tradition: Jazz Historiography,” Black American Literature Forum, Vol. 25, No. 3, 1991, pp.525-560; Paul Lopes, *The Rise of a Jazz Art Worl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내는 용어로 사용되었다면, 미들브로우는 그 사이에서 취향, 교양, 자기 향상 등이 결합되는 방식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논의되어 왔다[10]. 초기에는 고급문화의 권위를 지향하면서도 대중적 접근성을 갖는 문화 형식으로 이해되었으나, 최근 연구들은 미들브로우를 특정 장르나 고정된 미학적 속성으로 한정하지 않고, 청중, 텍스트, 제도, 매체가 상호작용하는 문화적 실천으로 파악한다[11]. 이와 같이 미들브로우는 고급문화와 대중문화 사이의 위치를 가리키는 명칭에 머물지 않고, 문화적 권위가 대중적 감상 환경 속에서 조정되고 전달되는 방식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Faulkner는 미들브로우를 청중, 텍스트, 제도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유동적 범주로 설명한다. 이 관점에서 미들브로우는 작품의 수준을 지칭하는 명칭에 그치지 않고, 문화적 선택, 수용 방식, 계층 이동의 욕망, 제도적 매개와 관련된다[12]. Hammill 역시 미들브로우를 자아 향상, 오락, 취향 교육, 문화적 교양이 결합된 제도와 실천으로 설명한다. 북클럽, 문학 잡지, 교육 방송, 다이제스트, 재출판 시리즈, 대중 강연 등은 고급문화의 내용을 넓은 청중에게 전달하는 매개 형식으로 기능하였으며, 동시에 무엇을 읽고 듣고 감상해야 하는가에 대한 취향 형성의 기준을 제공하였다[13]. 이러한 논의는 미들브로우 문화가 고급문화의 내용을 쉽게 낮추는 방식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해석하고 유통하며 반복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 만드는 제도적·매체적 조건과 관련됨을 보여준다.

미들브로우 문화는 모더니즘과의 관계 속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10) Christopher Chowrimootoo, *Middlebrow Modernism: Britten's Operas and the Great Divide*, Oakland: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8.

11) Sally Faulkner, "Introduction: Approaching the Middlebrow: Audience; Text; Institution," in Middlebrow Cinema, ed. Sally Faulkner, London: Routledge, 2016, pp.1-12.

12) Ibid.

13) Faye Hammill, "Modernism and the Middlebrow," in The Cambridge History of American Modernism, ed. Mark Whala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3, pp.98-112.

다. Chowrimootoo는 미들브로우 모더니즘을 예술적 자율성, 현대주의적 실험성, 대중적 전달 가능성 사이의 긴장이 나타나는 영역으로 설명한다[14]. 이 관점에서 미들브로우는 고급예술의 권위를 대중에게 전달 가능한 형식으로 매개하면서도, 난해성이나 엘리트주의에 대해 일정한 거리를 형성하는 문화적 과정으로 이해된다. Tracy 역시 잡지와 같은 대중매체가 고급문화의 기준을 소개하고 해석하며, 독자에게 문화적 판단 능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고 설명한다[15]. 이러한 논의는 미들브로우가 고급문화를 단순히 모방하는 차원을 넘어, 그것을 설명하고 번역하며 대중적 수용의 형식으로 재구성하는 중개적 기능을 수행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미들브로우 문화는 소비문화와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미들브로우 문화는 고급문화와 대중문화의 경계를 고정된 위계로 구분하는 차원을 넘어, 문화적 권위, 대중적 접근성, 취향 교육, 제도적 유통, 소비적 실천이 교차하는 영역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클래식-재즈 크로스오버가 예술적 권위와 대중적 수용 가능성을 동시에 지니는 현상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3. 연구의 방법

1) 연구 대상 및 분석 자료의 선정

본 연구는 단일 작품을 대상으로 한 질적 자료 분석 연구로서, ≪Suite for Flute and Jazz Piano Trio≫를 클래식-재즈 크로스오버 전체의 보편적 모델로 일반화하지 않고, 특정 작품의 수용 조건과 의미 형성 과정을 분석한다. 분석 대상으로 이 작품을 선정한 이유는 발매 당시의 비평 자

14) Christopher Chowrimootoo, *Middlebrow Modernism: Britten's Operas and the Great Divide*, Oakland: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8.

15) Daniel Tracy, "Investing in 'Modernism': Smart Magazines, Parody, and Middlebrow Professional Judgment," The Journal of Modern Periodical Studies, Vol. 1, No. 1, 2010, pp.38-63.

료, 음반 파라텍스트, 차트 기록, 후대 공연·편곡 자료가 비교적 확인 가능하여 수용 과정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자료군의 구성과 활용 목적은 [표 1]과 같이 정리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분석에 활용한 핵심 자료는 중복을 제외해 약 21건이다. 자료는 동시대 및 근접 시기 자료, 인터뷰, 음반 파라텍스트 및 아카이브 자료, Billboard 차트 및 음반 산업 자료, 후대 비평·회고 자료, 후대 공연·편곡 자료로 구분하였다.

자료 수집에는 Claude Bolling, Jean-Pierre Rampal, Suite for Flute and Jazz Piano Trio, crossover, Third Stream, Billboard chart, CBS Masterworks, Sony Classical 등을 주요 검색어로 사용하였다. 이 가운데 작품의 장르 명명, 비평적 평가, 음반 유통, Billboard 차트 기록, 후대 공연 및 편곡과 직접 관련된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단순 음원 소개, 판매 정보, 개인 감상에 가까운 자료, 작품과의 직접적 관련성이 낮은 일반적 크로스오버 논의는 핵심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다만 Internet Archive와 음반 판매·아카이브성 자료는 작품의 제시 방식과 감상 언어를 확인하는 파라텍스트 또는 보조 자료로 제한적으로 활용하였다.

[표 1] 자료군별 대표 자료와 활용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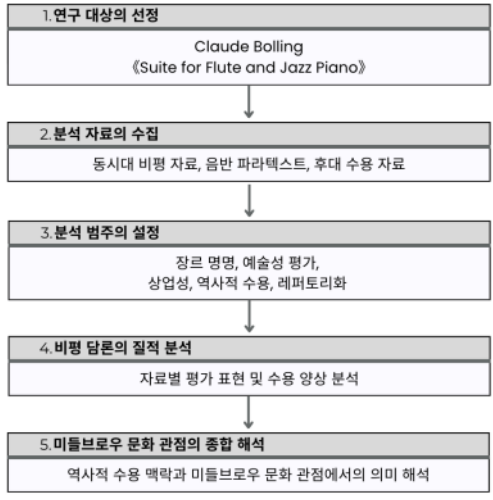
자료 구분	대표 자료	활용 목적
동시대 및 근접 시기 자료	Record World(1975), Kozinn(1982)	발매 초기 및 근접 시기의 장르 판단, 비평적 평가, 음반 유통 맥락 파악
인터뷰 자료	Sklar(2010), Nadia Labrie 관련 PAN M 360 인터뷰 자료	작곡가와 연주자의 관점에서 작품의 기획 의도와 수용 방식, 재해석의 방향 검토
음반 파라텍스트 및 아카이브 자료	Frémeaux(2006), Internet Archive(2023), CBS Masterworks 초판 LP 관련 자료, Sony Classical 재발매 자료	작품이 대중에게 제시된 장르명, 감상 언어, 음반사 분류 방식 검토

Billboard 차트 및 음반 산업 자료	Sklar(2010), Barta(2023), NWPB/NPR(2020), Spaziani(2024), Langer(2020), Flute Almanac 자료	장기 차트 체류, 음반 시장 내 대중적 확산, 상업성과 정당성의 관계 분석
후대 비평·회고 자료	Genzlinger(2021), Langer(2020), Fordham(2020), March(2008), Flute Almanac 자료 Glenn Swan의 AllMusic 리뷰	작품의 역사적 재평가와 장기적 수용 양상 검토
후대 공연·편곡 자료	Barta(2023), Bailey(2015), Miller(2009), Spaziani(2024), James Galway & Tiempo Libre 관련 자료	후대 편곡, 재연주, 재맥락화, 레퍼토리화 과정 분석

2) 자료 분석 절차와 분석 범주

본 연구는 수집 자료에 나타난 표현을 중심으로 비평 담론을 질적으로 분석한다. 여기서 비평 담론은 작품에 부여된 장르적 위치, 예술성 판단, 대중성·상업성에 대한 인식, 후대 수용 과정에서 반복되는 해석 방식을 포함한다[16]. 본 연구에서 비평 담론 분석은 작품이 어떠한 장르명과 가치 판단 속에서 수용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이다. 다음의 [그림 1]은 수집된 자료를 기반으로 진행한 본 연구의 분석 절차를 도식화한 것이다.

16) Norman Fairclough, *Critical Discourse Analysis: The Critical Study of Language*, London and New York: Longman, 1995; Norman Fairclough, *Analysing Discourse: Textual Analysis for Social Research*,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3.



[그림 1] 연구 설계 및 분석 절차

본 연구에서 수용사적 의미는 작품이 발매 이후 비평 언어, 음반 유통, 후대 연주 실천을 거치며 형성한 장르적·문화적 의미를 가리킨다. 재맥락화는 작품이 후대의 공연, 편곡, 재녹음 속에서 다시 제시되며 새로운 감상 조건을 형성하는 과정을 뜻한다. 문화적 정당성은 연주자 권위, 음반사 분류, 비평 언어를 통해 작품에 예술적 가치와 해석 가능성이 부여되는 방식을 의미한다. 대중적 확산은 차트 기록, 라디오 소개, 음반 유통을 통해 작품이 넓은 청중에게 인식되고 반복적으로 수용되는 양상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분석은 먼저 자료에서 작품을 지칭하는 장르명과 평가 표현을 추출한 뒤, 이를 장르 명명, 비평의 양가성, 대중적 확산, 문화적 정당성, 재맥락화, 미들브로우 수용 구조의 범주로 분류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17]. 이후 각 범주가 1970년대 이후 클래식-재즈 크로스오버의 수용 맥락에서 어떠

17) Franco Fabbri, “A Theory of Musical Genres: Two Applications,” in David Horn & Philip Tagg, eds., Popular Music Perspectives, Göteborg and Exeter: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Popular Music, 1982, pp.52-81.

한 의미를 갖는지 해석하고, 이를 미들브로우 문화의 관점과 연결한다.

동시대 및 근접 시기 자료는 작품 발매 직후의 장르 판단과 수용 반응을 파악하는 데 활용하고, 후대 자료는 작품의 역사적 재평가와 레퍼토리화 과정을 검토하는 데 활용한다. 본 연구는 개별 자료의 단편적 평가보다 여러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평가 기준과 장르 판단의 경향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4. 연구의 결과

본 장은 서론에서 제시한 네 가지 연구문제에 따라 분석 결과를 정리한다. 첫째, 작품의 장르 명명과 비평적 양가성을 검토하고, 둘째, 랑팔의 참여와 음반 유통 및 차트 기록이 대중적 수용과 문화적 정당성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 셋째, 후대 공연·편곡·재녹음을 통해 작품이 레퍼토리로 재맥락화되는 과정을 분석하고, 넷째, 이러한 수용 양상을 미들브로우 문화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해석한다.

1) 장르적 경계와 크로스오버의 정체성에 관한 담론

본 절은 Claude Bolling의 ≪Suite for Flute and Jazz Piano Trio≫가 클래식과 재즈의 경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명명되고 평가되었는지를 살펴본다. 이 작품을 둘러싼 비평 언어는 재즈와 클래식이 서로 다른 평가 기준을 지닌다는 점을 드러낸다. Kozinn은 이 작품을 둘러싼 일부 비평의 유보적 태도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watered-down jazz with a thin classical veneer"[18]

이 표현은 "클래식적 외피만 얇게 덧씌운, 희석된 재즈"라는 의미로, 작품이 재즈의 외형을 취하고 있음에도, 즉흥성이나 실험성의 기준에서는 충분한 재즈로 인정받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Swan의 리뷰 역시 랑팔의

18) Allan Kozinn, "Mixing Jazz and Classic Styles," <The New York Times>, March 21, 1982, p.19.번역은 필자.

연주와 작품의 음악적 매력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완전한 재즈라고 보기는 어려운 음악으로 표현하며[19] 이 작품을 재즈로 규정하는 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20].

이 작품에서 플루트는 대체로 선율을 주도하는 독주 악기로 기능하지만, 그 선율은 즉흥적 변형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악보에 기보된 방식을 엄격히 지키며 연주된다. 반면 재즈적 리듬감, 화성적 색채, 스윙적 진행은 주로 피아노, 콘트라베이스, 드럼으로 구성된 트리오의 반주와 간주, 리듬 패턴 속에서 구현된다. Kozinn에 따르면 랑팔을 위한 플루트 파트는 "즉흥에 의존하기보다 악보에 고정된 파트"로 구성되었고, 랑팔은 볼링에게 "철저히 클래식적인 기법과 해석"을 요구했다[21]. 이는 랑팔의 연주가 재즈 특유의 음정 처리나 즉흥적 변형보다 클래식적 음색과 아티큘레이션(articulation), 프레이징의 안정성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음을 시사한다. 그 결과 플루트 파트는 재즈 트리오와 합주하지만, 작품 안에서 재즈 어법을 주도하는 역할보다 클래식적 선율을 제시하는 역할에 가깝다. 반대로 피아노, 콘트라베이스, 드럼은 스윙적 리듬, 재즈 화성의 색채를 통해 작품의 장르적 배경을 형성한다[22]. 이와 같은 장르적 연주 방식의 차이는 작품의 크로스오버적 성격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재즈 정체성의 기준에서는 즉흥성과 자율성이 제한되었다는 평가를 불러올 수 있는 배경으로 작용한다.

이처럼 양가적인 비평 담론은 서드 스트림 논의와도 연결된다.

19) <AllMusic>, https://www.allmusic.com/album/claude-bolling-suite-for-flute-and-jazz-piano-trio-mw0000623863, 2026. 05. 22.

20) Emily Langer, "Claude Bolling, French Pianist Who Melded Jazz and Classical Music, Dies at 90," The Washington Post, 2020.

21) Allan Kozinn, "Mixing Jazz and Classic Styles," The New York Times, section 2, March 21, 1982, p.19.

22) Min Hee Kim, Jazz Language in Through-Composed Chamber Works for Flute by Claude Bolling, Nikolai Kapustin, and Mike Mower, D.M.A. document, University of Cincinnati, 2018.

Schuller가 제시한 서드 스트림은 클래식과 재즈의 창조적 결합 가능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이지만[23], 볼링의 작품을 그 개념의 이상적 구현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Bailey가 볼링의 작품을 서드 스트림의 맥락에서 언급하면서도 재즈의 실험성과 즉흥성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한 점은 이러한 유보적인 성격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게 기능한다[24].

이와 같이 이 작품의 장르적 정체성은 음악 내부의 양식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재즈와 클래식이 요구하는 서로 다른 수용 기준 속에서 구성된다. 재즈 장르의 비평 담론에서 중시되는 즉흥성과 실험성의 제한이 작품의 장르적 한계로 읽힐 수 있었고, 클래식 비평 담론의 기준에서는 악보로 규격화된 플루트 파트와 랑팔의 작품 의뢰와 참여는 이 작품이 클래식 연주 실천의 맥락 속에서 해석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일한 음악 안에서 한편으로 재즈 정체성에 대한 유보적인 평가와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클래식 음악의 권위와 연결되는 방식으로 의미화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장르적 경계성은 이후 이 작품이 음반 산업과 대중 수용의 맥락 속에서 어떠한 의미를 부여받았는지를 살펴보는 출발점이 된다.

2) 대중적 수용과 후대 레퍼토리화를 통한 문화적 의미 형성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작품은 재즈적 정체성의 측면에서 유보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발매 이후 음반 시장과 비평 담론, 후대 공연 자료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며 수용의 폭을 넓혀 갔다. 이 절에서는 이 작품의 대중적 확산, 문화적 정당성, 재맥락화 과정을 중심으로 크로스오버 작품이 형성한 수용사적 의미를 살펴본다.

이 작품의 발매 초기 맥락은 CBS/Columbia 계열의 음반 유통 구조와

23) Schuller, Gunther. Musings: The Musical Worlds of Gunther Schulle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6.

24) C. Michael Bailey, “Steve Barta: Symphonic Arrangement: Suite for Flute and Jazz Piano Trio,” All About Jazz, June 26, 2015.

연결된다. Record World(1975)의 Columbia 관련 광고와 차트성 자료는 이 작품이 발매 초기부터 클래식 음반 시장의 유통 체계 안에서 제시되었음을 보여준다[25]. Kozinn 역시 1970년대 클래식 음반사들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명목상 클래식에 속하면서도 더 넓은 대중에게 도달할 수 있는 크로스오버 음반"을 모색했다고 설명한다[26]. ≪Suite for Flute and Jazz Piano Trio≫는 CBS Masterworks를 통해 발매된 클래식 음반이었지만, 록 및 재즈 라디오 방송국에서도 소개되며 기존 클래식 시장을 넘어서는 청취 경로를 확보한 사례로 언급된다[27]. 이는 이 작품이 클래식 음악의 제도적 신뢰를 유지하면서도 대중적 유통과 감상의 영역으로 확장되었음을 나타낸다.

Billboard 차트 기록은 이 작품의 대중적 수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볼링의 인터뷰에서는 이 작품이 Billboard 차트에서 464주 동안 1위를 기록했다고 언급한다[28]. 한편 여러 후대 자료는 이 작품이 Billboard 클래식 차트에 530주 동안 머물렀다고 설명하며, Langer는 이를 10년 이상 지속된 장기적 차트 성과로 요약한다[29]. 이처럼 자료마다 수치의 차이는 작성 시점, 집계 기준, 차트 체류 기간을 표현하는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 작품이 장기간 성과를 기록했음에 주목하며, 이러한 장기 차트 체류는 ≪Suite for Flute and Jazz Piano

25) Record World, "Classical Retail Report," Record World, December 6, 1975, p.44; Record World, "Classical Retail Report," Record World, December 20, 1975, p.50.

26) Allan Kozinn, "Mixing Jazz and Classic Styles," The New York Times, section 2, March 21, 1982, p.19.

27) Ibid.

28) Pamela Sklar, "Claude Bolling: A Living Legend Turns 80," The Flutist Quarterly, Vol. 35, No. 4, Summer 2010, pp.34-37.

29) NWPB/NPR, "Pianist Claude Bolling, Creator of Popular Jazz/Classical Suites, Has Died," National Public Radio, December 31, 2020; "Premiere of Claude Bolling's Suite for Flute and Jazz Piano Trio," Flute Almanac; Emily Langer, "Claude Bolling, French Pianist Who Melded Jazz and Classical Music, Dies at 90," The Washington Post, December 31, 2020.

Trio≫가 클래식 음반의 범주 안에서 대중적 확산을 확보했음을 보여주는 수용사적 지표로 볼 수 있다.

대중적 확산은 접근성에 대한 평가와도 연결된다. Internet Archive는 이 작품의 감상평을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설명한다.

"pleasant listen"

"easy on the ears"[30]

이 표현들은 각각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음악'과 '듣기 편한 음악'이라는 의미로, 이 작품이 전문적인 장르 지식이나 난해한 청취 경험을 강하게 요구하는 대상이 아니라 편안하고 접근 가능한 감상 대상으로 수용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접근성은 항상 긍정적 평가로만 연결되지 않았다. March는 볼링의 음악을 "생동감 있고 창의적이다"로 평가하면서도 "강한 인상을 남기지는 않는"이라는 유보적 표현을 덧붙인다[31]. 이는 감상 용이성이 수용 확장의 조건이 되는 동시에, 비평적 기준에서는 작품의 지속성이나 예술적 인상에 대한 유보적 평가와 함께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양가적인 측면과 더불어 볼링의 언급은 작품의 수용 방식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Sklar와의 인터뷰에서 볼링은 상업적 성공을 목표로 했다면 더 "pop"한 음악을 썼을 것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작품이 단순한 시장 지향적 기획으로만 읽히는 것을 경계한다고 언급한다[32]. 또한 Kozinn의 기사에서도 자신의 음악을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설명한다.

"music for fun"

"taste and quality"[33]

30) Claude Bolling & Jean-Pierre Rampal, Suite for Flute and Jazz Piano Trio, Internet Archive, 2023.

31) Ivan March, "Bolling: Suites for Flute and Jazz Piano Trio," Gramophone, 2008.

32) Pamela Sklar, "Claude Bolling: A Living Legend Turns 80," The Flutist Quarterly, Vol. 35, No. 4, Summer 2010, pp.34-37.

이처럼 ‘즐거움을 위한 음악’과 ‘세련된 취향과 음악적 품질’이라는 발언은 볼링이 대중 친화적인 즐거움과 음악적 세련미를 함께 강조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 작품의 수용에서 상업성과 예술적 정당성이 서로 배타적으로 분리되지 않고, 대중적 감상 가능성과 음악적 품질의 언어 속에서 함께 조율되었음을 드러낸다.

후대 공연과 편곡 자료는 이 작품의 수용이 발매 당시의 음반 성과에만 머물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Barta는 이 작품을 “클래식”으로 지칭하며, 오케스트라 편성으로 확장시킨 버전이 볼링에게 승인받은 사실을 언급한다[34]. 한편 Tess Miller는 클래식 플루티스트인 James Galway와 쿠바 음악과 라틴 재즈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Tiempo Libre의 편곡된 연주가 볼링의 Suite 작품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했다고 평가하며, 새로운 리듬과 연주 방식 속에서 작품이 재맥락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35]. Spaziani 역시 후대 녹음 사례를 통해 이 작품이 플루트 레퍼토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연주되는 대상이 되었음을 설명한다[36]. 이와 같은 수용 양상은 ≪Suite for Flute and Jazz Piano Trio≫가 발매 당시의 음반 유통과 차트 기록, 감상 용이성, 후대 편곡과 재연주를 통해 지속적으로 재맥락화되었음을 보여준다.

3) 비평 담론의 양가성과 미들브로우 수용 구조

본 절은 이 작품의 수용 과정에서 고급문화의 권위와 대중적 접근성이 어떠한 방식으로 결합되고 재구성되었는지를 검토한다. 이 작품의 미들브로우 수용 구조는 다음의 세 층위로 정리할 수 있다.

33) Allan Kozinn, “Mixing Jazz and Classic Styles,” The New York Times, section 2, March 21, 1982, p.19.

34) Steve Barta, “Symphonic Arrangement of Claude Bolling’s Suite for Flute & Jazz Piano,” The Babel Flute, December 20, 2023.

35) Tess Miller, “Bolling: Suite for Flute & Jazz Piano No. 1,” MusicWeb International, September 2009.

36) Keith Spaziani, “Flûte Passion: Claude Bolling,” The Flute View, 2024.

[표 2] ≪Suite for Flute and Jazz Piano Trio≫의 미들브로우 수용 구조

구분	주요 내용	수용사적 의미
클래식 권위의 대중적 재구성	랑팔의 참여, CBS Masterworks 레이블, 악보화된 플루트 파트	크로스오버 작품이 클래식 음악의 신뢰 안에서 제시됨
대중적 접근성	감상 용이성, 친숙한 선율, 명료한 형식, 차트 기록	넓은 청중에게 접근 가능한 클래식-재즈 크로스오버로 수용됨
반복적 재매개	음반, 악보, 후대 편곡, 재녹음, 공연	일회적 흥행을 넘어 반복 가능한 레퍼토리로 재맥락화됨

이 작품에서 클래식 권위를 중점적으로 나타내는 요소는 랑팔의 참여와 CBS Masterworks라는 레이블을 통해 먼저 드러난다. 랑팔은 단순한 협연자나 유명 연주자의 이름으로만 기능하지 않는다. 그의 참여는 플루트와 재즈 피아노 트리오라는 낯선 결합이 클래식 음악의 신뢰 안에서 제시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적 매개 장치로 작용한다. 특히 악보화된 플루트 파트와 바로크·고전 양식의 암시는 이 작품을 즉흥적 재즈 세션의 결과물로만 보이게 하지 않고, 클래식 연주자가 해석하고 재연할 수 있게 한다. CBS Masterworks의 음반 분류 역시 이 작품이 대중적 유통망 안에 놓이면서도 클래식 음악의 상징적 틀을 유지하도록 한다. 이러한 구조는 고급문화가 대중적 매체를 통해 이동할 때 권위가 유지되고, 새로운 청취 환경에 맞추어 변화하는 방식으로 구성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감상의 용이성을 통한 대중적 접근성은 이 작품의 수용성을 설명하는 또 다른 핵심 층위이다. 미들브로우 문화에서 접근성은 고급문화가 대중적 매체와 감상 환경 안에서 이해 가능하고 반복 가능한 대상으로 조정되는 방식과 관련된다. 이 작품은 수용 담론 속에서 교양적 분위기와 감상 용이성을 동시에 갖춰 제시된다. 친숙한 선율 진행과 명료한 형식, 정돈된 리듬, 클래식 플루트와 재즈 트리오의 분명한 역할 배치를 통해 청취자가 작품의 구조를 비교적 쉽게 따라갈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감상 용이성은

차트 성과와 음반 유통을 통해 대중적 확산의 조건이 되었지만, 동시에 재즈 비평의 기준에서는 즉흥성과 실험성의 제한으로 읽힐 수 있었다. 이 점에서 이 작품의 양가적 평가는 클래식과 재즈가 서로 다른 평가 기준을 적용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Chowrimootoo가 논의한 미들브로우적 양가성은 바로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미들브로우 문화는 예술적 자율성, 대중에게 전달될 수 있는 감상 가능성, 그리고 취향을 정당화하려는 언어가 서로 맞물리며 긴장을 형성하는 영역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링의 작품은 재즈가 중시하는 즉흥성과 실험성의 기준에서는 다소 유보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클래식 음반 시장과 대중적 감상 환경 안에서는 세련되고 접근 가능한 크로스오버 작품으로 수용되었다. 따라서 이 작품을 둘러싼 비평의 양가성은 단순한 선호의 차원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것은 재즈가 요구하는 장르적 정체성, 클래식 음악이 부여하는 제도적 권위, 그리고 넓은 청중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접근성이 한 작품의 수용 과정 안에서 동시에 얽히며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볼링의 인터뷰는 이러한 양가적인 구조 안에서 작품이 어떻게 정당화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담론적 자료로 기능한다. 그는 자신의 음악을 즐거움, 취향, 품질의 언어로 설명함으로써 대중적 감상 가능성과 음악적 세련미를 함께 제시하였다. 미들브로우 문화에서 대중성은 정당화의 언어를 필요로 하며[37], 볼링의 발언은 이러한 방식을 잘 드러낸다. 그는 상업적 성공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그 성공이 단순한 판매 전략의 산물로 읽히는 것을 피하기 위해 취향, 품질, 세련미의 기준을 함께 제시한다. 이로써 작품의 문화적 정당성은 순수예술의 자율성에만 기대지 않고, 감상의 즐거움과 음악적 품질을 함께 강조하는 미들브로우적 정당화 담론 속에서 구성된다.

후대 레퍼토리화는 이 작품의 수용을 일회적인 성공이나 차트의 기록

37) Ibid.

으로만 제한하지 않게 한다. Faulkner의 문제의식을 적용하면, 이 작품의 수용은 대중, 텍스트, 제도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된 과정으로 검토할 수 있다[38]. 여기서 중요한 점은 대중, 텍스트, 제도가 각각 독립된 항목으로 기능하지 않으며, 이 세 요소가 서로의 의미를 형성하면서 작품의 문화적 위치를 구성한다는 데 있다. 텍스트는 악곡 자체와 음반으로 고정된 연주, 출판 악보, 후대 편곡, 재녹음, 프로그램 노트, 비평 자료를 포함하는 확장된 수용 단위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확장된 텍스트성은 작품이 매체와 연주 환경이 달라질 때마다 다른 감상 조건 속에서 재제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미들브로우 문화에서 고급예술이 대중적 매체와 교육적·감상적 장치를 통해 반복적으로 재해석되는 방식과 연결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Suite for Flute and Jazz Piano Trio≫의 수용사적 의미는 하나의 양식적 결합으로만 설명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작품은 클래식의 제도적 권위, 대중적 감상 가능성, 반복 가능한 매체적 형식이 결합되는 과정 속에서 크로스오버 레퍼토리로 자리 잡았다. 따라서 이 사례는 미들브로우 수용 구조가 고급문화의 권위와 대중적 접근성을 대립적으로 배치하지 않고, 하나의 작품 안에서 함께 구성하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5. 논의

≪Suite for Flute and Jazz Piano Trio≫를 둘러싼 비평의 양가성은 단순히 음악적 완성도에 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재즈 비평은 즉흥성, 자율성, 실험성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았고, 클래식 수용 담론은 랑팔의 연주, 악보화된 플루트 파트, 클래식 음반사의 분류를 통해 작품에 신뢰와 권위를 부여하였다. 이와 같은 상반된 평가는

38) Sally Faulkner, “Introduction: Approaching the Middlebrow: Audience; Text; Institution,” in Middlebrow Cinema, ed. Sally Faulkner, London: Routledge, 2016, pp.1-12.

하나의 작품에 서로 다른 장르 기준이 적용될 때 발생하는 수용상의 긴장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이러한 논의는 클래식-재즈 크로스오버 연구의 초점을 작품 내부의 양식 분석에서 수용의 조건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Suite for Flute and Jazz Piano Trio≫의 의미는 작품을 어떤 장르명으로 부를 것인가, 어떤 음반 범주 안에 배치할 것인가, 어떤 청중에게 소개할 것인가, 후대의 연주와 편곡 속에서 어떤 레퍼토리로 재제시할 것인가의 과정 속에서 형성되었다. 이처럼 크로스오버 작품의 수용사적 의미는 악곡의 구조와 더불어 비평 언어, 음반 산업, 매체적 유통, 후대 연주 실천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미들브로우 문화의 관점은 이러한 수용 구조를 해석하는 데 유효한 틀을 제공한다. 이 작품은 클래식 음악의 권위를 유지하면서도, 감상하기 쉬운 형식과 친숙한 음악 언어를 통해 넓은 청중에게 다가갈 수 있었다. 여기서 대중적 접근성은 예술적 가치의 약화를 뜻하지 않는다. 오히려 볼링의 발언에서 확인되듯, 즐거움, 취향, 품질의 언어는 대중적 감상 가능성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제시되었다. 이 점에서 ≪Suite for Flute and Jazz Piano Trio≫는 고급문화의 권위와 대중적 접근성이 서로 배제되지 않고, 하나의 수용 구조 안에서 함께 구성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6.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클로드 볼링의 ≪Suite for Flute and Jazz Piano Trio≫를 대상으로, 1970년대 이후 비평 담론, 음반 유통, 차트 기록, 후대 공연·편곡 자료 속에서 이 작품이 어떠한 수용사적 의미를 형성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 작품은 재즈, 클래식, 크로스오버, 서드 스트림의 경계에서 유동적으로 명명되었으며, 그 평가는 각 장르가 요구하는 미학적 기준과 연주 관습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었다. 랑팔의 참여와 CBS Masterworks의 분류는 작품을 클래식 음악의 권위 안에 위치시켰고, 라

디오 소개와 장기 차트 체류, 감상 용이성에 관한 언어는 이 작품이 넓은 청중에게 접근 가능한 대상으로 수용되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후대 편곡, 재녹음, 공연은 이 작품이 최초 음반의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플루트 레퍼토리 안에서 반복적으로 재맥락화되었음을 확인하게 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Suite for Flute and Jazz Piano Trio≫를 양식 혼합의 사례로만 다루지 않고, 비평 언어와 음반 산업, 연주자 권위, 후대 레퍼토리화가 교차하는 수용사적 과정 속에서 해석했다는 데 있다. 기존의 클래식-재즈 크로스오버 연구가 주로 작곡 기법과 연주 양식의 특징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해 왔다면, 본 연구는 특정 작품이 실제 비평 담론과 음반 유통, 후대 연주 실천 속에서 어떠한 문화적 위치를 획득했는지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특히 이 작품의 결함이나 장르적 불안정성으로 환원하기 어렵다. 재즈의 즉흥성과 실험성을 중시하는 기준, 클래식 음악의 제도적 권위, 대중적 감상 가능성이 한 작품의 수용 과정 안에서 함께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클래식-재즈 크로스오버의 의미가 작품 내부의 양식적 특징에 고정되지 않고, 그것을 설명하고 유통하며 지속적으로 제시되는 문화적 조건 속에서 형성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다만 본 연구는 단일 작품을 대상으로 한 질적 자료 분석 연구이므로, 그 결과를 클래식-재즈 크로스오버 전체의 일반적 양상으로 확대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또한 실제 청취자 조사를 수행하지 않았고, 음반 판매량이나 공연 빈도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한계를 지닌다. 후속 연구에서는 볼링의 다른 크로스오버 모음곡, 서드 스트림 계열 작품, 1970년대 이후 주요 클래식-재즈 크로스오버 음반을 비교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공연 프로그램, 음반 판매 자료, 청중 반응, 교육 현장에서의 레퍼토리 수용을 함께 검토한다면, 클래식-재즈 크로스오버가 장르 경계와 문화적 권위를 재구성하는 과정을 한층 입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Chowrimootoo, Christopher. *Middlebrow Modernism: Britten's Operas and the Great Divide*, Oakland: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8.

Fairclough, Norman. *Critical Discourse Analysis: The Critical Study of Language*, London and New York: Longman, 1995.

Fairclough, Norman. *Analysing Discourse: Textual Analysis for Social Research*,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3.

Lopes, Paul. *The Rise of a Jazz Art Worl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Schuller, Gunther. *Musings: The Musical Worlds of Gunther Schulle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6.

논문

박기웅·조정연,「현대소비사회에서의 취향과 유행의 상관성과 대중문화의 역할」,『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10권 2호, 한국콘텐츠학회, 2010, 165-175쪽.

이태윤,「대중음악 편곡 기법을 활용한 클래식곡의 연주에 관한 연구: 리듬섹션을 중심으로」,『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17권 9호, 한국산학기술학회, 2016, 458-463쪽.

DeVeaux, Scott. "Constructing the Jazz Tradition: Jazz Historiography", Black American Literature Forum, vol.25, no.3, 1991, pp.525-560.

Fabbri, Franco. "A Theory of Musical Genres: Two Applications", in Popular Music Perspectives, eds. David Horn and Philip Tagg, Göteborg and Exeter: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Popular Music, 1982, pp.52-81.

Faulkner, Sally. "Introduction: Approaching the Middlebrow: Audience; Text; Institution", in Middlebrow Cinema, ed. Sally Faulkner, London: Routledge, 2016, pp.1-12.

Hammill, Faye. "Modernism and the Middlebrow", in The Cambridge

History of American Modernism, ed. Mark Whala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3, pp.98-112.

Keightley, Keir. "Reconsidering Rock", in The Cambridge Companion to Pop and Rock, eds. Simon Frith, Will Straw and John Stree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pp.109-142.

Kim, Min Hee. Jazz Language in Through-Composed Chamber Works for Flute by Claude Bolling, Nikolai Kapustin, and Mike Mower, D.M.A. document, University of Cincinnati, 2018.

Stanbridge, Alan. "From the Margins to the Mainstream: Jazz, Social Relations, and Discourses of Value", Critical Studies in Improvisation / Études critiques en improvisation, vol.4, no.1, 2008.

Stuessy, Clarence Joseph Jr. The Confluence of Jazz and Classical Music from 1950 to 1970,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Rochester, 1977.

Tracy, Daniel. "Investing in 'Modernism': Smart Magazines, Parody, and Middlebrow Professional Judgment", The Journal of Modern Periodical Studies, vol.1, no.1, 2010, pp.38-63.

신문·잡지 및 보도자료

Fordham, John. "Claude Bolling Obituary", <The Guardian>, December 31, 2020.

Genzlinger, Neil. "Claude Bolling, Jazzman With Crossover Appeal, Dies at 90", <The New York Times>, January 9, 2021.

Kozinn, Allan. "Mixing Jazz and Classic Styles", <The New York Times>, March 21, 1982.

Langer, Emily. "Claude Bolling, French Pianist Who Melded Jazz and Classical Music, Dies at 90", <The Washington Post>, December 31, 2020.

Miller, Tess. "O'Reilly Street: James Galway and Tiempo Libre", The Flutist Quarterly, Spring 2009, p.71.

Record World. “Classical Retail Report”, <Record World>, December 6, 1975, p.44.

Record World. “Classical Retail Report”, <Record World>, December 20, 1975, p.50.

Sklar, Pamela. “Claude Bolling: A Living Legend Turns 80”, The Flutist Quarterly, vol.35, no.4, Summer 2010, pp.34-37.

Tsioulcas, Anastasia. “Pianist Claude Bolling, Creator of Popular Jazz/Classical Suites, Has Died”, <National Public Radio>, December 31, 2020.

인터넷 사이트

<All About Jazz>,
https://www.allaboutjazz.com/symphonic-arrangement-suite-for-flute-and-jazz-piano-trio-steve-barta-self-produced-review-by-c-michael-bailey, 2026.05.09.

<The Babel Flute>,
https://thebabelflute.com/symphonic-arrangement-of-claude-bolling-suite-for-flute-jazz-piano/, 2026.05.09.

<Flute Almanac>,
https://flutealmanac.com/event/premiere-of-claude-bollings-suite-for-flute-and-jazz-piano-trio/2025-07-16/, 2026.05.09.

<Frémeaux & Associés>,
https://www.fremeaux.com/en/2059-claude-bolling-big-band-60-ans-3448960852326-fa8523.html, 2026.05.15.

<Internet Archive>,
https://archive.org/details/Jean-Pierre-RampalClaude-Bolling_Suite-For-Flute-And-Jazz-Piano, 2026.05.02.

<Gramophone>,
https://www.gramophone.co.uk/reviews/james-galway-oreilly-street, 2026.05.16.

<PAN M 360>,
https://panm360.com/en/records/nadia-labrie-flute-passion-hommage-a-claude-bolling/, 2026.05.09.
<La Scena Musicale>,
https://myscena.org/fr/dino-spaziani/critique-premiere-de-lalbum-flute-passion-de-nadia-labrie/, 2026.05.09.
<AllMusic>,
https://www.allmusic.com/album/claude-bolling-suite-for-flute-and-jazz-piano-trio-mw0000623863, 2026.05.14.

음반 및 기타 자료

Bolling, Claude & Jean-Pierre Rampal. ≪Suite for Flute and Jazz Piano Trio≫, CBS Masterworks M 33233, LP, 1975.
Bolling, Claude & Jean-Pierre Rampal. ≪Suite for Flute and Jazz Piano Trio≫, Sony Classical, reissue, MK37264.
Galway, James & Tiempo Libre. ≪O'Reilly Street≫, RCA Red Seal, 2008.
Labrie, Nadia. ≪Flute Passion: Claude Bolling≫, ATMA Classique, Canada, 2024.

국문초록

본 연구는 클로드 볼링(Claude Bolling)의 ≪Suite for Flute and Jazz Piano Trio≫를 중심으로 클래식-재즈 크로스오버 작품이 비평 담론과 수용 과정 속에서 어떠한 장르적·문화적 의미를 형성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동시대 비평 자료, 인터뷰, 음반 파라텍스트, 빌보드 차트 및 음반 산업 자료, 후대 공연·편곡 자료를 대상으로 작품의 장르 명명, 대중적 접근성, 클래식 권위, 후대 레퍼토리화 과정을 질적으로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이 작품은 재즈와 클래식의 평가 기준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수용되었으며, 랑팔의 참여와 CBS Masterworks 발매를 통해 클래식 음악의 권위를 획득하는 동시에 감상 용이성과 음반 유통을 통해 대중적 확산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후대 공연, 편곡, 재녹음 자료는 이 작품이 일회적 흥행 사례에 머물지 않고 크로스오버 레퍼토리로 지속적으로 재맥락화되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클래식-재즈 크로스오버의 의미가 악곡 내부의 양식적 결합에 그치지 않고, 비평 언어, 음반 산업, 연주자 권위, 매체적 반복이 함께 작용하는 미들브로우적 수용 구조 속에서 형성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주제어 ● 클로드 볼링, 플루트와 재즈 피아노 트리오를 위한 모음곡, 클래식-재즈 크로스오버, 미들브로우 문화, 수용사

Abstract

Critical Ambivalence and the Middlebrow Reception of Classical Jazz Crossover
: Focusing on Claude Bolling's ≪Suite for Flute and Jazz Piano Trio≫

Chun, Min Kyeong / Sungkyu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how Claude Bolling's *Suite for Flute and Jazz Piano Trio* constructed its generic and cultural meaning within critical discourse and reception history. Drawing on reviews, interviews, album paratext, Billboard-related materials, and later performance and arrangement sources, it analyzes the work's genre labeling, public accessibility, classical authority, and repertorialization. The analysis shows that the work was received between jazz and classical evaluative criteria, gaining classical legitimacy through Jean-Pierre Rampal's participation and its CBS Masterworks release while securing broad public visibility through accessibility and long-term chart presence. Later performances, arrangements, and recordings further reveal that the work was repeatedly recontextualized as part of the crossover repertory. This study argues that the meaning of classical jazz crossover is shaped not only by stylistic combination, but also by a middlebrow reception structure involving critical language, recording-industry mediation, performer authority, and repeated media circulation.

Keyword ● Claude Bolling, Suite for Flute and Jazz Piano Trio, Classical Jazz crossover, Middlebrow culture, Reception history

▌논문투고일:2026.05.31. ▌심사완료일:2026.06.22. ▌게재확정일:2026.06.25. ▌

● ● ● https://doi.org/10.54698/kl.2026.21.285
지식과 교양, 제21호,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Knowledge and Liberal Arts, Vol. 21, LIC, pp.285-310.

초등학교 진로연계교육 활동 운영에 대한 요구 분석*

강 경 균 · 성 은 모 · 한 슬 기**

목 차

1. 서론
2. 이론적 고찰
3. 연구의 방법
4. 연구의 결과
5. 결론 및 제언

1. 서론

2022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은 학교급 간 전환기 학생의 진로교육 강화를 위해 '진로연계교육'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였다(교육부, 2022). 진로연계교육은 총론의 기본 사항에 명시되어 입학 초기 적응, 중학교 생활 및 학습 준비, 교과와 연계한 진로활동 등을 포괄하는 제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초등학교 1학년 1학기와 6학년 2학기를 중심으로 의무적으로 편성·운영하도록 안내하고 있다(장현진, 2023b). 이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를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탐색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도록 지

* 본 논문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2022 개정 교육과정 중심으로(연구보고25-기본03)' 연구를 발췌하여 재구성한 것임.
** 강경균(제1저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성은모(교신저자) 국립경국대학교 교수
한슬기(제3저자) 국립경국대학교 박사수료

원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진로교육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를 제도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초등학교 단계의 진로교육은 특정 직업 준비를 위한 전문교육이 아니라, 자기이해와 일의 세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삶을 주체적으로 설계하는 능력을 기르는 삶의 기초교육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진로교육은 교양교육으로서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진로교육이 입시 중심의 교육 환경 속에서 특정 학교급 또는 학년의 진학이나 취업 준비를 위한 교육으로 인식되어 자기이해, 일의 가치 인식, 삶의 설계 등 교양교육으로서의 본질적 내용은 체계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하고, 직업 정보 제공이나 진로 검사 중심의 단편적 활동에 머무는 실정이다. 또한 초등학교의 경우 진로교육을 하나의 교과목으로서 가르치는 것 보다 학교 현장에서 체계적이지 못하게 운영되는 한계가 반복되어 왔다(장현진, 2023a, 2023b).

초등학교에서 진로교육의 중심 교과는 역사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실과이며, 특히 기술 영역은 발명, 농생명, 정보, 로봇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되어 직업세계 탐색 및 진로역량 함양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왔다(김형균, 2025; 장현진, 2023a). 실과교과의 기술 내용은 산업, 직업, 진로와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어(박광렬·박수진, 2025), 진로연계교육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핵심 기반이 될 수 있다.

그러나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진로연계교육이 강조되는 흐름과 달리, 실과 교육과정 내 진로교육 내용은 오히려 크게 축소되었다. 제7차 교육과정부터 유지되어 온 독립적 진로 영역 또는 단원이 2022 개정에서는 삭제되고, 독립되어 제시된 성취기준도 한 개([6실01-07])에 불과한 실정이다(장현진, 2023a). 또한 장현진(2023b)의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과 교육과정 전반에서 진로연계교육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으며, 기술 영역을 포함한 실과 교과는 진로연계교육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아 교과서 개발 및 수업 운영에서의 실질적 반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이다. 한편, 수시 개정 교육과정기의 실과 검정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진로 영역 단원이 전체 교과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6%에 불과하여, 그 중요도에 비해 양적·질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 한계로 제시되었다(김형균, 2025).

이처럼 제도적으로는 진로연계교육이 강화되고 있는 반면, 초등교육 현장에서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진로연계교육 관련 초등학교 현장 교사와 학생의 요구를 반영한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는 미흡하여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도입된 진로연계교육에 대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의 요구를 조사·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진로교육에서의 진로연계교육 운영 방안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첫째, 초등학생의 진로에 대한 자기주도성에 대하여 조사 및 분석한다. 둘째, 초등학생의 진로연계교육 활동 내용에 대한 요구를 분석한다. 셋째, 초등학생의 진로연계교육 활동 방법에 대한 요구를 조사 및 분석한다. 넷째, 초등학생의 진로연계교육 운영 시간에 대한 요구를 조사 및 분석한다.

2. 이론적 고찰

1) 초등학교 진로교육 목표 및 내용

초등학교는 진로발달에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진로교육은 평생학습차원에서 다루어지는 것으로 진로교육법에 4조에 따르면, '변화하는 직업세계와 평생학습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스스로 진로를 개척하고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는 진로개발역량의 함양'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진로교육에 있어 초등학생의 진로교육은 올바른 진로 인식을 함양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진로를 개발하기 위한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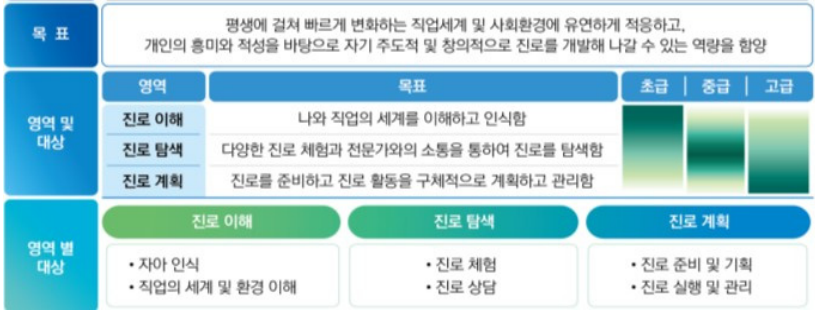
신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정철영, 2011).

우리나라 진로교육은 국가차원에서 초·중·고등학교 각 학급별 목표와 성취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교육부(2015년)에서는 4개의 대영역을 제시하고 있다. 진로교육의 내용으로는 자아 이해와 사회적 역량 개발,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 진로 탐색, 진로 디자인과 준비를 중심으로 학생의 진로 발달 단계에 따라 초점을 두어 제시하고 있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24).

[표 1] 학교 진로교육 대영역 및 중영역 내용(한국직업능력연구원, 2024)

내용	성취기준
Ⅰ. 자아 이해와 사회적 역량 개발	1. 자아 이해 및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
	2.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역량 개발
Ⅱ.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	1. 일과 직업의 이해
	2. 건강한 직업의식 형성
Ⅲ. 진로탐색	1. 교육 기회의 탐색
	2. 직업 정보의 탐색
Ⅳ. 진로디자인과 준비	1. 진로의사결정능력 개발
	2. 진로계획과 준비

이러한 진로교육 목표 및 성취기준은 각 단계에 따라 목표와 내용을 진술 할 수 있다.



[그림 1] 청소년 진로활동 프로그램 모형(강경균, 2025)

강경균(2025)의 청소년 진로활동 프로그램 모형에 따르면, 진로교육의 영역과 내용으로 초등학생의 경우는 진로 이해단계로서 나와 직업의 세계를 이해하고 인식하는 단계이다. 중학생의 경우는 진로 탐색의 단계로 다양한 진로 체험과 전문가와의 소통을 통하여 진로를 탐색하는 단계이며, 고등학생의 경우는 진로 설계 단계로, 진로를 준비하고 진로활동을 구체적으로 기획하고 관리하는 단계이다(강경균, 2025). 대상별 목표에 따른 진로 영역의 내용을 살펴보면, 각 대상에 따른 영역과 내용은 각 수준에서 중점적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진로와 이해영역은 진로 영역의 '초급' 수준에서 중점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영역별 활동 내용으로는 초등학생의 경우 진로 이해 영역에서 자아 인식, 직업의 세계 및 환경 이해 활동이 필요하다.

2)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의 진로연계교육 운영

교육부에서 2022년 12월 22일에 고시된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24년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일부 개정되었으며, 2025년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되며, 2027년에는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적용될 국가교육과정이다(국가교육위원회, 2024, p.6).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이후의 내용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내용을 2015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학교 교육과정 개정 방향 비교(2015/2022 개정 교육과정)[1)]

구분	주요내용	
	2015 개정 교육과정	2022 개정
교육과정 개정 방향	○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 모든 학생이 인문·사회·과학기술에 대한 기초 소	○ 기후·생태환경 변화 등에 대한 대응 능력 및 지속가능성 등 공동체적 가치 함양 및 공동체 의식 강화

1) 교육부-2022 개정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확정·발표,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lev=0&statusYN=W&s=moe&m=020402&opType=N&boardSeq=93459, 2022.12.22.

			양 함양 ○ 학습량 적정화,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 개선을 통한 핵심역량 함양 교육 ○ 교육과정과 수능·대입제도 연계, 교원 연수 등 교육 전반 개선	○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생이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하고, 지역·학교 간 교육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지원 체제를 마련 ○ 지역 연계 및 학생의 필요를 고려한 선택과목을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자율시간을 도입 ○ **학교 생활 적응을 지원하는 진로연계교육 근거 마련**
총론	공통사항	역량 함양 강화	○ 연극교육 활성화 - (초·중) 국어 연극 단원 신설 ○ 독서교육 활성화	○ **디지털 기초소양, 자기주도성, 지속가능성, 포용성과 시민성, 창의와 혁신 등 미래사회 요구 역량 지향**
		창의적 체험활동	○ 창의적 체험활동 내실화 -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4개)	○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 개선(3개) - **자율·자치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 봉사활동은 동아리 활동 영역에 편성되어 있으며, 모든 활동과 연계 가능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내용 중 비전 및 추구하는 인간상을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제시하면서 개정 방향의 내용 중 학교 생활 적응을 지원하는 진로연계교육 근거를 마련하게 하였다. 구체적으로 총론에서 진로와 학습의 주도적 설계 및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 마련을 하기 위하여 학교자율시간 도입 및 진로연계교육을 도입하여 운영하였다.

[표 3]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중 초등학교 진로연계교육 운영 내용[2)]

구분		진로교육 및 진로연계교육 관련 내용 및 근거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학교급별 교육목표	<초등학교 교육 목표>초등학교 교육의 학생의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습관 미 기초 능력을 기르고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	기본사항	아. 학교는 학교급 간 전환기의 학생들이 상급 학교의 생활 및 학습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진로연계교육을 운영할 수 있다.**

2) 교육부-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22-33(별책1),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141&boardSeq=93458&lev=0&searchType=null&statusYN=W, 2022.12.22.

운영의 기준	초등학교	4) 학교는 입학 초기 및 상급 학교(학년)으로 진학하기 전 학기의 일부 시간을 활용하여 학교급 간 연계 및 진로 교육을 강화하는 진로연계교육을 편성·운영한다. 나) 학교는 중학교의 생활 및 학습 준비, 진로 탐색 등의 프로그램을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진로연계교육을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다) 학교는 진로연계교육의 중점을 학생의 역량 함양 및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에 두고, 교과별 학습 내용 및 학습 방법의 학교급 간 연계, 교과와 연계한 진로 활동 등을 통해 학생의 학습과 성장을 지원한다.

3. 연구의 방법

(1) 조사 대상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도입된 진로연계학기에 대한 초등학생의 인식과 요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4학년~초등학교 6학년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조사를 위한 표집틀은 2024년 교육통계연보를 활용하였으며, 표본수는 초등학교 3.000명을 목표 표본수로 정하였다. 실제 조사결과, 초등학생 2,902명이 조사되었다. 표집방법은 전국 17개 시도 초등학교 3개 학년을 변형비례 층화다단계집략표집을 통해 지역, 학년, 성별 등을 대표성 있게 추출하였다. 추가적으로 17개 시도 내에서 다시 시·군·구 구분에 따른 내재적 층화를 고려하여 표본의 지역적 분포를 더욱 세밀하게 통제하여 표집하였다. 설문 조사는 학교별로 고유 접속 링크를 부여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하였으며, 응답자인 초등학생이 자기 기입식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2) 조사 도구 개발

본 연구의 설문지는 다음과 같은 체계적 절차를 거쳐 개발되었다. 진로연계 교육의 문항의 경우, 2022년 개정교육과정을 기초로 문헌고찰 및 연구보고서(성은모 외, 2024; 손단비, 2016; 이주연 외, 2023)를 고찰한 후,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조사 영역과 문항 초안을 구성하였다. 이후 설

문지의 내용 타당성을 확보를 위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학계, 현장 교사, 학교, 교육청 관계자 등 총 8인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서면 자문을 실시하여 최종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완성된 설문지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승인(202504-HR-004)을 거쳐 확정되었다. 본 연구의 설문지는 진로연계교육에 대한 내용으로 진로연계 활동에 대한 요구, 활동방법, 활동 시간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영역의 설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4] 설문조사 영역 및 요인

영 역	내용
진로연계교육	자기성장주도성
	진로연계교육 희망 활동
	진로연계교육 활동방법
	진로연계교육 희망시간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 학업성적, 가정의 경제수준

진로연계교육 문항은 총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진로연계교육에 대하여 설명을 한 후, 진로연계교육을 위한 희망활동, 진로연계교육 활동 방법, 진로연계교육 희망시간을 설문하였으며, 자기성장주도성을 통해 스스로 나아지려고 하는 능력에 대하여 7문항을 구성하여 설문을 진행하였다. 자기성장주도성은 자신의 변화와 발달과정에 적극적이고 의도적으로 관여하는 성향(Robitschek, 1998)을 의미하고, 본 연구에서는 한국판 자기성장주도성 측정도구를 개발한 손단비(2016) 연구와 이를 청소년에 맞게 개발한 성은모 외(2024)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문항을 재구성하였다. 이 측정도구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834로 나타났다.

진로연계교육 희망활동에 대한 응답의 경우, ① 자신감 증진 활동, ② 친구와의 긍정적 관계 형성 활동, ③ 교사와의 긍정적 관계 형성 활동, ④ 학교 행사 및 동아리 안내 활동, ⑤ 다음 학년 교과목 안내 및 학습 준비 활

동, ⑥ 다음 학년에서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 및 학습 준비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진로연계교육 활동 방법으로는 ① 담임교사와의 활동, ② 진로와 중학교 입학에 대해 상담해 주시는 선생님과의 활동, ③ 중학교 진학 선배와의 활동, ④ 또래 친구들과의 활동, ⑤ 지역사회 전문가와의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진로연계교육 운영 시간의 경우는 ① 교과 수업 시간, ②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③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외 수업 시간, ④ 선생님과 학생이 자율적으로 선택한 수업 시간으로 구성하였다. 위의 진로연계교육 활동에 대한 문항은 초등학생이 가장 희망하는 내용을 선택하는 단일 선택형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자기주도성은 총 7문항으로 응답은 5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를 적용하였다.

(3) 자료 수집 및 분석

자료수집은 온라인 웹페이지를 통한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2025년 5월부터 6월까지 실시되었다. 목표 표본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불성실 응답(연속 동일 번호 선택, 무응답 과다 등)을 제외한 최종 유효 응답 수는 2,902명이었으며, 이를 본 연구의 최종 분석 대상으로 활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8.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대상의 배경 특성에 따른 자기주도성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성별은 독립표본 t검증(independent samples t-test)을, 학년·학업성적·경제수준·지역규모는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된 경우에는 Scheffé의 사후검증을 통해 구체적인 집단 간 차이를 파악하였다. 둘째, 초등학생들이 요구하는 진로연계교육 활동 내용, 활동 방법, 활동시간에 대해서 빈도와 백분율로 분포를 산출하였다. 아울러 배경 변인(성별, 학년, 학업성적, 경제수준,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증(χ^2-test)을 실시하였다. 통계적 유의 수준은 $p<.05$이하 수준으로 적용하였다.

4. 연구의 결과

2022 개정 교육과정 내용 중 '진로연계교육'의 영역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요구조사에 참여한 초등학생은 총 2,902명이었다. 성별은 남학생이 51.2%(1,486명), 여학생이 48.8%(1,416명)이었으며, 학년별로는 4학년이 32.1%(932명), 5학년이 32.2%(934명), 6학년이 35.7%(1,036명)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학업성적은 하위권 7.0%(203명), 중위권 39.5%(1,147명), 상위권 53.5%(1,552명)로 상위권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경제수준은 하위가 4.6%(134명), 중위가 51.6%(1,497명), 상위가 43.8%(1,271명)로, 중위 수준 가정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지역규모는 대도시가 37.7%(1,093명), 중소도시가 44.4%(1,288명), 읍면지역이 18.0%(522명)으로 중소도시 비율이 가장 높았다.

(1) 초등학생의 자기성장주도성 분석 결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기성장주도성 조사 결과, 전체 평균은 3.11점(표준편차=.54)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5] 자기성장주도성에 대한 문항 평균(초등학생)

구분		전체(명)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2,902**	**3.11**	**.54**	-
성별	남	1,486	3.15	.53	4.602**
	여	1,416	3.06	.54	
학년	4학년(a)	932	3.11	.51	.078
	5학년(b)	934	3.10	.54	
	6학년(c)	1,036	3.11	.55	
학업성적	상(a)	1,552	3.23	.54	96.657** a>b>c
	중(b)	1,147	2.98	.47	
	하(c)	203	2.89	.60	

경제수준	상(a)	1,271	3.25	.53	83.365** a>b,c
	중(b)	1,497	3.01	.50	
	하(c)	134	2.92	.59	
지역규모	대도시(a)	1,093	3.11	.53	.975
	중소도시(b)	1,288	3.10	.52	
	읍면지역(c)	522	3.14	.57	

**p<.01

성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학생(M=3.15)이 여학생(M=3.06)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t=4.60, p<.01).

학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4학년(M=3.11)과 6학년(M=3.11)이 5학년(M=3.10)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F=.078, p>.05). 다음으로 학업성적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적 상위 집단(M=3.23)이 가장 높았으며, 중위 집단(M=2.98), 하위 집단(M=2.98)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F=96.657, p<.01). 다음으로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상위 수준 집단(M=3.25), 중위 수준 집단(M=3.01), 그리고 하위 수준 집단(M=2.92)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p=83.365, p<.01). 마지막으로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읍면지역(M=3.14)이 가장 높고, 대도시(M = 3.11), 중소도시(M=3.10)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F=.975, p>.05).

(2) 진로연계교육을 위한 학습자 요구 활동 분석 결과

초등학생들이 진로연계교육을 위해 희망하는 활동을 살펴본 결과, 학교 행사 및 동아리 안내 활동(32.1%)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친구와의 긍정적 관계 형성 활동(30.5%), 자신감 증진 활동(12.7%),

다음 학년에서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 및 학업성적 향상 활동(10.7%), 다음 학년 교과목 안내 및 학습 준비 활동(7.0%), 교사와의 긍정적 관계 형성 활동(3.7%)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3.3%)에는 체육활동, 진로탐색 관련 활동 등이 포함되었다.

[표 6] 진로연계교육을 위해 원하는 활동(초등학교)

(단위: 명(%))

구분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χ^2
전체		2,902 (100)	368 (12.7)	885 (30.5)	107 (3.7)	932 (32.1)	203 (7.0)	311 (10.7)	96 (3.3)	
성별	남	1,486 (100)	234 (15.7)	446 (30.0)	67 (4.5)	406 (27.3)	107 (7.2)	167 (11.2)	59 (4.0)	55.749**
	여	1,415 (100)	133 (9.4)	439 (31.0)	40 (2.8)	526 (37.2)	96 (6.8)	144 (10.2)	37 (2.6)	
학년	4학년	932 (100)	133 (14.3)	294 (31.5)	36 (3.9)	282 (30.3)	66 (7.1)	90 (9.7)	31 (3.3)	33.048**
	5학년	934 (100)	123 (13.2)	307 (32.9)	44 (4.7)	292 (31.3)	59 (6.3)	81 (8.7)	28 (3.0)	
	6학년	1,036 (100)	112 (10.8)	284 (27.4)	27 (2.6)	358 (34.6)	78 (7.5)	140 (13.5)	37 (3.6)	
학업 성적	상	1,551 (100)	186 (12.0)	444 (28.6)	59 (3.8)	491 (31.7)	125 (8.1)	190 (12.3)	56 (3.6)	28.850**
	중	1,146 (100)	147 (12.8)	380 (33.2)	35 (3.1)	382 (33.3)	65 (5.7)	101 (8.8)	36 (3.1)	
	하	203 (100)	34 (16.7)	60 (29.6)	13 (6.4)	59 (29.1)	13 (6.4)	20 (9.9)	4 (2.0)	
경제 수준	상	1,271 (100)	180 (14.2)	384 (30.2)	44 (3.5)	382 (30.1)	89 (7.0)	141 (11.1)	51 (4.0)	27.233**
	중	1,496 (100)	169 (11.3)	470 (31.4)	59 (3.9)	504 (33.7)	110 (7.4)	146 (9.8)	38 (2.5)	
	하	134 (100)	17 (12.7)	31 (23.1)	4 (3.0)	46 (34.3)	5 (3.7)	24 (17.9)	7 (5.2)	

지역 규모	대 도시	1,092 (100)	131 (12.0)	354 (32.4)	37 (3.4)	352 (32.2)	74 (6.8)	112 (10.3)	32 (2.9)	13.238
	중소 도시	1,289 (100)	158 (12.3)	394 (30.6)	45 (3.5)	408 (31.7)	97 (7.5)	145 (11.2)	42 (3.3)	
	읍면 지역	520 (100)	77 (14.8)	137 (26.3)	25 (4.8)	172 (33.1)	32 (6.2)	54 (10.4)	23 (4.4)	

$^{**}p<.01$

①자신감 증진 활동, ② 친구와의 긍정적 관계 형성 활동, ③ 교사와의 긍정적 관계 형성 활동, ④ 학교 행사 및 동아리 안내 활동, ⑤ 다음 학년 교과목 안내 및 학습 준비 활동, ⑥ 다음 학년에서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 및 학업성적 향상 활동, ⑦ 기타

초등학생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학생은 친구와의 긍정적 관계 형성 활동(30.0%)과 학교 행사·동아리 안내 활동(27.3%)을 주로 선택한 반면, 여학생은 학교 행사·동아리 안내 활동(37.2%)과 친구와의 긍정적 관계 형성 활동(31.0%)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선택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χ^2=55.75, p<.01). 다음으로 학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4학년과 5학년은 친구와의 긍정적 관계 형성 활동(4학년 31.5%, 5학년 32.9%)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나, 6학년은 학교 행사·동아리 안내 활동(34.6%)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학년에 따른 분포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χ^2=33.05, p<.01). 학업성적에 따른 차이를 보면, 상위권 학생은 학교 행사·동아리 안내 활동(31.7%)과 친구 관계 형성 활동(28.6%), 중위권 학생은 학교 행사·동아리 안내 활동(33.3%)과 친구 관계 형성 활동(33.2%) 순으로 선택하였으나, 하위권 학생은 친구 관계 형성 활동(29.6%)과 학교 행사·동아리 안내 활동(29.1%)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χ^2=28.85, p<.01).

다음으로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상위 경제수준 학생은 친구 관계 형성 활동(30.2%)과 학교 행사·동아리 안내 활동(30.1%)을 비슷한 수준으로 선택하였으며, 중위 경제수준과 하위 경제수준 학생은 모

두 학교 행사·동아리 안내 활동(중위 33.7%, 하위 34.3%)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경제수준에 따른 분포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χ^2=27.23, p<.01). 마지막으로 지역규모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대도시와 중소도시 학생은 친구 관계 형성 활동(대도시 32.4%, 중소도시 30.6%)과 학교 행사·동아리 안내 활동(대도시 32.2%, 중소도시 31.7%)을 비슷한 수준으로 선택하였다. 반면, 읍·면 지역 학생은 학교 행사·동아리 안내 활동(33.1%)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χ^2=13.24, p>.05).

(3) '진로연계교육 운영 시 함께 참여하고 싶은 사람'에 대한 분석 결과

초등학생들이 진로연계교육 시 함께 참여하고 싶은 대상으로는 또래 친구들(62.8%)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담임교사(12.4%), 진로·중학교 상담 교사(8.7%), 중학교 진학 선배(8.4%), 지역사회 전문가(5.3%)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2.4%)에는 가족, 온라인 등이 포함되었다.

[표 7] 진로연계교육 시 함께 참여하고 싶은 사람(초등학교)

(단위: 명(%))

구분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⑥	χ^2
전체		2,902 (100)	361 (12.4)	253 (8.7)	242 (8.4)	1822 (62.8)	153 (5.3)	71 (2.4)	
성별	남	1,486 (100)	215 (14.5)	108 (7.3)	114 (7.7)	896 (60.3)	106 (7.1)	47 (3.2)	49.412**
	여	1,416 (100)	146 (10.3)	145 (10.2)	128 (9.0)	927 (65.5)	46 (3.2)	24 (1.7)	
학년	4학년	933 (100)	156 (16.7)	64 (6.9)	73 (7.8)	555 (59.5)	60 (6.4)	25 (2.7)	57.149**
	5학년	933 (100)	112 (12.0)	68 (7.3)	65 (7.0)	622 (66.7)	49 (5.3)	17 (1.8)	
	6학년	1,036 (100)	93 (9.0)	121 (11.7)	104 (10.0)	646 (62.4)	43 (4.2)	29 (2.8)	

학업 성적	상	1,552 (100)	185 (11.9)	136 (8.8)	134 (8.6)	973 (62.7)	84 (5.4)	40 (2.6)	7.858
	중	1,147 (100)	143 (12.5)	98 (8.5)	87 (7.6)	736 (64.2)	56 (4.9)	27 (2.4)	
	하	203 (100)	33 (16.3)	18 (8.9)	22 (10.8)	114 (56.2)	12 (5.9)	4 (2.0)	
경제 수준	상	1,270 (100)	155 (12.2)	121 (9.5)	110 (8.7)	771 (60.7)	78 (6.1)	35 (2.8)	10.497
	중	1,498 (100)	188 (12.6)	122 (8.1)	118 (7.9)	967 (64.6)	71 (4.7)	32 (2.1)	
	하	134 (100)	17 (12.7)	10 (7.5)	15 (11.2)	84 (62.7)	4 (3.0)	4 (3.0)	
지역 규모	대 도시	1,092 (100)	118 (108)	103 (9.4)	83 (7.6)	714 (65.4)	52 (4.8)	22 (2.0)	20.016*
	중소 도시	1,289 (100)	166 (12.9)	111 (8.6)	118 (9.2)	801 (62.1)	64 (5.0)	29 (2.2)	
	읍면 지역	521 (100)	77 (14.8)	39 (7.5)	41 (7.9)	307 (58.9)	37 (7.1)	20 (3.8)	

**p<.01, *p<.05
① 담임교사와의 활동, ② 진로와 중학교 입학에 대해 상담해 주시는 선생님과의 활동, ③ 중학교 진학 선배와의 활동, ④ 또래 친구들과의 활동, ⑤ 지역사회 전문가와의 활동, ⑥ 기타

초등학생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남학생(60.3%)과 여학생(65.5%) 모두 또래 친구와의 활동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그러나 남학생은 담임교사(14.5%)를 두 번째로 많이 선택한 반면, 여학생은 진로·중학교 상담 교사(10.2%)와 중학교 선배(9.0%)를 상대적으로 많이 선택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χ^2=49.41, p<.01).

초등학교의 경우, 모든 학년에서 또래 친구가 가장 많이 선택되었으나(4학년 59.5%, 5학년 66.7%, 6학년 62.4%), 4학년은 담임교사(16.7%)를 상대적으로 높게 선택했고, 6학년은 상담 교사(11.7%)와 중학교 선배(10.0%)를 다른 학년에 비해 높게 선택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χ^2=57.15, p<.01). 상·중·하 모든 성적 집단에서 또래 친구가 가장 높은 비율(상 62.7%, 중 64.2%, 하 56.2%)을 차지하였다. 다만, 하

위권 학생은 담임교사(16.3%)와 중학교 선배(10.8%)의 선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포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χ^2=7.86, p>.05).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에서도 세 집단 모두 또래 친구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상 60.7%, 중 64.6%, 하 62.7%). 상위 집단은 담임교사(12.2%)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하위 집단은 중학교 선배(11.2%)의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다소 높았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χ^2=10.50, p>.05).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또한,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지역 모두 또래 친구가 가장 많이 선택되었다(대도시 65.4%, 중소도시 62.1%, 읍면지역 58.9%). 그러나 읍면지역 학생은 담임교사(14.8%)를 다른 지역보다 높게 선택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χ^2=20.02, p<.05).

(4) '진로연계교육 시 희망시간'에 대한 분석 결과

초등학생들이 진로연계교육을 희망하는 시간으로는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시간(36.4%)이 가장 많이 선택되었으며, 그 다음은 교과 수업시간(31.7%), 선생님과 학생이 자율적으로 선택한 수업시간(20.9%), 교과 및 창체 외 수업시간(9.6%) 순이었다. 기타 응답은 1.4%에 불과하였다.

[표 8] 진로연계교육 시 희망시간(초등학교)

(단위: 명(%))

구분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χ^2
전체		2,902 (100)	921 (31.7)	1055 (36.4)	278 (9.6)	607 (20.9)	41 (1.4)	
성별	남	1,486 (100)	495 (33.3)	538 (36.2)	147 (9.9)	287 (19.3)	19 (1.3)	6.815
	여	1,417 (100)	427 (30.1)	518 (36.6)	130 (9.2)	320 (22.6)	22 (1.6)	
학년	4학년	932 (100)	247 (26.5)	386 (41.4)	96 (10.3)	193 (20.7)	10 (1.1)	35.113**
	5학년	934 (100)	288 (30.8)	344 (36.8)	89 (9.5)	201 (21.5)	12 (1.3)	

	6학년	1,036 (100)	386 (37.3)	326 (31.5)	92 (8.9)	213 (20.6)	19 (1.8)	
학업성적	상	1,552 (100)	521 (33.6)	549 (35.4)	138 (8.9)	324 (20.9)	20 (1.3)	8.575
	중	1,146 (100)	335 (29.2)	432 (37.7)	118 (10.3)	242 (21.1)	19 (1.7)	
	하	203 (100)	65 (32.0)	74 (36.5)	22 (10.8)	41 (20.2)	1 (0.5)	
경제수준	상	1,270 (100)	417 (32.8)	456 (35.9)	111 (8.97)	261 (20.6)	25 (2.0)	13.606
	중	1,498 (100)	452 (30.2)	558 (37.2)	153 (10.2)	322 (21.5)	13 (0.9)	
	하	133 (100)	52 (39.1)	42 (31.6)	13 (9.8)	24 (18.0)	2 (1.5)	
지역규모	대도시	1,093 (100)	343 (31.4)	404 (37.0)	105 (9.6)	225 (20.6)	16 (1.5)	6.436
	중소도시	1,288 (100)	408 (31.7)	453 (35.2)	118 (9.2)	291 (22.6)	18 (1.4)	
	읍면지역	523 (100)	171 (32.7)	198 (37.9)	55 (10.5)	92 (17.6)	7 (1.3)	

$^{**}p<.01$

① 교과 수업시간, ②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시간, ③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외 수업시간, ④ 선생님과 학생이 자율적으로 선택한 수업시간, ⑤ 기타

초등학생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학생(36.2%)과 여학생(36.6%) 모두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시간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교과 수업시간(남 33.3%, 여 30.1%)을 많이 선택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chi^2=6.82$, $p>.05$). 학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4학년은 창체(41.4%)를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교과(26.5%)를 선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5학년도 창체(36.8%)가 가장 많았으나 교과(30.8%)도 높게 나타났다. 반면, 6학년은 교과 수업(37.3%)이 창체(31.5%)보다 높게 나타나 학년별로 선택 경향이 달랐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chi^2=35.11$, $p<.01$). 학업성적 상·중·하 모든 집단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 가장 많이 선

택되었으며(상 35.4%, 중 37.7%, 하 36.5%), 교과 수업시간이 그 뒤를 이었다. 이러한 분포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χ^2=8.58, p>.05). 경제수준별로는 상(35.9%), 중(37.2%) 학생들이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 가장 많이 선택되었으며, 교과 수업이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하위 경제수준 학생은 교과 수업(39.1%)을 더 많이 선택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χ^2=13.61, p>.05). 지역규모별로 살펴보면, 대도시(37.0%), 중소도시(35.2%), 읍·면 지역(37.9%) 모두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시간이 가장 많이 선택되었으며, 교과 수업이 그 뒤를 이었다(31.4%, 31.7%, 32.7%).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χ^2=6.44,p>.05).

5. 결론 및 제언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도입된 진로연계교육에 대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의 요구를 조사·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진로교육에서의 진로연계교육 운영 방안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4학년~초등학교 6학년의 재학생 2,90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성장주도성에 대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았고, 학년별로는 6학년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또한 학업성적은 상위권, 경제수준에서는 상위 수준, 지역규모에서는 읍면지역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성별, 학업성적, 경제수준에 따른 특성들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초등학생들이 진로연계교육에서 가장 많이 희망하는 활동은 '학교행사 및 동아리 안내 활동'과 '친구와의 긍정적 관계 형성 활동'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학년, 학업성적, 경제수준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친구와의 긍정적 관계 형성 활동'을

선호하였으며, 여학생은 '학교행사 및 동아리 안내 활동'을 선호하였다. 학년별로는 4학년과 5학년이 '친구와의 긍정적 관계 형성 활동'이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6학년은 '학교행사 및 동아리 안내 활동'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연계교육 운영 설계시 교과 및 창의적 체험 활동에 성별과 학년에 따른 요구 차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진로연계교육 시 함께 참여하고 싶은 대상으로 '또래 친구들과의 활동'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이는 성별, 학년, 지역규모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앞선 결과에서 확인된 '친구와의 긍정적 관계 형성'과 맞물려 초등학생들이 또래와 함께하는 관계 중심 활동을 강하게 선호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진로연계교육은 또래 협력적 경험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넷째, 진로연계교육 시간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시간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시간'과 '교과 수업시간'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문항과 관련하여 학년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4학년과 5학년은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시간'에 높은 응답을 하였으며, 6학년은 '교과 수업시간'에 높은 응답을 하였다. 이를 통해 진로연계교육 운영시에 학년 발달단계를 고려한 시간 배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4학년과 5학년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 중심으로, 6학년에서는 교과 수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학년 단계별 진로연계교육 편성·운영 기준을 정교화할 필요가 있으며,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 설계 지침과 실질적인 수업 모델 개발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22 개정 교육과정 취지에 부합하는 초등 진로교육 목표 및 성취기준 재정립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본 연구 결과, 학생들은 진로연계교육에서 자기성장, 관계 형성, 진로 탐색에 대한 높은 요구를 나타냈으나, 현행 교육과정은 이를 체계적으로 담아낼 진로교육 성취기준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국가 수준의 진로교육 총론이 국가 수준에서 2022 개

정 교육과정의 핵심역량 및 자기주도성 강조 방향과 정합성을 갖춘 초등학교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을 새롭게 정립하고, 이를 교과 교육과정 및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과 연동되도록 체계화하는 작업이 시급히 요구된다.

둘째, 학생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진로연계교육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앞서 제시한 국가 수준에서는 진로교육에 대한 공통 기준 및 성취기준을 제시하고, 학교·교사 수준에서는 학생 특성에 따른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맞춤형 지원 체계와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보급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육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별도의 진로연계교육 지원 방안이 정책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또래 협력 기반의 진로연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가 필요하다. 향후 진로연계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에는 교사 주도의 일방적 전달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 간 협력·토의·공동 프로젝트 등 또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한 관계 기반 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진로 탐색과 사회성 발달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강경균, 『청소년 진로 및 디지털 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연구보고 24-수탁0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4.

교육부-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22-33(별책1),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141&boardSeq=93458&lev=0&searchType=null&statusYN=W, 2022.12.22.

교육부-2022 개정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확정·발표,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lev=0&statusYN=W&s=moe&m=020402&opType=N&boardSeq=93459, 2022.12.22.

국가교육위원회,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4-3호 [별책1]』, 2024.

성은모·강경균·강수미·문성옥·유에스더, 『2024 충청남도 청소년활동 실태 및 요구조사. 충남: 충청남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2024.

이주연·정영근·김기철·전호재·임유나, 『 2022 개정 초·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 및 요구분석』,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슈페이퍼, 2023.

논문

김형균, 「수시 개정 교육과정기 실과 검정 교과서 진로 영역 단원의 체제 비교분석」, 『한국실과교육학회지』 38권 2호, 한국실과교육학회, 2025, 171-190쪽.

박광렬·박수진, 「실과 교과의 산업과 직업 및 진로 중심의 교재형 콘텐츠 개발」, 『한국실과교육학회지』 38권 1호, 한국실과교육학회, 2025, 97-122쪽.

손단비, 「한국판 자기 성장 주도성 척도Ⅱ 타당화」,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장현진a, 「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실과 교과서 개발 방향: 진로교육을 중심으로」, 『한국실과교육학회지』 36권 3호, 한국실과교육학회, 2023, 225-249쪽.

장현진b,「2022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진로연계교육 내용 분석」,『한국실 과교육학회지』36권 4호, 한국실과교육학회, 2023. 319-347쪽.

정철영,「초등학교 진로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실과교육연구』17권 4호, 한국실과교육연구학회, 2011, 1-30쪽.

Robitschek, C. “Personal growth initiative: The construct and its measure”,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Counseling and Development, vol. 30, no. 4, 1998, pp.183-198.

Robitschek, C. "Personal Growth Initiative: The Construct and Its Measure."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Counseling and Development, vol. 30, no. 4, Association for Assessment in Counseling and Education (AACE), 1998, pp.183-198.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도입된 진로연계교육에 대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의 요구를 조사·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진로교육에서의 진로연계교육 운영 방안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초등학교 4학년~6학년 재학생 대상으로 온라인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 중 2,902명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8.0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및 교차분석 등의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의 자기성장주도성에서는 남학생, 6학년, 학업 상위권, 경제수준 상위, 읍면지역 학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 진로연계교육에서 희망하는 활동으로는 '학교행사 및 동아리 안내 활동'과 '친구와의 긍정적 관계 형성 활동'이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학년·학업성적·경제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셋째, 진로연계교육 참여 선호 대상으로는 '또래 친구들과의 활동'이 가장 높았으며, 이는 초등학생이 관계 중심의 또래 협력 활동을 강하게 선호함을 보여준다. 넷째, 진로연계교육 희망 운영 시간으로는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시간'과 '교과 수업시간'에 대한 응답이 높았으며, 4학년과 5학년은 창의적 체험활동을, 6학년은 교과 수업시간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역량 및 자기주도성 방향에 부합하는 초등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의 재정립, 맞춤형 진로연계교육 지원체계 구축, 또래 협력 기반의 관계 중심 진로연계교육 프로그램 개발, 학년 발달단계를 고려한 단계별 교육과정 편성 및 수업 모델 마련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 2022 개정교육과정, 진로연계교육, 초등학교 진로교육, 요구 분석, 초등학교 진로연계교육

Abstract

A Needs Analysis on Career-Linked Education Activities in Elementary Schools

KyoungKyoon, Kang/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Eunmo, Sung/ Gyeongkuk National University
Seulki, Han/ Gyeongkuk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 field need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regarding career-linked education introduced in the 2022 Revised National Curriculum, and to explore operational strategies for implementing career-linked education within elementary school career education. To this end, an online self-administered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students in grades 4 through 6, yielding a final sample of 2,902 valid response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frequency analysis and cross-tabulation with IBM SPSS Statistics 28.0.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regarding self-directed growth, male students, sixth graders, high academic achievers, students from higher socioeconomic backgrounds, and students in rural areas showed relatively higher levels. Second, the most preferred activities in career-linked education were 'school events and club guidance activities' and 'activities for building positive peer relationships,' with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found according to gender, grade level, academic achievement, and socioeconomic status. Third, 'peer-based activities' were most preferred as the desired participation format, indicating that elementary students have a strong preference for relationship-centered, peer-collaborative experiences. Fourth, 'creative experiential activity class time' and 'subject class time' were most frequently selected as preferred time slots for career-linked education; fourth

and fifth graders preferred creative experiential activities, while sixth graders preferred subject class time.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recommends the following : (1) reestablishing elementary career education goals and achievement standards aligned with the core competencies and self-directed learning orientation of the 2022 Revised Curriculum; (2) building a differentiated support system for career-linked education that reflects diverse student characteristics; (3) developing peer collaboration-based, relationship-centered career-linked education programs; (4) and designing grade-differentiated curriculum frameworks and instructional models that take into account students' developmental stages.

Keyword ● 2022 Revised National Curriculum, Career-Linked Education, Elementary School Career Education, Needs Analysis, Elementary School Career-Linked Education

▌논문투고일:2026.05.31. ▌심사완료일:2026.06.22. ▌게재확정일:2026.07.06. ▌

https://doi.org/10.54698/kl.2026.21.311
지식과 교양, 제21호,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Knowledge and Liberal Arts, Vol. 21, LIC, pp.311-336.

2022 개정 중학교 음악교과서 국악 감상곡 수제천 분석 연구

강 선 하*

목 차

1. 서론
2. 수제천 관련 교과서 수록 내용 분석
3. 수제천 관련 교과 내용의 문제점 및 보완점 제언
4. 수제천을 기반으로 하는 전통의 재해석과 재창조
5. 결론

1. 서론

본 연구는 2022 개정 중학교 음악교과서에 실린 국악 감상곡 수제천에 대한 연구이다. 교과서에 수록된 수제천의 감상 내용과 관련 설명, 지도 방식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2022 개정 음악과 교육 목표, 성취기준 등에 준거하여 수제천 학습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수제천 감상을 기반으로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K-전통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주도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교육학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수제천은 옛 백제 가요 정읍사를 노래하던 성악곡으로, 아악곡의 백미이며 장중하고 화려한 관악 합주곡이다.[1] 수제천은 지난 2015 교육 개정

* 목원대학교 음악교육과 강사
1) 강선하, 『국악이론』, 지금풍류, 2026, 179쪽.

에 이어 2022 교육 개정에서도 중·고등학교 각종 음악교과서에서 국악 감상곡으로서 빠짐없이 다루고 있는 중요한 악곡이다.[2] 이에 본 논문은 2022 개정 중학교 음악교과서 14종[3]에 실린 수제천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국악 감상 악곡의 내용 분석 및 관련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수제천은 교과서 개정 시마다 중·고등학교 음악교과에서 매우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악곡이기 때문에 수제천의 학습 지도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도 꽤 축적되어 있다. 수제천에 대한 교육 방법론적 연구는 두 가지 경향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수제천의 학습 지도안을 음악적 측면에서 제시한 연구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교과목이나 교육이론을 근거로 수제천의 학습 방법을 제시한 연구이다.

우선, 수제천의 학습안을 음악적 측면에서 제시한 연구로는 수제천 관련 학습 개념을 악곡배경(관련지식), 음색, 장단, 연주방식(연음), 선율, 시김새, 신체 반응하기, 음악미 탐색의 8단계로 제시한 연구가 있고,[4] 수제천의 학습 지도방안을 연계성 개념을 중심으로 수제천의 유래, 음색, 장단, 시김새, 형식 등을 통해 제시한 연구가 있다.[5] 또한 수제천의 악기 음색 탐색, 장단, 가락선보를 이용한 연음 형식 이해, 선율과 시김새, 신체 표현 활동하기의 다섯 가지 방식으로 수제천의 감상 지도 내용을 제시한

2) 수제천은 2015 개정 중학교 음악교과서 14종에 모두 실렸으며, 2022 개정 중학교 음악교과서 14종에서도 모두 소개되어 있다.

3) 고영신 외 5인, 『중학교 음악1』, 교학사, 2025; 전상진 외 3인, 『중학교 음악1』, 금성출판사, 2025; 김유석 외 4인, 『중학교 음악1』, 도서출판 박영사, 2025; 이장원 외 4인, 『중학교 음악1』, 도서출판 성안당, 2025; 김주현 외 6인, 『중학교 음악1』, 동아출판, 2025; 송무경 외 5인, 『중학교 음악1』, 미래엔, 2025; 김용희 외 4인. 『중학교 음악1』, 박영사, 2025; 이동희 외 4인, 『중학교 음악2』, 비상교육, 2025; 김혜림 외 4인, 『중학교 음악2』, 세광음악출판사, 2025; 김대원 외 6인, 『중학교 음악2』, 아침나라, 2025; 김유진 외 6인, 『중학교 음악1』, 와이비엠, 2025; 김한숙 외 6인, 『중학교 음악1』, 음악과 생활, 2025; 강세연 외 6인, 『중학교 음악1』, 지학사, 2025; 강한송 외 5인, 『중학교 음악1』, 천재교과서, 2025.

4) 오정식, 「수제천 감상을 위한 지도방법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논문, 2004.

5) 이설희, 「수제천의 연계성을 고려한 교수·학습 과정안 연구: 6학년, 8학년, 10학년을 대상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논문, 2005.

연구가 있고,[6] 장단과 빠르기, 가락과 기보법, 구성방식과 셈여림, 음색과 주법 그리고 연주형태, 악곡배경과 음악과 생활 그리고 가사로 나누어 지도방법을 제시한 연구가 있다.[7] 한편, 수제천이 모든 음악교과서에 실려있음에도 역사·문화적 배경과 관련된 지도 내용이 거의 없다는 문제점을 들어 수제천의 악곡 명칭 탐구, 형성과 변천 및 쓰임새의 이해, 문화적 가치 인식 등을 지도 내용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연구가 있다.[8]

다음으로 다른 교과목이나 교육학적 이론을 근거로 수제천 학습 방법을 제시한 연구이다. 음악과 다른 교과목의 통합교육을 적용한 연구에서 음악은 수제천의 역사적 배경과 장단, 악기, 형식 등을 학습하고, 국어에서는 처용설화와 신라향가, 고려가요 <처용가>를 학습하며, 체육에서는 수제천 반주의 처용무 세 동작을 익히는 것을 수업지도안으로 제시하였다.[9] 가무악의 표현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스테이션 교수법을 적용한 연구에서는 정간보에 수제천의 장고 장단, 춤 동작 기호, 노래가사를 함께 수록한 모형을 개발하여 가무악 개념을 효과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10] 지각, 생산, 반성을 중심으로 하는 아츠 프로펠(Arts Propel) 교육법을 기반으로 수제천을 통한 생산적 음악 활동을 제시한 연구가 있고, [11] 같은 교육법을 수제천의 피리선율 학습에 적용한 연구가 있다.[12] 또한 지식 제시의

6) 장현안, 「수제천 감상 학습 지도 내용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논문, 2006.
7) 강의영, 「수제천 감상학습을 위한 지도방법 연구: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석사논문, 2009.
8) 한영숙, 「역사·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수제천의 감상 지도내용 연구」, 『국악교육연구』 17권 1호, 한국국악교육연구학회, 2015, 119-232쪽.
9) 김소연, 「통합교육을 적용한 수제천 감상 수업지도안 개발: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2011.
10) 모우리, 「가무악(歌舞樂) 통합학습을 활용한 수제천 지도 방안 연구: 게슈탈트 정간보 모형과 스테이션 교수법 적용」,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23.
11) 김혜리, 「아츠 프로펠(Arts Propel)을 적용한 중학교 1학년 국악감상 지도안 개발: 수제천, 대취타 중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2013.
12) 박시준, 「아츠 프로펠(Arts Propel)을 적용한 국악 교수학습방법 연구: 수제천의 피리선율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석사논문, 2021.

단계를 작동적, 영상적, 상징적 양식으로 구분하는 보드만(Eunice Boardman)의 생성적 교수이론을 수제천의 학습지도에 적용한 연구도 있다.[13]

이와 같이 수제천은 교과 개정 시마다 역대 중학교 음악교과서에서 빠짐없이 다루어진 중요한 악곡이기에 수제천의 학습 지도와 관련된 연구도 다른 국악 감상곡들에 비해 많이 진행된 편이다. 그러나 K-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더욱 주목과 관심을 받는 현시점에서 '아악곡의 백미'로 일컬어지는 수제천의 학습 내용이 글로벌의 맥락에서 탐구되고 논의된 연구는 지금껏 시도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2022 개정 중학교 음악교과서 14종에 실린 수제천의 감상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준거한 개선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학생들이 수제천의 감상 학습을 기반으로 K-전통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주도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수제천 관련 교과서 수록 내용 분석

1) 수제천을 소개하는 상위 범주 체계

2022 개정 음악과 교육 영역은 연주, 감상, 창작의 세 분야로 구성된다. 이 중 음악 감상은 크게 서양 클래식 음악과 국악으로 나뉘는데, 수제천의 학습은 감상영역의 국악 분야에서 다루어진다. 같은 감상영역이지만 수제천을 소개하는 상위 범주 체계는 교과서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음악사, 연주형태, 음악의 기능, 음악 요소, 기타 등 대략 다섯 가지 양상으로 구분된다.

첫째, 한국음악사를 제시하고 해당 역사적 시기에 부합되는 악곡으로 소개한 체계이다. 4개의 교과서가 이에 해당한다. 세광음악출판사의 경우, '역사와 함께하는 국악감상 여행'이라는 주제로 수제천을 '상고·삼국·

13) 정명근, 「보드만의 생성적(生成的) 교수 이론을 적용한 국악 감상 수업지도 방안: 수제천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논문, 2007.

남북국시대' 편에 소개했고,[14] 비상교육의 경우, 수제천을 '고대에서 고려시대'에 걸친 악곡으로 소개했다.[15] 교학사의 경우, 수제천을 고려시대에서 다루었고,[16] 미래엔의 경우에는 수제천을 한 시기가 아닌 '여러시대 동안 함께했던 음악'으로 소개했다.[17]

둘째, 연주형태를 제시하고 그 하위 범주로 대풍류 또는 관악 합주곡으로 소개한 체계이다. 4개의 교과서가 이에 해당한다. 박영사,[18] 아침나라,[19] 지학사[20]의 세 교과서가 수제천을 대풍류의 연주형태로 소개했고, 와이비엠은 관악 중심 합주의 연주형태로 소개했다.[21]

셋째, 음악의 기능으로서 '행차 의식'의 범주에서 수제천을 소개한 교과서가 1종 있다. 도서출판 박영사에서는 국악 감상을 '행차 의식을 위한 음악', '역사와 함께하는 음악', '한국인이 함께하는 음악'의 세 범주로 나누었는데, 이중 수제천은 '행차 의식을 위한 음악' 편에서 다루었다.[22]

넷째, 음악요소의 하위범주로 '형식' 편에 수제천을 다룬 교과서가 1종 있다. 천재교과서에서는 '감상으로 떠나는 음악 여행'의 하위범주로 '음악 요소', '악곡의 종류', '음악의 기능'의 세 항목을 제시했는데, 이중 수제천은 '음악 요소' 편의 형식 편에서 소개되었다.[23]

끝으로, 나머지 4개의 교과서 즉, 금성출판사, 동아출판, 도서출판 성안당, 음악과 생활의 중학교 음악교과서에서는 특별한 체계적 연관성 없이 국악 감상 편에서 수제천을 소개했다. 이를 모두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4) 김혜림 외, 앞의 책, 76쪽.
15) 이동희 외, 앞의 책, 84쪽.
16) 고영신 외, 앞의 책, 90쪽.
17) 송무경 외, 앞의 책, 80쪽.
18) 김용희 외, 앞의 책, 84쪽.
19) 김대원 외, 앞의 책, 76쪽.
20) 강세연 외, 앞의 책, 89쪽.
21) 김유진 외, 앞의 책, 76쪽.
22) 김유석 외, 앞의 책, 87쪽.
23) 강한송 외, 앞의 책, 85쪽.

[표 1] 중학교 음악교과서의 수제천 수록 상위 범주

상위 범주	음악사	연주형태	음악 기능	음악 요소	기타
교과서 수	4	4	1	1	4

위의 <표 1>과 같이 14종의 중학교 음악교과서에서 수제천은 한국음악사 또는 연주형태의 하위 범주로서 소개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밖에 행차의식 음악으로서 음악적 기능과 음악 요소의 '형식' 편에서 소개되었다. 그런데 한국음악사와 연계하여 소개한 4개 교과서의 경우 수제천의 해당 시기가 삼국시대, 고려시대, 여러 시대 등 각기 다르게 배정되어 이에 대한 추가 논의가 요구된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 수제천의 수록 체계를 음악사, 연주형태, 음악 기능, 음악 요소 등의 상위 범주로 구분하여 분석한 이유는 교과서가 특정 음악 작품을 어떠한 교육적 관점에서 이해시키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교육과정 문해력(curriculum literacy)의 관점에서 교과서의 분류 체계는 단순한 편집 방식이 아니라 학습자가 해당 음악을 이해하는 인식의 틀(frame)을 형성한다. 예를 들어 수제천을 음악사 범주에서 다룰 경우 학생들은 이를 과거의 문화유산으로 이해하게 되고, 연주형태 범주에서는 악기 편성이나 합주 방식에 주목하게 된다. 반면 음악 기능이나 문화적 의미의 범주에서 접근할 경우 사회적 역할과 공동체적 가치를 이해하게 된다. 따라서 상위 범주 체계의 분석은 단순한 교과서 구성 비교가 아니라 수제천 교육이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어떠한 교육적 관점을 보완해야 하는지를 탐색하기 위한 기본적 분석 틀로서 의미를 가진다.

2) 수제천 설명 내용 분석

다음은 중학교 음악교과서에 실린 수제천의 학습목표를 정리한 것이다.

[표 2] 중학교 음악교과서의 수제천 학습목표[24]

교과서	지도 내용
교학사	**연음 형식**과 연주 방식을 파악하며 감상할 수 있다.
금성출판사	수제천의 연주 형태와 **연음 형식**을 이해하며 감상할 수 있다.
도서출판 박영사	궁중의식음악 수제천의 편성과 **연음 형식**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동아출판	수제천을 듣고 **연음 형식**을 분석할 수 있다.
미래엔	수제천을 감상하며 **연음 형식**이 나오는 부분에 색칠해 보자.
박영사	수제천의 악기 편성을 이해하며 감상해 보자. **연음 형식**에 대해 알아보고 연음 부분에 표시해 보자.
비상교육	**연음 형식**에 유의하여 감상해 보자.
성안당	**연음 형식**이 나오는 보분을 찾으며 수제천을 감상해 보자.
세광음악	**연음 형식**을 이해하고, 악곡을 감상하며 연음 부분을 구별할 수 있다.
아침나라	악기 편성과 **연음 형식**을 이해하며 수제천을 감상해 보자.
와이비엠	수제천의 **연음** 부분을 듣고, 음색의 변화를 이야기해 보자.
음악과 생활	**연음 형식**을 이해하고 수제천을 감상해 보자.
지학사	수제천의 연주 형태를 살펴보고, 악기 이름을 적어보자. 수제천의 초장을 **연음** 부분에 유의하며 감상해 보자.
천재교과서	가락의 흐름에 집중하여 수제천을 감상하고, **연음 형식**을 파악할 수 있다.

위의 <표 2>를 보면, 굵은 글씨로 표시한 바와 같이 모든 교과서에서 수제천 감상의 핵심 요소로서 '연음 형식'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5] 그밖에 제시된 지도 사항으로는 연주 방식, 연주 형태, 악기 편성, 음색 변화 등이 있다. 여기서 연주 방식은 내용 면에서 연음 형식과 중복되고, 연주 형태, 편성, 음색은 모두 수제천의 연주 '악기'와 관련되는 내용이다.

그 밖의 수제천의 교수학습 요소 및 자료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수

24) '지도 내용' 안의 굵은 글씨는 필자의 표시.

25) 와이비엠와 지학사의 경우 지도 사항에는 '연음 부분'이라고 제시했으나, 관련 설명에 '연음 형식'에 대한 정의가 별도로 주어져 있다.

제천의 역사적 배경, 수제천과 관련된 춤, 수제천의 장단 특성 등이 설명되어 있다. 다음은 수제천 학습 내용을 14종의 교과서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 3] 중학교 음악교과서의 수제천 설명 및 제시 내용

교과서	정읍사	처용무	준박	갈라치는 장단	오선보	가락선보
교학사	○	○	×	○	○	○
금성출판사	○	○	×	×	○	×
도서출판 박영사	×	×	×	×	○	×
동아출판	○	○	○	×	×	×
미래엔	○	○	○	×	○	×
박영사	○	○	○	×	○	×
비상교육	○	○	×	×	×	×
성안당	○	○	×	×	×	○
세광음악	○	○	×	×	○	×
아침나라	○	○	×	×	○	×
와이비엠	○	×	×	○	×	○
음악과 생활	×	○	×	×	×	×
지학사	○	○	×	×	○	×
천재교과서	○	○	○	○	×	○
합계	12	12	4	3	8	4

위의 <표3>을 보면, 수제천의 역사적 배경으로서 수제천이 본래 백제가요 정읍사를 노래하던 성악곡이었다고 설명한 교과서는 전체 14종 중 12종이고, 나머지 2종에는 해당 설명이 부재한다. 도서출판 박영사의 경우, 정읍사와 관련된 역사적 유래보다는 궁중의식에서 왕이나 왕세자 행차 시 연주하는 음악이라는 기능적인 면에 중심을 두어 소개했고,[26] 음악

과 생활의 경우, 백제 가요라는 설명 없이 궁중 연례와 무용에 사용하던 음악으로 '정읍'이라고 한다는 내용만 들었다.[27] 한편 지학사의 경우는 백제 노래 '정읍사'에서 유래한다는 설명 외에도 원래 곡명이 '정읍' 또는 '빗가락 정읍'이라는 사항도 추가했다.[28]

수제천이 처용무 반주음악임을 소개한 교과서는 모두 12종이다. 나머지 2종 중에서 도서출판 박영사는 수제천의 음악적 기능에 주안점을 두었으나 처용무에 대한 관련 설명이 없었고, 와이비엠에서도 처용무 관련 설명은 없었다. 한편 교학사의 경우에만 유일하게 처용무 반주음악이라는 점과 더불어 고려시대 향악정재 '무고'의 반주음악이기도 했음을 설명하였다.[29] 그밖에 교학사와 와이비엠에서는 수제천이 무용 반주로 사용될 때 '삼현육각'이라고 한다는 점을 설명했는데, 와이비엠은 관련하여 김홍도의 무동 그림을 제시하기도 했다.[30]

수제천의 장단과 관련해서는 '준박'과 '갈라치는 장단'의 개념이 제시되었다. 준박을 설명한 교과서가 4종이고, 갈라치는 장단을 설명한 교과서가 3종이다. 준박이란 "연주자가 임의로 박을 축소하여 연주할 수 있는 부분"[31]을 뜻하고, 갈라치는 장단은 첫 박의 합장단을 '기덕 쿵'으로 나누어 치는 방식이다. 장단과 관련하여 특히 와이비엠에서는 수제천이 불규칙한 '18박 장단'이라고 구체적인 장단 주기를 제시하였다.[32]

끝으로, 수제천의 악보를 제시한 교과서는 모두 11종이다. 대개 오선보 또는 가락선보 둘 중의 하나를 제시했지만, 교학사에서만 오선보와 가락선보를 모두 제시하여 수제천 선율의 시각적 이해를 높였다.[33] 수록한 악

26) 김유석 외, 앞의 책, 87쪽.
27) 김한숙 외, 앞의 책, 79쪽.
28) 강세연 외, 앞의 책, 89쪽.
29) 고영신 외, 앞의 책, 90쪽.
30) 김유진 외, 앞의 책, 76쪽.
31) 김주현 외, 앞의 책, 91쪽.
32) 김유진 외, 앞의 책, 76쪽.
33) 고영신 외, 앞의 책, 90쪽.

보를 살펴보면 대부분 대금과 피리 등 연음 형식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악기만을 제시했지만, 교학사, 도서출판 박영사, 아침나라 3종의 교과서에서는 피리, 대금과 더불어 해금, 아쟁 등 수제천의 모든 편성 악기를 총보로 제시하였다.

이처럼 2022 개정 중학교 음악교과서 14종에서 모두 수제천을 국악 감상곡으로 수록하고 있었다. 14종 모두 수제천 관련 가장 중시하는 핵심 사항은 수제천이 '연음 형식'이라는 특성이고, 그밖에 연주형태, 악기편성, 역사적 배경, 음악적 기능, 관련 춤, 장단, 음색 등을 설명하고 있다.

3. 수제천 관련 교과 내용의 문제점 및 개선안 제언

지금까지 살펴본 2022 개정 중학교 음악교과서에 실린 수제천의 내용이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목표, 핵심 아이디어, 성취 기준 등과 어떤 점에서 부합하고 어떤 점에서 추가 논의나 보완이 필요한지에 대해 고찰하도록 하겠다.

다음은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목표이다.[34]

- 음악의 아름다움이나 가치를 인식하고 정서적 안정을 느낄 수 있는 감성을 기른다.
- 음악의 의미를 탐색하고 새롭게 표현하며 만들어 갈 수 있는 창의성을 기른다.
- 생활 속 다양한 음악 경험에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자기주도성을 기른다.
- 협력적 음악 활동을 통해 서로 다른 음악 표현을 존중하며 생활 속에서 소통한다.
- 다양한 음악 문화와 음악의 역할을 인식하며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기여한다.

위와 같이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은 감성, 창의성, 자기주도성, 소통, 공동체성의 다섯 가지를 주요 역량으로 설계되었다. 이러한 음악과 교육 목표에 비추어볼 때, 수제천 감상은 국악의 가치와 국악적 감성을 길러주고, 국악의 의미를 탐색하고 표현하는 창의성을 길러주며, 음악 생활의

34) 교육부, 『별책 12 음악과 교육과정』, 교육부, 2022, 327쪽.

자기주도성을 키워주어야 한다. 그리고 수제천의 감상을 통해 일상 속에서 음악적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고, 수제천의 감상이 학생이 속한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인식적 기틀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이중 수제천 학습이 국악적인 감성, 창의성, 자기주도성을 키워줄 수 있다는 점은 수긍이 가지만, 소통과 공동체성과 관련해서는 교과서 내용의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다음은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감상 영역의 핵심 아이디어이다.[35]

- 음악은 고유한 방식과 원리에 따라 다양한 속성을 청각적 형태로 구현한 것이다.
- 음악적 수용과 반응은 인간의 감수성과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 인간은 생활 속에서 다양한 음악 경험을 통해 미적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고 공감한다.

위의 핵심 아이디어에 비추어볼 때, 중학교 음악교과서에서는 수제천의 음악적 방식과 원리가 설명되어야 하고, 수제천 향유의 사회·문화적 배경이 학습되어야 하며,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수제천의 미적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14종의 중학교 음악교과서에서 수제천의 음악적 방식과 원리, 역사적 배경은 대부분 제시되어 있지만, 학생들이 현재 생활 속에서 수제천의 미적 가치를 공감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관련 보완이 필요할 듯하다.

다음은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중학교 1~3학년군의 감상 영역 성취기준이다.[36]

- 음악을 듣고 다양한 음악 요소에 집중하여 분석한다.
-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을 듣고 음악적 특징과 음악의 구성을 파악한다.
- 다양한 시대·사회·문화권의 음악을 듣고 음악의 배경과 역할을 비교한다.
- 생활 속에서 음악을 들으며 다양한 감성과 가치를 인식하고 존중한다.

35) 위의 책, 328-329쪽.
36) 위의 책, 329-333쪽.

• 유네스코에 등재된 우리나라의 음악 문화유산을 찾아 듣고, 세계 속 국악의 위상과 문화적 가치를 인식한다.

위의 감상 영역 성취기준은 음악 요소, 구성과 특징, 배경과 역할, 국악의 가치의 네 가지로 압축된다.[37] 음악 요소로서 국악의 경우, 음계·토리·시김새 등의 선율적 요소, 장단·장단의 세·장단꼴·말붙임새 등의 시간적 요소, 소리의 어울림과 종지, 형식, 셈여림, 빠르기, 음색 등이 있다.[38] 이 중 수제천은 형식, 장단, 음색을 중심으로 설명되어 있고, 수제천의 음계와 종지, 셈여림 등에 대한 설명은 보이지 않는다. 관련 추가 논의 또는 보완 설명이 요구된다. 나머지 성취기준으로, 음악적 구성과 특징은 수제천의 악기, 연주방식 등을 통해 설명되어 있고, 배경과 역할, 가치도 수제천의 역사와 음악적 기능, 아악곡의 백미라는 표현 등을 통해 소략하게나마 설명되어 있다.

다음은 감상 영역의 구체적인 내용 체계로서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를 정리한 것이다.[39]

[표 4]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

지식 · 이해	과정 · 기능	가치 · 태도
• 다양한 시대·사회·문화권의 음악 • 유네스코에 등재된 우리 음악 문화유산 • 음악 요소 • 음악적 특징, 음악의 구성 • 감성, 다양성, 배경, 역할	• 집중하여 듣기 • 분석하고 파악하기 • 비교하고 평가하기	• 음악에 대한 존중 • 음악의 다양한 가치 인식

37) 마지막의 '유네스코에 등재된 우리나라의 음악 문화유산을 찾아 듣고, 세계 속 국악의 위상과 문화적 가치를 인식한다.'는 바로 위의 가치 인식 기준을 국악에 한해 재기술한 것이므로 네 번째 기준에 포함될 수 있다.

38) 교육부, 앞의 책, 333쪽.

39) 교육부, 앞의 책, 328-329쪽.

위의 내용 체계 중 지식·이해의 측면은 앞서 거론한 교육과정 감상 영역의 핵심 아이디어 및 성취기준에서 논의한 바와 공통되는 것들이다. 과정·기능의 측면에서 '집중하여 듣기'는 음악 감상의 기본적인 사항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고, 보다 중요한 사항은 분석·비교·평가라 할 것이다. 중학교 학습 과정에서 수제천을 얼마만큼의 깊이로 분석하고 다른 국악 기악곡들과 비교하며 평가할 수 있을지는 교사의 지도 역량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사항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과서에 수록된 수제천 관련 설명을 중심으로 내용적인 추가 논의 또는 보완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음악과의 교육 목표, 감상 영역의 핵심 아이디어와 성취기준의 측면에서 추가적인 보완점을 논의해 보겠다.

음악과 교육 목표에서 수제천의 감상은 감성, 창의성, 자기주도성을 길러주기에 적합하지만, 소통과 공동체성의 역량과 관련하여 추가적 학습 내용이 요구된다고 했다. 다시 말해, 수제천은 아악곡의 백미로서 국악적인 감성을 키워주고, 국악적인 유장한 선율미를 통해 작곡적 측면에서 창의성을 길러줄 수 있으며, 국악의 가치로서 자기주도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수제천의 감상이 일상 속 음악적 소통으로 이어지고, 현시대의 공동체성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교과서에 주어진 수제천의 학습 내용에서 동시대성 즉, 21세기 문화·예술적 측면의 연관 설명이 주어져야 한다. 수제천이 백제 가요에서 비롯되었다는 과거의 기원도 중요하겠지만, 현재 K-예술 문화에서도 수제천이 예술적 재료와 창조적 원천이 되는 동시대적 정보가 제시된다면 좀 더 2022 개정 음악과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학습 내용이 될 것이다.

핵심 아이디어에서는 수제천의 음악적 방식과 원리, 사회·문화적 배경, 미적 가치와 의미가 학습되어야 한다. 수제천의 음악적 방식과 원리는 연음형식, 갈라치는 장단, 준박 등을 통해 제시되었고, 사회·문화적 배경은 수제천의 역사적 기원과 음악적 기능을 통해 설명되었다. 그러나 2022 개정 중학교 음악교과서에 제시된 수제천 관련 학습 내용은 연음 형식, 악기 편

성, 역사적 유래, 음악적 기능 등 음악 내부 요소와 역사적 배경에 집중되어 있으며, 학생들이 자신의 현재 삶과 연결하여 수제천의 의미를 해석하거나 재맥락화할 수 있는 활동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음악교육에서는 학습자가 음악의 미적 가치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음악적 지식의 습득뿐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음악을 연결하여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본다. 음악 감상은 단순한 정보 습득이 아니라 음악 경험을 통한 의미 구성 과정이어야 한다. 또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역시 '생활 속 음악 경험을 통해 미적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고 공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재 교과서의 수제천 학습은 역사적·음악적 지식 제공에는 충실하지만, 학생들의 현재 문화 경험과 연결되는 학습 요소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수제천의 미적 가치에 대한 공감 형성에는 일정한 한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감상 영역 성취기준은 음악 요소, 구성과 특징, 배경과 역할, 국악의 가치의 네 가지인데, 이중 음악 요소를 제외한 나머지 기준들은 앞선 논의들에 포함되는 사항들이므로 중복된 내용이다. 그런데 수제천 학습과 관련하여 국악의 여러 음악적 요소 중 형식, 장단, 음색 등은 설명되어 있지만, 음계와 종지, 셈여림, 시김새 등은 누락되어 있다.

특히 수제천의 음계는 국악학계에서도 아직 의견이 분분하여 교과서에서 수제천의 음계를 확실히 밝히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초기 연구에서 수제천은 빗가락 정읍이라는 옛 악사들의 구전명에 근거하여 남려계면조라고 주장되었으나,[40] 선율 구조로 볼 때 남려계면조라는 기존 주장을 검검하는 심층 연구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41] 또한 수제천 4장의 경우 특히 음계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데, 4장에서 임종평조로 이조된다는 주장,[42] 4장은 탁남려계면조와 탁임종평조라는 주장,[43] 4장이 탁남려계

40) 이혜구, 「수제천의 조와 형식」, 『한국음악논총』, 세광음악출판사, 1976, 77-78쪽.
41) 최 헌, 「현행 수제천 선율의 골격구조 분석」, 『소암권오성박사화갑기념 음악학논총』, 2000, 810쪽.
42) 김영운, 「井邑의 後腔全과 金善調에 대한 음악적 고찰」, 『정신문화연구』 21권 4호,

면조와 태주계면조라는 주장[44] 등 수제천의 조를 둘러싼 해석이 분분하다. 그렇기에 교과서에서도 수제천의 음계에 대해서는 학습 내용을 합리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음계와 조는 악곡의 기틀을 이루는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음악 요소라 할 수 있으므로 학구적 차원에서는 추가 연구와 논의들이 요구되는 바이다.

다음으로 수제천의 감상 교육을 위한 학습 개선안을 제안해 보겠다.

첫째, 수제천의 전통 미학을 탐색하는 감상 학습을 제안한다. 현재 중학교 음악교과서의 수제천 학습은 연음 형식, 악기 편성, 장단 등 음악적 요소의 이해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수제천이 오랫동안 한국 전통음악의 대표적인 명곡으로 평가받아 온 이유는 단순한 음악적 구조 때문만이 아니라 그 안에 내재된 독특한 미학적 가치에 있다. 따라서 수제천 교육에서는 학생들이 악곡의 형식적 특징을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제천이 지닌 느림의 미학, 절제의 미학, 여백의 미학 등을 체험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수제천의 초장을 감상한 후 학생들이 음악의 흐름에서 느껴지는 정서와 이미지를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하고, 빠른 템포와 강한 리듬을 특징으로 하는 현대 대중음악과 비교하여 수제천만의 음악적 특성을 탐색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학생들로 하여금 수제천을 단순히 과거의 궁중음악이 아니라 한국 전통문화가 지닌 독자적인 미적 세계를 보여주는 예술 작품으로 이해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둘째, 전통 수제천과 현대 창작곡의 비교 감상 학습을 제안한다. 수제천 교육이 학생들의 현재 삶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전통 악곡 자체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현대 사회에서 수제천이 어떻게 재해석되고 있는지를 함께 학습

정신문화연구원, 1998, 42쪽; 「정읍과 수제천의 제문제: 지역성과 갈래의 성격 및 형식·악조 등을 중심으로」, 『한국음악연구』 60권, 한국국악학회, 2016, 40-41쪽.

43) 문숙희, 「정읍과 수제천의 음악적인 관계에 대한 고찰」, 『한국음악연구』 40권, 한국국악학회, 2009, 85-112쪽.

44) 임병옥, 「수제천 제4장 선율의 악조와 출처의 재조명」, 『음악과 문화』 21권, 세계음악학회, 2009, 75-104쪽.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전통 수제천을 먼저 감상하며 연음 형식, 음색, 장단, 선율의 흐름 등을 이해한 뒤, 수제천을 모티브로 창작된 현대 작품을 비교 감상하도록 할 수 있다. 학생들은 두 음악을 비교하면서 전통음악의 어떤 요소가 계승되었고 어떤 부분이 새롭게 변용되었는지를 탐색하게 된다. 이러한 비교 감상은 전통과 현대의 관계를 이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전통문화가 과거의 유산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재창조되는 살아 있는 문화 자산임을 인식하도록 돕는다.

셋째, 수제천의 음악적 원리를 활용한 창작 활동을 제안한다.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은 음악 감상에 머무르지 않고 음악의 의미를 새롭게 표현하고 만들어 가는 창의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수제천 학습 역시 감상 중심에서 나아가 창작 활동과 연계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은 수제천의 연음 형식, 음색 변화, 느린 선율 진행 등의 특징을 학습한 뒤 이를 활용하여 간단한 음악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모둠별로 수제천의 연음 형식을 응용한 짧은 선율을 창작하거나 디지털 음악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새로운 형태의 수제천을 구성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창작 경험은 학생들이 전통음악을 수동적으로 감상하는 차원을 넘어 능동적으로 재해석하고 표현하는 과정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음악적 창의성과 자기주도성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넷째, 수제천의 문화유산적 가치를 탐구하는 프로젝트 학습을 제안한다. 수제천은 단순한 음악 작품이 아니라 한국 전통문화의 역사와 미학이 집약된 중요한 문화유산이다. 따라서 수제천 교육은 악곡 자체의 감상에만 머무르지 않고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와 의미를 탐구하는 방향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은 국립국악원 공연 자료, 영상 자료, 학습 자료 등을 활용하여 수제천의 역사적 형성 과정과 전승 양상을 조사하고, 현대 사회에서 수제천이 활용되는 사례를 탐색할 수 있다. 또한 조사 결과를 카드뉴스, 발표 자료, 영상 콘텐츠 등의 형태로 제작하여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수제천의 문화적 의미를 스스로 재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 학습은 학생들이

전통문화를 단순한 과거의 유산으로 인식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재와 미래의 문화적 자산으로 이해하도록 돕는 동시에, 문화유산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공동체적 책임 의식을 함양하는 데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4. 수제천을 기반으로 하는 전통의 재해석과 재창조

수제천은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작곡가, 음악인들에 의해 한국 전통음악의 백미로서 수용되며 재해석, 재창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세계적인 작곡가 윤이상(1917~1995)의 관현악 작품 '예악(禮樂)'의 모티브가 수제천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윤이상은 국악의 전통적인 예술성과 독자적인 미학을 현대음악으로 재해석하여 세계적으로 높은 찬탄을 불러일으켰다. 2018년,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 주관한 '윤이상, 그 뿌리를 만나다'라는 공연에서는 윤이상의 '예악'과 전통음악 수제천이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함께 공연되기도 했다.[45]

2006년, EBS 방송의 '스페이스 공감'에서는 대중음악 작곡가 손무현에 의해 '밴드세션을 위한 수제천'이 공연되었고,[46] 해당 작품의 분석이 동일인에 의해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으로도 발표되었다.[47] 이 연구에 의하면, 작곡자 손무현은 국악곡 수제천이 실제 연주를 통해 음악이 확정되는 열린 형태의 악곡이라는 점, 그리고 악기들의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해 불확정적이고 선적인 흐름의 곡이라는 특성이 밴드음악의 특성과 잘 융합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전통음악 수제천을 밴드음악으로 새롭게 해석했다고 밝혔다.[48]

2015년,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는 수제천을 모티브로 하는 정일련

45) 유연석, "윤이상의 '예악'과 뿌리가 된 '종묘제례악'을 한 자리에서", <CBS 노컷뉴스>, 2018.12.13.
46) EBS 스페이스 공감, 연주일시 2006.06.17.
47) 손무현, 「밴드세션을 위한 <수제천>의 작곡 및 분석」, 한양대학교 석사논문, 2011.
48) 위의 논문, 51쪽.

작곡가의 작품 '천(天)-Heaven'이 초연되었다. 재독 작곡가 정일련은 2012년 베를린에서 국립국악원 연주로 수제천을 처음 들었는데, 수제천이 감정을 절제하는 정악 악곡이었음에도 '남편을 기다리는 여인의 마음'을 노래한 것이라 그런지 감정이 풍부한 음악으로 들려 그러한 해석을 반영했다고 했다.[49]

2022년, 서울시국악관현악단의 '2022 믹스드 오케스트라(Mixed Orchestra) <충돌과 조화>'에서도 수제천 기반의 작품 '수제천 환상곡'이 발표되었다. 서울시국악관현악단 단장 김성국은 국악관현악이 이 세상의 어떠한 악기들과도 결합하여 한국음악을 새롭게 창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이고자 과감하게 국악관현악과 서양 오케스트라, 전자악기의 90인조의 혼합 편성을 통해 한국적인 소리와 이미지를 선보이고자 했다. 이때 작곡가 홍정의는 2천여 년 전 백제 가요에서 기원한다고 추정되는 수제천에 대한 존경심을 담아 '수제천 환상곡'을 만들었다고 밝혔다.[50]

2024년, 환경 문제를 주제로 한 통영국제음악제의 '에코 앤드 에코(ECO % ECHO) 공연에서 수제천을 재해석한 최우정 작곡가의 작품 '수제천 리사운즈(resounds)'가 발표되었다. 최우정 작곡가는 고등학생 때부터 수제천을 즐겨 들었다고 말하며, 첫 악장인 '오래된 음악들의 메아리'에서는 과거에서 물려받은 자연에 대한 회상을 표현했고, 두 번째 악장 '먼 훗날로부터 오는 메아리'에서는 현재 멀어지고 있는 자연에 대한 감상을 담았다고 했다. 한국 전통음악의 자연성, 자연 고유의 음악적 소리를 생각하며 곡을 만들었다고 전했다.[51]

한편, 2024년에는 국악 선율의 수학적 구조를 학습한 인공지능(AI)이 수제천을 바탕으로 만든 곡이 김희수아트센터에서 발표되기도 했다. 고

49) 손준현, "[유레카], 정읍사와 수제천", <한겨레>, 2015.04.12.
50) 김한정, "믹스드 오케스트라(Mixed Orchestra) 충돌과 조화", <아트코리아방송>, 2022.08.29.
51) 최다은, "자연의 엄중한 경고 … 클래식 음악으로 재탄생한 백제 가요 수제천", <한국경제>, 2024.9.13.

등과학원 국악데이터연구단장으로 있는 정재훈 포항공대 교수는 이 AI 작품을 통해 수제천을 주제로 사용하여 선율의 기하학적 형태를 모방하고자 했다고 밝혔다.[52]

이처럼 수제천을 재해석하는 현대 예술 활동이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교육적으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핵심이 있다. 수제천을 기반으로 한 현대 창작음악의 교육적 활용은 전통 수제천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할 때 더욱 의미를 가진다는 점이다. 만약 학생들이 수제천의 음악적 특징과 미학적 가치를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창작곡만 감상한다면, 해당 작품이 어떠한 전통을 계승하거나 변용하였는지 인식하기 어렵다. 따라서 수제천 교육은 전통 원형에 대한 감상과 이해를 우선적으로 수행한 뒤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들과의 비교 감상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2022 개정 중학교 음악교과서의 국악 감상곡 수제천의 학습 내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완점을 제언하며, 수제천을 기반으로 하는 전통의 재해석과 재창조를 살펴봄으로써 학생들이 일상에서 K-전통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공감할 수 있는 교육학적 제언을 하였다.

2022 개정 중학교 음악교과서 14종은 모두 수제천을 국악 감상곡으로 수록했는데, 전체 교과서에서 수제천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시한 핵심은 '연음 형식'이라는 연주 방식이었고, 그밖에 연주형태, 악기편성, 역사적 배경, 음악적 기능, 관련 춤, 장단, 음색 등을 설명하였다. 수제천의 학습 내용을 2022 개정 음악과의 교육 목표, 감상 영역 핵심 아이디어, 성취기준의 측면에서 고찰하였는데, 두 가지 점에서 문제점 및 보완점을 발견했다. 하나는 수제천의 설명이 과거의 유산이라는 역사성에 치중되어 동시대적 재창조를 다루지 못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수제천의 음계에 대

52) 조승한, "수학과 인공지능으로 재탄생한 궁중음악 '수제천'", <연합뉴스>, 2024.12.21.

한 학술적 심화 연구가 요구된다는 점이다.

수제천은 전통음악의 백미로서 윤이상을 비롯하여 지금도 여러 작곡가에 의해 새로운 작품으로 재해석·재창조되고 있다. 수제천은 창작국악뿐 아니라 서양 클래식, 현대음악, 전자악기를 사용한 대중음악, AI 음악 등 다양한 갈래에서 자연미를 지닌 한국적인 소리 재료로서 새롭게 재탄생하고 있다. 이렇듯 수제천이 과거의 전유물이 아닌 미래지향적인 예술 자산으로서 21세기에도 한국적인 예술 창작의 영감이 되고 있음을 교육적으로 학생들에게 제시해 준다면, 수제천의 감상이 일상적 소통과 공동체성 등에 있어 더욱 의미를 발휘할 것이다.

음악교육에서 공동체성은 단순히 같은 음악을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문화가 지닌 가치와 정체성을 공유하고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문화적 실천은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의미 체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재생산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수제천은 단순한 과거의 궁중음악이 아니라 현대 작곡가와 연주자들이 지속적으로 재창조하는 살아 있는 문화 자산이라 할 수 있다. 학생들이 수제천이 오늘날에도 다양한 장르와 매체에서 창작의 원천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이해하게 된다면, 전통문화를 과거의 유물이 아닌 현재 공동체가 공유하는 문화적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자신이 속한 문화 공동체에 대한 이해와 소속감을 높이고, 나아가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참여하려는 태도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수제천의 동시대적 재해석 사례를 교육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이 강조하는 소통과 공동체성 역량 함양에 부합할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강선하, 『국악이론』, 지금풍류, 2026.

교육부,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 중학교』, 교육부, 2022.

교육부, 『중학교 교육과정』, 교육부, 2022.

이혜구, 『한국음악논총』, 세광음악출판사, 1976.

논문

강의영, 「수제천 감상학습을 위한 지도방법 연구;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석사논문, 2009.

김소연, 「통합교육을 적용한 수제천 감상 수업지도안 개발: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2011.

김영운, 「井邑의 後腔全과 金善調에 대한 음악적 고찰」, 정신문화연구』 21권 4호, 정신문화연구원, 1998, 27-48쪽.

_____, 「정읍과 수제천의 제문제: 지역성과 갈래의 성격 및 형식·악조 등을 중심으로」, 『한국음악연구』 60권, 한국국악학회, 2016, 21-46쪽.

김혜리, 「아츠 프로펠(Arts Propel)을 적용한 중학교 1학년 국악감상 지도안 개발: 수제천, 대취타 중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2013.

모우리, 「가무악(歌舞樂) 통합학습을 활용한 수제천 지도 방안 연구: 게슈탈트 정간보 모형과 스테이션 교수법 적용」,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23.

문숙희, 「정읍과 수제천의 음악적인 관계에 대한 고찰」, 『한국음악연구』 40권, 2009, 85-112쪽.

박시준, 「아츠 프로펠(Arts Propel)을 적용한 국악 교수학습방법 연구: 수제천의 피리선율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석사논문, 2021.

손무현, 「밴드세션을 위한 <수제천>의 작곡 및 분석」, 한양대학교 석사논문, 2011.

오정식, 「수제천 감상을 위한 지도방법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논문, 2004.

이설희, 「수제천의 연계성을 고려한 교수·학습 과정안 연구: 6학년, 8학년, 10학년을 대상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논문, 2005.

임병옥, 「수제천 제4장 선율의 악조와 출처의 재조명」, 『음악과 문화』 21권, 세계음악학회, 2009, 75-104쪽.
장현안, 「수제천 감상 학습 지도 내용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논문, 2006.
정명근, 「보드만의 생성적(生成的) 교수 이론을 적용한 국악 감상 수업지도 방안: 수제천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논문, 2007.
최 헌, 「현행 수제천 선율의 골격구조 분석」, 『소암권오성박사화갑기념 음악학논총』, 2000, 799-810쪽.
한영숙, 「역사·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수제천의 감상 지도내용 연구」, 『국악교육연구』 17권 1호, 한국국악교육연구학회, 2015, 119-232쪽.

교과서

강세연·관은순·김혜진·이진숙·정길선·정미영·조효진, 『중학교 음악1』, 지학사, 2025.
강한송·김승연·김효섭·이민규·최은식·하명진, 『중학교 음악1』, 천재교과서, 2025.
고영신·길효섭·변민선·여수진·이주형·최슬기, 『중학교 음악1』, 교학사, 2025.
김대원·황병숙·김주경·김희경·정상열·박복희·이누리, 『중학교 음악2』, 아침나라, 2025.
김용희·현경실·임인경·고지희·조아영,. 『중학교 음악1』, 박영사, 2025.
민경훈·오지향·이보림·송주현·이분희·양정아·김주현, 『중학교 음악1』, 동아출판, 2025.
박준영·김유진·이경화·이지혜·조세원·이지연·이정은, 『중학교 음악1』, 와이비엠, 2025.
손민정·윤아영·이정표·김유석·이경민, 『중학교 음악1』, 도서출판 박영사, 2025.
양종모·김한숙·독고현·최준영·황은주·송미애·양보라, 『중학교 음악1』, 음악과 생활, 2025.
이동희·홍미희·홍진표·공현주·이지희, 『중학교 음악2』, 비상교육, 2025.
이정원·손희영·정은정·이장원·최혜원, 『중학교 음악1』, 도서출판 성안당, 2025.
정길선·강세연·김혜진·곽은순·조효진·정미영·이진숙, 『중학교 음악1』, 지학사, 2025.
조성기·송무경·윤지훈·황지연·윤홍미·정효진, 『중학교 음악1』, 미래엔, 2025.
채은영·정지영·정진용·전상진, 『중학교 음악1』, 금성출판사, 2025.
최은식·김효섭·하명진·김승연·강한송·이민규, 『중학교 음악1』, 천재교과서, 2025.2025.
허화병·오병태·안주연·김혜림·박세희, 『중학교 음악2』, 세광음악출판사, 2025.

신문 기사

김한정, “믹스드 오케스트라(Mixed Orchestra) 충돌과 조화”, <아트코리아방송>, 2022.08.29.

손준현, “정읍사와 수제천”, <한겨레>, 2015.04.12.

유연석, “윤이상의 ‘예악’과 뿌리가 된 ‘종묘제례악’을 한 자리에서”, <CBS 노컷뉴스>, 2018.12.13.

조승한, “수학과 인공지능으로 재탄생한 궁중음악 ‘수제천’”, <연합뉴스>, 2024.12.21.

최다은, “자연의 엄중한 경고 … 클래식 음악으로 재탄생한 백제 가요 수제천(壽齊天)”, <한국경제>, 2024.9.13.

국문초록

본 연구는 2022 개정 중학교 음악교과서의 수제천의 학습 내용을 분석하여 문제점과 보완점을 찾고, 수제천을 기반으로 하는 전통의 재해석과 재창조를 살펴 학생들이 K-전통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공감할 수 있는 교육적 제언을 하였다.

2022 개정 중학교 음악교과서 14종은 모두 수제천을 국악 감상곡으로 수록했는데, 수제천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시한 핵심은 '연음 형식'이었고, 그밖에 연주형태, 악기편성, 역사적 배경, 음악적 기능, 관련 춤, 장단, 음색 등을 설명하였다. 수제천의 학습 내용을 2022 개정 음악과의 교육목표, 감상 영역 핵심 아이디어, 성취기준의 측면에서 고찰하였는데, 두 가지 점에서 문제점 및 보완점을 발견했다. 하나는 수제천의 설명이 과거의 유산이라는 역사성에 치중되어 동시대적 재창조를 다루지 못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수제천의 음계에 대한 학술적 심화 연구가 요구된다는 점이다.

수제천은 전통음악의 백미로서 윤이상을 비롯하여 지금도 여러 작곡가에 의해 새로운 작품으로 재해석·재창조되고 있다. 수제천은 창작국악뿐 아니라 서양 클래식, 현대음악, 전자악기를 사용한 대중음악, AI 음악 등 다양한 갈래에서 자연미를 지닌 한국적인 소리 재료로서 새롭게 재탄생하고 있다. 이렇듯 수제천이 과거의 전유물이 아닌 미래지향적인 예술 자산으로서 21세기에도 한국적인 예술 창작의 영감이 되고 있음을 교육적으로 학생들에게 제시해 준다면, 수제천의 감상이 일상적 소통과 공동체성 등에 있어 더욱 의미를 발휘할 것이다.

주제어 ● 수제천, 2022 개정 중학교 음악교과서, 국악 감상, K-전통문화, 정읍, 처용무, 연음 형식

Abstract

An Analytical Study of Sujecheon In the 2022 Revised Middle School Music Textbooks of the Korean Traditional Music Appreciation Curriculum

Kang, Sun Ha / Mokwon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d the learning content of Sujecheon in the 2022 revised middle school music textbooks to identify problems and areas for improvement. By examining the reinterpretation and recreation of tradition based on Sujecheon, it offers educational suggestions to help students empathize with the value and significance of K-traditional culture.

All 14 types of the 2022 revised middle school music textbooks included Sujecheon as a piece for Korean traditional music appreciation. The most important core element regarding Sujecheon was the “linking form,” while other aspects such as performance style, instrumentation, historical background, musical function, related dances, rhythms, and timbres were also explained. The learning content of Sujecheon was examined from the perspectives of the educational goals, core ideas of the appreciation domain, and achievement standards of the 2022 revised music curriculum, revealing problems and areas for improvement in two aspects. One is that the explanation of Sujecheon focuses too heavily on its historical significance as a legacy of the past, failing to address its contemporary recreation. The other is that in-depth academic research on the scales of Sujecheon is required.

Sujecheon is the pinnacle of traditional music and continues to be reinterpreted and recreated into new works by various composers, including Isang Yun. It is being reborn as a uniquely Korean sound material possessing

natural beauty across diverse genres, such as not only contemporary Korean music but also Western classical music, modern music, popular music using electronic instruments, and AI music. If we educationally present to students that Sujecheon is not merely a relic of the past but a future-oriented artistic asset serving as an inspiration for Korean artistic creation in the 21st century, the appreciation of Sujecheon will hold even greater significance in terms of daily communication and community spirit.

Keyword ● Sujecheon, 2022 revised middle school music textbook, Appreciation of Korean traditional music, K-traditional culture, Jeongeup, Cheoyongmu, Yeoneum form

▌논문투고일:2026.05.28. ▌심사완료일:2026.06.22. ▌게재확정일:2026.06.29. ▌

● ● ● https://doi.org/10.54698/kl.2026.21.337
지식과 교양, 제21호,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Knowledge and Liberal Arts, Vol. 21, LIC, pp.337-368.

어휘형성법과 문제해결학습(PBL)을 중심으로 한 신조어 교육 방안 연구*

김 덕 신**

목 차

1. 서론
2. 선행 연구
3. 연구의 방법
4. 연구의 결과
5. 결론 및 제언

1. 서론

국내 대학에서 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진정한 의사소통 능력이란 단순히 한국어 문법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 또래 집단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문 공동체의 일원으로 수용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학문 목적 학습자는 어휘와 문법의 정확성을 다루는 언어 지식은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한국 대학생들과의 소통 상황에서 상황에 맞는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언어적 능력이나 담화 역량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소통의 간극을 심화시키는 요소 중 하나는 대학생들이 일상적

* 이 논문은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3S1A5B5A17086812).
** 충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으로 사용하는 신조어이다. 상호작용을 위한 도구로서 신조어는 청년 세대의 심리와 문화를 반영하는 핵심적인 언어 자산이지만, 생성과 소멸의 속도가 빠르고 그 양이 방대하여 외국인 학습자가 개별 어휘를 단순 암기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 연구의 사전 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학습자들은 '갓생'이나 '알잘딱깔센'과 같은 다빈도 신조어의 의미를 어느 정도 인지하더라도, 이를 실제 문맥에 맞게 활용하거나 그 구조적 형성 원리를 분석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조어 활용 능력이 결여된 학습자는 또래 공동체 내에서 소외감을 느끼거나 의사소통의 장벽을 경험할 위험이 크며, 이는 학습자의 소통 의지 위축으로 이어진다.

이 연구에서는 학습자가 신조어의 조어 원리를 스스로 파악하도록 돕는 '어휘형성법' 교육과, 실제적인 소통 과제를 스스로 해결하게 하는 '문제해결학습(PBL: Problem Based Learning)'을 결합한다. 이 방법은 학습자를 단순한 지식 수용자에서 능동적인 언어 사용자로 변화시키고, 교실 내 학습이 실제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연결되는 실질적인 통로를 마련해 줄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어휘형성법과 PBL 모델을 결합한 신조어 교육을 통해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들의 통합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고, 이들이 한국어 공동체의 일원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돕는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조어의 어휘 형성 원리를 체계적으로 습득시켜 학습자의 자가 학습 기제를 마련하는 것이다. 의미 확장, 줄임말, 외국어 결합 등 신조어의 구조적 특징을 직접 분석하게 함으로써, 교육 종료 후에도 새로운 어휘의 의미를 스스로 추론하고 확장할 수 있는 메타 언어적 능력을 배양한다.

둘째, 실제적인 담화 맥락에서의 신조어 활용 능력을 정량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다. 사전 테스트에서 확인된 능력이 사후 테스트 결과 향상되는지 교육적 효과를 입증하는 지표가 된다.

셋째, PBL 기반의 현장 밀착형 과제를 통해 실제적인 상호작용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학습자가 직접 한국인 대학생을 인터뷰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디지털 플랫폼에 참여하는 활동은 교실 내 지식이 실제 소통으로 연결되는 경험을 제공한다.

넷째, 학습자 설문 분석을 통해 PBL 기반 신조어 교육이 학습자의 심리적 자신감과 한국어 사용자로서의 정체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다. 학습자들이 높은 흥미를 보인 '자국 신조어와의 비교 발표' 및 '토론' 활동이 유학생들의 공동체 참여를 이끌어내는 실질적인 기제로 작동함을 입증하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한국어교육에서 신조어는 오랫동안 비표준적이고 일시적인 언어 현상으로 간주되어 교육의 핵심 대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디지털 매체 환경의 확산과 한국 대중문화의 국제적 영향력 확대로 신조어가 실제 의사소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이를 한국어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연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신조어 교육 연구는 교육적 필요성 논의를 넘어 어휘 선정 방법론을 중심으로 축적되었다. 이현정(2015), 백은지(2017), 강수진·이정현(2022), 이연정·이주미(2022), 정하길(2024)은 신어 조어소의 조어력 분석, 빅데이터 활용, 학습자 요구 조사 등 다양한 방법론을 통해 교육용 어휘 목록 구성 방안을 구체화하였다. 이들 연구는 신조어를 한국어교육의 정당한 교육 대상으로 확립하는 데 기여하였으나, 신조어를 어떠한 원리로 이해하고 어떤 과정을 통해 학습할 것인가라는 방법론적 논의로는 나아가지 못하였다.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 어휘형성법과의 연계를 시도한 연구들이 등장하였다. 이현정(2021), 전경윤(2018), 이대현(2016)은 신어의 형성 원리와 문화적 맥락을 교육적 관점에서 체계화하려 하였으며, 특히 김보현(2020)은 신조어가 한국어 공시적 어휘 형성법을 보여 주는 효과적인 교육 자료

임을 논증하면서 학습자가 개별 어휘 암기를 넘어 의미 추론 능력을 기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신조어를 단순한 유행어가 아니라 어휘 체계의 생산성을 입증하는 언어 자료로 재해석한 것으로 중요한 이론적 전환이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집중한 나머지, 학습자가 형성 원리를 귀납적으로 발견하고 새로운 어휘 해석에 적용하는 학습 과정의 체계적 설계, 즉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의 문제에는 충분히 답하지 못하였다.

한국어교육 분야의 문제해결학습(PBL) 연구는 장경은(2004), 공하림(2014), 박소연(2023), 김보경 외(2023) 등을 통해 문화교육, 학문 목적 교육, 교사 교육, 문법 교육 영역으로 점차 확장되었으며, 실제적 문제 상황이 학습 동기와 참여도를 높인다는 점이 공통으로 보고되었다(강인애 외, 2007). 신조어 교육과 학습자 중심 교수법을 접목한 시도로는 이완호(2021)의 귀납적 탐구 중심 수업 모델과 김덕신(2021)의 플립러닝 기반 신조어 수업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특정 매체나 교수 환경의 전환에 초점을 두고 있어, '문제 제시 → 자료 탐색 → 협력적 해결안 도출 → 성찰'로 이어지는 PBL의 단계적 모형을 신조어 어휘형성법 교육에 체계적으로 결합한 연구로 보기는 어렵다.

이상에서 확인되듯, 신조어 교육 연구와 어휘형성법 연구, PBL 연구는 각각 독자적으로 발전했으나 세 영역을 통합적으로 설계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이 연구는 신조어의 어휘형성법을 교육 내용의 중심에 두고 PBL 모형과 결합한 교수·학습 방안을 보임으로써 기존 연구의 공백을 채우고자 한다.

3. 연구의 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는 국내 C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총 15명을 대상으로

한 수업에 바탕을 둔다. 연구 대상은 한국어문화 전공생 6명, 경영경제 전공생 3명, 국어국문학과 교환학생 6명이다. 학습자들의 국적은 중국(7명), 베트남(5명), 러시아(1명), 몽골(1명), 파키스탄(1명) 등이며, 토픽(TOPIK) 3~6급 수준의 중·고급 한국어 능력을 갖추었다. 연구 기간은 2026년 4월 말부터 5월 중순까지 총 4.5주이다. 총 15명을 4개 조로 나누었으며, 3개 조는 각각 4명씩, 1개 조는 3명으로 구성했다. 비록 표본의 크기가 작고 연구 기간이 한정적이라는 양적 한계가 있으나,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단일 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사회언어적 인식 변화를 추적하는 질적 연구 방법론을 강화하였다. 단순히 사후 점수의 상승에만 주목하지 않고, 학습자들이 제출한 한국인 대학생 3인 이상의 '인터뷰 전사본'과 '조별 토론 내용'을 정밀 분석함으로써 소규모 표본이 가질 수 있는 '심층성'을 확보하였다. 이는 실험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보완하고, 유학생 개인이 겪는 심리적 자신감 회복과 정체성 변화의 양상을 세밀하게 규명하는 근거가 된다.

이 연구에서는 PBL 수업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사전·사후 검사지와 학습자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또한 학습자들이 실제 한국인을 대상으로 수행한 신조어 조사 인터뷰 녹음 파일과 전사본을 수집하여 질적 자료로 분석하였다. 연구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는 다음과 같다.

① 사전·사후 검사지: 신조어의 의미 이해(객관식), 문맥 활용 능력(주관식), 어휘 형성 방식 설명(서술형)의 세 영역으로 구성된 검사지를 사용하여 언어적 능력의 변화를 측정한다. 사전·사후 검사지의 문항 구성과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을 명시한다. 검사지는 총 30점 만점으로 구성되었으며, 난이도는 중·고급 학습자의 수준에 맞추어 다빈도 신조어 위주로 설정하였다([표 1]).

[표 1] 사전·사후 검사 문항 구성 및 채점 기준

평가 영역	문항 수	배점	평가 내용 및 주요 어휘 예시
의미 이해	5문항	각 2점 (10점)	신조어의 사전적 의미 파악(객관식) 예: 갓생, 억까, JMT, TMI, 현타 등
사용 능력	3문항	각 4점 (12점)	상황에 적절한 어휘 선택 및 문장 완성(주관식) 예: 오운완 활용 인스타그램 게시물 작성 등
어휘 분석	2문항	각 4점 (8점)	어휘 형성 원리 및 구조적 특징 기술(서술형) 예: 내돈내산, 알잘딱깔센, 중꺾마, 별다줄 등
총합	10문항	30점	통합적 신조어 의사소통 역량 측정

평가 신뢰도 확보를 위하여 주관식 및 서술형 문항의 채점 시 연구자 1인이 2회 에 걸쳐 독립적으로 채점한 후 일치하지 않는 결과에 대해 재검토를 거쳐 최종 점수를 산출하였다.

② 학습자 설문지: PBL 기반 한국어 신조어 수업 효과를 검증한다. 신조어 학습 효과, PBL 학습 효과, 신조어 학습 흥미 및 동기, 교수 모델에 대해 객관식으로 평가하고, 수업에 대한 느낌을 간단하게 서술하도록 하였다.

③ 질적 자료 수집(한국인 인터뷰 및 전사본 작성): 학습자는 9주차에 반드시 한국인 또래 대학생 최소 3명을 직접 인터뷰하여 실제 신조어 데이터를 수집한다. 인터뷰의 모든 과정은 한국어로만 진행하며, 결과물로 인터뷰 녹음 파일과 전사본을 제출하여 자료의 실제성을 확보한다. 교육 대상으로 삼은 50여 개의 신조어는 학습자들이 9주차 현장 인터뷰를 통해 직접 수집한 80여 개의 어휘 중 다음의 세 가지 기준에 따라 엄선한다. 첫째, '조어력 및 빈도'를 고려하여 실제 대학가에서 활용도가 높은 어휘를 우선하였다. 둘째, '학문 공동체 내에서의 소통 기여도'를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 이는 대학 생활 중 '에브리타임'이나 학과 커뮤니티 등에서 동료와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소외를 방지하는 데 필수적인 '사회적 소통 도구'로서의 가치를 반영한 것이다. 셋째, '어휘 형성법의 전이 가치'이다. 단순히 의미가 독특한 유행어에 그치지 않고, '축약', '의미 확장', '외래어 결합'

등 명확한 조어 원리를 내포하여 학습자가 새로운 어휘를 접했을 때 자가 학습 기제를 발휘할 수 있는 전형적인 사례들을 선정하였다. 이 연구에서 선정한 신조어 목록은 아래와 같다.

JMT	N잡러	TMI	갓생	갑분싸	거지존
금사빠	꾸안꾸	꿀잼	킹받네	내돈내산	내또출
노잼	느좋	답정너	뇌절	돈멘탈	라떼족
멘붕	밀당	별다줄	빡세다	셀카	소확행
불재	아보하	아싸	알잘딱깔센	억까	억텐
얼죽아	어장관리	열정페이	오운완	욜로	웃참
웃프다	월급루팡	유대인	인싸	자만추	점메추
좋댓구알	중꺾마	짧캉스	취준생	칼퇴	혼밥

2) 신조어 교육을 위한 PBL 수업 모형 설계

수업 모형은 PBL 5단계 프로토타입으로 설계하였다.

① 조 편성 및 활동 준비(8주차): 문제 제시 단계로 중간고사를 실시한 후 나머지 시간을 활용하여 8주차는 0.5주만 사용하며, 조는 4개로 편성한다. 이후 약 1.5시간 동안 조별 모임을 통해 향후 신조어 수집 및 분석을 위한 계획을 세우도록 한다. 학과 단체 카톡방이나 에브리타임 등 대학 커뮤니티에서 신조어로 인해 조별 과제 공지나 학과 행사의 흐름을 놓쳐 소외되는 실제적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조 편성과 함께 향후 해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② 사전 검사 및 현장 자료 수집(9주차):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단계로 학습자의 기저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사전 검사를 시행한다. 학습자들은 반드시 한국인(또래 대학생 권장)을 직접 만나 신조어 자료를 수집해야 하며, 인터뷰 녹음 파일과 전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수집된 자료는 LMS에 올리며, 다른 조가 모은 신조어를 한국어로만 설명하며 학습하는 과정을 거친다.

③ 어휘 형성법 기반 분석(10주차): 자기주도학습 단계로, 조별로 수집

한 50여 개의 어휘를 바탕으로 어휘 형성법에 따른 분류 작업을 수행한다. 이때 음차 형태, 의미 확장, 외국어·외래어 결합, 줄임말, 유행어 등의 기준을 활용하여 신조어의 구조를 분석한다.

④ 조별 발표 및 동료 평가(11주차): 공유 및 해결 단계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조별 발표를 진행한다. 발표 주제는 '신조어 어휘 형성법 분석', '신조어에 나타난 문화 찾기', '한국과 자국의 조어법 및 문화 비교'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자국의 신조어와 한국의 신조어를 대조 분석하여 발표함으로써, 한국어 공동체의 주변인에서 '상호 문화적 중재자'로 정체성을 확장하는 해결안을 나눈다. 발표 후에는 학습자 간 동료 평가를 통해 서로의 성과를 공유한다.

⑤ 토론 및 사후 검사(12주차): 평가 및 성찰 단계로 '신조어 사용이 풍부한 언어생활을 돕는 시대적 흐름인가, 한글을 왜곡하는 언어 파괴인가'를 주제로 찬반 토론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지면 검사와 인터뷰를 포함한 사후 검사를 실시하여 신조어 교육을 통한 의사소통 능력의 변화를 최종으로 확인하며 '성찰'한다. 또한 최종 사후 검사를 통해 심리적 자신감 회복과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 변화를 평가한다.

이같이 주차별 일정을 반영한 시나리오는 유학생들이 대학 내에서 경험하는 실질적인 언어적 고립을 PBL의 '비구조화된 문제'로 설정하여 학습의 실천성을 높인다. 8주차부터 12주차까지 이어지는 단계적 과정은 학습자가 언어 지식 습득 단계에서 실제적인 사회 참여 단계로 나아가는 정교한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이상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실제적 맥락 기반 신조어 교육 PBL 5단계 시나리오 및 일정

단계	주차	주요 활동	구체적 시나리오 및 과제
1. 문제 제시	8	비구조화된 문제 직면 및 조 편성	학과 단체 카톡방이나 에브리타임 등 대학 커뮤니티에서 신조어로 인해 조별 과제 공지나 학과 행사의 흐름을 놓쳐 소외되는 실제적 문제 상황을 제시함. 조 편성과 함께 향후 해결 계획을 수립함.

2. 아이디어 도출	9	사전 검사 및 현장 데이터 수집	자신의 소통 장애 요인을 진단하기 위한 사전 검사를 시행함.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로 한국인 대학생 3인 이상을 직접 인터뷰하여 실제 캠퍼스 내 신조어 사용 양상을 수집하는 현장 과제를 부여함.
3. 자기주도 학습	10	어휘 형성 원리 분석	수집된 50여 개의 어휘를 '축약', '의미 확장', '외국어 결합' 등의 어휘 형성 원리에 따라 분류함. 개별 어휘 암기를 넘어 스스로 의미를 유추할 수 있는 '자가 학습 기제'를 내면화하는 개별 및 협력 학습을 수행함.
4. 공유 및 해결	11	조별 발표 및 상호 문화 비교	분석한 결과를 조별로 발표함. 특히 자국의 신조어와 한국의 신조어를 대조 분석하여 발표함으로써, 한국어 공동체의 주변인에서 '상호 문화적 중재자'로 정체성을 확장하는 해결안을 공유함.
5. 평가 및 성찰	12	패널 토론 및 사후 검사	'신조어 사용이 시대적 흐름인가, 언어 파괴인가'를 주제로 찬반 패널 토론을 진행하여 실전 구사력을 검증함. 최종 사후 검사를 통해 심리적 자신감 회복과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 변화를 평가함.

3) 어휘형성법의 자가 학습 기제

학습자가 단순히 개별 신조어를 암기하는 수준을 넘어, 새로운 어휘를 접했을 때 그 구조와 형성 원리를 통해 스스로 의미를 유추하고 활용할 수 있는 메타 언어적 능력을 갖추게 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교육 단계는 다음과 같다.

1단계는 '어휘 형성 유형 분석 및 구조 파악'을 위해 학습자가 신조어의 생성 규칙을 논리적으로 이해하도록 유형별로 분류하여 학습한다.

> 축약형(줄임말) 분석: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것)', '알잘딱깔센(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별다줄(별걸 다 줄인다)' 등 긴 문장을 핵심 단어로 압축하는 원리를 파악한다.

외국어 및 외래어 결합 분석: ‘JMT(매우 맛있다)’, ‘TMI(너무 사소한 정보)’, ‘갓생(God+인생)’처럼 영어와 한국어가 결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는 조어법을 익힌다.

의미 확장 분석: 기존 단어가 청년 세대의 심리나 사회적 맥락에 따라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는 과정(예: ‘억까’, ‘뇌절’, ‘현타’ 등)을 구조적으로 분석한다.

2단계는 ‘사회문화적 맥락 탐색 및 상호 문화 비교’를 위해 신조어에 담긴 사회적 배경을 탐색하고 자국어의 사례와 비교하며 언어적 통찰력을 기른다.

자국어와 대조 활동: 베트남이나 중국 등 학습자의 모국어 신조어와 한국의 신조어를 비교하여 발표한다. 예를 들어, 한국의 적극적 삶의 태도가 담긴 ‘갓생’과 대비되는 자국의 소극적 저항 표현을 찾아보며 신조어에 투영된 가치관을 이해한다.

사회적 맥락 이해: 신조어가 사용되는 구체적인 상황(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분석하여 어휘의 적절성을 체계화한다.

3단계는 ‘현장 밀착형 실전 소통 및 자료 수집’ 단계로 PBL 과제를 통해 학습자가 직접 실제 언어 환경에서 자가 학습 기제를 시험한다.[2)]

한국인 동료 인터뷰: 최소 3명 이상의 한국인 대학생을 직접 만나 신조어 사용 양상을 인터뷰하고 이를 전사한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는 자신이 배운 어휘 형성 원리가 실제 대화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디지털 플랫폼 참여: ‘인스타그램’ 게시물 작성 시 ‘오운완(오늘 운동 완료)’과 같은 해시태그를 활용하거나 유튜브 댓글을 분석하며, 실제 소통 맥락에서 신조어를 선택하고 배치하는 전략적 능력을 연습한다.

2) <부록 3>의 ‘신조어 자료 수집 활동 확인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4단계는 '검증 및 자가 학습 능력 내면화' 단계로 테스트와 토론을 통해 스스로 학습한 원리를 정교화하고 내재화한다.

어휘 형성 방식 설명 평가: 사후 테스트에서 '중꺾마'나 '별다줄'의 형성 방식을 주관식으로 직접 기술하며, 조어 원리를 명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이 과정은 학습자가 새로운 신조어를 보았을 때 그 구조를 스스로 분절하고 의미를 유추하는 능력을 완성한다.

패널 토론 및 피드백: 신조어 사용의 찬반 토론 등을 통해 자신의 논리를 신조어로 표현해보고, 동료 및 교수자의 피드백을 받아 언어적 자신감을 고취한다.

이러한 활동들은 학습자들이 수동적으로 어휘를 암기하는 것에서 벗어나, 실제 한국인과 접촉하고 동료와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동적인 언어 사용자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핵심적인 기제로 작동한다. 이러한 단계적 과정을 통해 학습자는 교육이 끝난 후에도 급변하는 한국어 신조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자가 학습 체계를 갖추게 된다.

4. 연구의 결과

1) 신조어 능력 변화 분석

(1) 영역별 정량적 성취도 변화

사전 및 사후 테스트지를 분석한 결과, 15명의 학습자 대부분이 모든 영역에서 성취도가 향상되었다. 이 테스트는 의미 이해(5문항), 사용 능력(3문항), 어휘 분석(2문항)의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원점수는 [표 3]과 같다. 표 안의 숫자는 맞은 개수를 기록한 것이다.

[표 3] 응답자 원점수

학생	사전 검사			사후 검사		
	의미 이해	사용 능력	어휘 분석	의미 이해	사용 능력	어휘 분석
1	4	3	2	5	3	2
2	3	0	0	4	3	0
3	5	0	0	4	0	0
4	5	2	1	5	3	0
5	3	0	1	4	3	0
6	4	1	1	5	3	1
7	4	3	0	5	3	0
8	5	3	1	5	3	1
9	2	1	1.5	4	3	2
10	2	1	0	4	3	2
11	5	3	2	4	3	1
12	4	1	1	5	3	1
13	1	2	0	4	3	2
14	3	1	1	4	3	2
15	2	1	0	4	2	0

[표 3]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의미 이해 능력: 사전 테스트에서 평균 3.4개였던 정답 수가 사후 테스트에서는 4.4개로 증가하였다. 특히 학생 9, 10, 13번의 경우 사전 테스트에서 1~2점에 머물렀으나 사후 테스트에서 4점으로 크게 향상되어, 신조어의 사전적 의미 파악 능력이 단기간에 개선되었음을 보여 준다.

② 문맥 활용(사용) 능력: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실제 상황에 맞는 신조어를 선택해 문장을 완성하는 사용 능력 영역이다. 사전 테스트에서 0~1점에 그쳤던 다수의 학생(5, 6, 10, 12, 14, 15번 등)이 사후 테스트에서는 만점(3점) 혹은 그에 가까운 점수를 기록하였다. 이는 PBL 수업을 통한 한국인 인터뷰와 실제 소통 연습이 사회언어적 역량 강화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③ 어휘 분석 능력: 단어의 형성 방식을 설명하는 영역에서도 향상이 두드러졌다. 사전 테스트에서 분석 점수가 0점이었던 학습자들(2, 3, 7, 10,

13, 15번) 대부분이 사후 테스트에서는 분석 원리를 이해하고 1~2점의 점수를 획득하였다.

(2) 어휘 형성 방식 설명 능력의 심층 분석

학습자들은 단순히 신조어를 암기하는 수준을 넘어, 그 형성 원리를 구조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테스트 문제지에 나타난 주요 분석 대상 어휘를 통해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사전 테스트 분석 어휘(내돈내산, 알잘딱깔센): 사전 테스트에서 학습자들은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것)'이나 '알잘딱깔센(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과 같은 축약형 신조어의 의미는 어렴풋이 인지하였으나, 이를 '줄임말' 이상의 언어적 원리로 설명하는 데 한계를 보였다. 결과지 상의 낮은 분석 점수(평균 0.7점)는 이러한 구조적 이해의 부족을 뒷받침한다.

② 사후 테스트 분석 어휘(중꺾마, 별다줄): 사후 테스트에서는 '중꺾마(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와 '별다줄(별걸 다 줄인다)'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PBL 수업 10주차에 진행된 '어휘 형성법 기반 분석 학습'을 통해 학습자들은 이러한 어휘들이 단순한 축약이 아닌, 시대적 가치관이 투영된 '의미 확장'이나 소통의 효율성을 극대화한 '유행어' 유형임을 인지하게 되었다. 사후 테스트의 분석 점수 향상(평균 1.3점)은 학습자들이 신조어를 접했을 때 그 구조를 스스로 파악할 수 있는 '자가 학습 기제'를 갖추었음을 입증한다.

(3) 문항별 오답 및 정답 추이 분석

테스트 문제지의 구체적인 문항 분석을 통해 학습자의 인식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① 사전 테스트 특이점: '갓생(성실하게 사는 삶)', '오운완(오늘 운동 완료)', '억까(억지로 비난함)' 등은 사전 지식이 없는 학습자들에게는 매우 생소한 표현이었으며, 특히 사용 능력 문항(6~8번)에서 '인스타그램' 게

시물 작성 등 실제 맥락을 묻는 물음에 오답률이 높았다.

② 사후 테스트 성과: 사후 테스트에서는 'JMT(매우 맛있다)', 'TMI(너무 사소한 정보)', '노잼(재미가 없다)' 등 외국어 및 외래어가 결합된 신조어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빈칸 채우기 문제(6~8번)에서 '완전 JMT', '완전 노잼', '필요 없는 TMI' 등 문맥에 맞는 신조어를 정확히 삽입함으로써, 신조어가 학습자의 발화 속에 자연스럽게 편입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통계적·내용적 분석 결과는 이 PBL 수업 모델이 학습자의 문법적 능력(어휘 분석)뿐만 아니라 사회언어적 능력(상황별 사용)과 담화적 능력(문맥 이해)을 통합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기여했음을 보여준다.

① 사전, 사후 테스트 대응표본 t-검정 결과

15명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총점(30점 만점) 변화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사전, 사후 테스트 대응표본 t-검정 결과[3)]

구분	평균(Mean)	표준편차(SD)	t값(t)	p값(p)
사전 테스트	17.20	5.86	-2.51	.025*
사후 테스트	23.47	5.21		

사전 테스트 평균 17.20점에서 사후 테스트 평균 23.47점으로 약 6.27점 상승하였다. 유의수준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PBL 기반 신조어 교육이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음이 입증되었다. 점수 향상은 단순히 특정 어휘의 암기 효과에 그치지 않고, '어휘 분석 능력' 영역에서 안정적인 성취를 유지하며 '사용 능력' 점수가 비약적으로 상승(1.87점→2.67점)한 것에 기인한다. 이는 어휘형성법 이해를 통한 유추 능력이 실제 담화 맥락으로 전이되었음을 의미한다.

3) 자료 분석을 위해 IBM SPSS Statistics 3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② 영역별 정답 개수 변화(세부 지표)

문항 수(의미 5, 사용 3, 분석 2)를 기준으로 한 영역별 평균 정답 개수의 변화는 다음 [표 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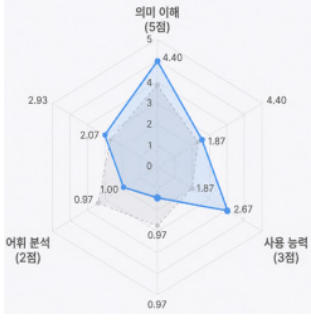
[표 5] 영역별 정답 개수 변화

영역(항목 수)	사전 평균(개)	사후 평균(개)	향상도
의미 이해(5)	2.93	4.40	+1.47
사용 능력(3)	1.87	2.67	+0.80
어휘 분석(2)	0.97	1.00	+0.03

의미 이해 및 사용 능력은 두 영역에서 뚜렷한 향상이 관찰되었다. 특히 실제 상황에 맞는 신조어를 선택하는 '사용 능력'의 향상은 한국인 인터뷰와 같은 PBL 활동의 성과로 분석된다. 어휘 분석은 사전 점수가 이미 일정 수준(0.97)에 도달해 있었으나, 사후에도 안정적인 수치를 유지하며 조어 원리에 대한 이해를 공고히 하였다.

③ 영역별 향상도 방사형 차트 분석

이 연구에서 한 사전·사후 테스트의 영역별 성취도 변화를 시각화하기 위해 의미 이해(5점), 사용 능력(3점), 어휘 분석(2점)의 세 지표를 바탕으로 방사형 차트를 구성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영역에서 사전 대비 사후 점수가 올랐으며, 특히 '의미 이해'와 '사용 능력' 영역에서 비약적인 발전이 관찰되었다.



[그림 1] 영역별 향상도 방사형 차트[4)]

첫째, 의미 이해 영역은 사전 평균 2.93점에서 사후 4.40점으로 가장 큰 폭의 향상을 보였다. 이는 10주차에 진행된 '어휘 형성법 기반 분석 학습'과 50개의 신조어 학습을 통해 학습자들의 수동적 어휘량이 단기간에 크게 확장되었음을 의미한다. 학습자들은 이전까지 모호하게 인지하던 '갓생', '억까', '뇌절' 등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게 되었다.

둘째, 사용 능력 영역은 사전 1.87점에서 사후 2.67점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이 영역은 단순히 의미를 아는 것을 넘어 실제 담화 맥락에 맞게 신조어를 구사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이러한 성취는 PBL 9주차에 실시된 '한국인 또래 직접 인터뷰' 과제의 결과로 분석된다. 학습자들은 목표어 구사자와의 실제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신조어가 사용되는 사회언어적 맥락을 체득하였으며, 이는 Canale & Swain(1980)이 강조한 사회언어적 역량과 전략적 역량이 강화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어휘 분석 영역은 사전 0.97점에서 사후 1.00점으로 소폭 상승하며 안정적인 수치를 유지하였다. 이는 학습자들이 신조어의 형성 원리(내돈내산, 알잘딱깔센 등)를 구조적으로 파악하는 기초 능력을 이미 일정 수준 갖추고 있었으며, 교육을 통해 이를 더욱 공고히 했음을 보여 준다.

결론적으로 방사형 차트의 면적 확대는 이 PBL 수업이 학습자들을 교실 내 지식 습득 단계(1단계)에서 언어 사용 연습 단계(2단계)로 성공적으로 이끌었음을 시각적으로 증명한다.

2) 학습자 설문 및 인식 분석

이 연구에서는 PBL 기반 신조어 수업의 효과를 다각도로 검증하기 위해 수업 종료 후 15명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은 신조어 학습 효과, PBL 학습 효과, 흥미 및 동기, 교수 모델 평가의 4개 정량 영역과 주관식 문항으로 구성하였다.[5)]

4) 챗지피티 이미지 2.0으로 작성하였다.

5) <부록 4>의 'PBL 기반 한국어 신조어 수업 효과 검증 학습자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1) 영역별 정량 분석 결과

신조어 학습 및 교수 모델 평가에서 학습자들은 신조어의 의미 이해와 실제 상황에서의 사용 가능성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신조어는 좋은 어휘 학습 자료가 될 수 있다(4-2)'는 문항에서 대다수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신조어가 학문 목적 학습자들에게 실질적인 언어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PBL 학습 효과에서는 조별 활동과 토론이 이해도를 높였다는 응답이 지배적이었다. 학습자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유익했다고 평가하며, 전통적인 교사 위주의 수업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흥미 및 동기에서는 기존 어휘 학습보다 재미있었으며 앞으로도 신조어를 계속 배우고 싶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신조어가 학습자의 내적 동기를 강화하는 효과적인 매개체임을 입증하였다.

(2) 주관식 응답을 통한 질적 분석

학습자 설문지의 영역 5(주관식 문항 5-1~5-3)를 통해 수집된 학습자들의 실제 발화를 분석한 결과, PBL 기반 신조어 교육 과정에서의 변화와 한계를 세 가지 상위 범주로 도출하였다.

첫째, '교육적 성취'측면에서 학습자들은 단순한 어휘 습득을 넘어 통합적인 언어 역량의 향상을 경험하였다. 학습자들은 '토론과 발표 덕분에 말하기 능력이 좋아졌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한국과 자국의 신조어를 비교 분석하는 활동'을 통해 상호 문화적 이해를 심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실제적인 담화 상황에 노출되면서 한국어 화자로서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 자신감'을 회복하는 등 정체성 변화의 양상을 보였다.

둘째, 학습 과정에서 직면한 '학습 장벽'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졌다. 다양한 국적의 학습자가 참여하는 수업 특성상 '서로 다른 한국어 억양'으로 인한 소통의 어려움이 보고되었으며, 신조어의 '방대한 양과 빠른 업데이트 속도'에 대한 인지적 부담이 관찰되었다. 또한, 심화 토론 과정에서 '긴 문장을 완벽히 이해하지 못하는' 담화 이해의 한계가 질적 데이터를 통해

확인되었다.

셋째, 향후 교육 과정을 위한 '발전적 제언'이 도출되었다. 학습자들은 자신의 생각을 더 정교하게 나타내기 위해 '말하기, 토론, 발표 활동'의 비중이 확대되기를 희망하였다. 이는 학습자들이 수동적인 지식 습득 단계에서 벗어나, 자신의 의사를 풍부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능동적 언어 사용자'로 성장하고 싶어 하는 강한 동기를 지니고 있음을 시사한다.

질적 분석 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학습자들이 겪는 '언어적 장벽'이 단순한 지식의 결핍이 아니라, 학습자 간의 '다양한 한국어 억양'이나 '빠른 업데이트 속도'와 같은 환경적 변수에서 기인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습자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PBL의 문제 해결 과정으로 받아들이며, 오히려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한국어 소통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신조어 교육은 유학생들이 대학 내의 '배타적 폐쇄성'을 뚫고 학문 공동체로 진입하기 위해 자신의 언어 자원과 가치를 투입하는 '정체성 투자'의 유효한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3) 종합 논의

이 과정에서 제출한 학생들의 자료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한국어의 영향으로 생긴 베트남 신조어를 조사 발표한 자료이다. 한국어를 음차한 '오빠, 대박, 아이고', 의미가 변형된 '드라마(→구설수), 언니(→친한 언니나 스타일 좋은 여자)',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서 만든 '아이돌한' 등이 베트남에서 사용하고 있는 신조어이다. 한국어 신조어 어휘형성법을 배운 후, 베트남 신조어도 이러한 어휘형성법을 적용해 분석한 것이다.



[그림 2] 한국어의 영향으로 생긴 베트남 신조어를 조사 발표한 자료

다음 [표 6]은 학습자 알렉스(Alex)가 한국인 동료 민지를 대상으로 신조어의 의미와 용례를 확인하는 과정이 담긴 전사본의 일부이다. 면접자와 조사자를 가명으로 할 수 있도록 했더니 알렉스, 민지 등이 등장했다. [표 6]은 '갓생, 오운완, JMT'의 의미, 어휘형성법, 실제 사용 등을 보인 자료이며, [그림 3]은 사회소통망(SNS)에서 사용한 예를 보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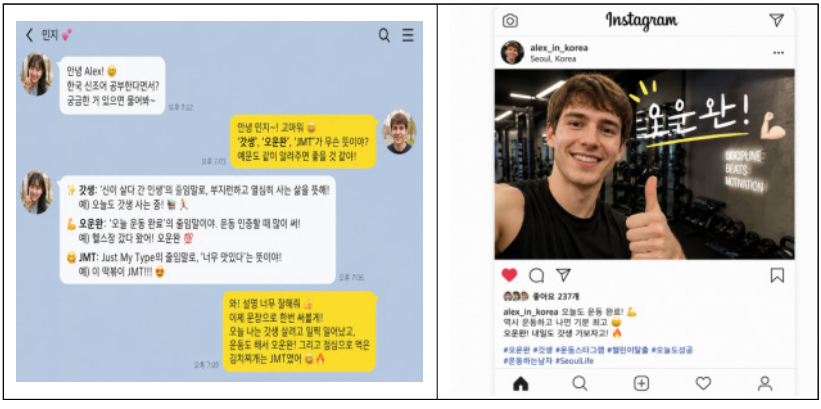
[표 6] 신조어의 의미와 용례를 확인하는 과정이 담긴 전사본 내용 일부

민지: 안녕 Alex! 한국 신조어 공부한다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Alex: 안녕 민지~! 고마워. '갓생', '오운완', 'JMT'가 무슨 뜻이야? 예문도 같이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

민지: 갓생: '신이 살다 간 인생'의 줄임말로, 부지런하고 열심히 사는 삶을 뜻해! 예) 오늘도 갓생 사는 중! □□♂
□ 오운완: '오늘 운동 완료'의 줄임말이야. 운동 인증할 때 많이 써! 예) 헬스장 갔다 왔어! 오운완 □
□ JMT: Just My Type의 줄임말로, '너무 맛있다'는 뜻이야! 예) 이 떡볶이 JMT!!! □

Alex: 와! 설명 너무 잘해줘 □ 이제 문장으로 한번 써볼게! 오늘 나는 갓생 살려고 일찍 일어났고, 운동도 해서 오운완! 그리고 점심으로 먹은 김치찌개는 JMT였어.



[그림 3] 한국인 동료 인터뷰('카카오톡'), '인스타그램' 게시물[6]

설문 분석 결과와 학습자 자료를 고려해 볼 때, PBL 기반 신조어 교육은 학습자들에게 '살아있는 한국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토론과 발표라는 실제적인 언어 사용 연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언어적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5.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를 통해 확인된 PBL 기반 신조어 교육의 성과는 단순한 언어 지식의 확장을 넘어 학습자의 사회적 위치와 정체성 변화에 깊게 관여하고 있다.

첫째, 유학생들이 대학 공동체 내에서 겪는 실질적인 소외를 극복하기 위한 기제로서 신조어의 가치를 재확인하였다. 유학생들은 한국 대학이라는 물리적 공간에 머물면서도 한국인 학생들과 실질적으로 섞이지 못하는 '지리적 역설(geographic paradox)'[7]과 또래 집단의 '배타적 폐쇄성'을 경험하며 소외되곤 한다. 사전 테스트에서 나타난 낮은 신조어 활용 능력(1.87점)은 이러한 소외를 심화시키는 언어적 장벽으로 작용해 왔다. 그러나 신조어 교육은 이들이 또래 공동체의 생생한 언어를 공유하게 함으로써 '합법적 주변 참여'를 가능하게 한다. 이는 단순히 어휘를 배우는 것을 넘어, 한국 대학이라는 사회 조직의 일원으로 인정받고 스스로를 '공

6) 학습자가 제출한 자료에는 학습자 얼굴이 그대로 제시되었으나, 연구자가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챗지피티 이미지 2.0으로 인물 이미지만 변환하였다.

7) 이 개념은 특정 단일 이론의 고유 명칭이라기보다는, 제2언어 습득 이론(SLA) 및 사회언어학적 관점(특히 언어 사회화 및 사회문화적 접근법)에서 '목표어 권역으로의 물리적 이동이 실질적인 언어적 상호작용과 환경적 혜택을 담보하지 못하는 모순'을 임계적으로 지적할 때 널리 차용되는 학술적 개념으로서, 학습자가 목표어(Target Language)가 사용되는 해당 국가에 실제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식적 장벽으로 인해 현지인과의 실질적인 의사소통 기회나 언어적 상호작용에서 소외되는 현상을 말한다. 즉, 물리적 공간의 인접성이 반드시 언어적·문화적 통합이나 자연스러운 언어 습득 환경의 보장으로 이어지지 않는 모순적 상황을 뜻한다. 주로 유학이나 이주 등을 통해 목표어 권역 내에 진입한 학문 목적 학습자나 이주민의 고립된 언어 환경을 설명할 때 활용되는 개념이다.

동체의 일원'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둘째, 학습자의 심리적 자신감 회복과 정체성 투자의 변화이다. 설문 분석 결과 많은 학습자가 초기에는 서로 다른 국적의 한국어 억양이나 긴 문장 이해에 어려움을 겪으며 소통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PBL 과제를 통해 한국인 또래와 직접 인터뷰하고 디지털 플랫폼에서 소통하는 과정에서 '한국어 화자'로서의 자신감을 얻었다는 응답이 두드러졌다. 특히 자국의 신조어와 한국의 신조어를 비교하여 발표하는 활동은 학습자를 단순히 지식을 수용하는 수동적 존재에서 '문화 간 중재자'로 격상시켰으며, 이는 학문 공동체 내에서의 능동적인 정체성 형성으로 이어졌다.

셋째, 성공적인 신조어 교육을 위한 교수자의 역할 재정의가 필수적이다. 신조어는 생성과 소멸의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교수자가 모든 지식을 전달하는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 연구에서 적용한 PBL 모델에서 교수자는 단순한 지식 전달자를 넘어, 학습자가 실제 한국인과 접촉할 수 있는 정교한 과제를 설계하는 '학습 환경 설계자'이자, 교실 안의 학습자를 교실 밖 실제 공동체와 매개하는 '공동체 연결자'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 살핀 PBL 기반의 신조어 교육은 교수자의 역할을 기존의 지식 전달자에서 벗어나 다각적으로 재정의할 것을 요구한다. '학습 환경 설계자'로서 교수자는 단순히 신조어의 목록과 의미를 전달하는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학습자가 실제적인 언어 사용 연습을 할 수 있는 인위적·강제적 소통 기회를 조성하는 환경 설계자가 되어야 한다. 윌리스(Willis, 1996)의 과제 기반 학습(TBLT) 이론을 적용하여, 한국인 최소 3명 이상을 직접 인터뷰하고 전사본을 제출하게 하는 과제를 의무화함으로써 학습자가 교실 밖 실제 언어 현장에 노출되도록 설계했다. 이는 학습자가 언어 지식 습득 단계에서 실제 소통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 가교 역할을 한다. 학습자들이 조별 활동과 토론을 통해 이해도가 높아졌다고 응답한 것은 이러한 교수자의 역할 변화가 유효했음을 입증한다.

교수자는 교실 내 관리자에 머물지 않고 학습자를 한국어 공동체와 연결하는 공동체 연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국내 대학 유학생들이 겪는 지리적 역설을 해소하기 위해, 교수자는 '에브리타임, 네이버 카페, 인스타그램' 등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컴퓨터 매개 의사소통(CMC)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학습자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조어 관련 게시글을 작성하고 한국인의 반응을 분석하게 하는 등의 활동은 학습자가 한국어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는 발판이 된다.

결론적으로 어휘형성법을 통해 새로운 어휘를 스스로 추론할 수 있는 '자가 학습 기제'를 마련해주고, PBL을 통해 실제적인 소통 환경에 노출하는 교육 모델은 유학생들이 학문 공동체의 경계인에서 주체적인 구성원으로 나아가는 데 실질적인 동력을 제공한다.

이 연구는 특정 대학의 국제학부 및 한국어문화 전공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연구 과정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현재 국내 대학의 국제학부나 외국인 전용 단과대학은 국제화라는 지향점과 달리 실질적으로는 외국인 학습자들을 한국인 대학생 공동체로부터 분리하는 '격리'의 공간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은 학습자가 한국에 거주하면서도 목표어 구사자와의 교류가 차단되는 지리적 역설을 심화시키며, 학문 공동체 내에서의 '합법적 주변 참여'를 구조적으로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 이러한 때에 이 연구는 '신조어'를 통해 주변에 참여하고, 어휘형성법을 통해 자가학습의 기제를 익혀, PBL 접근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교수자 개인의 교수법적 노력으로도 캠퍼스 환경 전반에서 한국인 학생과의 접점 지대를 확대하며, '지금 여기의' 언어와 문화를 읽게 할 수 있다는 데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강인애·정준환·정득년, 『PBL의 실천적 이해: PBL 수업을 위한 길라잡이』, 문음사, 2007.

Willis, J. *A framework for task-based learning*, London: Longman, 1996.

논문

강수진·이정현, 「고급 단계 한국어 교수 학습을 위한 신조어 선정 연구」, 『문화와 융합』 44권 6호, 한국문화융합학회, 2022, 23-43쪽.

공하림, 「대학 작문 교육에서의 문제중심학습(PBL) 적용 연구」, 『Journal of Korean Culture』 25호, 고려대학교 한국언어문화학술확산연구소, 2014, 7-42쪽.

김덕신, 「한국어교육에서 플립러닝을 이용한 신조어 수업 방안 연구」, 『어문연구』 108집, 어문연구학회, 2021, 195-221쪽.

김보경·홍상희, 「PBL(Problem Based Learning)을 적용한 문법 수업 사례 연구: 최상급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새국어교육』 136집, 한국국어교육학회, 2023, 403-438쪽.

김보현, 「신조어를 활용한 한국어 단어 형성법 교육 내용 연구」, 『어문논집』 84집, 중앙어문학회, 2020, 363-389쪽.

백은지, 「고급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신어 선정 연구: 주제 분류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박소연, 「예비 한국어 교사를 위한 PBL 기반 상호문화교육 방안 연구」, 『한국언어문화학』 20권 3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23, 161-197쪽.

이대현, 「매체를 활용한 신조어 토의·토론 교수 학습 방안 연구: 한국어 중·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이연정·이주미, 「한국어 신조어 교수·학습에 대한 요구 조사 분석: 외국인 유학생과 외국인 예비 한국어 교사를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44권 12호, 한국문화융합학회, 2022, 1062-1072쪽.

이완호, 「코로나바이러스 신어를 활용한 교수학적 모델 연구」, 『독일어문학』 94집, 한국독일어문학회, 2021, 101-126쪽.

이주미·이연정, 「대학 학부 신입생의 한국어 신조어 사용 인식에 대한 연구」, 『인문사회 21』 13권 2호, 인문사회21, 2022, 1427-1442쪽.

이현정, 「한국어교육을 위한 신어 조어소 선정 연구: 신어 조어소의 조어력 및 빈도 추이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언어사실과 관점』 36집, 연세대학교 언어교육정보원, 2015, 99-212쪽.

이현정, 「한국어교육을 위한 신어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1.

장경은, 「문제중심학습(PBL)을 활용한 한국어 문화 교육 방안」,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4, 409-418쪽.

전경윤, 「문화 범주를 활용한 한국어 신어 교육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정하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신어 교육에 대한 논의: 신어 지식 조사 및 요구 조사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4.

Canale, M., & Swain, M., “Theoretical Bases of Communicative Approaches to Second Language Teaching and Testing”, Applied Linguistics 1, 1980, pp.1-47.

인터넷 사이트

<OpenAI, ChatGPT 5.5>, https://chatgpt.com, 2026. 5. 20.

국문초록

이 연구는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들이 신조어를 매개로 한국어 공동체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 실천적 교육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어휘형성법과 문제해결학습(PBL)을 결합한 교육 방안은 학습자들이 단순한 지식 수용자에서 능동적인 언어 사용자로 성장하는 데 유효한 기제로 작동하였음을 입증하였다.

연구 결과, 학습자들은 신조어의 구조적 형성 원리를 체계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새로운 어휘를 스스로 추론할 수 있는 '자가 학습 기제'를 갖추게 되었다. 이는 교육이 종료된 후에도 끊임없이 생성되는 신조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메타 언어적 능력을 배양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또한, 실제 담화 맥락을 반영한 과제 수행을 통해 학습자들의 사회언어적 역량과 담화 역량이 정량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현장 밀착형 PBL 과제인 '한국인 대학생 인터뷰'와 '디지털 플랫폼 참여'는 유학생들이 대학 생활에서 경험한 '배타적 폐쇄성'의 장벽을 허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학습자들은 목표어 구사자와의 실제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공동체의 언어 관습을 익히고, 이를 바탕으로 합법적 주변 참여를 실천하며 한국어 화자로서의 심리적 자신감을 회복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유학생들이 공동체의 주변인에서 주체적인 구성원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연구는 교수자의 역할을 단순한 지식 전달자에서 '학습 환경 설계자' 및 '공동체 연결자'로 재정의해야 함을 시사한다. 신조어와 같이 변화가 빠른 교수 요목일수록 학습자가 실제 소통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성공 경험을 내면화할 수 있도록 정교한 학습 환경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어휘형성법과 PBL을 중심으로 한 신조어 교육은 유학생

들의 통합적 의사소통 능력을 강화하고, 이들이 한국어 학문 공동체의 실질적인 일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효과적인 교육적 대안이 될 것이다.

주제어 ● 어휘형성, PBL, 신조어, 협력학습, 지리적 역설

Abstract

A Study on Teaching Korean Neologisms through Word Formation and Problem-Based Learning

Kim, Deokshin / Chungnam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propose a practical instructional model that helps Korean for Academic Purposes (KAP) learners successfully integrate into Korean-speaking communities through the learning of neologisms. The instructional approach, which combined word-formation theory and problem-based learning (PBL), demonstrated its effectiveness in enabling learners to develop from passive recipients of knowledge into active users of the Korean language.

The findings revealed that learners acquired a self-directed learning mechanism by systematically understanding the structural principles underlying the formation of Korean neologisms. This is particularly significant because it fostered metalinguistic competence, allowing learners to independently interpret and adapt to newly emerging vocabulary even after the completion of the course. Furthermore, tasks designed to reflect authentic discourse contexts led to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rovements in learners' sociolinguistic and discourse competence.

In particular, field-oriented PBL activities, such as conducting interviews with Korean university students and participating in digital platforms, played a crucial role in breaking down the barriers of perceived social exclusivity that international students often encounter in university life. Through authentic interactions with native speakers of the target language, learners became familiar with the linguistic conventions of the community. Based on these experiences, they engaged in legitimate peripheral participation and gradually

gained psychological confidence as Korean language users. Such experiences provided an opportunity for international students to reconstruct their identities, transforming themselves from peripheral participants into active members of the community.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role of the instructor should be redefined from that of a mere transmitter of knowledge to that of a learning environment designer and community facilitator. The more rapidly changing the instructional content is—as in the case of neologisms—the more important it becomes to design sophisticated learning environments that enable learners to solve real-world communication problems and internalize successful communicative experiences.

In conclusion, neologism education grounded in word-formation theory and PBL represents an effective pedagogical alternative for enhancing international students' integrated communicative competence and supporting their development as active and legitimate members of Korean academic communities.

Keyword ● Word formation, Problem-based learning(PBL), Neologism, Collaborative learning, Geographical paradox

▌논문투고일:2026.05.31. ▌심사완료일:2026.06.18. ▌게재확정일:2026.06.29. ▌

<부록 1>

사전 테스트 문제지

학과	학번	학년	이름	
				재학생, 교환학생

※ 다음 신조어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의미 이해, 각 2점 × 5문항 = 10점)

1	갓생( ) ① 대충 사는 삶 ② 성실하고 계획적으로 사는 삶 ③ 돈을 많이 버는 삶 ④ 자유롭게 사는 삶	2	오운완( ) ① 운동을 시작함 ② 운동을 끝냄 ③ 운동을 계획함 ④ 운동을 실패함
3	억까( ) ① 일부러 칭찬함 ② 억지로 비난함 ③ 자연스럽게 평가함 ④ 몰래 도와줌	4	뇌절( ) ① 생각을 멈춤 ② 적당히 멈춤 ③ 지나치게 계속함 ④ 새롭게 시작함
5	알잘딱깔센( ) ① 대충 알아서 행동함 ② 정확하게 알아서 센스 있게 처리함 ③ 느리지만 정확함 ④ 혼자 결정함		

※ 다음 상황에 맞는 가장 적절한 신조어를 쓰시오.(사용 능력, 각 4점 × 3문항 = 12점)

6	A: 오늘 공부도 하고 운동도 했어. B: 와, 너 완전 _____이다.	7	A: 그건 좀 너무 억지로 욕하는 것 같아. B: 맞아 완전 _____야.
8	다음 문장을 자연스럽게 완성하시오. “오늘 운동했으니까 인스타에 ‘_____’ 올려야지.”		

※ 단어 형성 방법(각 4점 × 2문항 = 8점)

9. ‘내돈내산’의 형성 방식을 설명하시오. ( )

10. ‘알잘딱깔센’의 형성 특징을 설명하시오. ( )

<부록 2>

사후 테스트 문제지

학과	학번	학년	이름	
				재학생, 교환학생

※ 다음 신조어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의미 이해, 각 2점 × 5문항 = 10점)

1	JMT ( ) ① 맛이 없다 ② 매우 맛있다 ③ 건강한 음식이다 ④ 비싼 음식이다	2	노잼 ( ) ① 매우 재미있다 ② 재미가 없다 ③ 조금 재미있다 ④ 긴장된다
3	TMI ( ) ① 꼭 필요한 정보 ② 너무 중요한 정보 ③ 너무 사소한 정보 ④ 비밀 정보	4	버카충 ( ) ① 버스를 자주 타는 사람 ② 교통카드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 ③ 버스를 싫어하는 사람 ④ 택시만 타는 사람
5	현타 ( ) ① 기분이 좋아지는 상태 ② 현실을 깨닫고 허무한 느낌 ③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상태 ④ 긴장된 상태		

※ 다음 상황에 맞는 가장 적절한 신조어를 쓰시오.(사용 능력, 각 4점 × 3문항 = 12점)

6	A: 이 음식 진짜 맛있다! B: 맞아, 완전 _____!	7	A: 이 영화 어땠어? B: 별로야… 완전 _____이야.
8	다음 문장을 자연스럽게 완성하시오. “그 얘기는 지금 상황에 필요 없는 _____야.”		

※ 단어 형성 방법(각 4점 × 2문항 = 8점)

1. ‘중꺾마’의 형성 방식을 설명하시오. ( )

2. ‘별다줄’의 형성 특징을 설명하시오. ( )

〈부록 3〉

신조어 자료 수집 활동 확인서

1. 인터뷰 기본 정보

항목	내용
일시	2026년 ___월 ___일 ___시 ~ ___시
장소	
대상/소속/학년	_____(가명 가능)/____
방식	□ 대면 인터뷰
진행자	
시간	______분

2. 자료 수집 내용

항목	내용
수집 주제	한국 대학생이 사용하는 신조어 조사
수집 신조어 수	______개
대표 신조어	_____
자료 수집 방법	반구조화 인터뷰
녹음 파일 제출	□ 제출
전사본 제출	□ 제출

3. 인터뷰 주요 내용 요약

---

4. 연구자 성찰

1) 새롭게 알게 된 신조어:

2) 신조어의 형성 방식(축약, 합성, 외래어 포함 등):

3) 사용 환경과 맥락 알기:

5. 확인

본인은 이 과제 수행을 위해 한국어 화자를 대상으로 신조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인터뷰 녹음 파일과 전사본을 함께 제출합니다.

구분	성명	서명
인터뷰 진행자	_____	_____
인터뷰 참여자	_____	_____

작성일: 2026년 4월 _일

※ 제출물 ① 활동 확인서 1부 ② 인터뷰 녹음 파일 ③ 전사본 ④ 인터뷰 사진(선택)

〈부록 4〉

PBL 기반 한국어 신조어 수업 효과 검증 학습자 설문지

학과	학번	학년	이름	
				재학생, 교환학생

※ 각 문항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에 ○로 표시해 주세요.

영역 1. 신조어 학습 효과	1 전혀 아니다	2 아니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1-1. 신조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1-2. 신조어를 실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1-3. 신조어의 형성 원리를 이해하게 되었다.					
영역 2. PBL 학습 효과	1 전혀 아니다	2 아니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2-1. 조별 활동이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					
2-2. 친구들과의 토론이 이해를 높였다.					
2-3.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유익했다.					
영역 3. 흥미 및 동기	1 전혀 아니다	2 아니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3-1. 신조어 학습은 흥미로웠다.					
3-2. 기존 어휘 학습보다 더 재미있었다.					
3-3. 앞으로도 신조어를 배우고 싶다.					
영역 4. 교수 모델 평가(핵심)	1 전혀 아니다	2 아니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4-1. 이 수업 방식은 한국어 학습에 효과적이다.					
4-2. 신조어는 좋은 어휘 학습 자료가 될 수 있다.					
영역 5. 주관식	1 전혀 아니다	2 아니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5-1.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은 무엇인가?					
5-2.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					
5-3. 개선이 필요한 점은?					

● ● ● https://doi.org/10.54698/kl.2026.21.369
지식과 교양, 제21호,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Knowledge and Liberal Arts, Vol. 21, LIC, pp.369-398.

SoTL(Scholarship of Teaching and Learning) 관점에서 플립러닝 기반의 '고전 읽기' 강의 사례 연구

김 도 희*

목 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연구의 방법
4. 연구의 결과
5. 결론 및 제언

1. 서론

대학 교육의 패러다임이 교수자 중심의 지식 전달에서 학습자 중심의 역량 함양으로 전환됨에 따라, 교육을 담당하는 대학 교원의 전문성에 대한 재정의 또한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대학 교원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이 학술적 연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에서의 학자적 전문성(Scholarship of Teaching and Learning, 이하 SoTL)'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는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이은실은 SoTL을 "대학교원이 수업 현장에서 생긴 교수학습의 문제나 질문으로 교육실행연구를 수행하여 전공교수학습지식(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이하 PCK) 확산에 기여하는 노력과 활동"[1]으로 정의하였다.

* 대전대학교 HRC 조교수

SoTL의 관점에서 볼 때, 교수자는 단순히 지식을 전수하는 전달자가 아니라 강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교수-학습의 문제를 연구 측면에서 질문하고, 이를 실증적인 데이터로 분석하여 '교수학습지식'을 창출하는 학자로서의 정체성을 지녀야 한다. '교육에서의 학자적 전문성'을 구체화하는 실천적 틀이라고 할 수 있는 SoTL 연구의 초점은 교수자의 의도나 교수법 그 자체가 아니라, 교수자의 교육적 실천을 통해 실제로 발생하는 학습자의 학습 변화에 있다. 교수자의 입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쳤는가'보다는 학습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사고하며 변화했는가'를 중심에 둔다는 점에서 SoTL은 학습자 중심의 교육 철학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학습자의 태도, 사고, 성찰과 같은 질적 목표를 중시하는 대학 교양교육에서 SoTL은 특히 더 중요하다.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분석보다 강의에 임하는 학습자의 변화에 초점을 두는 교양 교과의 특성은 SoTL 관점에서의 연구가 지향하는 목표와 맞닿아 있다. 특히 대학 교양교육으로서의 '고전 읽기' 교과는 단순한 인문학적 지식 전달을 넘어 비판적 사고력과 문제해결 역량을 강화하는 학습자의 능동적 학습에 기반을 둔다. 윤승준·권승구·서보영·최윤경·최인선의 연구[2]가 입증하듯, '고전 읽기' 교육은 대학생의 독해 역량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창의 역량, 문제해결 효능감을 유의미하게 증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료와의 토론과 성찰적 글쓰기를 통해 자신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의미를 찾아내는 '성장 경험'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교육적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고전 텍스트의 난해성과 방대한 분량, 학습자의 배경지식 부족으로 인해 교수자 중심의 해설식 수업이 이루어지는 실정이다.[3] 이러한 강의 방식은 학습자를

1) 이은실, 「교육에서의 학자적 전문성: 대학교원을 위한 SoTL 개념과 프로그램 개발」, 『한국교원교육연구』 34권 2호, 한국교원교육학회, 2017, 465쪽.

2) 윤승준·권승구·서보영·최윤경·최인선, 「고전읽기 교육의 교육적 성과 검증을 위한 공동 연구: 국내 4개 대학의 교육성과 진단을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18권 3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24, 91-106쪽.

고전 해석의 주체가 아닌 일방적인 수용자로 만들어 '고전 읽기' 교과의 교육적 효과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을 불러일으킨다. '고전 읽기' 강의의 현실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토론 중심 강의, 질문 기반 읽기, 발췌 텍스트 활용 등의 다양한 교수 전략이 시도되고 있으나, 강의의 구조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된 연구는 충분하지 않다. 특히 플립러닝(Flipped Learning) 방식은 '고전 읽기' 강의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교수-학습 전략[4]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학습자의 고전 이해 방식과 사고 경험에 어떠한 질적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교육적 분석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플립러닝을 적용한 대학 교양으로서의 '고전 읽기' 교과에서 학습자의 학습 경험과 사고 과정의 변화 양상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SoTL의 실천적 과정을 담는다. 기존의 플립러닝 기반 강의 사례 연구가 교수법의 효과 검증에 초점을 두어 왔다면, SoTL 관점의 연구는 교수자의 강의 설계와 운영이 학습자의 변화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밝혀내는 것에 초점을 둔다. 이를 위해 교수자의 교육적 실천으로서 '플립러닝' 기반의 교수-학습법을 도입하여 강의를 설계하고, 실제 강의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고전 교육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자 한다. 특히 '고전 읽기' 교과의 특성상 학습 성과가 단순한 지식 습득이나 성취 점수로 환원되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하여, 학습자의 해석 경험, 사고의 변화, 강의 참여의 질적 측면을 중심으로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교수자가 가르치는 행위 자체에 머물지 않고 학습자의 질적 변화에 주목

3) 서수백, 「대학 고전 읽기 수업 운영 사례 연구」, 『인문연구』 91호, 인문과학연구소, 2020, 31-58쪽.
서기자, 「대학 교양교육으로서 고전 세미나 연구」, 『지식과교양』, 창간호, 목원대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2018, 1-21쪽.

4) 김태희·김정숙, 「플립러닝 방식의 인문고전 교육을 위한 동영상 강의 콘텐츠 구성 및 활용 사례 연구-고려대학교 교양과목 「인문고전세미나」와 온라인 교육 콘텐츠 '고성방가(高聲放歌)'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21집, 인문과학연구소, 2024, 133-162쪽.

하여 고전 교육의 실천적 성과를 정교화하는 것은 대학 교양교육에서 PCK 확산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지니는 지점이다.

2. 이론적 배경

1) SoTL의 개념과 적용

SoTL은 교수자의 강의 실천을 학문적 탐구의 대상으로 삼아, 교수 행위가 학습자의 학습에 끼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학문 공동체와 공유하고자 하는 연구로서의 접근을 의미한다. 이 개념은 Boyer가 대학 교원의 전문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교육 활동 역시 학문적 탐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면서 시작되었다. Boyer에 따르면, 학문의 영역은 발견의 전문성(scholarship of discovery), 통합의 전문성(scholarship of integration), 응용의 전문성(scholarship of application), 가르침의 전문성(scholarship of teaching)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가르침의 전문성 영역을 통해 전통적인 연구자로서의 역할을 넘어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5] 특히 교육 현장에서의 교수 활동은 단순한 개인적 실천이나 경험의 축적에 머무르지 않고 이를 검증하고 공개하여 지식 생산의 영역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보았다. Shulman은 교사에게 필요한 지식을 명제적 지식(propositional knowledge), 사례 지식(case knowledge), 전략적 지식(strategic knowledge)으로 나누고, 교수자의 가르치는 행위를 "이해를 기반으로 한 지식 성장의 과정"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교수학적 내용지식은 단순한 교과 내용 지식을 넘어, 가르치기 위한 내용 지식의 차원을 포함한다."[6]고 주장함으로써 SoTL의 토대를 제공하였다.

---

5) Boyer, E. L., *Scholarship Reconsidered : priorities of the professoriate,* The Carnegie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Teaching,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ERIC Document Service Record NO.ED326149), 1990, p.16.

6) Shulman, L. S., *Those who understand: Knowledge growth in teaching. Educational Researcher,*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vol. 15 no. 2, 1986, p.9.

SoTL의 국내 연구자 홍성창은 Boyer의 논의를 빌려 교원의 업적 영역을 네 가지로 구분하면서, 지식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발견(discovery), 지식 간 맥락을 연결하는 통합(integration), 전문 지식을 사회적 문제해결에 투입하는 적용(application), 지식을 반영하고 학습을 촉진하는 교육(teaching)의 학문이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이론적 지식을 실제 교육 현장의 문제해결에 투입하는 '적용의 학문'과 자신의 교수법을 체계화하여 성과를 공유하는 '교육의 학문'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학자적 교원으로서의 성장이 완성된다[7]고 보았다. 이은실은 학자적 전문성을 SoTL의 관점에서 구체화하였다. 이은실에 따르면, 교수자가 수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습의 문제를 연구 질문으로 전환하고, 체계적인 증거 수집과 분석을 통해 그 결과를 공유하는 성찰적 탐구 과정이 SoTL이다. 이는 교수자가 전공 지식을 학습자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변형하는 '교수학습지식'을 고도화하는 과정과 직결된다. 특히 SoTL의 실천 방법론으로 '교육실행연구(Action Research)'[8]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교수자가 스스로의 강의를 관찰하고 개선안을 적용하며 그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학습자의 학습 효과를 높이는 순환적 구조를 갖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통적으로, 대학 교원의 강의는 연구 활동과는 구분되는 실천 영역으로 간주되어 강의의 질이나 효과는 주로 개인적 성찰이나 강의 평가에 의존해 논의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강의 경험이 축적되더라도 그 성과를 학문적으로 공유하기 어렵고, 교수 개인의 노하우 차원에 머문다는 한계를 지닌다. SoTL 관점에서의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교수자의 강의 설계와 운영,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습자의 변화를 연구 질문으로 설정하고, 자료 수집과 분석을 통해 학문적 근거를 갖춘 논의로 발전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는 특히 교

7) 홍성창, 「'학자적 교원' 모형의 개발과 적용」, 『한국교원교육연구』 29권 1호, 한국교원교육학회, 2012, 33-54쪽.

8) 이은실, 앞의 논문, 465-485쪽.

양교육에서 학습 성과를 질적으로 분석하는 데 적합한 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SoTL 관점에서의 연구는 단순한 강의 사례 보고와 구별되는 학문적 성격을 지닌다. 일반적인 강의 사례 연구가 교수자의 개인적 경험에 기반을 둔 강의에 대한 반성이나 개선 보고와 같은 사례를 소개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SoTL 관점에서의 연구는 해당 강의에서 도출된 결과를 이론적 틀 속에서 해석함으로써 교육적 차원에서 참고할 수 있다. 이는 홍성창이 강조한 교육의 영역을 단순한 지식 전수의 차원을 넘어, 교수자가 자신의 지식을 교육 현장에 최적화된 형태로 재구성하고 그 성과를 학술적으로 입증하는 '교육의 학문'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점에서 SoTL 관점에서의 연구는 교수자의 강의 현장에서 출발하여 교육적 의미를 이론적으로 확장하는 실천 기반 연구로 이해될 수 있다.

SoTL은 교수자의 교육적 실천을 통해 지식을 체계화한다는 측면에서 Shulman이 제시한 PCK의 형성 과정과 연계된다. 교수자가 '고전 읽기' 강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질문을 던지고, 사전 학습지, 토론 발화, 성찰 저널 등의 자료를 통해 학습자의 사유 궤적을 실증적으로 추적하는 일련의 과정 자체가 SoTL이 요구하는 체계적인 이론적 검증 절차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사례 분석 결과는 교수자의 개인적 경험담이 아니라, 고전 교양교육이라는 맥락 속에서 이론과 실천이 어떻게 상호 작용하며 '가르침의 학문(Scholarship of Teaching)'으로 전환되는지를 보여준다.

2) SoTL 관점에서의 플립러닝

대학 교양교육에서 '고전 읽기' 교과의 목표는 단순한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넘어 인간과 사회, 가치와 윤리에 대한 근원적 질문에 대해 사유하도록 하는 데 있다. 고전 텍스트는 학습자의 경험에 따라 의미가 새롭게 구성된다는 점에서 학습자로 하여금 해석적 읽기를 요구한다. 그러나 실제 강의 현장에서는 텍스트의 난해성, 강의 시간의 제약, 학습자가 가지는 배경지식의 차이 등으로 인해 교수자 설명 중심의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교수자가 중심이 된 일방적인 지식 전달 위주의 강의는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고전 텍스트에 대한 해석의 범주를 제한함으로써 학습자가 고전을 수동적으로 수용하도록 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강의실에서의 강의를 학습자의 상호 작용과 심화 학습에 재배분하려는 강의 방식이 플립러닝이다. 플립러닝은 전통적 강의에서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던 지식 전달을 교실 밖으로 이동시키고, 교실 시간에는 토론·적용·문제 해결 등 적극적 학습 활동을 수행하도록 수업을 재구성한다[9]. 플립러닝은 전통적인 강의 중심 수업 구조를 전환함으로써 지식 전달을 Pre-class 단계로 이동시키고, In-class에서는 학습자의 상호 작용과 고차원적 사고 활동을 중심에 두며, Post-class에서 깊은 성찰을 유도하는 교수-학습 전략이다. 학습자가 사전에 기본 개념과 맥락을 학습한 상태에서 강의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본강의 시간에는 이해의 적용, 관점의 비교, 해석의 확장과 같은 심화된 학습 활동을 유도한다. 학습자들이 텍스트의 기본 맥락과 핵심 내용을 이해한 후 강의에 참여하게 하는 교수자의 강의 설계와 운용은 강의실을 학습자의 다양한 해석을 바탕으로 한 활발한 논의의 공간으로 만든다. 플립러닝으로 설계된 강의실은 교수자의 시각에서 텍스트에 대한 해설을 듣는 공간이 아니라, 서로의 해석을 비교하고 사고를 확장하는 주도적인 학습자를 양성하는 공간이 된다.

플립러닝 기반의 강의는 교수자의 면밀한 설계를 바탕으로 학습자의 능동적 참여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이론과 실제를 통합하는 교육적 실천이라 할 수 있다. SoTL의 관점에서 볼 때, 플립러닝 기반의 '고전 읽기' 강의는 교수 전략 그 자체보다 전략의 적용으로 인한 학습자의 이해 방식과 사고 과정에서의 변화를 주요 연구 대상으로 한다. 강의의 효과 역시 '플립러닝을 적용했는가'라는 형식적 차원에 있지 않고, '학습자에게 어떠한 학습 경험을 제공했는가'라는 분석으로 확인된다. 고전 텍스트를 대하는 태도와 해

9) Bergmann & Sams 저, 정찬필·임성희 역, 『거꾸로교실: 진짜 배움으로 가는 길』, 에듀니티, 2015, 34-47쪽.

석 방식, 사고 깊이의 변화에 대한 분석은 SoTL이 지향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수법 연구와 연결되는 지점이다. 특히 사고의 과정과 의미 구성의 변화를 중시하는 '고전 읽기' 교과의 특성상, 학습성과를 시험 점수와 같은 양적 지표로 환원하기 어렵다. 따라서 학생들의 토론 발화, 성찰 일지, 과제 수행 과정과 같은 질적 자료를 중심으로 학습 경험을 분석하는 SoTL 관점의 연구는 '고전 읽기' 강의의 교육적 가치를 정교화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플립러닝 환경에서 나타나는 학습자의 참여 양상과 변화는 교수자의 강의 설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고전 읽기' 교과의 교수-학습 모델을 이론적으로 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학습자의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는 교육적 요인은 다양할 수 있으나, 플립러닝을 도입하여 '고전 읽기' 강의를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것은 교과목이 지닌 구조적 한계를 해결하고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SoTL 관점에서의 선택이다. 플립러닝은 강의 구조의 역전을 통해, 대학 교양교육으로서의 '고전 읽기' 강의가 단순한 문자의 해독을 넘어 텍스트를 매개로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는 고차원적 사유 활동이라는 본질을 되찾기 위한 교육적 실천이다. SoTL 관점에서의 플립러닝은 단순한 교수 전략이 아니라, 학습자를 수동적 청중에서 능동적 해석의 주체로 전환하고 '고전 읽기' 강의를 지식 전달 중심에서 역량 중심 교과로 전환할 수 있는 적합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플립러닝과 '고전 읽기'를 결합한 강의 구조는 단순한 교수법 적용 사례를 넘어, 학습자의 사유 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구하는 SoTL 관점에서의 교육 실천이다.

3. 연구의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플립러닝을 적용한 '고전 읽기' 강의에서 나타나는 학습자의 이해와 사고방식 및 참여 경험의 변화를 탐구하고, 그러한 변화가 교수자의 강의 설계 및 운영 요소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SoTL

관점의 강의 기반 연구를 수행한다. 이를 위해 텍스트에 대한 기본 이해 위주의 Pre-class, 팀 활동을 기반으로 한 해석 및 토론 위주의 In-class, 심화 학습과 성찰 활동이 핵심이 되는 Post-class를 포함하는 플립러닝 구조로 설계하여 적용하였다.

'고전 읽기' 교과의 학습 성과가 객관적인 점수로 환원되기 어렵다는 점과 함께 학습자의 해석 과정과 사고의 전개가 핵심 성과로 나타나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학습자의 학습 산출물과 상호작용 자료를 중심으로 다층적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질적 중심의 혼합 자료 설계를 채택하였다. 학습자의 텍스트 해석 방식과 사고 과정 변화를 질적으로 분석하되, 강의 참여 양상과 태도 변화는 설문 및 참여 지표 등 보조적 정량 자료를 통해 보완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SoTL 관점에서 토론 발화, 강의 참여 양상, 과제물, 성찰 저널, 설문 응답 등 다양한 산출물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학습의 질적 변화와 의미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자료 분석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질적 실행연구에서 널리 활용되는 삼각 검증 전략을 채택하였다. 연구자가 수집한 사전 학습지, 활동지, 성찰 저널 등의 텍스트 데이터와 학생들의 토론 발화 녹취록, 그리고 사전·사후 설문조사의 정량 데이터를 상호 비교 분석함으로써 해석의 주관적 편향을 최소화하였다. 질적 내용분석의 적용에 따른 결과물의 신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조의 고전 교양교육 및 플립러닝 연구를 바탕으로 분석 범주의 적절성을 확보하였다.

2) 분석 대상 및 참여자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D 대학에서 2025-1, 2학기에 운영된 플립러닝으로 설계된 '고전 읽기' 강의 및 강의를 수강한 학생 40명이다.[10] 참여 학생의 학년별 분포는 2학년 23명(57.5%), 3학년 13명(32.5%), 4학년 4명(10%)이며, 계열별로는 인문·사회, 공학·자연, 보건의료, 디자인으로

10) 필자가 담당한 '고전 읽기' 강의는 D 대학의 플립러닝 인증을 받아 운영되는 '리버럴아츠 핵심' 교과로, 20명의 소수 인원을 중심으로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된다.

다양한 전공 분포를 나타냈다. 대부분의 학습자는 대학 교육과정에서 심층적 고전 읽기를 통한 텍스트 해석 및 세미나 형식의 토론에 관한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본 연구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연구 자료의 수집과 활용을 위해 강의를 수강한 학생을 대상으로 참여 의사를 반영하고 연구 윤리 기준에 따라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쳤다. 특히 학습자가 작성한 학습 자료는 성적 평가와 분리하여 연구 목적으로만 분석되었으며, 분석 과정에서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제거하였다.

3) 자료 수집

대학 교양교육으로서 '고전 읽기' 강의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SoTL의 실천적 과정이라는 연구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수집하였다.

첫째, 학습자의 고전 이해 및 해석 방식을 분석하기 위해 사전 학습지와 활동지, 성찰 저널, 개별 및 조별 과제물을 수집하였다. 이 자료는 학습자가 텍스트를 어떻게 요약하고 재구성하는지, 어떤 근거를 사용하여 해석을 하는지, 강의 진행에 따라 학습자의 사고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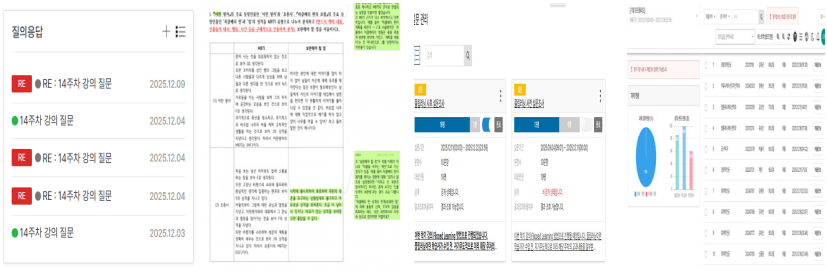
둘째, 학습자의 사고 과정과 상호작용을 분석하기 위해 토론 및 발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는 팀 토론과 관련된 토론 결과물, 활동 과정에서의 논의, 발표 자료 등의 기록으로 구성되며, 학습자 간 해석 비교, 반론의 제기, 근거의 활용, 관점의 변화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분석하는 데 사용하였다.

셋째, 학습자의 참여 방식 및 태도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활동 참여도 체크 및 과제 제출 기록 등의 강의 참여 기록과 함께 '사전-사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고전에 대한 자기효능감, 강의 참여에 대한 인식, 플립러닝 강의 구조에 대한 인식, 팀 활동과 글쓰기 활동에 대한 학습 경험 등을 포함하도록 구성하여 참여 및 태도 변화를 보조적으로 확인하였다. [그림 1]은 연구 분석에 활용한 학생 활동 자료이다.



[그림 1] 연구 분석에 활용한 학생 활동 자료

넷째, 교수자의 강의 설계 및 운영 요소를 분석하기 위해 주차별 계획, 사전 학습 자료, 활동지, 질문 설계 등의 강의 설계 자료와 학습자의 발표에 대한 피드백, 평가 루브릭, 총평 등 교수자의 피드백 자료, 교수자의 성찰 메모 등 강의 운영 기록을 수집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학습자의 변화가 어떠한 설계 요소와 연결되는지, 교수자의 피드백이 학습자의 해석과 논증에 어떤 방향성을 부여하는지 해석하는 데 활용하였다. [그림 2]는 연구 분석에 활용한 교수 활동 자료이다.



[그림 2] 연구 분석에 활용한 교수 활동 자료

4) 분석 절차 및 방법

본 연구에서 분석을 위한 틀은 강의의 실제 주차 구성, 활동지, 과제, 평가 체계에서 직접 도출되었다. 이러한 분석 틀은 SoTL의 핵심인 '설계-활동-변화'의 연계성을 분석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설명할 수 있다. 분석 틀에 맞게 수집된 자료를 연구

문제에 따라 단계적으로 분석하였고, 자료 정리 및 범주화, 연구 문제별 틀 구성, 자료 간 삼각 검증을 통해 해석을 정교화하는 절차로 수행하였다.

먼저 고전 이해 및 해석 방식을 도출하기 위해 학습자 과제물과 성찰 일지에서 텍스트에 대한 이해 양상을 분석하였다. 해석의 범주는 내용 재진술, 개념 중심 해석, 맥락화, 삶과의 연계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학기 진행에 따라 이러한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비교 분석하였다. 특히 해석의 변화는 단순한 인상평이 아니라, 근거의 활용, 개념의 정확성, 텍스트 인용의 방식 등 관찰할 수 있는 지표를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사고 과정 및 비판적 사고는 토론 자료와 논증형 글쓰기 산출물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논증 구조, 근거의 성격, 관점 비교, 반성적 사고와 같은 요소를 중심으로 하여, 플립러닝 환경에서 고전 텍스트가 사고의 매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해석하였다. 참여 방식 및 태도 변화는 정량적 자료와 정성적 자료를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참여 기록에는 활동 참여율, 과제 제출 지속성, 토론 발화의 분포, 발표 참여 빈도 등을 정리하고, 설문에서는 사전-사후 변화를 비교하였다. 동시에 토론 자료와 성찰 일지를 통해 참여의 단순 빈도가 아니라 어떤 질적 특성을 갖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참여의 양적 증가 여부뿐만 아니라 질적 변화를 함께 설명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설계 요소와 학습 변화의 관련성은 강의 설계 자료와 교수 피드백 자료를 학습자 산출물의 변화와 연결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주차에 따른 Pre-class 자료의 구성 및 질문 설계, In-class에서의 팀 활동 구조, 교수 피드백의 활용 양상, Post-class에서 학습자의 성찰 방식과 깊이에 대응하여 '설계-활동-변화'의 연결 고리를 파악하고 결과를 도출하였다.

4. 연구의 결과

1) 텍스트 해석 방식의 심화 : 단순 요약에서 삶과의 연계로

실제 교수-학습 과정에서 도출된 학생들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구체적

인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플립러닝을 적용한 '고전 읽기' 강의에서 학습자들의 이해 방식은 학기 초반의 줄거리 재진술 위주의 이해에서 점차 주제, 개념 중심의 해석으로 나아갔으며, 삶에의 적용으로 의미를 확장해 가는 양상을 보였다. 강의 초기 학습자들은 작품의 사건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정리하거나 주요 인물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텍스트를 이해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이 같은 경향은 특히 『어린 왕자』와 『허클베리 핀의 모험』의 줄거리를 단계별로 정리하는 활동에서 명확히 드러났으며 텍스트를 이해해야 할 이야기로 인식하는 초기 단계의 읽기 특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주제 매치식 강독과 텍스트 간 비교가 반복되면서 학습자들은 두 작품을 단순히 각각의 이야기로 읽기보다 '성장'이라는 공통 테마를 중심으로 해석하고 논의하기 시작했다. 특히 떠남과 여행, 선택과 귀환이라는 서사적 요소를 기준으로 두 작품의 차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동일한 주제가 작품마다 서로 다른 가치와 결말로 구현될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고전을 고정된 의미를 지닌 텍스트가 아니라, 관점에 따라 다르게 읽힐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나아가 '여행이 인생에서 갖는 의미', '인생에서 추구해야 할 가치'와 같이 작품 속 인물의 성장 서사를 자신의 인생 서사로 연계함으로써 고전 텍스트를 삶을 성찰하는 매개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같은 양상은 플립러닝 구조 속에서 확보된 강의 시간과 반복적 성찰 활동이 고전에 대한 이해를 삶의 차원으로 확장하는 데 기여했음을 시사한다. [표 1]은 고전 이해 및 해석 방식을 분석하는 틀이다.

"옛날에는 어린 왕자가 여우를 만나는 동화 같은 이야기로만 읽혔다. 하지만 조원들과 현대의 인간관계와 비교하며 토론하다 보니, 여우가 말한 '길들인다'는 것은 효율성만 따지는 현대 사회에서 서로에게 유일한 존재가 되기 위해 시간과 책임을 투자해야 한다는 비판적 메시지임을 깨닫게 되었다."(학생 A, 조별 활동에서 발췌).

"처음에는 고전이 나와 무슨 상관인지 지루하기만 했는데, 어린왕자나 허클베리 핀의 고민이 지금 내가 처한 현실적 고민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학생 B, 성찰 저널에서 발췌).

[표 1] SoTL 관점의 분석 틀 _고전 이해 및 해석 방식

상위 범주	하위 코드	정의	분석 자료 예시
텍스트 이해 수준	내용 재진술	텍스트의 내용 요약 및 설명	플롯의 재구성
	개념 중심 해석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의미 부여	B612, 6개의 행성, 지구, 미시시피강, 강변마을 등 배경의 상징성
개념 해석	비교 이해	두 개의 텍스트에 대한 비교 해석	-외적 규칙과 내면적 윤리 사이에서의 선택 -문제를 인식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방식
	맥락화	텍스트의 의미 확장	귀환과 떠남의 의미 여행을 통한 성장
의미 확장	삶과의 연계	고전을 자신의 경험, 삶과 연계	-작가의 삶, 시대가 나의 삶에 던지는 질문은? -두 주인공 소년 중 누구에게 공감했는가?

2) 사유 과정의 정교화 : 단편적 인상에서 비판적·성찰적 사고로

플립러닝 기반의 '고전 읽기' 강의는 학습자들의 사고 과정을 비교와 대조, 논증, 성찰의 방향으로 확장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기 초, 학습자들의 발화와 글쓰기에서는 개인적 인상이나 단편적 감상이 주를 이루었으나, 텍스트 비교 읽기와 동료 간 토론 활동이 반복되면서 사유가 확장되고 사고의 구조가 점차 심화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특히 두 작품의 주인공을 비교하는 활동에서 학습자들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그 차이가 발생하는 배경과 맥락을 연계하여 설명하려고 노력하였다. 예를 들어『어린 왕자』에서 '어린왕자'의 귀환과『허클베리 핀의 모험』에서 '허클베리 핀'이 또 다른 모험을 선택하는 차이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성장의 의미를 재정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짐을 탈출시키는 허클베리 핀의 도덕적 딜레마를 다룬 쟁점 토론에서 학습자들은 기존 사회 규범과 개인의 양심이 충돌하는 지점에 대해 깊이 있게 사고하였다. 이는 학습자들이 고전의 서사를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 맥락으로 확장하여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당대 사회의 법과 종교는 짐을 도망친 노예로 규정하지만, 허클베리 핀은 지옥에 가더라도 친구를 구하겠다는 선택을 한다. 조원들과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사회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상식이나 제도 중에서도 혹시 허클베리 핀이 살았던 시대처럼 구조적 폭력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게 되었다."(학생 C, 토론 발화에서 발췌).

이러한 양상은 단순 비교를 넘어 해석의 기준을 설정하고 수정하는 비판적 사고의 징후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토론 과정에서 자신의 해석을 수정하거나 유보하는 발화가 점차 증가하였다. 타인의 해석을 수용하거나 반론을 준비하면서 자신의 관점을 재구성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In-class에서 확보된 토론 시간이 학습자에게 해석을 검증하고 조정하는 기회를 제공했음을 보여준다. 더불어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고 있는가'와 같은 성찰형 과제에서는 작품 해석을 계기로 자신의 가치관과 선택을 되돌아보는 반성적 사고가 깊이 있게 나타났다. [표 2]와 같이 사고의 확장 및 심화라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분석 틀을 활용하였다.

[표 2] SoTL 관점의 분석 틀 _사고의 확장 및 심화

상위 범주	하위 코드	정의	분석 자료 예시
비교 대조적 사고	공통점 인식	작품 간 인물 및 구조의 유사성 도출	두 주인공 소년의 '여정'
	차이점 분석	인물의 가치관 및 행동 방식, 결말의 차이 인식	-두 주인공 소년이 갈등 인식과 문제해결 방식 -결말에 대한 해석
논증적 사고	근거 활용	배경 및 사건, 인물 분석을 근거로 주장 전개	-공간의 상징성 -주요 인물의 역할
	관점 수정	토론을 통한 해석의 정교화	-어린왕자가 6개의 행성을 지나 지구에 온 이유 -허클베리 핀의 죽음 위장과 변신의 의미
반성적 사고	자기 성찰	자신의 태도, 가치관, 삶에 대한 성찰	-나는 인생의 주인공인가 -인생에서 만난 영향력 있는 인물

3) 참여 양상의 주체화 : 수동적 수용자에서 능동적 해석자로

플립러닝으로 설계된 강의에서는 학습자가 직접 텍스트를 강독하고 토론과 협동 활동을 통해 해석하고 사고하는 참여형 학습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달팽이 지도, 벤다이어그램을 통한 성격 분석, 플롯의 도식화 같은 시각화 활동은 학습자의 흥미를 높이고 참여를 촉진하는 중요한 매개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말이나 글로 표현하기 어려운 사고 과정을 표현하도록 돕고, 토론 참여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하였다. 그 결과, 활동에서의 발화가 소수 학생에게 집중되었던 학기 초와 달리 학기 중반 이후부터는 다수 학생으로 분산되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동시에 학습지의 내용에 대한 질적 분석을 통해 사전 학습에의 집중도가 높아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는 Pre-class에서의 사전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In-class에서의 팀 활동이 어렵다는 사실을 학습자가 체득한 데서 오는 변화로 읽힌다.

> "단순히 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내 삶의 진짜 고민으로 와닿았던 결정적인 계기는 학기 중에 진행했던 '달팽이지도' 활동이었다. 처음 나선형 모양의 활동지를 봤을 땐 텅 빈 칸들에 도대체 무엇을 채워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하지만 중심에서부터 시작해 바깥쪽으로 한 칸씩 채워나가다 보니, 내가 힘들 때 묵묵히 곁을 지켜준 가족들, 철없던 시절 내 투정을 받아준 베프들처럼 나를 단단하게 지탱해 준 소중한 인물들의 얼굴이 차례로 생각났다. 완성하고 나니, 내가 읽은 고전의 내용들이 내 삶의 관계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게 느껴졌다. '달팽이지도' 활동은 성장이란 결국 나와 연결된 타인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책임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준 소중한 경험이었다."(학생 D, 강의 후 소감에서 발췌).

학습 태도 측면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학기 초반에는 고전에 대한 거리감과 텍스트 읽기에 대한 부담을 표현하던 학습자들이, 학기 후반으로 갈수록 고전을 자신의 삶과 연결할 수 있는 텍스트로 인식하게 되었음을 성찰 일지와 개별 과제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고전 문학은 얼마나

매력적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는 고전이 "의미 없는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삶을 이해하고 성찰하는 도구"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3]은 학습자들의 참여 방식 및 학습 태도를 분석한 틀이다.

[표 3] SoTL 관점의 분석 틀 _참여 방식 및 학습 태도

상위 범주	하위 코드	정의	분석 자료 예시
참여 양상	강독 참여	학습자가 직접 텍스트를 읽고 이해	-사전 학습 퀴즈 결과 -내맘대로 노트 분석
	토론 발화	질문, 의견, 반응 등의 발화 양상	-원격교육시스템-질의응답 -팀 활동 분석
	시각화 활동	그림 혹은 도식을 통한 사고의 외연화	-달팽이지도 완성하기 -벤다이어그램 그리기 -인생 그래프 그리기
학습 태도	적극성 및 책임감	-Pre-class 학습 -In-class 활동 -Post-class 성찰	-사전학습지 내용 분석 -토론 및 협의 결과지 -성찰일지
	고전에 대한 인식	고전의 의미 확장 및 삶과의 연계	-나에게 고전이란? -일상에서 고전 읽기의 생활화

4) 플립러닝 구조로 설계된 '고전 읽기'를 통한 학습자의 질적 변화

플립러닝 구조는 '고전 읽기' 강의에서 학습자의 참여 방식의 질적 변화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습자들의 이해, 사고방식 및 참여 변화는 플립러닝 강의의 설계 요소가 유기적으로 적용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먼저 Pre-class를 통한 텍스트의 기본 구조와 배경, 인물에 대한 학습 등은 In-class에서의 토론 활동에서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되었다. 학습자들은 즉흥적으로 토론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 학습을 통해 텍스트를 이해한 상태에서 해석하고 논의하는 활동을 수행하였다. Pre-class 학습을 기반으로 한 In-class 활동은 텍스트에 대한 이해 여부를 확인하는 차원을 넘어 사고 확장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으므로 학습자들은 학기 후반으로 갈수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Post-class에서의 성찰 활동은 심화된 사고로 이어졌다. 예컨대, 작품의

두 주인공 소년을 비교·분석하여 대상화함으로써 자신을 이해하도록 하는 단초를 마련한 활동은 텍스트 이해와 자기 성찰을 하나의 학습 흐름으로 결합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플립러닝 설계는 학습자의 입장에서 고전 읽기를 지식 습득 활동이 아니라 경험 학습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포트폴리오 평가는 학습자의 변화 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장치였다. 매주 작성한 학습지와 활동지, 수행 과제, 기말 에세이를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구성하는 방식을 통해 학습자가 자신의 사고 변화와 성장을 스스로 인식하도록 유도하였다. 이는 플립러닝 기반 '고전 읽기' 강의의 효과가 단발적 성취가 아니라 과정 중심의 변화로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 "고전 읽기 강의는 나에게 단순한 분석의 시간을 넘어, 내 삶의 방향키를 스스로 쥐고 나아갈 수 있는 내면의 나침반을 선물해 주었다. 문명사회의 억압을 거부하고 자신만의 모험을 위해 다시 미시시피강으로 향했던 허클베리 핀처럼, 나 역시 세상이 정해놓은 정답에 가치와 순수함을 가두지 않는 삶의 태도를 배우게 되었다. 학기 초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연연하며 흔들리던 모습에서 벗어나, 이제는 내 안의 주체성을 지키며 나만의 삶을 개척해 나갈 준비가 되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갈등과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겠지만, 그때마다 미시시피강의 뗏목과 어린 왕자의 작은 별을 떠올릴 것이다. 그 기억들이 있다면 어떤 순간에도 무너지지 않고 주체적이고 단단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다."(학생 E, 기말 에세이에서 발췌).

플립러닝을 적용한 '고전 읽기' 강의는 학습자의 고전 이해 방식을 텍스트 내용의 재진술 중심에서 해석과 적용 중심으로 전환하고, 비교, 논증, 성찰의 방향으로 사고를 확장하고 심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러한 학습자의 자발적 참여와 태도 변화는 'Pre-class 학습 - In-class 활동 - Post-class 성찰 –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이어지는 강의 설계의 유기적 연계 속에서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표 4]는 플립러닝 설계 요소와 학습 활동의 분석 틀이다.

[표 4] SoTL 관점의 분석 틀 _플립러닝 설계[11] 요소와 학습 활동

상위 범주	하위 코드	정의	강의 분석 자료
Pre-class	텍스트 이해	사전 학습을 통한 텍스트의 기본 내용 이해	주차별 사전 학습지 분석 질의응답 빈도
In-class	활동-사고 연계	상호 활동을 통한 사고 확장	-Pre-class와 In-class 연계 활동 -주차별 활동지를 바탕으로 한 논의 및 토론 결과물
Post-class	심화 활동	삶에의 적용과 심화	성찰 저널
평가 구조	포트폴리오	누적된 학습 과정	학습지, 활동지, 성찰 일지, 수행 과제, 기말 에세이

5) 사전-사후 설문을 통한 플립러닝 구조의 효과성

SoTL 연구에서는 설문 결과를 단독 검증 자료로 사용하기보다, 질적 자료와의 삼각 검증을 통해 해석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접근이 일반적이

11) 플립러닝으로 설계된 실제 교수-학습 지도안의 예시다.

단계		3주차 학습 내용 및 교수-학습 활동	
Pre-Class	P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 이해	-사전 동영상 학습 (두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 분석)
In-Class	A	작품 속 인물에 대한 기본 이해도 점검	인물 이름과 특징을 매칭하는 OX 퀴즈 또는 내맘대로 노트 작성
	R	인물 간의 정서적 관계가 두 주인공 소년에게 끼치는 영향 분석	질문으로 학습 목표에 대한 이해 유도 :어린 왕자에게 '장미'의 의미 :허클베리 핀에게 '짐'의 의미
	T	-'인물-역할' 관계 맵핑 -개인의 삶과 문학의 관계 구조를 연결하며 자기 이해 확장	-조별로 각 인물의 역할 구조화 -주인공과의 관계도 작성 및 발표 -달팽이 지도 작성 : 내 삶의 여우/짐은 누구인가?
	N	인물 분석을 넘어 이들이 전하는 철학적 메시지 이해	등장인물의 역할 및 문학적 상징성 요약
	E	나의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발표 및 피드백	달팽이 지도를 중심으로 나의 주변 인물로 말하는 사회적 관계망 발표
Post-Class	R	문학을 통해 인간관계와 연대, 나아가 삶의 철학적 방향을 성찰	-성찰 일지 작성 : 나는 어떻게 정서적 연대를 이어갈 것인가?

1. Preparation: 사전학습제공 단계 2. Assessment: 사전학습평가 단계 3. Relevance: 사전학습 & 본차시 연계 4. Team Activity: 팀 활동, 협동학습 5. Nub Lecture: 핵심 요약 강의 6. Evaluation: 본 차시 평가 및 발표 7. Reflection: 학습성찰

다. 본 연구 역시 설문 결과를 질적 분석 결과와 결합하여 해석함으로써 단일 도구에 대한 과도한 해석을 지양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사전-사후 설문 항목은, 선행 플립러닝 효과성 연구[12] 및 대학 교양교육 성과 진단 도구[13]를 바탕으로 교육 목표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14] SoTL 연구의 특성상, 학습 성과는 교과 목표와 강의 설계 맥락에 깊이 연계되므로 강의 요소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항을 중심으로 설문을 구성하였다. 설문은 고전 이해도,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 플립러닝 인식을 진단할 수 있는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하여 리커트 척도 변화 추이를 종합 분석함으로써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사전-사후 설문'에서 나타난 인식 변화는 학습자의 과제물, 성찰 일지, 토론 및 발화, 기말 에세이에서 확인된 고전 이해 방식의 변화, 사고 과정의 심화, 참여 방식의 차이와 일관성을 보였다. 이는 설문 문항이 측정하고자 한 학습 경험의 변화가 실제 학습 과정에서 관찰된 변화와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 모든 설문 문항에서 사전 설문에 비해 평균 점수가 뚜렷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플립러닝이 본 교과목을 학습하는 데 효과적인가'라는 문항의 경우, 사전 설문 평균은 3.85점이었으나, 사후 설문 평균은 4.71로 상승하여 다수의 학습자가 플립러닝의 학습 효과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학기 초 플립러닝 방식에 대해 다소 유보적이었던 인식이 실제 강의 경험을 통해 긍정적으로 전환되었음을 시사한다. '주차별 학습 목표 이해 및 달성' 문항에서는 사전 평균이 약 4점 수준이었던 반면, 사후에는 4.86으로 크게 상승하였다. 이는 플립러닝 구조 속에서 사전 학습과 강의 내 활동이 반복적으로 연계되면서, 학습자

12) 김도희·강명희 ·강민정, 「대학에서 활용된 플립드러닝의 학습효과 분석」, 『교육방법연구』 29권 4호, 한국교육방법학회, 2017, 597-625쪽.
김태희·김정숙, 앞의 논문, 132-133쪽.

13) 윤승준·권승구·서보영·최윤경·최인선, 앞의 논문, 91-106쪽.

14) 사전-사후 설문조사의 문항 구성의 타당성과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체 설문지를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들이 주차별 학습 목표를 명확하게 인식하며 달성했다고 평가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질적 분석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Pre-class에서의 기본 텍스트 이해 및 In-class에서의 강독이나 토론, Post-class에서 심화된 성찰을 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학습 흐름이 구조화되었다는 점과 상응한다. '자기주도적 학습'과 관련된 문항에서도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다. 사전 평균은 3.77점으로 중간 수준에 머물렀으나, 사후 평균은 4.86으로 유의미하게 상승하였다. 이는 학습자들이 사전 학습과 강의 참여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고전 읽기가 '교수자의 설명을 기다리는 활동'이 아니라 '스스로 준비하고 참여해야 하는 학습'이라는 인식으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는 질적 분석에서 나타난 책임감 인식의 증가, 사전 읽기 필요성에 대한 자각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교수자 설명 위주 강의와의 비교를 전제로 한 '플립러닝 방식의 효과성'에 대한 문항에서도 평균 점수는 3.92에서 4.64로 상승하였다. 이는 플립러닝 강의가 단순히 새로운 형식이라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고전 이해와 토론, 사고 확장에 기여하는 강의 방식으로 인식되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협동학습과 토론 등 학생 중심 활동이 교과목의 교육 목표 달성에 기여했는지를 묻는 문항에서도 사후 평균은 4.79점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설문 결과는 앞선 질적 분석 결과를 정량적으로 뒷받침한다. 질적 분석에서 확인된 고전 이해 방식의 변화, 사고 과정의 심화, 참여 방식의 전환은 학습자의 주관적 인식 변화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으며, 이는 플립러닝 기반 '고전 읽기' 강의의 학습 경험 전반에 걸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냈음을 보여준다. 플립러닝 구조는 단순한 강의 만족도를 넘어,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 방식과 역할을 재인식하도록 동기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5]는 플립러닝 기반 '고전 읽기' 강의에 대한 '사전-사후 설문조사' 결과로, 학습자의 인식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표 5] 플립러닝 기반 '고전 읽기' 강의에 대한 '사전-사후 설문조사' 결과

문항	사전 평균	사후 평균	변화량
본 교과목을 학습하는 데 있어 플립러닝의 효과성	3.85	4.71	+0.87
주차별 학습 목표를 이해하는 데 있어 플립러닝의 도움 정도	4.00	4.86	+0.86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는 데 있어 플립러닝의 도움 정도	3.77	4.86	+1.09
강의 중심 수업과 비교할 때 플립러닝 방식의 효과성	3.92	4.64	+0.72
교과목 교육 목표 달성에의 기여도	3.85	4.79	+0.94

5. 결론 및 제언

SoTL은 교수자의 강의를 사적인 경험의 영역에서 공적인 학문 담론의 장으로 확대하는 연구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교수자에게는 자신의 강의를 성찰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연구의 틀을 제공하고, 교육 공동체에는 실제 강의 현장에서 검증된 교수-학습 지식을 확인하고 공유하는 접점을 제공한다. 이러한 점에서 SoTL은 오늘날 대학 교육의 질적 제고 및 교수 전문성 강화에 중요한 학문적 기반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SoTL의 실천으로서 플립러닝이라는 교수 전략을 대학 교양 교육인 '고전 읽기' 강의에 도입하였다. '고전 읽기' 강의가 직면한 텍스트 해독의 난해함, 교수자 설명 위주의 강의, 토론 시간 부족이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플립러닝을 적용함으로써 학습자의 이해 방식과 사고 과정, 학습 경험을 중심으로 교수자의 교육적 실천이 만들어내는 학습 효과를 분석하였다. 플립러닝으로 설계된 '고전 읽기' 강의를 통해 강의실을 교수자의 해설 공간에서 학습자의 해석 공간으로 전환함으로써 학습자를 수동적 청중이 아닌 텍스트 해석의 참여자로 만드는 교육적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대학 교양 '고전 읽기' 강의의 교수-학습 모델을 재고하고, 교양교육의 질적 성과를 정교하게 설명할 수 있었다. SoTL 관점에서 '고전 읽기' 교과에서의 플립러닝 적용이라는 교육적 실천은 단순한

강의 방식의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양교육의 핵심 목표인 '사고하는 학습자' 양성에 기여한다. 이는 나아가 고전 교양교육 분야에서의 PCK를 정립하는 과정이며, SoTL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SoTL 관점에서의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특정 대학의 '고전 읽기' 교과목을 대상으로 진행된 사례이므로, 대학 환경과 계열별 특성을 반영한 다각적 연구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둘째, 전통적인 강의식 수업을 이수하는 통제 집단과의 비교 분석을 병행한다면, 플립러닝이라는 강의 구조가 학습자의 역량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한층 더 정밀하게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학습자의 변화를 세밀하게 포착하는 SoTL 연구의 방법론적 특성을 고려할 때 외부 관찰자의 질적 참여 연구를 추가함으로써 보다 객관화된 연구의 정당성을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최정빈,『플립드러닝』, 성안당, 2018.

Bergmann & Sams. 저, 정찬필·임성희 역,『거꾸로교실: 진짜 배움으로 가는 길』, 에듀니티, 2012.

Boyer, E. L., *Scholarship Reconsidered : priorities of the professoriate,* The Carnegie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Teaching, New York: John Wiley and sons,(ERIC Document Service Record NO.ED326149), 1990.

논문

김도희·강명희·강민정,「대학에서 활용된 플립드러닝의 학습효과 분석」,『교육방법연구』29권 4호, 한국교육방법학회, 2017, 597-625쪽.

김태희·김정숙,「플립러닝 방식의 인문고전 교육을 위한 동영상 강의 콘텐츠 구성 및 활용 사례 연구-고려대학교 교양과목「인문고전세미나」와 온라인 교육 콘텐츠 '고성방가(高聲放歌)'를 중심으로-」,『인문과학연구』21집, 인문과학연구소, 2024, 133-162쪽.

서기자,「대학 교양교육으로서 고전 세미나 연구」,『지식과교양』창간호, 목원대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2018, 1-21쪽.

서수백,「대학 고전 읽기 수업 운영 사례 연구」,『인문연구』91호, 인문과학연구소, 2020, 31-58쪽.

송인옥·노혜란,「대학 교원의 교수역량 개선 요구도 및 강의 저해 요인 분석」,『교육공학연구』32권 1호, 한국교육공학회, 2016, 229-251쪽.

윤승준·권승구·서보영·최윤경·최인선,「고전읽기 교육의 교육적 성과 검증을 위한 공동 연구: 국내 4개 대학의 교육성과 진단을 중심으로」,『교양교육연구』18권 3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24, 91-106쪽.

이은실,「교육에서의 학자적 전문성: 대학교원을 위한 SoTL 개념과 프로그램 개발」,『한국교원교육연구』34권 2호, 한국교원교육학회, 2017, 465-486쪽.

차현진·최명숙,「대학 교원의 교수법 탐색을 위한 학습공동체 운영 사례 분석」,『

교육정보미디어연구』 20권 3호, 한국교육정보미디어학회, 2014, 399-421쪽.

최애순, 「대학 교양교육으로서 고전읽기: 계명대학교 <교양세미나> 교과목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어문교육』 33권, 한국어문교육연구소, 2020, 107-128쪽.

최윤경·한수영, 「고전읽기 관련 교양교육 사례 연구의 현황과 진단」, 『교양학연구』 15권 3호, 다빈치미래교양연구소, 2021, 195-238쪽.

홍성창, 「'학자적 교원' 모형의 개발과 적용」, 『한국교원교육연구』 제29권 제1호, 한국교원교육학회, 2012, 33-54쪽.

Shulman, L. S. "Those who understand: Knowledge growth in teaching" *Educational Researcher*,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vol.15 no 2, 1986, pp.4-14.

국문초록

본 연구는 대학 교양교육의 패러다임이 교수자 중심의 지식 전달에서 학습자 중심의 역량 함양으로 전환되는 흐름에 발맞추어, SoTL 관점에서 플립러닝 기반 '고전 읽기' 강의의 구조와 교육적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강의 기반 사례 연구이다. 대학 교양교육으로서 '고전 읽기' 교과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강의실 안팎의 교수-학습 구조를 전면 재구성하는 플립러닝 방식을 도입하였다. 지식의 수용과 전달은 Pre-class로 이동시키고, In-class에서는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 해석의 확장, 관점의 비교 등 고차원적 사고 활동을 수행하도록 설계하였으며, Post-class 단계에서는 심화 성찰을 유도하였다. SoTL의 실천으로서, 플립러닝 적용에 따른 학습 성과를 단순한 양적 지표로 환원하기보다 실제 강의 과정에서 나타난 학습자의 이해 방식, 사고 과정, 참여 양상의 질적 변화를 중심으로 탐구하였다. 그 결과, 플립러닝 기반의 '고전 읽기' 교과의 핵심 과제인 '학습자의 능동적 참여'를 끌어냄으로써 유의미한 교육적 성과를 얻었다.

본 연구는 교수자의 개인적 강의 실천과 경험을 학문적 틀 속에서 해석하고 공적인 교육 자산으로 전환하는 SoTL의 실천적 과정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결과적으로 '고전 읽기' 강의를 지식 전달 중심에서 사고 역량 중심 교과로 혁신할 수 있는 교수-학습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대학 교양교육이 생성하는 학습자 중심의 질적 성과를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학문적 근거 구축에 기여하였다.

주제어 ● 플립러닝, 교양교육, 고전읽기. 교육에서의 학자적 전문성(SoTL), 질적 연구

Abstract

A Case Study of 'classical reading' lecture based on flip learning from SoTL (Scholarship of Teaching and Learning)

Kim, Do Hee / Daejeon University

This study is a lecture-based case study that systematically analyzes the structure and educational effect of flipped learning-based "classical reading" lectures from the perspective of "classical reading" from the perspective of "academic expertise in education" in line with the shift of the paradigm of university liberal arts education from instructor-centered knowledge transfer to learner-centered competency cultivation. In order to solve the practical problem of the "classical reading" subject as university liberal arts education, this study introduced a flip learning method that completely reconstructs the teaching-learning structure inside and outside the classroom. The acceptance and transfer of knowledge is shifted to the pre-class, and in-class, high-level thinking activities such as interactions between learners, expansion of interpretation, and comparison of perspectives are designed to be performed, and in the post-class stage, in-class, deep reflection is induced. As a practice of SoTL, rather than reducing the learning outcomes from the application of flip learning to simple quantitative indicators, it was explored focusing on the qualitative changes in learners' understanding methods, thinking processes, and participation patterns that appeared in the actual lecture process. As a result, meaningful educational outcomes were achieved by eliciting "active participation of learners," a core task of the flipped learning-based "classical reading" subject.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identified the practical process of SoTL that

interprets instructors' personal lecture practices and experiences within an academic framework and converts them into public educational assets. As a result, a teaching-learning model that can transform the 'classical reading' lecture from knowledge transfer to a thinking competency-oriented subject was presented, and an academic basis was established to theoretically explain the learner-centered qualitative outcomes generated by university liberal arts education.

Keyword ● Flip learning, liberal arts education, reading classics, SoTL, qualitative research

▌논문투고일:2026.05.30. ▌심사완료일:2026.06.29. ▌게재확정일:2026.07.07. ▌

부록

[표 6] 플립러닝 기반 '고전 읽기' 강의에 대한 사전-사후 설문조사

사전 설문조사	사후 설문조사
본 설문조사는 플립러닝 기반으로 운영된 '고전 읽기' 수업이 수강생 여러분의 인식을 분석하여 향후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응답은 연구 목적으로만 통계 처리되며 개인 정보는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평가 척도	전혀 아니다/아니다/보통이다/그렇다/매우 그렇다
1. 나는 난해하거나 분량이 방대한 고전 텍스트를 읽고 문맥 속에 숨겨진 핵심 쟁점과 이면의 의미를 스스로 도출할 수 있다.	
2. 나는 고전에 담긴 가치나 서사를 단순히 수용하기보다 현재 나의 삶, 혹은 현대 사회의 다양한 맥락과 연결하여 입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나는 고전 텍스트에 대해 나의 의견을 개진할 때 단편적 인상에 의존하지 않고, 텍스트 내의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논증할 수 있다.	
4. 나는 동료들과의 토론을 통해 나의 기존 가치관이나 편견을 성찰하고, 비판적이고 유연하게 관점을 수정·확장할 수 있다.	
5. 나는 교실 안 토론 및 팀 활동 시 소극적인 청중에 머무르지 않고, 나만의 텍스트 해석을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발화하며 대화에 참여한다.	
6. 나는 시각화 활동이나 팀 과제를 수행할 때 동료 학습자들과 적극적으로 상호 작용하며 협력적 의미 구성에 기여한다.	
7. Pre-class와 In-class의 심층 토론 및 상호작용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플립러닝 구조는 고전 교과의 학습 효율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	
8. 플립러닝을 통해 일방향적 해설 시간을 줄이고 강의실 안 활동 시간을 확보한 것은 교수자 및 동료들과의 질 높은 피드백과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9. 본 강의는 대학 교양교육이 지향하는 핵심 역량(비판적 사고력, 논리적 가치 인식, 주체적 문제 해결 역량 등)을 실제로 함양하는 데 기여한다.	
10. 본 강의를 통해 고전 읽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하였으며, 향후 스스로 고전을 읽고 주체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내적 성장을 이루었다.	

● ● ● https://doi.org/10.54698/kl.2026.21.399
지식과 교양, 제21호,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Knowledge and Liberal Arts, Vol. 21, LIC, pp.399-428.

대학 집중이수제 운영에 대한 학습자와 교수자의 인식 분석
: A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김 혜 경 · 문 정 경**

목 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연구 방법
4. 연구 결과
5. 결론 및 제언

1. 서론

현대 고등교육 환경은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 학습자 요구의 다변화, 그리고 기술 발전에 따른 교육 방식의 혁신이라는 거대한 전환점에 직면해 있다. 전통적인 대학교육의 근간이었던 15~16주 단위의 경직된 학기 운영 방식은 지식의 폭발적 증가와 실무 역량 중심의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그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1] 이러한 배경에서 전 세계적으로 '블록 모델(Block Model)'이나 '몰입수업

* 이 논문은 2025년도 호서대학교 연구년 결과물로 제출됨.
** 김혜경(제1저자) 호서대학교 교양대학 부교수
문정경(교신저자) 호서대학교 교양대학 조교수
1) Loton, D., C. Stein, P. Parker & M. Weaven., "Introducing block mode to first-year university students: a natural experiment on satisfaction and performance", *Studies in Higher Education*, vol. 47, no. 6, London: Taylor & Francis, 2022, pp.1097-1100.

(Immersive Learning)' 등 다양한 형태로 학사 구조를 재배치하여 교육과정을 혁신적으로 운영하는 '집중이수제(Intensive Course System)'의 시행이 주목받고 있다.[2)3)]

집중이수제가 국외 고등교육 현장에서 대학의 자율적인 학사 혁신 모델로 안착해 온 것과는 대조적으로, 국내의 경우 국가 주도의 교육과정 개편과 연계되어 중등교육 단계에서 먼저 도입되었다. 집중이수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국가 수준 교육과정 총론 개선 연구(Ⅱ)』에서 처음 제안된 이후[4)],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교 자율화 정책과 맞물려 중·고등학교 대상의 강제 규정으로 강화되었다. 그러나 특정 학기 수업 쏠림에 따른 학교 운영의 구조적 혼란, 단기간의 압축적 수업으로 인한 휘발성 학습과 인지적 부담 가중, 그리고 입시 위주의 파행 운영으로 인한 전인교육 가치 훼손 등의 부작용을 야기하며 현장 적용 1년 반 만에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되었다.[5)6)7)8)]

중등교육에서 실패한 것으로 평가받던 집중이수제는 2016년 교육부의 '창의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학사제도 개선방안' 발표를 기점으로 고

2) Jackson, J., K. Tangalakis, P. Hurley & I. Solomonides., "Equity through complexity: Inside the 'black box' of the block model", *National Centre for Student Equity in Higher Education*, Perth: Curtin University, 2022, pp.1-4.

3) Roche, T., E. Wilson, E. Goode & J. W. McKenzie., "Supporting the academic success of underrecognised higher education students through an immersive block model", *Higher Education Research & Development*, vol. 44, no. 3, London: Taylor & Francis, 2025, pp.721-723.

4) 박순경·허경철·정영근·이광우·김진숙·민용성, 『국가수준 교육과정 총론 개선 연구(Ⅱ): 일반계 고등학교 11, 12학년 선택 교육과정 개선안의 모의 편성 사례 자료집』,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6.

5) 교육과학기술부, "학교 자율화 추진 방안", 학교제도기획과, 2009.06.11.

6) 김재춘·최필순, 「집중이수제 정책의 등장과 퇴장: 정책 실패가 주는 시사점 탐색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연구』 31권 3호, 한국교육과정학회, 2012, 132쪽.

7) 박창언·오은주·차철표, 「교과목 집중이수제 연구-사회·도덕 교과군을 중심으로」, 『수산해양교육연구』 25권 5호,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 2013, 1224, 1235쪽.

8) 황수아, 「국가교육과정 적정화 정책에 대한 역사적 신제도주의적 분석: '집중이수제'와 '핵심개념'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8, 109, 123쪽.

등교육 현장에 새롭게 부상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대학이 사회 수요에 맞춰 스스로 학사제도를 설계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으며,[9] 특히 2017년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점당 15시간 이상의 최소 이수 기준만 준수하면 4주, 8주 등 다양한 형태의 단기 집중이수가 가능해지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10][11] 이러한 정책적 흐름은 PRIME, LINC 3.0, 대학혁신지원사업, 국립대학육성사업 등 대규모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확산되었으며,[12][13][14] 2022년 기준, 국내 4년제 일반대학의 75.5%가 학칙상 집중이수제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15]

현재 국내 대학에서 적극 도입·운영되고 있는 집중이수제는 대학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확대하고 교과목별 특성에 맞는 몰입 교육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교육적 가능성을 지닌다[16]. 그러나 현장에서는 학습자에게 효율적인 시간 관리와 높은 학업 능률을 제공한다는 긍정적 성과와 함께 그 이면에 단 며칠간의 결석만으로도 전체 학업 진행에 치명적인 타격이 된다는 점, 시간적 부담감과 피로도가 과도하다는 등의 실질적인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교육 현장에서의 뚜렷한 명암과 부작용이 공존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진단하는 것이 필수적이나, 현재 대학 집중이수제 운영에 대한 실증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관련 연구들은 제도적 학사 운영보다

9) 교육부, 『창의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학사제도 개선방안』, 대학학사제도과, 2016a.
10)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7. 10. 17.] [대통령령 제28365호, 2017. 10. 17., 일부개정]
11) 교육부,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학사 운영 자율성 대폭 확대", 대학학사제도과, 2016b.12.09.
12) 교육부, 『2022-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2022a.
13) 교육부,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0) 기본계획』, 2022b.
14) 교육부, 『2025-2027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육성사업 기본계획』, 2025.
15) 조옥경·임후남·최정윤·김미란·서영인·강충서·전석진·김지현, 『대학의 학사제도 유연화 실태와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2022, 65쪽.
16) 하오선, 「대학에서의 집중이수제 교과목 운영에 참여한 학습자와 교수자의 인식과 개선요구에 관한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권 24호,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1, 801쪽.

는 '학습몰입'이라는 학습자의 심리적·경험적 개념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높으며, 집중이수 교과 운영과 직접 관련한 선행연구로는 일부 특수 목적(외국인, 대학원생) 사례 연구[17][18]를 제외하면, 하오선(2021) 이후 공백 상태이다. 하오선(2021)의 연구는 참여 구성원의 인식을 조사한 탐색적 연구로서 본 연구와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가장 근접한 선행연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제한된 규모에 머물렀으며, 이후 동일한 맥락의 후속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관련 논의의 연속성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이다. 집중이수제의 대학 현장 확산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최신 운영 실태와 인식을 재검토할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다. 이에 본 연구는, 보다 확장된 범위와 참여 인원을 바탕으로 교수자와 학습자의 인식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집중이수제 운영에 대한 수용성과 만족도, 참여 동기, 장점 및 개선 과제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성공적인 안착과 운영 고도화를 위한 대학 차원의 실천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집중이수제와 집중이수 교과 운영에 대한 학습자와 교수자의 인식 및 만족도는 어떠한가?
2) 학습자가 인식하는 집중이수제의 교육적 효과 요인은 어떠한가?
3) 학습자의 학년 및 전공 계열에 따라 집중이수제 인식과 주관적 효과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4) 집중이수제 운영에 따른 참여 장점 및 운영상의 개선 과제는 무엇인가?

2. 이론적 배경

1) 집중이수제 개념

17) 김지혜, 「대학원 전공 이론 수업의 블렌디드 러닝 적용에 대한 인식 연구: 단기 집중 이수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연구』 92집,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25.
18) 안혜진·구민지, 「외국인 학부생을 위한 한국어 집중 이수 운영 사례연구」, 『한국과 세계』 7권 2호, 한국사회과학연구소, 2025.

집중이수제는 학교 교육의 시간적 틀을 물리적으로 재구성하여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시간의 재구조화'에서 출발한다. 대학 수준의 정규 학사제도로서 집중이수제의 기원은 1970년에 미국 콜로라도 칼리지(Colorado College)가 도입한 '블록 플랜(The Block Plan)'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당시 콜로라도 칼리지는 학생들이 한 학기에 여러 과목을 동시에 수강하며 집중력이 분산되는 전통적 학사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 번에 한 과목씩 3.5주 동안 집중적으로 이수하는 혁신적 모델을 구축하였다.[19][20] 이후 Canaday와 Rettig(1995)는 전통적인 분절적 수업 방식이 학습의 단절을 초래하고 심도 있는 학습을 저해한다고 비판하며, 그 대안으로 '블록 스케줄링(Block Scheduling)을 제안하였다. 이들은 충분한 수업 시간이 연속적으로 확보될 때 비로소 교수자가 '적극적 학습 전략(Active Learning Strategies)'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으며, 이것이 학습자의 비판적 사고 및 문제 해결 능력 향상으로 직결된다고 보았다.[21]

최근 고등교육 생태계에서 집중이수제는 학사 구조의 유연성 확보와 학습자 중심 교육을 위한 운영 방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관련하여 Davies(2006)는 집중이수제를 전통적인 12~15주의 정규 학기보다 단축된 기간 내에 동일한 학습 시수를 이수하는 압축적 혹은 가속화된 교육 형태로 정의하며, 대학들이 학습자에게 시간 활용의 유연성을 제공하고 교육자원의 집약적 투입을 통한 학습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를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22]

---

19) Freeman, T., H. Fedesco & D. Cavin., "Teaching Compressed Courses: The Block Plan at Colorado College", *The National Teaching & Learning Forum,* vol. 29, no. 5, Hoboken: Wiley, 2020, p.8.

20) McCluskey, T., Smallridge, A., Weldon, J. & Paguio, R., *The Victoria University Block Model: From a rhetoric of disruption to a reality of success*, Melbourne: Victoria University, 2019, pp.6-8.

21) Canaday, R. L. & Rettig, M. D., *Block scheduling: A catalyst for change in high schools*, Larchmont, NY: Eye on Education, 1995, pp.43-145.

22) Davies, W. M., "Intensive teaching formats: A review", *Educational Research*, vol. 16, no. 1, WA: Western Australian Institute for Educational Research, 2006, pp.2-4., p.11.

2) 국외대학 운영 현황

대다수의 국외대학은 집중이수제를 정규 학위 과정의 핵심 모델로 안착시키며 대학 운영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삼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의 콜로라도 칼리지, 호주의 빅토리아 대학(Victoria University), 그리고 캐나다의 요크 대학(York University)이 있다. 우선 콜로라도 칼리지는 1년을 8개의 블록으로 구성한 '블록 플랜' 하에 학생들이 한 블록(3.5주) 당 하나의 과목만을 집중적으로 이수한 후 4.5일간의 '블록 브레이크(Block Break)'를 갖도록 하고 있으며, 매일 오전 집중 강의와 오후 실험·현장답사 등 고밀도의 학습 활동을 운영한다.[23)24)] 빅토리아 대학[25)]은 기존 학기제 기반의 대규모 강의가 지닌 낮은 학습 참여도와 높은 탈락률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2018년부터 학부 과정 전체에 'VU 블록 모델(VU Block Model)'을 전면 도입하였다. 4주 단위 블록으로 구성되며, 플립러닝(Flipped Learning) 방식과 30명 이하의 소규모 스튜디오 기반 운영을 특징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캐나다의 요크 대학[26)]은 라송드 공과대학의 1학년을 대상으로 '엔지니어링 블록 모델(Engineering Block Model)'을 도입하여 온라인 학습(2일)과 대면 몰입수업(3일)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형태로 운영하며, 팀티칭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

23) Freeman, T., H. Fedesco & D. Cavin., "Teaching Compressed Courses: The Block Plan at Colorado College", *The National Teaching & Learning Forum,* vol. 29, no. 5, Hoboken: Wiley, 2020, p.8.

24) Lostroh, C. P., "Keeping It Real: Substantive Learning on a Short Calendar", *CBE—Life Sciences Education*, vol. 6, no. 4, Bethesda: American Society for Cell Biology, 2007, p.286.

25) Victoria University – The VU Block Model, https://www.vu.edu.au/about-vu/university-profile/the-vu-block-model, 2026.04.13.

26) York University Lassonde School of Engineering – Engineering Block Model, https://lassonde.yorku.ca/block-model/, 2026.04.13.

[표 1] 국외대학 대표 사례

대학	모델명	도입	운영 방식
미국 콜로라도 칼리지	블록 플랜	1970	• 블록 단위: 3.5주 • 이수 방식: 1개 과목 몰입이수 • 특성: 오전 집중 강의 및 오후 실험·현장 학습 배치
호주 빅토리아 대학	VU 블록 모델	2018	• 블록 단위: 4주 • 이수 방식: 1개 과목 평가까지 완결 • 특성: 플립러닝 및 30명 이하 소규모 스튜디오 기반 운영, 실시간 피드백
캐나다 요크 대학	엔지니어링 블록 모델	2024	• 블록 단위: 5주 • 이수 방식: 최대 2과목 이내 • 특성: 하이브리드 학습 및 팀티칭

3) 국내대학 운영 현황

국내대학의 집중이수제는 학사 유연화 정책에 힘입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각 대학의 교육적 필요와 학사 구조에 최적화된 형태로 분화·발전하고 있다. 국외 사례가 학사 구조 자체를 블록 단위로 재편하는 블록 모델 기반의 다학기제를 표방하는 것과 달리, 국내 대학들은 주로 기존의 15주 정규 학사 체제를 유지하면서 특정 주차나 과목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절충형 모델의 양상을 띠고 있다. 예를 들어, 고려대학교는 교수자와 학과가 교과 특성에 따라 수업 기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방식을, 한양대학교 ERICA 캠퍼스는 이론과 실습을 시간적으로 분리하는 집중이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가천대학교는 정규 학기 16주를 이론 수업 12주와 프로젝트 몰입 4주로 분리 운영하고 있다. 한편, 성균관대학교는 국내대학 중 국외의 블록 모델에 가장 근접한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성균관대학교는 학사력 자체를 8주 단위로 구조화한 '6-Module' 체제를 도입하여 모든 교과목이 8주 단위로 개설 및 종결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이러한 사례는 집중이수제가 개별 교과목의 운영 조정을 넘어, 대학 학사 운영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제도적 혁신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표 2] 국내대학 대표 사례

대학	도입	제도	운영 방식	참여 혜택
고려대	2016	유연 학기제	• 운영: 4~12주 사이 자율 선택 • 교과 유형: 전공 심화, 해외 석학 초빙, 현장 밀착형 교과	별도 혜택 없음
성균관대	2016	6-Module	• 운영: 연간 8주 단위 6개 모듈 체제 • 교과 유형: AI·SW, 첨단기술, 글로벌 교류, 혁신 융합 교과	차기 학기 수강신청 이월
한양대 (ERICA)	2017	집중 이수제	• 운영: 8주 단위 IC-PBL 몰입형 모듈, 이론수업 학기 초반 집중 배치, 후반부에 실습 및 프로젝트 • 교과 유형: 산학연계 교과	산업체 전문가 멘토링, 포트폴리오 지원
가천대	2019	P-학기제	• 운영: 3학년 2학기 전체 대상 12주 이론+4주 몰입 프로젝트 운영 • 교과 유형: 전공형, 융합형, 현장실습, P-커리어캐치(자율설계)	장학금, 직무역량 인증
동국대	2019	집중 이수제	• 운영: 8-10주 단위 집중 이수 • 교과 유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 산학 연계 실무 교과	역량 마일리지, 포트폴리오 지원
숙명여대	2019	집중 학기제	• 운영: 8주 단위 집중 수업 운영 • 교과 유형: 온오프 프로젝트, IT 코딩, 캡스톤, 실무·실습	교육혁신 프로그램 지원

4) A대학 운영 현황

충남에 소재한 4년제 종합대학인 A대학은 유연한 학사제도 운영을 목표로 2019년 집중이수제를 도입하였으며, 2024년 학칙 개정을 통해 제도를 재정비하고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수업 유형은 계절몰입형과 학기몰입형으로 구분되며, 계절몰입형은 하계·동계 방학 중 강좌별 2학점은 5일, 3학점은 8일간 운영하고, 학기몰입형은 개강 직후 1~7주차에 학점당 15시간을 기준으로 운영한다. A대학은 집중이수제 활성화를 위해 일반강좌 대비 폐강 기준을 완화하고, 계절몰입형의 경우 타지역 캠퍼스를 전용 공간으로 활용하여 기숙사 제공과 학점당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제도적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25학년도의 계절몰입형(하계·동계)과 학기몰입형(2학기)

에 개설·운영된 총 27개의 집중이수 운영 강좌를 분석 대상으로 한다. 운영 시기별 하계 계절몰입 11개, 2학기 학기몰입 4개, 동계 계절몰입 12개 강좌가 포함되었다. 전공 대비 교양 교과목의 편성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원인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구조적 측면에서 A대학의 다학기제 미시행에 따른 전공 시간표 모듈화의 물리적 제약이 존재한다. 둘째, 운영의 유연성 및 수요 확보 측면에서 일반교양은 개설 풀(pool)이 방대하고 선·후수 과목 이수의 제약이 적어 특정 기간에 집중 편성하더라도 학사 운영상 충돌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학과나 학년에 제한 없이 수강생을 모집할 수 있어 안정적인 수강 수요 확보가 용이하다. A대학의 집중이수제 운영 개요 및 참여 강좌 상세 정보는 [표 3]과 같다.

[표 3] A대학 집중이수제 운영

항목	세부 운영내용
시행목적	• 단기간 몰입도 높은 심화 수업과 융합교육 실현 • 이론-실습 효율적 연계 통한 현장 실무 능력 강화
운영방식	• 학점당 15시간 기준 • 학기몰입형: 학기 중 7주(개강후 1~7주차 운영) 간 집중이수 • 계절몰입형: 방학 중 3주 내, 5-8일(2학점 5일, 3학점 8일)
교과유형	• 이수 구분: 일반교양(선택), 전공(선택), 자유선택 교과목 • 교과 유형: AI·SW, 실무·실습, 어학, 융합 교과 등
신청시기 및 절차	• 학기몰입형: 직전학기에 차기학기 집중이수 희망 교과목 신청 • 계절몰입형: 각 11월말~12월초(동계), 5월말~6월초(하계) • 절차: 학사팀 직전학기 공지 → 교양, 학과/학부별 교과목 단위 신청 접수 → 포털 수강신청 → 차기학기 개설
수강신청	• 학기몰입형: 일반 수강신청과 동일한 기간, 방법으로 신청 • 계절몰입형: 각종 홍보(포스터, SNS 등) 통해 지정 기간(6,12월)에 포털 수강신청
폐강기준	• 기준 완화 적용: 교양 15명 이하, 전공과목 10명 이하 폐강
참여혜택	(타 지역 캠퍼스 집중이수제 참여 시) • 학생: 학점당 100,000원 장학금 지급 & 교원: 업적평가 점수 • 공통: 기숙사 지원으로 식비 및 교통비 무료
연구기간 운영학기	• 2025 계절몰입형(하계): 2025.06.30. ~ 2025.07.18. 3주간 (376명) • 2025 학기몰입형(2학기): 2025.09.04. ~ 2025.10.17. 7주간 (78명) • 2025 계절몰입형(동계): 2026.01.05. ~ 2026.01.23. 3주간 (380명)

[표 4]는 A대학에서 2025-하계 방학, 2025-2학기, 2025-동계 방학에 진행된 집중이수제 개설 교과목 목록이다.

[표 4] A대학 집중이수제 참여 강좌

구분	연번	이수구분	교과목명	학점	수강인원
2025-하계	1	자유선택	디자인씽킹	3	38
	2	자유선택	사서에서배우는세상을바꾸는지혜	3	22
	3	일반교양	기초일본어회화	2	39
	4	일반교양	물리학산책	2	35
	5	일반교양	손에잡히는데이터시각화	2	39
	6	일반교양	스토리노믹스마케팅전략	2	39
	7	일반교양	엑셀로만나보는빅데이터분석	2	37
	8	일반교양	이미지로읽는중국	2	39
	9	일반교양	이야기로배우는영어	2	40
	10	일반교양	피지컬컴퓨팅프로젝트1	2	24
	11	일반교양	피지컬컴퓨팅프로젝트2	2	24
2025-2학기	12	일반교양	댄스를통한내몸이해	2	10
	13	일반교양	응급상황대처방법의이론과실제	2	21
	14	일반교양	전쟁과평화	2	21
	15	전공	스키	1	26
2025-동계	16	자유선택	디자인씽킹	3	21
	17	자유선택	소셜인플루언서전략	3	36
	18	일반교양	기초일본어회화1	2	36
	19	일반교양	기초일본어회화2	2	34
	20	일반교양	물리학산책	2	39
	21	일반교양	스토리노믹스마케팅전략	2	36
	22	일반교양	엑셀로만나보는빅데이터분석	2	34
	23	일반교양	응급상황대처방법의이론과실제	2	38
	24	일반교양	이미지로읽는중국	2	22
	25	일반교양	인간과아름다움	2	38
	26	일반교양	피지컬컴퓨팅프로젝트1	2	23
	27	일반교양	피지컬컴퓨팅프로젝트2	2	23
합계					834

3.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를 위해 A대학에서 2025년 하계방학, 2025-2학기, 2025년 동계방학에 걸쳐 개설·운영된 집중이수제 강좌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구글 온라인 설문을 시행하였다. 총 수강생 수는 834명, 교수자는 27명이었으며, 이 중 설문에 응답한 학습자 430명(51.56%)과 교수자 24명(88.89%)의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학습자의 성별은 남녀 각 40.70%, 59.30%로 여학생이 많았으며, 학년은 2학년(35.35%)이, 전공 계열은 생명보건 계열(26.28%)이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설문에 응답한 학습자와 교수자의 표본 특성은 [표 5]와 같다.

[표 5] 응답자 특성

구분		학습자		구분		교수자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성별	남	175	40.70	성별	남	15	62.50
	여	255	59.30		여	9	37.50
학년	1학년	114	26.51	직급	부교수	5	20.83
	2학년	152	35.35		조교수	15	62.50
	3학년	112	26.05		초빙, 특임	4	16.67
	4학년	52	12.09	강의 경력	1-5년 미만	5	20.83
소속	경영대학	12	2.79		5-10년 미만	9	37.50
	공과대학	67	15.58		10-15년 미만	3	12.50
	생명보건	113	26.28				
	예체능	75	17.44		15년 이상	7	29.17
	인문사회	62	14.42	소속	교양	11	45.83
	AI융합	101	23.49		전공	13	54.17
합계		430	100.00	합계		24	100.00

2) 연구 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하오선(2021)의 도구를 대학 집중이수제 맥락에 맞춰 수정·보안한 후, 교육학 전공 교수 2인의 자문을 거쳐 내용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문항 수정에 따른 구조적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학습자 표본(N=430)을 대상으로 주성분 분석(PCA)과 베리맥스(Varimax) 직각회전을 적용한 탐색적 요인분석(EFA)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KMO 표본 적절성 측정도 지수는 .814로 나타나 요인분석을 위한 표본의 충분성이 입증되었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chi^2 = 1245.84$, p<.001). 요인분석 결과, 원래 의도와 부합하는 '교과운영 만족도', '제도운영 인식', '주관적 효과성'의 3개 하위 요인이 도출되었다.

확정된 학습자 대상 설문 항목은 총 16개로, 인적 특성(3문항), 집중이수제 운영(4문항), 집중이수 교과 운영(3문항), 효과성(3문항), 참여 장점 및 운영상의 개선점(2문항), 그리고 기타 개선 의견을 확인하는 개방형(1문항)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교수자 대상 설문은 학습자용과 유사한 영역으로 구성하되, 특성을 고려하여 효과성 영역을 제외하고 인적 특성에 경력을 추가하여 총 14개 문항으로 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리커트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를 사용하였다. 신뢰도를 나타내는 크롬바흐 알파계수(Cronbach's α)는 신뢰도 분석이 가능한 리커트 척도 문항을 대상으로 산출하였으며, 학습자의 경우 '제도운영' .778, '교과운영' .803, '효과성' .734, 교수자의 경우 '제도운영' .701, '교과운영' .718로 나타나 측정도구의 내부 일치도가 양호한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다중응답 형식의 장점 및 개선점 영역과 질적 자료에 해당하는 개방형 문항은 신뢰도 계수 산출에서 제외하였다.

[표 6] 설문영역 및 문항내용

영역	세부 문항 내용	문항 수			
		학습자	Cronbach's α	교수자	Cronbach's α
인적특성	성별, 학년(직급), 경력, 소속	3	-	4	-
제도운영	운영방식 인지, 필요성, 운영 만족도, 참여의향	4	.778	4	.701
교과운영	교과 적절성, 운영 만족도, 참여 교과 확대 필요성	3	.803	3	.718
효과성	학습 효과성, 학점설계 도움, 효과 요인	3	.734	0	-
장점 및 개선점	학생(교수) 참여 장점, 운영상의 개선점	2	-	2	-
개방형	기타 의견(개선 요구사항)	1	-	1	-
합계		16	-	14	-

다중응답 형식인 '장점 및 개선점' 문항과 개방형 문항은 산출 대상에서 제외함.

3)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한 설문 데이터를 통계적 처리를 위해 SPSS 32.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먼저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주요 변인에 대한 응답 경향성을 확인하고자 평균과 표준편차를 포함한 기술통계를 산출하였다. 교수자와 학습자 간 인식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학습자의 학년 및 전공 계열에 따른 수용도 차이를 구명하고자 일원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된 경우, Scheffé 검증을 통해 사후분석을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유 서술형으로 수집된 내용분석을 통해 핵심 의미 단위별로 범주화하였으며, 개선 경향성을 심층적으로 보완하는 대표 응답을 도출하였다.

4. 연구 결과

1) 집중이수제 및 교과 운영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

집중이수제 운영 전반과 실제 개설된 교과목의 운영 적절성 및 만족도

에 대하여 학습자와 교수자 간의 인식과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제도운영'과 '교과운영'의 모든 세부 항목에서 두 집단의 평균은 4.23~4.83점 사이에 분포하였고, 표준편차는 .38~.98로 비교적 작게 나타나 응답자들의 인식이 평균을 중심으로 일관되게 수렴됨을 확인하였다.

[표 7] 제도 및 교과 운영에 대한 집단 간 인식·만족도

영역	문항 내용	학습자		교수자		집단 간 차이
		M	SD	M	SD	t
제도 운영	운영방식 인지	4.45	.73	4.83	.38	-2.53*
	필요성	4.38	.75	4.75	.53	-2.36*
	전반적 만족도	4.37	.82	4.79	.42	-2.50*
	재수강(개설) 의향	4.37	.88	4.83	.38	-2.56*
교과 운영	교과 적절성	4.23	.98	4.75	.61	-2.54*
	수업운영 만족도	4.30	.91	4.83	.48	-2.85**
	교과 확대 필요성	4.46	.75	4.67	.56	-1.31

집단 간 차이 검증: 독립표본 t검정
*p<.05, **p<.01, ***p<.001

분석 결과, 학습자와 교수자 모두 '제도운영' 및 '교과운영'의 모든 항목에서 4점 이상의 높은 평균을 보여, 집중이수제에 대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확인하였다. 독립표본 t검정 결과, '참여 교과의 확대 필요성'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교수자의 인식이 학습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으며($p<.05$), 특히 '수업운영 만족도'에서 집단 간 차이가 가장 두드러졌다($t=-2.85$, $p<.01$). 반면, '교과 확대 필요성' 항목은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t=-1.31$, $p=.192$), 학습자(M=4.46)와 교수자(M=4.67) 모두 높은 수준에서 제도 참여 교과군의 양적 확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 집중이수제의 교육적 효과 요인

학습자가 체감하는 집중이수제의 학습 효과성과 학점 이수 설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고,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학습 효과성'(M=4.29,

SD= .81)과 '학점 이수 설계 도움'(M=4.32, SD=.78) 모두 기준값 3을 유의하게 상회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001). 특히 '학점 이수 설계 도움'에 대한 높은 인식은 집중이수제가 단순한 수업 방식의 변화를 넘어 학습자가 졸업 요건 충족과 진로 준비를 위한 학사 설계 전략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 8] 학습자가 인식하는 효과성

문항	세부 내용	M	SD	t
지각된 효과	학습 효과성	4.29	.81	32.78***
	학점 이수 설계 도움	4.32	.78	34.94***

단일표본 t검정(기준값=3)
*p<.05, **p<.01, ***p<.001

교육적 효과 요인에 대한 다중응답(응답자 430명, 총 응답 건수 662건) 분석 결과는 [표 9]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업 내용의 연속성 및 연계성'이 44.11%(292건)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집중력 향상'이 33.69%(223건)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교수자와의 밀착 학습 기회'는 6.79%(45건)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9] 학습자가 인식하는 교육적 효과 요인(다중응답)

문항	세부 내용	빈도(건)	비율(%)
효과 요인	수업내용의 연속·연계성	292	44.11
	집중력 향상	223	33.69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	102	15.41
	교수자와의 밀착 학습 기회	45	6.79
	합계	662	100.00

다중응답(응답자 n=430, 총 응답 건수=662). 비율은 전체 응답 건수 기준임.

3) 학년 및 전공 계열에 따른 인식과 효과성 차이

학습자의 학년 및 전공 계열에 따른 집중이수제 인식 및 주관적 효과성의 차이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표 10], [표 11]과 같다. 우

선 학년에 따른 분석 결과, '학습 효과성'(F=3.30, p<.05)과 '학점 이수 설계 도움'(F=3.25, 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제도 운영 필요성'(F=1.63), '전반적 만족도'(F=1.45), '재수강 의향'(F=.22), '교과 확대 필요성'(F=.450)은 학년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변수에 대해 Scheffé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학습 효과성'에서 3학년(M=4.42)이 1학년(M=4.11)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학년이 저학년에 비해 학점 이수 경험이 축적되고 집중이수제의 구조적 특성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기회가 많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학점 이수 설계 도움'은 F값이 유의하였으나 Scheffé 사후검증에서 유의한 집단 간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표 10] 학년에 따른 인식 및 효과성 차이

종속 변수	1학년 M(SD)	2학년 M(SD)	3학년 M(SD)	4학년 M(SD)	F(Scheffé)
	n=114	n=152	n=112	n=52	
제도운영 필요성	4.25(.74)	4.40(.77)	4.46(.71)	4.42(.82)	1.63
전반적 만족도	4.24(.77)	4.39(.77)	4.45(.86)	4.42(.96)	1.45
재수강 의향	4.32(.80)	4.36(.84)	4.40(.97)	4.42(1.00)	.22
교과 확대 필요성	4.39(.74)	4.50(.73)	4.47(.80)	4.48(.75)	.45
학습 효과성	4.11(.79)	4.28(.82)	4.42(.79)	4.40(.85)	3.30*(3>1학년)
학점이수 설계도움	4.14(.79)	4.34(.78)	4.42(.72)	4.46(.87)	3.25*

*p<.05, **p<.01, ***p<.001
학점 이수 설계 도움: F값 유의하나 Scheffé 사후검증에서 유의한 집단 쌍 없음.

4) 참여 장점 및 운영상의 개선 과제

집중이수제 참여 장점 및 운영상의 개선 과제를 다중응답 방식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참여 장점에 대해 학습자(n=430, 총 795건)

는 '차기 학기 학업 부담 조절 및 여유 확보'(244건, 30.69%)를 최우선 장점으로 꼽았으며, '단기간 몰입 교육에 따른 집중도 향상'(186건, 23.40%), '경제적 보상 및 혜택'(156건, 19.62%), '방학의 효율적 활용 및 자기계발'(137건, 17.23%), '기숙사 공동생활을 통한 동기부여'(72건, 9.06%) 순으로 나타났다. 교수자(n=24, 총 24건) 역시 '차기 학기 수업 부담 조절 및 여유 확보'(17건, 70.83%)를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방학의 효율적 활용 및 자기계발'(4건, 16.67%), '경제적 보상 및 혜택'(2건, 8.33%), '집중도 향상'(1건, 4.17%) 순이었다.

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두 집단 모두 '집중이수 개설 교과목의 다양화 및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선택하였다(학습자 278건, 37.93%; 교수자 27건, 54.00%). 학습자는 이어서 '학습부담 경감 및 몰입도 조절'(237건, 32.33%), '참여여건 개선 및 보상 확대'(178건, 24.28%), '교수·학습 역량강화 및 효율적 관리'(40건, 5.46%) 순으로 응답한 반면, 교수자는 '참여여건 개선 및 보상 확대'(16건, 32.00%), '학습부담 경감 및 몰입도 조절'(4건, 8.00%), '교수·학습 역량강화 및 효율적 관리'(3건, 6.00%) 순으로 나타나 두 집단 간 우선순위에 차이가 있었다.

[표 11] 전공 계열에 따른 인식 및 효과성 차이

종속 변수	경영 M(SD) n=12	공학 M(SD) n=67	보건 M(SD) n=113	예체능 M(SD) n=75	인문 M(SD) n=101	AI융합 M(SD) n=62	F(Scheffé)
제도운영 필요성	4.67(.49)	4.49(.68)	4.43(.68)	4.16(.89)	4.45(.64)	4.34(.83)	2.25*
전반적 만족도	4.75(.45)	4.55(.74)	4.40(.74)	4.13(.93)	4.42(.74)	4.32(.90)	2.64*
재수강 의향	4.67(.49)	4.57(.80)	4.36(.88)	4.11(1.09)	4.34(.68)	4.42(.90)	2.37*
교과 확대 필요성	4.83(.39)	4.49(.77)	4.53(.68)	4.29(.85)	4.58(.62)	4.38(.82)	2.15
학습 효과성	4.25(.87)	4.51(.66)	4.22(.80)	4.13(.83)	4.27(.79)	4.34(.90)	1.77
학점 이수 설계 도움	4.50(.67)	4.46(.68)	4.28(.78)	4.25(.81)	4.31(.74)	4.32(.87)	.73

*p<.05, **p<.01, ***p<.001
제도운영 필요성·전반적 만족도·재수강 의향: F값 유의하나 Scheffé 사후검증에서 유의한 집단 쌍 없음.

전공 계열에 따른 분석 결과, ‘제도운영 필요성’(F=2.25, p<.05), ‘전반적 만족도’(F=2.64, p<.05), ‘재수강 의향’(F=2.37, 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교과 확대 필요성’(F=2.15), ‘학습 효과성’(F=1.77), ‘학점 이수 설계 도움’(F=.73)은 전공 계열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세 변수에 대해 Scheffé 사후 검증을 실시하였으나, 어느 변수에서도 특정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전공 계열 전반에 걸쳐 집중이수제에 대한 인식 수준이 비교적 고르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경영 및 공학 계열의 평균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예체능 계열의 평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이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표 12] 참여 장점 및 개선 과제(다중응답)

문항	내용 분석 범주	학습자 빈도(건),비율(%)	교수자 빈도(건),비율(%)
참여 장점	차기 학기 학업(수업) 부담 조절 및 여유 확보	244(30.69)	17(70.83)
	단기간 몰입 교육에 따른 학습/수업 집중도 향상	186(23.40)	1(4.17)
	경제적 보상 및 혜택(장학금 지원, 업적점수 등)	156(19.62)	2(8.33)
	방학 기간의 효율적 활용 및 자기계발 기회	137(17.23)	4(16.67)
	기숙사 공동생활 통한 동기부여	72(9.06)	-
	합계	795(100.00)	24(100.00)
개선 과제	집중이수 개설 교과목의 다양화 및 확대	278(37.93)	27(54.00)
	참여여건(기숙사, 교통) 개선 및 보상 확대	178(24.28)	16(32.00)
	학습부담 경감 및 몰입도 조절	237(32.33)	4(8.00)
	교수-학습 역량강화 및 효율적 관리(시간조절)	40(5.46)	3(6.00)
	합계	733(100.00)	50(100.00)

다중응답(학 습자 응답자 n=430, 교수자 응답자 n=24), 비율은 총 응답 건수 기준임.
복수범주에 해당하는 응답은 내용에 따라 단일범주로 분류함.

참여 학습자와 교수자의 개방형 응답을 통한 개선 요구사항을 내용 분석한 결과는 [표 13]과 같다. ‘과제·평가 등 학업 부담 완화’(21건, 36.84%)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으며, ‘개설 과목 편중 해소’(15건, 26.32%),

'기숙사' 관련 요구(10건, 17.54%), 강의실 및 셔틀 등에 대한 '환경 개선'(5건, 8.77%)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표 13] 개방형 응답 통한 개선 요구사항 내용분석

범주	주요 개선요구(빈도,비율)	대표 응답 사례
교과 운영 · 학사 행정	과제, 팀플, 평가 등 학업 부담 완화 21(36.84)	[학습자] 활동 분량을 적절히 조절해주세요. [학습자] 팀플이 너무 많습니다. [학습자] 집중이수인 만큼 중간, 기말 중 하나만 치르면 좋겠어요.
	개설 과목 편중 해소 15(26.32)	[학습자] 스포츠, 예체능 수업도 개설해주세요. [학습자] 중국어나 스페인어 등 어학 기초 과목이 개설되면 좋겠다. [학습자] 전공수업도 1학점이라도 좋으니 개설해주세요. [교수자] 융복합 등 교과목을 확대하면 좋겠습니다.
	수업 적정성 3(5.26)	[학습자] 특정 교과목은 집중이수제로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재정 · 시설 지원	기숙사 10(17.54)	[학습자] 기숙사 주말 입사 가능하게 해주세요. [학습자] 기숙사 비용 인하나 무료로 해주세요.
	환경 개선 5(8.77)	[학습자] 셔틀 운영을 더 자주해 주세요. [교수자] 학생용 프린터 비치와 일체형 의자를 책,걸상으로 교체해주세요.
	홍보 및 장학금 등 3(5.26)	[학습자] 장학금 주는 기간이 너무 늦어요. [교수자] 수강생 확보 위해 홍보 방법 모색이 필요함
합계	총 57건(100.00)	

비율(%)은 응답 전체 건수(57건)를 기준으로 산출함.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A대학의 집중이수제 운영 현황을 바탕으로 학습자와 교수자의 인식을 분석하여 제도의 성과와 발전 방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통해 도출된 주요 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집중이수제 운영 전반과 교과 운영에 대해 학습자와 교수자 모두 높은 만족도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참여 교과의 확대 필요성'을 제외한 모든 인식 항목에서 교수자의 인식 평균(4.75~4.83점)이 학습자의 인식 평균(4.23~4.45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자율성이 보장된 고등교육 환경에서 교수자가 제도의 실효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교수자의 제도 인식과 만족도가 학습자보다 높게 나타난 하오선(2021)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27], 중등교육 단계에서 강제 도입 당시 교사 집단의 극심한 반발을 초래했던 것과는 뚜렷하게 대비된다.

둘째, 학습자가 인식하는 집중이수제의 주요 교육적 효과 요인으로는 '수업 내용의 연속성 및 연계성'(44.11%)과 '집중력 향상'(33.69%)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집중이수제가 학습자의 몰입도와 학습의 심화 수준을 높이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집중이수가 인지적 과부하를 줄이고 소수의 과목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심층적 학습과 학습몰입을 유도한다는 Loton et al.(2022)[28]의 논의를 실증적으로 지지하는 결과이다.

셋째, 학습자의 학년에 따른 인식과 효과성의 차이 검증 결과, 3학년이 1학년보다 '학습 효과성'과 '학점 이수 설계 도움'을 유의하게 높게 평가하였다. 통계적 유의차는 3학년과 1학년 간에만 존재하였으나, 기술통계상의 평균치는 3학년(M=4.42), 4학년(M=4.40), 2학년(M=4.28), 1학년(M=4.11) 순으로 나타나, '졸업 요건 및 진로 준비가 본격화되는 고학년이 집중이수제를 학습 효과와 학점 설계 측면에서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됨을 시사한다. 즉, 고학년에게 집중이수제는 잔여 학기의 여유 시간을 확보하여 인턴십, 자격증 취득 등 진로 탐색 및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전략적 학사 도구로 기능하고 있는 반면, 1학년은 대학 학사제도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시기인 만큼 집중이수제의 효과성에 대한 인

27) 하오선,「대학에서의 집중이수제 교과목 운영에 참여한 학습자와 교수자의 인식과 개선요구에 관한 연구」,『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21권 24호,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1, 797쪽.

28) Loton, D., C. Stein, P. Parker & M. Weaven., "Introducing block mode to first-year university students: a natural experiment on satisfaction and performance", *Studies in Higher Education*, vol. 47, no. 6, London: Taylor & Francis, 2022, p.1097.

식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참여 장점으로 학습자는 '차기 학기 학업(수업) 부담 조절 및 여유 확보'(30.69%)를, 교수자는 동일 항목을 압도적 비율(70.83%)로 최우선으로 꼽았으며, 개선 과제로는 두 집단 모두 '개설 교과목의 다양화 및 확대'를 1순위로 선택하였다. 이는 집중이수제가 교수학습적 몰입 효과를 넘어, 두 집단 모두에게 학기별 연구·학업 로드를 탄력적으로 분산시키는 주도적인 학사 전략 도구로 기능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반면, 향후 최우선 개선 과제로는 두 집단 공통으로 '개설 교과목의 다양화 및 확대'를 요구하였다. 이는 현재 A대학 집중이수 운영이 일반교양 강좌에 편중된 한계를 명확히 짚어낸 결과로, 제도의 외연 확장을 위해 교과 운영의 다변화 및 이를 위한 행정적 지원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개방형 응답에서는 '학업 부담 완화'에 대한 요구(36.84%)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집중이수제가 학생들에게 심각한 피로도를 유발할 수 있고 지식을 소화하고 성찰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안혜진과 구민지(2025)[29]의 연구 결과와도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제도가 지닌 교수학습적 차원에서의 본질적인 한계점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본 연구의 결과와 선행연구 논의를 토대로, 집중이수제의 성공적 정착과 운영 고도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설 교과목의 다양화 및 수요자 특성을 반영한 운영 구조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전공, 교양, 융합, 비교과 영역까지 포괄하는 다양한 교과군을 운영하되, 특히 학문 계열별 특성과 학습 방식의 차이를 고려한 탄력적 운영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고학년을 위한 '전공 심화 및 융복합 캡스톤 디자인', 저학년 또는 자유전공생을 위한 '계열기초 및 어학 몰입 캠프' 등으로 집중이수 경로를 다변화하고, 이론, 실험·실습, 프로젝트 기반 등 교과 유형에 따른 집중이수 운영 모형을 차별화하여 설계하

29) 안혜진·구민지, 「외국인 학부생을 위한 한국어 집중 이수 운영 사례연구」, 『한국과 세계』 7권 2호, 한국사회과학연구소, 2025. 781-782쪽.

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대학 차원에서는 학과의 자율적 교과 개설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하고, 시간표 블록화 및 집중이수 전용 학사 운영 기준 마련 등 행정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단기 몰입 수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습자의 인지적 부하 경감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체제의 전면적 혁신이 수반되어야 한다. 단순히 15주 분량을 물리적으로 압축한 일방적 강의식 수업은 인지 부하를 가중시키므로, 문제 기반 학습·토론·하이브리드 수업 등 능동적 교수법을 도입하고, 상대평가와 일회성 지필평가 중심에서 절대평가·과정 중심 평가로 전환하는 것이 요구된다. 특히 사전 온라인 학습을 통해 기초 지식을 습득하고 대면 수업에서 심층 이해 활동을 진행하는 하이브리드 교수법의 적극적인 도입을 제안한다. 이는 지식 전달 시간을 단축하여 학습자의 인지적·체력적 소진을 완화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이 외에, 교수자 측면에서도 집중이수 수업 설계에 특화된 교수법 연수 및 컨설팅을 제공하여 고밀도 수업 환경에 적합한 교수 역량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하겠다.

셋째, 저학년 대상 체계적 안내 강화 및 제도적 지원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집중이수제의 효과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학 입학 초기 단계에서부터 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안내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저학년의 경우 학사제도와 학점 이수 설계 경험이 부족하므로 맞춤형 설명회 혹은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정례화할 필요가 있으며,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학습자 스스로 자기주도적 학습 계획을 수립하고 진로와 연계된 학점 설계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학습 전략과 시간 관리 방법 등을 지원하는 학습 코칭 체계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 외에도, 학습자와 교수자의 제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학사 일정 유연화, 행정지원 강화, 교과 운영에 대한 제도적 인센티브 제공 등 전반적인 지원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같은 다각적 노력은 대학 구성원의 집중이수제에 대한 초기 적응을 돕고 제도의 실질적 활용도를 높이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이다.

본 연구는 집중이수제 관련 연구가 중등교육 분야에 편중되어 있는 상

황에서 고등교육 맥락에서의 실증연구를 수행하였다는 점, 비교적 대규모 학습자 표본(n=430)을 확보하여 분석의 신뢰성을 제고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단일 대학 사례에 한정되어 있고 분석 대상이 일반교양 교과목에 편중되어 있어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제약이 있으며, 소규모 교수자 표본(n=24)으로 집단 간 비교 결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인식 조사에 치중하여 실제 교육 효과성 검증에도 한계가 있는바, 후속 연구에서는 참여·비참여 집단 간 학업성취도(GPA), 중도 탈락률, 핵심역량 변화 등을 비교하는 종단적 추적 연구와 함께 계열별 최적화 모델 개발 및 동료 네트워크가 제도 확산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는 질적 연구가 병행될 필요가 있겠다.

참고문헌

단행본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7. 10. 17.] [대통령령 제28365호, 2017. 10. 17., 일부개정]

교육부, 『창의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학사제도 개선방안』, 대학학사제도과, 2016a.

교육부, 『2022-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2022a.

교육부,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0) 기본계획』, 2022b.

교육부, 『2025-2027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육성사업 기본계획』, 2025.

박순경·허경철·정영근·이광우·김진숙·민용성, 『국가수준 교육과정 총론 개선 연구(Ⅱ): 일반계 고등학교 11, 12학년 선택 교육과정 개선안의 모의 편성 사례 자료집』,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6.

조옥경·임후남·최정윤·김미란·서영인·강충서·전석진·김지현, 『대학의 학사제도 유연화 실태와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2022.

Canaday, R. L. & Rettig, M. D., Block scheduling: *A catalyst for change in high schools, Larchmont*, NY: Eye on Education, 1995.

McCluskey, T., Smallridge, A., Weldon, J. & Paguio, R., *The Victoria University Block Model: From a rhetoric of disruption to a reality of success*, Melbourne: Victoria University, 2019.

논문

김재춘·최필순, 「집중이수제 정책의 등장과 퇴장: 정책 실패가 주는 시사점 탐색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연구』 31권 3호, 한국교육과정학회, 2012, 123-140쪽.

김지혜, 「대학원 전공 이론 수업의 블렌디드 러닝 적용에 대한 인식 연구: 단기 집중 이수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연구』 92집,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25, 171-188쪽.

박창언·오은주·차철표, 「교과목 집중이수제 연구-사회·도덕 교과군을 중심으

로」, 『수산해양교육연구』 25권 5호,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 2013, 1224-1237쪽.

안혜진·구민지, 「외국인 학부생을 위한 한국어 집중 이수 운영 사례연구」, 『한국과 세계』 7권 2호, 한국사회과학연구소, 2025, 763-789쪽.

하오선, 「대학에서의 집중이수제 교과목 운영에 참여한 학습자와 교수자의 인식과 개선요구에 관한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권 24호,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1, 791-802쪽.

황수아, 「국가교육과정 적정화 정책에 대한 역사적 신제도주의적 분석: '집중이수제'와 '핵심개념'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8.

Buck, E. & K. Tyrrell., "Block and blend: a mixed method investigation into the impact of a pilot block teaching and blended learning approach upon student outcomes and experience", Journal of Further and Higher Education, vol. 46, no. 8, London: Taylor & Francis, 2022, pp.1078-1091.

Davies, W. M., "Intensive teaching formats: A review", Educational Research, vol. 16, no. 1, WA: Western Australian Institute for Educational Research, 2006, pp.1-20.

Freeman, T., H. Fedesco & D. Cavin., "Teaching Compressed Courses: The Block Plan at Colorado College", The National Teaching & Learning Forum, vol. 29, no. 5, Hoboken: Wiley, 2020, pp.8-9.

Jackson, J., K. Tangalakis, P. Hurley & I. Solomonides., "Equity through complexity: Inside the 'black box' of the block model", National Centre for Student Equity in Higher Education, Perth: Curtin University, 2022, pp.1-78.

Lostroh, C. P., "Keeping It Real: Substantive Learning on a Short Calendar", CBE—Life Sciences Education, vol. 6, no. 4, Bethesda: American Society for Cell Biology, 2007, pp.285-288.

Loton, D., C. Stein, P. Parker & M. Weaven., "Introducing block mode to first-year university students: a natural experiment on satisfaction and performance", Studies in Higher Education, vol. 47, no. 6,

London: Taylor & Francis, 2022, pp.1097-1120.

Roche, T., E. Wilson, E. Goode & J. W. McKenzie., “Supporting the academic success of underrecognised higher education students through an immersive block model”, Higher Education Research & Development, vol. 44, no. 3, London: Taylor & Francis, 2025, pp.721-735.

Tangalakis, K., C. H. Hoang, E. Knight, P. Hurley, J. Jackson & M. Hildebrandt., “Differentiation through innovation in the contemporary higher education environment: The case of the ‘Victoria University Block Model’”, Innovations in Education and Teaching International, vol. 61, no. 6, Oxfordshire: Routledge, 2024, pp.1305-1319.

보도자료

교육과학기술부, “학교 자율화 추진 방안”, 학교제도기획과, 2009.06.11.

교육부,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학사 운영 자율성 대폭 확대”, 대학학사제도과, 2016b.12.09.

인터넷 사이트

가천대학교 - 가천 P-학기제 운영 안내, https://www.gachon.ac.kr/kor/1103/subview.do, 2026.04.14.

고려대학교 - 유연학기제 교과목 개설 및 운영 지침, https://registrar.korea.ac.kr/eduinfo/info/flex_semester.do, 2026.04.14.

동국대학교 - 수업운영 안내 공지사항, https://www.dongguk.edu/article/HAKSANOTICE/detail/26745120, 2026.04.15.

성균관대학교 - 학사안내(유연학기제 및 도전학기), https://www.skku.edu/skku/edu/bachelor/ca_semester.do, 2026.04.14.

숙명여자대학교 - 학기안내(집중학기), https://www.sookmyung.ac.kr/kr/university-life/semester-information02.do, 2026.04.15.

한양대학교 ERICA - IC-PBL 교육과정 운영 안내, https://erica.hanyang.ac.kr/web/erica/ic-pbl, 2026.04.15.

York University Lassonde School of Engineering - Engineering Block Model, https://lassonde.yorku.ca/block-model/, 2026.04.13.

Victoria University - The VU Block Model, https://www.vu.edu.au/about-vu/university-profile/the-vu-block-model, 2026.04.13.

국문초록

본 연구는 대학 학사제도의 유연성과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도입된 집중이수제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참여 구성원의 인식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25학년도 A대학의 집중이수제 강좌에 참여한 학습자 430명과 교수자 24명을 대상으로 제도 및 교과 운영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 학습 효과성, 학년 및 전공 계열에 따른 인식 차이, 참여 장점과 개선 과제를 설문 및 내용 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양 집단 모두 집중이수제 운영 전반에 걸쳐 높은 만족도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교수자가 학습자보다 모든 인식 항목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긍정도를 나타냈다. 학습자가 인식하는 주요 교육적 효과 요인으로는 수업 내용의 연속·연계성과 집중력 향상이 도출되었다. 학년별 분석에서는 학습 효과성과 학점이수 설계도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3학년이 1학년보다 학습 효과성을 유의하게 높게 평가하였다. 전공 계열별로는 제도운영 필요성, 전반적 만족도, 재수강 의향에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으나, Scheffé 사후검증에서 특정 집단 쌍 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참여 장점으로는 차기 학기 학업 부담 조절이, 최우선 개선 과제로는 개설 교과목의 다양화가 두 집단 공통으로 도출되었다. 이를 토대로 계열 특성을 반영한 교과목 다양화, 능동적 교수법 및 과정 중심 평가로의 전환 및 참여 지원 체계 정비를 제언하였다.

주제어 ● 고등교육, 교수자 인식, 집중이수제, 학사 유연화, 학습자 인식

Abstract

An Analysis of Student and Faculty Perceptions of the University Intensive Course System
: A Case Study of University A

Hyekyung Kim / Hoseo University
Jeong-kyung Moon / Hoseo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operational status of the intensive course system in higher education and empirically examine the perceptions of its participants. A survey was conducted on 430 students and 24 faculty members who participated in intensive courses offered at University A in the 2025 academic year, examining perceptions of system and course management, learning effectiveness, differences in perception by academic year and major field, participation benefits, and areas for improvement.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both groups reported high levels of satisfaction and necessity regarding the operations of the intensive course system, with faculty displaying significantly higher positive perceptions than students across all perception items. Second, in terms of pedagogical outcomes, students identified the continuity and interconnectedness of course content and enhanced concentration achieved through the intensive delivery as the primary factors driving educational effectiveness. Third, while the analysis by academic year reveal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learning effectiveness and helpfulness in academic track planning, third-year students evaluated learning effectiveness significantly higher than first-year students.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observed across major fields in the perceived necessity of system operation, overall satisfaction, and intention to retake the course; however, the Scheffé post-hoc test showed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specific

pairs of groups. Lastly, regarding participation benefits, both groups commonly prioritized the regulation of academic workload for the upcoming semester, while identifying the diversification of offered courses as the highest-priority task for future improvement.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diversifying courses to reflect distinct disciplinary characteristics, transitioning toward active learning methodologies and process-centered assessments, and restructuring participant support systems.

Keyword ● Academic Schedule Flexibility, Faculty Perception, Higher Education, Intensive Course System, Student Perception

▌논문투고일:2026.05.22. ▌심사완료일:2026.06.26. ▌게재확정일:2026.06.30. ▌

https://doi.org/10.54698/kl.2026.21.429
지식과 교양, 제21호,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Knowledge and Liberal Arts, Vol. 21, LIC, pp.429-454.

영어트랙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영어매개강의(EMI) 한국어 교육의 사례연구

: 권역별 성취도 변화를 중심으로*

문 일 진**

목 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1) 영어매개강의(EMI)의 개념 및 선행 연구
 2) 영어트랙 한국어 학습자의 등장 배경
 3) 영어매개강의(EMI)의 초급 단계에서의 의미
3. 연구의 방법
4. 연구의 결론
5. 결론 및 제언

1. 서론

본 연구는 초급 단계의 영어 트랙 다국적 학습자를 대상으로 영어매개강의(EMI)[1] 활용 수업이 성취도와 학습자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향후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 본 논문은 국제한국어문화학회 2026년 제9회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우송대학교 한국어교육원 초빙교수
1) 이용직·김영룡, 「학원에 재학중인 유학생의 영어매개강의 (EMI: English as a Medium of Instruction) 수업 경험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4권 제5호, 한국산학기술학회, 2023, 82-83쪽.

자 하였다. 최근 글로벌 K-culture의 확산으로 인해 국내 대학 내 외국인 유학생의 구성이 급격히 다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내 대학들은 국제 경쟁력 강화와 유학생 유치를 위해 영어로 전공 수업을 운영하는[2] '영어 트랙(English Track)'을 확대해 왔다. 따라서 최근 교양 한국어 수업 현장은 특정 국가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기존의 수업 환경에서 벗어나 다양한 언어·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습자들이 공존하는 다국적 환경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이런 배경의 학습 환경의 확산은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돕는 공용어로서 영어의 필요성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 특히 한국어 기초 역량이 부족한 초기 단계의 학습자들에게 영어는 지식 전달의 공백을 메우고 심리적 장벽을 낮춰주는 중요한 도구적 역할을 수행한다. 게다가 이 학습자들은 국적, 체류 기간, 한국어 노출 정도, 한국어 교육 축적 수준 등이 매우 다양하나 공통으로 한국 생활에 필요한 실용 한국어 학습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은 편이다. 본 연구의 대상인 영어 트랙(English Track) 학습자들 역시 한국 생활 적응과 캠퍼스 내 소통을 위해 한국어를 학습하려는 실용적 동기가 강하다. 이처럼 실용 한국어에 대한 다국적 학습자들의 학습 의욕은 더 높아지고 있으며 한국어 학습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교사의 유연한 다국어 설명이 더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이들을 위한 맞춤형 교수법 및 매개어 활용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국적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영어매개강의(EMI)의 운영 사례를 분석하고, 한국어 교육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1) 영어매개강의(EMI)의 개념 및 선행 연구

EMI(English as a Medium of Instruction)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2) 이민경·조윤경, 「영어 트랙 온라인 한국어 수업에 대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인식 연구」,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제14권 제5호(통권 61호),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2025, 227-257쪽.

환경에서 영어를 매개로 전공 교과목을 가르치는 수업 방식으로,[3]CLIL의 한 유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수업은 학습자가 전공지식을 습득하는 동시에 영어 능력을 함께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영어매개강의(EMI) 관련 선행연구는 주로 수업의 효과성과 학습자의 인식 및 만족도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다. 예를 들어, 이제영(2021)의 [4]메타분석 연구에서는 대학의 소재지나 수강 과목과 관계없이 EMI 수업이 영어 학습자에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 트랙 유학생을 대상으로한 연구는 대학 교육 및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아직 충분히 축적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는 영어 트랙이 비교적 최근에 신설된 교육과정이며, 해당 유학생들의 주요 목적이 한국어 학습에 있지 않다는 점과도 관련이 있다. 또한 대학별로 영어 트랙 전공 구성, 유학생 규모, 한국어 교육과정의 운영 방식이 상이하여 연구 대상을 일원화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학생을 위한 교양 교육과정의 특성과 한국어 학습의 방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면, 영어트랙(English Track) 유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설계에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5]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양 한국어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는 최근 들어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김문준 외 2010; 신영지 2014; 김경훤 외 2014; 이선영·나윤주 2018; 류선숙 외 2020; 류승의·조위수 2020; 장지영·조은영 2020; 최은경 2020; 강소영 2022). 또한 박봉현·김선미(2019)의 뷰티 한국어, 조위수 외(2020)의 K-뷰티 마이크로전공 등과 같이 특정 목적 기반 교양 한국어 수업을 다룬 연구도 이루어졌

3) CLIL(Content and Language Integrated Learning)은 교과 내용(Content)과 언어(Language)를 통합하여 학습하는 교육 접근법이다.

4) 메타분석은 특정 연구 문제에 대해 독립적으로 수행된 여러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통계적으로 통합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 이는 '분석에 대한 분석(analysis of analysis)'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기존 연구 결과들을 정량적으로 요약하고 데이터화하여 통계적 분석 기법을 적용하는 것.

5) 김문주 외, 「외국인 유학생 대상 교양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교육문화연구』 제16권 제1호, 인하대학교교육연구소, 2010, 113-134쪽.

다. 이들 연구는 공통적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특성과 학습 목적에 부합하는 다양한 교양 한국어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교수 언어와 관련하여 [6]권성미·정미지(2009), 최진우(2021)는 초급 한국어 수업에서 [7]매개어(MOI) 선택이 학습 성취도와 학습자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Wei(2018) 등은 학습자가 여러 언어 자원을 유연하게 활용하여 의미를 구성하는 [8]'트랜스랭귀징'(Translanguaging)[9]이 인지적·정의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지닌다고 설명한다. 이는 영어매개강의(EMI)를 단순한 금지 대상이 아니라 전략적 교수·학습 자원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이에 본 연구는 실제로 영어매개강의(EMI)가 실제 학습 성취도, 흥미도, 이해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실증적 사례연구라는 의미를 갖는다.

2) 영어 트랙 한국어 학습자의 등장 배경

2025년 기준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약 25만 3천 명으로 전년 대비 21.3%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유학생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교육부, 2025). 이 가운데 영어 사용 과정을 포함한 글로벌 전공·트랙의 확대는 영어 트랙 유학생 집단의 증가 추세를 시사하지만, 현재까지는 영어 트랙 학습자만을 구분한 공식 통계는 제한적인 실정이다. 영어 트랙 학습자

6) 권성미·정미지, 「초급 단계 한국어 수업의 매개 언어 선택에 대한 연구: 학업 성취도와의 관련성 및 학습자 인식 조사를 중심으로」, 『외국어교육』 제16권 제3호, 한국외국어교육학회, 2009, 487-515쪽.

7) (Medium of Instruction): 학교나 교육 기관에서 지식을 전달할 때 사용하는 '교수 매체 언어' 또는 '매개어'를 의미함.

8) 트랜스랭귀징은 여러 언어를 "따로따로" 쓰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언어들을 한 덩어리 자원처럼 섞어서 쓰며 이해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방식이다. 이 개념은 수업 시간에 목표어만 써야 한다는 전통적인 외국어교육 생각에 문제를 제기하고, 학생이 이미 알고 있는 모든 언어(모국어·제2언어 등)를 같이 써 보면서 내용을 더 잘 이해하고,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스스로 지식을 구성해 가는 수업 방식을 뒷받침하는 이론이다.

9) Li Wei, "Translanguaging as a Practical Theory of Language." *Applied Linguistics*, vol. 39. no. 1, 2018, pp.9-30.

집단의 형성은 이 같은 국내 대학의 국제화 전략 및 입학 정책의 변화와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입학 전형의 다변화이다. 기존 유학생들이 한국어 능력 시험(TOPIK) 성적을 필수로 요구받았던 것과 달리, 영어 트랙 유학생은 TOEFL, IELTS 등 영어 능력 기준만으로 입학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한국어 기초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로 입국하는 학습자의 비중이 높아졌으며, 이는 초급 단계에서의 집중적인 교육 수요로 이어지고 있다.

둘째, 교육 언어와 환경의 분리이다. 전공 수업은 영어로 진행되지만, 일상적인 대학 생활과 행정 서비스는 한국어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학습자들은 한국어를 '전공 이수를 위한 도구'가 아닌 '생존과 사회적 참여를 위한 도구'로 인식하게 된다.

셋째, 학습자 구성의 다국적화이다. 영어라는 공용어를 매개로 모집된 이들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등 다양한 권역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어, 교실 내에서 교수자가 단일한 매개어(MOI)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들에게 친숙한 영어매개강의(EMI)활용하는 방안이 필연적으로 대두되었다. 류승의(2023,2024)에 따르면 영어 트랙 유학생은 전공 학업은 영어로 수행할 수 있으나, 한국에서의 대학 생활, 정주, 취업을 위해 한국어 능력을 필수적으로 요구받는 집단이다. 이들은 한국어를 학문 목적 언어라기보다 '생활 및 정착을 위한 실용적 도구'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이며, 교양 한국어 수업에서는 생존 한국어와 기초 학문 한국어의 결합된 형태를 요구한다.

결론적으로 다국적 초급 한국어 학습자의 증가는 기존의 단일 국적·단일 언어권 학습자를 전제로 한 교수 전략의 한계를 드러내며, 새로운 교수·학습 설계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그에 기초한 교육 목표·내용·교수 방법을 재구조화하는 작업은 고등교육의 국제화 맥락에서 한국어 교육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필수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3) 영어매개강의(EMI의 초급 단계에서의 의미

초급 한국어 수업에서는 학습자들이 공통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영어매개강의(EMI)의 선택이 교육 효율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로 대두해 왔다. 초급 학습자는 목표어에 대한 숙련도가 낮아, 문법이나 추상적 개념을 한국어만으로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국제 공용어인 영어는 사실상 다국적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가장 보편적인 매개어로 활용되고 있다. [10] 영어매개강의(EMI)는 문법 설명, 과제 지시, 문화적 배경 설명 등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도 향상, 시간 효율성, 학습 불안 감소라는 장점을 지닌다. 반면, 목표어 노출 감소, 언어 간섭, 영어 숙련도에 따른 학습 불평등이라는 한계 또한 지적되어왔다. 따라서 영어매개강의(EMI)는 단순한 '편의적 도구'가 아니라, 그 사용 범위와 방식에 대한 실증적 검토가 필요한 교수 전략 요소라 할 수 있다.

3. 연구의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11] 대전 소재 S 국제경영대학의 교양 한국어 초급반에 재학중인 다국적 학습자 약 69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동일한 커리큘럼과 교수진 아래 15주간 수업을 이수한 학습자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대상 학습자들의 권역을 비교해 보면 아래 [표 1] 와 같다. 다양한 권역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고, 지역적 다양성을 반영하였다는 장점 있으나 권역별 표본 수가 균등하지 않았으며, 권역 간 표본 수의 차이가 존재하였다. 동남아시아 15명, 중앙아시아 16명, 북아메리카 6명, 아프리카 11명,

10) 안영은·김승정, 「대학 영어매개강의(EMI)의 효과 분석: 영어의사소통역량, 학습곤란도 및 학업성취도(GPA)를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제19권 제2호,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2018, 331-332쪽.

11)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우송대학교 솔브리지 국제경영대학 2025년 2학기 교양한국어 초급반 69명이다.

라틴아메리카 7명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이러한 표본 구성은 연구자가 의도적으로 표집 비율을 조정한 결과가 아니라 연구 기간 동안 확보된 관찰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일부 권역에서는 표본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개별 응답자의 응답이 권역별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해당 권역의 결과를 전체 학습자의 특성으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미리 밝힌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각 권역 전체 학습자의 특성을 대표하거나 일반화하는 근거로 해석하기보다, 연구에 참여한 학습자 집단에서 나타난 경향을 비교·분석한 결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표 1] 대상 학생 권역별 비교

권역 (지역)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유럽	북아메리카	아프리카	기타 (라틴아메리카)
학생 수 (69명)	15	16	15	6	11	7

2) 연구 대상 학습자들의 배경 특성

연구 대상 학습자들의 성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여성 학습자는 31명(44.9%), 남성 학습자는 37(53.6%), 밝히고 싶지 않음이 2명(0.5%)로 나타났다. 성별 분포는 연구 결과 해석의 주요 배경 특성으로 활용하지 않았으며, 단순한 표본 구성 정보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한국어 학습 경험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의 학습자가 입문 또는 초급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어 학습 경험이 전혀 없는 학습자가 65.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3개월 미만 학습자가 20.3%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3~6개월 및 6개월 이상의 학습 경험을 보유한 학습자는 각각 7.2%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가 한국어 초급 단계의 학습자를 주된 대상으로 수행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

증한다. 학습 대상자들의 한국어 학습에 대한 흥미도를 조사한 결과, 학습자들의 전반적인 학습 동기와 태도가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조사 결과, 한국어 학습에 대해 '매우 흥미를 느낀다'고 응답한 학습자는 55.1%, '흥미를 느낀다'고 응답한 학습자는 33.3%로 집계되었다. 이를 종합하면 전체 응답자의 약 90%에 달하는 다수의 학습자가 한국어 학습에 대해 높은 수준의 흥미와 관심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자들이 한국어 습득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시사하며, 이는 향후 실시될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에 긍정적인 정의적 기반이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수업 외 시간에도 한국어 학습에 흥미를 보이고 자발적으로 공부한 학습자들의 비율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 학습자가 학습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전체 학습자의 90% 이상이 수업 시간 외에도 자발적 학습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학습 흥미가 학습 지속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학습자들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참여와 관심을 보였다. 특히, 권역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수업 외 자발적 학습 참여율은 90%를 초과하였으며, 이는 학습자 대다수가 수업 외 시간에도 한국어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표 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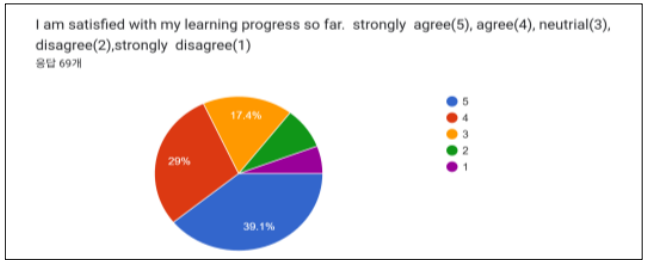
[표 2] 대상 학생 권역별 비교

성별	**여자**		**남자**	
	31명 44.9%		**37명 53.6%**	
	밝히고 싶지 않음 1명 0.5%			
한국어 학습 기간	처음 배움	3개월 이하	3-6개월	6개월 이상
	62.5%	20.3%	7.2%	7.2%
한국어 학습 흥미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55.1%	33.3%	8.6%	3%
수업 시간 이외의 자발적 학습 참여	적극 참여	참여	보통	전혀 안함
	33.3	30.4	31.3	5%

3) 수업 과정에 대한 만족도 조사

영어 매개 기반 한국어 교수-학습 과정에 대한 학습자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5점을 기준으로 5점(매우 만족)이라 응답한 비율이 39.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4점(만족)은 29.0%, 3점(보통)은 17.4%의 분포를 보였다. 이를 통합하여 분석하면, 긍정적 응답군인 4점 이상의 고만족도 비율이 전체의 68.1%에 달해 과반수를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다수의 학습자들이 제안된 수업 내용과 영어매개강의(EMI) 방식을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수용하였으며, 교육적 측면에서도 비교적 높은 주관적 만족도를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학습 경험이 부족한 초급 단계의 학습자들에게 영어라는 보조 수단은 수업 내용에 대한 이해와 수업 참여의 효능감을 높이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결과적으로 영어 매개 교수-학습법은 학습자들에게 유효한 교수 전략으로 인지되고 있으며, 향후 초급 한국어 교육 과정 설계에 있어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3]

[표 3] 영어매개강의(EMI)=학습에 대한 만족도



4) 권역별 학습자의 종합적인 학습 성취도

권역별 학습자의 종합적인 학습 성취도, 출석률 및 과제 수행도를 종합적으로 수집하였다. 학습 성취도 평가는 각 영역별 배점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였다. 중간고사 20점, 말하기 중간 10점, 기말고사 20점, 말하기 기말 10점, 과제·태도 20점, 출석률 20점 각 영역별 점수를 합산 100점으로 하여 권역별 학습자의 총학습 성취도 평균으로 산출하였다.

(1) 권역별 성적 추이를 살펴보면, 출신 배경과 상관없이 모든 권역에서 중간고사 대비 기말고사 점수가 일제히 향상되는 긍정적(Positive)인 변화가 관찰되었다. 이러한 보편적 성취도 향상은 영어 매개 교수법의 유효성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출석 및 과제 수행 태도와도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 학습 태도(출석 및 과제)와 성취도의 상관성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성적 향상이 단순히 매개어()MOI) 매체의 변화에 기인한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성적 향상 폭이 두드러진 집단일수록 높은 출석률과 성실한 과제 제출 이행도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기말고사 점수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중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집단은 수업 참여도가 매우 안정적이었으며, 부여된 과제를 기한 내에 수행하는 태도가 성적 변화에 중요한 동인(動因)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3) 매개어(MOI)와 학습 태도의 상호작용

본 연구에서 나타난 성취도의 향상은 영어매개강의(EMI)를 통한 인지적 이해와 학습자의 성실한 학습 태도가 함께 작용한 결과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영어매개강의(EMI)는 학습자의 초기 학습 부담을 완화하고 수업 참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출석률과 과제 수행 등 학습 참여가 성취도 향상과 관련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본 연구는 사례연구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관계를 직접적인 인과관계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4) 이러한 데이터는 교수-학습 설계에 있어 교수어의 선정만큼이나 학습자의 참여도와 과제 수행 태도를 관리하는 것이 성취도 향상의 필수 조건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 초급 단계 한국어 교육 과정에서는 영어매개강의(EMI)활용과 더불어, 향후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학습자의 성실한 학습 태도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학습 관리 시스템의 병행 운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4]

[표 4] 권역별 학습자의 성취도 평가 조사[12)]

권역(지역)/ 항목 평균	동남 아시아	중앙 아시아	유럽	북 아메리카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평균
중간 고사(20)	17.79	13.83	15.22	15	5.75	13.54	13.52
기말 고사 (20)	19.50	15.74	16.66	16.00	6.50	14.5	14.82
말하기 중간(10)	7	7.6	8.3	8.5	6.5	7.5	7.57
말하기 기말(10)	9.82	9.74	9.81	9.75	8	9.5	9.44
태도·과제(20)	19.47	15.93	19.68	20	13	20	18.01
출석 (20)	19.25	15.45	18.95	17.53	13.25	18.45	17.15
총 평점 (100)	73.58	62.84	69.67	69.25	39.75	65.04	63.36
권역별 순위	1	5	2	3	6	4	

5) 권역별 학습자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점수 비교

권역별 학습자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점수>를 비교하여 학습 성취도 변화를 분석하였다. 전체 학습자의 중간고사 평균 점수와 기말고사 평균 점수는 각각 13.52점(20점 만점) ,14.82점(20점 만점)으로, 평균 1.3 점의 향상을 보였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동남아시아권 학습자는 중간고사 17.79점에서 기말고사 19.5점으로 가장 높은 상승폭을 나타냈고, 유럽권은 15.22점에서 16.66점, 북아메리카는 15점에서 16점, 라틴아메리카권은 13.54점에서 14.5 점, 중앙아시아권은 13.83에서 15.74점, 아프리카권은 5.75점에서 6.5점, 각각 나타났다.〔 표 5 〕

또한, 〔 표 4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프리카 권역 학습자의 평균 점수는 39.75점으로, 본 연구의 평가 기준에서 낙제점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아프리카 권역 학습자 전체의 일반적인 학업 수준으로 해석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해당 권역에서는 일부 학생들이 매우 낮은 점수를 받아 전체 평균을 크게 낮추는 결과를 보였다. 수업 과정에서 이들 학생은 잦은 지각과 결석, 낮은 과제 제출률을 보였으며, 개별 상담

12) 평가 기준: 중간고사(20), 말하기 중간(10), 기말고사(20), 말하기 기말(10), 과제·태도(20), 출석률(20), 총 100점 만점

을 통해 유학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아프리카 권역의 낮은 평균 점수는 권역 자체의 특성이라기보다 일부 학습자의 개인적·환경적 요인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표 5]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지필 평가 점수 비교표

권역(지역)/항목	동남 아시아	중앙 아시아	유럽	북 아메리카	아프리카	기타 (라틴 아메리카)
중간고사	17.79	13.83	15.22	15	5.75	13.54
기말고사	19.50	15.74	16.66	16.00	6.50	14.5
결과	1.71 향상	1.91 향상	1.44 향상	1.0 향상	1.25 향상	0.96 향상

6) 권역별 학습자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말하기 점수 비교

권역별 학습자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말하기 점수>를 비교하여 학습 성취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전체 학습자의 중간고사 말하기 평균 점수는 8.12점(10점 만점)으로 나타났으며, 기말고사 말하기 평균 점수는 9.60 점으로, 평균 1.48점의 향상을 보였다. 아프리카권의 경우 절대적인 점수는 낮으나 중간고사(5.75점) 대비 기말고사(6.50점)에서 1.25점 상승하며 점진적으로 발전을 보였다. 이는 영어매개강의(EMI) 수업이 학습자의 기초 지식 습득에 유의미했음을 보여주며, 한국어 말하기 수업이 학습자의 전반적인 말하기 능력 향상에 효과적이었음을 시사한다. 특히 초기 한국어 성취도가 낮았던 아프리카권 학습자들 또한 기말고사에서 의미 있는 점수 향상을 보였다는 점에서, 영어매개강의(EMI)가 학습 내용 이해를 돕고 말하기 수행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며, 학습자의 언어적 접근성을 높여 수업 참여도를 높이고, 결과적으로 말하기 능력 발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모

든 권역에서 일관된 점수 상승이 나타났다는 점은 영어매개강의(EMI)를 활용한 교수 전략이 특정 권역이나 학습 배경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학습자 집단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만 권역별 향상 폭의 차이는 학습자의 초기 한국어 이해 수준, 영어 숙달도, 한국어 학습 동기 등 다양한 요인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영어매개강의(EMI)활용 정도와 학습 성취도 간의 관계를 좀 더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동남아시아권은 2.82점이라는 가장 높은 향상 폭을 기록하며 말하기 영역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아프리카권(2.5점 향상)과 중앙아시아권(2.14점 향상)의 변화다. 지필 고사 점수가 낮았던 아프리카권 학습자들이 말하기에서 높은 향상 폭을 보인 것은, 영어매개강의(EMI)가 심리적 장벽을 낮추고 수업 참여도를 높여 말하기 수행 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 표 6 〕

[표 6]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지필 평가 점수 비교표

권역(지역)/ 항목	동남 아시아	중앙 아시아	유럽	북 아메리카	아프리카	기타 (라틴아메리카)
말하기 중간	7	7.6	8.3	8.5	6.5	7.5
말하기 기말	9.82	9.74	9.81	9.75	8	9.5
결과	2.82 향상	2.14 향상	1.51 향상	1.25 향상	2.5 향상	2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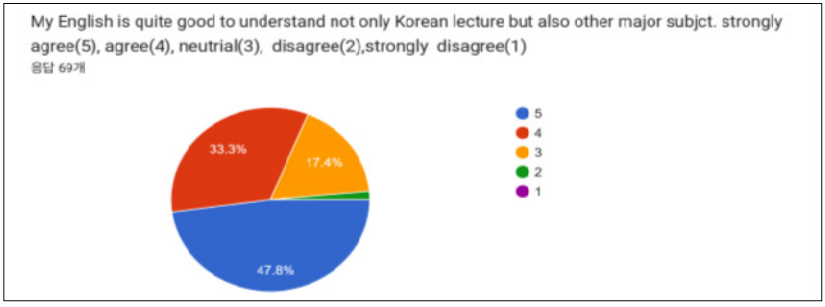
7) 수업을 이해하기 위한 본인의 영어 실력 만족도

학생들은 아래 조사에 의하면 98% 이상의 학생은 자신의 영어 실력이 한국어 수업이나 다른 전공 수업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 7 〕

영어매개강의(EMI)를 활용한 한국어 수업은 모든 권역 학습자의 성취도 향상에 효과적이었으며, 이러한 교수 전략은 특정 권역에 치우치지 않고 보편적인 적용이 가능하며, 특히 초기 성취도가 낮은 학습자들에게 말

하기에 대한 자신감과 학습 동기를 부여하는 데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고 여겨진다.

[표 7] 본인의 영어 실력도 만족도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로, 대전 소재 솔브리지 국제경영대학(SolBridge International School of Business)의 외국인 신입생(Bachelor of Business Administration,BBA) 전형에서는 공인 영어성적 기준을 적용하여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국가 출신의 학습자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영어 능력을 공통적으로 갖춘 상태에서 학업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교육 환경임을 보여주며, EMI(영어매개강의)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역시 특정 권역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학습자 집단에 적용 가능한 교수 전략이 될 수 있음을 뒷받침한다. 이에 해당 대학의 외국인 신입생 공인 영어성적 기준을 다음 〔 표 7-1 〕에 제시한다.

[표 7-1][13] SolBridge Admission Criteria (공식 입학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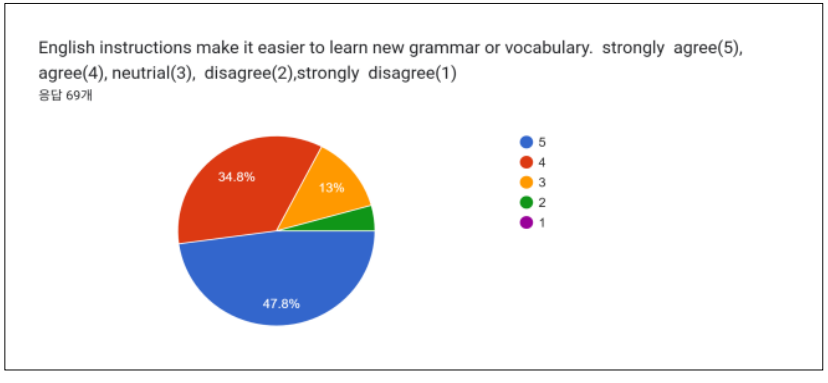
외국인 신입생 공인 영어시험	최소기준
IELTS	5.5이상
TOEFL IBT	61점이상

13) 솔브리지국제경영대학-공지사항, http :// www.solbridge. ac.kr/story/page/index.jsp?code=solbridge0601a&utm_source=chatgpt.com, 2026.07.02.

8) 영어 매개어 사용, 문법·어휘 부분의 효과

한국어 수업에의 측면에서 영어매개강의(EMI)시, 문법·어휘 부분의 효과를 살펴보면 학습자의 높은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 응답자 중 약 13%를 제외한 대다수의 학습자들은 영어로 설명이 제공되는 한국어 수업이 문법과 어휘를 이해하는 데 있어 훨씬 쉽고, 학습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영어매개강의(EMI)가 학습자의 언어적 이해를 보조하여 새로운 문법 개념과 어휘 습득을 보다 효과적으로 학습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관련 그래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영어매개강의(EMI)활용 수업이 학습자의 인지적 접근성을 높이고 한국어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 표 8 〕

[표 8] 문법, 어휘 부분의 영어 수업 효과



9) 영어매개강의(EMI) 사용의 긍적적 평가

영어매개강의(EMI)를 활용한 한국어 수업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대다수의 학습자가 영어매개강의(EMI)사용을 학습 성취도 향상과 심리적 안정에 기여하는 핵심 요소로 평가하며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1) 문법 규칙과 활용형 학습

학습자들은 특히 한국어의 문법 규칙과 활용형을 학습할 때 영어 매개어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교수자가 문법 규칙을 설명할 때 영어가 매우 효과적이다”, “한국어의 기술적인 요소를 설명할 때 영어가 필요하다고 믿는다”는 응답은, 초급 단계의 학습자들이 추상적인 문법 개념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영어 매개어를 유용한 학습 지원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모음과 자음의 어미 결합”과 같은 문법 규칙을 학습하는 과정에서도 영어 매개어가 규칙에 대한 이해를 지원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어휘 습득 및 의미 파악의 효율성 제고

단어의 번역과 의미 파악 과정에서 영어매개강의(EMI)는 학습자들에게 즉각적인 이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자들은 단어의 의미와 정의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영어를 통해 한국어 어휘의 핵심 의미를 보다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영어 매개어가 초급 학습자의 어휘 개념 형성을 지원하고, 전반적인 학습 과정을 보다 원활하게 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3) 의사소통 자신감 및 수업 참여 활성화

영어 매개어는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학습자의 심리적 기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기초 정보를 학습함으로써 한국인들과 소통하는 데 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는 응답은 영어매개강의(EMI)가 실질적인 언어 사용 의지로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10) 영어 매개어 한국어 수업에 대한 질적 인터뷰

아래의 조사는 학생들에게 ‘영어 매개어 사용 수업에 대한 구체적 의견 및 피드백’이라는 설문에 대한 주관식 응답을 수집한 것이다. 응답 결과, 대부분의 학습자는 영어 매개어가 한국어 수업 이해를 돕고 문법·어휘 학습 및 교실 내 의사소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하였다. 일부 학

습자는 수업 속도나 영어 설명의 한계로 인해 이해가 어려웠던 경험을 보고하였으며, 수업 개선을 위해 더 명확한 설명과 학습 지원의 필요성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개별적 인터뷰를 범주별로 분류하여 [표 9.] 영어매개강의(EMI) 한국어 수업에 대한 질적 인터뷰를 제시하였다. 본 표는 영어매개강의(EMI) 활용의 장점과 학습자가 경험한 어려움, 그리고 개선 의견 등을 보여준다.

개방형 응답의 범주별 분석 결과, 학습자들은 수업 및 교수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으며, 영어매개강의(EMI)가 수업 이해와 교수자의 의도 파악, 단어·문법 및 읽기 이해에 도움을 준 것으로 인식하였다. 반면, 수업 진행 속도와 영어 설명의 충분성에 대해서는 개선 요구가 제기되었으며, 명확한 설명과 복습 확대 등 학습자 수준을 고려한 필요성을 시사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표 9] 영어 매개어 한국어 수업에 대한 질적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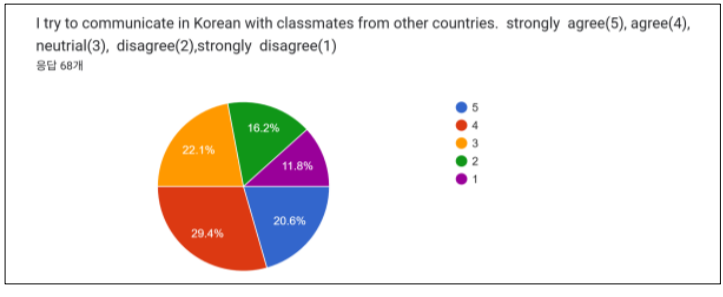
범주	응답 예시
수업 및 교수 만족도	수업과 교수에 대한 긍정적 인식, 재미와 학습 동기 부여
영어 매개어의 유용성	영어설명이 수업에 도움 매우 효과적인 공부방법 수업에서의 영어 사용은 필수라고 생각함 수업 진행 시 교수님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 영어가 단어·문법·연습 문제 이해에 도움
학습 이해 단어/문법	단어의 뜻을 필요할 때 알 수 있음 동사 이해에 도움이 됨 문장 통역, 영어가 단어·문법·연습, 문제 이해에 도움 모든 단어를 몰라도 문장을 이해하고 읽기에 도움이 됨
수업 난이도 / 어려움	교수님의 수업 진행이 너무 빠름 교수님의 영어 사용 부족
개선 방법	설명이 좀 더 분명했으면 좋겠음. 진도가 너무 빨라서 천천히 수업 진행하면 좋겠음, 복습 부분이 많으면 좋겠음.

(11) 학습자들 사이 교실 내 한국어 소통 시도

15주간의 영어매개강의(EMI) 교수-학습 과정을 거친 후, 학습자들이

교실 내 실전 상황에서 한국어를 사용하여 소통하려는 의지와 실제 시도 빈도를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학습자들의 언어 실행 태도는 다음과 같은 양상을 보였다. 한국어 소통에 '적극적(5점)' 혹은 '비교적 적극적(4점)'으로 임한다고 응답한 학습자는 각각 20.6%와 29.4%로 나타났다. 이를 합산하면 전체 응답자의 50.0%에 달하며, 이는 학습자의 절반이 초급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수업 외적인 교실 상황에서 한국어 사용을 주저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시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점(보통)이라 응답한 22.1%의 학습자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 학습자의 약 72.1%가 한국어 소통에 대해 중립 이상의 개방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영어 매개 교수법이 학습자에게 한국어 구조에 대한 명확한 인지적 토대를 제공함으로써, 외국어 학습 초기 단계에서 흔히 발생하는 '언어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의사소통 효능감(Communication Self-efficacy)'을 제고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반면, 소통 시도가 미흡하거나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2점 16.2%, 1점 11.8%) 또한 약 28.0%로 집계되었다. 이는 15주간의 학습 기간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습자들에게는 여전히 한국어 발화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나 숙달도 부족의 문제가 잔존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러한 소극적 학습자 그룹을 위해서는 영어 매개어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한국어 발화 기회를 강제적으로 부여하는 '단계적 상호작용 촉진 전략'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표 10]

[표 10] 학습자들 사이 교실 내에서 한국어로 소통 시도



4. 연구의 결론

본 연구에는 대전 소재의 우송대학교 솔브리지 국제 경영대학의 69명의 학습자가 참여하였다. 그리고 15주간 한국어 수업을 수강한 후에 학습 결과와 더불어 그들의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학습자들의 언어적·교육적 배경은 상이하였으며 수업 이전에 한국어 학습 경험을 보유한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러한 학습자 특성을 고려할 때, 영어 매개어를 활용한 수업 방식은 수업 초기에 한국어를 더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수업 내용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교수-학습 과정이 종료된 시점에서 학습자들의 향후 한국어 학습 지속 의향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절대다수가 지속적인 학습에 대해 매우 강력한 긍정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국어 공부를 계속할 것인가”라는 문항에 대해 분석한 결과, ‘매우 그렇다(5점)’라고 응답한 비율이 52.2%로 과반수를 상회하였다. 이어 ‘그렇다(4점)’가 21.7%, ‘보통이다(3점)’가 14.5% 순으로 집계되었다. 이를 통합하여 분석하면, 긍정적 응답(4~5점)의 비율이 전체의 73.9%에 달하며, 유보적 긍정(3점 이상)을 포함할 경우 전체의 88.4%가 향후 학습 지속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15주간 시행된 영어 매개 한국어 교육이 초급 학습자의 한국어 학습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낮추고 학습에 대한 자신감 및 지속적인 학습 의지를 형성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 표11 〕

[표 11] 15주 학습 종료 후 한국어 학습 지속 의향

한국어 학습 기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52.2%	21.7%	14.5%	11.6%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영어 트랙 학부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강좌의 운영 사례를 제시하고, 학습자 설문과 성취도 분석을 통해 영어매개강의(EMI)의 교육적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영어 트랙 유학생들은 문법과 어휘 학습에서 기초 단계부터 명시적이고 체계적인 설명을 선호하였으며, 영어를 활용한 개념 설명은 학습 이해와 수업 참여를 지원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취도 분석에서는 모든 권역의 학습자에게서 중간고사 대비 기말고사 성취도가 향상되었으며, 특히 말하기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큰 향상 폭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영어매개강의(EMI)가 초급 단계 학습자의 이해를 높이고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지원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노출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되 학습 이해와 수행이 필요한 상황에서 영어를 활용하는 전략적 코드스위칭을 적용하였다. 이는 학습자의 인지적 부담과 오류 불안을 완화하고, 교수자의 설명과 피드백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영어매개강의(EMI)는 한국어 몰입교육을 대체하는 방식이 아니라, 초급 단계에서 몰입 학습으로의 이행을 지원하는 교수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본 연구는 단일 사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통제집단을 구성하지 못했고, 권역별 표본 수의 편차와 학습자의 사전 성취도 및 외재적 변인을 충분히 통제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신중한 해석이 요구된다. 향후에는 통제집단을 포함한 정교한 실험 설계와 균형 있는 표본을 바탕으로 영어매개강의(EMI)의 효과를 보다 체계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영어 트랙 유학생의 다양한 언어적·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한국어 교육과정과 교재 개발, 문화 교육에 관한 후속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각국의 외국어 교육 관련 현황』,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4.

논문

강현화, 「다문화 시대의 한국어 교육 연구의 새로운 방향」, 『한국어교육』 26권 4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15, 1-28쪽.

권성미·정미지, 「초급 단계 한국어 수업의 매개 언어 선택에 대한 연구」, 『외국어교육』 16권 3호, 한국외국어교육학회, 2009, 487-515쪽.

권오현, 「독일 학교 외국어교육의 제도적 특성과 정책적 함의 분석: 헤센(Hessen)주를 중심으로」 『교육발전』 39권 2호, 서원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교육연구소, 2019, 155-182쪽.

김문준·이철성·김형곤·김지형·이훈병, 「외국인 유학생 대상 교양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교육문화연구』 16권 1호, 인하대학교교육연구, 2010, 113-134쪽.

김민정, 「외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학습 동기가 학습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56권,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2020, 123-145쪽.

김장식·류승의·조윤경, 「영어트랙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교양한국어 교재 개발의 실제」, 『대학교양교육연구』 8권 2호, 배재대학교 주시경교양교육연구소, 2023, 35-156쪽.

김호정,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설계 원리」, 『국어교육학연구』 55호 4권, 국어교육학회, 2020, 43-78쪽.

김호정·김남욱·신필여·박민신, 「한국어 교육에서의 '매개어(mediation)' 영역 설정의 필요성과 방향」, 『언어와 문화』 17권 3호,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021, 51-87쪽.

김호정·신필여·강남욱,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설계 원리」, 『국어교육학연구』 55권 4호, 국어교육학회, 2020, 43-78쪽.

류승의, 「국내 대학 영어트랙 유학생을 위한 교양 한국어 교육의 쟁점과 과제」, 『문화와 융합』 45권 10호, 인문사회예술융합학회, 2023, 49-63쪽.

안은영·김승지, 「대학 영어매개강의(EMI)의 효과분석: 영어의사소통역량, 학습곤란도 및 학업성취도(GPA)를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제19권 제2호,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2018, 331-332쪽.
윤효승, 「한국어 문법의 '영어 설명' 개선 방안 연구: 범용 한국어 교재를 중심으로」, 『인문연구』 114호,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6, 59-88쪽.
이민경·조윤경, 「영어 트랙 온라인 한국어 수업에 대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인식 연구」,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4권 5호(통권 61호),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2025, 227-257쪽.
이용직·김영룡, 「대학원에 재학중인 유학생의 영어매개강의 (EMI: English as a Medium of Instruction) 수업 경험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4권 5호, 한국산학기술학회, 2023, 82-83쪽.
An, Y.-E. & Kim, S.-J. "The effect of the English Medium Instruction based on students' English levels: Focusing on English communication ability, learning difficulty and GPA", Asian Journal of Education, vol. 19, no. 2, 2018, pp.331-352.
Li Wei. "Translanguaging as a Practical Theory of Language", Applied Linguistics, vol. 39, no. 1, 2018, pp.9-30.
Macaro, E., Curle, S., Pun, J., An, J. & Dearden, J. "A systematic review of English medium instruction in higher education", Language Teaching, 2018, pp.36-76.
Rose, H. & Macaro, E. "Teacher beliefs about English medium instruction in higher education: The Japanese context", Journal of Second Language Teaching and Research, 2019, pp.1-25.
Song, S.-c. "A study of undergraduate Korean and international students' perceptions and preferences on English Medium Instruction taught by Korean instructors",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2016, pp.221-243.

인터넷 사이트

솔브리지국제경영대학-공지사항,
https://www.solbridge.ac.kr/story/page/index.jsp?code=solbridge0601a&utm_source=chatgpt.com, 2026.07.02.

국문초록

본 연구는 ‘영어 트랙(English Track)’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영어매개강의(EMI:English as a Medium of Instruction)를 활용한 한국어 수업이 학습자의 학업 성취도와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전 소재 S 대학의 교양 한국어 초급반에 재학 중인 69명의 다국적 학습자를 대상으로 15주간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영어매개강의(EMI: English as Medium of Instruction)는 출신 권역과 관계없이 모든 학습자의 성취도 향상과 관련된 경향을 보였다. 중간고사와 비교한 기말고사 결과에서 모든 권역의 학습자에게 지필 및 말하기 성적의 향상이 관찰되었으며, 특히 동남아시아권 학습자들이 다른 권역 학습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성취도와 향상 폭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영어매개강의가 출신 권역과 관계없이 학습 성취 향상에 긍정적인 관련성을 시사한다.

둘째, 학습자들은 영어 매개 수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특히 문법 규칙과 활용형, 어휘 의미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영어를 활용한 보조 설명은 학습자의 이해를 돕고 인지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영어매개강의(EMI: English as Medium of Instruction)는 학습자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의사소통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습자의 약 74%가 향후에도 한국어 학습을 지속할 의향을 보여, 영어 매개 수업이 학습 동기 유지에도 일정 부분 기여했을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결론적으로, 영어트랙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영어가 단순한 보조 언어를 넘어 학습 이해와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전략적 교수·학습 자원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다국적·다언어 배경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에서 영어 매개어를 적

절히 활용하는 교수 전략의 유용성을 시사하며, 향후 초급 한국어 교육과정 설계에서는 영어매개강의(EMI: English as Medium of Instruction)의 체계적인 학습 관리 방안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주제어 ● **영어트랙(English Track), 한국어 교육, 영어매개어(EMI: English as a Medium of Instruction), 초급 한국어, 외국인 유학생, 학부 교양 한국어, 매개어강의(MOI:Midium Of Instruction)**

Abstract

An Analysis of the Effects of English Medium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English Track : International Students: Focusing on Changes in Achievement by Region

Moon, Il Jin / Wooso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impact of Korean language classes utilizing English as a Medium of Instruction (EMI) on the academic achievement and perceptions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the "English Track." To this end, a 15-week study was conducted with 69 multinational learners enrolled in an elementary liberal arts Korean class at ‘S’ University in Daejeon.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English-mediated teaching method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achievement of all learners, regardless of their region of origin. Both written and speaking scores rose across all regions between the midterm and final exams, with learners from Southeast Asia recording the highest levels of achievement and the most significant improvement. Second, learners reported a very high level of satisfaction with English-mediated instruction. In particular, auxiliary explanations in English during the stages of explaining grammatical rules, conjugations, and vocabulary meanings played a decisive role in lowering learning barriers and enhancing cognitive accessibility. Third, EMI(English as an Mdedium Instruction) reduced learners' psychological anxiety and improved their communicative self-efficacy. This led to approximately 74% of the learners expressing a strong intention to continue their Korean language studies in the future.

In conclusion, for elementary-level English track learners with multinational

and multilingual backgrounds, English has proven to be an effective strategic teaching and learning resource beyond a mere tool of convenience. This study proposes an efficient Korean language education model that aligns with the changing university environment and highlights the necessity of integrating English-mediated instruction with a systematic learning management system when designing future elementary Korean language curricula.

Keyword ● English Track, Korean Language Education, Medium of Instruction (MOI), Elementary Korean, International Students, General Education Korean, EMI(English as a Mideum Instruction)

▌논문투고일:2026.02.12. ▌심사완료일:2026.07.03. ▌게재확정일:2026.07.09. ▌

● ● ● https://doi.org/10.54698/kl.2026.21.455
지식과 교양, 제21호,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Knowledge and Liberal Arts, Vol. 21, LIC, pp.455-482.

티칭포트폴리오 활용과 학업만족도 간 관계 연구

: 교수피드백과 메타인지 매개효과*

이 은 경 · 곽 봉 화**

목 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연구모형 및 가설
4. 연구방법 및 분석
5. 결론 및 제언

1. 서론

최근 대학은 수업의 질을 높이는 교수법에 주력하고 있으며, 교수 지원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있다.[1] 이는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기대와 사회적 트렌드를 반영한 미래지향적 교육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다.[2] 일반적으로 교수자의 교육철학을 기반으로 전문성 있는 강의 운영 능력을 통해 학습효

* "본고는 초고 작성 과정에서 문헌 조사 및 문장 교정을 위해 생성형 AI(ChatGPT, GPT-4o, OpenAI)를 보조적으로 활용하였으며, 모든 내용은 저자가 검토·검증하였다."

**이은경(제1저자) 대림대학교 바이오헬스케어과 조교수
곽봉화(공동저자) 대림대학교 건축과 조교수

1) 박선향·윤혜림, 「ADDIE 모형에 기반한 티칭포트폴리오 구성요소 개발: K대학 사례」, 『인문사회 21』 제12권 제3호, 2021, 1200쪽.

2) 김철,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학교육의 방향」, 『교육문화연구』 31권 1호, 2025, 177쪽.

과를 극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수역량 개발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3] 교수자의 교수역량[4]을 평가할 수 있는 관련된 논문을 살펴보면, 강의평가나 학생들의 참여도를 향상하기 위한 다양한 교수법 설계[5] 등에 초점을 두었지만, 강의 전반에 걸친 교수자의 티칭포트폴리오 활용과 관련된 그 효과성에 관한 논문은 상대적으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티칭포트폴리오의 활용이 학생들의 학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양한 전략 중 하나인 티칭포트폴리오는 교수자가 자신의 교육 신념과 교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과정으로, 교육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기반이 되고, 이러한 교육 전문성은 교수역량 개발로 이어지며,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성찰과 역량 강화가 요구된다.[6]

티칭포트폴리오는 단순한 강의 평가나 설문 조사 방식과 달리, 체계적인 기준으로 교수자의 지속적인 교육 전문성 개발을 촉진한다.[7] 또한, 교수자가 자신의 교육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강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인식하여 혁신적인 교수법을 도입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통해 효과적 교수전략을 수립하는 등 강의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고,[8] 아울러, 학업성취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양한 전공과 학습배경을 가지고 있는 교양교육의

3) 문서형·전현옥, 「교수학습센터 연구원의 직무 역량 및 전문성 개발 전략 연구」, 『에듀테인먼트연구』 제7권 제1호, 2025, 261쪽.

4) 이승영·안진성, 「지방 사립대학 교수자를 위한 교수역량 진단도구 개발 및 타당화: H대학을 중심으로」, 『평생학습사회』 제 21권 제4호, 2025, 168쪽.

5) 이민혜·강윤정·원동현, 「비전공 학습자의 SW교과 참여도 향상을 위한 교수법 설계」, 『한국정보통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2022, 383쪽.

6) 박선향·윤혜림, 「ADDIE 모형에 기반한 티칭포트폴리오 구성요소 개발: K대학 사례」, 『인문사회 21』 제12권 제3호, 2021, 1199쪽.

7) Margarita C.T., "The use of teaching portfolios to promote excellence and scholarship in nurse education", Nurse Education in Practice, Vol.9, 2009, pp.388-392.

8) 김은정, 「티칭 포트폴리오 연계 수업계획서(TPBS) 개발을 위한 요구 분석」, 『Andragogy Today: International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제8권 제2호, 2005, 35쪽.

특성에 주목하고 있다. 교양교과목은 교수자의 수업운영방식과 교수역량에 따라 학업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교양교육에서 교수활동이 학생들에게 어떠한 긍정적 영향이 있는지 규명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교수의 적절한 피드백이 학생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학습성과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어[9] 교수활동과 학생성과 간의 실증적 검증이 요구된다. 그래서 이 연구의 목적은 교수자의 티칭포트폴리오 활용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학업만족를 향상시킬 수 있는 관련 변수를 규명하는 데 있다. 이것은 티칭포트폴리오 활용이 교수자에게 단순한 교수평가의 목적만이 아니라 교수법 개발 및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고, 교육에 대한 성찰 및 동료 간의 협력, 전문성 등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으며,[10] 그러한 티칭포트폴리오 활용을 통해 학생들의 적극적 수업 참여 유도와 학업만족도 향상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학문적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티칭포트폴리오와 학업만족도 사이에 매개변수를 탐색하여 관련성을 규명하고, 이를 통해 각 변수들 간의 효과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1) 티칭포트폴리오(Teaching Portfolio) 개념적 이해와 활용

티칭포트폴리오는 교수자의 강의역량 및 교육 성과를 위해 교육 활동을 사실적으로 기록한 문서이다.[11] 이를 통해 교수자는 교수 철학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강의의 전문성을 가질 수 있으며, 전반적인 교육 활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도구로서 강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티

9) 이효정, 「학습자 참여도 증진을 위한 피드백 구조의 다각화 방안」,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5권 제3호, 2015, 377쪽.

10) 심미자·설양환, 「예비교사의 교육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e-티칭 포트폴리오 활용 방안」, 『교육정보미디어연구』 제13권 제1호, 2007, 312쪽.

11) Laurie A.B, Teri R.S, & Amy M.T, “Teaching Portfolios: Uses and Development”, Journal of Marketing Education, Vol.24, 2002, pp.35-42.

칭포트폴리오는 단순히 업적평가를 위한 보고서가 아닌 수업 방향과 교수법, 평가방법 등의 타당성과 교육목표의 일관성에 대한 객관적 자료로 활용하여 교수자가 스스로 성찰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12] 또한, 티칭포트폴리오는 수업을 계획하고 그 방법을 구조화하여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13] 아울러, 획일화되지 않은 교수자 개개인의 수업 전문성이나 교수 자신의 경험, 기술적인 측면의 중요성이 담긴 전문능력 중 하나로 활용하고 있으며, 수업 설계와 수업 성찰, 교수의 적극적 수업 활동으로 반영되고 있다.[14] 이러한 티칭포트폴리오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각 대학의 특성과 목적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또한, 티칭포트폴리오 선행연구를 검토해 보니, 대학은 각기 다른 조직적 · 환경적 요인들을 고려하여 구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박선향과 윤혜림(2021) 연구에서는 국내 대학의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티칭포트폴리오 구성과 활용방식이 대학의 교육목표와 운영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교수자가 티칭포트폴리오 활용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수업목표가 효과적으로 잘 전달되는지, 또한 학생들의 지적 수준이 수업내용과 부합하는지, 학습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콘텐츠나 사례는 적절한지 등의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였다.[15]

일반적으로 티칭포트폴리오는 교수자의 수업 성찰이나 수업 활동 기록 등의 교수 역량 강화 및 평가의 도구로 이해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교수자

12) 최명숙·문수민, 「대학 교수자가 지각하는 수업설계지원 e-티칭포트폴리오 시스템 활용 효과 차이 분석」, 『교육정보미디어연구』 제22권 제2호, 2016, 223쪽.

13) Wetherington, P., “Effects of Developing EdTPA as a Teaching Portfolio on Pre-Service Teachers' Self-Efficacy in a Teacher Preparation Program”, Theses and Dissertations, 2017.

14) 심현애·김경연, 「티칭포트폴리오를 통한 반성 활동에 관한 연구: 예비유아교사의 수업전문성 개선 인식 분석」, 『Korean Journal of the Learning Sciences』 2012, 제6권 제1호, 2012, 43쪽.

15) 박혜진·차승봉, 「대학에서 체계적 교수 활동을 위한 e-티칭 포트폴리오 활용 방안 연구」, 『문화와융합』 제42권 제8호, 2020, 115-138쪽.

의 티칭포트폴리오 활용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피는 데 주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티칭포트폴리오 활용이라 함은 교수자가 자신의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교과목 목표와 내용을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수업 운영 과정에서 학습활동과 평가를 계획·실행하며, 학생들의 이해 수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절한 교수피드백을 제공하여 학습자의 성찰과 메타인지 향상을 지원하는 일련의 교수·학습 활동을 의미한다.

티칭포트폴리오 활용을 측정하기 위해서 교수자의 교육철학과 교수역량이 실제 수업 과정에서 구현되어 학생들에게 경험되고 인식되는 교수·학습 활동의 수준으로 정의한다. 조용개(2009)[16] 연구에서는 티칭포트폴리오 개발에 참여한 교수들의 수업평가 결과와 수업만족도가 모두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티칭포트폴리오가 단순히 교수자의 교수역량 개발을 위한 도구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의 수업 경험과 학업만족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 학업만족도(Academic Satisfaction)

학업만족도는 학생들이 가지는 심리적 요인으로 교수의 강의내용이나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교수와 학생 간 상호작용을 통해 학생들이 느끼는 전반적인 모든 형태의 주관적인 행복감, 삶의 만족이나 자아존중감과 같은 개인의 안정적 정서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17] 이처럼 학업과정에서 느끼는 개인의 심리상태를 말하며, 임효연과 이순민(2014) 연구에서는 학습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대감이 모두 충족되었을 때 느끼는 감정으로 학업을 계속 이어가는 동기가 되고 학업만족도와 학습 참여 사이에 긍정적인 상호관련성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학업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교수법을 제공해야 하며 이것은 학습자의

16) 조용개, 「티칭 포트폴리오 개발을 통한 수업의 효과성 탐색」, 『교육학연구』 제47권 제2호, 2009, 161-190쪽.

17) 김은영·임신일, 「초·중·고등학생의 학업성취만족도 변화유형 및 영향요인 분석 연구」, 『아동교육』 제31권 제4호, 2022, 69-87쪽.

요구에 교수자가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 한규은(2025) 연구에서는 학문적 관심사나 개인의 관심사가 일치할수록 학업만족도가 높아지며, 최신정보를 비롯하여 수업내용의 명확한 전달이나 학생참여를 유도하는 등의 적극적 수업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18)]

이상으로 학업만족도는 학생들의 심리적 만족감 형성에 중요한 요소이며, 교수자의 강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수자와 학생 간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전반적인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티칭포트폴리오 활용이 교수의 업적평가나 승진을 위한 평가도구라는 제한적 관점에서 벗어나, 교수·학습의 질을 향상시키는 교육적 도구로 조명되어야 함을 강조한다.[19)] 특히, 학업만족도는 강의 설계, 수업 운영, 학습활동 및 평가와 같은 전반적인 교수·학습 과정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며, 티칭포트폴리오는 이러한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티칭포트폴리오의 활용은 학생들의 학습경험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학업만족도를 증진시키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3) 교수피드백(Professor Feedback)

교수피드백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뿐만 아니라 학습 과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효과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며, 그 유형 또한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김규은과 김민성(2023) 연구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구체적 피드백과 즉각적으로 제공되는 적시적 피드백은 과제나 시험 성적과 관련하여 적절하며, 정서적 교감에 기반한 긍정적 피드백과 부정적 피드백은 학생들에게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학업의 지속성과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20)] 교수의 정서적 또는

18) 한규은, 「대학 교양교육의 만족-불만족 결정요인 비교분석」, 『대학 교수-학습 연구』 제18권 제1호, 2025, 159쪽.

19) 채수진, 「의과대학에서의 티칭 포트폴리오 활용 가능성 탐색」, 『의학교육논단』 제11권 제2호, 2009, 25-31쪽.

긍정적 피드백이 학생들의 학습 동기유발과 학업만족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나, 학생들의 행동 변화에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21] 특히, 개인 성격이나 특성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보일 수 있지만, 교수피드백은 학습자 자신의 능력을 검증하거나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22] 또한, 교수의 긍정적 피드백은 수업만족도와 상호관련성이 있는데, 이는 교수가 학생들을 격려하고 흐뭇한 표정으로 수업환경을 조성하면 수업시간 집중과 학업몰입을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23]

선행연구에 따르면, 교수자의 적절한 피드백은 학습자의 학습참여와 학습성과를 향상시키며, 궁극적으로 학업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4] 무엇보다 교수피드백은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상태를 점검하고 학습전략을 수정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학습과정에 대한 긍정적 경험을 제공하며, 이는 학업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진다.[25] 따라서 교수자의 피드백은 학업만족도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4) 메타인지(Metacognition)

메타인지는 지식, 경험, 목표, 과업, 행동 등의 인지적 활동을 조율하며

20) 김규은·김민성, 「대학수업에서 피드백 유형과 수업맥락이 피드백 성과에 미치는 영향」, 『교육과 학습, Global Creative Leader』 제13권 제4호, 2023, 173쪽.

21) 김진영·김은정, 「교수피드백을 적용한 성찰일지 작성이 간호대학생의 학습동기, 학습태도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융합 연구」,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10권 제12호, 2019, 503-510쪽.

22) 송기현·김승용, 「대학 교양 체육수업에서 교수 피드백 유형과 자기효능감 및 운동지속의 구조적 관계」,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제16권 제5호, 2018, 469-476쪽.

23) 정지영·정승훈, 「체육 전공 대학생이 인지한 교수자의 피드백 유형과 수업만족, 학습몰입 및 학업성취의 구조적 관계」, 『한국사회체육학회지』 제96호, 2024, 21-36쪽.

24) 이효정, 「학습자 참여도 증진을 위한 피드백 구조의 다각화 방안」,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5권 제3호, 2015, 377-400쪽.

25) 권성연, 「온라인 수업에서 교수실재감, 학습접근, 만족도 및 학습효과 인식 간의 관계 분석」, 『교육공학연구』 제27권 제3호, 2011, 535-560쪽.

특정 계획을 실행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26] 메타인지의 핵심적 장점은 개인이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성찰하고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이며, 이를 통해 개인의 인지적 성장 및 발전 가능하다는 것이다.[27] 즉, 메타인지는 지식의 함양을 통해 과업 수행 및 목표 달성에 필요한 인지적 능력을 의미하며, 이러한 능력은 자신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 문제 발생 시 해결 가능한 대안을 탐색하는 능력, 그리고 개인에게 부여된 역량을 인식하는 능력을 포함하여 사회적 기술뿐만 아니라 팀워크, 성취감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8] Yingying(2023)의 연구에 따르면, 메타인지 능력이 높은 개인은 자기조절 능력에서 높은 효능감을 보이며, 이는 수행과제 관리 및 주의집중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주장하였다.[29] 또한, 김혜진(2017) 연구에서도 매 수업시간마다 주요 학습 전략을 직접 가르치고 메타인지의 중요성을 설명하여 학습과정이나 문제해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지해 주었을 때, 자기효능감과 학업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이 높아질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교수자의 적절한 피드백은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과정을 계획하고 점검하도록 지원하며, 자신의 학습상태를 인지하고 학습전략을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하는 등 메타인지 발달을 촉진한다.

---

26) Flavell, J.H., “Metacognition and cognitive monitoring: A new area of cognitive developmental inquiry”, American Psychologist, Vol. 34, No. 10, 1979, pp.906-911.

27) Martinez, M. E.,“ What is metacognition?”, Phi Delta Kappan, Vol. 87, No. 9, 2006, pp.696-699.

28) 신명희,「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Social Skills and Metacognition through Service-learning Participation」,『융합경영연구』제12권 제3호, 2024, 35-4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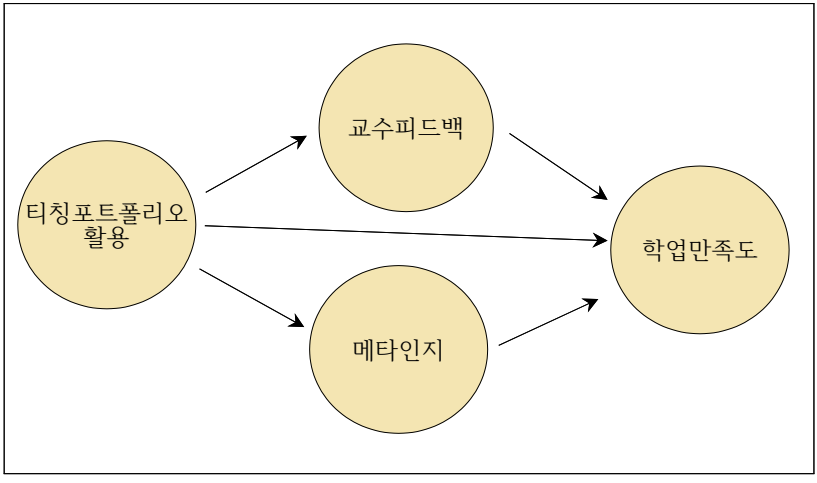
29) Yingying, "Effects of Metacognitive Scaffolding and Inner Speech on Students' Metacognition, Flow Experience, Self-Regulatory Efficacy, and Learning Achievement in Mobile Technology-Enhanced Interactive Classrooms, Doctoral Dissert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 2023.

3. 연구모형 및 가설

1) 연구모형

선행연구에서 티칭포트폴리오는 교수자의 수업설계부터 교수활동에 이르는 활용과정에서 학생과의 상호작용을 활성화할 수 있고, 교수역량 도구로 제공되어[30] 교수자의 적절한 피드백을 형성하고 학생들의 메타인지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궁극적으로 학업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31]

따라서, 본 연구는 티칭포트폴리오 활용이 학업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교수피드백과 메타인지를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여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30) 박선향 · 윤혜림, 「ADDIE 모형에 기반한 티칭포트폴리오 구성요소 개발: K대학 사례」, 『인문사회 21』 제12권 제3호, 2021, 1199-1212쪽.

31) 이영석, 「교양 프로그래밍 수업에서 e-포트폴리오를 활용한 만족도와 학습 효과에 관한 연구」, 『산업융합연구』 제20권 제2호, 2022, 45-50쪽.

(1) 가설설정

① 티칭포트폴리오 활용과 학업만족도 효과

티칭포트폴리오는 수업 과정에서 교수 자신의 수업 성찰을 바탕으로 다양한 교수전략과 수업 활동을 탐색하거나 개선하는 등 여러 교육적 요소들을 고려하며 운영하고 있다. 서윤경과 강수민(2023) 연구에서는 이러한 교수 활동은 외부의 긍정적 평가는 물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32] 이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학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수업 운영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수자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학업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교양과정에서 라포를 가지고 원활한 상호작용을 하면서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영석(2022) 연구에 따르면, 교양과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기적으로 학습 상태를 점검하고, 학생들과의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유도하여 e-포트폴리오를 적용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업만족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33] 이에 적극적 수업 활동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수법을 적용한 티칭포트폴리오 활용은 학업만족도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다음의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 티칭포트폴리오 활용은 학업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② 티칭포트폴리오와 학업만족도 사이에 교수피드백 효과

티칭포트폴리오는 교수자의 수업 설계 과정에서 교육철학을 담아 교수전문성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도구로 작용한다. 특히, 티칭포트폴리오 개발 경험이 풍부할수록 교수자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

32) 서윤경·강수민, 「티칭포트폴리오 작성효과에 대한 질적사례분석: Core Reflection 모형을 중심으로」, 『대학교수-학습연구』 제16권 제2호, 2023, 160쪽.

33) 이영석, 「교양 프로그래밍 수업에서 e-포트폴리오를 활용한 만족도와 학습 효과에 관한 연구」, 『산업융합연구』 제20권 제2호, 2022, 45쪽.

타난다.[34] 이는 티칭포트폴리오 활용을 통한 만족감이 교수자의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고, 이러한 자기효능감의 증가는 학생들에게 적극적인 격려와 칭찬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수행 지식과 관련하여 학생들에게 긍정적 측면에서 피드백하게 된다.[35] 아울러, 송기현과 김승용(2018) 연구에서는 교수자의 적절한 피드백이 학생들에게 수업 태도나 자기주도 학습에 영향을 미치며, 학생참여 중심의 수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교수피드백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향상시키고, 학업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이 있음을 시사한다.[36] 또한, 이은준(2017) 연구에서는 군집 별 교양 수업의 만족도 분석에서 네 번째 군집은 교수자 및 학생 간의 상호작용과 교수자의 피드백에 관한 인식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특히, 편견 없는 표현이나 교수의 피드백이 수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결과적으로 교수자의 적절한 피드백은 학생들에게 수업 태도와 자기주도 학습에 영향을 미치며, 학생참여 중심의 수업 설계가 요구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아울러, 장지윤 외 2인 (2018) 연구에서도 교수의 피드백을 통해 학생들이 학업성취도 또는 학업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도출할 수 있었다.

가설2: 교수피드백은 티칭포트폴리오 활용과 학업만족도 간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③ 티칭포트폴리오와 학업만족도 사이에 메타인지 효과

티칭포트폴리오는 주관적인 교수의 학습설계이므로 규격화 또는 정형

34) 최명숙·문수민, 「대학 교수자가 지각하는 수업설계지원 e-티칭포트폴리오 시스템 활용 효과 차이 분석」, 『교육정보미디어연구』 제22권 제2호, 2016, 240쪽.

35) 송기현·김승용, 「대학 교양 체육수업에서 교수 피드백 유형과 자기효능감 및 운동지속의 구조적 관계」,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제16권 제5호, 2018, 469쪽.

36) 장지윤·박인우·김은진, 「교사의 수업방식과 숙제 피드백이 학생의 수업태도, 수업분위기, 만족도, 자기주도학습,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국어, 수학, 영어 교과 중심으로」, 『교사교육연구』 제57권 제2호, 2018, 246-259쪽.

화되지 않았으나, 학생들은 교수자의 교수법, 강의내용, 진행과정, 수행평가 등의 인지가 자신의 학습 과정을 이해하고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된다.[37] Flavell (1979)에 따르면, 학업 과정에서 내적 성찰과 목적 달성을 위한 자기통제 능력의 향상과 같은 메타인지는 성취 결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습과정 전반에서 자기주도 학습을 촉진하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메타인지는 자기주도 학습과 관련이 있으므로 자신이 수행하는 과제에 대한 자신감을 함양할 뿐만 아니라 학업 만족도 역시 향상된다는 연구결과[38]와 같이, 메타인지는 학업 및 실습 과정에서도 학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39] 이에 자기효능감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메타인지 기능의 증진이 요구된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3: 메타인지는 티칭포트폴리오 활용과 학업만족도 간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4. 연구방법 및 분석

1) 주요 변수들의 특성 및 측정

연구대상은 수도권 소재 D 대학에서 개설된 교양교과목을 수강한 다양한 학과의 총 260명의 재학생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중 212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표본은 2025년도 2학기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로 교수자의 티칭포트폴리오 활용과정에서 교육서비스(교과목 목표,

37) Flavell, J.H., “Metacognition and cognitive monitoring: A new area of cognitive developmental inquiry”, American Psychologist, Vol. 34, No. 10, 1979, pp.906-911.

38) 김순옥,「팀 기반 학습 적용이 메타인지 및 학업성취도, 기본 간호술기 수행자신감, 학습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디지털융복합연구』제15권 제11호, 2017, 361-374쪽.

39) 김현영·김미선·정현철,「플립러닝을 적용한 스마트 문제중심학습(PBL)이 간호대학생의 메타인지, 학업적 자기효능감, 실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한국간호시뮬레이션학회지』제8권 제1호, 2020, 57-67쪽.

개요, 강의, 실습, 발표, 콘텐츠, 교수 및 동료 피드백 등)를 경험한 1학년에서 3학년까지의 학생들로 구성되었다. 각 변수의 문항은 티칭포트폴리오 활용 8문항, 교수피드백 3문항, 메타인지 3문항, 학업만족도 3문항으로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설문 조사는 2025년 11월 17일부터 11월 27일까지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데이터로 SPSS를 활용하여 분석하였고, 양적 연구방법으로 설계되었으며, 수집된 데이터는 연구 목적에 맞게 통계 처리되었다. 본 연구의 측정된 주요 변수들의 조작적 정의와 설문 문항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주요 변수들

주요 변수들	조작적 정의	설문지 항목
티칭포트폴리오 활용	교과목 개요, 주차 별 학습 목표 및 교수자의 교육철학, 교수법, 수업활동, 평가 및 개별 피드백, 강의자료 및 활용 콘텐츠, 수업진행 단계의 적절성, 수업 세부 내용 이해등의 교수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 수준 정도를 의미한다.	교수자의 티칭포트폴리오 구성요소인 교과목 개요, 학습 목표, 교수법, 수업활동(실습 수행), 발표, 동료 피드백 등 총 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요소가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측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교수피드백	교수자의 피드백은 나를 성장시키고 학업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교수자 피드백 영역은 김선주(2023) 연구에서[40] 측정한 문항을 인용하여 본 연구에 맞게 총 3문항으로 구성되었고, 학습에 도움이 되었는지의 여부, 긍정적·비판적 피드백이 성장을 촉진 시켰는지의 여부, 구체적 피드백이 방향성을 고려하는데 도움이 되었는지의 여부를 중심으로 측정하였다.
메타인지	과업을 수행하는데 그 목표와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	메타인지 측정은 유경선과 안성진(2024)의 연구에서[41] 사용한 척도를 인용하여 본

		연구에 맞게 정리하였고, 학업목표나 수행을 정확하게 인지하였는지, 학업내용을 이해하고 과제를 계획할 수 있는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수정과 평가가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학업만족도	교수의 강의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수업기대감이 충족된다.	학업만족도는 임효연과 이순민의 연구에서[42] 사용한 척도를 인용· 수정하여 본 연구 목적에 맞게 구성하였으며, 심리적 안정감과 성취감, 경력개발 도움, 추천 의도 등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주요 변수들의 신뢰도는 개념 신뢰도를 확인한 크론바흐 알파 값으로 기준치 0.7 이상이면 해당 측정변수는 내적 일관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된 변수들의 값이 모두 0.8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도에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타당도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KMO(Kaiser-Meyer-Olkin)는 일반적으로 0.7 이상일 경우 측정 문항들이 동일한 개념을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역시 모두 0.7이상이었다, 아울러, 수렴타당성 검증을 위해 구성신뢰도(CR)과 평균분산추출값(AVE)을 추출한 결과 CR은 모두 기준치인 0.7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AVE 값 역시 기준치 0.5이상으로 나타나 [표 2]와 같이

40) 김선주, 「번역수업의 교수자 피드백 및 학습자 만족도 연구: 통번역대학원 석사과정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제24권 제4호, 2023, 234-266쪽.

41) 유경선·안성진, 「대학생의 생성형 인공지능활용 교육이 학업적 자기효능감, 메타인지,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 『컴퓨터교육학회』 제27권 제4호, 2024, 16쪽.

42) 임효연·이순민, 「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 전공자들의 학습참여동기와 학업만족도」, 『한국콘텐츠학회』 제14권 제10호, 2014, 409쪽.

측정하려는 개념을 잘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변수들의 개념이나 도구가 모형을 설계하거나 결론을 도출하는 데 문제없음을 시사한다.

[표 2] 각 변수의 신뢰도와 타당도

변수	문항수	해당 문항	Cronbach α	KMO	CR	AVE	유의도
티칭포트폴리오 활용	8	티칭포트폴리오 8가지 활용	0.936	.893	.948	.693	.000
교수 피드백	3	-학습에 도움이 되는가 -긍정적/비판적 피드백 -방향성 고려할 수 있는가	0.856	.703	.913	.777	.000
메타 인지	3	-학업목표/수행기간 인지 -학업내용 이해 -시간·노력/수정· 평가 인지	0.875	.734	.924	.801	.000
학업 만족도	3	-심리적 안정감을 갖는가 -직업교육과 경력개발 도움 -강좌 추천할 것인가	0.874	.738	.926	.808	.000

* p<.05, **p<.01

3) 상관관계 분석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표 3]과 같이 티칭포트폴리오, 학업만족도, 교수피드백 그리고 메타인지 모두 유의미(p<.05)하게 나타났다. 티칭포트폴리오와 교수피드백 간의 상관계수는 0.785이며 이는 양(+)의 상관관계로 효과적인 티칭포트폴리오의 설계와 활용이 교수피드백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교수피드백과 학업만족도 간 상관계수 역시 0.775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p<.05). 그러나, 전반적으로 강한 상관관계는 독립변수 설명력에서 독립성이 의심되므로 변수 간 다중공선성에 대한 VIF를 추가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결과 VIF 값이 10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결과로 교수피드백이 학생들의 학업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을 알 수 있었고, 티칭포트폴리오의 효과적인 활용이 학업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3] 상관관계 분석

변수	평균	표준편차	티칭포트폴리오 활용	학업만족도	교수피드백	메타인지	VIF
티칭포트폴리오 활용	4.12	0.58	1				1.645
교수피드백	4.05	0.63	0.785**	1			1.647
메타인지	4.18	0.60	0.765**	0.765**	1		1.783
학업만족도	4.22	0.62	0.775**	0.785**	0.775**	1	1.645

* p<.05, **p<.01

4) 다중회귀분석

본 연구는 각 단계별 회귀분석을 통해 인과관계를 규명하고자 [표 4]와 같이 분석하였다. 1단계에서는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티칭포트폴리오 활용이 교수피드백과 메타인지에 미치는 직접효과를 살펴보았다.

먼저, 아래 [표 4]와 같이 회귀모형 적합도 분석 결과, 모든 모형의 설명력(R^2)은 61.3%~70.2%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수정된 결정계수(Adj. R^2)

역시 유사한 수준을 보여 모형의 안정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모든 회귀모형의 F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p<.001), 본 연구에서 설정한 회귀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 회귀모형 적합도 분석

과정	변수	R	R^2	Adj. R^2	F	P
1단계	티칭포트폴리오 활용 →교수피드백	0.783	0.613	0.611	332.70	.000
1단계	티칭포트폴리오 활용 →메타인지	0.799	0.638	0.636	371.33	.000
2단계	티칭포트폴리오 활용 →학업만족도	0.808	0.653	0.651	395.21	.000
3단계-1	티칭포트폴리오 활용 →교수피드백→학업 만족도	0.838	0.702	0.699	246.18	.000
3단계-2	티칭포트폴리오 활용 →메타인지→학업만족도	0.836	0.699	0.696	243.72	.000

* p<.05, **p<.01

또한, 1단계 다중회귀분석에서 티칭포트폴리오 활용은 [표 5]와 같이 교수자 피드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0.727, p<.05), 티칭포트폴리오와 메타인지 관계 역시 (B=0.878, p<.05) 값으로 티칭포트폴리오 활용 수준이 높을수록 교수자의 피드백과 메타인지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 다중회귀 분석

단계	모형	비표준화		t	p
		UC(B)	S.E		
1단계	티칭포트폴리오 활용 → 교수 피드백	0.727	0.040	18.24	.000
	티칭포트폴리오 활용 → 메타인지	0.878	0.046	19.27	.000
2단계	티칭포트폴리오 활용 → 학업만족도	0.832	0.042	19.88	.000
3단계	티칭포트폴리오 활용	0.551	0.058	9.45	.000

	티칭포트폴리오 활용 → 교수피드백 → 학업만족도	0.388	0.061	6.34	.000
	티칭포트폴리오 활용	0.537	0.065	8.269	.000
	티칭포트폴리오 활용 → 메타인지 → 학업만족도	0.336	0.059	5.676	.000

* p<.05, **p<.01

이어, 2단계에서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티칭포트폴리오가 학업만족도에 미치는 경로를 분석하였으며, 비표준화 베타값(B=0.832, p<.05)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결과, 티칭포트폴리오 활용은 학업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2단계 조건이 충족되어 다음 단계인 다중회귀분석으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3단계는 교수피드백과 메타인지를 각각 투입하여 티칭포트폴리오가 학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티칭포트폴리오 활용(B=.551, SE=.058, t=9.45, p<.001)과 교수자 피드백(B=.388, SE=.061, t=6.34, p<.001) 간의 관계에서 교수자 피드백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이 확인되었다. 또한 매개변수인 메타인지 역시 티칭포트폴리오 활용(B=.537, SE=.065, t=8.269, p<.001)과 메타인지(B=.336, SE=.059, t=5.676, p<.001)는 유의미한 영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수피드백과 메타인지가 티칭포트폴리오 활용과 학업만족도 간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실시한 결과, 교수피드백을 통한 간접효과는 0.316(95% CI=[0.177, 0.458])으로 나타났으며, 메타인지를 통한 간접효과는 0.295(95% CI=[0.155, 0.438])로 확인되었고, 두 매개효과 모두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에 따라 가설 2와 가설 3은 모두 채택되었다. 따라서, 교수피드백과 메타인지는 티칭포트폴리오 활용과 학업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유의한 매개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및 제언

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교수자의 티칭포트폴리오 활용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두 개의 변수를 찾아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티칭포트폴리오는 교수자의 성찰과 설계 그리고 교수법 적용 및 활용에서 교수입장의 기록물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교수자의 관점뿐만 아니라, 학생들 입장에서 교수자의 티칭포트폴리오 활용이 학업만족도에 긍정적 양향을 미치는 것으로 두 변인 간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는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 검토를 근거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고, 독립변수인 티칭포트폴리오와 종속변수인 학업만족도를 구성하여, 결과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수의 효과성을 입증한 연구로, 학생들은 학습활동을 이해하고 습득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교수의 피드백과 이러한 활동이 학습자의 메타인지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예측하여 변수들의 관계를 구조화하였다. 이 경로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교양과정 교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수행하여 그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설 1에서는 티칭포트폴리오 활용은 학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고, 비표준화 값 (B=.832, SE=.042, t=19.88, p<.001)이 유의미하여 지지 되었다. 둘째, 가설 2의 검증 결과, 티칭포트폴리오 활용은 교수피드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B=.727, SE=.040, t=18.24, p<.001), 교수피드백 또한 학업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388, SE=.061, t=6.34, p<.001). 부트스트래핑 통계 분석도 유의한 간접효과 0.316(95% CI=[0.177, 0.458])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교수피드백은 티칭포트폴리오 활용과 학업만족도 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는 채택되었다.

가설 3의 검증 결과, 티칭포트폴리오 활용은 메타인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B=.878, SE=.046, t=19.27, p<.001), 메타인지 또한 학업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336, SE=.059, t=5.676, p<.001). 부트스트래핑 결과 역시 통계 0.295(95% CI=[0.155, 0.438])로 유의함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메타인지는 티칭포트폴리오 활용과 학업만족도 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 역시 채택되었다.

종합해 보면, 티칭포트폴리오는 교수자의 단순한 강의중심 교수법에서 벗어나 교수의 철학과 성찰로 역량을 강화하고 티칭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높일 수 있지만, 학생들에게 미치는 학업만족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미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티칭포트폴리오 활용과 학업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교수 피드백과 메타인지가 중요한 매개 요인으로 작용함을 규명하였으며, 이는 교수자 중심의 수업 설계가 학습자의 학업만족도를 제고하는 데 구체적 메커니즘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학문적 가치가 있다.

결과적으로 첫째, 매개변수인 교수피드백은 수행과제 중에 문제해결의 어려움이나 방향성, 또는 자료의 해석 등 부족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피드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원활한 상호작용이 교수자와 학생 간 라포형성에 도움이 되고 심리적 유대감을 형성하여 학습에 대한 흥미 유발과 학업집중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43] 이는 교수자와 학생 모두의 만족을 증진시키는 긍정적 학습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지닌다. 둘째, 본 연구에서 매개변수로 설정한 메타인지는 학생들이 학업이나 과제 수행 과정에서 요구되는 목표와 전략을 인식하고, 자신의 학습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이러한 메타인지는 토론 및 동료 피드백을 통한 수정·보완 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으며, 이는 문제해결 과정에서 메타인지의 중요성을 강조한 윤미영(1996)의 연구[44]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43) 황교, 「체육수업에서 교사의 피드백 유형이 중고등학생의 라포 및 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2.

44) 윤미영, 「문제해결에서 메타인지의 역할을 강조한 수업효과에 관한 연구: Lester의

따라서, 본 연구는 티칭포트폴리오가 단순한 자기 보고식 기록물이 아닌, 교수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고,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그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업만족도 향상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음을 규명하였다.

2) 제언

본 연구는 티칭포트폴리오 활용이 단순히 교수자의 교육활동을 기록·관리하는 기능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의 이해 수준을 파악하고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학습경험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대학 교육에서 지식전달 중심의 수업보다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한 적극적인 교수활동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교육적 활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해 본다. 첫째, 교양교과목은 학생들의 전공이나 특성 등을 반영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학습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변수(동기부여, 의욕, 지식수준 등)를 고려하고 차별화된 교수법 개발에서 티칭포트폴리오 설계까지 각각의 과정에서 매개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둘째, 교수자의 티칭포트폴리오 활용과 학생들의 학업만족도에 관한 데이터를 구축하여 장기적인 교양교과목의 프로그램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점검이 필요하다. 추후 연구에서는 양적 및 질적 연구방법으로 혼합 설계하여 학생들의 요구가 반영되는 심층분석이 이루어져 학생들에게 폭넓은 지식과 사고력을 갖출 수 있도록[45] 다채로운 교수법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관점에서 본 메타인지」, 『이화교육논총』 제7권, 1996, 103-119쪽.

45) 전은주, 「대학 교양 화법 교육의 발전 방안」, 『화법연구』 제 24권 제24호, 2014, 9-39쪽.

참고문헌

권성연, 「온라인 수업에서 교수실재감, 학습접근, 만족도 및 학습효과 인식 간의 관계 분석」, 『교육공학연구』 제27권 제3호, 한국교육공학회, 2011, 535-560쪽.

김규은·김민성, 「대학수업에서 피드백 유형과 수업맥락이 피드백 성과에 미치는 영향」, 『교육과 학습: Global Creative Leader』 제13권 제4호, 영재교육연구소, 2023, 163-198쪽.

김선주, 「번역수업의 교수자 피드백 및 학습자 만족도 연구: 통번역대학원 석사과정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제24권 제4호, 한국번역학회, 2023, 234-266쪽.

김순옥, 「팀 기반 학습 적용이 메타인지 및 학업성취도, 기본간호술기 수행자신감, 학습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5권 제11호,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17, 361-374쪽.

김은영·임신일, 「초·중·고등학생의 학업성취만족도 변화유형 및 영향요인 분석 연구」, 『아동교육』 제31권 제4호, 한국아동교육학회, 2022, 69-87쪽.

김은정, 「티칭 포트폴리오 연계 수업계획서(TPBS) 개발을 위한 요구 분석」, 『Andragogy Today: International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제8권 제2호, 한국성인교육학회, 2005, 35-68쪽.

김진영·김은정, 「교수피드백을 적용한 성찰일지 작성이 간호대학생의 학습동기, 학습 태도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융합 연구」, 『한국융합학회논 문지』 제10권 제12호, 한국융합학회, 2019, 503-510쪽.

김철,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학교육의 방향」, 『교육문화연구』 제31권 제1호, 교육연구소, 2025, 177-194쪽.

김현영·김미선·정현철, 「플립러닝을 적용한 스마트 문제중심학습(PBL)이 간호대학생의 메타인지, 학업적 자기효능감, 실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간호시뮬레이션학회지』 제8권 제1호, 한국간호시뮬레이션학회, 2020, 57-67쪽.

문서형·전현옥, 「교수학습센터 연구원의 직무 역량 및 전문성 개발 전략 연구」, 『에듀테인먼트연구』 제7권 제1호, 한국에듀테인먼트학회, 2025, 261-277쪽.

박선향·윤혜림,「ADDIE 모형에 기반한 티칭포트폴리오 구성요소 개발: K대학 사례」,『인문사회 21』제12권 제3호, 인문사회 21, 2021, 1199-1212쪽.

박혜진·차승봉,「대학에서 체계적 교수 활동을 위한 e-티칭 포트폴리오 활용 방안 연구」,『문화와융합』제42권 제8호, 인문사회예술융합학회, 2020, 115-138쪽.

서윤경·강수민,「티칭포트폴리오 작성효과에 대한 질적사례분석: Core Reflection 모 형을 중심으로」,『대학교수-학습연구』제16권 제2호, 대학교육개발센터협의회, 2023, 160-189쪽.

송기현·김승용,「대학 교양 체육수업에서 교수 피드백 유형과 자기효능감 및 운동지속 구조적 관계」,『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제16권 제5호,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18, 469-476쪽.

신명희,「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Social Skills and Metacognition through Service-learning Participation」,『융합경영 연구』제12권 제3호, 국제융합경영학회, 2024, 35-42쪽.

심미자·설양환,「예비교사의 교육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e-티칭 포트폴리오 활용 방 안」,『교육정보미디어연구』제13권 제1호, 한국교육정보미디어학회, 2007, 309-329쪽.

심현애·김경연,「티칭포트폴리오를 통한 반성 활동에 관한 연구: 예비유아교사의 수업 전문성 개선 인식 분석」,『Korean Journal of the Learning Sciences』, 제6권 제1호, 교육공학연구소, 2012, 43-71쪽.

유경선·안성진,「대학생의 생성형 인공지능활용 교육이 학업적 자기효능감, 메타인지,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컴퓨터교육학회』제27권 제4호, 한국컴퓨터교육학회, 2024, 13-25쪽.

윤미영,「문제해결에서 메타인지의 역할을 강조한 수업효과에 관한 연구: Lester의 관점에서 본 메타인지」,『이화교육논총』제7권,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 1996, 103-119쪽.

이영석,「교양 프로그래밍 수업에서 e-포트폴리오를 활용한 만족도와 학습 효과에 관한 연구」,『산업융합연구』제20권 제2호, 대한산업경영학회, 2022, 45-50쪽.

이민혜·강윤정·원동현,「비전공 학습자의 SW교과 참여도 향상을 위한 교수법 설계」,

『한국정보통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제26권 제2호, 한국정보통신학회, 2022, 383-385쪽.

이은준,「대학 신입생의 교양 수업 만족도 유형에 따른 군집화 연구」,『교양교육연구』 제11권 제6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17, 63-91쪽.

이승영·안진성,「지방 사립대학 교수자를 위한 교수 역량 진단도구 개발 및 타당화:대학을 중심으로」,『평생학습사회』 제21권 제4호, 원격교육혁신연구원, 2025, 168-194쪽.

임효연·이순민,「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 전공자들의 학습참여동기와 학업만족도」,『한국콘텐츠학회』 제14권 제10호, 한국콘텐츠학회, 2014, 403-415쪽.

이효정,「학습자 참여도 증진을 위한 피드백 구조의 다각화 방안」,『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5권 제3호,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5, 377-400쪽.

장지윤·박인우·김은진,「교사의 수업방식과 숙제 피드백이 학생의 수업태도, 수업 분위 기, 만족도, 자기주도학습,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국어, 수학, 영어 교과 중심으로」,『교사교육연구』 제57권 제2호, 과학교육연구소, 2018, 246-259쪽.

전은주,「대학 교양 화법 교육의 발전 방안」,『화법연구』 제 24권 제24호, 한국화법학회, 2014, 9-39쪽.

정지영·정승훈,「체육 전공 대학생이 인지한 교수자의 피드백 유형과 수업만족, 학습몰입 및 학업성취의 구조적 관계」,『한국사회체육학회지』 제96호, 한국사회체육학회, 2024, 21-36쪽.

조용개,「티칭 포트폴리오 개발을 통한 수업의 효과성 탐색」,『교육학연구』 제47권 제2호, 한국교육학회, 2009, 161-190쪽.

채수진,「의과대학에서의 티칭 포트폴리오 활용 가능성 탐색」,『의학교육논단』 제11권 제2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2009, 25-31쪽.

최명숙·문수민,「대학 교수자가 지각하는 수업설계지원 e-티칭포트폴리오 시스템 활용효과 차이 분석」,『교육정보미디어연구』 제22권 제2호, 한국교육정보미디어학회, 2016, 223-247쪽.

황교,「체육수업에서 교사의 피드백 유형이 중고등학생의 라포 및 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2.

한규은,「대학 교양교육의 만족-불만족 결정요인 비교분석」,『대학 교수-학습 연구』

제18호 제1호, 대학교육개발센터협의회, 2025, 147-170쪽.

Flavell, J.H., “Metacognition and cognitive monitoring: A new area of cognitive developmental inquiry”, American Psychologist, Vol. 34, No. 10, 1979, pp.906-911.

Laurie A.B, Teri R.S, & Amy M.T, “Teaching Portfolios: Uses and Development”, Journal of Marketing Education, Vol. 24, 2002, pp.35-42.

Margarita C.T., “The use of teaching portfolios to promote excellence and scholarship in nurse education”, Nurse Education in Practice , Vol. 9, 2009, pp.388-392.

Martinez, M. E., “What is metacognition?”, Phi Delta Kappan, Vol. 87, No. 9, 2006, pp.696-699.

Wetherington, P., “Effects of Developing EdTPA as a Teaching Portfolio on Pre-Service Teachers' Self-Efficacy in a Teacher Preparation Program”, Theses and Dissertations, Columbus State University, 2017.

Yingying, "Effects of Metacognitive Scaffolding and Inner Speech on Students’ Metacognition, Flow Experience, Self-Regulatory Efficacy, and Learning Achievement in Mobile Technology-Enhanced Interactive Classrooms, Doctoral Dissert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2023.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교수자의 티칭포트폴리오 활용이 대학생의 학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교수피드백 및 메타인지의 매개효과를 규명하는 데 있다. 연구대상은 교양과정을 수강하는 대학생 212명이며,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위계적 회귀분석과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티칭포트폴리오 활용은 학업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수피드백과 메타인지는 티칭포트폴리오 활용과 학업만족도의 관계에서 유의한 매개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티칭포트폴리오가 단순한 교수활동 관리 도구를 넘어 학생들의 학습경험과 학업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교육적 실천 도구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티칭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교수활동과 질 높은 교수피드백을 제공하여 학생 중심의 교육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티칭포트폴리오 활용, 교수피드백, 메타인지, 학업만족도, 자기효능감

Abstract

A Study of Academic Satisfaction with Teaching Portfolio Use
: The Mediation Effects of Professor Feedback and Metacognition*

Lee, Eun Kyung / Daelim University
Kwak, Bong Hwa / Daelim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teaching portfolio utilization on university students' academic satisfaction and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roles of instructor feedback and metacognition. The participants were 212 university students enrolled in liberal arts course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 questionnaire survey and analyzed using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and bootstrapping. The results indicated that teaching portfolio utilization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academic satisfaction. In addition, instructor feedback and metacognition were found to significantly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ing portfolio utilization and academic satisfact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eaching portfolios serve not only as a tool for managing instructional activities but also as an educational practice that enhances students' learning experiences and academic satisfaction. Therefore,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should foster learner-centered educational environments by promoting the systematic use of teaching portfolios and providing high-quality instructor feedback.

* "영문 초록의 표현 교정에 생성형 AI(ChatGPT)를 활용하였다."

Keyword ● Teaching Portfolio, Professor Feedback, Metacognition, Academic Satisfaction, Self-efficacy

▌논문투고일:2026.05.31. ▌심사완료일:2026.06.29. ▌게재확정일:2026.07.06. ▌

https://doi.org/10.54698/kl.2026.21.483
지식과 교양, 제21호,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Knowledge and Liberal Arts, Vol. 21, LIC, pp.483-504.

AI 기반 한국어 학습 환경에서 중앙아시아 출신 유학생의 자기효능감 형성 경험 연구

: 자기결정이론 관점을 중심으로

최 민 지 · 최 은 지*

목 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연구의 방법
4. 연구의 결과
5. 결론 및 제언

1. 서론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의 발전은 교육 환경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ChatGPT와 같은 대규모 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s, LLMs)은 학습자의 수준과 요구에 맞는 설명과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학습자 중심 교육을 촉진하고 있다(Kasneci et al., 2023; Kohnke et al., 2023). 생성형 AI는 문법 교정, 번역, 예문 생성, 대화 연습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며 외국어 교육의 효과적인 학습 지원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 연구들은 생성형 AI가 읽기, 쓰기, 어휘 학습, 자기주도학습 및 학습동기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으나(Kim,

* 최민지(제1저자) 김포대학교 강사
최은지(교신저자) 호남대학교 교수

2024; Kohnke et al., 2023; Lo, 2023), 정보의 정확성, 문화적 맥락의 한계, AI 의존 가능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Kasneci et al., 2023).

이러한 변화는 국내 대학에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중앙아시아 출신 유학생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들은 조사와 어미 활용, 높임 표현, 화용적 표현 등 한국어의 특성으로 인해 학습 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며, 이는 학습 자신감 저하와 의사소통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생성형 AI는 반복적인 피드백과 자기주도학습을 지원함으로써 이러한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교육적 도구로 주목받고 있다.

AI 기반 학습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습 성과뿐 아니라 학습 과정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학습 참여와 지속성을 설명하는 핵심 개념이며(Bandura, 1977, 1997), 자기결정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은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충족이 내재적 동기와 지속적인 학습 참여를 촉진한다고 설명한다(Ryan & Deci, 2000). 그러나 기존 연구는 학습 성취도, 만족도, 사용 의도 등 양적 성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실제 학습자의 AI 활용 경험과 자기효능감 형성 과정을 질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부족하다. 특히 중앙아시아 출신 유학생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과 자기결정이론의 관점에서 생성형 AI 활용 경험을 탐색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대학에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중앙아시아 출신 유학생의 생성형 AI 활용 경험을 질적으로 분석하고, 이러한 경험이 자기효능감 형성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지를 자기결정이론의 관점에서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AI 기반 한국어 교육에서 생성형 AI 활용을 위한 이론적·실천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아시아 출신 유학생은 한국어 학습 과정에서 생성형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둘째, 생성형 AI 활용 경험은 학습자의 자기효능감 형성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가?

셋째, 생성형 AI 기반 학습환경은 자기결정이론의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가?

2. 이론적 배경

1) 자기효능감 이론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개인이 특정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의미한다. Bandura(1977)는 자기효능감을 행동 선택, 노력, 과제 지속성 및 실패에 대한 반응을 설명하는 핵심 심리기제로 제시하였으며, 이후 Bandura(1997)는 이를 특정 상황에서 요구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수행 가능성에 대한 판단으로 구체화하였다.

교육 분야에서 자기효능감은 학습자의 동기, 자기조절학습, 학습 지속성 및 학업성취를 설명하는 핵심 변인으로 활용되어 왔다. Zimmerman(2000)은 자기효능감이 자기조절학습의 중요한 동기적 기반이라고 설명하였으며, Schunk(1991)는 높은 자기효능감이 과제 참여와 학습 지속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Bandura(1997)는 자기효능감이 성공경험(mastery experience), 대리경험(vicarious experience), 언어적 설득(verbal persuasion), 생리·정서적 상태(physiological and affective states)의 네 가지 정보원천을 통해 형성된다고 설명하였다. 이 가운데 성공경험은 가장 강력한 요인으로, 반복적인 성공과 긍정적 피드백은 자기효능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외국어 학습에서도 자기효능감은 언어 수행에 대한 자신감과 지속적인 학습 참여를 촉진하는 핵심 요인이다. 최근 생성형 AI는 문법 교정, 표현 수정, 예문 생성, 번역 및 회화 연습을 통해 반복적인 성공경험과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자기효능감 형성을 지원할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Kim(2024)은 ChatGPT가 영어 학습자의 읽기 이해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며, Dillon(2024)은 프롬프트 활용 능력과 자기주도적 학습전략의 향상을 제시하였다.

또한 Lo(2023)는 생성형 AI의 교육적 활용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정보의 정확성과 윤리적 활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기효능감을 중앙아시아 출신 유학생이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한국어 학습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심리적 신념으로 정의하고, AI의 즉각적인 피드백과 반복 학습 경험이 Bandura의 자기효능감 형성 원천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자기결정이론

자기결정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 SDT)은 인간의 동기와 행동 지속성을 설명하는 대표적 이론으로, 자율성(autonomy), 유능성(competence), 관계성(relatedness)의 기본 심리욕구가 충족될 때 내재적 동기와 학습의 질이 향상된다고 본다(Ryan & Deci, 2000). 자율성은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을 스스로 조절하는 경험이며, 유능성은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능력감, 관계성은 타인과의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통한 심리적 유대감을 의미한다(Deci et al., 1991).

외국어 학습에서는 이러한 심리욕구가 자기주도학습과 지속적인 학습 참여를 촉진하며(Benson, 2011), 디지털 학습환경은 교실 밖 자율학습을 확대하는 기반으로 보고되고 있다(Reinders & Benson, 2017). 생성형 AI 기반 학습환경은 학습자가 필요한 순간에 질문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으며 자신의 수준에 맞게 학습을 조절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반복적인 오류 수정과 예문 제공은 자기효능감의 성공경험을 강화하고 자기주도학습을 촉진하며, AI와의 상호작용은 질문에 대한 부담을 줄여 심리적으로 안전한 연습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최근 연구에서도 AI는 맞춤형 학습과 자기조절학습을 지원하는 교육적 도구로 보고되고 있으나(Zawacki-Richter

et al., 2019; Hwang et al., 2020; Crompton & Burke, 2023),

교사를 대체하기보다 학습자의 비판적 활용과 교사의 안내가 병행될 때 교육적 효과가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앙아시아 출신 유학생의 AI 활용 경험을 자기결정이론의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3) AI 기반 외국어 학습 환경

AI 기반 외국어 학습은 컴퓨터보조언어학습(Computer-Assisted Language Learning: CALL)의 발전 과정에서 이해할 수 있다. Warschauer와 Healey(1998)는 컴퓨터 기술이 언어 입력과 상호작용 기회를 확대하여 언어교육 환경을 변화시켰다고 설명하였으며, Chapelle(2001)은 기술 자체보다 학습자에게 제공되는 입력, 상호작용 및 피드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생성형 AI 기반 언어학습에도 적용된다. 최근 생성형 AI는 문법 교정, 번역, 예문 생성, 글쓰기 첨삭, 회화 연습 및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며 외국어 학습의 새로운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Kohnke, Moorhouse와 Zou(2023)는 ChatGPT가 풍부한 언어 입력과 반복 학습을 통해 학습자의 능동적 참여를 촉진한다고 보고하였으며, Kasneci 등(2023)은 개인화된 학습과 즉각적인 피드백의 장점과 함께 정보의 정확성, 편향 및 AI 의존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Godwin-Jones(2024)는 생성형 AI가 학습자와 AI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자기주도학습을 지원하는 새로운 학습환경을 제공한다고 설명하였다. 최근 연구들은 생성형 AI가 자기주도학습과 개별화 학습을 촉진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Lo(2023)는 생성형 AI의 교육적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며, Meniado(2023)는 영어교육에서 언어 입력과 정확성, 유창성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Kim(2024)은 ChatGPT가 읽기 이해를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고, Dillon(2024)은 프롬프트 활용 능력과 자기주도적 학습전략이 함께 향상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생성형 AI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AI 리터러시도 중요하다. Long과 Magerko(2020)는 AI 리터러시를 AI를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활용하는 역량으로 정의하였으며, Ng 등(2021)은 윤리적 판단과 문제 해결 능력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따라서 외국어 학습에서도 AI의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기보다 교사의 피드백과 함께 비판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국어 교육에서 생성형 AI는 반복 학습과 자기주도학습을 지원하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자연스러운 표현과 문화적 맥락의 이해는 여전히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또한 생성형 AI 활용 경험을 자기효능감과 자기결정이론의 관점에서 질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앙아시아 출신 유학생의 생성형 AI 활용 경험을 질적으로 분석하여 AI 기반 한국어 학습 환경에서 자기효능감 형성 과정과 교육적 의미를 탐색하고자 한다.

3. 연구의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AI 기반 한국어 학습 환경에서 중앙아시아 출신 유학생이 경험하는 자기효능감 형성 과정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qualitative research)를 수행하였다. 생성형 AI 활용 경험은 학습자의 인식, 감정, 상호작용 및 학습 전략 등 다양한 심리적·맥락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현상이므로, 학습자의 실제 경험과 의미 구성 과정을 탐색하는 질적 접근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Creswell & Poth, 2018). 자료 수집은 반구조화 면담(semi-structured interview)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반구조화 면담은 연구자가 설정한 질문을 바탕으로 자료를 수집하면서도 참여자가 자신의 경험과 인식을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생성형 AI 활용 경험과 자기효능감 형성 과정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적합한 방법이다(Merriam & Tisdell, 2016).

자료 분석은 Braun과 Clarke(2006, 2021)가 제시한 주제분석(Thematic Analysis)을 적용하였다. 주제분석은 질적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의미 패턴을 체계적으로 도출하고 이를 이론적 개념과 연결하여 해석할 수 있는 분석 방법으로, 생성형 AI 활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기효능감 형성 경험과 자기결정적 학습 경험을 탐색하려는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다.

2)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국내 대학 한국어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출신 유학생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한국어 학습 경험이 있는 학습자를 중심으로 목적표집(purposive sampling)을 실시하였다. 목적표집은 연구 목적과 관련된 경험을 충분히 보유한 참여자를 선정하여 심층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대표적인 질적 연구 표집방법이다(Patton, 2015). 최종 연구 참여자는 총 48명으로, 우즈베키스탄 39명(81.3%), 키르기스스탄 8명(16.7%), 타지키스탄 1명(2.0%)으로 구성되었다. 한국어 수준은 초급 23명(47.9%), 중급 20명(41.7%), 고급 2명(4.2%), 미응답 3명(6.2%)이었다. 참여자의 대부분이 중앙아시아 출신 초·중급 학습자인 점을 고려하여 연구 결과 역시 해당 집단을 중심으로 해석하였다. 참여자들은 ChatGPT, Papago, Google Translate 및 AI 기반 언어학습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한 경험이 있었으며,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N=48)

구분	항목	n(%)
국적	우즈베키스탄	39 (81.3)
	키르기스스탄	8 (16.7)
	타지키스탄	1 (2.0)

한국어 수준	초급	23 (47.9)
	중급	20 (41.7)
	고급	2 (4.2)
	미응답	3 (6.2)
AI 활용도구*	ChatGPT	39 (81.3)
	Papago/Google	24 (50.0)
	AI 앱	6 (12.5)

** AI 활용 도구는 복수응답으로 집계하였다.*

참여자의 국적과 한국어 수준은 면담 당시 실시한 기초조사지를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국적은 동일한 의미를 갖는 응답을 일관된 기준에 따라 정규화하였으며(예: Uzbekistan, Uzb, 우즈벡우즈베키스탄), 한국어 수준은 TOPIK 급수와 참여자의 자기보고(self-report)를 함께 고려하여 분류하였다. 구체적으로 TOPIK 1~2급은 초급, 3~4급은 중급, 5~6급은 고급으로 구분하였으며, TOPIK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자기보고 수준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한국어 수준을 제시하지 않은 참여자는 미응답으로 처리하였다.

3)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반구조화 면담(semi-structured interview)을 중심으로 하되, 구글폼(Google Forms)을 활용한 개방형 응답과 수업 성찰일지를 함께 수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참여자는 구글폼을 통해 AI 활용 경험, 한국어 학습 과정의 변화, 자기효능감 형성 경험, AI 활용의 장점과 한계 등에 관한 개방형 질문에 응답하였다. 이후 연구자는 응답 내용을 바탕으로 수업 중 추가 질문과 확인 질문을 실시하여 참여자의 경험과 의미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 수업 과정에서 작성한 성찰일지는 보조 자

료로 함께 수집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성찰일지에는 AI 활용 과정에서 경험한 어려움, 학습 과정의 변화, 한국어 사용에 대한 자신감 및 AI 활용에 대한 인식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구글폼 응답과 상호 비교하는 자료 삼각검증(data triangulation)을 통해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반구조화 면담 질문은 선행연구와 연구 목적을 바탕으로 구성하였으며, ▲기본 정보 ▲AI 활용 경험 ▲한국어 학습 경험 ▲자기효능감 변화 ▲자율적 학습 경험 ▲AI 활용의 장·단점 ▲향후 AI 활용 전망의 7개 영역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AI 활용 이후의 문제 해결 경험, 한국어 사용에 대한 자신감 변화, 반복 학습 및 오류 수정 경험을 중심으로 심층적인 응답을 유도하였다. 반구조화 면담 질문의 구성은 [표 2]와 같다.

[표 2] 반구조화 면담 질문 영역

영역	주요 질문 내용	분석 초점
기본 정보	국적, 한국어 학습 기간, 한국어 수준, 사용 AI 도구	연구 참여자 특성 파악
AI 사용경험	어떤 AI 도구를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는가	AI 활용 맥락
학습 경험	AI가 도움이 되었던 경험과 어려웠던 경험	AI 학습의 긍정·부정 경험
자기효능감	AI 사용 후 자신감 변화, 스스로 문제 해결 경험	자기효능감 형성 경험
학습방식 변화	혼자 공부하는 방식의 변화, 교사 도움과 AI 도움의 차이	자율학습 및 교사 역할
미래 인식	앞으로 AI가 한국어 학습에서 수행할 역할	AI 학습 환경에 대한 전망

[표3] 연구참여자 예시

ID	국적	TOPIK 수준	주요 AI
P01	우즈베키스탄	초급	ChatGPT
P02	우즈베키스탄	중급	ChatGPT, Papago
P03	키르기스스탄	중급	ChatGPT
…	…	…	…

4)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Braun과 Clarke(2006, 2021)가 제시한 주제분석(Thematic Analysis) 절차에 따라 분석하였다. 주제분석은 질적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의미 패턴을 도출하고 이를 주제로 조직하는 분석방법으로, 참여자의 경험과 인식을 해석하는 데 적합하다. 본 연구는 Braun과 Clarke의 6단계 절차를 적용하였다. 먼저 구글폼 개방형 응답, 수업 성찰일지 및 추가 확인 자료를 반복적으로 검토하여 의미 단위를 추출하고, '문법 교정', '즉각적 피드백', '혼자 해결', '자신감 증가', '질문 부담 감소', 'AI 오류' 등의 초기 코드를 생성하였다.

이후 유사한 코드를 통합하여 상위 주제를 도출하고, 원자료와 지속적으로 비교·검토하며 주제의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최종적으로 각 주제를 자기효능감 이론과 자기결정이론의 개념에 근거하여 해석하고, 대표적인 참여자 진술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새로운 코드가 더 이상 발견되지 않는 자료포화(data saturation)에 도달할 때까지 자료를 반복 검토하여 최종 주제를 확정하였다.

도출된 주요 주제와 하위 코드는 [표 4]와 같다.

[표 4] 주요 주제와 하위 코드

주제	하위 코드	이론적 연결
AI의 즉각적 피드백과 자기효능감 형성	문법 교정, 표현 수정, 빠른 답변, 예문 제공	성공 경험, 언어적 설득
자율적 학습 경험의 확대	혼자 질문하기, 반복 학습, 필요한 표현 탐색, 학습 속도 조절	자율성
AI 활용 과정에서의 유능성 인식 변화	스스로 문제 해결, 말하기·쓰기 향상, 학습 자신감 증가	유능성, 자기효능감
정서적 부담 완화와 심리적 안전감	틀려도 부담 없음, 질문 부담 감소, 학습 흥미 증가	정서적 상태, 관계성
AI 학습 환경의 한계와 비판적 인식	부정확한 번역, 부자연스러운 표현, 복잡한 설명, 의존 우려	비판적 AI 활용, 교사 역할

5) 연구의 엄밀성 확보 및 연구윤리

본 연구는 Lincoln과 Guba(1985)가 제시한 사실적 가치(Credibility), 적용 가능성(Transferability), 일관성(Dependability), 확인 가능성(Confirmability)의 기준에 따라 연구의 엄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면담 자료를 반복 검토하고 원자료와 분석 결과를 지속적으로 비교하였다. 또한 질적연구 경험이 있는 경영학 전공 교수 1인이 코딩과 주제 분류를 독립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연구자와의 협의를 통해 최종 합의에 도달하였다(Lincoln & Guba, 1985; Merriam & Tisdell, 2016). 연구 참여자의 특성과 연구 맥락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 연구 설계와 자료수집 및 분석 절차를 체계적으로 기록하였다.

또한 모든 결과는 원자료와 참여자의 진술을 근거로 자기효능감 이론과 자기결정이론에 따라 해석하여 연구자의 주관적 편향을 최소화하였다. 더불어 본 연구는 연구 목적과 활용 범위를 충분히 설명한 후 참여자의 자발적 동의를 받아 수행하였다. 모든 참여자는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안내받았으며,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았다. 개인정보는 모두 삭제하고 참여자를 P01, P02와 같은 익명 코드로 제시하였다. 또한 면담 자료는 의미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맞춤법과 띄어쓰기만 수정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4. 연구의 결과

[표 5] 생성형 AI 기반 한국어 학습 경험에 대한 주제분석 결과

최종주제(Theme)	핵심코드(Code)	반복 확인 사례(n)	이론적 연결
AI의 즉각적 피드백과 자기효능감 형성	문법 교정, 오류 수정, 예문 생성	38	성공경험, 언어적 설득
AI를 통한 자율적 문제해결	혼자 해결, 반복 질문, 자기주도학습	36	자율성, 유능성

정서적 안정과 학습 지속	불안 감소, 질문 부담 감소	31	생리·정서적 상태
AI와 교사의 상호보완적 역할	문화적 맥락, 말하기 지도	27	관계성
AI 활용의 한계와 비판적 인식	번역 오류, 부자연스러운 표현, AI 의존 우려	24	비판적 AI 활용

1) AI의 즉각적 피드백과 학습 자신감 형성

분석 결과, 참여자들이 가장 빈번하게 언급한 경험은 생성형 AI의 즉각적인 피드백이었다. 전체 참여자 중 38명(79.2%)은 문법 오류 수정, 자연스러운 표현 추천 및 예문 제공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한국어 사용에 대한 자신감이 향상되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참여자들은 AI를 활용해 자신의 문장을 반복적으로 수정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학습 부담이 감소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을 형성하였다. P08(우즈베키스탄, 중급)은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예전에는 문장을 쓰면 맞는지 몰라서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은 ChatGPT가 바로 고쳐줘서 왜 틀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 번 고치다 보니까 이제는 혼자서도 비슷하게 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P17(우즈베키스탄, 초급) 역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틀려도 AI는 계속 설명해 줘서 부담이 없습니다. 다시 물어볼 수 있어서 한국어 공부가 훨씬 편해졌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생성형 AI의 즉각적인 피드백과 반복 학습이 학습자의 성공경험과 언어적 설득을 강화하여 자기효능감 형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Bandura, 1997). 또한 생성형 AI가 개인화된 피드백과 반복 학습을 지원한다는 선행연구(Kohnke et al., 2023; Godwin-Jones, 2024)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2) AI를 통한 자율적 문제해결 경험

참여자들은 생성형 AI를 활용하면서 교사의 도움을 기다리기보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학습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문법, 어휘, 표현 및 번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AI를 활용하여 즉시 해결하고, 반복적인 질문을 통해 자신의 수준에 맞게 학습을 조절하는 모습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P12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예전에는 모르는 것이 있으면 선생님을 기다렸는데, 지금은 먼저 ChatGPT에게 물어보고 이해한 다음 수업을 듣습니다.”

또 다른 참여자는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숙제를 하다가 모르는 문장이 나오면 바로 AI에게 질문합니다. 여러 번 다시 물어볼 수 있어서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생성형 AI가 학습자의 자율적 문제해결과 자기주도학습을 지원하며, 자기결정이론의 자율성과 유능성 욕구 충족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Ryan & Deci, 2000). 또한 생성형 AI가 자기주도학습을 촉진한다는 선행연구(Godwin-Jones, 2024; Lo, 2023)와도 일치한다.

3) AI 활용에 따른 정서적 변화

참여자들은 생성형 AI를 활용하면서 한국어 학습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감소하고 보다 편안한 상태에서 학습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AI는 반복적인 질문에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아 학습자의 불안과 질문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참여자는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선생님께 여러 번 같은 질문을 하면 미안한 마음이 들지만, AI는 몇 번을 물어봐도 계속 설명해 주기 때문에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참여자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예전에는 틀릴까 봐 말하는 것이 무서웠는데, AI와 먼저 연습하고 나니까 수업에서도 조금 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생성형 AI가 학습자의 불안과 긴장을 완화하여 심리적으로 안정된 학습환경을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Bandura(1997)가 제시한 자기효능감 형성 요인 가운데 생리·정서적 상태와 관련되며, 생성형 AI가 외국어 학습에서 정서적 지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4) AI와 교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

참여자들은 생성형 AI의 활용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교사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고 인식하였다. 문법 설명, 번역, 예문 생성 등에서는 AI가 효과적이지만, 문화적 맥락 이해, 자연스러운 표현, 말하기 지도 및 학습 동기 부여는 여전히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한 참여자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AI는 문법은 잘 설명하지만 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지는 선생님이 더 잘 알려줍니다.” 또 다른 참여자는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AI는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어서 좋지만, 말하기 연습이나 실제 대화는 선생님과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결과는 참여자들이 생성형 AI와 교사를 경쟁 관계가 아닌 상호보완적 학습 자원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AI는 반복 학습과 기초적인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교사는 실제 의사소통과 문화적 맥락 이해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AI 활용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인식

참여자들은 생성형 AI를 한국어 학습에 유용한 도구로 평가하면서도, 정보의 정확성과 문화적 맥락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인식하였다. 특히 문법 설명과 번역, 예문 생성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실제 의사소통에서는 부자연스러운 표현이나 맥락에 맞지 않는 답변이 제시되는 경우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한 참여자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AI가 알려주는 문장은 문법은

맞지만 한국 사람들이 실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참여자는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번역은 빠르지만 가끔 의미가 다르게 나와서 다시 선생님께 확인해야 했습니다."

또한 일부 참여자는 AI를 과도하게 활용할 경우 스스로 사고하거나 문장을 구성하려는 노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다. 반면 대부분의 참여자는 생성형 AI가 반복 학습과 맞춤형 피드백을 지원하는 보조적 학습 도구로서 지속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하였다.

4. 결론 및 제언

1) 학술적 시사점

본 연구는 AI 기반 한국어 학습 환경에서 중앙아시아 출신 유학생의 생성형 AI 활용 경험을 질적으로 분석하고, 이러한 경험이 자기효능감 형성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지를 자기효능감 이론과 자기결정이론의 관점에서 탐색하였다. 기존 연구가 생성형 AI의 교육적 효과를 학습성취도나 학습만족도 등 양적 성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면, 본 연구는 실제 학습자의 심리적 경험과 의미 형성 과정을 질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 결과, 생성형 AI는 즉각적인 피드백과 반복 학습을 통해 학습자의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적 학습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문법 교정, 표현 수정 및 예문 생성을 활용하여 자신의 오류를 스스로 수정하고 한국어 사용에 대한 자신감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Bandura(1997)가 제시한 성공경험과 언어적 설득을 통해 자기효능감이 형성되는 과정과 일치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AI를 활용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학습을 조절하면서 자기결정이론의 자율성과 유능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yan & Deci, 2000).

반면 참여자들은 번역 오류, 부자연스러운 표현, 문화적 맥락의 한계 및

AI 의존 가능성도 함께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생성형 AI가 효과적인 학습 지원 도구이지만, 교사의 지도와 학습자의 비판적 활용이 병행될 때 교육적 효과가 더욱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생성형 AI 기반 한국어 학습 환경에서 자기효능감 이론과 자기결정이론이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AI 활용 과정에서 형성되는 학습자의 심리적 경험을 질적으로 규명함으로써 생성형 AI 기반 한국어 교육의 이론적 이해를 확장하고, AI 활용 학습 경험을 설명하는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가진다.

2) 교육현장에 대한 실천적 시사점

본 연구는 생성형 AI가 한국어 교육에서 교사를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라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하는 보완적 도구로 활용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반복적인 문법 연습, 어휘 학습, 표현 교정 및 맞춤형 피드백은 초·중급 학습자의 자기효능감과 학습 참여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AI 활용 학습과 교사의 피드백을 결합한 혼합형(blended) 교수·학습 모형의 개발이 요구된다.

또한 생성형 AI 활용 교육에서는 AI 활용 능력과 함께 AI 리터러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는 AI가 제공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판단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교사는 문화적 맥락, 화용적 표현 및 실제 의사소통 전략을 지도하는 학습 촉진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3)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

본 연구는 중앙아시아 출신 초·중급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므로 연구 결과를 모든 외국인 유학생에게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자료 수집이 반구조화 면담과 구글폼 개방형 응답, 수업 성찰 일지에 기반하였다는 점에서 실제 학습 행동을 직접 관찰하지 못한 제한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국적과 한국어 수준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심

층면담, 수업 관찰, 학습일지 및 학습 로그 데이터를 함께 활용하는 다원적 자료수집을 통해 연구 결과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생성형 AI 활용과 자기효능감, 자기조절학습, 학습 지속성 및 한국어 학습 성취 간의 관계를 혼합연구(mixed methods research)로 검증하고, 사회적 실재감과 AI 리터러시 등 다양한 심리적 변인을 함께 고려하는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단행본

Bandura, Albert,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W. H. Freeman, 1997.

Benson, Phil, *Teaching and Researching Autonomy in Language Learning, 2nd ed.,* New York: Routledge, 2011.

Braun, Virginia & Victoria Clarke, *Thematic Analysis: A Practical Guide*, London: SAGE, 2021.

Chapelle, Carol A., *Computer Application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Foundations for Teaching,* Testing and Researc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Creswell, John W. & Cheryl N. Poth,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4th ed.,* Thousand Oaks, CA: SAGE, 2018.

Lincoln, Yvonna S. & Egon G. Guba,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 SAGE, 1985.

Merriam, Sharan B. & Elizabeth J. Tisdell, *Qualitative Research: A Guide to Design and Implementation, 4th ed.,* San Francisco: Jossey-Bass, 2016.

Patton, Michael Quinn, *Qualitative Research & Evaluation Methods, 4th ed., Thousand Oaks,* CA: SAGE, 2015.

논문

최민지·최은지, 「디지털 학습문화와 에듀테크 산업에서의 사회적 실재감 비교 연 구: AI 기반 학습, 부모 개입, 메타버스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산업연구』 25권 3호, 한국문화산업학회, 2025, 127-136쪽.

Bandura, Albert,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vol. 84, no. 2, 1977, pp.191-215.

Braun, Virginia & Victoria Clarke, “Using Thematic Analysis in

Psychology",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vol. 3, no. 2, 2006, pp.77-101.

Crompton, Helen & Diane Burke, "Artificial Intelligence in Higher Education: The State of the Field",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in Higher Education, vol. 20, 2023, Article 22.

Deci, Edward L., Richard J. Vallerand, Luc G. Pelletier, & Richard M. Ryan, "Motivation and Education: The Self-Determination Perspective", Educational Psychologist, vol. 26, no. 3-4, 1991, pp.325-346.

Dillon, Thomas, "Korean University Students' Prompt Literacy Training with ChatGPT: Investigating Language Learning Strategies", English Teaching, vol. 79, no. 3, 2024, pp.123-157.

Godwin-Jones, Robert, "Distributed Agency in Second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Through Generative AI", Language Learning & Technology, vol. 28, no. 2, 2024, pp.4-31.

Hwang, Gwo-Jen, Haoran Xie, Benjamin W. Wah, & Dragan Gašević, "Vision, Challenges, Roles and Research Issues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Education", Computers and Education: Artificial Intelligence, vol. 1, 2020, Article 100001.

Kasneci, Enkelejda, Kathrin Sessler, Stefan Küchemann, Maria Bannert, Daryna Dementieva, Frank Fischer, Ute Gasser, Zeno Krause, & Gordon Kasneci, "ChatGPT for Good? On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of Large Language Models for Education", Learning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 103, 2023, Article 102274.

Kim, R., "Effects of ChatGPT on Korean EFL Learners' Main-Idea Identification and Reading Comprehension", Language Research, vol. 60, no. 1, 2024, pp.83-110.

Kohnke, Lucas, Benjamin Luke Moorhouse, & Di Zou, "ChatGPT for Language Teaching and Learning", RELC Journal, vol. 54, no. 2, 2023, pp.537-550.

Lo, Chung Kwan, "What Is the Impact of ChatGPT on Education? A Rapid

Review of the Literature", Education Sciences, vol. 13, no. 4, 2023, Article 410.

Long, Duri & Brian Magerko, "What Is AI Literacy? Competencies and Design Considerations", Proceedings of the 2020 CHI Conference on Human Factors in Computing Systems, 2020, pp.1-16.

Meniado, Joel C., "The Impact of ChatGPT on English Language Teaching, Learning, and Assessment: A Rapid Review of Literature", Arab World English Journal, vol. 14, no. 4, 2023, pp.3-18.

Ng, Davy Tsz Kit, Jac Ka Lok Leung, Samuel Kai Wah Chu, & Maggie Shen Qiao, "Conceptualizing AI Literacy: An Exploratory Review", Computers and Education: Artificial Intelligence, vol. 2, 2021, Article 100041.

Reinders, Hayo & Phil Benson, "Research Agenda: Language Learning Beyond the Classroom", Language Teaching, vol. 50, no. 4, 2017, pp.561-578.

Ryan, Richard M. & Edward L. Deci,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vol. 55, no. 1, 2000, pp.68-78.

Schunk, Dale H., "Self-efficacy and Academic Motivation", Educational Psychologist, vol. 26, no. 3-4, 1991, pp.207-231.

Warschauer, Mark & Deborah Healey, "Computers and Language Learning: An Overview", Language Teaching, vol. 31, no. 2, 1998, pp.57-71.

Zawacki-Richter, Olaf, Victoria I. Marín, Melissa Bond, & Franziska Gouverneur, "Systematic Review of Research on Artificial Intelligence Applications in Higher Education: Where Are the Educators?",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in Higher Education, vol. 16, 2019, Article 39.

Zimmerman, Barry J., "Self-efficacy: An Essential Motive to Learn",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vol. 25, no. 1, 2000, pp.82-91.

국문초록

본 연구는 AI 기반 한국어 학습 환경에서 중앙아시아 출신 유학생의 생성형 AI 활용 경험을 질적으로 분석하고, 이러한 경험이 자기효능감 형성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지를 자기효능감 이론과 자기결정이론의 관점에서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최근 생성형 AI의 확산으로 ChatGPT와 같은 AI 기반 학습 도구가 한국어 교육에서도 활발히 활용되고 있으나, 실제 학습자의 심리적 경험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질적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국내 대학 한국어 교육과정에 참여한 중앙아시아 출신 유학생 48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 면담을 실시하고, 구글폼 개방형 응답과 수업 성찰일지를 함께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Braun과 Clarke의 주제 분석(Thematic Analysis) 절차에 따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생성형 AI는 즉각적인 피드백과 반복 학습을 통해 학습자의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적 학습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AI를 활용하여 문법 오류를 수정하고 필요한 표현을 반복적으로 학습하면서 한국어 사용에 대한 자신감을 형성하였으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학습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자율성과 유능성을 경험하였다.

또한 AI와의 상호작용은 학습 불안과 질문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참여자들은 AI와 교사가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반면 번역 오류, 부자연스러운 표현, 문화적 맥락의 한계 및 AI 의존 가능성은 생성형 AI 활용의 주요 한계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생성형 AI 기반 한국어 학습 환경에서 학습자의 자기효능감 형성과 자기결정적 학습 경험을 질적으로 규명함으로써 AI 활용 한국어 교육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확장하고, 생성형 AI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의 실천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주제어 ● 자기효능감, 자기결정이론, AI 기반 학습, 한국어 학습, 중앙아시아 출신 유학생, 질적연구

Abstract

A Study on Self-Efficacy Formation Experiences of Central Asian International Students in AI-Based Korean Language Learning Environments
: Focusing on the Perspective of Self-Determination Theory

Minji Choi / Gimpo University
Eunji Choi / Honam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d how Central Asian international students develop self-efficacy while using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AI) in Korean language learning from the perspectives of Self-Efficacy Theory and Self-Determination Theory. A qualitative study was conducted with 48 international students using semi-structured interviews, open-ended Google Forms responses, and reflective learning journals. Data were analyzed using thematic analysis.

The findings indicated that generative AI enhanced learners' self-efficacy by providing immediate feedback, repeated practice, and individualized support. Participants reported increased confidence, greater self-directed learning, and reduced learning anxiety. However, they also identified limitations, including inaccurate translations, unnatural expressions, limited cultural context, and overreliance on AI. Participants viewed AI as a complementary learning tool rather than a replacement for teachers. These findings provide qualitative evidence on the educational value of generative AI and offer implications for AI-supported Korean language education.

Keyword ● **AI, Self-Efficacy, Self-Determination Theory, Korean Language Learning, Central Asian International Students, Qualitative Research**

▌논문투고일:2026.05.26. ▌심사완료일:2026.07.02. ▌게재확정일:2026.07.06. ▌

● ● ● https://doi.org/10.54698/kl.2026.21.505
지식과 교양, 제21호,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Knowledge and Liberal Arts, Vol. 21, LIC, pp.505-544.

각색영화를 활용한 교양 수업에서의 변형적 학습 경험 탐색

: 학습자의 회고적 서술 분석을 중심으로

최 선 화*

목 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연구의 방법
4. 연구의 결과
5. 논의 및 결론

1. 서 론

각색영화는 동일한 서사가 시대와 매체를 달리하면서 어떻게 다른 가치와 이데올로기를 부여받는지를 드러내는 텍스트이다. Hutcheon이 각색을 원작의 단순한 재현이 아니라 재해석의 과정으로 보았고,[1] Stam은 각색을 원작에 대한 충실성의 문제로만 판단하기보다, 상호텍스트적 관계와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재구성의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보았듯이[2] 원작과 영화 사이의 차이는 우연한 변형이 아니라 특정 시대의 사회문화적 요구가 서사에 개입한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 안양대학교 아리교양대학 교수

1) Linda Hutcheon, *A Theory of Adaptation*, New York: Routledge, 2006, p.8.

2) Robert Stam, "Beyond Fidelity: The Dialogics of Adaptation," in James Naremore, ed., *Film Adaptation*, New Brunswick, NJ: Rutgers University Press, 2000, pp.54-65.

차이를 비교하는 행위는 학습자로 하여금 텍스트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보다, 그것이 어떤 관점과 전제 위에서 구성되었는지를 질문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교육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교양교육의 맥락에서 이러한 질문은 단순한 작품 이해를 넘어 학습자 자신의 세계 이해 방식에 대한 성찰로 이어질 수 있다. 교양교육이 특정 전공지식의 습득을 넘어서 다양한 관점 속에서 세계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성찰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다면,[3] 각색영화의 비교는 그 목적을 구체적인 텍스트 경험 속에서 구현할 수 있는 수업 장치가 될 수 있다. 원작과 영화의 차이를 마주하는 순간 학습자는 '왜 이렇게 달라졌는가'라는 질문과 함께, 자신이 당연하게 받아들여 온 계급, 젠더, 도덕, 가족, 권력, 자유, 성공의 의미를 다시 묻게 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각색의 비교 구조가 학습자의 기존 준거 틀을 흔드는 인지적·해석적 긴장을 유발하며, 그러한 긴장이 관점 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는 학습을 정보 습득이 아니라 학습자가 자신의 기존 준거 틀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으로 이해한 Mezirow의 변형적 학습 이론과도 긴밀하게 연결된다.[4]

기존 교양교육 연구는 비판적 사고, 의사소통 역량, 수업 효과 등을 중심으로 축적되어 왔으며[5], 각색영화 활용 교육 연구도 문학교육, 미디어 리터러시, 영어교육 등에서 이루어졌으나, 이들 연구는 대체로 영화 텍스

3) 백승수, 「역량기반 교양교육의 교수학적 고찰」, 『교양교육연구』 제16권 제2호, 2022, 49쪽; Martha C. Nussbaum, N*ot for Profit: Why Democracy Needs the Humaniti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0, pp.47-50 참조.

4) Jack Mezirow, *Transformative Dimensions of Adult Learning*, San Francisco: Jossey-Bass, 1991, pp.5-6, pp.167-169.

5) 최선화, 「교양교육으로서의 비판적 사고: 의미와 필요성」, 『교양학연구』 18권, 2022, 303-323쪽; 문성채, 「대학교양에서 토의식 수업이 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력, 지도력에 미치는 영향」, 『수산해양교육연구』, 제28권 제1호, 2016, 300-314쪽; 박길희, 「의사소통역량 향상을 위한 <독서와 표현> 수업의 효과성 연구」, 『교양교육연구』 제13권 제3호, 2019, 331-352쪽; 김인영, 「역량기반 교양교육 설계 요건과 적용에 관한 탐색적 연구」, 『교양교육연구』 제14권 제6호, 2020, 237-251쪽.

트를 교수·학습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이나 효과에 주목하였을뿐[6], 원작-영화의 차이 자체를 변형적 학습의 촉발 구조로 개념화하지는 않았다. 최근에는 문학·고전·디지털 인문학 등 인문학 텍스트를 활용해 학습자의 해석 경험과 관점 확장을 모색하는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7]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원작과 각색영화의 차이가 학습자의 기존 전제를 흔드는 딜레마로 작동하는 과정을 변형적 학습 이론과 연결하여 분석하지는 않았다.

기존 연구가 영화 또는 각색영화를 교수·학습 자료로 활용하는 효과에 주목했다면, 본 연구는 원작과 영화 사이의 차이 자체가 학습자의 기존 전제를 흔드는 딜레마로 작동하는 과정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이러한 이론적 공백에 응답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 세 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각색영화의 비교 구조는 학습자의 기존 해석 틀을 흔드는 혼란스러운 딜레마로 기능하는가. 둘째, 그러한 경험은 어떤 사회문화적 전제들에 대한 비판적 성찰로 이어지는가. 셋째, 이러한 관점 전환의 초기 징후는 일상적 미디어 해석과 시민적 성찰의 차원으로 어떻게 부분적으로 전이되는가.

본 연구의 목적은 이 세 질문에 답함으로써 각색영화를 활용한 교양수업에서 나타나는 변형적 학습 경험을 질적으로 탐색하고, 관점 전환의 초기 형성 양상—완결된 변형이 아닌 전제의 흔들림과 새로운 해석 가능성

6) 강유진, 「소설 원작 영화를 활용한 리터러시 교육 모형 연구」, 『우리문학연구』 59권, 2018, 59-84쪽; 손미란, 「영화 리터러시를 활용한 미디어리터러시-글쓰기 교육: 영화비평문 작성법을 중심으로」, 『인문연구』 91권, 2020, 59-98쪽; 서지영, 「영화영어를 통한 영화리터러시 교육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1권 제6호, 2021, 779-790쪽; 이연준,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를 활용한 영화 영어 수업 방안에 관한 연구」, 『영상영어교육』 제20권 제1호, 2019, 45-67쪽.

7) 김홍중, 「문학 제재를 활용한 교양 수업 연구: 미메시스의 구축과 회복」, 『교양학연구』 19권, 2022, 87-113쪽; 최윤경·한수영, 「고전읽기 관련 교양교육 사례연구의 현황과 진단」, 『교양학연구』 16권, 2021, 195-238쪽; 정기인·정상우, 「대학 교양수업으로서의 '디지털 인문학' 수업 개발」, 『교양교육연구』 제15권 제5호, 2021, 25-40쪽; 양미영, 「문학의 관계적 탐구와 교양교육으로서의 의의」, 『대학교양교육연구』, 2024, 153-170쪽.

의 탐색—이 어떠한 계기와 경로를 통해 나타나는지를 기술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변형적 학습 이론의 교양교육 맥락 적용에 대한 경험적 근거를 제공하고, 각색영화의 차이를 학습자의 준거 틀을 흔드는 교육적 장치로 개념화함으로써 각색이론과 교육이론의 접점을 확장하며, 교양수업 설계에서 텍스트의 내용 전달을 넘어 학습자의 전제를 성찰하게 하는 경험 설계의 가능성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2.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 틀을 구성하는 세 가지 이론 축—변형적 학습 이론(관점 전환의 과정과 조건), 교양교육론(전환의 제도적 공간), 각색이론(텍스트적 조건)—을 검토하고, 이를 연결하는 통합적 분석 틀을 제시한다.

1) 변형적 학습의 개념과 핵심 과정

변형적 학습(transformative learning)은 Mezirow가 제안한 성인 학습 이론으로, 학습의 핵심을 준거 틀(frame of reference)—경험을 해석하는 기저의 가정과 신념 체계—의 비판적 재구성으로 본다. Mezirow는 그 핵심을 '관점 전환(perspective transformation)'으로 명명하였다.[8)]

변형적 학습은 혼란스러운 딜레마(disorienting dilemma), 전제의 비판적 성찰(critical reflection on assumptions), 새로운 관점의 탐색과 통합, 행동 변화와 전이의 네 과정으로 전개되며, 선형적 단계라기보다 학습자의 맥락 속에서 상호 연결되어 나타난다.[9)] (표 1 참조). Mezirow에

8) Jack Mezirow, "Perspective Transformation," *Adult Education Quarterly* 28(2), 1978, pp.100-110; Jack Mezirow, *Transformative Dimensions of Adult Learning*, San Francisco: Jossey-Bass, 1991, pp.11-12.

9) Jack Mezirow, *Transformative Dimensions of Adult Learning*, San Francisco: Jossey-Bass, 1991, pp.168-169; Jack Mezirow, "Learning to Think Like an Adult: Core Concepts of Transformation Theory," in Jack Mezirow and Associates, eds., *Learning as Transformation: Critical Perspectives on a Theory in Progress*, San Francisco: Jossey-Bass, 2000, pp.22-23.

따르면 변형적 학습의 핵심은 정보의 추가가 아니라 기존 준거 틀의 비판적 재구성에 있으며, Taylor & Cranton 역시 학습자가 타자와의 담론 속에서 보다 개방적 관점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핵심으로 본다.[10] Hoggan은 변형적 학습의 결과가 지식·신념·세계관·자아 이해·실천 등 다양한 층위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다.[11]

본 연구는 변형적 학습을 '학습자가 각색영화의 차이를 계기로 기존 전제가 더 이상 자명하지 않음을 경험하고, 그 전제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며, 새로운 해석 가능성을 탐색하고, 일부를 일상적 해석 태도로 전이하는 과정'으로 정의하며, 완결된 도달 상태가 아닌 초기 징후와 형성 과정에 주목한다.

[표 1] Mezirow의 변형적 학습 과정과 본 연구의 대응 구조

과정	핵심 경험	본 연구에서의 발현
혼란스러운 딜레마	기존 준거 틀이 통하지 않는 경험	각색 차이가 기존 해석 틀을 흔듦 (연구문제 1)
전제의 비판적 성찰	'왜 당연시했는가?' 자기 질문	계급·젠더·권력 등 사회적 전제 검토 (연구문제 2)
새로운 관점 통합	대안적 해석의 탐색과 재구성	원작-영화 비교를 통한 다중 관점 형성
행동 변화와 전이	새로운 관점의 일상적 실천	미디어·시민성으로의 전이 (연구문제 3)

<표 1>은 본 연구가 변형적 학습의 전 과정을 탐색하되, 초기 형성 양상에 초점을 맞춘다는 분석 범위를 보여준다.

10) Edward W. Taylor and Patricia Cranton, "Transformative Learning Theory: Seeking a More Unified Theory," in Edward W. Taylor and Patricia Cranton, eds., *The Handbook of Transformative Learning: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San Francisco: Jossey-Bass, 2012, pp.3-20.

11) Chad D. Hoggan, "Transformative Learning as a Metatheory: Definition, Criteria, and Typology," *Adult Education Quarterly* vol.66 no 1, 2016, pp.57-75.

2) 교양교육과 변형적 학습

교양교육의 목적은 학습자가 다양한 가치와 해석이 공존하는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관점을 성찰하며, 타자의 시각과 공적 문제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있다. [12]이러한 목표는 학습을 준거 틀의 재구성 과정으로 설명하는 변형적 학습 이론과 긴밀한 친화성을 갖는다. 특히 대학 교양수업은 다양한 전공과 배경을 지닌 학습자들이 동일한 텍스트를 서로 다른 준거 틀로 해석하는 장이라는 점에서, 자신의 관점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님을 자각하게 만드는 제도적 조건을 제공한다.[13] 그러나 교양교육에서 변형적 학습이 어떻게 실현되는지에 대한 경험적 탐색은 충분하지 않으며, 특히 각색영화라는 구체적 텍스트를 매개로 한 연구는 드물다.

3) 각색이론과 변형적 학습의 접점

각색은 원작을 다른 매체로 옮기는 기술적 변환이 아니라, 새로운 맥락 속에서 다시 읽고 다시 쓰는 해석의 실천이다. [14] Hutcheon은 각색을 반복이면서도 차이를 수반하는 재창조의 과정으로 설명하였고,[15] 원작과 각색의 관계는 충실성의 기준이 아니라 상호텍스트성과 이데올로기적 재구성의 관점에서 이해된다(Stam).[16] 이러한 관점에서 원작과 영화의 차

12) 조혜경, 「역량 중심 인성교육의 가능성 탐색」, 『교양교육연구』 제15권 제2호, 2021, 71-84쪽; 서정혁, 「대학의 교양 교육에 대한 철학적 성찰: 헤겔의 『법철학』을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제14권 제5호, 2020, 149-160쪽; 서정일, 「대학 교양교육에서 핵심역량 적용에 관한 비판적 분석」, 『문화와융합』 제43권 제7호, 2021, 135-151쪽.

13) 안미영, 「대학의 교양교과로서 '문학' 교육의 현황과 전망」, 『교양교육연구』 제15권 제4호, 2021, 55쪽; 최윤경·한수영, 「고전읽기 관련 교양교육 사례연구의 현황과 진단」, 『교양학연구』 16권, 2021, 195-238쪽; Jack Mezirow, "Learning to Think Like an Adult: Core Concepts of Transformation Theory," in Jack Mezirow and Associates, eds., *Learning as Transformation: Critical Perspectives on a Theory in Progress*, San Francisco: Jossey-Bass, 2000, pp.10-12.

14) Robert Stam, "Beyond Fidelity: The Dialogics of Adaptation," in James Naremore, ed., Film Adaptation, New Brunswick, NJ: Rutgers University Press, 2000, pp.54-65.

15) Linda Hutcheon, A Theory of Adaptation, New York: Routledge, 2006, pp.7-8.

16) Robert Stam, "Beyond Fidelity: The Dialogics of Adaptation," in James Naremore, ed., Film Adaptation, New Brunswick, NJ: Rutgers University Press, 2000, pp.54-65.

이는 무엇이 '잘못' 바뀌었는가를 따질 대상이 아니라, 무엇이 왜 강조되거나 삭제되었는가를 질문하게 만드는 해석적 단서가 된다.

바로 이 점에서 각색영화의 비교는 교육적으로 중요한 가능성을 갖는다. 학습자는 원작과 영화가 동일한 서사를 다르게 조직하는 방식을 접하면서, 해석이 언제나 특정한 관점과 사회문화적 전제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단순한 텍스트 비교를 넘어, 자신이 어떤 결말을 자연스럽게 여기고 어떤 인물 해석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는지 되돌아보게 만드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각색영화의 비교 구조는 변형적 학습의 출발점인 혼란스러운 딜레마를 촉발하는 조건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바로 이 지점에서 각색이론과 변형적 학습 이론이 교차할 수 있다고 본다.

[표 2] 각색영화의 교육적 특성과 변형적 학습 과정의 연결

각색영화의 교육적 특성	변형적 학습 과정
원작-영화의 차이: 인지적 긴장	혼란스러운 딜레마
거리두기: 낯설게 만들기	전제의 비판적 성찰
다중 관점: 복수의 해석 가능성	새로운 관점 탐색
가치 충돌: 사회적 전제의 가시화	전이: 일상·시민성으로의 확장

위 표는 각색영화의 교육적 특성이 변형적 학습의 각 단계와 어떤 기제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잠재적 대응 구조로 정리한 것이다. 이는 이미 촉발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아니라, 각색영화의 비교 구조가 변형적 학습을 유도하기 위한 교육적 장치로 설계될 수 있다는 이론적 가능성을 가시화한 것이며, 실제 촉발 여부는 Ⅳ장의 분석 결과에서 확인된다.

4)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위치

변형적 학습 이론은 성인교육 및 다문화교사교육의 맥락에서 학습자의 관점 전환과 비판적 성찰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간호교

육 분야에서도 다문화 수용성, 문화적 민감성, 문화간호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 연구들이 축적되어 왔으나[17] 국내 교양교육에서 이 이론을 분석 틀로 삼은 경험적 연구는 드물다. 기존 국내 교양교육 및 비판적 사고 교육 연구는 비판적 사고의 개념, 교육 효과, 성향 측정, 연구동향 등을 중심으로 축적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학습자의 사고 역량이나 교육 효과를 설명하는 데 기여했음에도, 학습자가 텍스트 경험 속에서 자신의 기존 해석 틀을 어떻게 의심하고 재구성하는지를 과정적으로 포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18] 한편 영화 및 각색영화 활용 교육 연구는 문학교육, 미디어 리터러시, 영어교육 등의 영역에서 이루어져 왔으나, 대체로 영화 텍스트를 교수·학습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이나 효과에 주목하였다.[19] 이러한 연구들은 원작과 각색영화 사이의 차이 자체를 분석 단위로 삼아, 그 차이가 학습자의 기존 전제를 흔드는 딜레마로 작동하고 관점 전환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는 데에는 충분히 나아가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각색이론과 변형적 학습 이론을 결합하여, 원작과 영화의 차

17) 정지현, 「성인학습이론에 기초한 유아교사교육의 발전방향에 대한 일고찰: 전환학습이론의 다문화교사교육 적용 가능성에 대한 개념적 분석을 중심으로」, 『열린유아교육연구』 제14권 제1호, 2009, 85-107쪽; 김진희·윤한수, 「성인대상 다문화교육의 실제 분석과 방향」, 『평생학습사회』 제2권 제3호, 2016, 107-131쪽; 김지현,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민감성과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고정관념」,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2권 제7호, 2014, 305-314쪽.

18) 방선희, 「비판적 사고 교육의 국내 연구동향과 시사점」, 『평생학습사회』 제7권 제1호, 2011, 61-83쪽; 서민규, 「비판적 사고 교육,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교양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0 제3호, 125-132쪽; 윤초희, 「국내외 비판적 사고 교육 효과연구 고찰: 쟁점과 향후 연구과제」, 『아시아교육연구(Asian Journal of Education)』 제17권 제4호, 2016. 1-35쪽; 백평구, 「비판적 사고에 대한 국내 학술지 논문의 주요 연구 주제 탐색」, 『교양교육연구』 제16권 제3호, 2022, 11-27쪽.

19) 강유진, 「소설 원작 영화를 활용한 리터러시 교육 모형 연구」, 『우리문학연구』 59권, 2018, 59-84쪽; 손미란, 「영화 리터러시를 활용한 미디어리터러시-글쓰기 교육: 영화비평문 작성법을 중심으로」, 『인문연구』 91권, 2020, 59-98쪽; 서지영, 「영화영어를 통한 영화리터러시 교육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1권 제6호, 2021, 779-790쪽; 이연준,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를 활용한 영화 영어 수업 방안에 관한 연구」, 『영상영어교육』 제20권 제1호, 2019, 45-67쪽.

이가 학습자의 해석 틀을 드러내고 재구성하게 만드는 교육적 계기로 작동하는 양상을 질적으로 분석한다.

본 연구는 이 두 흐름의 교차점에서, 각색영화의 비교 구조가 변형적 학습의 딜레마를 어떻게 유발하는지를 학습자의 언어로 탐색한다.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위치 비교는 다음과 같다.

[표 3]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위치 비교

연구 흐름	대표 연구	이론 틀	분석 초점	본 연구와의 차이
비판적 사고·역량기반 교양교육	최선화(2022); 박길희(2019); 김인영(2020); 백평구(2022)	비판적 사고·핵심역량 교양교육론	사고 역량·교육 효과	학습자의 해석 경험과 전제 흔들림 과정 미포착
영화·각색 리터러시 교육	강유진(2018); 손미란(2020); 서지영(2021); 이연준(2019)	미디어 리터러시·문학교육	영화의 교수·학습 자료 활용	원작-영화 차이를 분석 단위로 삼지 않음
인문학 텍스트 활용 교양수업	김홍중(2022); 최윤경·한수영(2021); 정기인·정상우(2021); 양미영(2024)	문학·고전교양교육	텍스트 활용의 교육적 의의	각색이론·변형적 학습 이론 결합 부재
변형적 학습 이론 국내 적용	정지현(2009); 김진희·윤한수(2016); 김지현(2014)	변형적 학습·전환학습	다문화·간호교육 맥락	대학 교양수업·각색영화 맥락 미적용
본 연구		변형적 학습 + 각색이론	각색 차이의 딜레마 유발·전제 성찰·부분 전이	단일 사례 탐색 연구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 기존 연구들은 각각 학습자의 해석 경험 과정 분석, 원작-영화 차이의 분석 단위화, 변형적 학습 이론과 각색이론의

결합, 대학 교양수업 맥락 적용 가운데 적어도 한 측면에서 본 연구와 구별된다. 본 연구는 학습자의 질적 서술 자료를 통해 각색 차이를 변형적 학습의 딜레마 장치로 분석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구별되는 탐색적 의의를 갖는다.

5) 세 이론의 통합과 본 연구의 분석 틀

이상의 세 이론 축을 연결하면 다음 분석 틀이 구성된다. 각색영화의 비교 구조는 학습자의 기존 준거 틀에 균열을 일으키는 혼란스러운 딜레마의 조건을 형성하며, 이는 계급, 젠더, 도덕, 권력, 가족, 자유, 성공과 같은 사회문화적 전제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게 만드는 계기로 기능할 수 있다. 학습자는 이 과정에서 보다 구조적이고 다층적인 관점을 탐색하게 되고, 이러한 관점 전환의 일부는 영화 감상 태도, 일상 미디어 해석, 시민적 성찰의 차원으로 부분적으로 전이될 수 있다.

3.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및 참여자

본 연구는 각색영화를 활용한 교양수업에서 학습자가 경험한 관점 전환의 초기 형성 양상을 탐색하기 위한 질적 탐색 연구로 설계되었다. 본 연구의 관심은 수업 효과를 양적으로 측정하는 데 있지 않고, 학습자가 어떤 계기에서 자신의 기존 전제를 낯설게 인식하고, 그것을 어떠한 언어로 재해석하는가를 파악하는 데 있다. 이 점에서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실제 행동 변화의 검증이 아니라, 학습자가 수업 경험을 통해 인식한 변화를 언어화한 자기보고이다. 따라서 결과 해석의 범위는 관점 전환의 완결된 성취가 아니라, 전제의 흔들림과 새로운 해석 가능성의 탐색이라는 언어적 징후로 한정된다. 이러한 방법론적 입장은 변형적 학습의 완결 여부를 판정하기보다, 그 초기 징후와 형성 과정을 학습자의 서술을 통해 포착한다

는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론적으로 정합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관점 전환의 판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한다. 본 연구는 학습자의 진술을 완결된 관점 전환의 증거로 단정하지 않는다. 다만 기존 해석 틀이 흔들리고, 그 해석의 전제가 비판적으로 언어화되며, 이후 미디어나 사회현상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일부 확장되는 경우를 변형적 학습의 초기 징후로 해석한다. 이는 단순한 관점의 양적 확장(perspective expansion)과 구별되는, 기존 전제에 대한 비판적 재검토를 동반하는 변화에 주목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입장은 변형적 학습이 본질적으로 학습자의 의미 구성(meaning-making) 과정에 관한 이론이라는 점에서 학술적 정당성을 갖는다. Taylor가 지적하듯 변형적 학습 연구의 핵심 자료는 학습자가 자신의 경험을 어떻게 언어화하는지에 대한 서술이며[20], 회고적 자기보고는 학습자의 의미 재구성을 포착하는 정당한 방법론적 선택으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기말 서술형 응답을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 경험을 변형적 학습의 언어와 구조로 어떻게 서술하는지를 분석하는 해석적(interpretive) 자료로 다룬다. 이때 분석의 초점은 "수업이 학습자를 변화시켰는가"라는 인과적 효과가 아니라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 경험을 어떤 언어 자원과 해석 구조로 재구성하였는가"라는 해석학적 질문에 있다.

연구 참여자는 경기도 소재 4년제 대학교 교양선택 과목 '각색영화와 비판적 사고' 수강생 31명이다(응답률 77.5%, 수강 인원 40명). 참여자는 1~4학년에 걸쳐 있으며 인문, 사회, 공학, 예체능 등 다양한 전공을 가진 학생들로 구성되었다. 설문 참여는 학기 종료 후 최종 성적 입력이 완료된 시점에 이루어졌으며, 성적 산출과 무관함을 사전에 고지하여 권력 관계 편향을 최소화하였다.

질적 탐색 연구에서 단일 사례는 통계적 일반화가 아니라 이론적 전이

20) Edward W. Taylor, "Transformative Learning Theory," *New Directions for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119, 2008, pp.5-15.

가능성(transferability)을 지향한다.[21] 본 연구의 명제는 유사 조건(교양 선택 과목, 텍스트 비교 기반 수업, 다전공 학습자 구성)을 공유하는 교육 현장의 추가 탐색을 통해 검토될 잠정적 진술이다.

참여자 31명은 한 학기 교양 수업의 수강 규모(40명) 대비 77.5%의 응답률로, 질적 주제분석 연구의 자료 규모로서 적절하다. 분석 과정에서 핵심 범주—딜레마 경험, 전제 성찰, 관점 탐색, 부분적 전이—는 다수 응답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다.

2) 수업 맥락

분석 대상 수업은 원작 문학 텍스트(소설·희곡)와 각색영화를 비교·분석하는 "각색영화와 비판적 사고" 교양과목으로으로, 기말 1주를 제외한 14주 동안 2주 1편씩 총 7편을 다루었다. 각 작품의 1주차에는 원작 주요 장면 독해와 영화 감상이, 2주차에는 각색 차이 분석과 비판적 질문에 대한 조별 토의 및 전체 토론이 이루어졌다. 공식 평가는 8주차 중간보고서(작품 비교 분석 에세이)와 15주차 서술형 지필고사로 운영되었으며 본 연구의 직접 분석 자료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7편의 작품은 전제 영역의 다양성과 각색 차이가 만들어내는 교육적 긴장을 기준으로 선정되었으며, 계급→젠더→도덕→권력→가족→자유→성공의 순서로 다양한 사회문화적 전제를 학기 전반에 걸쳐 순차적으로 탐색하도록 설계되었다. 각 작품의 중심 전제와 각색 차이는 다음과 같다. 『피그말리온』은 언어·계급(열린 결말이 영화에서 낭만적 결합으로 변형), 『오만과 편견』은 성별 역할·혼인 제도(혼인을 개인 선택으로 보는 전제의 역사적 낯설게 하기), 『주홍글자』는 도덕·낙인(낙인의 권력 기능 가시화), 『가스등』은 심리적 통제·권력(가스라이팅 구조의 시각화), 『대부』는 가족과 폭력의 정당화 논리(세례-살인 교차 편집), 『쇼생크 탈출』은 자유·제도

21) Yvonna S. Lincoln and Egon G. Guba,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 Sage, 1985, pp.124-127, pp.290-331.

적 억압(제도화의 역설), 『위대한 개츠비』는 성공 신화·계급 재생산(1920년대 미국 서사와 오늘날 한국 사회의 연결)을 다룬다.

3) 자료 수집

본 연구의 핵심 자료는 학기 말 서술형 설문 응답이다. 설문지는 총 38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양적 Likert 문항(Q1~Q20)과 질적 서술형 문항(Q21~Q38)으로 구분된다. 양적 문항은 수업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만족도·난이도 등)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 연구의 관점 전환 구성개념과 직접 관련되지 않으며, 본 연구의 목적은 수업 효과의 양적 측정이 아니라 학습자가 자신의 관점 변화 경험을 어떠한 언어로 서술하는지를 해석적으로 탐색하는 데 있으므로 별도의 통계 분석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따라서 본 논문의 직접 분석 대상은 변형적 학습 경험과 관련된 서술형 문항(Q21~Q38), 그중에서도 Q25~Q31, Q22, Q36의 응답으로 한정하였다.

서술형 응답은 학습자가 수업 경험을 단순히 평가하는 수준을 넘어, 어떤 장면과 텍스트 차이가 자신의 생각을 흔들었는지, 그 흔들림을 어떠한 개념과 언어로 이해하게 되었는지를 직접 서술하게 한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Mezirow가 변형적 학습의 핵심을 학습자의 자기 성찰과 의미 재구성에 두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핵심 분석 문항은 Q25~Q31(작품별 전제 도전 경험), Q22(영화 감상 태도 변화), Q36(전이 경험)으로, 관점 전환 경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항들이다.

학기 말 서술형 응답을 핵심 자료로 선택한 것은, 학습자가 한 학기를 조망하며 의미를 재구성한 시점의 언어를 포착할 수 있다는 회고적 성찰(retrospective reflection) 자료로서의 가치를 고려한 것이다. Mezirow(1991)가 변형적 학습의 핵심을 경험 이후의 성찰적 언어화에 두었다는 점에서,[22] 이 자료 유형은 관점 전환의 초기 징후를 탐색하려는 본

22) Jack Mezirow, T*ransformative Dimensions of Adult Learning*, San Francisco: Jossey-Bass, 1991, pp.5-6, pp.167-169; Jack Mezirow, "Learning to Think Like an Adult: Core Concepts of Transformation Theory," in Jack Mezirow and

연구의 목적과 방법론적으로 부합한다. 다만 자료의 한계—신념 변화의 실질성 판별과 지속성 확인의 어려움—를 보완할 다원적 수집 방식(사전·사후 설계, 면담, 종단 비교)은 후속 연구의 과제이다.

4)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Braun과 Clarke의 주제분석[23]을 바탕으로 수행하였다. 주제분석은 자료 밀착 의미 단위 추출과 이론적 재해석을 함께 수행할 수 있어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다.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학기 말에 수집된 서술형 설문 응답으로 한정하였다. 학기 중 산출물(8주차 중간 에세이, 조별·전체 토론 기록)은 성적 평가와 연동되어 연구 참여 동의 및 연구윤리 승인 범위(성적과 무관한 익명·자발적 설문)를 벗어나므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따른 신뢰성은 아래의 분석 절차 및 5)의 신뢰성 확보 절차를 통해 보완하되 다원적 자료를 결합한 삼각검증은 후속 연구의 과제로 남긴다.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1단계(자료 숙독·메모)에서 응답 31개를 반복 통독하며 의미 단위에 초기 메모를 작성하였다. 2단계(1차 개방 코딩)에서 학습자 언어에 밀착하여 87개 초기 코드를 추출하였다. 3단계(2차 주제 범주화)에서 초기 코드를 유사성·이론적 관련성에 따라 혼란스러운 딜레마, 전제의 비판적 성찰, 새로운 관점의 탐색, 부분적 전이의 네 범주로 재구성하였다. 작품별 응답(Q25~Q31)은 딜레마·성찰 범주로, 일상 해석 태도 응답(Q22, Q36)은 전이 범주로 우선 분류하고, 두 축에 걸치는 응답은 맥락에 따라 주범주를 결정하였다. 4단계(재코딩·부정적 사례 검토)에서 2주 간격으로 동일 응답을 재코딩하여 범주 일관성을 확인하고, 관점 전환이 나타나지 않거나 기존 전제가 강화된 응답을 부정적 사례로 탐색하였다. 5단계(인용문 선정)에서 각 범주의 핵심 특성을 구체적으

Associates, eds., Learning as Transformation: Critical Perspectives on a Theory in Progress, San Francisco: Jossey-Bass, 2000, pp.7-11.

23) Virginia Braun and Victoria Clarke, "Using Thematic Analysis in Psychology,"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vol. 3 no.2, 2006, pp.77-101.

로 보여주는 응답을 선정하되, 단일 참여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을 두었다.

코딩 예시를 들면, '수업 전에는 자유를 단순히 감옥 밖의 삶으로 여겼으나, 브룩스 장면을 보고 그것이 내 생각의 한계였다는 걸 깨달았다'는 응답은 1차 코딩에서 '자유 개념의 인식 변화'로 추출되었고, 2차 재범주화에서 딜레마의 초기 징후('자유=외적 구속의 부재라는 전제의 흔들림')이자 새로운 관점 탐색('제도화가 더 깊은 부자유를 만들 수 있다')에 동시에 귀속되었다. 이러한 중첩 사례는 주범주를 딜레마 경험, 부범주를 관점 탐색으로 처리하였다.

본 연구의 코딩은 연구자가 단독으로 수행하였으며, 그 타당성을 점검하기 위해 동료 검토(peer debriefing) 절차를 병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수업을 직접 담당하지 않은 동료 연구자 1인에게 일부 익명화 응답과 코드북 검토를 의뢰하였다. 코드북에는 변형적 학습의 네 범주(혼란스러운 딜레마, 전제의 비판적 성찰, 새로운 관점 탐색, 부분적 전이)와 일곱 개 전제 영역(계급, 성별·혼인, 도덕·낙인, 권력·조작, 가족, 자유, 성공)이 포함되었다. 동료 연구자는 일부 응답에 대한 범주 적용의 적절성, 중첩 사례의 주범주·부범주 구분, 대표 인용문 선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연구자는 이 검토 의견을 바탕으로 코드북의 적용 기준을 재점검하고, 중첩 사례와 부정적 사례의 분류 기준을 보완하였다. 최종 분석은 연구자가 자료의 반복 검토, 부정적 사례 탐색, 동료 검토 의견을 종합하여 확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 범주별 포함·제외 기준과 대표적 언어 표지는 [표 4] 와 같다.

[표 4] 변형적 학습 분석 범주의 코딩 기준

분석 범주	포함 기준	제외 기준	대표적 언어 표지
혼란스러운 딜레마	원작-영화 차이, 텍스트 내부 모순, 현실과의 충	단순히 장면이 인상 깊었다고	"생각이 바뀌었다", "당연하다고 여겼던

	돌로 기존 해석이 흔들렸다고 서술한 경우	만 한 경우	것이 흔들렸다”, “처음에는 ~라고 생각했지만”
전제의 비판적 성찰	자신이 특정 결말·가치·인물 관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이유와 그 배후의 사회문화적 전제를 언어화한 경우	“재미있었다”, “새로운 사실을 알았다” 등 감상·정보 습득에 그친 경우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돌아보게 되었다”, “사회가 정한 기준”, “구조적 문제”
새로운 관점 탐색	하나의 해석에서 복수의 해석으로 이동하거나, 개인 문제를 구조·관계·권력의 문제로 재해석한 경우	단순한 정답 확인이나 교수자 설명의 반복	“다르게 볼 수 있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 “복합적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부분적 전이	수업에서 형성된 해석 태도가 영화 감상, 미디어 읽기, 사회문제 이해로 확장되었다고 서술한 경우	실제 행동 변화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과도하게 실천 변화로 해석하는 경우	“이제 영화를 볼 때”, “뉴스나 미디어를 볼 때”, “사회문제를 볼 때”

5) 연구자 위치성과 신뢰성 확보 절차

본 연구는 연구자가 직접 담당한 수업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교수자-연구자의 이중 역할이 자료 해석에 두 방향으로 개입할 수 있다. 첫째, 학습자가 교수자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응답하는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 둘째, 연구자가 자신의 수업이 효과적이었다는 방향으로 자료를 해석하는 확증 편향이다.[24]

이를 완화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의 절차를 취하였다. 첫째, 설문 참

24) John W. Creswell and Cheryl N. Poth,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4th ed., Thousand Oaks, CA: Sage, 2018, pp.35-41; Norman K. Denzin and Yvonna S. Lincoln, “Introduction: The Discipline and Practice of Qualitative Research,” in Norman K. Denzin and Yvonna S. Lincoln, eds., *The SAGE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5th ed., Thousand Oaks, CA: Sage, 2018, pp.1-26.

여는 학기 종료 후 최종 성적 입력이 완료된 시점에 이루어졌으며, 참여 여부가 성적이나 수업 참여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음을 사전에 고지하였다. 설문 참여는 전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졌고, 응답자는 원하지 않는 문항에 답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안내받았다. 수집된 응답은 익명화하여 연구 목적에 한해 분석하였으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분석 과정에 포함하지 않았다. 둘째, 코딩 과정에서 연구자는 관점 전환의 긍정적 사례와 함께 부정적 사례—즉 흔들림이 없거나 기존 전제가 강화된 응답—를 의도적으로 탐색하였다. 셋째, 연구자는 분석 전 단계에서 자신이 이 수업이 효과적이었기를 기대하는 위치에 있음을 기록하고, 코딩 결과가 이 기대를 지지하는 방향으로만 구성되고 있지 않은지를 재코딩 단계에서 점검하였다.

아울러 연구자의 내부자 위치는 수업 구조, 텍스트 선정 의도, 회차별 논의 흐름에 대한 맥락적 이해를 통해 외부 연구자가 포착하기 어려운 세부 의미 단위의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25] 다만 내부자 연구가 갖는 친숙성의 장점은 동시에 해석상의 편향 가능성을 수반하므로, 본 연구는 분석 기준의 명시, 자료의 반복 검토, 대표 인용문의 제시를 통해 해석의 자의성을 줄이고자 하였다. 특히 교수자-연구자의 위치성에서 비롯될 수 있는 해석 편향은 단독 코딩을 보완하는 동료 검토(4절 참조)를 통해 외부 시선으로 점검하였다.

4. 연구 결과

본 장에서는 각색영화 수업에서 나타난 학습자의 변형적 학습 경험을 세 가지 차원에서 제시한다. 첫째, 원작과 영화의 차이는 학습자의 기존 해석 틀을 흔드는 혼란스러운 딜레마로 어떻게 경험되었는가. 둘째, 그러

25) Justine Mercer, "The Challenges of Insider Research in Educational Institutions: Wielding a Double-Edged Sword and Resolving Delicate Dilemmas," *Oxford Review of Education* vol. 33 no.1, 2007, pp.1-17.

한 흔들림은 어떤 사회문화적 전제들에 대한 비판적 성찰로 이어졌는가. 셋째, 이러한 관점 전환은 영화 감상 태도와 일상적 해석 방식의 변화로 어떻게 부분적으로 전이되었는가. 본 장의 분석은 작품별 사례를 제시하되, 그 사례들을 단순 나열하기보다 변형적 학습의 범주에 따라 조직하여 제시한다. 학습자 진술은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며 괄호 안의 번호는 응답자 식별 번호이다.

1) 각색영화가 유발한 혼란스러운 딜레마와 익숙한 전제의 흔들림

학습자의 서술에서 혼란스러운 딜레마로 언어화된 경험은 크게 세 가지 경로로 나타났다. 첫째, 원작과 영화 사이의 직접적 서사 차이가 학습자의 기존 기대를 흔든 것으로 서술된 경우<피그말리온, 가스등>, 둘째, 텍스트 내부의 구조적 모순이 상반된 가치 판단을 동시에 제시함으로써 인지적 긴장을 유발했다고 서술된 경우<주홍글자, 대부>, 셋째, 작품의 서사 전체가 학습자의 현재 사회 현실과 충돌하면서 기존 전제를 낯설게 만들었다고 서술된 경우<쇼생크 탈출, 위대한 개츠비>이다. 다만 딜레마의 강도와 명시성은 작품과 학습자에 따라 다르게 서술되었다. 한편 원작-영화의 차이 자체가 딜레마의 직접적 계기로 작동한 것은 첫째 유형 <피그말리온, 가스등>에서 가장 분명하였다. 둘째·셋째 유형에서는 각색의 차이보다 텍스트 내부의 구조나 작품 서사 전체가 성찰의 계기로 서술되었으며, 이 경우 각색영화는 차이의 비교 대상이라기보다 학습자의 사회문화적 전제를 비추어 보게 하는 매체로 기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각색의 차이'는 모든 작품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한 단일 기제가 아니라, 작품에 따라 직접적 계기에서 매개적 배경에 이르는 스펙트럼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이하 각 작품별 분석에서 제시되는 수치—"N명 중 M명"—는 해당 작품 관련 서술형 문항(Q25~Q31)에 응답한 학습자 중, 1차 코딩 단계에서 기존 전제의 흔들림을 직접적으로 언어화한 진술(예: "기존 생각이 바뀌었다",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이 흔들렸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된 응답자 수를 가리킨다. 분모(N)가 작품마다 다른 것은 일부 응답자가 해당 작품 문항을 미응답하거나 무의미한 응답을 한 경우 분석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며, 작품별 응답률 차이(29~31명)는 결측 처리에 의한 것이다. 이 수치는 작품별 응답의 경향을 보조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며, 통계적 비교나 효과 크기의 산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또한 명시적 진술의 코딩은 키워드 일치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학습자가 동일 의미를 다른 어휘로 표현한 경우(예: "처음에는 ~로 보았지만 이제는 ~로 본다")도 1차 코딩에서 포함되었으며, 단순 어휘 반복은 후속 검토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작품 간 빈도 차이는 학습 효과의 직접적 지표가 아니라 학습자가 특정 작품 경험을 언어화한 정도의 분포로 해석되어야 하며, 해석의 중심은 빈도가 아니라 서술 내용의 성격과 맥락이다.

(1) <피그말리온>: 언어·계급·정체성에 대한 전제의 균열

엘리자의 발음 교정 장면은 언어를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으로 여겨온 학습자들에게 인지적 긴장을 만들어냈다. 특히 원작의 열린 결말이 영화 <마이 페어 레이디>에서 낭만적 결합으로 변형되었다는 각색 차이를 접하며, 학습자들은 그 결말이 '자연스럽게' 수용되는 이유를 묻기 시작하였다.

"계급에 따라 쓰는 말이 다르고, 계급이 바뀌면 나라는 존재마저 흔들린다는 설정이 깊이 와닿았다. …이토록 적나라하게 계급과 정체성을 꼬집은 작품에서마저 사람들은 낭만적인 신데렐라 결말을 원하기 때문이다." (참여자 15)

(2) <오만과 편견>: 성별 역할·혼인 제도에 대한 전제의 균열

29명 중 15명이 기존 생각의 흔들림을 직접 서술하여 딜레마가 명시적으로 두드러진 텍스트였다. '결혼은 개인의 감정 선택'이라는 현대적 전제가, 혼인이 여성의 경제적 생존과 직결된 구조적 제도였다는 역사적 현실 앞에서 재검토되었다.

"오만과 편견 수업은 제가 성별 역할과 계층, 혼인 제도에 대해 가지고

있던 기존 생각을 크게 흔들어 놓았다. 남녀 역할이 자연스럽게 나뉜 것이 아니라 사회가 강제로 만든 틀이었다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느꼈다." (참여자 10)

(3) <주홍글자>: 도덕 판단과 낙인에 대한 전제의 균열

30명 중 17명이 기존 도덕 전제의 흔들림을 직접 서술하여, 본 연구에서 가장 많은 학습자가 명시적 균열을 언어화한 텍스트였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과적 도덕 전제가 균열하였다. 낙인을 달고도 'Able'로 전환하는 헤스터와 위선 속에 파멸하는 딤즈데일의 대비가, 낙인이 도덕적 정의가 아니라 사회 권력의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인식을 촉발하였다.

"낙인은 한 사람의 존재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버리는 사회적 폭력일 수 있다는 점을 처음으로 느끼게 되었다." (참여자 9)

(4) <가스등>: 현실 인식과 심리적 통제에 대한 전제의 균열

원작 연극의 밀폐된 공간 설정이 조명 변화와 반복적 대화 구조로 영화화되면서 심리적 지배 과정이 시각화되었다. 가스라이팅을 '극단적 범죄 사례'로 인식해 온 전제가 흔들렸다.

"가스라이팅이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상대의 현실 감각을 흔들어 통제하려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회에서도 권력을 가진 쪽이 정보를 조작해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는 모습이 가스라이팅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참여자 4)

(5) <대부>: 가족이라는 명분과 폭력에 대한 전제의 균열

세례식과 살인의 교차 편집이 핵심 딜레마를 만들어냈다. '가족은 보호와 사랑의 공동체'라는 전제가 '가족이라는 명분이 폭력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기능한다'는 인식으로 전환되는 진술이 나타났다. 다만 흔들림을 명시적으로 서술한 응답은 4명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다만 이 작품의 응답에서는 세례식과 살인의 교차 편집에 대한 구조적 해석은 다수 나타났으

나, 자신의 기존 신념이 흔들렸다는 1인칭 균열 표지는 드물어 대체로 작품 내부 구조에 대한 분석에 머무는 경향을 보였다. 이 수치의 의미는 Ⅴ장에서 다른 작품들과의 비교 속에서 논의한다.

"가족이라는 가치가 어떻게 폭력을 합리화하고 권력이 사적 충성심을 통해 공적 규범을 압도하는지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게 했다." (참여자 11)

(6) <쇼생크 탈출>: 자유와 제도적 억압에 대한 전제의 균열

30명 중 16명이 관점 전환을 명시적으로 서술한, 전제 균열이 폭넓게 나타난 텍스트이다. 출소 후 사회 적응에 실패한 브룩스의 서사는 '자유는 외적 구속의 부재'라는 전제를 흔들었다.

"수업 전에는 자유를 단순히 감옥 밖의 삶으로 여겼으나, 브룩스를 통해 시스템에 길들여지는 것의 무서움을 깨달았다. 반면 앤디를 보며, 진정한 자유와 희망은 물리적 공간이 아닌 그 어떤 제도로도 가둘 수 없는 내면의 성역에 있음을 알게 되었다." (참여자 6)

(7) <위대한 개츠비>: 성공 신화와 계급 재생산에 대한 전제의 균열

'노력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능력주의 신화가 흔들리는 진술이 나타났다. 이 작품에서 딜레마의 계기는 1920년대 미국 서사가 현재 한국 사회의 입시·취업·부동산 구조와 직접 연결되는 데서 비롯되었다. 흔들림을 명시적으로 서술한 응답은 4명으로, 같은 유형의 『쇼생크 탈출』(16명)에 비해 낮았다. 이 작품의 응답에서는 아메리칸 드림 비판을 한국의 입시·취업·부동산 현실로 확장하는 진술이 다수였으나, 이는 학습자가 이미 공유하던 비판적 통념의 재확인에 가까워 관점의 '전환'으로 명시되는 경우가 적었다. 이 차이의 의미는 Ⅴ장에서 논의한다.

"개츠비가 타고난 가문(Old Money)의 벽을 넘지 못하고 파멸한 것은 한국의 수저 계급론과 닮아있다고 생각하며, 입시나 취업 등 개인의 치열한 노력만으로는 이미 부동산이나 자산 격차로 견고해진 계층의 사다리를 오르기 힘든 한국의 현실이 개츠비가 끝내 잡지 못한 초록 불빛의 허상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한다." (참여자 6)

[표 5] 작품별 딜레마 유발 경로 및 전제 균열 양상

작품	딜레마 유발 경로	명시적 균열	핵심 전제	각색 차이의 성격
피그말리온	원작-영화 서사 차이	5명	언어·계급·정체성	열린 결말 → 낭만적 결합
오만과 편견	원작-영화 서사 차이	15명	성별 역할·혼인	구조적 제도의 가시화
주홍 글자	텍스트 내부 구조적 모순	17명	도덕·낙인	헤스터-딤즈데일 대비
가스등	원작-영화 서사 차이	13명	심리적 통제·권력	영화적 기법의 시각화
대부	텍스트 내부 구조적 모순	4명	가족·폭력·권력	세례-살인 교차 편집
쇼생크 탈출	텍스트-현실 충돌	16명	자유·제도·연대	제도화의 역설
위대한 개츠비	텍스트-현실 충돌	4명	성공 신화·계급 재생산	한국 사회 현실과의 접속

※ "명시적 균열(명)"은 해당 작품 관련 서술형 문항(Q25~Q31) 응답 중 기존 전제의 흔들림을 명시적으로 언어화한 응답자 수를 1차 코딩 기준으로 집계한 것이다. 이 수치가 낮다는 것이 딜레마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의미하지 않으며, 서술하지 않은 경험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집계의 한계를 전제한다.

2) 학습자의 비판적 성찰에 나타난 사회문화적 전제의 영역별 특징

혼란스러운 딜레마 이후 학습자들의 서술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자신이 이전까지 자연스럽거나 당연하다고 여겨 온 사회문화적 전제를 다시 검토하는 움직임이었다. 이러한 비판적 성찰은 크게 일곱 가지 영역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이때 본 연구에서 '비판적 성찰'은 단순한 감상 변화나 정보 습득이 아니라, 학습자가 자신이 특정 결말·가치·인물 관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이유를 되묻고, 그 판단의 배후에 있는 사회문화적 전제를 언어화하는 경우로 한정하였다. 따라서 '재미있었다',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와 같은 반응은 비판적 성찰로 분류하지 않았다. 주목

할 점은 영역에 따라 다루는 주제는 다르지만, 성찰의 방향이 대체로 개인의 선택이나 능력의 문제로 이해되던 현상을 보다 구조적이고 관계적인 문제로 다시 보는 쪽으로 수렴하였다는 공통 패턴이다. 이 공통 패턴이 일곱 영역을 가로지르는 본 절의 핵심 발견이며, 영역별 구체적 전환 내용은 [표 6] 으로 갈음한다. [표 6] 은 각 영역에서 기존 전제가 어떻게 재구성되었는지를 대표 진술과 함께 정리한 것이다.

[표 6] 비판적 성찰에 나타난 사회문화적 전제의 영역별 전환

기존 전제	성찰로의 전환	대표 진술
계급은 능력으로 극복 가능하다	계급은 구조적으로 재생산된다	“정체성이 개인의 내면이 아닌 사회가 부여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닌지 비판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참여자 16)
성별 역할·혼인은 개인 선택이다	혼인은 구조적 생존 전략이었다	“혼인 제도가 성별 역할·계층이 얽힌 경제적 생존 전략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참여자 13)
죄와 벌은 인과응보적 정의다	낙인은 권력의 수단이다	“낙인은 죄를 반성하게 하기보다는 개인을 고정된 이미지로 규정하고 배제하는 수단으로 작동했다.” (참여자 31)
가스라이팅은 극단적 범죄 행위다	권력 불균형 속 구조적 메커니즘이다	“가스라이팅이 개인적인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불균형 속에서 강화되는 현상임을 이해하게 되었다.” (참여자 17)
가족은 보호와 사랑의 공동체다	가족은 권력·복종의 구조가 될 수 있다	“가족이 권력과 충성, 복종을 유지하기 위한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참여자 26)
자유는 외적 구속의 부재다	제도화가 더 깊은 부자유를 만든다	“시스템에 길들여져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게 만드는 구조적 폭력임을 깨달았습니다.” (참여자 21)
성공은 개인 노력의 산물이다	계급 구조가 출발선을 결정한다	“성공 신화를 개인 책임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불평등한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가 더 중요한 질문이다.” (참여자 7)

이 범주들은 귀납적 1차 코딩을 통해 자료에서 도출된 후 Mezirow의 이론틀에 비추어 재해석된 것이다. 성찰은 대부분 완결된 전환이 아니라 '기존 생각이 흔들렸다', '새로운 질문이 생겼다'는 초기 징후의 형태로 나타났다.

3) 새로운 관점의 탐색과 통합

변형적 학습 과정에서 딜레마와 전제 성찰 이후에는 새로운 관점의 탐색과 통합이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 이 단계는 학습자들이 동일한 현상을 다르게 이해하는 방식을 구성하기 시작하는 양상으로 나타났으며, 완결된 재구성이라기보다 하나의 해석에서 복수의 해석으로 이동하는 초기 과정에 가까웠다.

학습자들은 텍스트 내의 인물·장면 대비 구조를 통해 새로운 관점을 탐색하였다. 헤스터/딤즈데일 대비에서 처벌의 양면성을, 브룩스/앤디 대비에서 자유의 내적·외적 차원을, 개츠비의 부와 데이지 세계의 간극에서 계급 재생산 구조를 읽어냈다. 일부는 한국 사회의 현실(입시·취업·부동산)을 서사와 연결하며 개인 중심 해석에서 구조 중심 해석으로의 이동을 스스로 언어화하였다.

"수업을 통해 한 가지 정답이 있다기보다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같은 장면도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제는 영화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 장면은 왜 이렇게 연출되었을까, 원작과 무엇이 달라졌을까를 생각하게 된다." (참여자 26)

4) 관점 전환의 일상으로의 전이

학습자들의 관점 전환은 수업 안에서의 텍스트 이해에만 머물지 않고, 부분적으로 일상적 해석 태도의 변화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때 전이는 거창한 삶의 전환이라기보다, 영화를 볼 때 연출과 이데올로기를 더 의식하게 되었다는 변화, 뉴스나 미디어 콘텐츠를 접할 때 그것이 구성된 서사임을 더 자각하게 되었다는 변화, 사회문제를 개인 책임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로 함께 보게 되었다는 변화의 수준에서 주로 나타났다.

(1) 미디어 수용 태도의 변화

"수강 후에는 원작과의 관계, 각색 과정의 의도, 시대적 맥락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으로 영화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참여자 23)

이는 단순한 취향 변화가 아니라 미디어 텍스트를 구성된 산물로 바라보는 인식의 강화이며, 영화 이외의 미디어 텍스트 해석에도 영향을 시사하는 언어적 징후로 볼 수 있다.

(2) 일상 해석 방식의 변화

영화 감상 태도를 넘어, 『가스등』의 가스라이팅 인식이 일상의 심리적 통제 상황을 다르게 읽게 되었다는 진술, 『주홍글자』의 낙인 인식이 미디어와 권위 있는 정보 출처에 대한 비판적 접근으로 이어졌다는 진술이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전이는 의향의 표현이거나 수업 직후 시점의 인식 변화에 가까우며, 지속적 행동 변화의 근거로 해석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미디어나 권위자가 전달하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믿지 않고, 그 이면에 숨겨진 의도와 프레임을 의심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다." (참여자 6)

(3) 시민적 성찰과 구조 인식으로의 부분적 전이

수업에서 습득한 개념—가스라이팅, 낙인, 제도화—이 시민적 맥락에서 권력과 미디어를 읽는 방식과 연결된다는 진술도 나타났다. "시민 참여 시에는 가스등과 주홍글자 수업을 통해 배운 가스라이팅과 낙인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미디어나 여론이 개인에게 가하는 심리적 조종을 비판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참여자 13) 이 진술은 수업 개념이 시민적 판단의 어휘로 전유되는 양상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실제 시민 행동으로의 전이는 본 연구의 자료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전이의 언어적 가능성으로 한정하여 해석한다.

이상의 결과는 각색영화 수업에서 나타난 학습 경험이 Ⅱ장에서 제시한 변형적 학습의 조작적 정의 및 분석 틀과 대체로 대응하는 양상을 보였음을 의미한다. 다만 경험의 강도와 깊이는 학습자마다 달랐으며 모든 응

답이 완결된 관점 전환에 도달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본 결과는 변형적 학습의 완성을 입증하는 것이라기보다, 각색영화의 비교 구조가 그러한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초기 조건을 형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경험적 근거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5. 논의 및 결론

이하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발견을 통합적으로 해석하고, 변형적 학습 이론, 각색이론, 교양교육 실천에 대해 갖는 이론적·실천적 함의를 논의한다.

1) 연구 결과의 통합적 해석

세 가지 연구 문제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자가 딜레마로 서술한 경험은 원작-영화 서사 차이, 텍스트 내부 구조적 모순, 텍스트-현실 충돌이라는 세 유형으로 구분되며, 이는 각색영화의 교육적 기능이 단일하지 않으며 텍스트 선정이 단순한 내용 선택이 아니라 딜레마 유형의 설계임을 시사한다. 둘째, 명시적 균열 진술의 빈도는 작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주홍글자』(17명), 『쇼생크 탈출』(16명), 『오만과 편견』(15명)에서는 기존 전제의 흔들림을 직접 서술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반면, 『대부』(4명)와 『위대한 개츠비』(4명)에서는 낮게 나타났다. Ⅳ장에서 밝힌 집계상 한계와 더불어, 『대부』의 가족 가치나 『위대한 개츠비』의 성공 신화처럼 학습자에게 익숙하거나 자기 이해와 결부된 전제는 그것의 흔들림이 명시적으로 언어화되기 어려웠을 가능성도 있다. 어떤 조건에서 딜레마가 더 명시적으로 표현되는지는 후속 연구의 과제이다. 셋째, 전이는 대부분 자기보고 수준의 의향적 형태에 머물렀다. 이는 변형적 학습의 완성이 단일 학기 안에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Mezirow의 점진적 과정론과 부합하며, 자기보고 자료의 특성상 실제 행동 변화 여부나 학습자의 사전 성향과 같은 대안적 해석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비교 설계나 사전·사후 측정을 도입할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환기한다.

2) 이론적 논의

(1) 변형적 학습 이론의 교양교육 맥락 적용

본 연구는 Mezirow의 변형적 학습 이론이 성인교육이나 직업교육의 맥락을 넘어 대학 교양교육에서도 유의미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경험—기존 전제가 흔들리는 딜레마, 비판적 성찰, 해석 태도의 부분적 변화—은 변형적 학습의 핵심 범주와 상응한다. 다만 포착된 것은 완결된 관점 전환이라기보다 초기 징후와 부분적 전이로, 교양수업에서의 변형적 학습은 점진적 형성 과정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변형의 결과가 다양한 층위에서 부분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는 Hoggan의 논의와도 맞닿아 있다.[26]

(2) 각색이론의 교육적 확장 및 이론적 접점

본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이론적 기여는 각색이론을 교육학적 문제의식과 접합하여 각색의 차이를 새로운 방식으로 개념화한 데 있다. Hutcheon이 각색을 복제 없는 반복이자 재창조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Stam이 충실성이 아닌 상호텍스트성·이데올로기적 재구성으로 설명했다면[27], 본 연구는 그 논리를 교육 현장으로 가져와 원작-영화의 차이 자체를 학습자의 사회문화적 전제를 흔드는 교육적 딜레마 장치로 재개념화한다. 이 관점에서 각색 차이는 충실성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무엇이 왜 달라졌는가"를 통해 학습자의 전제를 낯설게 만드는 비판적 교육의 자원이 되며, 이는 각색영화 연구와 교육연구를 연결하는 이론적 접점이다.

(3) 교양교육의 방향: 지식 전달에서 경험 설계로

26) Chad D. Hoggan, "Transformative Learning as a Metatheory: Definition, Criteria, and Typology," *Adult Education Quarterly* vol. 66 no.1, 2016, pp.65-71.

27) Linda Hutcheon, *A Theory of Adaptation*, New York: Routledge, 2006, pp.7-8; Robert Stam, "Beyond Fidelity: The Dialogics of Adaptation," in James Naremore, ed., *Film Adaptation*, New Brunswick, NJ: Rutgers University Press, 2000, pp.54-65.

본 연구는 교양교육의 핵심 질문이 “어떤 텍스트를 가르칠 것인가”에서 “텍스트 안의 어떤 차이가 학습자의 전제를 어떻게 흔들 것인가”로 이동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는 교양교육을 지식 전달의 장이 아니라 학습자가 자신의 준거 틀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경험 설계의 장으로 보는 관점이며, 본 연구에서 개인 능력의 문제로 이해되던 것이 구조와 제도의 문제로 재해석되는 방향으로 다수 나타난 성찰은 이러한 경험 설계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3) 교양교육 실천에 대한 시사점

실천적 함의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좋은 텍스트를 제시하는 것’만이 아니라 텍스트가 내장한 차이와 충돌을 질문으로 조직하는 일이 중요하다. 각색영화의 차이가 전제 성찰로 이어지려면 교수자가 ‘왜 이 장면은 달라졌는가’, ‘이 결말은 무엇을 자연스럽게 보이게 하는가’, ‘내가 당연하다고 여긴 것은 무엇인가’를 묻는 방식으로 수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습자의 관점 전환이 심화·전이되도록 지원하는 담론 환경의 설계가 중요하다. 대면 수업의 강점인 즉각적 상호작용을 살려, 소그룹 토의, 장면 재구성 과제, 반성적 저널 등을 체계적으로 결합하면 학습자가 자신의 성찰을 타인과 교차 검토하고 명시적으로 언어화하게 만드는 장치가 될 수 있다.[28]

4)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지닌다.

첫째, 단일 대학·단일 교과목·단일 학기라는 제한된 맥락에서 수행되어 일반화에는 신중을 요한다. 둘째, 학기 말 단면 자료에 기초해 관점 전환

28) Edward W. Taylor, “Fostering Transformative Learning,” in Jack Mezirow, Edward W. Taylor, and Associates, eds., T*ransformative Learning in Practice: Insights from Community, Workplace, and Higher Education*, San Francisco: Jossey-Bass, 2009, pp.3-17.

의 지속성이나 행동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셋째, 분석이 단독 연구자의 코딩에 기초하여 분석의 상호주관성 확보에 일정한 제약이 있다. 넷째, 교수자-연구자라는 내부자 위치성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둘째 한계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단면 자기보고 자료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학습자의 인식 변화가 시간적으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직접 추적하지는 못한다. 다만 본 연구의 인식론적 입장은 변형의 인과적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학기 말 시점에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 경험을 변형적 학습의 언어와 구조로 어떻게 서술하는지를 해석하는 데 있다. 이러한 해석학적 접근은 회고적 서술 자체를 학습자의 의미 재구성 과정으로 보는 변형적 학습 연구의 흐름과 부합하나, 자기보고 자료가 갖는 한계—실제 인식 변화와 수업 언어 재진술 간의 판별 어려움, 지속성 확인 불가—는 분명히 남아 있으며, 면담, 사전·사후 비교, 종단 자료 등을 결합한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계와 관련해서는 본 연구가 4절에 기술한 신뢰성 절차(코드북 명세화, 연구자 내 재코딩, 동료 검토, 부정적 사례 분석)를 통해 이를 완화하고자 하였으나, 다수의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코딩에 참여하는 협업 코딩으로의 확장은 후속 연구의 과제이다. 넷째 한계와 관련하여, 연구자의 내부자 위치는 수업 구조, 텍스트 선정 의도, 회차별 논의 흐름에 대한 맥락적 이해를 통해 외부 연구자가 포착하기 어려운 세부 의미 단위의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다만 내부자 연구가 갖는 친숙성의 장점은 동시에 해석상의 편향 가능성을 수반하므로, 본 연구는 분석 기준의 명시, 자료의 반복 검토, 대표 인용문의 제시를 통해 해석의 자의성을 줄이고자 하였다. 특히 교수자-연구자의 위치성에서 비롯될 수 있는 해석 편향은 단독 코딩을 보완하는 동료 검토를 통해 외부 시선으로 점검하였다.

후속 연구는 면담, 반성적 저널, 종단 비교, 토론 자료 분석 등을 통해 관점 전환의 형성과 지속을 입체적으로 추적하고, 동일한 분석 틀을 문학 텍스트·역사 서술·다큐멘터리 등 다른 교양 수업 맥락에 적용해 각색영화

의 특수성과 공통성을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웹소설-웹툰-영화-드라마로 이어지는 다매체 각색의 흐름으로 분석 대상을 확장하여, 학습자에게 더욱 친숙한 트랜스미디어 콘텐츠 환경에서 각색영화 기반 비판적 사고 교육이 어떻게 확장·적용될 수 있는지를 탐구하는 것도 의미 있는 과제가 될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각색영화 수업을 수강한 학습자가 학기 말 시점에 자신의 학습 경험을 변형적 학습의 언어와 구조로 어떻게 서술하는지를 해석적으로 탐색하였다. 학습자들은 원작과 영화의 차이를 자신의 사회문화적 전제를 흔드는 딜레마의 경험으로 서술하였으며, 이러한 서술은 계급·젠더·도덕·권력·가족·자유·성공에 관한 전제의 비판적 성찰과 일상적 해석 태도로의 부분적 전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핵심 명제는 각색의 차이가 미학적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학습자가 당연하다고 여겨 온 것을 낯설게 바라보게 만드는 교육적 딜레마 장치라는 것이다. 동일한 서사가 다르게 재현될 때 학습자는 '어느 쪽이 자연스러운가?'를 묻게 되고, 이 물음은 '자연스럽다는 것은 누가 결정하는가?'로 이어진다. 이것이 각색영화 수업에서 변형적 학습이 시작되는 방식이다.

교양교육의 핵심 과제는 학습자가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 자체를 성찰하도록 돕는 데 있다. 각색영화 수업은 그것이 활용하는 것이 '영화'가 아니라 '차이'라는 교육적 긴장임을 분명히 할 때 이 과제를 구체적 텍스트 경험 속에서 구현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어떤 차이가 어떤 조건에서 전제의 흔들림을 더 깊이 만들어낼 수 있는지의 탐색이 본 연구가 남긴 후속 과제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Creswell, J. W. & C. N. Poth,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4th ed., Thousand Oaks, CA: Sage, 2018.

Hutcheon, L., *A Theory of Adaptation*, New York: Routledge, 2006.

Lincoln, Y. S. & E. G. Guba,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 Sage, 1985.

Mezirow, J., *Transformative Dimensions of Adult Learning*, San Francisco: Jossey-Bass, 1991.

Nussbaum, M. C., *Not for Profit: Why Democracy Needs the Humaniti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0.

논문

강유진,「소설 원작 영화를 활용한 리터러시 교육 모형 연구」,『우리문학연구』59권, 우리문학회, 2018, 59-84쪽.

김인영,「역량기반 교양교육 설계 요건과 적용에 관한 탐색적 연구」,『교양교육연구』14권 6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20, 237-251쪽.

김지현,「간호대학생의 문화적 민감성과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고정관념」,『디지털융복합연구』12권 7호,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14, 305-314쪽.

김진희·윤한수,「성인대상 다문화교육의 실제 분석과 방향」,『평생학습사회』12권 3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미래원격교육연구원, 2016, 107-131쪽.

김홍중,「문학 제재를 활용한 교양 수업 연구: 미메시스의 구축과 회복」,『교양학연구』19권, 다빈치미래교양연구소, 2022, 87-113쪽.

문성채,「대학교양에서 토의식 수업이 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력, 지도력에 미치는 영향」,『수산해양교육연구』28권 1호,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 2016, 300-314쪽.

박길희,「의사소통역량 향상을 위한 <독서와 표현> 수업의 효과성 연구」,『교양교육연구』13권 3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19, 331-352쪽.

방선희, 「비판적 사고 교육의 국내 연구동향과 시사점」, 『평생학습사회』 7권 1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미래원격교육연구원, 2011, 61-83쪽.
백승수, 「역량기반 교양교육의 교수학적 고찰」, 『교양교육연구』 16권 2호,한국교양교육학회, 2022, 49-68쪽.
백평구, 「비판적 사고에 대한 국내 학술지 논문의 주요 연구 주제 탐색」, 『교양교육연구』 16권 3 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22, 11-27쪽.
서민규, 「비판적 사고 교육,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교양교육학회 학술 대회 자료집』 3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10, 125-132쪽.
서정일, 「대학 교양교육에서 핵심역량 적용에 관한 비판적 분석」, 『문화와융합』 43권 7호, 인문사회예술융합학회, 2021, 135-152쪽.
서정혁, 「대학의 교양 교육에 대한 철학적 성찰: 헤겔의 『법철학』을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14권 5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20, 149-160쪽.
서지영, 「영화영어를 통한 영화리터러시 교육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권 6호, 한국콘텐츠학회, 2021, 779-790쪽.
손미란, 「영화 리터러시를 활용한 미디어리터러시-글쓰기 교육: 영화비평문 작성법을 중심으로」, 『인문연구』 91권, 영남대학교 인문과학 연구소, 2020, 59-98쪽.
안미영, 「대학의 교양교과로서 '문학'교육의 현황과 전망」, 『교양교육연구』 15권 4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21, 55-69쪽.
양미영, 「문학의 관계적 탐구와 교양교육으로서의 의의」, 『대학교양교육연구』 9권 3호, 배제대학교 주시경교양교육연구소, 2024, 153-170쪽.
윤초희, 「국내외 비판적 사고교육 효과연구 고찰: 쟁점과 향후 연구과제」, 『아시아교육연구』 17권 4호,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2016, 1-35쪽.
이연준,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를 활용한 영화 영어 수업 방안에 관한 연구」, 『영상영어교육』 20권 1호, 영상영어교육학회, 2019, 45-67쪽.
정기인·정상우, 「대학 교양수업으로서의 '디지털 인문학' 수업 개발」, 『교양교육연구』 15권 5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21, 25-40쪽.
정지현, 「성인학습이론에 기초한 유아교사교육의 발전방향에 대한 일고찰: 전환 학습 이론의 다문화교사교육 적용 가능성에 대한 개념적 분석을 중심으 로」, 『열린유아교육연구』 14권 1호,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2009, 85-107쪽.
조혜경, 「역량 중심 인성교육의 가능성 탐색」, 『교양교육연구』 15권 2호, 한국교양교

육학회, 2021, 71-84쪽.

최선화, 「교양교육으로서의 비판적 사고: 의미와 필요성」, 『교양학연구』 18권, 다빈치미래교양연구소, 2022, 303-323쪽.

최윤경·한수영, 「고전읽기 관련 교양교육 사례연구의 현황과 진단」, 『교양학연구』 16권, 다빈치미래교양연구소, 2021, 195-238쪽.

Braun, V. & V. Clarke, "Using Thematic Analysis in Psychology,"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vol. 3, no. 2, 2006, pp.77-101.

Denzin, N. K. & Y. S. Lincoln, "Introduction: The Discipline and Practice of Qualitative Research," in N. K. Denzin & Y. S. Lincoln, eds., *The SAGE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5th ed., Thousand Oaks, CA: Sage, 2018, pp.1-26.

Hoggan, C. D., "Transformative Learning as a Metatheory: Definition, Criteria, and Typology," *Adult Education Quarterly*, vol. 66, no. 1, 2016, pp.57-75.

Mercer, J., "The Challenges of Insider Research in Educational Institutions: Wielding a Double-Edged Sword and Resolving Delicate Dilemmas," *Oxford Review of Education*, vol. 33, no. 1, 2007, pp.1-17.

Mezirow, J., "Perspective Transformation," *Adult Education Quarterly*, vol. 28, no. 2, 1978, pp.100-110.

Mezirow, J., "Learning to Think Like an Adult: Core Concepts of Transformation Theory," in J. Mezirow and Associates, eds., *Learning as Transformation: Critical Perspectives on a Theory in Progress,* San Francisco: Jossey-Bass, 2000, pp.3-33.

Stam, R., "Beyond Fidelity: The Dialogics of Adaptation," in J. Naremore, ed., *Film Adaptation*, New Brunswick, NJ: Rutgers University Press, 2000, pp.54-76.

Taylor, E. W., "Transformative Learning Theory," *New Directions*

for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No. 119, 2008, pp.5-15.

Taylor, E. W., "Fostering Transformative Learning," in J. Mezirow, E. W. Taylor, and Associates, eds., *Transformative Learning in Practice: Insights from Community, Workplace, and Higher Education*, San Francisco: Jossey-Bass, 2009, pp.3-17.

Taylor, E. W. & P. Cranton, "Transformative Learning Theory: Seeking a More Unified Theory," in E. W. Taylor & P. Cranton, eds., *The Handbook of Transformative Learning: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San Francisco: Jossey-Bass, 2012, pp.3-20.

국문초록

본 연구는 각색영화를 활용한 교양 수업에서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 경험을 변형적 학습의 언어와 구조로 어떻게 서술하는지를 해석적으로 탐색한다. Mezirow의 변형적 학습 이론과 Hutcheon·Stam의 각색이론을 결합하여, 원작과 영화의 차이를 충실성의 문제가 아니라 학습자가 당연하게 여겨 온 전제를 흔드는 교육적 장치로 재개념화하였다. 이를 위해 해석학적 질적 접근을 채택하여, 일곱 편의 문학 원작과 그 각색영화를 다룬 학습자 31명의 학기말 서술형 자기보고를 분석하였다. 주제분석을 통해 학습자의 서술을 혼란스러운 딜레마, 전제의 비판적 성찰, 새로운 관점 탐색, 부분적 전이의 네 범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학습자들은 원작–각색영화의 차이를 계급·젠더·도덕·권력·가족·자유·성공에 관한 자신의 전제를 흔드는 딜레마의 경험으로 서술하였으며, 이러한 성찰은 일상적 미디어 해석과 사회현상 이해의 차원으로 일부 확장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서술을 완결된 관점 전환의 증거가 아니라 변형적 학습의 초기 징후로 해석하며, 각색의 차이가 학습자의 전제를 낯설게 만드는 교육적 딜레마 장치로 기능할 수 있음을 논의한다. 이는 텍스트의 내용 전달을 넘어 학습자의 전제를 성찰하게 하는 교양수업 설계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제어 ● 변형적 학습, 각색영화, 교양교육, 혼란스러운 딜레마, 비판적 성찰

Abstract

Exploring Transformative Learning Experiences in a Liberal Arts Course Using Film Adaptations
: Focusing on an Analysis of Learners' Retrospective Accounts

Seonwha Choi / Anyang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how students in a liberal arts course using film adaptations articulated their learning experiences through the framework of transformative learning. Drawing on Mezirow's theory and adaptation theory, it reconceptualizes the difference between an original work and its film adaptation not as a matter of fidelity but as a pedagogical device that unsettles learners' taken-for-granted assumptions. Using an interpretive qualitative approach, the study analyzed end-of-semester written self-reports from 31 students who compared seven literary works with their film adaptations. Thematic analysis identified four categories: disorienting dilemma, critical reflection on premises, exploration of new perspectives, and partial transfer. Students described adaptation differences as moments that challenged assumptions about class, gender, morality, power, family, freedom, and success. Rather than claiming completed perspective transformation, the study interprets these accounts as early signs of transformative learning and suggests implications for liberal arts course design.

Keyword ● Transformative learning, Film adaptation, Liberal arts education, Disorienting dilemma, Critical reflection

▌논문투고일:2026.05.29. ▌심사완료일:2026.06.15. ▌게재확정일:2026.06.22. ▌

부록

수강생 대상 설문지
「각색영화와 비판적 사고」 교과목 수강 경험에 관한 조사

본 설문은 「각색영화와 비판적 사고」 교과목의 학습 경험과 비판적 사고 역량 변화를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응답 내용은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개별 응답자가 식별되지 않도록 익명으로 처리됩니다. 정답이 없으므로 본인의 생각을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Ⅰ. 수업 운영 및 비판적 사고 역량에 관한 문항

다음 각 문항에 대해 본인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정도에 표시해 주십시오.

①	②	③	④	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문항	응답
1. 이 교과목의 수업 목표(각색영화를 활용하여 비판적 사고를 기르는 것)를 수업 초반에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2. 원작(소설·희곡) 소개와 각색 영화의 비중은 균형 있게 설계되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3. 수업에서 '줄거리 이해'와 '비판적 분석' 활동의 비율이 적절하게 배분되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4. 수업 난이도(텍스트 수준, 개념·이론 설명)는 나의 학업 수준에 대체로 적절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5. 교수자의 설명(강의, 예시, 질문 제시 등)은 영화와 원작을 비판적으로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6. 강의 자료는 수업 내용을 이해하고 정리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① ② ③ ④ ⑤
7. 수업 내용은 비판적 사고를 촉진하도록 잘 설계되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8. 과제와 수업활동은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끌어 주었다.	① ② ③ ④ ⑤

문항	응답
9. 과제의 양은 학기 중 학습 부담을 고려할 때 적절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10. 평가 방식은 수업 목표와 활동 내용을 공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느꼈다.	① ② ③ ④ ⑤
11. 이 교과목을 통해 '비판적 사고'의 의미와 구체적인 요소(분석, 평가, 추론 등)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2. 이 수업을 듣기 전보다,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등장인물의 행동이나 선택의 이면에 있는 가치·전제를 더 자주 생각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3. 이 수업을 듣기 전보다, 어떤 주장이나 해석을 접했을 때 그 근거의 타당성을 따져보는 습관이 강해졌다.	① ② ③ ④ ⑤
14. 이 수업을 통해, 하나의 사건이나 인물을 볼 때 여러 관점(계급, 젠더, 문화, 권력 등)에서 해석해 보려는 태도가 강화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5. 이 수업 이후, 영화·미디어 텍스트 속에 담긴 이데올로기(계급, 젠더, 인종, 권력 관계 등)를 인식하는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6. 이 수업에서 수행한 글쓰기 과제(감상문, 비교 분석 에세이 등)는 나의 논리적·비판적 글쓰기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7. 이 교과목에서 다룬 7편의 각색영화(피그말리온, 오만과 편견, 주홍글자, 가스등, 대부, 쇼생크 탈출, 위대한 개츠비)는 비판적 사고를 연습하기에 적절한 텍스트였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이 수업에서 익힌 비판적 사고 방식은 다른 교양·전공 수업에서 텍스트(논문, 기사, 보고서 등)를 읽고 해석할 때도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19. 이 수업에서 익힌 비판적 사고 방식은 일상생활에서 뉴스, 유튜브, SNS 등 미디어 콘텐츠를 볼 때도 유용하게 적용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0. 전체적으로 볼 때, 이 교과목은 나의 비판적 사고 역량(분석, 평가, 해석, 관점 전환 등)을 눈에 띄게 향상시켰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Ⅱ. 서술형 문항

다음 문항에 대해 본인의 경험과 생각을 자유롭게 서술해 주십시오.

21. 이 교과목을 수강하기 전, 본인이 생각하던 '비판적 사고'의 정의 또는 이미지와, 수강 후의 생각을 비교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22. 수업을 듣기 전과 비교했을 때, 영화를 보는 태도나 시선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예: 단순 감상 위주 → 구조·이데올로기 분석, 인물 이해 방식 변화 등)

23. 수업 활동(강의, 발표, 과제 등) 중에서 본인의 비판적 사고를 가장 많이 자극했다고 느낀 활동 1~2가지를 선정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24. 수업에서 다룬 7편의 작품(피그말리온, 오만과 편견, 주홍글자, 가스등, 대부, 쇼생크 탈출, 위대한 개츠비) 중, 본인의 비판적 사고 역량 향상에 특히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작품 1편을 선택하여 이유를 서술해 주십시오.

25. 『피그말리온』 관련 수업에서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토론 주제를 하나 제시하고, 그것이 계급·언어·정체성에 대해 어떤 비판적 질문을 던지게 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26. 『오만과 편견』 관련 수업에서, 성별 역할·계층·혼인 제도에 대한 본인의 기존 생각이 어떻게 도전받거나 확장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27. 『주홍글자』 관련 수업을 통해 '죄와 벌', '도덕과 낙인(스티그마)'에 대한 관점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인상적인 장면이나 인물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28. 『가스등』 관련 수업에서 '가스라이팅' 개념을 이해하게 된 과정과, 실제 인간관계나 사회적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인식·판단할 수 있을지 본인의 생각을 적어 주십시오.

29. 『대부』에서 특히 논쟁적이라고 느꼈던 장면이나 대사를 예로 들고, 그 장면/대사가 가족, 폭력, 권력에 대해 어떤 비판적 사유를 촉발했는지 서술해 주십시오.

30. 『쇼생크 탈출』에서 자유, 제도(체제), 희망, 연대에 대한 본인의 관점이 수업 전후 어떻게 달라졌는지, 구체적 장면을 들어 설명해 주십시오.

31. 『위대한 개츠비』를 통해 접한 '아메리칸 드림'과 성공 신화의 이면을, 오늘날 한국 사회(입시, 취업, 계급, 부동산 등) 현실과 연결하여 본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해 주십시오.

32. 이 교과목의 수업 구성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실제 학습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33. 수업 구성 또는 진행 방식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낀 점(수업 속도, 텍스트 분량, 평가 방식 등)이 있다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함께 제안해 주십시오.

34. 이 수업에서 비판적 사고 역량을 더 효과적으로 키우기 위해, 추가되었으면 하는 활동(예: 역할극, 장면 재구성, 동영상 제작, 온라인 토론 등)이 있다면 제안 이유와 함께 적어 주십시오.

35. 앞으로 이와 유사한 '각색영화와 비판적 사고' 교과목을 설계할 때,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요소(작품 선정, 수업 방식, 평가 요소 등)와 그 이유를 서술해 주십시오.

36. 이 수업에서의 경험이 향후 본인의 진로 선택, 직장 생활, 시민으로서의 사회 참여(사회 이슈에 대한 토론, 투표, 온라인 의견 표현 등)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자유롭게 적어 주십시오.

37. "영화를 활용한 비판적 사고 수업"이라는 관점에서, 이 교과목의 가장 큰 강점 1가지와 가장 큰 한계 1가지를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38. 교수자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강의 방식에 대한 피드백, 좋았던 점, 아쉬운 점, 향후 개선 제안 등)를 자유롭게 적어 주십시오.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https://doi.org/10.54698/kl.2026.21.545
지식과 교양, 제21호,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Knowledge and Liberal Arts, Vol. 21, LIC, pp.545-570.

4년제 대학생의 학적 이행경로 유형화 분석

최 정 아 · 한 현 석*

목 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연구의 방법
4. 연구의 결과
5. 결론 및 제언

1. 서론

대학생의 학적상태는 특정 시점의 재학 여부만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고등교육통계조사에 따르면 재적학생은 재학생, 휴학생, 학사학위 취득 유예생 등으로 구분되며, 휴학, 중도탈락, 편입 역시 별도의 학생변동 지표로 관리된다(한국교육개발원, 2025). 이는 대학생의 학적상태가 재학과 이탈의 이분법만으로 포착되기 어렵고, 휴학, 복귀, 이동, 중도이탈, 졸업유예 등 복수의 상태 변화로 구성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학적 변동을 어떻게 구분하고 해석할 것인가는 대학생의 학업 지속과 이행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과제가 된다.

* 최정아(제1저자) 강원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조교수
한현석(교신저자) 전북대학교 심리학과 부교수

국내에서도 대학생의 휴학, 학업중단, 학교이동 및 중도탈락 의도와 관련된 연구가 축적되어 왔다. 선행연구들은 대학생활 만족도와 학교이동 및 학업중단의 관계(김성식, 2008), 대학생 휴학의 영향요인(채재은, 2011; 주휘정·차성현, 2011), 휴학과 중퇴를 포함한 학업지속 및 중도탈락의 관련 요인(김수연, 2006), 학업중단 및 중도탈락 의도의 개인·대학 수준 요인(조장식, 2011; 정제영·선미숙·정민지, 2015; 강명희·이은경·이응택, 2019; 김영식·이호준, 2022)을 검토해 왔다. 다만 이러한 연구는 휴학 여부, 학업중단 여부, 학교이동 여부 또는 중도탈락 의도와 같은 개별 사건이나 특정 결과에 초점을 두어, 휴학 이후 복귀, 학교 이동 및 재학 지속이 이어지는 학적 이행의 차이를 충분히 구분하기 어렵다. 또한 휴학, 편입, 자퇴 및 제적 등의 포함 여부에 따라 학업중단의 조작적 정의가 상이하게 구성되어 왔다는 점에서(안혜주·이제경, 2025), 대학생의 학적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건의 발생 여부와 함께 여러 학적상태가 어떠한 순서와 양상으로 이어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교육고용패널Ⅱ(Korean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 Ⅱ : KEEP Ⅱ) 3차부터 8차 조사자료(W3-W8)를 활용하여 4년제 대학생의 학기 단위 학적상태를 바탕으로 학적 이행경로를 유형화하고, 경로유형별 분포와 관련 특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학적 이행경로의 유형을 확인하고, 성별, 대학소재지 및 전공계열에 따른 경로 분포 차이를 살펴본다. 또한 졸업시기 미확인 경로에서 초기 학업수행이 배경변수를 통제한 후 휴학 지속·누적 경로 여부와 어떠한 관련을 보이는지 검토하고, 8차 조사(W8) 시점에 확인된 졸업유예가 경로유형에 따라 어떠한 분포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졸업시기 미확인 경로는 관찰기간 내 조사자료상 졸업시기가 확인되지 않은 사례의 학적 이행경로를 의미하며, W8에서 관측된 졸업유예와는 구분하여 다룬다. 이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4년제 대학생의 W3-W8 학기 단위 학적상태 배열은 어떠

한 학적 이행경로와 세부유형으로 구분되는가?

연구문제 2. 학적 이행경로 유형은 성별, 대학소재지, 전공계열에 따라 어떠한 분포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3. 졸업시기 미확인 경로 가운데 초기 학업수행은 배경변수를 통제한 후 휴학 지속·누적 경로 여부와 어떠한 관련을 보이는가?

연구문제 4. 졸업시기 미확인 경로에서 8차 조사(W8) 졸업유예는 경로유형에 따라 어떠한 분포 차이를 보이는가?

2. 이론적 배경

1) 대학생 학적 이행의 경로적 접근

대학생의 학업 지속과 중단은 특정 시점의 재학 여부만으로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 Tinto(1975; 1993)는 대학생의 지속과 이탈을 입학 이전의 특성, 대학 내 학업·사회적 경험이 지속적으로 상호작용 한다고 설명하였다. Bean(1980) 역시 학생의 이탈이 개인의 배경, 학업 경험, 대학생활에 대한 태도 및 제도적 환경과 관련된 복합적 과정임을 제시하였다. 이후 고등교육 연구에서는 대학 재학 중 나타나는 학업수행, 교육과정 이수, 대학 경험 및 소속감의 변화가 학업 지속과 학위취득에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논의해 왔다(Pascarella & Terenzini, 2005; Wild & Heuling, 2020).

이러한 관점에서 대학생의 학적 이행은 재학, 휴학, 복학, 대학 또는 전공의 이동, 학업중단 및 졸업과 같은 상태가 시간적으로 이어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동일하게 휴학이나 대학 이동을 경험하더라도 그 발생 시점, 지속기간, 반복 여부 및 이후 상태에 따라 학생이 경험하는 교육과정은 달라질 수 있다. Wild and Heuling(2020)은 학생의 중도탈락과 재학 지속을 검토하면서, 대학 재학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태 변화와 그 시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Adelman(2006)은 대학 진학 이후의 이수 경험과 교육과정상 진전이 학위취득 경로를 설명하는 핵심

요소임을 제시함으로써, 대학생의 학업 과정을 단일 시점의 결과보다 누적된 이수와 전환의 흐름으로 이해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경로적 접근은 교육 및 노동시장 이행 연구에서 활용되어 왔다. 권혁진·유호선(2011)은 청년층의 교육, 직업훈련, 고용 및 비경제활동 상태를 시간적 배열로 분석하여, 이행과정이 개별 사건이 아니라 연속적인 상태로 구성됨을 보여주었다. 김성남·최수정(2012)은 청년기의 교육 및 노동시장 이행경로를 유형화하여 고교계열에 따른 경로 차이를 확인하였고, 박지애·남춘호(2015)는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이행에서 나타나는 직업경력 배열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KEEP Ⅱ 자료를 활용한 류지은·서예린(2023)의 연구 및 직업계고 졸업자의 진로이행을 시퀀스 분석으로 검토한 백예은·정혜원(2025)의 연구는 교육, 병역, 취업 및 미취업 상태가 상이한 순서와 지속기간으로 구성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대학생의 중도탈락과 관련된 연구는 중도탈락 이후의 이동 양상과 발생 시점에 주목해 왔다. 김수연(2012)은 대학 중도탈락 이후에도 상위 대학 진학, 비진학·미취업 상태의 지속, 취업 등 서로 다른 이동 경로가 나타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연보라·장희원(2015)은 중도탈락의 발생 시점이 입학 초기와 재학 3~4년 사이에 집중될 수 있음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학생의 학업중단과 이동이 단일한 사건으로 환원되기 어렵고, 이후의 이행 양상과 발생 시점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2) 휴학, 병역휴학, 편입 및 중도이탈의 제도적 이질성

대학생의 휴학은 일시적으로 재학을 중단하는 학적상태이지만, 휴학의 발생 배경과 학생이 경험하는 교육적 의미는 다양하다. 대학생은 진로탐색, 경제적 사정, 건강 문제, 학업 적응, 개인의 필요 및 역량 개발 등의 이유로 휴학을 선택할 수 있으며, 휴학 기간은 자기이해와 진로 탐색, 생활 재구성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채재은, 2011; 주휘정·차성현, 2011; 조은

원·김부경·배상훈, 2020). 따라서 휴학은 학업부적응이나 학업중단으로 해석되기보다, 학생의 대학생활과 진로 탐색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학적 경험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조은원·김부경·배상훈, 2020).

병역휴학은 일반휴학과 다른 제도적 성격을 지닌다. 병역휴학은 병역의무 이행과 결부된 학적상태로서 남성에게 비대칭적으로 발생하며, 교육 및 노동시장 이행에서도 진학, 취업, 미취업과 구분되는 독립적인 상태로 다루어져 왔다(김성남·최수정, 2012; 류지은·서예린, 2023). 군복무 이후의 학적 이행도 단일한 양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전은정(2025)은 군복무 후 복학한 재학생과 제적생을 구분하고, 제적생 가운데에서도 제대 직후 제적된 학생과 복학 후 추가 휴학을 거치며 제적된 학생들의 경우, 일반 학생들과 구별되는 차별화된 특성이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군복무 후 복학한 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경험을 다룬 연구에서도 학업, 대인관계 및 진로 영역에서의 재적응의 어려움이 나타난다고 보고되었다(노해림 외, 2015; 남경아·강경화·문성미, 2018; 박선미, 2023).

편입과 중도이탈 역시 최초 입학 대학에서의 재학 연속성을 변화시킨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교육적 의미는 다르다. 편입은 다른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이동이나 전공 및 교육환경의 재선택과 관련될 수 있는 반면, 중도이탈은 해당 대학에서의 학업을 중단하는 경험을 의미한다. 김성식(2008)은 대학생의 학교이동과 학업중단을 구분하여 분석하면서, 학교이동이 학업중단과 동일한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3) 휴학 경험의 누적과 초기 학업 수행

휴학의 반복과 누적은 학생이 진로, 건강, 경제적 여건, 학업 적응 및 개인적 상황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이후의 학업 이력은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다(조은원·김부경·배상훈, 2020; 조장식, 2014). 조장식(2014)은 대학생의 평균평점이 높을수록 재학기간 중 총 휴학학기 수가 적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고하였다. 또한 전은정(2025)은 군복무 후 복학

한 뒤 추가 휴학을 경험한 학생들 가운데 제적 집단의 누적 휴학 횟수가 재학생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음을 제시하였다. 우선영(2016)도 4년제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휴학 경험, 횟수 및 기간이 졸업 소요기간과 관련됨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휴학 경험의 횟수와 누적 양상이 학생의 학업 수행 및 재학·졸업 과정과 관련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대학 초기의 학업수행 또한 학업 지속과 교육과정 이수에 관련되는 주요한 학업 경험이다(Wild & Heuling, 2020). Adelman(2006)은 대학 진학 이후의 이수 경험과 교육과정상 진전이 학위취득 경로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제시하였다. Attewell et al.(2012)은 대학 초기의 이수 경험과 학업 진행 속도가 이후 학업 지속 및 학위취득과 관련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실제 중도탈락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낮은 평점평균과 높은 학사경고 횟수 등 학업 관련 특성이 관찰된 바 있다(정윤선·양정모, 2024). 초기 학업수행과 휴학 경험 사이의 관련성은 대학 초기의 학업 경험이 이후의 재학 지속, 휴학의 누적 및 학위취득 과정과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4) 졸업유예의 교육적 의미

대학 현장에서 졸업유예는 학위취득 시점을 늦추는 경험을 가리키며, 「고등교육법」은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마친 사람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학은 학사학위취득 유예생에게 학점 이수 등 수강을 의무화할 수 없다. 졸업유예는 취업 준비를 위한 시간 확보, 진로 탐색, 자격 취득 및 어학능력 향상과 같은 개인적 계획과 관련될 수 있으며, 학생이 대학의 제도를 이용하는 방식은 대학별 운영 조건과 개인의 진로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강경연·박숙경·이제경, 2015; 김지경·이상호·이성용, 2016).

졸업유예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과정과 관련하여 논의되어 왔다.

강경연·박숙경·이제경(2015)은 졸업유예 경험이 취업 준비뿐 아니라 대학에 대한 소속감과 졸업 이후 진로에 대한 인식과도 관련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김지경·이상호·이성용(2016)은 졸업유예가 취업 준비 기간을 확보하려는 선택과 연관될 수 있음을 보고하였고, 이전이·심우정(2021)은 졸업유예 경험자의 노동시장 성과가 대학 소재지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졸업유예는 단순한 재학기간 연장이 아니라 학위취득 시점의 조정, 취업 준비 및 노동시장 진입이 결합된 대학 재학 말기의 학적 경험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연구의 방법

1) 분석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교육고용패널Ⅱ(Korean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 Ⅱ: KEEPⅡ)의 3차부터 8차 조사자료(W3-W8)를 활용하였다. KEEPⅡ는 동일한 개인을 반복 추적하는 종단자료이며, 대학 진학 이후의 학적상태, 전공계열, 대학소재지, 평점, 휴학 사유, 졸업 관련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학적 이행의 순차적 양상을 분석할 수 있다.

분석대상은 4년제 대학생으로 한정하였다. 이를 위해 개인별 최초 관측값을 기준으로 입학유형이 신규입학이고 대학유형이 4년제 대학인 사례 4,774명을 선별하였다. 이후 W3-W8의 12개 학기 학적상태 배열을 구성하고, 편입 또는 중도이탈이 확인된 사례와 졸업시기가 확인된 사례는 유효 학적상태의 관측 학기 수와 관계없이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편입, 중도이탈 및 졸업시기가 확인되지 않은 사례는 W3-W8 기간 동안 유효 학적상태가 8학기 이상 관측된 경우에 한정하여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그 외 사례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3,849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확정하였다. 이 중 남성은 1,831명(47.57%), 여성은 2,018명(52.43%)이었다. 대학소재지는 비수도권 대학이 2,224명(57.80%), 수도권 대학이

1,624명(42.20%)이었으며, 대학소재지 결측은 1명이었다. 전공계열은 공학계열이 1,050명(27.37%)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계열 972명(25.34%), 예체능계열 469명(12.23%), 자연계열 445명(11.60%), 인문계열 427명(11.13%), 의약학계열 240명(6.26%), 교육계열 233명(6.07%) 순이었다. 전공계열 결측은 13명이었다. 최종 분석대상 가운데 W3-W4 초기 평점과 W3 가구소득이 유효하게 관측된 사례의 기술통계량은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최종 분석대상의 주요 연속변수 기술통계

변수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W3-W4 초기 평점	3,453	3.40	0.52	0.75	4.50
W3 가구소득 (월평균, 만원)	3,590	598.02	320.71	1.00	4,725.00

2) 주요 변수

(1) 학기 단위 학적상태 배열

본 연구는 W3-W8의 각 조사차수에서 1학기와 2학기 학적상태를 분리하여 총 12개 학기 단위 배열을 구성하였다. 각 학기 상태는 재학(ENR), 일반휴학(LOA), 병역휴학(MIL), 중도이탈(DROP), 편입(TRF), 결측 또는 해당없음(MISS)으로 재코딩하였다. 휴학 상태 중 휴학 사유가 병역인 경우는 병역휴학으로 구분하였고, 그 외의 휴학은 일반휴학으로 구분하였다. 8차 조사자료의 졸업유예는 재적 상태에서 학위취득 시점이 유예된 경우이므로, 학적상태 배열에서는 재학 계열 상태로 처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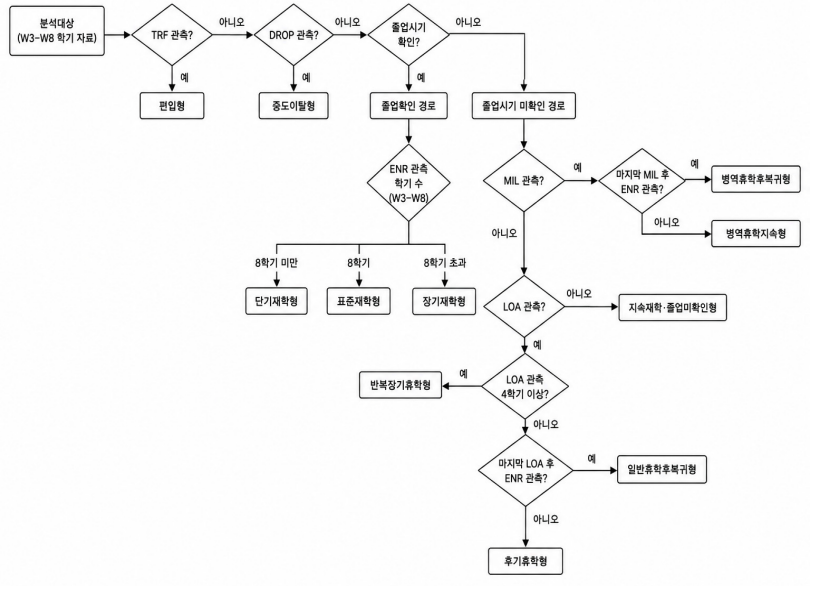
(2) 학적 이행경로 유형

학적 이행경로 유형은 학적상태 배열과 졸업시기 정보를 함께 활용하여 단계적으로 분류하였다. 전체 학적 이행경로 유형의 분류 절차는 [그림 1]에 제시하였다.먼저 W3-W8 기간 중 편입이 관측된 사례를 편입형으로 분류하고, 편입이 관측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이탈이 관측된 사례를 중

도이탈형으로 분류하였다. 편입형과 중도이탈형으로 분류되지 않은 사례는 졸업시기 확인 여부에 따라 졸업시기 확인 경로와 관찰기간 내 졸업시기 미확인 경로로 구분하였다.

졸업시기 확인 경로는 졸업시기가 확인된 사례를 대상으로, W3-W8 학적상태 배열에서 관측된 재학(ENR) 학기 수를 기준으로 세분화하였다. 재학 관측학기 수가 8학기 미만인 경우는 단기재학형, 8학기인 경우는 표준재학형, 8학기를 초과한 경우는 장기재학형으로 분류하였다.

졸업시기 미확인 경로는 W3-W8 기간 동안 졸업시기가 확인되지 않은 학생을 대상으로 세분화하였다. 병역휴학이 1학기 이상 관측되고 마지막 병역휴학 이후 재학 상태가 확인된 경우는 병역휴학후복귀형, 병역휴학이 관측되었으나 마지막 병역휴학 이후 재학 상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는 병역휴학지속형으로 구분하였다. 병역휴학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휴학의 학기 수와 마지막 일반휴학 이후 재학 상태의 확인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그림 1] 학적 이행경로 유형 분류 절차

일반휴학이 1-3학기 관측되고 마지막 일반휴학 이후 재학 상태가 확인된 경우는 일반휴학후복귀형, 일반휴학이 4학기 이상 관측된 경우는 반복장기휴학형, 일반휴학이 1-3학기 관측되었으나 마지막 일반 휴학 이후 재학 상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는 후기휴학형으로 분류하였다. 휴학, 편입, 중도이탈이 관측되지 않고 재학 상태가 8학기 이상 관측되었으나 졸업시기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는 지속재학·졸업 미확인형으로 정의하였다. 졸업시기 미확인 경로는 W3-W8의 관찰기간 동안 조사자료상 졸업시기가 확인되지 않은 학적 이행경로를 의미하며, 실제 미졸업, 중도이탈 또는 졸업유예를 의미하지 않는다.

(3) 8차 조사(W8) 졸업유예

졸업유예는 W8의 1학기 또는 2학기 학적상태에서 졸업유예가 관측된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으로 코딩하였다. W8 졸업유예 분석은 졸업시기 미확인 경로에 속한 사례로 제한하였다. 졸업시기 확인 경로는 졸업시기가 확인된 사례이며, 이탈·이동 경로는 편입 또는 중도이탈이라는 별도의 학적 이행이 확인된 사례이므로 해당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 변수는 W8의 1학기 또는 2학기에 졸업유예 상태가 관측되었는지를 나타내며, 졸업유예가 시작된 시점이나 이후 지속 여부는 반영하지 않는다.

(4) 배경변수 및 통제변수

배경변수로는 성별, 대학소재지, 전공계열 및 가구소득을 사용하였다. 성별은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였고, 대학소재지는 수도권 대학 여부로 코딩하였다. 전공계열은 인문계열, 사회계열, 교육계열, 공학계열, 자연계열, 의약학계열 및 예체능계열로 구분하였다. 가구소득은 학적상태 배열의 시작 시점과 동일한 W3에서 조사된 아버지와 어머니의 월평균 소득을 합산하여 산출하였다. 가구소득은 분포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기 위해 자연로그 변환값을 회귀분석에 투입하였다. 대학 초기 학업수행은 W3-W4 초기 평점으로 측정하였다. W3과 W4의 1학기 및 2학기 평점 가운데 유효하게 관측된 값을 평균하여 산출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W3-W8의 12개 학기 단위 학적상태 배열을 구성하고, 배열 내 학적상태의 발생 여부, 반복 여부, 마지막 휴학 이후 재학상태의 확인 여부, 졸업시기 확인 여부를 기준으로 학적 이행경로 유형을 분류하였다. 이후 각 경로유형의 빈도와 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학적 이행경로 유형에 따른 배경변수 분포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과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성별, 대학소재지, 전공계열과 경로유형 간 관련성을 카이제곱 검정으로 분석하였으며 Cramér's V를 함께 제시하였다.

셋째, 졸업시기 미확인 경로 가운데 초기 학업수행이 휴학 지속·누적 경로 여부와 어떠한 관련을 보이는지 검토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성별, 대학소재지, 전공계열 및 가구소득은 초기 학업수행과 휴학 지속·누적 경로의 관련성을 조정하기 위한 통제변수로 포함하였고, 모형 적합도는 Nagelkerke R^2로 제시하였다.

휴학 지속·누적 경로는 마지막 병역휴학 또는 일반휴학 이후 학교로의 복귀가 확인되지 않은 경로와 일반휴학이 4학기 이상 반복적으로 누적된 경로를 포함한다. 이 분석의 종속변수는 W8 졸업유예와 별도로 구성하였다. 종속변수의 코딩은 다음과 같다.

- 휴학 지속·누적 경로(1 코딩): 병역휴학지속형, 반복장기휴학형, 후기휴학형
- 재학 지속·복귀 경로(0 코딩): 병역휴학후복귀형, 일반휴학후복귀형, 지속재학·졸업미확인형

넷째, 졸업시기 미확인 경로 내부에서 경로유형별 W8 졸업유예의 빈도와 비율을 제시하고, 경로유형과 W8 졸업유예 여부의 관련성을 카이제곱 검정으로 분석하였다. 효과크기는 Cramér's V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은 Python 3.13.9 환경에서 수행하였다.

4. 연구의 결과

1) 학기 단위 학적상태 배열과 학적 이행경로 분포

최종 분석대상 3,849명을 대상으로 W3-W8 학기 단위 학적상태 배열과 졸업시기 정보를 결합하여 학적 이행경로를 분류하였다. 먼저 편입 또는 중도이탈이 관측된 사례는 이탈·이동 경로로 구분하였다. 이후 나머지 사례는 졸업시기 확인 여부에 따라 졸업시기 확인 경로와 졸업시기 미확인 경로로 분류하였다. 분석 결과, 졸업시기 확인 경로는 1,816명(47.18%), 졸업시기 미확인 경로는 1,798명(46.71%), 이탈·이동 경로는 235명(6.11%)으로 나타났다.

[표 1] 학적 이행경로 대분류 및 세부유형의 분류기준과 분포

경로유형	분류기준	n	%
졸업시기 확인			
단기재학형	W3-W8 배열에서 ENR이 8학기 미만 관측된 경우	556	14.45
표준재학형	W3-W8 배열에서 ENR이 8학기 관측된 경우	1,029	26.73
장기재학형	W3-W8 배열에서 ENR이 8학기를 초과하여 관측된 경우	231	6.00
졸업시기 미확인			
병역휴학후복귀형	MIL 1학기 이상 관측, 마지막 MIL 이후 ENR 재관측	1,108	28.79
병역휴학지속형	MIL 1학기 이상 관측, 마지막 MIL 이후 ENR 미관측	124	3.22
일반휴학후복귀형	LOA 1-3학기 관측, 마지막 LOA 이후 ENR 재관측	223	5.79
반복장기휴학형	MIL 없이 LOA 4학기 이상 관측	187	4.86
후기휴학형	LOA 1-3학기 관측, 마지막 LOA 이후 ENR 미관측	37	0.96
지속재학·졸업미확인형	LOA, MIL없이 ENR 8학기 이상 관측	119	3.09
이탈·이동			
편입형	W3-W8 중 TRF 1회 이상 관측	104	2.70
중도이탈형	TRF 없이 DROP 1회 이상 관측	131	3.40
	합계	3,849	100.00

주. ENR=재학, LOA=일반휴학, MIL=병역휴학, TRF=편입, DROP=중도이탈을 의미한다.

2) 경로유형과 배경변수의 관련성

학적 이행경로 유형에 따른 배경변수의 분포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성별, 대학소재지, 전공계열과의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경로 대분류는 성별과 유의한 관련을 보였다($\chi^2(2)=947.40$, $p<.001$, Cramér's $V=.496$). 세부 경로유형 수준에서도 성별과의 관련성은 유의하였다($\chi^2(10)=2187.36$, $p<.001$, Cramér's $V=.754$). 이러한 차이는 주로 병역휴학 관련 경로에서 두드러졌다. 병역휴학후복귀형은 남성이 1,106명(99.82%)이었고, 병역휴학지속형은 남성이 124명(100.00%)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휴학후복귀형, 반복장기휴학형, 후기휴학형, 지속재학·졸업미확인형에서는 각 경로 내 여성 비율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학소재지에 따른 분포 차이도 확인되었다. 경로 대분류와 수도권 여부의 관련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chi^2(2)=22.82$, $p<.001$, Cramér's $V=.077$). 세부 경로유형과 수도권 여부의 관련성도 유의하였다($\chi^2(10)=104.92$, $p<.001$, Cramér's $V=.165$). 수도권 대학 비율은 일반휴학후복귀형(60.99%), 후기휴학형(59.46%), 반복장기휴학형(55.08%), 지속재학·졸업미확인형(54.62%)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중도이탈형(28.24%)과 편입형(32.69%)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2] 학적 이행경로 유형별 성별 및 대학소재지 분포

경로유형	남성	여성	비수도권	수도권
졸업시기 확인				
단기재학형	193(34.71)	363(65.29)	298(53.60)	258(46.40)
표준재학형	163(15.84)	866(84.16)	664(64.59)	364(35.41)
장기재학형	36(15.58)	195(84.42)	115(49.78)	116(50.22)
졸업시기 미확인				
병역휴학후 복귀형	1,106(99.82)	2(0.18)	673(60.74)	435(39.26)
병역휴학 지속형	124(100.00)	0(0.00)	70(56.45)	54(43.55)

일반휴학후 복귀형	21(9.42)	202(90.58)	87(39.01)	136(60.99)
반복 장기휴학형	26(13.90)	161(86.10)	84(44.92)	103(55.08)
후기휴학형	3(8.11)	34(91.89)	15(40.54)	22(59.46)
지속재학·졸업 미확인형	22(18.49)	97(81.51)	54(45.38)	65(54.62)
이탈·이동				
편입형	56(53.85)	48(46.15)	70(67.31)	34(32.69)
중도이탈형	81(61.83)	50(38.17)	94(71.76)	37(28.24)
합계	1,831 (47.57)	2,018 (52.43)	2,224 (57.80)	1,624 (42.20)

주. 괄호 안의 백분율은 각 경로유형 내 비율(row %)임. 대학소재지 결측 1명은 비수도권·수도권 비율 산출에서 제외하였음.

전공계열에 따라서도 학적 이행경로의 분포가 달랐다. 경로 대분류와 전공계열 간 관련성은 유의하였고($\chi^2(12)=254.77$, $p<.001$, Cramér's V=.182), 세부 경로유형과 전공계열 간 관련성도 유의하였다($\chi^2(60)=663.37$, $p<.001$, Cramér's V=.170). 병역휴학후복귀형과 병역휴학지속형에서는 공학계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일반휴학후복귀형, 반복장기휴학형, 후기휴학형에서는 사회계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 학적 이행경로 유형별 배경변수 분포

경로유형	공학	교육	사회	예체능	의약학	인문	자연
졸업시기 확인							
단기 재학형	126 (22.70)	26 (4.68)	134 (24.14)	106 (19.10)	34 (6.13)	67 (12.07)	62 (11.17)
표준 재학형	166 (16.18)	142 (13.84)	235 (22.90)	138 (13.45)	125 (12.18)	105 (10.23)	115 (11.21)
장기 재학형	48 (20.78)	11 (4.76)	76 (32.90)	20 (8.66)	8 (3.46)	41 (17.75)	27 (11.69)
졸업시기 미확인							
병역휴학	508	22	249	80	40	92	116

후복귀형	(45.89)	(1.99)	(22.49)	(7.23)	(3.61)	(8.31)	(10.48)
병역휴학 지속형	49 (39.84)	3 (2.44)	35 (28.46)	13 (10.57)	1 (0.81)	5 (4.07)	17 (13.82)
일반휴학 후복귀형	38 (17.19)	11 (4.98)	73 (33.03)	28 (12.67)	4 (1.81)	43 (19.46)	24 (10.86)
반복장기 휴학형	22 (11.83)	7 (3.76)	66 (35.48)	15 (8.06)	2 (1.08)	43 (23.12)	31 (16.67)
후기 휴학형	4 (10.81)	2 (5.41)	16 (43.24)	7 (18.92)	1 (2.70)	4 (10.81)	3 (8.11)
지속재학 ·졸업미 확인형	24 (20.87)	3 (2.61)	24 (20.87)	28 (24.35)	13 (11.30)	8 (6.96)	15 (13.04)
이탈·이동							
편입형	31 (29.81)	2 (1.92)	25 (24.04)	12 (11.54)	4 (3.85)	6 (5.77)	24 (23.08)
중도 이탈형	34 (25.95)	4 (3.05)	39 (29.77)	22 (16.79)	8 (6.11)	13 (9.92)	11 (8.40)
합계	1,050 (27.37)	233 (6.07)	972 (25.34)	469 (12.23)	240 (6.26)	427 (11.13)	445 (11.60)

주. 괄호 안의 백분율은 각 경로유형 내 비율(row %)임. 전공계열 결측 13명은 표에서 제외하였음.

3) 초기 학업수행과 휴학 지속·누적 경로의 관련성

졸업시기 미확인 경로 가운데 초기 학업수행이 휴학 지속·누적 경로 여부와 어떠한 관련을 보이는지 검토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성별, 대학소재지, 전공계열 및 가구소득은 초기 학업수행과 휴학 지속·누적 경로의 관련성을 조정하기 위한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종속변수는 병역휴학지속형, 반복장기휴학형 및 후기휴학형을 휴학 지속·누적 경로(1)로, 병역휴학후복귀형, 일반휴학후복귀형 및 지속재학·졸업미확인형을 재학 지속·복귀 경로(0)로 코딩하여 구성하였다.

분석에는 성별, 대학소재지, 전공계열, W3-W4 초기 평점 및 W3 로그 가구소득에 결측이 없는 1,225명이 포함되었다. 이 중 휴학 지속·누적 경로에 해당하는 사례는 254명(20.73%), 재학 지속·복귀 경로에 해당하는

사례는 971명(79.27%)이었다.

분석 결과, W3-W4 초기 평점은 휴학 지속·누적 경로와 유의한 부적 관련을 보였다(OR=0.66, 95% CI [0.50, 0.87], p=.003). 즉, 졸업시기 미확인 경로에 속한 학생들 사이에서 초기 평점이 높을수록 병역휴학지속형, 반복장기휴학형, 후기휴학형과 같은 휴학 지속·누적 경로에 속할 오즈가 낮게 나타났다.

통제변수의 경우, 여성은 남성보다 휴학 지속·누적 경로에 속할 오즈가 높게 나타났으며(OR=4.76, 95% CI [3.44, 6.58], p<.001), 전공계열에서는 사회계열에 비해 공학계열(OR=0.59, 95% CI [0.40, 0.87], p=.008)과 의약학계열(OR=0.07, 95% CI [0.01, 0.55], p=.011)의 오즈가 낮게 나타났다. 반면 수도권 대학 여부(OR=1.14, 95% CI [0.85, 1.54], p=.377)와 W3 로그 가구소득(OR=1.11, 95% CI [0.84, 1.46], p=.467)은 휴학 지속·누적 경로 여부와 유의한 관련을 보이지 않았다. 모형의 Nagelkerke R^2는 .172였다.

[표 4] 졸업시기 미확인 경로 내부 휴학 지속·누적 경로 로지스틱 회귀분석

변수	OR	95% CI	p
W3-W4 초기 평점	0.66	[0.50, 0.87]	0.003
수도권 대학	1.14	[0.85, 1.54]	0.377
여성	4.76	[3.44, 6.58]	<.001
인문계열	0.77	[0.48, 1.24]	0.286
교육계열	0.50	[0.19, 1.33]	0.163
공학계열	0.59	[0.40, 0.87]	0.008
자연계열	0.87	[0.54, 1.41]	0.576
의약학계열	0.07	[0.01, 0.55]	0.011
예체능계열	0.68	[0.40, 1.16]	0.158
로그 가구소득	1.11	[0.84, 1.46]	0.467

주. 종속변수는 휴학 지속·누적 경로 여부이며, 병역휴학지속형, 반복장기휴학형, 후기휴학형은 1로, 병역휴학후복귀형, 일반휴학후복귀형, 지속재학·졸업미확인형은 0으로 코딩하였음. 기준범주는 성별의 경우 남성, 대학소재지의 경우 비수도권 대학, 전공계열의 경우 사회계열임.

4) 졸업시기 미확인 경로의 W8 졸업유예 분포

W8 졸업유예는 졸업시기 확인 경로와 이탈·이동 경로를 제외한 졸업시기 미확인 경로에 속한 1,798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졸업시기 미확인 경로 내부에서 W8 졸업유예가 관측된 사례는 89명(4.95%)이었다. 경로유형별로는 일반휴학후복귀형에서 졸업유예 비율이 20.63%(46명)로 가장 높았고, 지속재학·졸업미확인형 11.76%(14명), 반복장기휴학형 4.81%(9명), 병역휴학후복귀형 1.81%(20명) 순으로 나타났다. 병역휴학지속형과 후기휴학형에서는 W8 졸업유예가 관측되지 않았다. 졸업시기 미확인 경로유형과 W8 졸업유예 간 관련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chi^2(5)=159.93$, $p<.001$, Cramér's V=.298).

[표 5] 졸업시기 미확인 경로유형별 W8 졸업유예 분포

경로유형	비졸업유예	졸업유예	합계
병역휴학후복귀형	1,088(98.19)	20(1.81)	1,108(61.62)
병역휴학지속형	124(100.00)	0(0.00)	124(6.90)
일반휴학후복귀형	177(79.37)	46(20.63)	223(12.40)
반복장기휴학형	178(95.19)	9(4.81)	187(10.40)
후기휴학형	37(100.00)	0(0.00)	37(2.06)
지속재학·졸업미확인형	105(88.24)	14(11.76)	119(6.62)
합계	1,709(95.05)	89(4.95)	1,798 (100.00)

주. 괄호 안의 백분율은 비졸업유예 및 졸업유예 열에서는 각 경로유형 내 비율(row %)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4년제 대학생의 학적 이행이 단일 시점의 재학 여부나 중도 이탈 여부만으로는 그 맥락을 충분히 포착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특히 졸업시기 미확인 경로 내부에서도 병역휴학과 일반휴학의 유형, 휴학의 누적 및 이후 재학상태의 확인 여부에 따라 상이한 양상이 나타났

다. 이는 대학생의 학적 이행에서 휴학, 복귀, 이동 및 졸업시기 확인이 서로 결합된 과정으로 나타남을 보여준다.

졸업시기 미확인 경로 내부의 이질성은 병역휴학 관련 경로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병역휴학후복귀형은 졸업시기 미확인 경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전체 세부 경로유형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 유형은 남성에게 거의 집중되어 나타났으며, 이는 병역휴학이 일반휴학과 구분되는 제도적 학적 사건임을 보여준다. 대학소재지와 전공계열에 따라서도 경로유형의 분포 차이가 나타났으며, 학적 이행경로가 대학소재지와 전공계열에 따라 상이하게 분포함을 확인하였다.

대학 초기의 학업수행을 나타내는 초기 평점이 높을수록 졸업시기 미확인 경로 내부에서 휴학 지속·누적 경로에 속할 오즈는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초기 학업수행이 이후 휴학의 지속과 누적을 포함한 학적 이행과 관련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우선영(2016)의 낮은 성적과 휴학 경험의 횟수 및 기간이 졸업 소요기간의 장기화와 관련된다는 결과를 지지한다.

한편 성별은 회귀모형에서 초기 학업수행과 휴학 지속·누적 경로의 관련성을 조정하기 위한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여성의 휴학 지속·누적 경로 소속 오즈가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이는 여성의 일반적 학적이행 위험으로 해석하기보다 재학 지속·복귀 경로에 병역휴학후복귀형이 대규모로 포함되고 해당 유형이 남성에게 집중된 경로 구성의 차이와 함께 해석할 필요가 있다.

통제변수로 포함한 전공계열에서도 일부 차이가 나타났다. 사회계열과 비교할 때 공학계열과 의약학계열은 휴학 지속·누적 경로에 속할 오즈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전공계열이 휴학과 관련된 학업적 특성으로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 선행연구와도 연결된다(주휘정·차성현, 2011). 다만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정의 구성, 필수 이수요건, 진로 준비 방식 및 학생 구성과 같은 계열별 조건을 직접 측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결과는 전공계열의 고유한 효과로 단정하기보다 사회계열과 비교한 상대적 관련성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W8 졸업유예는 전체 졸업시기 미확인 경로의 4.95%에서 관측되었으나, 일반휴학후복귀형과 지속재학·졸업미확인형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병역휴학후복귀형에서는 낮게 나타났다. 이는 졸업시기 미확인 경로가 곧바로 졸업유예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졸업유예의 분포 역시 학적 이행경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특히 병역휴학후복귀형의 낮은 졸업유예 비율은 이 경로가 W8 졸업유예와는 구분되는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학적 이행의 시간적 조정 양상과 관련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의 학적관리와 학생지원이 휴학 여부 자체보다 휴학 이후의 이행 양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특히 대학 초기 학업수행이 낮은 학생에게서 이후 휴학 지속·누적 경로로 소속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관찰된 만큼, 입학 초기 학업 적응의 어려움이 확인된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상담, 교과목 이수 지원, 전공·진로 상담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병역휴학과 일반휴학은 휴학 이후의 복귀 및 졸업시기 조정 양상에서 차이를 보였으므로, 휴학 사유와 누적 여부, 복학 이후의 재학상태를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반복적 일반휴학 또는 휴학 후 복귀가 확인되지 않는 학생에게는 복학 안내, 학업계획 점검, 진로·경제·심리 지원 자원과의 연계를 제공하는 방식의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할 때 다음의 자료 및 분석상의 제한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졸업시기 미확인 경로는 W3-W8의 12개 학기 가운데 8개 이상에서 유효한 학적상태가 관측된 사례를 대상으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분석에서 제외된 사례의 학적 이행양상은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을 수 있다. 또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주요 변수에 결측이 없는 사례를 대상으로 수행하였으므로, 모형별 분석대상은 전체 경로분포와 다를 수 있다. 둘째, 경로유형은 연구목적에 따라 사전 정의한 규칙을 적용하여 분류하

였다. 이 방식은 병역휴학, 일반휴학, 편입, 중도이탈 및 졸업시기 확인 여부처럼 제도적 의미가 다른 학적 사건을 구분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남성에게 집중되는 병역 휴학 및 복귀 경로는 재학 기간을 연장시켜 관찰 기간 내 졸업 시점이 확인되지 않는 자료의 우측 절단(right-censoring)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성별에 따른 분석 결과를 해석할 때 군 복무로 인한 시간적 지연 효과를 유의해야 한다. 후속 연구에서는 병역휴학 이후의 복귀와 졸업 이행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W8 이후에 발생한 졸업, 복학, 재휴학 또는 중도이탈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후속 차수 자료를 연계하여 각 경로의 이후 이행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넷째, W8 졸업유예는 특정 시점의 상태이므로 졸업유예의 발생 시점, 지속기간 및 이후 이행을 분석하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후 차수 자료를 연계하여 졸업유예의 발생과 지속, 졸업 및 노동시장 이행으로의 연결 양상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김지경·이상호·이성용, 『대학생 졸업유예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6.

한국교육개발원, 『2025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고등교육통계』,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25.

Adelman, Clifford, *The Toolbox Revisited: Paths to Degree Completion from High School Through College*,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Education, 2006.

Pascarella, Ernest T. & Patrick T. Terenzini, *How College Affects Students: A Third Decade of Research*, vol. 2, San Francisco: Jossey-Bass, 2005.

Tinto, Vincent, *Leaving College: Rethinking the Causes and Cures of Student Attrition*, 2nd 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3.

논문

강경연·박숙경·이제경, 「대학생 졸업유예 경험에 대한 질적 분석」, 『직업교육연구』 34권 2호, 한국직업교육학회, 2015, 31-51쪽.

강명희·이은경·이응택, 「대학생의 중도탈락의도의 변화 추이와 영향 요인」, 『청소년문화포럼』 58호,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2019, 5-30쪽.

권혁진·유호선, 「청년층의 학교에서 고용으로의 이행 특성: 성·학력별 이행과정의 차이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제38권 제1호,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1, 1-31쪽.

김성남·최수정, 「청년기의 교육 및 노동시장 이행 경로 유형화: 고교계열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직업교육연구』 31권 3호, 한국직업교육학회, 2012, 227-249쪽.

김성식, 「대학생들의 학업중단 및 학교이동에 대한 탐색적 분석: 대학선택요인과 대학생활 만족도의 영향」, 『한국교육』 35권 1호, 한국교육개발원, 2008, 227-249쪽.

김수연, 「대학생의 학업지속과 중도탈락 요인 분석」, 『한국교육』 33권 4호, 한국

교육개발원, 2006, 33-62쪽.
김수연, 「대학 중도탈락생의 이동 경로 구조 분석」, 『교육과학연구』 43권 3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 2012, 131-163쪽.
김영식·이호준, 「대학의 학생 지원에 대한 학생 만족도와 학업중단 간의 관계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31권 2호,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22, 33-61쪽.
남경아·강경화·문성미, 「군 복무 후 복학한 남자 간호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경험」,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4권 4호, 한국간호교육학회, 2018, 315-325쪽.
노해림·김희경·박승희·양지연·이우재·전지혜·조민경·심은정, 「군 복무 후 복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 경험에 대한 혼합적 연구: 학업, 대인관계, 진로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6권 4호, 한국상담학회, 2015, 621-642쪽.
류지은·서예린,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졸업자의 노동시장 이행 경로 유형 비교」, 『직업능력개발연구』 제26권 제2호, 한국직업능력연구원, 2023, 93-125쪽.
박선미, 「군 복무 후 복학한 2년제 대학생의 학업적응에 관한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24권 1호,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2023, 147-163쪽.
박지애·남춘호, 「학교-직장 이행과정의 직업경력 배열분석: 출신학교 소재지별 차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학』 16권 3호, 지역사회학회, 2015, 149-189쪽.
백예은·정혜원, 「직업계고 졸업자의 진로이행과정 유형 및 주요 예측 변인 탐색: 시퀀스 분석과 설명가능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조사연구』 26권 2호, 한국조사연구학회, 2025, 21-60쪽.
안혜주·이제경, 「국내 대학생의 학업중단 연구동향과 시사점」, 『청소년학연구』 32권 3호, 한국청소년학회, 2025, 389-420쪽.
연보라·장희원, 「대학생의 중도탈락 시기 및 영향요인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25권 1호, 한국교육사회학회, 2015, 129-155쪽.
우선영, 「4년제 대학생의 졸업 소요기간에 대한 영향 요인 검증」, 『교육행정학연구』 34권 4호, 한국교육행정학회, 2016, 73-97쪽.
이전이·심우정, 「졸업유예는 누구에게 기회가 되는가?: 대학 소재지에 따른 노동시장 성과 비교 분석」, 『한국교육학연구』 27권 4호, 안암교육학회, 2021, 181-207쪽.
전은정, 「대학생의 군 복무 이후 제적 시점별 특성」, 『사회과학리뷰』 10권 3호, K

교육연구학회, 2025, 129-146쪽.
정윤선·양정모, 「대학생의 중도탈락 의도 및 실제 중도탈락 여부, 재입학 여부에 따른 집단별 특성 탐색 연구: G 국립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대학 교수-학습 연구』 17권 1호, 대학교육개발센터협의회, 2024, 33-60쪽.
정제영·선미숙·정민지, 「대학생의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수준 요인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16권 4호,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2015, 57-76쪽.
조은원·김부경·배상훈, 「대학생의 휴학 중 경험에 대한 사례연구」, 『아시아교육연구』 21권 1호,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2020, 125-154쪽.
조장식, 「대학생의 학업중단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자료분석학회지』 13권 4호, 한국자료분석학회, 2011, 1873-1880쪽.
조장식, 「휴학학기 수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 『한국자료분석학회지』 16권 1호, 한국자료분석학회, 2014, 201-210쪽.
주휘정·차성현, 「대학생의 휴학 결정 요인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9권 1호, 한국교육행정학회, 2011, 277-293쪽.
채재은, 「대학생들의 휴학 요인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9권 1호, 한국교육행정학회, 2011, 295-317쪽.
Attewell, Paul, Scott Heil, & Liza Reisel, “What Is Academic Momentum? And Does It Matter?”, *Educational Evaluation and Policy Analysis*, vol. 34, no. 1,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2012, pp.27-44.
Bean, John P., “Dropouts and Turnover: The Synthesis and Test of a Causal Model of Student Attrition”,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vol. 12, no. 2, Springer, 1980, pp.155-187.
Tinto, Vincent, “Dropout from Higher Education: A Theoretical Synthesis of Recent Research”,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vol. 45, no. 1,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1975, pp.89-125.
Wild, Steffen, & Lydia Schulze Heuling, “Student Dropout and Retention: An Event History Analysis Among Students in Cooperative Higher Edu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 104, Elsevier, 2020, Article 101687.

국문초록

본 연구는 4년제 대학생의 학적상태 변화를 학기 단위 배열로 구성하고, 규칙 기반 경로유형화를 통해 학적 이행경로의 구조와 분포를 분석하였다. 한국교육고용패널Ⅱ 3차부터 8차 조사자료(W3-W8)를 활용하여 4년제 대학생 3,849명을 대상으로 W3-W8의 1학기와 2학기 학적상태를 구분한 12개 학기 배열을 구성하였다. 학적상태는 재학, 일반휴학, 병역휴학, 편입 및 중도이탈 등으로 재코딩하였으며, 편입 또는 중도이탈 여부, 졸업시기 확인 여부, 휴학의 유형과 누적, 마지막 휴학 이후 재학상태의 확인 여부를 기준으로 학적 이행경로를 분류하였다. 분석 결과, 졸업시기 확인 경로는 47.18%, 졸업시기 미확인 경로는 46.71%, 이탈·이동 경로는 6.11%로 나타났다. 졸업시기 미확인 경로 내부에서는 병역휴학후복귀형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병역휴학 관련 경로는 남성에게 집중되어 나타났다. 초기 평점이 높을수록 휴학 지속·누적 경로에 속할 오즈는 낮게 나타났다. W8 졸업유예는 졸업시기 미확인 경로의 4.95%에서 관측되었으며, 일반휴학후복귀형과 지속재학·졸업미확인형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병역휴학후복귀형에서는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학적 이행을 재학 유지나 중도이탈 여부만으로 파악하기보다, 휴학의 제도적 성격과 누적, 복귀, 이동 및 졸업시기 확인이 결합되는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주제어 ● 학적 이행경로, 학적상태 배열, 초기 학업수행, 병역휴학, 졸업유예

Abstract

A Typology of Academic Status Trajectories among Students at Four-Year Universities

Choi, Jungah / Kangwon National University
Han, Hyunsuk / Jeonbuk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pplied a rule-based typology to 12-semester academic status sequences for 3,849 students at four-year universities using Waves 3–8 of the Korean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 II. Trajectories were classified by transfer or withdrawal, observed graduation timing, the type and recurrence of leave of absence, and enrollment status following the final leave episode. Trajectories with observed graduation timing accounted for 47.18% of the sample, whereas 46.71% had no observed graduation timing during the study period; exit or mobility trajectories accounted for 6.11%. Among students without observed graduation timing, military-leave-and-return was the most prevalent trajectory and was overwhelmingly concentrated among male students. Higher early grade point averages were associated with lower odds of belonging to trajectories characterized by sustained or recurrent leave. Graduation deferral at Wave 8 was observed among 4.95% of students without observed graduation timing and was relatively more prevalent among general-leave-and-return and continuing-enrollment trajectories than among military-leave-and-return trajectories.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academic status trajectories should be understood not only in terms of persistence or withdrawal, but also as institutionally structured sequences involving leave, return, mobility, and graduation timing.

Keyword ● academic status trajectories, semester-level status sequences, early academic performance, military leave, graduation deferral

▌논문투고일:2026.05.27. ▌심사완료일:2026.07.01. ▌게재확정일:2026.07.10. ▌

● ● ● https://doi.org/10.54698/kl.2026.21.571
지식과 교양, 제21호,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Knowledge and Liberal Arts, Vol. 21, LIC, pp.571-604.

정답을 의심하는 힘

: 생성형 AI 응답 유형 분류에 기반한 비판적 실천 학습 교수모형 개발

한 규 은 · 오 경 은*

목 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생성형 AI 응답 유형 분류 및 교수전략 설계 원리
4. 비판적 실천 학습 기반 교수모형 개발
5. 교육적 적용 및 평가 방안
6. 결론 및 제언

1. 서론

2022년 11월 ChatGPT의 공개 이후 생성형 인공지능은 대학 교육 현장에 전례 없는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학습자들은 과제나 문제에 직면했을 때 스스로 해결책을 탐색하는 대신 인공지능에 의존하여 답을 수용하는 방식에 빠르게 익숙해지고 있다. Baidoo-Anu와 Owusu Ansah는 ChatGPT가 개인화 학습 지원과 즉각적 피드백 제공 측면에서 유의미한 가능성을 지니는 동시에, 비판적 사고와 심층 학습을 저해하는 이중적 위험을 내포한다고 지적한다.[1] 이는 고등교육의 근본적 목적인 능동적 사

* 한규은 (제1저자) 상명대학교 계당교양교육원 조교수
오경은(교신저자) 상명대학교 계당교양교육원 조교수

고력과 문제해결 역량의 함양을 위협하는 새로운 도전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지식의 단순 습득을 넘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자체를 학습의 본질로 삼아온 기존의 교수학습 패러다임이 인공지능 환경 속에서 그 전제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문제는 기술 수용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학습의 본질에 관한 이론적 쟁점이될 수 있다. Revans가 제창한 Action Learning은 실제 문제를 팀 기반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판적 질문과 성찰을 핵심 학습 기제로 삼는다. 그 교육적 가치는 해결책의 도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탐색하는 과정 안에서 학습이 발생한다는 전제 위에 성립한다. 그러나 생성형 인공지능이 즉각적이고 정교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환경에서 학습자가 그 결과물을 비판 없이 수용한다면, Action Learning이 본래 전제해온 과정적 학습의 가치는 그 토대를 잃게 된다.

그렇다면 생성형 인공지능 환경에서 Action Learning의 교육적 가치를 어떻게 보존하고, 나아가 재구성할 것인가? 본 연구는 이 물음에 대한 응답으로, 인공지능의 산출물을 학습의 종착점이 아닌 출발점으로 재설정하는 교수설계 패러다임을 제안한다. 이는 인간과 인공지능이 각자의 강점을 상호보완적으로 결합하는 협력적 교수-학습 모델을 모색하는 논의와 맥을 같이한다.[2] 학습자가 인공지능의 산출물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그 논리적 구조와 전제를 검토하며, 이를 실제 맥락에 맞게 재구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Action Learning의 새로운 학습 사이클로 재개념화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인공지능은 학습자의 비판적 사고를 촉발하는 인지적 자극원으로 기능한다. 아울러 Sweller의 인지부하이론에서 강조하는 본질적 인지부하는, 인공지능 산출물에 대한 능동적 분석과 재구성 활

1) David Baidoo-Anu & Leticia Owusu Ansah, "Education in the Era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AI): Understanding the Potential Benefits of ChatGPT in Promoting Teaching and Learning" *Journal of AI*, vol. 7, no. 1, 2023, pp.52-62.

2) 한규은·오경은, 「AI 시대의 '상생적 창의성': 인간-AI 협력적 교수-학습 모델 설계」, 『지식과 교양』 제20호, 2026, 175-197쪽.

동에서 오히려 적절히 확보될 수 있다.[3)]

이러한 설계 원리를 구체화하기 위해, 본 연구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응답이 단일한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한다. 인공지능은 상황과 질문의 성격에 따라 하나의 해답을 확신 있게 제시하는 확정형, 추론 과정을 단계적으로 노출하는 추론 노출형, 복수의 대안을 병렬적으로 나열하는 다안 제시형 등 상이한 응답 유형을 산출한다. 각 유형은 학습자에게 요구하는 비판적 사고의 성격과 깊이가 다르며, 이에 따라 요구되는 교수전략 역시 달라진다. 본 연구는 특정 인공지능 모델에 종속되지 않으면서도 구체적인 교수설계 원리를 도출하기 위해, 이 응답 유형 분류를 교수모형 설계의 핵심 변수로 설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Action Learning의 이론적 원리와 인지부하이론을 토대로 생성형 인공지능 환경에서 과정적 학습 효과가 약화되는 메커니즘을 규명하였다. 둘째, 생성형 인공지능의 응답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에 대응하는 학습자의 비판적 분석 활동과 Action Learning 교수전략의 결합 원리를 도출하였다. 셋째, 이 원리들을 통합하여 대학 교양 및 전공 수업에 적용 가능한 비판적 실천 학습 기반 교수모형과 과정 중심 평가 루브릭을 설계하였다. 본 연구는 생성형 AI를 단순히 금지하거나 무제한 허용하는 접근을 넘어, AI 산출물을 비판적 분석과 문제 재구성의 자료로 활용하는 교수설계 원리를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2. 이론적 배경

1) Action Learning의 이론적 원리와 생성형 인공지능 환경에서의 도전

Action Learning은 Revans가 제창한 교수학습 이론으로, 실제 현장

3) John Sweller, “Cognitive Load During Problem Solving: Effects on Learning”, *Cognitive Science*, vol. 12, no. 2, 1988, pp.257-285.

에서 발생하는 비구조화된 문제를 팀이 함께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실질적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전제에 기반한다.[4] 그 핵심 공식은 L = P + Q로 압축된다. 여기서 L은 학습, P는 기존에 축적된 지식, Q는 비판적 질문을 의미한다. Revans가 강조한 것은 P, 즉 이미 알려진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Q로 표상되는 질문 행위 자체가 학습의 본질이라는 점이다.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 행위보다 문제를 다시 바라보고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역량이 학습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Marquardt는 이를 발전시켜 Action Learning의 여섯 가지 구성 요소로 문제, 팀, 질문과 성찰, 실행 의지, 학습 의지, 퍼실리테이터를 제시하였다.[5] 이 구성 요소들은 상호의존적으로 작동하며, 특히 질문과 성찰의 순환이 Action Learning을 단순한 문제해결 활동과 구분 짓는 핵심 기제로 기능한다. 학습자는 문제에 직면하여 스스로 질문을 구성하고, 팀 내 상호작용에서 다양한 관점을 교차시키며, 그 충돌 속에서 사고를 심화시킨다. 이 충돌과 마찰이 Action Learning의 학습 동력이다. 본 연구는 이 마찰 구조를 '역동적 긴장'으로 개념화하고, AI 환경에서 그것이 어떻게 재설계될 수 있는가를 3절에서 구체화할 것이다.

그러나 생성형 인공지능의 확산은 이 순환 구조에 근본적인 균열을 가져온다. 인공지능은 학습자가 질문을 구성하기도 전에 정교한 답을 제시하며, 팀 내 토론이 시작되기 전에 복수의 해결방안을 나열한다. 학습자는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가설을 세우며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는 대신, 인공지능이 제공한 해결방안을 선택하고 조합하는 수동적 소비자로 전락할 위험에 처할 수 있다. 그 결과 Action Learning이 전제해온 질문-부딪힘-성찰의 순환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단순히 학습 도구의 변화가 아니라 Action Learning의 이론적 전제를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될 수 있다.

---

4) Reginald W. Revans, *Action Learning: New Techniques for Managers*, London: Blond & Briggs, 1980, pp.14-30.

5) Michael J. Marquardt, *Action Learning in Action,* Palo Alto: Davies-Black, 1999, pp.23-40.

2) 인지부하이론과 생성형 인공지능 의존 학습의 문제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인지부하이론의 관점에서 더욱 명확히 진단된다. Sweller는 인간의 작업 기억 용량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출발하여 학습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지부하를 이론화하였으며,[6] 이후 Paas, Renkl, Sweller는 이를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내재적 인지부하는 학습 내용 자체의 복잡성에서 비롯되고, 외재적 인지부하는 불필요한 정보 제시 방식에서 비롯되며, 본질적 인지부하는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지식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하로 학습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7]

이 세 가지 구분은 생성형 인공지능 의존 학습의 문제를 진단하는 데 유효한 분석 틀을 제공한다. 인공지능은 방대한 정보를 정리하고 구조화하여 제공함으로써 외재적 인지부하를 효과적으로 낮춘다. 외재적 인지부하의 감소는 학습을 용이하게 하는 측면이 있으나, 학습자가 AI 산출물을 검토 없이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으로 의존할 때, 본질적 인지부하 역시 함께 약화될 위험이 발생한다. 학습자가 스스로 가설을 세우고 오류를 경험하며 개념을 재구성하는 인지적 과정 없이 완성된 답을 수용할 때, 표면적 이해는 가능하더라도 작업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이어지는 도식 형성은 제한된다. 이러한 진단은 최근의 실증 연구에 의해 뒷받침된다. Zhai 등은 AI 대화 시스템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학습자의 비판적 사고력·의사결정 능력·분석적 추론 역량을 유의미하게 저해함을 확인하였다.[8]

AI 의존적 수동 수용 방식에서 발생하는 본질적 인지부하의 약화를 역전하는 것, 그것이 본 연구가 제안하는 비판적 분석 활동의 핵심 설계 목적이다. 인공지능의 산출물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논리 구조

6) Sweller, op. cit., pp.257-285.

7) Fred Paas, Alexander Renkl, & John Sweller, "Cognitive Load Theory and Instructional Design: Recent Developments", *Educational Psychologist*, vol. 38, no. 1, 2003, pp.1-4.

8) Chunpeng Zhai, Santoso Wibowo, & Lily D. Li, "The Effects of Over-Reliance on AI Dialogue Systems on Students' Cognitive Abilities: A Systematic Review", *Smart Learning Environments*, vol. 11, no. 1, 2024, Article 28.

를 분석하고 전제를 검토하며 대안을 구성하는 과정은, 인공지능에 의해 약화된 본질적 인지부하를 의도적으로 복원하는 교수설계 전략으로 기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공지능은 학습의 대리인이 아니라, 학습자의 비판적 사고를 촉발하는 인지적 자극원으로 재설계될 수 있다. 물론 AI 응답의 오류를 식별하고 전제를 역추적하는 과정에서 외재적 인지부하가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이를 통제하기 위해 본 교수모형은 교수자의 퍼실리테이터 역할과 유형별 분석 활동 체계를 교수설계 안에 명시적으로 구조화하였다. 이 구조 안에서 발생하는 인지적 저항은 혼란이 아니라, 심층 학습을 유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계된 인지적 자극으로 기능할 수 있다.

3)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학습 관련 선행연구 검토

앞서 제기한 문제의식은 최근의 선행연구들에 의해 실증적으로 뒷받침된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에 관한 논의는 2023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다. Kasneci 등은 대규모 언어 모델이 교육에 가져오는 기회와 도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인공지능이 개인 맞춤형 학습 지원과 즉각적 피드백 제공 측면에서는 유의미한 가능성을 지니나, 학습자의 비판적 사고 훈련과 심층 학습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주요 위험으로 지적하였다.[9] 이는 단순한 우려의 수준을 넘어, 인공지능 활용 교육의 설계 원리에 관한 근본적 질문을 제기한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인공지능 활용이 학습자의 질문 생성 능력과 자기주도적 문제 탐색 과정을 약화시킨다는 연구들이다. 학습자가 인공지능이 제시한 답을 검토하고 수정하기보다 그대로 활용하는 경향이 강할수록 메타인지 역량의 발달이 저해된다는 점은 여러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된다. 이는 Action Learning이 중시하는 질문과 성찰의 순환 구조가 인공지능 환경에서 의도적으로 설계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형성되기 어

9) Enkelejda Kasneci et al.,"ChatGPT for Good? On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of Large Language Models for Education", *Learning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 103, 2023, p.102274.

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결국 인공지능 그 자체보다 인공지능을 어떠한 방식으로 학습에 통합하는가, 즉 교수설계의 원리가 학습 성과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된다. 임철일 등은 ChatGPT를 RPISD 설계모형의 각 단계에 구조적으로 연동하는 활용 방안을 제안하면서, 교수자의 의도적 설계가 AI 활용의 교육적 효과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임을 보였다.[10] 윤가영·장선영은 ChatGPT 활용 과제를 지양 유형과 지향 유형으로 구분하여, 고차적 사고를 요구하는 과제에서만 AI 활용의 교육적 가치가 발현된다고 밝혔다.[11] 두 연구는 AI 활용 방식의 설계 원리가 학습 성과를 좌우한다는 명제의 실증적 근거가 된다. 이 명제야말로 본 연구의 교수모형이 출발하는 전제이기도 하다.

반면 인공지능을 학습자의 사고를 확장하는 도구로 활용하되, 인간의 판단과 성찰이 그 과정을 주도하는 협력적 학습 설계에서는 유의미한 학습 효과가 보고되고 있다. 한규은·오경은은 비고츠키의 근접발달영역 이론에 기반하여 인공지능을 학습자의 인지적 파트너로 재개념화하고, 인간의 문제 정의 능력과 인공지능의 정보 생성 능력을 상호보완적으로 결합하는 '상생적 창의성' 교수-학습 모델을 제안하였다.[12] 이 모델은 인공지능의 산출물을 수용의 대상이 아닌 비판적 검토와 재구성의 출발점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지향하는 교수설계 원리와 핵심적인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이상의 선행연구가 대체로 인공지능을 학습 지원 도구로 전제하고 그 활용 방식의 설계에 주목해 온 데 비해, 본 연구는 인공지능의 산출물 자체를 비판적 분석의 대상으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를 Action Learning의 이론적 틀과 결합하여, 인

10) 임철일·고보경·정예일·이은서·전민선·김승하, 「교수설계를 위한 생성형 AI 기반 챗봇의 활용 방안 탐색: ChatGPT와 RPISD모형을 중심으로」, 『교육공학연구』 제39권 특집호, 2023, 1213-1248쪽.

11) 윤가영·장선영, 「대학 수업에서 교수자의 생성형 AI 활용 가능성 탐색: 지양해야 할 과제와 지향해야 할 과제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25권 제2호, 2025, 463-480쪽.

12) 한규은·오경은, 앞의 글, pp.175-197.

공지능의 응답 유형에 따라 학습자의 비판적 분석 활동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교수모형 개발로 나아가고자 한다.

3. 생성형 인공지능 응답 유형 분류 및 교수전략 설계 원리

1) 생성형 인공지능 응답의 유형 분류

그렇다면 교수설계의 출발점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본 연구는 AI 응답 자체의 구조적 차이에서 그 단서를 찾는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응답은 단일한 방식으로 산출되지 않는다. 동일한 AI 도구를 활용하더라도 질문의 방식, 과제의 성격, 제시된 맥락, 요구되는 산출물의 형태에 따라 응답의 구조는 달라진다. 어떤 응답은 하나의 결론을 확신 있게 제시하고, 어떤 응답은 결론에 이르는 추론 과정을 단계적으로 드러내며, 또 다른 응답은 복수의 대안을 병렬적으로 나열한다. 이러한 구조적 차이는 단순한 표현 양식의 문제가 아니다. 응답의 구조가 달라지면 학습자가 그 응답을 검토하고 의심하고 재구성하는 방식 역시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성형 AI를 교수학습 상황에 의미 있게 통합하기 위해서는 AI가 무엇을 말했는가를 넘어, 어떤 구조로 말하고 있는가를 분석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AI 응답을 상호배타적인 고정 범주로 구획하기보다, 응답 텍스트에서 우세하게 나타나는 구조적 특성을 기준으로 분석적 유형을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결론의 단정성, 추론 과정의 가시성, 대안의 복수성이라는 세 가지 분류 기준을 도입하였다. 이 세 기준은 선험적으로 설정된 것이 아니라, 생성형 인공지능 응답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한 선행연구로부터 도출되었다. 결론의 단정성은 언어모델의 확률 최적화 경향에 관한 연구에, 추론 과정의 가시성은 프롬프트 구조와 추론 외화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 대안의 복수성은 인공지능의 역할 유형에 따른 인지적 과제의 차이에 관한 연구에 각각 근거한다. 결론의 단정성은 AI가 특정 답을 얼마나 확정적인 어조로 제시하는가를, 추론 과정의 가

시성은 결론에 도달하는 논리적 절차와 근거가 얼마나 명시적으로 드러나는가를, 대안의 복수성은 단일한 답이 아니라 여러 선택지나 해결방안이 함께 제시되는 정도를 각각 의미한다. 이 세 기준은 AI 응답이 학습자에게 부과하는 인지적 요구를 결론 수용, 논리 검토, 맥락 판단이라는 세 층위에서 각각 포착하기 위한 것으로, 단순한 형식적 분류 장치가 아니다. Paas와 동료들이 지적하듯, 학습자에게 부과되는 인지적 요구의 구조가 달라지면 그에 대응하는 교수설계 전략 역시 달라져야 하며,[13] 응답의 구조적 유형은 학습자가 AI 산출물을 처리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선행 조건으로 기능한다.

첫 번째 기준인 결론의 단정성은, 대형 언어모델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자신감 있는 출력을 산출하도록 훈련·평가되는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된다. Kalai와 동료들은 언어모델의 환각이 불가사의한 현상이 아니라, 불확실성을 인정하는 것보다 추측하는 쪽을 보상하는 훈련 및 평가 절차에서 기인하는 통계적 귀결임을 논증하였다.[14] 이 분석에 따르면 AI의 단정적 어조는 실제 신뢰도의 반영이 아니라 훈련 목적함수의 산물이다. 이러한 구조적 경향은 실제 행정 커뮤니케이션 분석을 통해서도 실증된다. 김응준은 GPT-4와 실제 공무원이 작성한 민원 답변 각 80건의 표현 전략을 비교 분석하였는데, GPT-4는 조건 설정과 단정 표현을 통해 규칙 기반의 확신적 응답을 생성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인간 공무원은 책임 회피 및 모호성 표현을 통해 판단을 유보하거나 외부화하는 방식을 취하였다.[15] 이 결과는 AI 응답의 단정성이 특정 도메인에 국한되지 않는 언어모델 고유의 확률 최적화 논리에서 비롯되는 구조적 특성임을 뒷받침한

13) Fred Paas, Alexander Renkl, & John Sweller, “Cognitive Load Theory and Instructional Design: Recent Developments”, *Educational Psychologist*, vol. 38, no. 1, 2003, pp.1-4.

14) Adam Tauman Kalai, Ofir Nachum, Santosh S. Vempala, & Edwin Zhang, “Why Language Models Hallucinate”, arXiv preprint, 2025. https://arxiv.org/abs/2509.04664

15) 김응준, 「생성형 AI와 실제 공무원의 민원 응답 비교: 표현 전략 분석을 통한 책임 가능성 설계 논의」, 『한국정책학회보』 제34권 제4호, 2025, 111-140쪽.

다. 문제는 학습자가 이 단정적 어조를 내용의 정확성이나 근거의 충분성으로 오인할 경우다. Zhai와 동료들은 AI 대화 시스템에 대한 과의존이 학습자의 비판적 사고, 문제해결 능력, 기억 등 핵심 인지 역량을 실질적으로 저하시킴을 보였다.[16] 이는 AI 응답의 단정성이 초래하는 위험이 단순한 오개념 수용에 그치지 않고, 학습자의 인지적 역량 자체를 장기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결론의 단정성은 학습자가 AI 산출물에 비판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포착하는 기준으로 기능한다.

두 번째 기준인 추론 과정의 가시성은, AI가 특정 조건 하에서 추론의 중간 단계를 텍스트로 외화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렇게 외화된 추론이 반드시 논리적으로 타당하지는 않다는 간극에 근거한다. White 등은 프롬프트의 구조적 패턴에 따라 AI가 단계별 분석과 논리적 절차를 명시적으로 전개하는 방식으로 응답하게 할 수 있음을 분석하였다.[17] 그러나 Kalai 등이 논증하듯, 언어모델의 출력은 논리적 정합성이 아니라 통계적 확률에 의해 생성되므로 단계적 전개의 외양이 논리적 타당성을 담보하지는 않는다.[18] 추론의 각 단계 사이에는 숨겨진 전제, 논리적 비약, 과도한 일반화, 맥락의 누락이 내포될 수 있다. 이 간극, 즉 추론의 형식적 구조와 실제 정합성 사이의 불일치야말로 학습자가 분석해야 할 핵심 지점이다. 나아가 Jin과 Rho는 AI가 설명 과정을 명시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이 사용자의 의사결정 성과와 AI 의존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을 실험적으로 검증하였는데, 이는 AI 설명의 구조적 특성이 학습자의 인지적 참여 방식 자체를 조건 짓는 변인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19] Paas 등의 관점에서

16) Zhai et al., op. cit.

17) Jules White, Quesh Fu, Sam Hays, Michael Sandborn, Carlos Olea, Henry Gilbert, Ashraf Elnashar, Jesse Spencer-Smith, & Douglas C. Schmidt, “A Prompt Pattern Catalog to Enhance Prompt Engineering with ChatGPT”, arXiv preprint, 2023. https://arxiv.org/abs/2302.11382

18) Kalai et al., op. cit.

19) Sol Jin & Sangkyu Rho, “Effects of AI Explanations on Human-AI Collaboration:

보면, 단계적 추론의 외화는 학습자에게 새로운 형태의 인지적 과제를 부과한다.[20] 학습자는 각 단계 간의 연결이 타당한지, 암묵적 전제가 무엇인지, 결론을 무효화하는 조건은 무엇인지를 능동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활동은 AI의 설명을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 그 논리 구조를 분석하는 메타인지적 역량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세 번째 기준인 대안의 복수성은 AI가 수행하는 역할의 다양성과 관련된다. Ma 등은 AI가 단순 추천자 역할을 넘어 분석자 또는 반론 제기자의 역할을 수행할 때 과제 성과와 의존도의 적절성이 달라지며, 각 역할이 학습자의 비판적 사고에 미치는 영향 역시 상이함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21] 이 결과는 AI가 복수의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이 단일 추천을 제공하는 방식과 질적으로 상이한 인지적 과제를 학습자에게 부과함을 시사한다. 아울러 White와 동료들은 프롬프트의 구조에 따라 AI가 복수의 대안을 병렬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이 체계적으로 유도될 수 있음을 보였다.[22] 이는 대안의 병렬적 제시가 우연적 현상이 아니라 교수자의 의도적 설계에 의해 조건화될 수 있는 응답 양식임을 의미한다.

결국 동일한 AI 도구라도 어떤 구조의 프롬프트를 설계하느냐에 따라 학습자에게 제시되는 응답 유형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응답 유형의 분류가 AI 기술의 속성 기술에 그치지 않고 교수설계의 능동적 실천과 직결됨을 보여 준다. 이상의 논거는 세 가지 분류 기준이 각각 상이한 비판적 개입을 요구함을 보여 준다. 이 차이를 교수설계 수준에서 체계화하기 위해, 본 연구는 생성형 AI의 응답 유형을 확정형, 추론 노출형, 다안 제시형으로 구분하였다. 다만 이 세 유형은 실제 응답에서 언제나 명확히 분리되

An Experimental Study on Decision Performance and Reliance", *Seoul Journal of Business,* vol. 31, no. 2, 2025, pp.67-99.

20) Paas et al., op. cit., pp.1-4.

21) Shuai Ma, Chenyi Zhang, Xinru Wang, Xiaojuan Ma, & Ming Yin, "Beyond Recommender: An Exploratory Study of the Effects of Different AI Roles in AI-Assisted Decision Making", arXiv preprint, 2024. https://arxiv.org/abs/2403.01791

22) White et al., op. cit.

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AI는 단계적 추론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여러 대안을 병렬적으로 나열할 수도 있고, 하나의 결론을 단정적으로 제시하면서도 부분적으로 근거를 설명하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유형 분류는 실제 응답을 기계적으로 구획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수설계 과정에서 학습자의 분석 활동을 조직하기 위한 개념적 틀로 기능한다. 교수자는 응답에서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구조를 기준으로 1차 분석 활동을 배치하고, 중첩된 구조적 요소는 2차 분석의 지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유형의 판정은 앞서 제시한 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 단정적 종결이 우세하고 대안이나 단서 조건이 드러나지 않으면 확정형으로, 단계의 표지와 근거에서 결론으로 이어지는 연결이 명시적으로 전개되면 추론 노출형으로, 둘 이상의 선택지가 병렬적으로 제시되고 선택의 판단이 학습자에게 남겨지면 다안 제시형으로 볼 수 있다. 이때 판정의 목적은 응답을 하나의 범주에 가두는 데 있지 않고, 어떤 분석 활동을 우선 배치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분류는 특정 AI 제품의 기술적 속성에 종속되지 않으며, 다양한 생성형 AI 도구에 적용 가능한 범용적 교수설계 원리로 기능한다.

첫째, 확정형 응답은 하나의 결론을 확신 있는 어조로 제시하는 유형이다. 대안적 가능성이나 반론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채 특정 답이 완결된 해답처럼 서술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명료함이 오히려 무비판적 수용의 가능성을 높인다. 앞서 살펴보았듯, 이 단정적 어조는 AI가 실제로 정확하기 때문이 아니라 언어모델의 확률 최적화 논리에서 구조적으로 비롯되는 것이며,[23] 과의존이 지속될 경우 학습자의 인지적 역량 자체가 약화될 수 있다.[24] 따라서 확정형 응답에서 핵심적인 학습 활동은 AI가 제시한 결론의 근거를 역추적하고, 그 결론이 성립하지 않는 조건이나 반례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결론을 그대로 수용하는 대신,

23) 김응준, 앞의 글, 111-140쪽.
24) Zhai et al., op. cit.

그 타당성과 적용 범위, 한계를 비판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둘째, 추론 노출형 응답은 결론에 이르는 사고 과정과 논리적 절차를 단계적으로 드러내는 유형이다. 표면적으로는 설명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단계적 서술이 반드시 논리적 타당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언어모델이 통계적 확률에 기반하여 텍스트를 생성하는 이상, 단계 사이에는 숨겨진 전제, 논리적 비약, 과도한 일반화, 맥락의 누락이 내포될 수 있다.[25] 따라서 추론 노출형 응답에서는 AI가 제시한 결론보다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 자체가 분석의 주된 대상이 된다. 학습자는 추론 단계를 도식화하고, 각 단계 간의 연결이 타당한지 검토하며, 결론을 가능하게 하는 암묵적 전제를 명시화하는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AI의 설명을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 그 논리 구조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도록 요구한다는 점에서, 메타인지적 역량 개발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셋째, 다안 제시형 응답은 하나의 문제에 대해 복수의 대안이나 해결방안을 병렬적으로 제시하는 유형이다.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학습자에게 유용한 출발점이 되지만, 각 대안의 우선순위와 맥락 적합성을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과제를 동시에 남긴다. AI가 복수의 대안을 제시한다고 해서 그것들이 모두 동등한 타당성, 실행 가능성, 교육적 적합성을 지니는 것은 아니며, AI의 역할 방식에 따라 각 대안의 성격과 신뢰도가 달라질 수 있다.[26] 따라서 다안 제시형 응답에서는 단순 비교를 넘어, 실제 문제 맥락에 비추어 각 대안의 장단점, 실행 조건, 예상 결과를 검토하는 활동이 요구된다. 학습자는 어떤 방안을 선택할 것인지, 그리고 왜 그것이 해당 맥락에서 가장 적절한지를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설명해야 한다. 이 과정은 Action Learning이 강조하는 실행 지향적 의사결정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이와 같이 세 가지 응답 유형은 각각 상이한 비판적 개입 방식을 요구한

25) Kalai et al., op. cit.
26) Ma et al., op. cit.

다. 세 유형은 결론의 단정성, 추론 과정의 가시성, 대안의 복수성이라는 서로 다른 기준에서 도출되며, 이에 따라 확정형 응답은 결론의 근거와 한계를 의심하게 하고, 추론 노출형 응답은 논리 구조와 전제를 분석하게 하며, 다안 제시형 응답은 맥락에 따른 판단과 선택의 근거를 구성하게 한다. 이러한 점에서 AI 응답 유형의 분류는 응답 양식을 구분하기 위한 절차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학습자가 AI 산출물에 어떤 방식으로 개입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교수설계의 핵심 출발점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유형 분류를 토대로, 다음 절에서 각 응답 유형에 대응하는 학습자 비판·분석 활동과 Action Learning 교수전략의 결합 방안을 구체화한다.

2) 유형별 학습자 비판·분석 활동 설계

Bjork는 단기적으로 수행을 저해하더라도 장기적 학습을 촉진하는 조건을 바람직한 어려움으로 개념화하고, 인지적 저항이 심층 학습을 이끄는 핵심 조건임을 제시하였다.[27] 이 점에서 인공지능 산출물에 대한 비판적 분석 활동은 Bjork가 제시한 바람직한 어려움을 교수설계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

각 응답 유형에 따른 분석 활동은 다음과 같이 구조화된다. 확정형 응답에 대해서는 근거 역추적과 반례 구성 활동이 핵심이다. 학습자는 인공지능이 제시한 결론의 근거를 역으로 추론하고, 그 결론이 성립하지 않는 조건이나 사례를 탐색한다. 이 과정은 단순히 인공지능의 오류를 찾는 것이 아니라, 결론의 적용 범위와 한계를 스스로 사유하는 훈련이다. 팀 토론에서 각자가 구성한 반례를 교차시키면, 인공지능의 답을 매개로 Action Learning의 비판적 질문 구조가 자연스럽게 재현된다. 추론 노출형 응답에 대해서는 논리 구조 분석과 전제 검토 활동이 적합하다. 학습자는 인공지능이 드러낸 추론 단계를 도식화하고, 각 단계 사이의 논리적 연결이 타

27) Robert A. Bjork, "Memory and Metamemory Considerations in the Training of Human Beings", in Janet Metcalfe and Arthur Shimamura (Eds.), *Metacognition: Knowing about Knowing*, Cambridge, MA: MIT Press, 1994, pp.185-205.

당한지를 검토하며, 결론을 가능하게 하는 숨겨진 전제를 명시화한다. 이는 논증 구조에 대한 메타인지적 분석 역량을 기르는 동시에, 인공지능의 사고 패턴이 내포한 편향을 식별하는 훈련으로 기능한다. 다안 제시형 응답에 대해서는 맥락 기반 우선순위화와 선택 근거 구성 활동이 요구된다. 학습자는 인공지능이 제시한 대안들을 실제 맥락에 비추어 평가하고, 각 대안의 실행 가능성과 한계를 논의하며, 팀 차원에서 최적안을 선택하고 그 근거를 논리적으로 구성한다. 이 과정은 Action Learning이 지향하는 실행 지향적 의사결정과 가장 긴밀하게 맞닿아 있다. 각 응답 유형에 따른 분석 활동의 성격과 함양되는 Action Learning 연계 역량을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인공지능 응답 유형별 학습자 분석 활동 및 Action Learning 연계 역량

응답 유형	핵심 분석 활동	Action Learning 연계 역량
확정형	근거 역추적, 반례 구성, 편향 식별	비판적 질문 생성
추론 노출형	논리 구조 도식화, 전제 명시화, 오류 탐지	메타인지적 성찰
다안 제시형	맥락 기반 비교, 우선순위화, 선택 근거 구성	실행 지향적 의사결정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응답 유형이 달라질수록 학습자에게 요구되는 인지적 활동의 성격도 달라진다. 확정형은 비판적 질문을, 추론 노출형은 메타인지적 분석을, 다안 제시형은 맥락 기반 의사결정을 각각 핵심 역량으로 요구한다. 이 세 역량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으며, 수업 설계에 따라 하나의 활동 안에서 순환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유형의 응답을 활용하든 학습자가 인공지능의 산출물을 출발점으로 삼아 스스로 사고를 전개하는 구조가 교수설계 차원에서 명시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3) Action Learning의 역동적 구조와 인공지능 응답 유형의 결합 원리

앞서 논의한 인공지능 응답 유형과 분석 활동의 대응 구조는 단순한 활동 목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Action Learning의 핵심 역동을 재구성하는 설계 원리로 기능할 수 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Action Learning에서 비판적 질문이 어떤 조건에서 촉발되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Revans가 강조한 비판적 질문은 저절로 촉발되지 않는다. 질문은 기존의 사고와 새로운 자극 사이의 긴장에서, 즉 학습자가 익숙하게 받아들여온 것이 흔들리는 순간에 비롯된다. 전통적 Action Learning에서 이 긴장은 팀 내 구성원 간의 관점 차이와 현실 문제의 복잡성이 그 원천이었다.

반면 생성형 인공지능 환경에서는 이 긴장의 원천이 인공지능의 응답 그 자체로 전환될 수 있다. 인공지능이 제시한 해결방안은 학습자의 직관적 판단과 어긋나거나, 팀 구성원들 사이에 상이한 해석을 낳거나, 실제 맥락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간극을 드러내기도 한다. 본 연구가 핵심 개념으로 제안하는 역동적 긴장은 이 어긋남과 간극에서 비롯된다. 앞서 제시한 세 가지 응답 유형은 각각의 방식으로 이 긴장을 촉발하는 구조적 조건으로 기능하며, 교수자는 학습자가 인공지능의 답으로 섣불리 수렴하지 않도록 이 긴장이 충분히 유지되는 가운데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퍼실리테이터로서 의도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 AI 응답은 학습자가 그대로 수용해야 할 답안이 아니라, 팀이 검토하고 반박하며 재구성해야 할 일차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학습자가 인공지능의 응답을 분석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Action Learning의 핵심 역량, 즉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힘은 오히려 더 선명하게 발현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설계 원리를 구체화한 교수모형의 전체 구조를 제시할 것이다.

4. 비판적 실천 학습 기반 교수모형 개발

1) 설계 원리 및 개념적 프레임워크

본 연구가 제안하는 교수모형은 생성형 인공지능 환경에서 Action Learning의 핵심 역동을 재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모형은 다음의 과정을 거쳐 도출되었다. 먼저 2장에서 인공지능 의존 학습이 과정적 학습을 약화시키는 메커니즘을 진단하고, 이로부터 아래의 세 가지 설계 원리를 도출하였으며, 다시 이 원리를 4단계 순환 구조로 구체화하였다. 세 가지 설계 원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공지능 산출물은 학습의 출발점이지 결론이 아니다. 인공지능이 제시한 해결방안은 그 자체로 완결된 답이 아니라, 학습자의 비판적 사고를 촉발하는 인지적 자극원으로 기능할 수 있다. 따라서 교수설계는 인공지능의 답으로 학습이 수렴되지 않도록, 분석과 재구성의 과정을 학습 사이클 안에 의도적으로 내장해야 한다.

둘째, 역동적 긴장은 설계되어야 한다. Action Learning에서 학습을 이끄는 것은 문제 그 자체가 아니라, 문제와 학습자 사이, 그리고 팀 구성원들 사이에서 빚어지는 관점의 충돌이다. 인공지능 환경에서 이 긴장은 저절로 형성되지 않는다. 인공지능의 응답 유형에 따라 적절한 분석 활동을 배치하고, 팀 토론에서 충돌이 지속될 수 있도록 교수자가 의도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순환성이 학습의 구조가 되어야 한다. Kolb는 구체적 경험, 성찰적 관찰, 추상적 개념화, 능동적 실험의 네 단계가 순환하는 경험학습 주기를 제시하며, 학습이 단선적 지식 전달이 아닌 순환적 경험의 변환 과정임을 밝혔다.[28] 본 연구의 교수모형은 이 순환성의 원리를 인공지능 연계 Action Learning의 맥락에서 재해석하여, 인공지능 활용–비판적 분석–

28) David A. Kolb, *Experiential Learning: Experience as the Source of Learning and Development*,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1984, pp.20–38.

재구성-맥락 적용의 순환 구조로 구체화하였다.

이 세 가지 설계 원리는 국내 Action Learning 연구에서 제시된 문제의 실제성, 러닝코치의 역할, 팀 상호작용 구조의 중요성과도 이론적으로 연결된다. 장경원은 대학 교육을 위한 Action Learning 프로그램에서 문제의 실제성, 러닝코치의 역할, 팀 상호작용 구조가 상호의존적으로 작동할 때 학습 효과가 온전히 발현된다는 점을 밝혔다.[29] 문제의 실제성은 AI 산출물을 출발점으로 삼는 설계 원리와 상응하고, 러닝코치의 역할은 역동적 긴장을 유지하는 퍼실리테이터 기능과 상응하며, 팀 상호작용 구조는 순환 학습 구조와 상응한다.

2) 교수모형의 단계별 구조

위의 설계 원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네 단계의 순환 구조로 이루어진 비판적 실천 학습 교수모형을 제안하였다. 각 단계는 학습자 활동, 교수자 역할, 인공지능 응답 유형 활용 방식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 네 단계는 Action Learning이 전제하는 문제 직면, 질문과 성찰, 실행, 재성찰의 학습 순환을 인공지능 환경에 맞추어 재구성한 것이다. 곧 인공지능 활용 단계는 문제 직면에, 비판적 분석 단계는 질문과 성찰에, 재구성 단계는 실행에, 맥락 적용 및 성찰 단계는 재성찰에 각각 대응한다.

1단계는 인공지능 활용 단계다. 학습자는 교수자가 제시한 실제 문제 상황에 대해 인공지능에게 해결방안을 요청하고 그 응답을 수집한다. 이 단계의 핵심은 학습자가 프롬프트를 설계하는 과정 자체에 있다. 어떤 방식으로 질문을 구성하는가에 따라 인공지능의 응답 유형이 달라지며, 이는 이후 분석 활동의 성격을 결정짓는다. 교수자는 학습자가 단순히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핵심 조건과 맥락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프롬프트를 구성하도록 안내한다. 예컨대 동일한 문제라도 결론을 한 문장

29) 장경원, 「대학교육을 위한 Action Learning 프로그램 설계모형 개발 연구」, 『교육공학연구』 제27권 제3호, 2011, 475-505쪽.

으로 제시해 달라는 단순 요청은 확정형 응답을, 가능한 해결방안을 복수로 제시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해 달라는 요청은 다안 제시형 응답을, 결론에 이르는 분석 단계를 순서대로 제시하고 각 단계의 근거를 밝혀 달라는 요청은 추론 노출형 응답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 교수자는 수업 목표에 부합하는 응답 유형이 산출되도록 프롬프트의 구조적 조건을 사전에 예시로 제공할 수 있다.

2단계는 비판적 분석 단계다. 학습자는 인공지능의 응답을 팀 단위로 분석한다. 앞서 제시한 응답 유형 분류에 따라 분석의 방향이 달라진다. 분석 활동에 앞서 교수자는 3절에서 제시한 세 기준, 곧 결론의 단정성, 추론 과정의 가시성, 대안의 복수성을 점검 항목으로 삼아 수집된 응답의 지배적 유형을 판정한다. 복수의 구조가 중첩된 응답은 지배적 구조를 1차 분석 대상으로, 부수적 구조를 2차 분석 지점으로 배치한다. 확정형 응답에 대해서는 근거를 역추적하고 반례를 탐색하며, 추론 노출형 응답에 대해서는 논리 구조를 도식화하고 전제를 명시화하며, 다안 제시형 응답에 대해서는 각 대안의 맥락 적합성을 비교한다. 팀 내에서 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분석 결과를 가져올 때, 그 불일치 자체가 비판적 질문의 원천이 될 수 있다. 교수자는 이 단계에서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전에 결론으로 수렴되지 않도록 팀 토론을 조율하는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수행한다.

3단계는 재구성 단계다. 학습자는 분석 활동에서 드러난 인공지능 응답의 한계와 간극을 바탕으로 자신들만의 대안적 해결방안을 구성한다. 이 단계는 단순히 인공지능의 답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분석 과정에서 발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새로운 논리 구조를 세우는 적극적 지식 구성 행위다. Marquardt가 강조한 Action Learning의 실행 의지는 이 단계에서 구체화된다.[30] 이 점은 국내 대학 교육 현장에서의 실증 연구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장경원·고수일은 성찰저널을 매개로 한 순환적 학습이 비판적 사고와 실행 역량을 동시에 강화함을 실증하였다.[31] 학습자가 스스

30) Marquardt, op. cit., pp.55-60.

로 구성한 해결방안은 인공지능의 답과 대비될 때 그 독자성과 의미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

4단계는 맥락 적용 및 성찰 단계다. 이 단계에서 학습자는 팀이 재구성한 해결방안을 실제 또는 모의 문제 상황에 적용한다. 중요한 것은 해결방안의 발표 자체가 아니라, 적용 과정에서 드러난 한계와 새로운 질문을 다시 학습 사이클로 환류시키는 것이다.

네 단계의 구조와 각 단계별 학습자 활동, 교수자 역할, 인공지능 응답 유형 활용 방식을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비판적 실천 학습 교수모형의 단계별 구조

단계	학습자 활동	교수자 역할	인공지능 응답 유형
1단계: 인공지능 활용	프롬프트 설계, 응답 수집	문제 맥락 제시, 프롬프트 설계 안내	유형 미확정 (응답 수집 단계)
2단계: 비판적 분석	근거 역추적, 논리 구조 분석, 대안 비교	팀 토론 퍼실리테이션, 조기 수렴 방지	유형별 분석 활동 연계
3단계: 재구성	대안적 해결방안 구성, 논리 구조 설계	논리적 완결성 코칭	비교 참조 자료로 활용
4단계: 맥락 적용 및 성찰	실제 적용, 과정 성찰, 메타인지 기록	성찰 질문 제공, 다음 순환 연결	성찰 비교 참조

<표 2>가 보여주듯이, 각 단계에서 인공지능은 지속적으로 존재하되 그 역할은 단계에 따라 달라진다. 1단계에서는 학습 재료의 공급원으로, 2단계에서는 비판의 대상으로, 3단계에서는 비교의 참조점으로, 4단계에서는 성찰의 준거로 기능할 수 있다. 응답 유형 분류는 응답이 수집된 이

31) 장경원·고수일, 「경영학 수업에서의 액션러닝 적용 사례연구: 성찰저널을 통한 효과성 분석을 중심으로」, 『교육공학연구』 제29권 제3호, 2013, 689-721쪽.

후인 2단계에서 비로소 작동하며, 판정된 유형에 따라 분석 활동의 방향이 결정된다. 1단계가 특정 유형에 한정되지 않는 것은 분류가 무의미하기 때문이 아니라, 유형이 확정되기 이전 단계이기 때문이다. 이 역할의 이동이 본 모형의 핵심 특징이다. 각 단계의 운영 시간과 평가 비중은 수업의 차시 구조에 따라 탄력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 분석이 조기에 수렴되지 않도록 1단계와 2단계에 충분한 시간을 배정하고, 평가 역시 결과물보다 단계별 과정에 분산하여 비판적 분석과 재구성 과정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두는 방식이 본 모형의 설계 의도에 부합한다. 단계별 평가 준거는 5장의 <표 3>과 연계된다.

3) 팀 기반 상호작용 구조와 인공지능 활용 가이드라인

Action Learning의 본질적 강점은 팀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관점의 충돌과 조율에 있다. 본 모형에서 팀 상호작용은 두 차원에서 작동한다. 첫 번째 차원은 학습자와 인공지능 사이의 상호작용이고, 두 번째 차원은 팀 구성원들 사이의 상호작용이다. 두 차원은 순차적이 아닌 동시적으로 작동하며, 인공지능의 응답은 팀 전체가 함께 다루는 토론의 출발점이자 분석 대상이 된다.

이러한 팀 상호작용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본 모형은 다음의 운영 원칙을 제안한다. 먼저 인공지능 응답을 팀 전체가 동시에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개별 학습자가 인공지능의 답을 사전에 수용하는 상황을 방지한다. 다음으로 분석 단계에서는 구성원 각자가 독립적으로 분석한 후 팀 토론에서 불일치를 드러내는 방식을 권장한다. 불일치는 해소되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비판적 질문을 촉발하는 토대이기 때문이다. 재구성 단계에서는 팀 전체의 단순 합의가 아닌, 논쟁적 타협의 결과물로서 해결방안이 도출되도록 유도한다.

한편 이러한 팀 운영 원칙은 인공지능 활용 방식에 관한 명시적 가이드라인과 함께 작동할 때 그 효과가 온전히 발휘될 수 있다. 학습자는 인공

지능의 응답을 팀 토론 이전에 결론으로 수용하지 않는다. 인공지능 활용 과정은 프롬프트 이력, 응답 내용, 분석 기록을 포함하는 포트폴리오 형태로 문서화한다. 인공지능의 기여 부분과 학습자 자신의 재구성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최종 산출물에 표기한다. 이 세 원칙은 인공지능 활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학습자가 인공지능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주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적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

5. 교육적 적용 및 평가 방안

1) 수업 운영 시나리오

본 연구가 제안하는 교수모형의 실제 적용 가능성을 구체화하기 위해, 교양 수업과 전공 수업 각각에 대한 운영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두 시나리오는 동일한 4단계 순환 구조를 따르되, 문제의 성격과 인공지능 응답 유형의 활용 방식을 달리하여 설계하였다.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 아래 두 시나리오는 각 서술 단락이 교수모형의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를 명시하고, 해당 단계에서 활용되는 응답 유형과 교수자의 개입 방식을 함께 제시한다. 인공지능 활용이 교양교육의 외연을 실질적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이미 선행 실천 사례에서 확인된 바 있다. 한규은·정재윤은 음악 전공 지식이 없는 학습자가 AI 작곡 도구를 매개로 실제 창작 과정을 경험하고 예술적 자기표현을 실현하는 교양 수업을 설계·적용하면서, 기술 융합이 교양교육의 체험적 학습 가능성을 확장함을 보여주었다.[32] 본 연구의 시나리오 설계 역시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되, 인공지능 산출물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재구성을 학습의 핵심 기제로 삼는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방향을 취한다.

32) 한규은·정재윤, 「AI 기반 예술창작 교양교육의 방향 모색: 심리학적 이해와 K-pop 제작의 결합」, 『지식과 교양』 제19호, 2025, 841-870쪽.

시나리오 1: 교양 수업 적용 — 현대사회와 의사결정

수업 주제는 인지 편향이 일상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으로 설정하였다. 1단계(인공지능 활용)에서 학습자 팀은 인공지능에게 일상생활에서 인지 편향이 나타나는 사례와 그 대처 방안을 복수로 제시해 달라고 요청하여 다안 제시형 응답을 유도한다. 인공지능은 확증 편향, 가용성 휴리스틱, 매몰비용 오류 등 여러 편향 유형과 각각의 교정 전략을 병렬적으로 나열한다.

2단계(비판적 분석)에서 팀은 인공지능이 제시한 각 방안이 어떤 인간관과 심리적 전제를 담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예컨대 인공지능이 제안하는 '판단을 늦추고 충분히 숙고하라'는 전략은, 인간이 시간과 정보만 충분히 주어지면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가정을 암묵적으로 품고 있다. 그 가정이 실제 압박 상황에서도 유효한가를 팀 안에서 따져보는 것이 이 단계의 핵심이다. 구성원들이 각자의 실제 경험을 근거로 서로 다른 반론을 제시할 때, 인공지능의 답은 논쟁의 출발점으로 기능할 수 있다.

3단계(재구성)에서 팀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특정 맥락, 이를테면 시험 직전의 학습자, 취업 면접을 앞둔 대학생, 중요한 소비 결정을 앞둔 성인 등의 구체적 상황에 맞는 독자적 대처 방안을 재구성한다. 인공지능이 제시한 일반론적 방안을 맥락에 맞게 수정하거나, 인공지능이 간과한 정서적 변수를 새롭게 도입하는 것이 이 단계의 과제다.

4단계(맥락 적용 및 성찰)에서 학습자들은 재구성한 방안을 팀 발표 형태로 공유하고, 동료 팀의 방안과 비교하며 추가적인 성찰을 수행한다. 성찰 보고서에는 인공지능의 초기 응답에서 자신이 처음 수용하려 했던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팀 토론을 거치며 그 판단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한다. 이 과정은 심리학적 개념 이해와 메타인지적 자기 분석을 동시에 달성하는 이중 학습 효과를 지닐 수 있다.

시나리오 2: 전공 수업 적용 — 경영전략

수업 주제는 특정 기업의 시장 점유율 하락에 대한 전략적 대응으로 설

정하였다. 1단계(인공지능 활용)에서 학습자 팀은 인공지능에게 원인 분석과 해결방안을 단계적으로 추론하여 제시하도록 요청하여 추론 노출형 응답을 유도한다. 2단계(비판적 분석)에서 팀은 인공지능의 추론 구조를 도식화하고, 각 분석 단계에서 인공지능이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가정을 명시화한다. 예컨대 인공지능이 비용 절감을 핵심 변수로 전제하고 있다면, 그 전제가 해당 기업의 실제 맥락에서 타당한가를 팀 안에서 검토한다. 3단계(재구성)에서 팀은 전제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변수를 도입하여 독자적인 전략 방안을 재구성한다. 4단계(맥락 적용 및 성찰)에서 학습자들은 재구성된 전략을 모의 경영진 보고서 형태로 정리하고, 인공지능의 추론과 자신들의 추론이 갈라진 지점을 메타인지적으로 분석하여 성찰 기록으로 남긴다. 이로써 두 시나리오는 동일한 4단계 모형이 응답 유형과 교과 맥락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운영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준다.

두 시나리오의 공통점은 인공지능의 응답이 학습의 종점이 아닌 출발점으로 기능한다는 것이며, 팀 토론이 인공지능 산출물을 매개로 촉발된다는 것이다. 교수자는 각 단계에서 직접적인 답을 제공하지 않고, 팀이 긴장 상태를 유지하며 스스로 사고를 전개할 수 있도록 질문을 활용하여 개입하는 퍼실리테이터로 기능한다.

2) 학습성과 평가 체계

생성형 인공지능이 개입하는 학습 환경에서는 결과물의 완성도만으로 학습자의 역량을 평가하는 기존 방식이 근본적인 한계에 부딪힌다. 동일한 결과물이라 하더라도 학습자가 인공지능의 산출물을 그대로 수용한 것인지,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재구성한 것인지에 따라 그 교육적 의미는 전혀 달라지기 때문이다. Wiggins가 강조한 바와 같이, 평가는 학습자의 성취를 확인하는 수단이 아니라 학습을 심화시키는 교육적 행위여야 한다.[33]

33) Grant Wiggins, *Educative Assessment: Designing Assessments to Inform and Improve Student Performance*, San Francisco: Jossey-Bass, 1998, pp.21-42.

이 원칙은 생성형 AI 이전 시대에도 유효한 것이었으나, AI가 완성된 결과물을 즉각 산출하는 환경에서 그 요청은 더욱 절박해진다. AI가 생성한 산출물의 외형적 완성도를 기준으로 학습자를 평가한다면, 그것은 학습자의 역량이 아니라 AI의 역량을 측정하는 것에 가까워지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세 가지 평가 원칙과 이를 구체화한 루브릭을 제안하였다. 첫째, 과정 중심 포트폴리오 평가다. 학습자는 4단계 전 과정을 포트폴리오로 기록한다. 포트폴리오에는 프롬프트 설계 과정, 인공지능 응답 원문, 분석 기록, 재구성 과정의 초안과 수정 이력, 최종 성찰 보고서가 포함된다. 평가는 최종 산출물의 완성도가 아니라, 분석과 재구성의 과정이 얼마나 능동적이고 논리적으로 이루어졌는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 방식으로 학습자가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독자적 사고를 전개했는가를 평가할 수 있다.

둘째, 기여도 투명성 원칙에 기반한 평가다. 최종 산출물에서 인공지능이 생성한 부분과 학습자가 독자적으로 재구성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표기하도록 한다. 학습자는 어떤 이유로 AI의 특정 제안을 수용하거나 기각했는지를 서술하도록 요구받는다. 이 과정은 학습자로 하여금 인공지능 활용의 주도성을 언어로 명시화하게 함으로써, 메타인지적 역량을 평가하는 동시에 강화하는 효과를 지닐 수 있다.

셋째, 비판적 사고·재구성·맥락 적용 역량 루브릭이다. 본 모형의 핵심 학습 목표에 대응하는 평가 루브릭을 다음 <표 3>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3> 비판적 실천 학습 교수모형 학습성과 평가 루브릭

평가 역량	우수	보통	미흡
비판적 분석	인공지능 응답의 근거, 전제, 논리적 오류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구체적 반례를 제시함	응답의 일부 문제점을 지적하나 분석이 단편적임	인공지능 응답을 비판 없이 수용하거나 피상적 지적에 그침
독자적 재구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인공지능 응답을 부분	인공지능 응답을 그대로 활용하거나

	논리 구조를 갖춘 대안을 독자적으로 구성함	수정하는 수준에 머무름	재구성의 근거가 불분명함
맥락 적용	재구성된 방안을 실제 맥락의 조건에 맞게 정교화하고 적용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검토함	맥락을 일부 고려하나 적용 논리가 불충분함	맥락과 무관하게 방안을 제시하거나 적용 검토가 생략됨
성찰의 깊이	인공지능과의 상호작용 전 과정을 메타인지적으로 검토하고 자신의 사고 변화를 구체적으로 서술함	성찰이 이루어지나 피상적 수준에 머무름	성찰 기록이 형식적이거나 부재함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본 루브릭은 결과물의 내용적 완성도가 아닌 학습 과정에서 발휘된 사고의 질을 평가 대상으로 삼는다. 네 가지 평가 역량은 본 교수모형의 4단계 구조와 각각 대응하며, 교수자는 포트폴리오 기록과 팀 토론 관찰을 결합하여 각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6.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생성형 AI의 확산이 Action Learning의 핵심 학습 기제를 어떻게 위협하는가라는 물음에서 출발하여, 그 위협에 대응하는 교수설계 원리와 교수모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세 가지 방향에서 논의를 전개하였다. 첫째, AI 의존적 수동 수용 방식이 본질적 인지부하를 약화시키는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비판적 분석 활동이 그 인지부하를 의도적으로 복원하는 교수설계 전략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밝혔다. 둘째, 생성형 AI의 응답을 확정형, 추론 노출형, 다안 제시형의 세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마다 요구되는 비판적 개입 방식이 다르며, 그 차이를 교수전략 설계의 기준으로 도출하였다. 셋째, 이 원리를 구체화한 4단계 순환 교수모형을 개발하고, 교양 및 전공 수업 적용 시나리오와 과정 중심 평가 루브릭을 함께 설계하였다.

본 연구가 지니는 학문적·이론적 기여는 두 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특정 AI 제품이나 기술적 스펙에 종속되지 않는 응답 유형 분류 체계를 교수설계의 핵심 변수로 제시함으로써,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서도 유연하게 적용 가능한 도구 독립적 교수학습 원리를 마련하였다. 둘째, 인공지능의 산출물을 인간 학습자의 비판적 질문을 자극하는 매개체로 재정의함으로써, AI 환경에서 Action Learning의 핵심 기제인 '역동적 긴장'을 재건하는 새로운 이론적 정당성을 확보하였다. 이는 AI를 단순한 효율성 도구로 보던 기존 관점을 넘어, 인지적 동반자로서의 협력적 학습 가능성을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교양교육 연구에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한다. 완성된 답을 즉각 제공하는 인공지능 환경은 교양교육이 지향해 온 비판적 사고와 자기주도적 탐구를 위협하기 쉬우나, 본 연구는 인공지능 산출물을 비판적 분석의 자료로 전환함으로써 그 위협을 오히려 교양교육의 본령을 강화하는 계기로 재구성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

본 연구가 제시한 교수모형은 실천적 차원에서도 유의미한 가능성을 지닌다. 이 모형은 별도의 전문 시스템이나 추가적인 기술 인프라 없이 현재의 대학 수업 환경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교수자는 인공지능을 수업에서 배제하거나 무제한 허용하는 양극단 사이에서 제3의 선택을 할 수 있다. 인공지능의 응답 유형을 의도적으로 활용하는 퍼실리테이터로 역할을 재정립함으로써, 인공지능 환경에서도 학습자 중심의 수업을 설계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본 연구는 이론적 모형 개발에 머물렀다는 한계를 지닌다. 제안된 교수모형이 실제 수업에서 의도한 학습 효과를 산출하는가는 아직 실증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후속 연구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본 모형을 실제 대학 수업에 적용하고 학습자의 비판적 사고 역량, 메타인지 수준, 문제 재구성 능력의 변화를 측정하는 실증 연구가 필

요하다. 둘째, 인문학, 사회과학, 이공계 등 학문 분야별로 인공지능 응답 유형의 활용 방식과 분석 활동의 성격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탐색하는 비교 연구가 요청된다. 셋째, 교수자의 퍼실리테이터 역량이 본 모형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교수자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연구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대학 교육 현장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문제는 인공지능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교실에서 학습자가 여전히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성장할 수 있는가이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비판적 실천 학습 기반 교수모형이 그 가능성을 탐색하는 하나의 실천적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김응준, 「생성형 AI와 실제 공무원의 민원 응답 비교: 표현 전략 분석을 통한 책임 가능성 설계 논의」, 『한국정책학회보』 제34권 제4호 , 한국정책학회, 2025, 111-140쪽.

한규은·오경은, 「AI 시대의 '상생적 창의성': 인간-AI 협력적 교수-학습 모델 설계」, 『지식과 교양』 20호,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2026, 175-197쪽.

한규은·정재윤, 「AI 기반 예술창작 교양교육의 방향 모색: 심리학적 이해와 K-pop 제작의 결합」, 『지식과 교양』 19호,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2025, 841-870쪽.

윤가영·장선영, 「대학 수업에서 교수자의 생성형 AI 활용 가능성 탐색: 지양해야 할 과제와 지향해야 할 과제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5권 2호,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5, 463-480쪽.

임철일·고보경·정예일·이은서·전민선·김승하, 「교수설계를 위한 생성형 AI 기반 챗봇의 활용 방안 탐색: ChatGPT와 RPISD모형을 중심으로」, 『교육공학연구』 39권 특집호, 한국교육공학회, 2023, 1213-1248쪽.

장경원, 「대학교육을 위한 Action Learning 프로그램 설계모형 개발 연구」, 『교육공학연구』 27권 3호, 한국교육공학회, 2011, 475-505쪽.

장경원·고수일, 「경영학 수업에서의 액션러닝 적용 사례연구: 성찰저널을 통한 효과성 분석을 중심으로」, 『교육공학연구』 29권 3호, 한국교육공학회, 2013, 689-721쪽.

Baidoo-Anu, David, & Leticia Owusu Ansah, "Education in the Era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AI): Understanding the Potential Benefits of ChatGPT in Promoting Teaching and Learning", *Journal of AI,* vol. 7, no. 1, 2023, pp.52-62.

Bjork, Robert A., "Memory and Metamemory Considerations in the Training of Human Beings", *Metacognition: Knowing about Knowing*, edited by Janet Metcalfe and Arthur Shimamura, Cambridge, MA: MIT Press, 1994, pp.185-205.

Jin, Sol & Rho, Sangkyu, "Effects of AI Explanations on Human-AI

Collaboration: An Experimental Study on Decision Performance and Reliance", *Seoul Journal of Business,* vol. 31, no. 2, 2025, pp.67-99.

Kalai, Adam Tauman, Nachum, Ofir, Vempala, Santosh S., & Zhang, Edwin, "Why Language Models Hallucinate", *arXiv,* 2025, arXiv:2509.04664.

Kasneci, Enkelejda, Sessler, Kathrin, Küchemann, Stefan, Bannert, Maria, Dementieva, Daryna, Fischer, Frank, Gasser, Ute, Groh, Georg, Günnemann, Stephan, Hüllermeier, Eyke, Krusche, Stephan, Kutyniok, Gitta, Lange, Tilman, Leidner, Michael, Massner, Michael, Meier, Leonie, Nori, Harsha, Öchsner, Andreas, Reinhold, Sarah, Schreiber, Jana, Schuller, Björn W., Vlachos, Andreas, & Kasneci, Gjergji, "ChatGPT for Good? On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of Large Language Models for Education", *Learning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 103, 2023, p.102274.

Kolb, David A., *Experiential Learning: Experience as the Source of Learning and Development,*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1984.

Ma, Shuai, Zhang, Chenyi, Wang, Xinru, Ma, Xiaojuan, & Yin, Ming, "Beyond Recommender: An Exploratory Study of the Effects of Different AI Roles in AI-Assisted Decision Making", arXiv preprint, 2024. https://arxiv.org/abs/2403.01791

Marquardt, Michael J., *Action Learning in Action*. Palo Alto: Davies-Black, 1999.

Paas, Fred, Alexander Renkl, & John Sweller, "Cognitive Load Theory and Instructional Design: Recent Developments", *Educational Psychologist*, vol. 38, no. 1, 2003, pp.1-4.

Revans, Reginald W., *Action Learning: New Techniques for Managers*. London: Blond & Briggs, 1980.

White, Jules, Fu, Quesh, Hays, Sam, Sandborn, Michael, Olea, Carlos,

Gilbert, Henry, Elnashar, Ashraf, Spencer-Smith, Jesse, & Schmidt, Douglas C., "A Prompt Pattern Catalog to Enhance Prompt Engineering with ChatGPT", arXiv preprint, 2023. https://arxiv.org/abs/2302.11382

Sweller, John, "Cognitive Load During Problem Solving: Effects on Learning", *Cognitive Science*, vol. 12, no. 2, 1988, pp.257-285.

Wiggins, Grant, *Educative Assessment: Designing Assessments to Inform and Improve Student Performance,* San Francisco: Jossey-Bass, 1998.

Zhai, Chunpeng, Santoso Wibowo, & Lily D. Li, "The Effects of Over-Reliance on AI Dialogue Systems on Students' Cognitive Abilities: A Systematic Review", Smart Learning Environments, vol. 11, no. 1, 2024, Article 28.

OpenAI. (2026). ChatGPT (June 1 version) [Large language model]. https://chat.openai.com, 2026.06.02.

국문초록

본 연구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확산으로 인해 대학 교육 현장에서 Action Learning의 핵심 학습 기제인 비판적 질문과 성찰의 순환이 약화되는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비판적 실천 학습 기반 교수모형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Revans의 Action Learning 이론과 Sweller의 인지부하이론을 이론적 토대로 삼아, 인공지능 산출물의 수동적 소비가 본질적 인지부하를 약화시키는 메커니즘을 규명하였다. 나아가 생성형 인공지능의 응답을 확정형, 추론 노출형, 다안 제시형의 세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에 대응하는 학습자의 비판적 분석 활동과 Action Learning 교수전략의 결합 원리를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활용-비판적 분석-재구성-맥락 적용의 4단계 순환 구조로 이루어진 교수모형을 제안하고, 교양 및 전공 수업 적용 시나리오와 과정 중심 평가 루브릭을 함께 설계하였다. 본 연구는 특정 인공지능 제품에 종속되지 않는 응답 유형 분류 체계를 교수설계의 핵심 변수로 제안함으로써, 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 가능한 교수학습 원리를 제공하였다는 점과 인공지능 산출물을 학습의 종착점이 아닌 출발점으로 재설정하는 제3의 교수학습 패러다임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실천적 의의를 지닌다.

주제어 ● 비판적 실천 학습, Action Learning, 생성형 인공지능, 인공지능 응답 유형, 비판적 분석, 과정 중심 평가

Abstract

The Power to Question the Answer
: Development of a Critical Action Learning Instructional Model Based on Generative AI Response Type Classification*

Han, Kyueun / Sangmyung University
Oh, Gyung Eun / Sangmyung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how the rapid diffusion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may weaken the cycle of critical questioning and reflection at the core of Action Learning in university education. Drawing on Revans' Action Learning theory and Sweller's cognitive load theory, it identifies how the passive acceptance of AI-generated outputs diminishes germane cognitive load. On this basis, it classifies generative AI responses into three types-definitive, reasoning-transparent, and multiple-alternative- according to the assertiveness of conclusions, the visibility of reasoning, and the plurality of alternatives. For each type, this study derives a corresponding set of learner analysis activities, such as evidence tracing, premise identification, and context-based prioritization. These are integrated into a four-stage cyclical model of AI use, critical analysis, reconstruction, and contextual application, accompanied by classroom scenarios and a process-oriented assessment rubric. For liberal education, this approach reframes the threat that AI poses to critical thinking as an occasion to strengthen it by turning AI outputs into material for critical analysis. By proposing a tool-independent framework applicable across changing AI systems, this study repositions AI outputs not as endpoints of learning but as starting points for critical inquiry and reconstruction.

* "영문 초록의 표현 교정에 생성형 AI(ChatGPT)를 활용하였다."

Keyword ● Critical Action Learning, Action Learning, Generative AI, AI response types, Critical analysis, Process-based assessment

▌논문투고일:2026.05.19. ▌심사완료일:2026.07.01. ▌게재확정일:2026.07.03. ▌

● ● ● https://doi.org/10.54698/kl.2026.21.605
지식과 교양, 제21호,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Knowledge and Liberal Arts, Vol. 21, LIC, pp.605-634.

대학 교양교육에서 문학 기반 자전적 글쓰기 수업 연구

: 오정희 「중국인 거리」를 활용한 외국인 유학생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

황 혜 란***

목 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3. 연구의 방법
4. 연구의 결과 및 분석
5. 결론 및 제언

1. 서론

최근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수가 증가하면서,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교육은 일상적 의사소통 능력뿐 아니라 대학 수학 능력, 학문적 표현 능력, 한국 사회·문화 이해를 함께 다루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1] 특히 대학 교양교육의 맥락에서 외국인 유학생은 다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B5A17047834).

** "본 논문은 원고 수정 과정에서 문장의 가독성 점검, 표현 정리 및 통계 처리 보조에 한하여 생성형 AI(ChatGPT, OpenAI)를 활용하였다." 실제 수업 운영, 자료 분석, 연구 결과의 해석 및 최종 원고 검토는 저자가 직접 수행하였으며, 원고의 모든 내용과 해석에 대한 책임은 저자에게 있다.

*** 서울여자대학교 교양대학 초빙강의교수

1) 최근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가 공개한「2025년 국내 고등교육기관 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의 첨부 통계자

양한 텍스트를 읽고 해석하는 능력과 함께,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한국어로 구성하고 표현해야 한다.[2)]

문학 교육은 외국인 유학생의 언어 학습과 문화 이해, 자기 이해를 함께 다룰 수 있는 교육적 가능성을 지닌다. 문학 텍스트는 목표어의 언어 표현을 익히는 자료에 그치지 않고, 작품 속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맥락과 인물의 사고방식 및 감정을 학습자가 자신의 경험과 견주어 이해하도록 돕는다.[3)] 그러나 외국인 유학생 대상 문학 수업은 작품 이해와 문화 정보 습득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 문학 읽기를 자기 경험의 성찰과 글쓰기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오정희의 「중국인 거리」를 활용한 문학 읽기-쓰기 통합 수업을 설계하고, 그 과정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글쓰기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인 거리」는 성장기 화자가 낯선 공간에서 경험하는 혼란, 소외, 관계 변화, 자기 인식의 문제를 다룬 작품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작품은 한국이라는 낯선 환경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유학생이 자신의 유학 경험과 자기 이해의 문제를 자전적 글쓰기로 풀어내는 데 적절한 텍스트라 할 수 있다. 특히 작품 속 '중국인 거리'는 단순한 배경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것은 화자가 낯선 세계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인식해 가는 공간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이 작품은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이라는 낯선 공간에서 경험하는 관계 변화, 감정의 흔들림, 자기 이해의 문제를 돌아보게 하

료에 따르면, 국내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24년 208,962명에서 2025년 253,434명으로 한 해 사이 44,472명이 증가하였다. 교육부, 「2025년 국내 고등교육기관 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 https://www.moe.go.kr, 2026.05.25.

2) 김민경·류선숙·이아름·심지연은 중급 수준의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교양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연구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일상적·개인적 주제와 학문적·사회적 주제를 함께 요구하고 있으며, 듣기·말하기·읽기·쓰기 기능을 연계한 통합형 교육 자료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김민경·류선숙·이아름·심지연, 「중급 수준의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교양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기초 연구」, 『교양교육연구』 제18권 제2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24, 191-193쪽.

3) Carter, R. & Long, M. N., *Teaching Literature,* London: Longman, 1991, pp.1-3.

는 매개 텍스트가 될 수 있다.

자전적 글쓰기는 자신의 경험을 단순히 회상하거나 기록하는 활동이 아니다. 과거 경험을 현재의 관점에서 다시 배열하고 의미화하며 자기 이해와 연결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습자가 글에 담은 경험의 양보다, 그 경험을 어떻게 선택하고 장면화하며 현재의 자기 이해와 연결하는가에 주목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오정희의 「중국인 거리」를 활용한 문학 읽기-쓰기 통합 수업 이후 외국인 유학생의 자전적 글쓰기가 어떤 지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달라지는지를 분석하는 데 있다. 특히 작품 읽기가 학습자의 자기 경험 회상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리고 사전·사후 글쓰기에서 내용, 구성, 표현, 성찰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문학 읽기와 자전적 글쓰기의 교육적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1) 문학 읽기-쓰기 통합 교육과 자전적 글쓰기

문학 읽기-쓰기 통합 교육은 문학 텍스트의 이해를 학습자의 자기 표현으로 이어 가는 교육 활동이다. 문학 읽기가 작품 속 인물, 사건, 공간, 감정의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이라면, 쓰기는 그 해석을 바탕으로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언어로 다시 구성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문학 읽기와 쓰기는 서로 분리된 기능 훈련이라기보다, 텍스트 이해와 의미 구성, 자기 성찰이 함께 이루어지는 통합적 활동으로 볼 수 있다.

문학 교육에서 읽기와 쓰기를 함께 다루어야 한다는 논의는 독자반응 이론과 읽기-쓰기 통합 논의에서 찾을 수 있다. 로젠블랫(Rosenblatt, 1978)은 문학의 의미가 독자의 경험과 정서, 문화적 배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된다고 보았다.[4] 티어니와 피어슨(Tierney & Pearson,

4) Rosenblatt, L. M., *The Reader, the Text, the Poem: The Transactional Theory of*

1983) 역시 읽기와 쓰기를 독자가 능동적으로 의미를 구성해 가는 행위로 이해하였다.[5] 이러한 논의는 문학 읽기와 글쓰기를 연계한 수업이 학습자의 해석 능력과 표현 능력을 함께 기르는 데 교육 활동으로 설계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어 문학교육 연구에서도 문학 읽기와 쓰기를 연계하려는 논의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신윤경(2008)은 한국어 문학 수업에서 읽기-쓰기 통합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6] 마희정(2016)과 김연하(2020)는 소설 읽기를 감상문 쓰기, 자기 경험 비교 쓰기, 인물에 대한 생각 쓰기 등의 활동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7] 또한 신영지(2016), 이혜강(2018), 김미정(2021)은 외국인 유학생 대상 문학교육이 언어 능력 향상에 그치지 않고 한국 사회·문화 이해와 학습자의 개인적 성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논의하였다.[8] 그러나 이들 연구는 대체로 문학 텍스트의 교육적 활용 가능성이나 교수 방안에 초점을 두었으며, 실제 수업에서 문학 읽기가 학습자의 자기 경험 구성과 자전적 글쓰기 변화로 이어지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핀 연구는 많지 않다.

자전적 글쓰기는 자신의 삶을 소재로 삼는 글쓰기이지만, 단순히 과거의 경험을 기록하거나 나열하는 활동에 머무르지 않는다. 자전적 글쓰기

---

the Literary Work, Carbondale: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1978.

5) Tierney, R. J. & Pearson, P. D., *"Toward a Composing Model of Reading"*, *Language Arts, vol. 60, no. 5,* 1983, pp.568-580.

6) 신윤경, 「한국어 문학 수업을 위한 읽기·쓰기 통합 방안」, 『작문연구』 제7호, 한국작문학회, 2008, 107-130쪽.

7) 마희정,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읽기·쓰기 수업의 모색 - 황순원의 「소나기」를 중심으로」, 『영주어문』 33집, 영주어문학회, 2016, 131-154쪽; 김연하, 「소설 작품을 활용한 한국어 읽기·쓰기 통합 교육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117-118쪽.

8) 신영지,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문학 교육의 방법 연구」, 『우리말교육현장연구』 제10권 제1호, 우리말교육현장학회, 2016, 89-114쪽; 이혜강, 「문학 작품을 활용한 단계적 한국어 교육 방안 연구」, 『인문사회 21』 제9권 제4호, 인문사회 21, 2018, 413-426쪽; 김미정, 「한국어 전공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문학 교수법 - 작품 읽기에서 감상문 쓰기까지 학습 과정의 한 제안 -」, 『건지인문학』 32집, 전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21, 77-98쪽.

는 과거 경험을 현재의 관점에서 다시 선택하고 배열하며, 그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는 서사적 행위이다. 폴 리쾨르(2006)의 서사적 정체성 논의는 삶을 이야기로 조직하는 과정이 자기 이해와 정체성 형성에 깊이 관여한다는 점을 설명한다.[9] 장유정(2013) 역시 경험의 서사화가 삶의 의미를 구성하는 교육 활동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10]

외국인 유학생에게 자전적 글쓰기는 유학 과정에서 겪은 언어적 어려움, 문화적 낯섦, 관계 변화, 정서적 거리감을 한국어로 정리하고, 이를 자기 삶의 흐름 속에서 다시 이해해 가는 과정이 될 수 있다. 신윤경(2015), 박수진(2021), 김화경(2024)의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 글쓰기 교육이 문장 표현력 향상에 머무르지 않고, 유학 경험의 성찰과 자기 이해의 형성으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한다.[11]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문학 읽기와 자전적 글쓰기가 외국인 유학생의 자기 경험 구성과 어떻게 만나는지를 실제 수업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중국인 거리」의 교육적 가능성과 본 연구의 차별성

성장 서사를 지닌 문학 작품은 인물이 낯선 세계와 마주하고 갈등을 겪으면서 자신과 세계를 이해해 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러한 서사 구조는

9) 폴 리쾨르, 김웅권 옮김, 『타자로서 자기 자신』, 동문선, 2006, 158-166쪽.

10) 장유정, 「경험의 서사화와 자전적 글쓰기 교육 연구」, 『국어교과교육연구』 제22호, 국어교과교육학회, 2013, 179-221쪽.

11) 신윤경(2015)은 성찰 글쓰기와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관계를 검토하였고, 박수진(2021)은 외국인 유학생 대상 교양 글쓰기에서 성찰적 글쓰기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김화경(2024)은 유학생의 학업 적응과 중도탈락 문제를 논의하면서, 자기 서사 글쓰기를 자아 정체성 형성을 지원하는 교육적 방법으로 제안하였다. 신윤경, 「외국인 대학생의 '성찰 글쓰기' 과목 개설을 위한 연구 - '자아 정체성'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한국어 능력'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 『언어와 문화』 제11권 제3호,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015, 147-169쪽; 박수진, 「외국인 유학생 대상 성찰적 글쓰기를 활용한 수업 방안 - 교양 글쓰기 수업 사례를 바탕으로」, 『교양교육연구』 제15권 제1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21, 121-134쪽; 김화경,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자아 정체성 교육과 자기 서사 글쓰기 활용 방안」, 『리터러시연구』 제15권 제6호, 한국리터러시학회, 2024, 13-40쪽.

고국을 떠나 새로운 언어와 문화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경험과 자연스럽게 맞닿을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 사회와 대학이라는 낯선 공간 속에서 언어적 어려움, 관계의 불안정성, 문화적 차이, 정체성의 변화를 경험한다. 따라서 성장 서사를 지닌 문학 작품은 유학생이 자신의 유학 경험을 되돌아보고 이를 자전적 글쓰기로 풀어내는 데 주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오정희의 「중국인 거리」는 성장기 화자가 낯선 공간에서 겪는 혼란, 소외, 결핍, 관계 변화, 자기 인식의 과정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작품 속 '중국인 거리'는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화자가 세계의 낯섦과 타자성을 감각하고 자신의 위치를 인식하게 되는 공간이다. 또한 작품에는 가족 관계, 이웃과 타자에 대한 인식, 죽음과 상실의 경험, 낯선 사물과 감각적 이미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요소들은 외국인 유학생이 자신의 유학 경험, 가족과의 거리감, 고향에 대한 기억, 낯선 한국 생활의 감정을 떠올리고 이를 글로 구성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중국인 거리」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작품의 공간성, 이주 경험, 타자성, 여성 성장, 다문화적 도시공간의 의미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오윤호(2007), 주지영(2016), 이창남(2021)은 각각 이 작품에 나타난 이주 경험, 공간의 의미, 여성 성장과 다문화적 도시공간의 문제를 분석하였다.[12] 한편 성장소설과 자전적 글쓰기의 교육적 연계는 국내 학습자 대상 국어교육 및 문학교육 연구에서도 논의되어 왔으며, 한국어교육 분야에서는 여성 성장소설의 활용 가능성이 일부 제시되었다.[13] 이러한 연구들은 「중

12) 오윤호, 「「중국인 거리」에 나타난 移住의 想像力」, 『어문연구(語文硏究)』 제35권 제4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7, 265-288쪽; 주지영, 「'중국인 거리'로 표상되는 세계, 그리고 여성의 정체성 - 오정희의 「중국인 거리」」, 『한국문예창작』 제15권 제2호, 한국문예창작학회, 2016, 77-115쪽; 이창남, 「다문화적 도시공간과 여성 성장소설 - 오정희의 「중국인 거리」 분석」, 『동서인문』 17집, 인문학술원, 2021, 295-317쪽.

13) 이진아, 「성장소설을 통한 문학 교육 연구 -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우상의 눈물」, 「아우를 위하여」를 중심으로 -」,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나연서, 「자전적 소설 읽기 교육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하예원, 「성장소설

국인 거리」의 문학적·교육적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는 근거가 되지만, 실제 외국인 유학생 수업에서 작품 읽기가 학습자의 자기 경험 회상과 자전적 글쓰기 변화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본 연구는 「중국인 거리」를 외국인 유학생의 자전적 글쓰기를 촉진하는 매개 텍스트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지닌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작품의 낯선 공간, 관계 변화, 상실과 결핍, 상징적 이미지가 학습자의 자기 경험 회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주목한다. 또한 사전·사후 글쓰기 자료를 비교하여 학습자의 자전적 글쓰기가 경험 나열 중심에서 관계 중심, 장면 중심, 상징 중심의 서사 구성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검토하고자 한다.

3. 연구의 방법

1)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는 수도권 소재 A대학교의 외국인 유학생 대상 한국 현대문학 관련 교양 교과목에서 수행한 사례 기반 연구이다. 해당 교과목은 한국 현대문학 작품의 이해와 감상을 목적으로 운영되었으며, 오정희의 「중국인 거리」를 다루는 수업에서 읽기-쓰기 통합 활동을 설계하고 적용하였다.[14]

연구 참여자는 해당 학기 수강생 총 42명이었다. 이 가운데 수업 전후 설문에 모두 응답한 학습자는 38명이었으며, 사전 글쓰기와 사후 글쓰기 자료가 모두 확보된 학습자를 중심으로 최종 분석 대상을 선별하였다. 그

을 활용한 자전적 글쓰기 교육 연구 - 2022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5; 정선영, 「여성성장소설을 활용한 한국어교육 방안 고찰」,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3.

14) 연구 윤리와 참여자 익명성 보호를 위해 학교명, 교과목명, 학습자 이름은 모두 익명 처리하였다. 수업 시작 전 참여자들에게 연구 목적, 자료 수집 방식, 자료의 학술적 활용 범위를 설명하고, 구글 설문지를 통해 연구 참여 동의를 받았다. 수집된 자료는 모두 익명화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

결과 글쓰기 자료가 누락되었거나 완결성이 부족한 4명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34명의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확정하였다. 최종 분석 대상자는 모두 여성 학습자로, 대부분 만 19세에서 22세 사이의 학부 1·2학년이었다. 국적별로는 베트남 20명(58.8%), 몽골 7명(20.6%), 일본 5명(14.7%), 중국 1명(2.9%), 미얀마 1명(2.9%)으로 구성되었다. 한국어 숙달도는 모두 TOPIK 3급 이상의 중·고급 수준이었으며, 6급 3명(8.8%), 5급 4명(11.8%), 4급 16명(47.1%), 3급 11명(32.4%)이었다.[15]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사전·사후 설문, 사전·사후 글쓰기, 수업 활동지, 최종 자전적 글쓰기로 이루어진다. 사전·사후 설문은 학습자의 문학 읽기 경험, 글쓰기 경험, 자기 경험 표현에 대한 인식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보조 자료로 활용하였다. 사전·사후 글쓰기는 수업 전후 학습자의 자전적 글쓰기 변화 양상을 비교하기 위한 핵심 자료로 사용하였다. 수업 활동지는 작품 이해 과정에서 학습자가 인물, 공간, 감정, 상징을 어떻게 파악하고 자신의 경험과 연결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였다. 최종 자전적 글쓰기는 교수자 피드백 이후 학습자의 자기서사 확장 양상을 확인하는 보조 자료로 사용하였다.[16]

2) 수업 설계 및 운영 절차

본 연구의 수업은 2025년 5월 한 달 동안 주 1회 2차시씩 총 4주 8차시에 걸쳐 운영되었다. 수업의 핵심 목표는 학습자가 「중국인 거리」의 성장 서사와 낯선 공간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자신의 경험과 연결하여 자전적 글쓰기로 확장하도록 하는 데 있었다. 본 수업은 외국인 유학생 대상 한국 문학 감상 관련 교양 교과목의 일부로 운영되었으며, 작품 읽기, 활동지

15) TOPIK 3급 학습자의 경우에도 대부분 대학 부설 한국어교육기관의 4급 이상 과정을 수료한 상태였으므로, 문학 텍스트의 기본 내용을 이해하고 자신의 경험을 한국어로 서술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았다. 또한 최종 분석 대상자 중 베트남 학습자의 비중이 가장 높다는 점은 결과 해석에서 고려하되, 이를 특정 국적 집단의 일반적 특성으로 확대하지 않고 본 수업 사례의 학습자 구성상 특징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였다.

16) 본 연구에서 최종 자전적 글쓰기는 사전·사후 비교의 핵심 자료가 아니라, 피드백 이후 학습자의 자기서사 확장 양상을 확인하는 보조 자료로 활용하였다.

작성, 경험 연결, 글쓰기, 교수자 피드백의 과정을 포함하도록 구성하였다.

수업은 사전 학습, 작품 읽기와 분석, 경험 연결, 자전적 글쓰기의 단계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사전 학습 단계에서는 작품 이해에 필요한 핵심 어휘, 줄거리, 작가 및 배경 자료를 제공하여 문학 텍스트의 언어적·문화적 부담을 낮추었다. 이때 작품 이해에 필요한 어휘는 인물, 감정, 공간, 사건, 상징 등 주제별로 묶어 제시하였고, 작가 인터뷰 및 작품 배경 관련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여 사건의 흐름과 정서적 맥락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작품 읽기와 분석 단계에서는 인물 관계, 감정 변화, 공간의 의미, 상징 표현을 중심으로 활동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때 학습자가 작품의 서사 구조를 이해하고 자신의 경험을 글로 구성할 수 있도록, 서사학의 기본 개념인 분절, 패러프레이즈, 기능, 구조를 글쓰기 전략으로 활용하였다.[17] 예컨대 학습자들은 작품의 주요 장면을 나누고, 각 장면에서 화자가 느낀 감정과 그 감정을 유발한 사건을 정리한 뒤, 이를 자신의 경험과 연결하는 방식으로 활동지를 작성하였다. 이후 활동지에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품 속 인물·공간·감정·상징을 자신의 유학 경험, 가족 관계, 기억 속 장소, 성장 경험과 연결하도록 하였다.

수업 활동지는 단순한 내용 확인 문제가 아니라, 작품 이해를 자기 경험의 회상과 글쓰기 구상으로 이어지도록 구성하였다. 1주차에는 화자의 낯선 공간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화자가 낯선 공간에서 느낀 감정을 세 가지 이상 찾아 쓰기”, “나도 낯선 장소에서 비슷한 감정을 느낀 경험이 있는지 쓰기”와 같은 문항을 제시하였다. 2주차에는 인물 관계와 성장 경험을 연결하기 위해 “작품 속 화자에게 영향을 준 인물은 누구이며, 그 인물은 화자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게 했는가”, “나의 삶에서 나를 변화시킨 인물은 누구이며, 그 사람과의 관계가 나에게 어떤 변화를 주었는가”를 쓰도록 하였다. 3주차에는 공간 경험을 중심으로 “작품 속 ‘중국인 거리’는 화자에게 어떤 공간으로 나타나는가”, “나에게 낯설었지만 기억에 남는

17) 한희수, 「서사 이론을 활용한 대학 글쓰기 지도방안」, 『리터러시연구』 제12권 제1호, 한국리터러시학회, 2021, 95-120쪽.

장소는 어디이며, 그곳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는가"를 작성하게 하였다. 4주차에는 상징 이미지와 자기 서사를 연결하기 위해 "작품에서 기억에 남는 사물이나 이미지는 무엇인가", "나의 경험을 떠올리게 하는 사물, 음식, 사진, 장소는 무엇이며 그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를 중심으로 글쓰기 구상을 하게 하였다.

글쓰기 활동은 활동지 작성 이후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학습자들은 작품 속 인물, 공간, 감정, 상징 중 자신에게 가장 의미 있게 다가온 요소를 선택하였다. 다음으로 해당 요소와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시간, 장소, 인물, 감정, 변화의 순서로 정리하였다. 이후 이를 바탕으로 '나를 변화시킨 경험'을 주제로 사후 자전적 글쓰기를 수행하였다. 교수자는 글쓰기 과정에서 경험의 나열에 머무르지 않도록 사건의 전후 관계, 감정 변화, 경험의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피드백하였다. 이와 같은 활동은 학습자가 작품 이해를 자기 경험의 회상으로 연결하고, 다시 이를 자전적 서사로 구성하도록 하기 위한 절차였다.

[표 1]「중국인 거리」 읽기-쓰기 통합 수업

주차	차시	활동 유형	주요 수업 내용	핵심 역량
사전	0	사전 학습	핵심 어휘 학습, 줄거리 요약, 작가 및 배경 자료 확인	배경 이해력, 어휘 이해력
1주차	1	읽기	화자의 낯선 공간 경험 이해하기	서사 이해력, 정서 공감력
1주차	2	쓰기	화자가 느낀 혼란·소외·불안의 감정 정리하기	감정 표현력, 자기 성찰력
2주차	3	읽기	가족·이웃·타자와의 관계 속 성장 경험 이해하기	인물 이해력, 관계 이해력
2주차	4	쓰기	인물 관계와 화자의 변화 정리하기	인물 분석력, 경험 연결력
3주차	5	읽기	'중국인 거리'의 공간적 의미와 낯선 공간 경험 이해하기	공간 해석력, 상징 이해력
3주차	6	쓰기	낯선 공간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 쓰기	감정 표현력, 공간경험 구성력
4주차	7	읽기	작품 속 상징 이미지와 자기 경험 연결하기	상징 이해력, 통합적 사고력
4주차	8	쓰기	자전적 글쓰기 완성 및 피드백	성찰적 글쓰기 능력

3) 분석 기준 및 분석 방법

사전·사후 글쓰기는 동일한 주제인 '나를 변화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실시하였다. 이는 수업 전후 학습자가 자신의 경험을 구성하고 감정을 표현하며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글쓰기 평가는 내용 충실성, 구성력, 표현력, 성찰성의 네 영역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내용 충실성은 경험 서술의 구체성과 맥락 제시 여부를, 구성력은 사건 간 연결과 서사적 완결성을, 표현력은 문장과 어휘 사용의 적절성을, 성찰성은 경험에 대한 의미 부여와 자기 이해의 정도를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각 영역은 우수(A), 보통(B), 미흡(C)의 세 수준으로 구분하였으며, 내용 충실성 30점, 구성력 25점, 표현력 25점, 성찰성 20점으로 배점하여 총 100점 만점으로 산출하였다.

글쓰기 평가는 한국어교육 및 문학교육 관련 연구자 2인이 평가 기준표에 따라 검토하였다. 두 평가자는 동일한 평가 기준표를 바탕으로 사전·사후 글쓰기 자료를 검토하였으며, 영역별 점수와 학습자 원문을 대조하여 점수의 적절성을 점검하였다. 평가 기준 적용이 모호하거나 두 평가자의 판단 차이가 큰 사례는 원문과 평가 기준을 재확인한 뒤 협의하여 조정하였다. 최종 점수는 두 평가자의 검토 결과와 협의 과정을 바탕으로 확정하였다.[18]

[표 2] 사전·사후 자전적 글쓰기 평가 기준

영역	기준	우수(A)	보통(B)	미흡(C)	배점
내용 충실성	경험서술의 구체성	경험이 시간·장소·상황·감정의 맥락과 함께 구체적으로 기술됨	경험 서술은 존재하나 상황 묘사나 맥락의 구체성이 다소 부족함	경험 설명이 단편적이며 시간·장소·상황·감정의 맥락이 부족함	30

18) 사전·사후 글쓰기는 동일한 조건에서 실시하였으며, 학습자의 언어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전 사용을 허용하였다. 이는 두 시점의 글쓰기 조건을 최대한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구성력	서사구조의 완결성	도입-전개-절정-결말의 흐름이 비교적 분명하고, 사건 간 인과관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됨	이야기의 구조는 대체로 유지되나 사건 간 연결이 다소 느슨함	서사의 일관성이 낮고 사건 전개가 파편화되어 이해하기 어려움	25
표현력	언어사용의 적절성	문장이 비교적 정확하며 다양한 어휘와 표현을 적절하게 사용함	문법적 오류가 일부 있으나 의미 전달이 가능하며 표현이 대체로 평이함	문법 오류가 빈번하여 의미 전달이 어렵고 제한적인 어휘를 사용함	25
성찰성	경험의 의미화와 자기 이해	과거 경험을 현재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그 경험을 삶의 흐름 속에서 자기 이해의 변화와 연결함	경험에 대한 기본적인 의미 부여가 나타나며, 현재의 자기 이해와 부분적으로 연결됨	사건을 단순히 기록하는 데 머물러 경험의 의미화나 자기 이해의 변화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음	20

자료 분석은 정량 분석과 질적 분석을 병행하였다. 정량적으로는 사전·사후 글쓰기의 변화를 내용 충실성, 구성력, 표현력, 성찰성의 네 평가 영역과 총점을 기준으로 비교하였다. 각 영역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수업 전후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질적 분석은 사전·사후 글쓰기와 최종 자전적 글쓰기, 수업 활동지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분석의 초점은 학습자가 어떤 경험을 글쓰기 주제로 선택하였는지, 경험을 시간 순서에 따라 나열하는 데 머무는지 또는 사건 간 인과와 의미를 중심으로 재구성하는지, 감정과 장면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표현하는지, 작품 속 인물·공간·사건·상징을 자신의 경험과 어떻게 연결하는지에 두었다. 설문 자료는 5점 리커트 척도 문항을 중심으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학습자의 인식 변화 경향을 살

펴보았고, 개방형 문항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핵심 진술과 어휘를 중심으로 범주화하였다.

4. 연구의 결과 및 분석

1) 수업 전후 인식 및 글쓰기 평가 결과

「중국인 거리」를 활용한 읽기-쓰기 통합 수업 이후 학습자의 문학 읽기 인식, 자기 경험 표현, 자전적 글쓰기 수행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수업 전후 설문 결과와 사전·사후 글쓰기 평가 결과를 함께 검토하였다. 설문 자료는 학습자의 자기 인식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보조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실제 글쓰기 변화는 사전·사후 글쓰기 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표 3] 사전·사후 설문 주요 인식 지표 비교 (N=38)

분석 영역	주요 측정 항목	사전 평균	사후 평균	증감	주요 변화 특성
정서 표현	자신의 감정을 언어화하는 능력	2.97	4.12	+1.15	감정 표현에 대한 부담 완화
타자 공감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는 정도	3.13	4.25	+1.12	작품 속 인물에 대한 공감 확장
서사 구성	이야기의 흐름 및 인과 구조 구축	2.61	3.85	+1.24	경험 나열에서 이야기 구성으로 전환
자기 이해	글쓰기를 통한 자기성찰 역량	2.85	4.41	+1.56	자기 경험의 의미화 확대

설문 결과, 자기 이해, 서사 구성, 정서 표현, 타자 공감 영역에서 모두 사후 평균이 상승하였다. 특히 자기 이해 영역의 증가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작품 속 낯선 공간, 가족 관계, 감정 변화, 성장 경험이 학습자의 자기 경험 회상을 이끌어 낸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3장에서 제시한 활동지 문항 및 글쓰기 활동과도 연결된다. 학습자들은 작품

속 화자가 낯선 공간에서 느낀 감정, 가족과 이웃의 관계, '중국인 거리'라는 공간의 의미, 상징적 사물과 이미지를 정리한 뒤, 이를 자신의 유학 경험, 가족 관계, 기억 속 장소, 성장 경험과 연결하였다. 따라서 설문에서 나타난 정서 표현, 서사 구성, 자기 이해의 상승은 단순히 작품을 읽은 결과라기보다, 작품 이해를 자기 경험 회상과 글쓰기 구상으로 연결한 활동의 과정에서 형성된 변화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설문은 학습자의 자기 인식에 근거한 자료이므로, 실제 글쓰기 변화와 동일하게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설문 결과를 보조 자료로 활용하고, 사전·사후 글쓰기 평가 결과와 글쓰기 텍스트의 질적 변화를 중심으로 수업 이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표 4] 사전·사후 자전적 글쓰기 평가 점수 변화(N=34)

평가 영역	사전평균	사후평균	평균차이	SD	t값	p값
내용충실성(30)	24.90	25.78	+0.88	3.84	1.33	.191
구성력(25)	19.54	20.57	+1.03	2.91	2.06	.047*
표현력(25)	18.01	19.43	+1.42	2.03	4.07	< .001***
성찰성(20)	15.34	16.62	+1.28	3.05	2.43	.021*
총점(100)	77.80	82.41	+4.61	10.68	2.51	.017*

주: 평균 차이는 사후 평균에서 사전 평균을 뺀 값이며, SD는 사후-사전 차이값의 표준편차다.
*p < .05, ***p < .001

글쓰기 평가 결과, 총점은 사전 77.80점에서 사후 82.41점으로 상승하였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영역별로는 표현력, 성찰성, 구성력에서 유의한 상승이 나타났다. 반면 내용 충실성은 평균 점수가 상승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에 이르지는 않았다. 이는 수업 이후의 변화가 새로운 경험을 더 많이 서술하는 데서 나타났다기보다, 학습자가 이미 가지고 있던 경험을 작품 읽기와 연결하여 다시 배열하고 의미화하는 방식에서 두드러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표현력의 상승은 활동지에서 감정어, 공간 묘사, 상징 이미지를 정리하고 이를 자신의 경험과

연결하도록 한 활동과 맞닿아 있다. 성찰성의 상승은 경험을 단순히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경험이 현재의 자기 이해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쓰도록 한 글쓰기 피드백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구성력의 상승 역시 작품의 장면을 나누고 사건의 흐름과 감정 변화를 정리한 뒤, 자신의 경험을 시간·장소·인물·감정·변화의 순서로 조직하도록 한 활동과 관련하여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수업 이후의 변화는 경험의 양이 늘어난 것보다, 경험을 배열하고 장면화하며 자기 이해와 연결하는 방식에서 더 분명하게 확인된다. 다만 본 연구는 통제집단을 설정하지 않은 실제 수업 기반 사례 연구이므로, 위 결과를 수업 효과의 인과적 검증으로 해석하기보다는 학습자 글쓰기 변화의 경향을 보여주는 근거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실제 글쓰기 텍스트 안에서 주제 선택, 서사 구성, 표현 방식, 성찰성의 변화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살펴본다.

2) 자전적 글쓰기의 주제와 구성 변화

앞의 정량 분석에서는 사전·사후 글쓰기 점수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이어지는 분석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실제 글쓰기 텍스트 안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살펴본다. 특히 구성력, 표현력, 성찰성에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하여, 학습자가 선택한 경험의 주제와 그 경험을 서사화하는 방식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표 5] 사전·사후 자전적 글쓰기 주요 주제 및 구성 방식 분포(N=34)

범주	하위 항목	사전 빈도(%)	사후 빈도(%)	주요 변화
주제	유학 및 학교생활 적응	28(82.4)	4(11.8)	외부 적응 중심 서사의 감소
주제	가족 및 개인적 성장	6(17.6)	30(88.2)	자기 성찰 및 성장 서사의 증가
구조	연대기적 나열	30(88.2)	7(20.6)	단순 시간 순서 중심 구성 감소
구조	주제·인과 중심 구성	4(11.8)	27(79.4)	사건 간 의미 연결 증가

[표 5]에서 확인되듯이, 사전 글쓰기에서는 유학 및 학교생활 적응을 중심으로 한 외부 적응 서사가 우세하였다. 학습자들은 주로 한국에 온 경험, 학교생활의 어려움, 언어 문제, 외로움 등을 중심으로 자신의 경험을 서술하였다. 반면 사후 글쓰기에서는 가족, 유년 기억, 상실, 관계 변화, 개인적 성장과 관련된 주제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중국인 거리」읽기 활동에서 다룬 성장기 화자의 가족 관계, 낯선 공간 경험, 타자와의 만남, 상실과 결핍의 정서가 학습자의 경험 회상을 촉발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즉 학습자들은 작품을 통해 단순히 한국 생활의 어려움만을 떠올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장 과정과 관계의 변화, 고향과 한국 사이의 거리감, 현재의 자기 이해를 글의 주요 내용으로 끌어들였다.

서사 구성 방식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사전 글쓰기에서는 시간 순서에 따라 경험을 나열하는 방식이 많았으나, 사후 글쓰기에서는 특정 사건을 선택하고 그 사건이 자신에게 어떤 감정과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설명하려는 경향이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는 활동지에서 작품의 주요 장면을 분절하고, 각 장면의 감정과 의미를 정리한 뒤, 자신의 경험 중 하나의 장면이나 사건을 선택하여 글의 중심으로 삼도록 한 활동에서 비롯된 변화로 볼 수 있다. 특히「중국인 거리」에서 공간과 감각, 인물 관계가 화자의 성장 경험을 드러내는 방식은 학습자가 자신의 경험을 단순한 연대기적 나열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사건 중심의 서사로 재구성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 이 점에서 문학 읽기는 학습자가 자신의 경험을 다시 고르고, 이를 글의 중심 사건으로 배열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자전적 서사 구성 유형

사전·사후 글쓰기, 최종 자전적 글쓰기, 수업 활동지를 함께 검토한 결과, 학습자의 자전적 서사 구성 방식은 관계 중심형, 장면 중심형, 상징 중심형, 기타/혼합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 유형은 경험 조직 방식과 작품 요소의 활용 양상을 기준으로 나눈 것이다.

[표 6] 자전적 서사 구성 유형별 분류 및 특징(N=34)

분류 유형	빈도(%)	주요 전략	분석적 특징
관계 중심형	18(52.9)	인물 간 관계망의 구조화	가족, 친구, 주변 인물과의 갈등·화해를 통해 성장 경험 구성
장면 중심형	8(23.5)	세밀한 묘사를 통한 장면 재현	특정 시공간의 감각적 묘사를 통해 정서 표현
상징 중심형	6(17.6)	사물·감각의 상징화	특정 사물이나 이미지를 통해 결핍, 상실, 성장의 의미 표현
기타/혼합	2(5.9)	복합 전략 또는 변화 미미	여러 양상이 혼재하거나 변화가 뚜렷하지 않음

관계 중심형은 전체의 52.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 유형의 학습자들은 가족, 친구, 교사 등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인물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성장 경험을 구성하였다. 사전 글쓰기에서는 유학 생활의 어려움이나 학교 적응 경험을 비교적 단순하게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사후 글쓰기에서는 특정 인물과의 갈등, 거리감, 지지, 화해의 과정을 통해 자신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설명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인 거리」에서 화자가 가족, 이웃,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세계를 이해하고 자기 인식을 형성해 가는 구조와 연결된다. 학습자들은 작품 속 관계망을 읽으며 자신의 가족, 친구, 교사와의 관계를 떠올렸고, 이를 통해 자신의 성장 경험을 인물 간 관계의 변화로 구성하였다.

장면 중심형은 특정 공간이나 순간의 감각을 중심으로 자전적 서사를 구성한 유형이다. 이 유형의 학습자들은 고향, 기숙사, 학교, 한국에 처음 도착한 장소 등 특정 시공간을 중심으로 기억을 재현하였다. 사후 글쓰기에서는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기보다, 특정 장면의 분위기, 소리, 냄새, 감정 등을 통해 경험을 구체화하는 변화가 나타났다. 이는 「중국인 거리」에서 낯선 거리, 집, 주변 공간이 화자의 불안과 소외, 성장의 감각을 드러내는 방식과 관련해 해석할 수 있다. 작품의 공간성과 감각적 묘사는 학습자가 자신의 경험을 추상적으로 설명하기보다 특정 장소와 장면을 통

해 구체적으로 풀어내도록 이끈 요소로 볼 수 있다.

상징 중심형은 작품 속 사물이나 이미지, 상징적 표현을 자신의 경험과 연결하여 자전적 서사를 구성한 유형이다. 이 유형의 학습자들은「중국인 거리」에 나타난 거리, 집, 기차, 냄새, 색채 이미지 등을 자신의 기억 속 사물이나 장소와 연결하였다. 사전 글쓰기에서는 자신의 경험을 직접 설명하는 방식이 많았으나, 사후 글쓰기에서는 특정 사물이나 이미지를 통해 감정과 기억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는 문학 작품의 상징적 표현이 학습자의 자기 경험을 보다 입체적으로 구성하는 데 하나의 단서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기타/혼합형은 위의 유형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거나 변화 양상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이다. 일부 학습자는 관계, 장면, 상징을 함께 활용하였지만 특정 유형으로 분류하기 어려웠고, 일부는 사후 글쓰기에서도 여전히 경험을 단순히 나열하는 데 머물렀다. 이는 문학 읽기-쓰기 통합 수업이 학습자의 자전적 글쓰기 변화에 일정한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그 정도와 양상이 모든 학습자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해준다. 또한 최종 분석 대상자가 모두 여성 학습자였다는 점에서 관계, 감정, 가족 경험, 상실의 서사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졌을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유형 분석은 외국인 유학생 전체의 보편적 특성이라기보다, 본 수업 사례에서 관찰된 자전적 서사 구성 양상으로 제한하여 해석해야 한다.

이러한 유형 분석은 앞서 제시한 정량 분석 결과가 실제 글쓰기 자료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되었는지를 설명해 준다. 관계 중심형은 사건 간 인과관계를 형성하고 인물 간 갈등과 화해의 흐름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구성력 향상을 설명하는 자료가 된다. 장면 중심형은 감정을 직접 설명하기보다 공간과 분위기를 통해 제시한다는 점에서 표현력 향상과 관련해 이해할 수 있다. 상징 중심형은 특정 사물이나 이미지를 통해 자신의 결핍, 상실, 성장의 의미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성찰성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유형이다. 따라서 자전적 서사 유형 분석은 사전·사후 평가에서 확인된 구성력, 표현력, 성찰성의 변화가 실제 글쓰기 안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 주는 질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이 유형들은 「중국인 거리」의 인물 관계, 공간성, 상징 이미지가 각각 학습자의 관계 중심 서사, 장면 중심 서사, 상징 중심 서사로 이어지는 과정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작품 특수성과도 긴밀히 연결된다.

4) 학습자 사례 분석

사전·사후 글쓰기 자료를 바탕으로 세 명의 학습자 사례를 분석하였다. 앞서 34명의 자전적 서사 구성 유형을 전체적으로 분류한 것이라면, 여기서는 개별 학습자의 변화가 실제 텍스트 안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살펴본다. 세 사례는 각각 서사 구조의 확장, 감정 표현의 구체화, 자기 성찰의 심화라는 측면에서 서로 다른 변화 양상을 드러낸다. 사례 선정에는 베트남 학습자의 비중이 높고 사전·사후 글쓰기 자료가 비교적 충실하게 확보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다만 이 사례들은 베트남 학습자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본 수업에서 관찰된 자전적 글쓰기 변화 양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한정하여 해석하였다.[19]

① 서사 구조의 확장과 조직화: 학습자 A

학습자 A의 사전 글쓰기는 한국 유학 이후의 어려움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글의 흐름은 낯선 환경, 언어 문제, 외로움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제시하는 방식에 가까웠으며, 경험의 의미보다는 상황 설명에 초점이 놓여 있었다.

> 나는 18살 때 대학교 입학하려고 다른 도시 혼자 왔다. 처음 다른 도시 와서 집 혼자 구해야 하니까 어려움 많이 있었다. 그리고 공부하면서 생활비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해야 하고 너무 힘들었다. 그때 돈없을때 누구한테 말해야 하는지 모르고 그냥 혼

19) 학습자 글쓰기 인용은 원문 표현을 원칙적으로 유지하되, 개인정보는 익명화하고 의미 파악을 어렵게 하는 일부 오탈자와 띄어쓰기만 최소한으로 조정하였다.

자 생각 많이 했다. 그래서 매일 피곤하고 외롭고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 부모님 곁에 돌아가고 싶은 생각 많이 있었다. … 처음에는 포기하고 싶었지만 다시 생각하면 계속 노력해야 된다고 마음 먹었다.

반면 사후 글쓰기에서는 고향에서의 유년기, 한국으로의 이동, 낯선 환경에서의 적응, 현재의 자기 이해가 단계적으로 연결되었다. 학습자 A는 한국에 처음 도착한 장면을 구체적으로 회상하면서, 그 경험을 자신의 삶을 바꾼 전환점으로 의미화하였다.

나는 1997년에 베트남 남쪽 시골 마을 태어났다. 가족은 다섯 명 같이 살고 부모님은 항상 열심히 일하면서 우리 돌봤다. … 집은 가난했지만 가족은 따뜻했다. … 특히 한국 와서 공부하고 일하는 것은 내 인생에서 큰 전환점이 되었다. … 한국에 처음 도착하는 날은 아직도 생생하다. 낯선 공기, 낯선 말, 낯선 사람들 때문에 나는 혼자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 돌아보면 그 결심은 내 인생을 바꾼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학습자 A의 변화는 문장 수준의 변화보다 서사 구조의 확장과 조직화에서 두드러진다. 사전 글쓰기가 유학 생활의 어려움을 시간 순서에 따라 나열하는 방식에 가까웠다면, 사후 글쓰기는 고향의 삶, 가족의 기억, 한국으로의 이동, 낯선 공간에서의 적응, 현재의 자기 이해를 하나의 성장 과정으로 연결하였다. 특히 사후 글쓰기에서는 “큰 전환점”, “내 인생을 바꾼 중요한 전환점”과 같은 표현을 통해 특정 경험을 단순한 고생담이 아니라 자기 변화의 계기로 해석하고 있다. 이는 「중국인 거리」의 성장 서사와 낯선 공간 경험이 학습자의 유학 경험을 하나의 변화 서사로 다시 조직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학습자 A는 작품 속 화자가 낯선 공간에서 세계를 감각하고 자기 인식을 형성해 가는 구조를 자신의 유학 경험에 적용하면서, 경험을 단순한 어려움의 기록이 아니라 자기 성장의 과정으로 조직하였다.

② 감정 표현의 구체화와 장면화: 학습자 B

학습자 B의 사전 글쓰기는 공항에서 가족과 헤어지는 장면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사전 글쓰기에서는 슬픔, 외로움, 그리움과 같은 감정어가 직접적으로 제시될 뿐, 그 감정이 어떤 장면과 상황 속에서 형성되었는지는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았다.

> 공항에서 비행기 표를 손에 들고 있었다. 그때 저는 마음이 기쁘고 무섭다. 새로운 생활 시작하니까 기대도 있다. 하지만 모르는 나라 가서 걱정 많이 있었다. 가족하고 인사할 때 저는 웃으려고 했지만 말이 안 나왔다. … 보안 검색대 지나고 저는 이제 진짜 혼자 생각했다.

사후 글쓰기에서는 자신의 성장 배경과 한국어 학습 경험, 외로움의 감정이 보다 구체적인 기억과 함께 제시되었다. 학습자 B는 고향의 풍경, 어린 시절의 경험, 한국어 학습의 어려움을 통해 감정을 장면 속에서 드러내려는 변화를 보였다.

> 나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골 마을 태어났다. 거기 하늘이 파랗고 논밭 많이 있다. 아침 되면 닭 우는 소리 들린다. 어릴 때 나는 장난감 많이 없고 전자기기도 없었다. 그래도 친구하고 연 날리고 물고기 잡고 놀아서 재미있었다. … 한국어는 나에게 완전히 새로운 언어이다. 공부가 쉽지 않았다.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고 울었다. 외로움도 많이 있었다.

학습자 B의 변화는 감정을 직접 설명하는 방식에서 장면과 감각을 통해 드러내는 방식으로 옮겨 간 데서 살펴볼 수 있다. 사전 글쓰기에서는 “기쁘고 무섭다”, “걱정 많이 있었다”, “진짜 혼자”와 같이 감정이 비교적 직접적으로 표현되었다. 반면 사후 글쓰기에서는 “파랗고”, “논밭”, “닭 우는 소리”와 같은 시각적·청각적 이미지가 활용되면서 기억의 장면이 보다 선명하게 구성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인 거리」에서 공간과 분위기가 화자의 감정 변화를 드러내는 방식과 함께 읽을 수 있다. 작품 읽기 이

후 학습자는 자신의 감정을 추상적인 감정어로만 제시하기보다 특정 장면과 감각적 이미지 속에서 구체화하고, 그 장면을 통해 자신의 성장 경험을 설명하려는 방향으로 글쓰기를 확장하였다.

③ 자기 성찰의 심화와 미래 지향: 학습자 C

학습자 C의 사전 글쓰기는 가족의 상실 경험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사전 글쓰기에서는 상실의 경험이 주로 슬픔과 그리움의 감정으로 제시되었고, 그 경험이 현재의 자기 이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

> 나를 성장하게 한 큰 경험은 할머니와 이별이다. 할머니는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보다 가까운 사람이다. 나는 할머니 사랑하고 보호에서 자랐다. … 하지만 나는 감정이 약한 사람이 되었다. 작은 일에도 상처를 쉽게 받았다. 그리고 자주 우울했다.

사후 글쓰기에서는 상실의 경험이 단순한 슬픔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의 자기 이해와 미래의 진로 의식으로 확장되었다. 학습자 C는 자신의 고통을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계기로 해석하고, 이를 장래 희망과 연결하였다.

> 나는 베트남 호찌민에서 태어났다. 두세 살 때 부모님이 이혼했다. … 그 후 할머니하고 할아버지와 같이 살았다. … 할머니가 죽었을 때 나는 너무 큰 상실감을 느꼈다. …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조금 나를 이해했다. 삶 생각도 조금 바뀌었다. 이 경험은 그냥 슬픔만 아니다. 나는 그때부터 내가 어떤 사람 되고 싶은지 생각했다. 나는 한국어 교사가 되고 싶다. 나처럼 힘든 경험 있는 학생을 도와주고 싶다.

학습자 C의 변화는 상실 경험의 서술이 자기 이해와 미래 지향적 성찰로 옮겨 가는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전 글쓰기에서는 상실의 경험이 “감정이 약한 사람”, “우울했다”와 같은 자기 상태의 설명으로 이어졌다면, 사후 글쓰기에서는 “조금 나를 이해했다”, “어떤 사람 되고 싶은지 생각했다”, “힘든 경험 있는 학생을 도와주고 싶다”와 같이 과거 경험을 현재의 자기 인식과 미래의 진로 의식으로 연결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중

국인 거리」에서 화자가 낯선 공간과 관계의 균열, 상실과 결핍의 경험을 통해 자기 인식을 새롭게 구성해 가는 성장 서사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학습자 C는 상실의 경험을 단순한 개인적 고통으로 남겨두지 않고, 타인을 이해하고 돕고자 하는 미래지향적 자기 이해로 다시 의미화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세 사례에서는 「중국인 거리」를 활용한 읽기-쓰기 통합 수업 이후 학습자의 자전적 글쓰기가 단순한 경험 기록에 머무르지 않고, 서사적 구성, 장면화, 성찰적 의미화로 확장되는 흐름을 볼 수 있었다. 학습자 A는 경험 배열과 서사 구조의 측면에서, 학습자 B는 감정 표현과 장면화의 측면에서, 학습자 C는 자기 성찰과 미래 지향의 측면에서 변화를 보였다. 이러한 사례는 「중국인 거리」의 낯선 공간, 관계 변화, 상징적 이미지가 학습자의 경험 회상과 연결되면서, 앞서 제시한 구성력, 표현력, 성찰성의 변화가 실제 글쓰기 텍스트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되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 교양교육의 맥락에서 오정희의 「중국인 거리」를 활용한 읽기-쓰기 통합 수업 이후 외국인 유학생의 자전적 글쓰기가 어떠한 변화 양상을 보이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4주 8차시 수업에서 수집한 설문, 사전·사후 글쓰기, 수업 활동지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학습자가 자신의 경험을 어떻게 선택·배열하고 현재의 자기 이해와 연결하는가에 주목하였다.

분석 결과, 사전 글쓰기에서는 유학 및 학교생활 적응, 언어 문제, 외로움과 같은 외부 적응 중심의 서사가 주로 나타났다. 반면 사후 글쓰기에서는 가족, 유년 기억, 상실, 관계 변화, 개인적 성장과 관련된 주제가 증가하였다. 서사 구성 방식에서도 시간 순서에 따른 경험 나열은 감소하고, 특정 사건을 중심으로 감정의 변화와 경험의 의미를 구성하려는 경향이 강화되었다. 정량 분석에서도 총점, 구성력, 표현력, 성찰성에서 유의한

상승이 나타났다. 이는 수업 이후 학습자의 변화가 새로운 경험의 양적 증가보다, 기존 경험을 서사적으로 조직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며 성찰적으로 의미화하는 방식에서 두드러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질적 분석에서는 학습자의 자전적 글쓰기 변화가 관계 중심형, 장면 중심형, 상징 중심형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유형은「중국인 거리」의 작품 요소와도 맞물려 있다. 관계 중심형은 작품 속 가족·이웃·타자와의 관계 구조와, 장면 중심형은 '중국인 거리'라는 낯선 공간의 감각적 재현 방식과, 상징 중심형은 작품 속 사물과 이미지가 결핍과 성장의 의미를 암시하는 방식과 관련해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외국인 유학생 대상 문학 수업을 작품 이해 중심의 활동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자전적 글쓰기와 연결한 실제 교양 수업 사례를 제시하였다는 점에 있다. 특히「중국인 거리」의 성장 서사, 낯선 공간, 관계 변화, 상징적 이미지가 외국인 유학생의 유학 경험과 자기 서사 구성에 연결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점에서 문학 기반 자전적 글쓰기는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표현 능력 향상뿐 아니라, 자기 경험을 한국어로 해석하고 서사화하는 성찰적 리터러시 형성과도 관련된 교육 활동으로 볼 수 있다.

교육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 대상 문학 수업이 줄거리 이해나 문화 정보 전달에 머무르지 않고, 작품 속 인물·공간·감정·상징을 학습자의 자기 경험과 연결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또한 자전적 글쓰기 지도에서는 학습자가 경험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특정 인물과의 관계, 기억에 남는 장면, 의미 있는 사물이나 이미지를 중심으로 글을 구성하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

다만 수도권 소재 한 대학의 수업 사례에 기초하였고, 최종 분석 대상자가 모두 여성 학습자였으며 특정 국적 학습자의 비중이 높았다는 점에서 연구 결과를 모든 외국인 유학생에게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아울러 통제집단을 설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수업 효과의 엄

밀한 인과관계로 해석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국적, 성별, 한국어 숙달도, 전공 배경을 가진 학습자를 대상으로 문학 읽기-쓰기 통합 수업 이후의 글쓰기 변화 양상을 비교·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인 거리」 외에도 이주, 성장, 가족, 상실, 정체성의 문제를 다루는 다양한 한국 현대소설을 활용하여 작품의 성격에 따라 학습자의 자전적 글쓰기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폴 리쾨르, 김웅권 옮김, 『타자로서 자기 자신』, 동문선, 2006.

Carter, R. & Long, M. N., *Teaching Literature*, London: Longman, 1991.

Rosenblatt, L. M., *The Reader, the Text, the Poem: The Transactional Theory of the Literary Work*, Carbondale: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1978.

논문

김민경·류선숙·이아름·심지연, 「중급 수준의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교양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기초 연구」, 『교양교육연구』 제18권 제2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24, 183-196쪽.

김미정, 「한국어 전공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문학 교수법 - 작품 읽기에서 감상문 쓰기까지 학습 과정의 한 제안 -」, 『건지인문학』 32집, 전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21, 77-98쪽.

김연하, 「소설 작품을 활용한 한국어 읽기·쓰기 통합 교육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김혜영, 「오정희 소설의 성장 수사학」, 『현대소설연구』 제27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05, 361-384쪽.

김화경,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자아 정체성 교육과 자기 서사 글쓰기 활용 방안」, 『리터러시연구』 제15권 제6호, 한국리터러시학회, 2024, 13-40쪽.

나선혜, 「대화주의에 기반한 외국인 유학생 대상 한국문학교육 연구」, 순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3.

나연서, 「자전적 소설 읽기 교육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마희정,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읽기·쓰기 수업의 모색 - 황순원의 「소나기」를 중심으로」, 『영주어문』 33집, 영주어문학회, 2016, 131-154쪽.

박수진, 「외국인 유학생 대상 성찰적 글쓰기를 활용한 수업 방안 - 교양 글쓰기 수업 사례를 바탕으로」, 『교양교육연구』 제15권 제1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21, 121-134쪽.

신영지,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문학 교육의 방법 연구」, 『우리말교육현장연구』 제10권 제1호, 우리말교육현장학회, 2016, 89-114쪽.

신윤경, 「한국어 문학 수업을 위한 읽기·쓰기 통합 방안」, 『작문연구』 제7호, 한국작문학회, 2008, 107-130쪽.

신윤경, 「외국인 대학생의 '성찰 글쓰기' 과목 개설을 위한 연구 - '자아 정체성'과 '문화 적응 스트레스', '한국어 능력'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 『언어와 문화』 제11권 제3호,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015, 147-169쪽.

안숙현, 「외국인 유학생 대상의 성찰적 글쓰기 수업 방안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20권 제14호,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0, 1039-1057쪽.

오윤호, 「「중국인 거리」에 나타난 移住의 想像力」, 『어문연구(語文硏究)』 제35권 제4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7, 265-288쪽.

이진아, 「성장소설을 통한 문학 교육 연구 -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우상의 눈물」, 「아우를 위하여」를 중심으로 -」,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이창남, 「다문화적 도시공간과 여성 성장소설 - 오정희의 「중국인 거리」 분석 -」, 『동서인문』 17집,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2021, 295-317쪽.

이혜강, 「문학 작품을 활용한 단계적 한국어 교육 방안 연구」, 『인문사회 21』 제9권 제4호, 인문사회 21, 2018, 413-426쪽.

장유정, 「경험의 서사화와 자전적 글쓰기 교육 연구」, 『국어교과교육연구』 제22호, 국어교과교육학회, 2013, 179-221쪽.

정선영, 「여성성장소설을 활용한 한국어교육 방안 고찰」,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3.

주지영, 「'중국인 거리'로 표상되는 세계, 그리고 여성의 정체성 - 오정희의 「중국인 거리」」, 『한국문예창작』 제15권 제2호, 한국문예창작학회, 2016, 77-115쪽.

하예원, 「성장소설을 활용한 자전적 글쓰기 교육 연구 - 2022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5.

한희수, 「서사 이론을 활용한 대학 글쓰기 지도방안」, 『리터러시연구』 제12권 제1호, 한국리터러시학회, 2021, 95-120쪽.

Tierney, R. J. & Pearson, P. D., "Toward a Composing Model of Reading", Language Arts, vol. 60, no. 5, 1983, pp.568-580.

인터넷 사이트

교육부, 「2025년 국내 고등교육기관 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 https://www.moe.go.kr, 2026.05.25.

국문초록

본 연구는 대학 교양교육의 맥락에서 오정희의 「중국인 거리」를 활용한 문학 읽기-쓰기 통합 수업 이후 외국인 유학생의 자전적 글쓰기가 어떠한 변화 양상을 보이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수도권 소재 A대학교의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4주 8차시 수업을 운영하고, 사전·사후 설문, 사전·사후 글쓰기, 수업 활동지, 최종 자전적 글쓰기 자료를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수업 이후 학습자들은 유학 및 학교생활 적응 중심의 경험 나열에서 벗어나 가족, 상실, 관계 변화, 개인적 성장과 관련된 경험을 중심으로 자기 경험을 재구성하였다. 글쓰기 평가에서는 총점과 구성력, 표현력, 성찰성이 유의하게 향상되었으며, 질적 분석에서는 관계 중심형, 장면 중심형, 상징 중심형의 자전적 서사 구성 양상이 확인되었다. 이는 「중국인 거리」의 낯선 공간, 인물 관계, 감정 변화, 상징적 이미지가 외국인 유학생의 경험 회상과 자기 서사 구성에 의미 있는 매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문학 읽기와 자전적 글쓰기를 결합한 교양교육 수업이 외국인 유학생의 성찰적 리터러시와 자기 이해를 촉진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주제어 ● 외국인 유학생, 「중국인 거리」, 자전적 글쓰기, 문학 읽기-쓰기 통합 교육, 성찰적 리터러시, 대학 교양교육

Abstract

Literature-Based Autobiographical Writing Instruction in University General Education: A Case Study of International Students Using Oh Jung-hee's Chinatown*

Hye-ran Hwang / Seoul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changes in international students' autobiographical writing after an integrated literature reading and writing class using Oh Jung-hee's *Chinatown* in a university general education context. A four-week, eight-session class was conducted at A University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pre- and post-writing samples, surveys, worksheets, and final autobiographical writings were analyzed. The results show that students moved beyond chronological descriptions of study-abroad adjustment and began to reconstruct their experiences around family, loss, changing relationships, and personal growth. Writing scores significantly improved in overall performance, organization, expression, and reflection, while qualitative analysis identified relationship-centered, scene-centered, and symbol-centered narrative pattern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unfamiliar spac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emotional changes, and symbolic images in *Chinatown* mediated students' recollection and narrative reconstruction of personal experiences. This study suggests that literature-based autobiographical writing can support international students' reflective literacy and self-understanding.

* "영문 초록의 표현 교정에 생성형 AI(ChatGPT)를 활용하였다."

Keyword ● **International students, Chinatown, Autobiographical writing, Integrated literature reading and writing education, Reflective literacy, University general education**

▌논문투고일:2026.05.30. ▌심사완료일:2026.06.18. ▌게재확정일:2026.06.26. ▌

https://doi.org/10.54698/kl.2026.21.635
지식과 교양, 제21호,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Knowledge and Liberal Arts, Vol. 21, LIC, pp.635-666.

‘핫 플레이스’는 어떻게 지역정체성을 생산하는 ‘랜드마크’가 되는가?

: 대전 ‘성심당’ 내외부의 문화 실천을 중심으로

김 지 영 · 한 상 헌 · 오 세 섭*

목 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랜드마크의 요인 1 : 성심당에 대한 장소애의 발현
4. 랜드마크의 요인 2 : 성심당 내외부의 문화 실천과 반향
5. 결론: 지역정체성을 생산하는 랜드마크로의 진화

1. 서론

일반적으로 랜드마크(Landmark)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명소로 생각된다. 특정한 장소가 그 지역의 정체성을 재현하고 이를 통해 그 지역 주민들의 동질감이나 자부심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도시브랜드 가치를 위한 정책뿐만 아니라 장소성과 지역정체성 간의 이론적 논의에서도 랜드마크는 중요하게 다뤄져 왔다. 방문객이나 지역 주민이 랜드마크와 함께 주변의 문화를 소비하면서 도시 이미지를 인식하고, 도시의 이미지화는 가치적·정서적 차원에서 도시 정체성의 확립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이나 도시정책 분야에서 랜드마크는 중요한 위상을 지닌다(공윤경,

* 김지영(제1저자) 충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언론정보학과 박사과정 수료
한상헌(공동저자) 대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오세섭(교신저자) 국립목포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조교수

2022). 통상적으로 랜드마크는 파리의 에펠탑, 로마의 콜로세움처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거대한 상징물 또는 자연물로 규정되는데, 때로는 오랜 역사적 건물이나 미려한 건축물로서 상업 공간이 랜드마크로 기능하는 경우도 많다.[1] 이와 같은 도시적 랜드마크는 시민 대부분이 인식하고 있으며, 역사성과 장소성에 의해 도시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새롭게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2]

현대 자본주의 시대에서 상업 공간은 이중적인 특성을 지닌다. 여러 사회적·문화적 특성이 획일화되는 장소에 대해 '무장소성(Placelessness)[3]'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고, 가족과 학교가 아닌 지역의 일상에서 사람들이 우연히 교차하고 만나는, 그래서 자발적인 사회적 유대의 가능성을 지닌 '제3의 장소'로 기대를 모으기도 한다.[4] 이렇게 사회공동체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기능하는 경우 상업 공간은 간간이 그 지역정체성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한 상업 공간의 장소성과 그 공간이 속한 도시의 지역 정체성의 관계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여 우리나라 상업 공간 중 대표적인 '핫 플레이스(Hot Place)'[5], 성심당을 다룬다. 핫 플레이스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도시계획, 경영·마케팅 분야에서 이루어졌는데, "사람들

1) 예를 들어, 미국 시애틀에 위치한 세계 최초의 스타벅스 1호점이 관광 명소가 된 것처럼, 상징적인 상업 공간이 도시의 랜드마크로 기능하는 경우도 있다.

2) 공윤경, 「랜드마크 선호로 본 랜드마크 특성과 인식 - 부산대학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과 지리』 28권 1호, 한국지역지리학회, 2022, 51쪽.

3) 무장소성이란 장소들이 고유한 의미를 갖지 못하고 저마다 비슷해지는 현상을 말한다. 에드워드 렐프 저,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역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290-291쪽.

4) 미국의 사회학자 레이 올든버그는 사람들이 제1의 장소인 가정, 제2의 장소인 학교 또는 직장이 아닌 미용실, 카페, 펍 등 일상에서 익숙한 장소들을 제3의 장소로 명명한다. 그는 제3의 장소를 새로운 교류 활동인 '비공식적 공공생활'이 일어나고, 지역 사회를 구축하는 힘이 있는 곳으로 보았다. 레이 올든버그 저, 김보영 역, 『제3의 장소』, 풀빛, 2019.

5) 핫 플레이스는 학술적으로 정립된 개념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는 "핫한 장소로 이슈화되고 유명한 장소, 인기 있는 공간"으로 통용된다. 김태경· 정천용·정지이 저, 『핫플레이스의 생성조건 및 쇠퇴·이동에 관한 연구』, 경기연구원, 2018, 133쪽.

이 선호하는 음식점과 매장들이 밀집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정보를 미디어나 SNS로 공유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게 되는 지역 또는 장소”[6]로 정의된다. 핫 플레이스의 탄생과 쇠퇴에 관한 도시 문화 연구에 따르면, 핫 플레이스는 문화적 다양성에 의해 생성되어, 상업적 자본의 영향이 섞이면서 성장하게 된다(김태경 외, 2018). 도시정책의 영역에서 핫 플레이스는 지역의 문화적 다양성이나 정체성을 형성하는 거점으로 주목받으며, 도시재생이나 지역 활성화의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초점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빵집의 인기 요인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넘어, 대전의 지역정체성이 성심당이라는 한 기업으로 포집되고 대체되는 사회적 현상에 집중된다. ‘성심광역시’라는 표현에서 드러나는 것처럼,[7] 대전 내외부 사람들에게 성심당은 곧 대전이고, 대전은 곧 성심당으로 여겨지기까지 한다.[8]

이러한 성심당의 유명세는 결국 대중의 열광에 기인하여 단명하는 수많은 핫 플레이스에 그치는 것일까, 아니면 대전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좀 더 지속성을 지닐까? 만약 그렇다면 성심당이 기존의 다른 핫 플레이스들과 구별되게 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성심당 운영진과 종사자 등 내부 구성원들의 인식과 지향점, 성심당을 애호하는 소비자들과 지역민의 애착, 성심당의 위상과 효용성을 포착하고 도시브랜드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교섭하려는 행위들이 어우러져 성심당의 위상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의문에서 출발하여 본 연구에서는 대전의 성심

6) 김성아·김병준·박수현·김규림·김흥순, 「서울시 핫플레이스의 입지 특성 분석 - 2017년과 2022년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6권 3호, 한국도시지리학회, 2023, 34쪽.

7) 남윤정, ““‘성심광역시’라고 불릴만하네”…전국서 가장 ‘빵빵한 매출’ 성심당의 비결은”, <서울경제>, 2024.04.18.

8) “사실상 ‘대전’하면 떠오르는 것이 ‘성심당’일 정도로 이미 매우 유명하다. 유명한 정도가 아니라 대전광역시 자체를 대표할 수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라는 문장에서 볼 수 있듯, 성심당과 대전의 관계는 동일선상에서 논의 되는 경우가 많다. 송지현,“대전을 대표하는 유명 베이커리, 대전성심당”, <지역N문화>, https://ncms.nculture.org, 2026.05.13.

당이라는 장소를 둘러싼 현상의 특징과 사회구성원들의 감정, 행위에 주목하고, 특정 공간의 장소성이 어떻게 지역정체성을 대표하게 되는지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성심당을 소재로 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성심당의 장소성 요인이나 장수 가게로의 성공 요인, 지역 문화자산으로서의 가능성을 분석해 왔다. 그에 따르면, 윤리성, 원천성, 상품성, 기념성, 인식성 등 성심당의 장소성 요인이 소비자의 재방문 의도를 높이고(김신일, 박태원, 2019), 지역 사회와의 유대 관계 형성과 같은 마케팅 전략이 장수 가게로의 성장에 작용했다(문승렬, 2025). 또한 대흥동 성당과 성심당의 종소리 같은 감각적인 요소가 지역의 역사문화자산으로 기능하는 것을 보여준 연구도 눈여겨볼 만하다(김명신, 2022). 최근 연구에서는 '빵지순례'와 같은 대중적 현상이 서구의 제빵 기술과 지역 식재료가 융합된 '글로컬리티(Glocality)'의 산물이자, 대전의 로컬리티를 전국적으로 확장하는 문화적 실천이라 해석되기도 한다(김요셉, 김현주, 2025).

기존 연구들은 문화자원이나 콘텐츠로서 성심당이 지니고 있는 영향력을 다각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지역사회 발전의 토대가 되는 문화자원과 콘텐츠는 그것을 누리는 수요자, 즉 지역민과 외부인의 관심과 인식에 바탕한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제 지역정체성을 형성하는 장소성의 측면에 집중하여 로컬리티(Locality)라는 정체성의 한 요소, 그리고 지역 구성원의 인식과 행위들을 분석하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본 연구가 주로 탐구하려는 것은 다음 질문으로 요약된다. 첫째, 지역을 대표하는 핫 플레이스로서 성심당은 어떻게 장소애를 형성하는가? 둘째, 성심당을 둘러싼 문화적 실천들은 어떻게 장소성으로 이어지는가? 셋째, 핫 플레이스에서 랜드마크로 전환되는 성심당의 장소성은 지역정체성 형성 과정에서 어떤 위상을 갖는가?

본 연구에서는 문헌 고찰과 사례 분석을 병행하면서, 이론적 함의와 새

로운 개념을 제안하기 위해 논리적으로 논지를 전개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둔다. 성심당이 상업 공간을 넘어서는 장소적 의미를 갖게 되는 지점을 포착하기 위해, 성심당과 관련한 언론 보도, 저서, 성심당 관련 온라인 '밈'과 각종 댓글, 사람들 간의 일상적 대화 등 성심당에 관한 표현과 관련 언술을 추가적으로 살핀다. 이에 더해, 연구자들은 성심당 문화원에서 열린 성심당 70주년 기념 전시회에 방문하여 각종 자료들을 관찰하였다. 세 명의 연구자가 제각기 성심당의 장소적 의미와 성심당을 둘러싼 문화적 실천을 범주화한 후, 이를 비교·분석하여 성심당의 장소적 특성이 지역정체성과 이루는 관계를 보려 하였다.

2. 이론적 배경

1) 도시 이미지와 장소성

(1) 도시 이미지 구성 요소의 역동적 결합

사람들은 어떻게 도시를 인지하고 기억하는가? 어떤 경험을 하는가에 따라,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에 따라 사람들에게 도시는 다른 이미지로 각인된다. 사람들은 실제 측량에 의한 지도가 아니라, 자신만의 의미와 중요성에 따라 공간을 인지하며, 그에 따라 자신의 내적인 지도, 심상지도(Mental Map)를 구성한다. 케빈 린치(Kevin Lynch)는 사람들이 복잡한 도시 환경을 인지할 때, 사람들은 자신만의 심상 지도를 그리며, 다음의 다섯 가지 요소, 통로, 경계, 구역, 결절점, 랜드마크(지표물)를 활용한다고 제안한다.[9)]

9) 첫째, '통로(Paths)'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경로(거리, 보도, 대중교통 노선 등)를 의미한다. 둘째, 사람들이 통로로 사용하지 않는 선형 요소로, 두 지역을 나누는 경계선(해안선, 장벽 등) 역할을 하는 것이 '경계(Edges)'다. 셋째, '구역(District)'은 '내부로 들어간다'고 인지하게 되는 중대형 규모의 2차원적 공간이다. 넷째, '결절점(Node)'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전략적 지점이자, 이동하는 주요 중심지로 거리 모퉁이의 만남의 장소, 광장이 해당된다. 마지막, '랜드마크(Landmark)'는 관찰자가 랜드마크 내부로 들어가지 않고 외부에 존재하는 점적인 참조물이다.

린치에 따르면, 랜드마크는 그 도시의 정체성이나 구조를 파악하는 단서로 사용되며, 관찰자는 여정이 익숙해질수록 더욱 그 랜드마크에 의존하게 되는 경향이 생긴다. 즉, 그는 도시 이미지가 물리적인 형태와 구조에 따라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관찰자와 환경의 양방향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되는 것이라고 보았다.[10] 도시 이미지와 사람의 인지에 대한 린치의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방향을 찾는 고정된 랜드마크가 사회구성원과 문화적 상호작용을 할 때 역동성을 지닌다는 점이다. 랜드마크를 매개로 도시 속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은 도시에 대한 공통된 기억과 도시 이미지를 확립할 뿐만 아니라,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공간은 장소가 되어, 장소 정체성을 만들어낸다.[11]

전국에서 찾아오는 유명한 빵집인 성심당은 대전에서 각종의 상호작용이 가장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장소다. 이러한 점에서 성심당은 통로의 풍경과 경계를 결정짓고, 구역을 형성하고, 결절점으로서 기능하며, 대전의 도시이미지에 역동성을 부여하는 랜드마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성심당은 기존의 랜드마크 개념으로는 다 담아낼 수 없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이기도 한다. 랜드마크로 포섭되지 않는 지역과의 관계와 의미가 덧붙여지면서, 보다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새로운 랜드마크의 개념의 정립이 요청된다.

(2) 물리적 공간에서 경험의 장소성으로

랜드마크와 마찬가지로, 물리적인 공간이 인간의 정서적, 심리적 교감의 대상인 경험의 '장소'로 치환될 때 비로소 그 공간은 생명력을 얻게 된다.

건물, 상점, 산, 표지판과 같이 뚜렷한 물리적 형태를 지니고 있고, 길을 찾거나 공간을 인식하는 기준점으로도 사용한다. Lynch, Kevin, *The image of the city*, Cambridge: Mass MIT Press, 1960, pp.47-48.

10) Ibid., p. 80.

11) 김현식, 「랜드마크의 토폴로지: 남산타워를 중심으로 한 도시 공간 소통구조」, 『에피스테메』 3권, 고려대학교 응용문화연구소, 2009, 108-110쪽.

에드워드 렐프(2005)나 이-푸 투안(2011)의 논의와 같이 성심당은 물리적인 공간(space)에서 특별한 정서와 경험이 함양된 장소(place)로 고취된다. 사람과 장소의 상호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고유한 특성으로서 장소성(placeness)은 사람의 복합적인 경험과 인식 속에서 만들어진다. 상업 공간에서 발현되는 장소성을 구체적으로 실증하기 위한 연구들은 이를 ‘장소 정체성(Place Identity)’, ‘장소 애착(Place Attachment)’, ‘장소 의미(Place Meaning)’의 세 하위 차원으로 세분화하여 접근한다.[12] 장소 정체성은 사람들이 특정한 장소를 다른 장소와 구별하고 인식하게 하는 고유의 물리적 속성이다.[13] 장소 애착은 개인과 특정한 장소 사이에 형성되는 감정적, 정서적 유대감을 뜻하고,[14] 장소 의미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집단적·사회적 차원에서 장소에 부여되는 상징적 의미로 규정된다.[15]

이러한 접근은 성심당이 특별한 장소성을 형성하고, 그 장소성이 대전이라는 지역정체성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는 논리적 가능성을 정교하게 만든다. 성심당을 둘러싼 현상에는 개인과 집단의 차원에서 고유의 특성이 공유되고, 감정적 유대감과 상징적 의미가 전제되어 있으며, 성심당이 위치한 대전을 상상하는 강력한 매개체로 기능하고 있다는 이론적 가능성이 도출된다. 도시 이미지와 랜드마크, 장소성을 형성하는 감정과 경험적 틀을 성심당이라는 상업 공간에 적용한다면, 성심당은 일종의 랜드마크로서 도시이미지를 대표하는 위상을 이미 넘어서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점에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성심당을 둘러싼 여러 문화적 상호작용, 문화적 실천들이다.

12) 김미영·임하나, 「골목상권에서 ‘장소성’은 유효한가」, 『문화경제연구』 28권 1호, 한국문화경제학회, 2025, 43쪽.

13) 이석환·황기원, 「장소와 장소성의 다의적 개념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32권 5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1997, 178-180쪽.

14) 에드워드 렐프, 앞의 책, 93-95쪽.

15) 이남휘·최창규, 「장소성 형성의 인과구조 실증적 분석: 서울 홍대 지역을 대상으로」, 『국토계획』 46권 3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1, 21-22쪽.

2) 도시 생태계와 문화적 상호작용

(1) 일상적 공동체 중심의 도시 공간

제인 제이콥스(Jane Jacobs, 2010)는 도시의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접촉이 개인들 사이에 공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상호 간의 공적 존중과 신뢰의 네트워크가 구축된다고 보았다.[16] 실제로 거리는 도시의 혈관처럼 기능하며 사람들을 도시의 이곳저곳으로 실어 나르고, 사람이 드나드는 것만으로도 도시는 활력을 얻는다. 유동인구는 상권을 형성하고 상권이 커지면 다시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때문이다. 비단, 제이콥스의 주장에 의지하지 않더라도, 획일적 재개발로 과거의 흔적을 지우고 부동산 가치에 의존하는 신자유주의적 재개발보다는 보존과 개선을 통해 전통을 유지하면서 현재와 미래를 함께 추구하는 방식이 주민의 정서에도 더 부합한다. 기존 공동체가 유지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쌓아 온 일상과 문화의 지층이 쌓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제이콥스는 공동체를 유지하면서도 도시의 다양성을 실현하는 공간의 조건으로 네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지구와 그 내부의 가능한 한 많은 지역이 하나 이상의, 가급적이면 둘 이상의 주요 기능에 이바지해야 한다. 둘째, 대부분의 블록이 짧아야 하며, 모퉁이를 돌 기회와 거리가 많아야 한다. 셋째, 다양한 경제적 수요를 수용할 수 있도록 오래된 건물을 비롯해 건축 연도와 상태가 각기 다른 여러 건물이 한 지구 안에 섞여 있어야 한다. 넷째, 어떤 이유에서든 사람들이 충분히 오밀조밀하게 집중되어 있어야 한다.[17]

성심당 일대는 이러한 조건에 상당 부분 부합한다. 성심당 주변에는 상업지구뿐 아니라 연극소극장, 필방거리, 화랑거리와 같은 문화예술 공간이 산재해 있으며, 옛 충남도청사, 대전부청사, 대전세무서, 대전중부경

16) 제인 제이콥스 저, 유강은 역,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 그린비출판사, 2010, 88-91쪽.
17) 제인 제이콥스, 위의 책, 210-211쪽.

찰서 등과 같은 관공서도 함께 자리하고 있다. 이로써 성심당은 빵을 판매하는 기능에 그치지 않고 관광과 휴식, 쇼핑과 식사 등 여러 활동을 유발하여 하나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적 역할을 맡는다. 또한 이 지역은 100년 전 조성된 도시 구조를 바탕으로 블록이 짧고 모퉁이가 많아, 골목이 거미줄처럼 뻗어 있다. 성심당 일대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동하며 머무는 밀집된 보행 환경을 형성하여 모퉁이를 돌 때마다 다른 점포와 공간을 발견하는 도시적 경험을 만든다.

그뿐만 아니라 성심당이 있는 은행동 일대가 대전의 근대문화유산이 집중된 곳이기도 하다.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한성은행 대전지점(1912년), 대흥동 성당(1919년), 충남도청(1932년), 조선식산은행 대전지점(1937년), 대전공립고등여학교 강당(1937년) 그리고 농수산물품질관리원(1958년) 같은 근대 건축물과 현대식 건물이 공존하며 장소의 시간성을 다층화하고 있다. 더불어 성심당 주변에는 오래된 상점과 새로운 상업시설, 화랑, 소극장 등 규모와 업종이 다른 다양한 건물들이 공존하면서 서로 다른 경제적 수요를 창출한다. 이처럼 이질적인 건물과 업종의 혼재 양상은 특정 브랜드의 독주가 아니라 주변 상권 전체의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조건이 된다. 또한 성심당은 핫 플레이스로서 방문객의 밀도가 매우 높다. 그 결과 이곳에는 다양한 연령대와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들고, 이러한 밀집과 혼합이 지역의 활력을 뒷받침한다.

단순한 소비를 넘어 대전이라는 지역에 대한 공유된 인식과 일체감을 형성할 수 있는 지역의 정체성을 새롭게 구축하는 상징 장소, 랜드마크로의 가능성이 생겨나게 된다. 최근에는 성심당 자체가 강한 구심력으로 작용하면서, 제이콥스가 말한 조건들이 성심당을 중심으로 더욱 강화되는 양상도 보인다. 즉, 성심당은 원래의 도시 조건 위에 자리 잡아 성장했을 뿐 아니라, 이제는 그 조건을 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내는 핵심 장소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자발적 즐거움에 기초한 하위문화의 문화실천

미하일 바흐친의 카니발리즘이란 무질서한 축제(카니발)를 통해 기존의 질서와 계급, 권위와 엄숙함을 일시적으로 전복·해체함으로써 다른 형태의 공존과 상생을 가능하게 만드는 장을 제공하는 것이다.[18] 그러므로 카니발에서는 우아함을 거부하고 탈규제와 평등을 구현하려 한다. 연극이나 노래, 의식 등은 규범을 벗어나려 하며 즉흥성을 통해 고정관념에 도전하며 카니발 참가자들은 기꺼이 축제를 즐기고 축제를 즐기는 동안 기존 관념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진다. 그리고 이러한 일탈과 탈규칙성, 자유로움은 공동체에게 재생의 기회를 부여한다.[19]

따라서 평소에는 금기시되거나 억압되어 온몸의 표현, 말하기 방식, 이례적 행동들이 카니발적 상황에서는 정상화되며 이 과정에서 권위와 거리감이 무너지고 사람들 사이에 친밀감과 동질감이 형성된다. 그리하여 처음 만난 사람들과도 줄 서기 같은 목적 행위를 통해 공동체성을 느낄 수 있게 된다. 물론 이것은 기이한 일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기이함은 사전적 의미로서 이상함이나 괴이함이 아니라 기존 규범을 뒤집어 보이는 문화적 표지이며, 풍자와 역설을 통해 사회 구조를 성찰하게 하고 공동체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생산적 실천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새벽부터 길게 늘어선 줄이나 몇 시간 기차를 타고 와서 빵을 사 가는 행위는 단순한 소비 행위를 넘어선 문화 현상으로 읽을 수 있다. 평상시의 일상적 루틴에서 벗어나 특정 장소에 모이고 같은 행위를 공유하면서 상호작용을 경험하는데, 이것은 소규모 카니발적 상황과 유사한 효과를 낸다. 게다가 의례는 장소의 의미를 재구성하고 참여자들에게 소속감과 집단적 즐거움을 제공한다. 또한, 주변인의 시선이나 대중적 관심은 역설적으로 공동체적 결속을 확인하는 계기가 된다. 따라서 성심당

18) Bakhtin, M., *Problems of Dostoevsky's Poetics. Caryl Emerson Ed. and Trans.*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1984, p.10.

19) Bakhtin, M., *Rabelais and His World. Helene Iswolsky. trans.* Cambridge, Mass:M.I.T. Press, 1968, p.295.

앞의 대기 줄과 장거리 방문객의 행위는 바흐친의 기이함과 연결된다. 일상적 규범을 잠시 뒤집어 놓음으로써 새로운 접촉과 친밀성을 창출하고 그로써 장소와 공동체의 의미를 갱신하는 축제가 되는 것이다.

3. 랜드마크의 요인 1 : 성심당에 대한 장소애의 발현

성심당의 인기와 영향력이 높아지면서, 대전 지역 주민들의 일체감도 상승한다. 이러한 과정 안에는 지역동질감, 자부심뿐만 아니라, 소유욕과 상실감, 지역문화정체성의 독점을 우려하는 불편함 등이 복잡하게 공존한다. 이러한 감정들은 지역민들이 지역정체성을 각인하는 데 성심당이 중요한 매개와 촉진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1) 도시와 성심당의 소유자: 대전 시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부심

성심당을 둘러싼 대중적 현상의 기저에는 성심당에 대한 개인적·집단적 감정으로서 애착이 깔려있다. 대전 시민이 느끼는 성심당에 대한 자부심과 애착은 대화 속에서, 온라인의 댓글에서, 어디에서든 쉽게 만나볼 수 있다. 대전 지역 주민들은 성심당이 화제가 될 때마다, 대흥동을 지날 때마다, 케이크를 살 때마다 성심당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다.[20] 애착이라는 감정의 발생은 정서적 동질감에 기인한 소유의식의 발로로 풀이될 수 있다. 성심당이 내걸고 있는 구호나 성심당과 관련한 몇 가지 신조어의 대중적 유행 등은 그러한 내면적 욕망을 뒷받침한다.

성심당이 내세우는 캐치프레이즈 "나의 도시, 나의 성심당"을 보자. 성심당이 위치한 장소로서 '도시'를 앞세우고, 이어서 '성심당'이 등장한다. 이 짧은 한 문장에는 대전이라는 도시와 성심당, 그리고 대전 시민이 모두 포함된다. 이 선언적 문구는 곧 성심당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게 되면, 동시에 도시라는 더 큰 대상을 향유할 수 있다고 속삭인다. 그렇게 대전과

20) 이와 관련하여 미디어 문화연구에서는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수다의 중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예컨대, 김수정(2008)은 텔레비전 토크쇼에서 무가치해 보이는 '수다'라는 행위가 문화연구의 중요한 소재로서 문화 정치적 함의를 지니고 있다고 분석했다.

성심당은 소유의 대상으로, 대전 시민은 소유자가 된다. 이 구호는 도시와 성심당에 대하여 소유하고 있다는 감각과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더 나아가 성심당을 갖고 있다는 감각은 도시와 성심당을 소유한 대전 시민이라는 자부심으로 증폭된다. 이로써 성심당은 오직 대전 시민만이 대전과 성심당에 대해서 온전히 느낄 수 있다는, 집단의식을 공유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

비슷한 맥락에서, 대전 사람들의 소위 '빵부심(빵에 대한 자부심)'도 집단적 정서로 간주될 수 있다. 성심당 출신 제빵사들이 동네에 빵집을 차리면서 다른 빵집들의 수준이 올라가게 되었고,[21] 결국 대전의 빵 맛이 상향평준화되었다는 '빵향평준화'[22]는 출처가 불분명하지만, 대전시민들이 갖고 있는 성심당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 이른바 빵부심을 드러내기도 한다. 성심당을 비롯해 동네 빵집이 이처럼 대전시민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어쩌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프랜차이즈 제과점이 골목 상권에 진출하는 것을 제한한 규제의 여파일 수 있지만,[23]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성심당은 대전의 골목 빵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진다. 대전 시민들 사이에 성심당과 대전의 빵에 대한 자부심이 만연한 현상은 다시 말하면, 성심당의 장소 정체성과 장소 애착이 적극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게 사람들은 성심당을 매개로 '대전 시민'이라는 소속감을 느끼고, 자부심을 느낀다.

2) 우리 빵집에서 전국 명소로: 양가적 감정 구조의 형성

앞에서 언급한 대전 시민의 빵부심은 단일한 집단 정서라기보다 긴장

21) 혹자는 '성심당' 출신이 아니라, 은행동에 위치한 '성심제과제빵학원' 출신이라는 것이 사람들 사이에서 와전되었다는 추측을 제기하기도 한다.

22) '빵향평준화'에 대한 대전 사회의 관심은 지역 언론의 보도에서도 확인된다. 2024년 6월, KBS 대전에서 ""성심당보다 맛없으면 망해요"…대전의 '빵향 평준화'"라는 제목으로 이 신조어에 관한 내용을 보도했다.

23) 2013년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제과점과 음식점 등 16개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인근 중소 제과점과 500m 이내는 출점을 자제하도록 권고했다(연합뉴스, 2013.2.5.).

감을 동반한 복합적이고 양가적인 감정 구조로 이해해야 한다. 과거 성심당이 전국적 명성을 획득하기 이전, 시민들은 일상적으로 성심당을 드나들며 친밀한 경험을 형성해 왔다. 이 시기에 성심당은 대전 지역의 일상 세계 속에 존재하는 로컬 장소였다. 성심당의 출발과 부침, 지금의 성공을 일상 속에서 지켜본 시민들은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의 시간의 경과를 체감하며, 함께 성장해 온 친구처럼 성심당을 여긴다.

이러한 시민들의 기억은 성심당이 전국적인 명소로 부상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다. 어릴 때부터 친숙했던 성심당이 너무 유명해져서 이제는 멀어진 친구 같다는 대전 시민들의 소회는 대전 시민이 성심당에 대해 갖고 있는 친밀감과 아쉬움을 동시에 보여준다. 한쪽에서는 지역 브랜드 가치 상승에 따른 자부심과 상징적 자본의 확장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상적으로 쉽게 점유하던 장소가 외부 방문객들에 의해 핫 플레이스화 되면서, 익숙했던 공간에 대한 접근성과 친밀성이 약화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는 애착 장소의 ‘탈지역화’ 혹은 ‘관광지화(touristification)’ 과정에서 흔히 관찰되는 감정 구조로, 장소에 대한 소유감과 상실감이 동시에 작동하는 양가적 정서를 말한다.

한편으로는 성심당이 대전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으로 과잉 부각되는 현상에 대해 불편함을 내비치는 목소리들도 있다. 이는 특정 상업 브랜드가 도시 정체성으로 과도하게 환원되는 것에 대한 우려로도 풀이될 수 있다. 성심당을 중심으로 한 도시 이미지의 단일화는 다양한 장소 경험과 기억을 보유한 시민들에게는 오히려 배제의 감각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성심당이 여전히 대전의 핵심 상징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다. 이는 성심당이 소비공간을 넘어, 도시 인식과 상징 체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매개로 기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성심당을 둘러싼 과도한 애정, 자부심, 불편함, 비판이 교차하는 현상은 해당 장소가 대전 시민의 정서와 인식 속에 얼마나 깊이 내재화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복합적 감정 구조는 다양한

담론 생산과 문화적 실천으로 확장되며 장소성이 사회적으로 재구성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대전 시민에게 성심당은 하나의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개인적·집합적 기억과 정서가 축적된 의미화된 장소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심당을 둘러싼 감정은 호감이나 애정을 넘어, 자부심과 소유감, 배타성, 상실감이 중층적으로 얽힌 복합적 감정 덩어리로 나타난다. 시민들은 성심당을 '우리 빵집'으로 인식하며 외부에 자랑하고 싶은 긍지를 가지는 동시에, 그것이 지나치게 외부에 개방되고 소비되기를 원하지 않는 내적 긴장을 경험한다. 이러한 긴장은 다시금 성심당에 관한 애착을 고양시킨다.

이는 애착 장소에 대한 전형적인 정서 반응이지만, 성심당의 경우 전국적 명성으로 인해 이러한 감정의 자율적 조절이 어려워졌다는 점에서 일종의 반작용을 야기한다. 전국적으로 유명해진다는 것은 언제나 렐프가 말한 디즈니화의 위험성에 놓여 있고, 자칫 무장소성으로 변이 될 가능성도 상존한다.[24] 대전 시민들은 자신들의 애착 장소가 외부인들에게 공유되고 재해석되는 과정을 수동적으로 지켜보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며, 이로 인한 정체성의 혼란이나 감정적 불안을 표출하기도 한다.

이처럼 복합적인 정서적 양상은 에드워드 렐프가 제시한 장소성 개념을 통해 보다 명확히 설명될 수 있다. 렐프에 따르면, 장소는 개인에게 의미를 지니는 공간이며 세계를 직접 경험할 수 있고 지속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삶의 장이다. 장소는 개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매개가 될 뿐 아니라, 공동체 역시 그 구성원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확인하는 기반이 된다. 따라서 사람들은 장소를 통해 물리적 공간을 넘어 정서적으로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게 된다.[25]

성심당이 전국적인 명소가 되는 과정은 지역 주민의 감정과 정체성의

24) 에드워드 렐프, 앞의 책, 205-216쪽.
25) 에드워드 렐프, 앞의 책, 287-289쪽.

복잡성을 수반한다. 성심당이 지닌 로컬 장소성이 부각되는 현상 속에서 지역 주민의 자부심이 강화된다. 동시에 지역 주민은 정서적 경험이 쌓인 삶의 장소를 상실할 위험을 감정적으로 감지하며, 성심당이 과도하게 관광지화될 가능성을 경계한다. 이와 같이 지역정체성을 형성하는 로컬로서의 장소성과 탈지역화라는 두 가지 상반된 현상은 지역 주민의 양가적 감정 구조를 형성한다. 결과적으로 성심당의 핫 플레이스화는 지역 주민이 성심당을 잃고 싶지 않은 장소로 느끼게 하는 이중적인 애착심을 불러오며, 대전 시민으로서의 지역정체성을 형성하는 계기를 제공한다.[26]

4. 랜드마크의 요인 2 : 성심당 내외부의 문화 실천과 반향

성심당이 표방하고 있는 가치들은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 상(象)으로 인식되고 있다. 성심당은 로컬리티와 착한 소비의 촉진자로 기능하고, 경제적 가치와 윤리적 소명을 결합한 '모두를 위한 경제'를 경영의 기준으로 삼아 '모두를 위한 착한 빵집'이 된다. 성심당 방문과 빵을 사는 행위는 단순한 소비에 그치지 않고 문화 실천의 한 형태로 읽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아울러 지역 공동체가 적극적으로 상생을 모색하는 활동들은 지역정체성의 확산으로 이어진다.

1) 경제적 가치와 윤리적 소명의 결합, 모두를 위한 '착한 빵집'

성심당 경영진이 견지하고 있는 종교적 신념(천주교의 이타주의)은 중요한 경영 가치로서 지역 공동체에 관한 관심으로 구체화된다. 그들은 종교적 가치를 개인적인 신념으로만 남겨두지 않고, 영성적 가치를 중요한 경영철학으로 삼아 성심당을 운영하고 있다. 성심당은 창업 이래 나눔을 실천하면서 '착한 빵집'으로 불리기도 했다. 2대 경영주 부부는 1999년

26) 지역 주민이 '내 동네'를 체감하고 지역정체성을 형성하는 데에는 무엇보다 소속감, 친밀감, 애착심과 같은 개인의 내면적 요소들이 중요하다. 양은주 외, 「동네의 재발견: 하이퍼로컬리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한국언론정보학보』 109호, 한국언론정보학회, 2021, 157-160쪽.

포콜라레의 새인류학교 세미나에서 'EoC(Economy of Communion)' 즉, '모두를 위한 경제' 개념을 접한다.[27] 모두를 위한 경제는 자본 중심의 경제 시스템에 대한 대안으로 사람과 생명에 중심을 두고, 보편적 형제애를 바탕으로 공동선을 지향하며, 이타적인 경영을 실천하는 대안적 경제 개념이자 운동이다.[28] 모두를 위한 경제는 이들이 성심당을 통해 영성적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절대적인 지침이 되었다. 그리고 포콜라레 운동의 창설자인 끼아라 루빅과 주고받은 편지에 있었던 "모든 이가 다 좋게 여기는 일을 하도록 하십시오."(로마서 12, 17)라는 성경 구절은 성심당의 경영의 기준이자 사훈이 되었다.

2대 경영주 부부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모두를 위한 경제를 구체화할 수 있는 실천 방안으로서 2007년에 '무지개 프로젝트'를 만든다. 무지개의 7가지 색깔에 맞추어 총 7개의 구호로 구성했는데, 성심인이라는 소속감을 강조하는 2개의 구호, 전문성을 고취하는 구호 1개, 직장 환경에 관한 구호 1개, 그리고 윤리적 가치에 관한 3개의 구호다. "재화를 통하여 올바른 경제활동을 한다,", "법률과 윤리 기준을 지킨다,", "정직한 재료와 환경보호로 인간의 존엄성을 갖는다."와 같은 윤리적 문구들은 약탈적 자본주의 아래 사람보다 이윤을 중시하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상상하면 떠오르는 부정적인 모습과는 정 반대에 있다. 올바름과 윤리, 정직함과 존엄성은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색채가 깃들어져 있는 개념으로, 천주교에서 전하는 사회적, 경제적 상생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처럼 영성적 가치에서 비롯된 성심당의 경영 철학은 마케팅 전략이나 경영 지침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원칙과 실천의 좌표가 되었다.

모두를 위한 경제, 모든 이들이 좋게 여기는 일을 실천하는 성심당의 경영철학은 기호학적인 의미에서도 특수한 장소 의미를 생성한다. 베풂, 나눔과 같이 성심당이 모두를 위한 경제를 위해 실천하는 원칙들은 사회공

27) 성심당 70주년 기념 전시회(방문일 2026.05.08.)
28) EoC 공식 홈페이지, https://www.eockorea.com, 2026.05.10.

동체 구성원이 함께 누릴 수 있는 '풍요로움'과 '풍성함'의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 좀 더 본질적으로는 성심당이라는 '빵집'과 '빵'에는 '채움'의 기의적 요소가 자리하고 있다. 종합하자면, 성심당이라는 기표에 영성, 윤리, 올바름, 풍요로움, 채움 등의 기의가 달라붙는다. 다른 상업 공간이 달성하기 어려운 가치와 기의들을 사회적으로, 기호학적으로 구성하며, 성심당만의 독특한 장소 정체성과 장소 의미를 생성해 낸다.

2) 로컬리티와 착한 소비의 촉진자

성심당은 로컬 그 자체를 만들어 내고 있다. 다른 지역에 지점을 내지 않는다는 성심당의 경영 방침은 방문객이 직접 대전에 와야만 성심당을 경험할 수 있다는 지점에서 상업적인 성공 요인으로 꼽히기도 한다. 대전을 고수하는 원칙은 바로 '그곳'으로서의 로컬, 로컬문화를 형성하고 상승시키는 거점으로서 성심당의 장소성을 고착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반드시 그곳에 가야만 경험할 수 있는 로컬리티(지역성)의 고착은 다른 대중적 인기 현상과는 큰 차이점을 지닌다. 가령 최근의 '두쫀쿠', '버터떡' 등 디저트 열풍은 하나의 상품이 전국적인 품귀 현상을 일으키며 주목을 받았지만, 성심당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두쫀쿠와 버터떡은 전국 어느 동네를 가더라도 카페나 베이커리에 가면 만나볼 수 있다. 두쫀쿠와 버터떡은 어디에나 있지만, 성심당은 어디에나 있지 않다. 이처럼 사람을 직접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성심당의 장소정체성이 갖는 물리적·문화적 효과이다.

성심당의 상품이 갖는 로컬리티는 지역 상생이라는 특수한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성심당의 유명한 지역 상생 제품으로는 논산 딸기를 사용해 만든 '딸기시루', 공주 알밤을 사용한 '공주밤식빵', '알밤시루'가 대표적이다. 성심당은 논산과 공주 지역의 농산물을 이용하는 소비자이자, 농산물을 활용한 상품을 제공하는 생산자로 기능한다.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나 특산품을 소비하는 것은 권장받을 만한 좋은 소비로 여겨지는 오늘날, 성심당의 소비와 생산에는 '착함'과 '좋음'의 의미가 부여된다. 이로

써 성심당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좋은 소비를 수행하는 착한 소비자가 된다.

지역 상생의 가치를 생성해 내는 성심당의 상품은 소비와 소비자의 의미를 재규정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는다. 지역 명칭을 상품명에 포함하거나, 인근 지역의 특산품을 사용했음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성심당의 마케팅 방식은 로컬리티의 확장성을 부각한다. 지역 특산품을 사용한 성심당 제품을 매개로 대전, 논산, 공주의 관계가 밀접하게 형성되고, 이를 소비하는 사람들은 대전과 논산 또는 대전과 공주를 동시에 떠올리게 된다. 지역 상생 제품의 생산과 소비를 통해 대전과 인근 지역의 장소 정체성이 중첩되면서, 소비자의 내적인 심상 지도에서 대전과 논산, 공주의 물리적, 심리적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이다.

3) 빵지 순례의 카니발

대전 성심당의 폭발적 인기는 이른바, '빵지 순례'의 전국적 유행을 불러왔다. 이는 대전 이외의 지역에는 분점을 내지 않는 성심당의 영업 방침과도 관련이 있다. 지명도가 높아 소구력을 지녔으나 다른 곳에서는 쉽게 만날 수 없는 명소이기에 사람들은 대전을 방문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성심당은 빵을 파는 가게를 넘어 대전 상권의 확장을 견인하는 앵커 스토어(Anchor Store)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는 성심당의 로컬리티를 방증해 주는 현상이지만, 한편으로는 이 빵지순례라는 현상은 또 다른 문화 실천적 측면을 보여준다.

바흐친의 카니발리즘은 이를 설명하는 데 유용해 보인다. 성심당으로의 빵지 순례는 바흐친이 말한 기이함과 친숙함의 경험을 제공한다. 바흐친이 말한 카니발은 사람들에게 일상의 규칙성에서 벗어나 일탈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이다. 성심당이란 공간 자체가 일종을 카니발적 공간이며 빵지순례는 카니발에 이르는 길과 비슷하다. 외부인들이 자기 지역을 떠나 대전으로 이동하고 성심당 앞에서 입장을 기다리는 과정은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고 육체를 불편하게 만드는 행위이지만 일상성을 벗어난 일탈적 행위라는 점에서 방문 자체를 특별하게 여기도록 만든다.

또한, 줄서기에 대한 외부의 시선을 함께 견디면서 방문객들은 바흐친이 말한 카니발적 세계의 낯선 활력과 기이한 즐거움을 경험한다.[29] 이러한 기이함은 비정상성을 뜻하지 않는다. 오히려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기묘하고 이상한 것"에 가깝다.[30] 일상의 질서가 느슨해지는 순간 발생하는 축제로서의 변형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이들은 대기 줄의 다른 사람들과 연대감을 느끼며 기존 관념을 거부하는 해방감을 느끼는데, 이 순간 빵을 사는 행위는 개인의 소비가 아닌 무의식 속의 집단 행위로 전이된다.[31]

성심당 앞의 줄은 대전이라는 도시를 통과하며 성심당을 향해 모여드는 사람들의 집합적 행동에 가깝다. 사람들은 먼 곳에서 일부러 찾아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서 있으며 그 기다림 속에서 서로를 타인으로 남겨두지 않는다. 줄이 길어질수록 불편도 커지지만, 바로 그 불편을 함께 감수하는 시간이 일상의 규범을 벗어난 예외적 시간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줄선 이들끼리의 연대감 속에서 서로에게 친숙함을 느끼게 된다. 이때 친숙함은 위계의 구분 없이 수평적인 관계를 추동한다. 빵가게 앞에서 줄을 서는데 계층과 계급, 인종과 종교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 모두가 빵이라는 목표 앞에서 하나가 되는 수평적 친밀감을 느끼게 된다.[32]

---

29) 성심당의 입장 대기줄은 일반적인 맛집 웨이팅과 비슷하면서도 구별된다. 둘 다 특정 공간에 들어가기 위해 기다린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성심당의 경우 외부 방문자가 대전까지 이동하는 과정까지 포함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해, 성심당의 대기 행위는 기다림 자체보다도 장소를 찾아가는 이동과 결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맛집 웨이팅과 다르다.

30)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기이하다,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pageSize=10&searchKeyword=%EA%B8%B0%EC%9D%B4%ED%95%98%EB%8B%A4#none, 2026.05.22.

31) Mikhail Bakhtin, Problems of Dostoevsky's Poetics, *Ed. and Trans.* Caryl Emerson,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1984, p.122.

32) Ibid., p.122.

이렇듯 빵지 순례의 핵심은 빵을 먹는 것이 아니다. 대전으로의 이동, 입장 전 대기 행렬 속에서 바흐친이 말한 집합적 도취에 이르며 빵을 사는 순간 카니발적 에너지가 분출된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해방감을 위해, 일상을 벗어나 대전으로 향하는 것이다.

4) 지역 공동체와의 호혜성 추구

성심당으로 인해 대전 지역의 원도심이 경제적, 문화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현상을 미루어 본다면, 지역공동체와의 상생적 관계가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의 성심당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지역공동체와의 교류협력을 해나가면서 단일한 빵집을 넘어 주변 지역과 기능적으로 얽혀 있는 도심형 문화 거점으로 발전하고 있다.

성심당 주변에는 이른바 '빵당포' 또는 '빵장고'가 있다.[33] 2024년, 은행동 으능정이 상점가 상인회와 성심당의 상생 사업, '은행동 상생프로젝트'로 빵장고가 처음 알려졌다. "빵이나 케이크를 맡겨 놓으면 더 여기 머물고, 또 머물게 되면 우리 지역의 정서나 아니면 우리 지역의 명소, 맛집, 또 매장들을 들를 수 있겠다"는 상인회의 아이디어로 시작되었다고 한다.[34] 이에 성심당 대표는 "저희만 잘되는 것보다는 은행동이 잘되고 대전시가 잘 되고 그런 (본보기)가 대한민국에 전파될 수 있다면 상당히 큰 일을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라고 화답한다.[35] 비록 유료 서비스이지만 적은 보관료만으로 이동의 부담을 줄이고 주변 지역을 여유롭게 탐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방문객과 인근 상권 모두에 편의를 제공하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빵당포는 성심당을 중심으로 지역 상권, 공동체가 어떤 식으로 호혜성을 추구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례이다. 제이콥스의 관점에서 보면, 빵당

33) 빵당포는 '빵'과 '전당포', 빵장고는 '빵'과 '냉장고'의 합성어다. 성심당에서 구매한 빵을 신선하게 보관해 주는 냉장 보관 서비스의 명칭이다. 빵당포라는 조어가 주는 강렬한 느낌과 재미로 인해 빵장고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34) 박병준, "'그냥 가긴 아쉽잖아요'…'빵장고'까지 등장했다", <KBS>, 2024.09.03.

35) 박병준, 위의 기사, 2024.09.03.

포의 등장은 성심당을 하나의 제과점이 아니라 지역의 일상적 만남과 상호작용이 응축된 동네의 거점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제이콥스는 제도적 통제보다 거리의 자생적 교류와 이용자들의 일상적 접촉 속에서 도시의 활력과 공동체성이 형성된다고 보았는데, 빵당포는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읽을 수 있다. 빵당포뿐만 아니라 성심당 빵을 주변 카페나 상점에 반입할 수 있도록 한 지역 상권의 선택은 경쟁보다 공존을 택한 사례이며, 특정 점포의 성공이 주변으로 선순환되는 상권 네트워크를 보여준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은 성심당을 둘러싼 행위들이 단순한 소비를 넘어 문화실천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성심당을 들르기 위해 대전을 방문하고 가게 앞에서 줄을 서며, 구매한 빵은 빵당포에 맡기거나 인근 카페에서 반입하는 일련의 과정은 성심당을 지역 사람들이 함께 의미를 만들어 가는 공간으로 만든다. 특히, 빵당포는 성심당에 대한 시민들의 애정, 성심당과 공존을 선택한 지역 상인들의 협력으로 이어진 사례로 서로를 배려하고 돕는 분위기가 실제 공간 속에서 드러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빵당포는 소비 행위가 상품 구매를 넘어 지역에 대한 애정과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러한 협력에는 긍정적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성심당 중심의 유입이 주변 상권 전체에 활력을 주는 한편, 특정 브랜드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형성되거나 지역 이미지가 단일 상징으로 과도하게 수렴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빵당포를 둘러싼 일종의 주도권 논쟁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처음 빵장고로 시작한 이후 빵보관소, 빵당포 등의 표현이 혼재되어 사용되다가 점차 빵당포라는 표현으로 자리 잡았다. 최근에는 빵당포가 지역 사립대학 학생들의 아이디어였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36] 아이디어 제공처가 상인회인지, 지역 사립대학 학생인지도 논란이다. 문화적 실천에서 이처럼 서로의 주도권을 행사하려는 움직임은 흔히 발생하는 부작

36) 강정의, “대박난 대전 성심당 ‘빵당포’, 대학생들 아이디어였다”, <경향신문>, 2026.04.06.

용이다. 빵당포 아이디어에 대한 원조 논쟁은 성심당이라는 만능열쇠를 가져오기 위한 '상징투쟁'의 양상으로 이어질 조짐도 보인다. 하지만 아직은 투쟁이 가시화해 갈등으로 이어지기보다는 대전 원도심의 활성화라는 긍정적 효과에 더 가까운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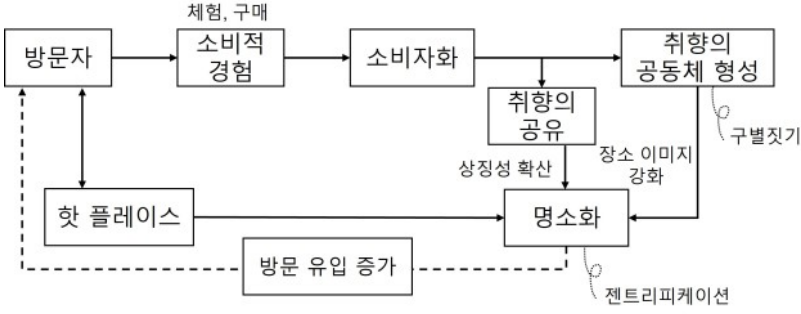
종합적으로 볼 때 빵당포와 인근 상권의 지원은 제이콥스가 강조한 도시의 다양성, 혼종성, 자생적 질서를 떠올리게 하며, 지역 공동체가 시장 논리만이 아니라 상호 호혜성에 의해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될 수 있다. 성심당은 제이콥스가 말한 도시 활력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례로 볼 수 있으며, 빵당포와 같은 현상은 그 조건이 실제로 어떻게 지역 공동체의 호혜성과 상권의 상생으로 이어지는지 보여주는 척도가 된다. 성심당은 유명 제과점일 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화 실천을 생산하여 대전의 장소성을 구축하는 곳이 되었다.

5. 결론: 지역정체성을 생산하는 랜드마크로의 진화

특정한 상업 공간이 방문자의 소비적 경험을 통해 명소화된 결과를 우리는 '핫 플레이스'라고 부른다. 오늘날 핫 플레이스는 주변 상업지에도 상승효과를 불러일으켜, '~리단길'처럼 상업가로를 활성화하기도 한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핫 플레이스에는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핫 플레이스는 상권 활성화와 동시에 주변 상업 공간의 임대료 상승을 불러와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허자연 외, 2015). 그래서 핫 플레이스는 한편으로는 환영받으면서도 항상 경계의 눈초리를 받는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경계 또는 지위에 놓여 있다.

반면, 랜드마크는 도시를 대표하는 상징으로서 물리적, 시각적인 핵심에 위치한다. 그리고 관찰자 또는 방문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핫 플레이스와 랜드마크는 구성원들이 경험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상업 공간에서 방문자는 경제적, 문화적 소비자로서 위치하며, 소비적 경험을 불특정

다수가 공유하게 되면 취향의 공동체가 형성되기도 한다. 부르디외(2005)는 오랜 시간 동안 누적된 취향의 차이를 통해 계급의식을 형성하는 투쟁 방식을 '구별짓기'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현대사회에서 소비 행위는 장소성과 소비자의 정체성이 결합된 구별짓기라는 모리스(1998)의 말처럼 핫 플레이스에서 이뤄지는 소비 경험의 유무는 여러 차원에서 상징적 투쟁과 구별짓기의 양상을 띠기도 한다. 또한 핫 플레이스에 방문자가 증가하면서 명소가 되는 과정에서 지대가 증가하면서, 본래 정주하고 활동하던 정착민들이 경제적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떠나게 되는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는 경우도 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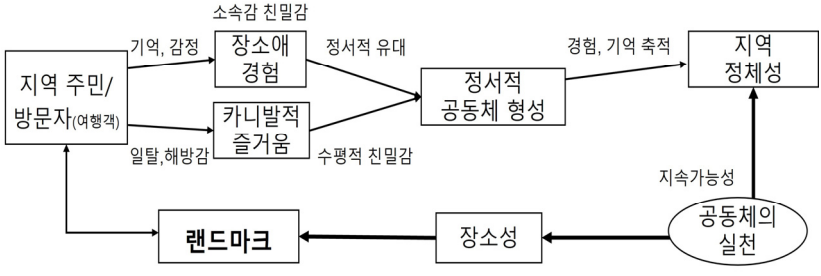
[그림 1] 핫 플레이스의 요소와 작동

이에 비해 랜드마크와 연관되는 구성원은 외부에서 찾아온 방문자(또는 여행자)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각각이 다르게 랜드마크의 장소성을 받아들인다. 특히, 지역의 주민은 랜드마크에 대한 장소애를 느끼면서 스스로 지역정체성을 공고하게 쌓아나간다. 랜드마크는 그렇게 장소성을 부여받으면서, 그 지역을 대표하는 시그니처(Signature)로 기능한다.

이미 핫 플레이스로 자리매김한 성심당이 랜드마크가 되고 있음은 여러 가지 면에서 증명되고 있다. 핫 플레이스로서 성심당의 빵은 구매하고 맛봐야 하는 취향의 경험재이면서, 윤리적 가치와 로컬리티를 지닌 랜드마크의 상징재로 각광을 받고 있다. 성심당 빵을 구매하기 위해 소요되는 긴 시간과 에너지는 카니발적 즐거움으로 장소의 추억을 쌓아간다. 성심

당에 대한 지역민의 양가적 감정 구조는 랜드마크로서 성심당의 입지를 다지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물론 핫 플레이스에서 랜드마크로 확장되는 상업 공간의 사례는 이전에도 종종 있었다.

하지만 성심당이 보여주는 로컬리티와 장소성은 소비자의 즐거운 축제성, 대전 시민의 문화 실천과 맞물리는 과정을 거듭하면서, 이제는 오히려 성심당이 대전의 특성을 뒤덮어 대전 정체성으로 정박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2017년 바티칸에서 성심당 CEO는 다음과 같이 포부를 밝혔다. "빵집 하나가 도시에 기여할 수 있을까? 저는 지방의 작은 빵집 하나가 빵을 통해 자신의 도시를 바꾸어 감을 보았습니다."[37] 이러한 표현은 그동안 장소가 지역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정도를 초월하여 장소가 포괄적인 지역의 새로운 정체성을 복합적으로 부여하는 새로운 차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2022년 폐고시원을 리모델링하여 성심당 문화원을 개원한 것도 자신의 역사와 뿌리를 되새김하는 방식으로 장소성에 대한 자각을 유지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대중에게 사랑받는 일정한 장소가 로컬리티, 경제적 가치, 윤리적 가치와 맞물리면서 도시의 정체성을 입체적으로 형성해 가는 역동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성심당은 '생성형 장소'로 고양된다.



[그림 2] 대전 성심당의 랜드마크적 요소와 작동

37) 성심당 70주년 기념 전시회(방문일 2026.05.08.)

핫 플레이스에서 랜드마크로 진화하는 이 과정에서 핵심은 내외부 공동체들의 문화 실천이 크게 작용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동인으로 인해 성심당은 앞으로 지역정체성을 주도하면서 더 확장된 랜드마크가 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38]

본 연구는 상업 공간 성심당이 특정한 장소성을 축적하면서 지역정체성의 거점으로 안착하는 과정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핫 플레이스가 랜드마크로 전환되는 과정과 이를 추동하는 내외부의 문화적 실천이 작동하는 양상을 분석하면서 새로운 랜드마크 개념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지금까지 성심당을 둘러싼 사회 현상과 문화 실천에 대해 서술한 내용들은 기존에 수행되어 왔던 랜드마크의 개념과 장소성의 함의를 풍부히 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이러한 연구는 지식과 문화, 사회의 관계를 지역 사례와 연결하여 통합적으로 고찰한 것으로, 앞으로의 문화연구와 지역정체성 연구에 중요한 촉진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38) 랜드마크로 지정되는 장소가 오히려 영향력이 커져 지역 특성을 만들어간다는 의미를 강조한다면, 이제 랜드마크를 대체하거나 덧붙이는 몇 가지 새로운 표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장소가 지역 전체의 성격이나 이미지를 결정짓는다는 의미로 ‘아이코노그래피(Iconography)’와 ‘시그니처(Signature)’, 특정 장소가 주변으로 영향력을 퍼뜨리며 지역 정체성을 정립하거나 바꾸는 원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에피센터(Epicenter)’, ‘앵커(Anchor)’, ‘로컬 제네레이터(Local Generator)’ 등은 유용한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어 보인다.

참고문헌

단행본

김태경, 정천용, 정지이 저, 『핫플레이스의 생성조건 및 쇠퇴·이동에 관한 연구』, 경기연구원, 2018.

레이 올든버그 저, 김보영 역, 『제3의 장소』, 풀빛, 2019.

에드워드 렐프 저, 김덕현 ·김현주· 심승희 역,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이 푸 투안 저, 구동회·심승희 역, 『공간과 장소』, 대윤, 2011.

제인 제이콥스 저, 유강은 역,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 그린비출판사, 2010.

피에르 부르디외 저, 최종철 역,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상』, 새물결, 2005.

Bakhtin, M., *Rabelais and His World. Helene Iswolsky. trans. Cambridge,* Mass: M.I.T. Press, 1968.

Bakhtin, M., *Problems of Dostoevsky's Poetics. Caryl Emerson Ed. and Trans.*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1984.

Lynch, Kevin, *The image of the city*, Cambridge: Mass MIT Press, 1960.

Morris, M. E., *Too Soon Too Late: History in Popular Culture,*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98.

논문

공윤경, 「랜드마크 선호로 본 랜드마크 특성과 인식 - 부산대학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과 지리』 28권1호, 한국지역지리학회, 2022, 49-63쪽.

김명신, 「대전 원도심 소리풍경에 관한 의미론적 연구 - 대흥동 성당과 은행동 성심당 종소리를 중심으로」, 『한국조경학회지』 50권 2호, 한국조경학회, 2022, 64-75쪽.

김미영·임하나, 「골목상권에서 '장소성'은 유효한가」, 『문화경제연구』 28권1호, 한국문화경제학회, 2025, 39-61쪽.

김성아·김병준·박수현·김규림·김흥순, 「서울시 핫플레이스의 입지 특성 분석 - 2017년과 2022년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6권3호, 한국도시지리학회, 2023, 33-49쪽.

김수정, 「‘수다’의 문화정치학: 텔레비전 토크쇼와 대중문화」, 『프로그램/텍스트』 17호,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2008, 69-107쪽.

김신일·박태원, 「로컬푸드기반 상업명소의 장소성이 방문자의 소비행태에 미치는 영향분석」. 『도시행정학보』 32권 1호, 한국도시행정학회, 2019, 47-67쪽.

김요셉·김현주, 「빵지순례와 글로컬리티 성심당 사례를 통한 한국 빵집 문화의 변용」, 『글로컬 어문학 문화 연구』 20권 20호, 글로컬어문학문화연구소, 2025, 50-60쪽.

김현식, 「랜드마크의 토폴로지: 남산타워를 중심으로 한 도시 공간 소통구조」, 『에피스테메』 3권, 고려대학교 응용문화연구소, 2009, 105-135쪽.

문승렬, 「장수 빵 가게 대전 성심당의 마케팅 전략 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7권 2호, 국제인문사회연구학회, 2025, 141-157쪽.

양은주·김지영·오창식·최정·최진실·김재영, 「동네의 재발견: 하이퍼로컬리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한국언론정보학보』 109호, 한국언론정보학회, 2021, 153-184쪽.

이남휘·최창규, 「장소성 형성의 인과구조 실증적 분석: 서울 홍대 지역을 대상으로」. 『국토계획』 46권3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1, 19-36쪽.

이석환·황기원, 「장소와 장소성의 다의적 개념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32권5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1997, 169-184쪽.

허자연·정연주·정창무, 「상업공간의 젠트리피케이션 과정 및 사업자 변화에 관한 연구 경리단길 사례」, 『서울도시연구』 16권2호, 서울연구원, 2015, 19-33쪽.

언론보도

강정의, “대박난 대전 성심당 ‘빵당포’, “대학생들 아이디어였다”, <경향신문>, 2026.04.06. URL: https://www.khan.co.kr/article/202604061455001

남윤정, ““‘성심광역시’라고 불릴만하네”…전국서 가장 ‘빵빵한 매출’ 성심당의 비결은”, <서울경제>, 2024.04.18.

박병준, “‘그냥 가긴 아쉽잖아요’…‘빵장고’까지 등장했다”, <KBS>, 2024.09.03.

연합뉴스, “제과 적합업종 선정…프랜차이즈 빵집 발 묶일 듯”, <연합뉴스> 2013.02.05.

KBS 대전, ““성심당보다 맛없으면 망해요”…대전의 ‘빵향 평준화’”, <KBS>2024. 06.26.

인터넷 사이트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기이하다, URL: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pageSize=10&searchKeyword=%EA%B8%B0%EC%9D%B4%ED%95%98%EB%8B%A4#none, 2026.05.22.

송지현, “대전을 대표하는 유명 베이커리, 대전 성심당”, 지역N문화, https://ncms.nculture.org, 2026.05.13.

EoC 공식 홈페이지, https://www.eockorea.com, 2026.05.10.

국문초록

본 연구는 상업 공간이 인기를 얻으면서 지역의 브랜드 상승으로 이어질 때, 단순한 소비공간을 넘어 지역의 랜드마크로 전환되는 현상에 주목한다. 특히 랜드마크의 장소성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도, 구성원들이 경험하는 감정의 구조와 이를 둘러싼 문화적 행위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주요 연구문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한국 사회에서 로컬리티를 성공적으로 구현한 사례로 평가되는 대전 ‘성심당’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성심당이 표방하는 경영 가치, 소비자와 지역민이 형성하는 정서, 그리고 이를 둘러싼 다양한 사회적·문화적 실천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 장소애와 문화실천적 행위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상업 공간인 성심당이 지역의 랜드마크로 부상하는 과정이 확인되었다. 대전 시민의 자부심과 애착으로 나타나는 장소애는 성심당을 전국적 명소로 확장시키는 한편, 소유의식과 상실감 등 복합적인 감정도 동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두를 위한 경제’와 로컬리티를 중심으로 한 경영이념은 지역 공동체와의 호혜적 관계를 형성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특성들은 성심당이 단순한 핫 플레이스를 넘어 지역정체성을 생산하는 진화된 형태의 랜드마크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기존의 장소성 논의가 물리적·상징적 의미를 넘어, 공동체의 감정과 문화적 실천을 핵심 요소로 포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 장소성, 장소애, 랜드마크, 로컬리티, 문화실천, 정서구조

Abstract

How Does a 'Hot Place' Become a 'Landmark' That Produces Regional Identity?

: Focusing on Cultural Practices Within and Around 'Sungsimdang' in Daejeon*

Kim, Ji Young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Han, Sang-heon / Daejeon Research Institute
Oh, Se Seop / Mokpo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process by which a popular commercial space evolves beyond a site of consumption into a regional landmark, contributing to the enhancement of local branding. In particular, it focuses on the emotional structures experienced by community members and the cultural practices surrounding them as key elements in constituting the placeness of landmarks. To this end, the study selects "Sungsimdang" in Daejeon, widely regarded as a successful example of locality in contemporary Korean society, as its case. It comprehensively analyzes the management values upheld by Sungsimdang, the sentiments formed by consumers and local residents, and the diverse social and cultural practices associated with it. The findings reveal that the interaction between place attachment and cultural practices plays a crucial role in the emergence of Sungsimdang as a regional landmark. Place attachment, represented by local pride and affection among Daejeon citizens, elevates Sungsimdang to a nationally recognized attraction, while also generating complex emotions such as a sense of ownership and feelings of loss. Furthermore, its management philosophy centered on "economy for all" and

* "영문 초록의 표현 교정에 생성형 AI(Claude, Anthropic)를 활용하였다."

locality fosters reciprocal relationships with the local community, thereby significantly contributing to regional economic vitality and the formation of local identity. These characteristics demonstrate that Sungsimdang is evolving beyond a mere “hot place” into an advanced form of landmark that produces regional identity. This suggests that existing discussions on placeness need to move beyond physical and symbolic dimensions to incorporate community emotions and cultural practices as central analytical elements.

Keyword ● Placeness, Topophilia, Landmark, Locality, Cultural practice, Structure of feeling

▌논문투고일:2026.05.31. ▌심사완료일:2026.06.29. ▌게재확정일:2026.07.03. ▌

https://doi.org/10.54698/kl.2026.21.667
지식과 교양, 제21호,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Knowledge and Liberal Arts, Vol. 21, LIC, pp.667-692.

성경적 인간 이해에 근거한 총체적 치유 교육 모델 연구

김 창 원*

목 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성경적 인간 이해와 총체적 치유신학
3. 총체적 치유유형과 치유과정
4. 총체적 치유 모델 사례분석:
   예수님의 총체적 치유사역 (요 5:1-18)
5. 결론: 총체적 치유 교육 모델 제시와 제언

1. 서론

오늘날 현대 사회는 신체적 질병뿐 아니라 정신적 불안, 관계의 갈등, 영적 공허 등 인간 존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문제들을 경험하고 있다. 급속한 산업화와 정보화 속에서 인간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지만, 오히려 심리적 불안, 정서적 고립, 영적 공허와 같은 문제들이 심화 되고 있다.[1]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치유이론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제시되는 치유개념은 주로 신체적 건강 회복이나 심리

* 건양대학교 대학원 치유선교학과 박사과정
1) Howard Clinebell 저, 박근원 역,『목회상담신론』, 한국장로교출판사, 2002, 35-42쪽.

적 안정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으며, 인간 존재의 근본적 차원인 영적 영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성경에 근거한 이분법적 인간 이해는 인간을 육체와 영혼으로 나눔으로써(벧전 2:11), 전인적인 인간 존재의 통합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 다른 3분법적 성경적 인간 이해는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으로 창조된 존재로 규정하며(창 1:27), 영·혼·육의 통합적 존재로 이해한다(살전 5:23). 인간 존재를 단순한 생물학적, 심리적인 존재로 보지 않고, 총체적인 존재로 규정한다. 따라서 치유 역시 단순한 기능 회복이나 증상 제거가 아니라, 총체적인 회복을 포함하는 총체적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특히 성경적 관점에서 치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전인회복, 그리고 사회와 자연을 포함한 공동체적 관계의 회복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개념이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 방법으로, 성경 본문과 총체적 치유신학 관련 문헌을 중심으로 이론적 분석을 수행하는 방법이다. 실증적 연구를 포함하지 않으며, 이론적 토대 구축에 초점을 둔다. 특히 성경적 인간 이해와 총체적 치유개념 간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연구 범위는 성경적 인간 이해와 전반적인 총체적 치유신학, 성경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치유사역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총체적 치유교육의 틀과 교육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성경적 인간이해와 총체적 치유신학

1) 성경적 인간 이해

(1) 총제적인 존재로 창조된 사람

하나님께서 사람을 포함한 자연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셨다(창 1장-2장). 하나님은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아하셨다(창 1:31).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5일 동안 분주하게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가 흙을 재료로 하여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을 위해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헨리 다이슨은 인간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피조되었다는 말은 “신체적 형상이 아니다. 정신적 형상이다, 도덕적 형상이다, 사회적 형상이다.”라고 설명한다.[2] 유해무는 개혁주의 신학의 관점에서 인간을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 안에서 이해한다. 인간을 단순히 이성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된 존재이고 인간의 타락은 단순한 도덕적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파괴이며, 그 결과 인간 존재 전체가 왜곡되었다고 설명한다.[3] 인간은 단지 하나의 육체적, 정신적 기계가 아니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으므로(창 1:26) ‘영과 혼 그리고 육체’를 지닌 존재이다(살전 5:23).[4] 박형렬 목사는 “인간은 신령한 생활과 정서적 생활과 그리고 육적인 생활을 축복으로 받아 모든 행동의 주체로 살 수 있었고, 우주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창 1:26-28).”[5] 이명수는 건강 상태를 WHO(1998)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한 상태라고 말한다.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나 장애가 없는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한 신체적, 정신적, 영적, 사회적 안녕 상태를 말한다.”[6] 결국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전인적인 존재이며 사회(자연, 환경)과 관계를 맺으며 통치해야 하는 총체적인 존재이다. 그래서 인간은 총체적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2) 총체적으로 타락한 사람

① 전인적인 타락

하나님께서 아담(하와)에게 유일한 금지명령(창 2:16)을 말씀하시고

2) 헨리다이슨 저, 권혁봉 역, 『조직신학개론』, 생명의 말씀사, 1994, 345-352쪽.
3) 유해무, 『개혁교의학』, 크리스천다이제스트, 2000, 232-267쪽.
4) 폴 투르니에 저, 정동섭·정지훈 역, 『폴 투르니에의 치유』, 도서출판 CUP, 2020, 123쪽.
5) 박형렬, 『통전적 치유목회학』, 도서출판 치유, 1994, 197쪽.
6) 김찬기, 「복음을 통한 믿음 치유 경험의 현상에 대한 연구」, 건양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130쪽.

순종하기를 원했지만 뱀의 유혹을 받아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타락했다(창 3:1-6). 김찬기는 "성서에서 말하는 죽음과 질병의 원인자는 사탄이다. 사탄에 의하여 죄와 질병과 죽음이 들어왔다."[7]고 하였다. 김 준은 아담이 모든 면에서 우리보다 훌륭했지만 죄로 말미암아 질병, 파멸이 왔고, 지력, 기억력, 상상력과 독창력까지 저하되었다고 설명한다.[8] 김찬기는 "죄가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전 존재(whole being)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병들게 만들고 죽게 만든 것이다."[9]고 하였다. 결국 죄로 인하여 인간에게는 육체적, 정신적, 영적, 환경까지 총체적인 죽음이 임한 것이다.[10] 사람의 전인적 타락은 영적, 혼적, 육적인 치유가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

② 사회 관계 파괴

창세기 2장 23절에서 아담은 하와를 일컬어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범죄하고 나서 타락한 아담이 첫 번째로 한 것은 하와에게 죄를 전가한 일이다. 또한 인류 최초의 아들인 가인은 동생 아벨을 쳐 죽였다(창 4:8). 인간은 반목하는 관계로 전락한 것이다. 협력자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동반자가 아니라 경쟁자로 전락하고 말았다.[11]

③ 자연(환경) 관계 파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은 인류 전체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도 아담의 타락에 연루되어 있다. 죄의 영향은 창조된 사물 그 어느 것도 원칙상 타락의 파괴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12] 사람이 타락했을 때 자연도 동

7) 위의 논문, 130쪽.
8) 김준, 『창세기의 과학적 이해』, (사)한국창조과학회, 2004, 91쪽.
9) 김찬기, 앞의 논문, 130쪽.
10) 김찬기, 「죄와 질병과의 상관성 및 치유」, 건양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24쪽.
11) 위의 논문, 16-17쪽.
12) Albert M. Wolters·Michael W. Goheen 저, 양성만·홍병룡 역, 『창조 타락 구속』,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2007, 93-94쪽.

시 타락을 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생산했다(창 3:18). 타락한 피조물도 허무한 데 굴복을 하게 되어 해방될 것을 기다리고 있다(롬 8:12). 결국 범죄 한 사람은 하나님과 영적 단절(롬 3:23)을 시작으로 총체적 타락을 하였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타락한 사람은 총체적 구원(회복)과 완성이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 한 인간이 전인적으로 치유가 되어가면 사회(자연, 환경)도 자연스럽게 회복되어져 간다.

2) 총체적 치유사역

(1) 개념

총체적 인간의 몸과 혼과 영 및 사회적 질병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으며 유기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 타락한 인간은 육체적, 심리적, 영적, 사회 및 자연 환경적인 종합된 관점에서 치유되어야 한다. 김찬기는 "성서에서 말하는 치유란 단지 육체적인 치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죄의 용서와 구원 그리고 정신적이고 영적이고 사회 공동체적인 차원(환경)까지 치유되고 회복되는, 총체적 치유(holistic healing)로 본다."[13]고 말하고 있다.

(2) 총체적 치유 체계

총체적 치유관점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며(창 1:27),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진 분리할 수 없는 전인"[14]으로 이해한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해하는 신학적 인간관에 근거하여, 신체적·정신적·영적·사회적 차원의 총체적 회복을 지향하는 총체적 치유모델이다. 이는 인간 존재의 다양한 차원을 이분법적, 삼분법적 분리된 영역으로 보지 않고, 통합성을 갖춘 긴밀한 유기체로 간주하는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한다.[15] 이 체계는 치유 사역의 전반에 걸쳐 다양한 전문 영역들ㅡ곧,

13) 김찬기, 「죄와 질병과의 상관성 및 치료에 관한 연구」, 건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35쪽.

14) 이명수, 『Note of Lectures on Holistic Healing』, 건양대학교, 2019, 3쪽.

목회적 돌 봄(pastoral care), 의학적 치료(medical care), 심리적 상담(psychological counseling), 그리고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의 협력적 참여를 요구하며, 이를 통해 총체적 치유가 실현된다. 즉, 총체적 치유는 복음에 기초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개인의 삶 전 영역에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되며, 그리스도의 회복적 은혜가 영혼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 그리고 관계의 치유로 확장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따라서 총체적 치유 체계는 단순한 증상의 제거를 넘어서, 인간 전체의 존재론적 회복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그리고 이웃 및 공동체와의 화해를 포함하는 구속적 실천이다.

(3) 총체적 치유관점에서의 인간 이해

총체적 치유는 인간을 네 가지 차원, 즉 영(spirit), 혼(정신, mind), 육체(몸, body), 그리고 사회적 관계(social relationships) 차원으로 이해한다. 이 네 가지는 서로 분리된 요소가 아니라, 상호작용하며 통합적으로 작용한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을 영적 차원, 혼(정신)적 차원, 육체적 차원, 사회적차원, 의학적·과학적 차원에서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살펴보자.

① 영적 차원

영적 차원에서 인간은 세 가지 관점(창조, 타락, 구속)으로 볼 수 있다. 첫째, 창조 때 인간의 영적 상태는 온전한 상태였다. 영적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존재이다. 영적 차원은 '인간 치유의 핵심 영역'이다. 둘째, 타락 후 인간의 불순종(창 3:6)으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 단절되었다. 인간의 영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본래의 기능을 상실했다. 영적 죽음에 대해 에베소서 2장 1절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표현한다. 세 번째, 성령의 도우심(요 3:5; 고전 12:3)을 받아 영이신 예수님을 영접(요 1:12)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15) 김찬기, 앞의 논문, 40쪽.

된다(고후 5:17). 그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 안에 계시는 예수의 영(성령 고전 3:16; 롬 8:9; 행 16:7 참고)이신 성령의 인도(롬 8:4)를 따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회복과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다(빌 2:12).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벧후 1:4).

② 혼(정신)적 차원

"정신(psyche)이란 말은 원래 헬라어 프쉬케(ψυχή)에서 유래된 말로서 사고 즉 생각하는 세계를 의미한다."[16] 인간의 정신은 인간의 사고, 감정, 의지 기능을 포함하는 내면세계의 중심이다. 구약의 레브(לֵב), 신약의 카르디아(καρδία)는 단순한 감정이나 생각의 장소를 넘어, 인간의 전 존재를 대표하는 개념이다. 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인간의 삶을 조정하는 핵심 기관이다.

③ 육체적 차원

육체는 단순히 물질적 몸이나 생물학적 기능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창 2:7). 육체는 단순한 껍데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도구이며, 인간 존재의 실제적 표현임을 의미한다. 성경은 구원받은 우리의 몸을 성령이 거하시는 전(고전 6:19)이라고 말하고 있다. 인간은 물리적 신체를 가진 존재로서, 육체의 건강은 정신적·영적 상태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④ 사회적 차원

인간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를 실현한다. Dietrich Bonhoeffer는 "고백과 용서의 공동체 안에서만 진정한 인간 회복이 가능하다."[17]고 보았다. 인간은 관계적 존재로, 가족, 교회, 사회공동체 안에서 자아를 형성하고 성장한다. 단절되거나 상처입은 관계는 정서적·영적 손상을 야기

16) 전재규, 『치유와 선교』, 한돌, 2010, 35쪽.
17) Dietrich Bonhoeffer, *Life Together*, New York, HarperOne, 1954, p.112.

한다. 때문에 관계의 회복이 치유의 핵심이다. 화해와 용서, 공동체 내에서의 지지는 전인적 회복을 가능하게 한다.

⑤ 의학적·과학적 차원

과거의 의학은 질병의 병리적 원인과 생물학적 기전에 주목하여 신체를 중심으로 한 접근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현대의학은 인간을 단순한 물리적 존재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기능이 상호작용하는 복합적 유기체로 인식하고 있다."[18] 의학적 차원에서 인간을 이해하는 방식은 단순히 생물학적 병리를 분석하고 이를 치료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인간은 유기적이고 항상성을 지닌 존재이며,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통합적 존재이다. 인간은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로, 의학은 환자의 전인적 삶을 고려하고 치유하는 총체적 관점을 지향해야 한다. 그래서 "WHO(1948)에서는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나 허약함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19]라고 정의했다.

(4) 인간 이해와 총체적 치유 개념의 상관성 심화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치유의 범위와 방법이 결정된다. 그래서 성경원어(히브리어, 헬라어)의 온전한 번역을 통하여 인간을 이해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한국에서 사용하는 개역개정판은 훌륭한 번역본이지만 번역본은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영, 혼, 몸, 육, 마음, 심령과 같은 단어들이 원문에 나오는 본래 뜻을 이해하기 어렵게 번역된 곳이 있다. 가장 혼란스러운 것은 영과 혼 그리고 영혼에 대한 번역이다. 야고보서 2장 26절의 '영혼'의 원어는 'πνεῦμα(프뉴마)'이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영혼'의 원어는 'ψυχή(프쉬케)'이다. 원어가 다른 데 똑같이 '영혼'으로 번

18) 박수현, 『인체 생리학』, 대학서림, 2019, 50-75쪽.

19) 방지아, 「정신·사회적 건강증진개념으로 접근한 노인주거시설 디자인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4쪽.

역해서 혼돈이 생기게 된다.[20] 때문에 제대로 인간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원어의 뜻을 정확히 번역한 성경을 참고하여 인간(영·혼·육)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하고 있어야 진정한 치유가 가능하다.

① 이원론적 인간 이해의 한계

올바른 치유를 위해 치유사역자와 치유대상자는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인간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성경에서 주장하는 2분설(영혼, 육체)과 3분설(영·혼·육)은 교단과 교파를 따라 수용 여부가 다르다. 손기철은 "인간을 단지 물질과 비물질적 측면에서 나누어 생각하기 때문에 영혼과 육체로 보고 있다. 그래서 영과 혼을 분리시킬 수 없다고 하지만 영과 혼은 결코 동일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며 "영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영적 세계와 관계 하는 일을 담당, 혼은 자아를 의식하고 정신세계와 관계, 몸은 세상을 의식, 물리세계와 관계한다."라고 한다.[21] 현대 의학과 심리학은 인간을 주로 신체와 정신으로 구분한다. 그러나 이는 영적 차원을 배제하는 한계를 가진다.

② 삼분설적 인간 이해의 확장성

창세기 2장 7절에서 언급되는 생기(וַיְהִי נִשְׁמַת , living being)와 생령(חַיָּה נֶפֶשׁ , living being)의 단어를 통해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육체 안으로 살아있는 숨을 불어넣어, 사람이 살아있는 혼(soul)이 된 것이다. 반면, 스가랴 12장 1절에서 사람 안에 심령(רוּחַ , spirit)을 지으신 역사에 대해 언급한다. 그래서 스가랴 12장 1절 '심령'과 창세기 2장 7절의 '생령'이 같다고 하면 이분설로 영혼을 해석하는 것이고 다르다고 하면 삼분설로 영과 혼을 다르게 보는 것이다.[22]

케네스 헤긴은 인간을 아래와 같이 세 가지 본질로 나눈다.[23]

---

20) 손기철, 『수수께끼 같던 영혼몸의 비밀이 풀린다』, 생명의 말씀사, 2025, 78쪽.
21) 위의 책, 75쪽.
22) 장영수, 『영·혼·육』, (사)기독교문서선교회, 2025, 31-35쪽.
23) 케네스 해긴 저, 김진호 역, 『인간의 세 가지 본성』, 믿음의 출판사, 2006.

a. 영 - 영적 영역을 다루는 인간의 차원. 하나님을 아는 인간의 부분
b. 혼 - 정신 영역을 다루는 인간의 차원. 지성, 감성과 의지, 논증하고 생각하는 부분
c. 몸 - 물리 영역을 다루는 인간의 차원

영은 자아(본성, 본질) 혹은 자아 의식체이며, 혼은 자아의 정체성을 의식하는 곳, 인간 대표한다. 성경에서 '혼'으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네피쉬'와 헬라어 '프쉬케'는 문맥에 따라 목숨, 생명, 나, 그 사람 자체로 표현한다. 육적 존재이든 영적 존재이든 혼으로 자신을 의식하고 자신을 대표한다. 몸은 물리적 세상에 접촉하는 곳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서 인간은 영, 혼, 육으로 구분되지만 '중심축'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바로 '혼'이다. 이 혼이 영과 육 가운데 어느 것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영의 사람' 또는 '육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혼을 잘 다스리거나, 치유하거나, 성숙시킬 때만 온전한 사역자가 될 수 있다.[24] 성경적 인간 이해는 유기적 존재로 분리될 수 없고, 일원론, 이분법(영혼과 육신), 삼분법(영·혼·육)으로 설명을 한다. 연구자는 치유의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삼분법의 구조를 사용할 것이다. 이러한 인간의 구조는 총체적 치유모델의 이론적 기반이 된다.

3. 총체적 치유유형과 치유과정

1) 총체적 치유유형

총체적 치유유형은 주로 신체적, 정신적, 영적, 사회적 측면을 통합하여 사람의 총체적인 치유를 목표로 하는 다양한 방법들로 분류할 수 있다. 총체적 치유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각 유형들은 상호작용을 통해 탁월한 치유 효과가 나타난다.

24) 전요셉, 『치유하시는 하나님』, 크리프트, 2012, 217-219쪽.

(1) 영적 치유

영적 치유는 사람의 영적 측면을 치유하는 데 중점을 두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영적 질병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다. 이명수는 "영의 병을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소외 상태)"라고 한다. 아담은 원래 창조 당시에 하나님과 연합관계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다. 존 칼빈(John Calvin)은 인간의 상태를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 죽음의 상태로 이해하였으며, 이를 통해 인간의 전적 부태와 영적 무능을 강조하였다.[25] 즉,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에 분리가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그러므로 영적 치유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회복하고,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차원의 온전함과 안녕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마음 치유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창 3:10). 마음 질병은 평안함이 결여 되어 있는 상태다. 평안함의 결여는 불안, 근심, 공포, 분노, 시기, 억압, 열등감으로 인해 생긴다고 볼 수 있다. 존 윔버(John Wimber)는 "오늘날의 가장 큰 질병 중 하나가 나쁜 감정적인 병이라고 했다."[26] 성경은 마음의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면서 이 사실을 지지해 준다. 잠언 17장 22절에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고 하였고, 잠언 4장 23절에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마음 치유는 영적 회복과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예수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 된 자와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사역을 하셨다(눅

25) 이명수, 『치유선교학』, 한국기독교의료선교협회, 2019, 88쪽.

26) John Wimber, *Healing, Vol. II* , Placentia, CA, Vineyard Ministries International, 1982, p.146.

4:16-18). 마음 치유는 마음을 옥토와 같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성숙한 인격적인 교제를 가능하게 한다.

(3) 신체적 치유

육체적 질병은 육체(신체, 몸)이 저항력과 파괴력 사이의 균형을 잃은 상태이며, 유기체가 일관성, 안정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항상성이 깨어진 상태다.[27]. 육체적 질병은 단순한 기능적인 육체의 질병도 있지만 대부분 정신적, 영적인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신체적 치유를 해결하려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치유 방법으로는 첫째, 의학적으로 인정된 약물이나 치료법을 사용하여 신체의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하는 약물치료가 있다. 둘째, 운동 치료나 재활 치료를 통해 신체 기능을 회복시키는 물리치료가 있다. 셋째, 대체의학으로 마사지, 약초 치료 등이 있다. 넷째, 영양 요법으로 건강한 식단과 보충제를 통해 신체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 시키는 방법이 있다.

(4) 사회적 치유

사회라는 개념 속에는 인간 공동체, 환경(자연)을 포함한다. 그리고 "공동체라 함은 같은 지역에 살면서 같은 법에 종속하며 공동의 유대, 관심, 가치, 또는 문제를 가진 집단을 말한다."[28] 사회적 치유는 개인들이 사회적, 사회적 환경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관계로 재구성하여 치유를 이루는 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치유 방법은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인간관계가 치유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사회공동체가 치유되어 부조화(소외)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과 평화로운 상태가 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사회적 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가족, 친구, 지역 사회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개인이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29]

27) 구교성, 「총체적 치유에 있어서 광선치료가 심리변화에 미치는 효과」, 건양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23쪽.

28) 이명수, 앞의 책, 268쪽.

2) 총체적 치유 과정 이해

(1) 창조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צֶלֶם,첼렘)과 모양(דְּמוּת,드무트)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이다.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존재로서, 자유의지와 창의성, 이성과 영성 등을 소유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가 가능하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을 부여받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다. 두 번째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구절의 의미하는 바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스탠리 그렌츠(Stanley J. Grenz)는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와 존 칼빈(John Calvin)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관계적 견해를 분명히 주장했다. 특히 존 칼빈(John Calvin)은 "형상을 관계적 차원을 개시했다고 주장한다."[30] 또한 칼 바르트(Karl Barth)는 "하나님이 인간을 자신과의 교제와 동료 인간과의 교제를 위해 창조했다"[31]고 말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관계적 존재다. 인간이 맺고 있는 관계는 수직적 관계(하나님 관계), 수평적인 관계(타인 관계), 내면적인 관계(자신 관계), 사회관계(환경, 자연)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다. 영이신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처럼 창조된 인간을 볼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신 것이다.

(2) 타락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다.

---

29) 이명규, 「총체적 치유 관점에서 본 기독교인의 행복에 대한 연구」, 건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5, 39쪽.

30) 김민철, 「원 역사에 나타난 인간이해」, 한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2, 37쪽.

31) 위의 책, 38쪽.

즉, 지혜, 덕, 거룩, 진리, 정의 대신에 더럽고 무서운 정신적인 병, 무지몽매, 도덕적 지적 무능, 불결, 허망 됨 부정의가 영혼에 물들었다.[32] 아담과 하와의 사랑의 관계도 깨여졌다. 죄를 범하고 타락한 후 서로의 관계에 변화가 생겼다. 수치심을 느끼며 타인에게 죄를 전가했다. 인간의 범죄와 타락으로 인해 인간관계에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서 점점 악하고 고통스러운 관계로 되어갔다(창 2:22-23; 창 3:12). 인간 타락의 심각한 결과는 전적인 영혼의 부패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존 칼빈(John Calvin)은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성의 순수함과 탁월함 가운데 아담 안에서 빛나고 있었다. 그러나 타락한 이후 그것은 심히 부패하고 파괴되어 남은 것이라고는 혼란과 훼손과 오염뿐이다."라고 말했다.[33] 존 웨슬리(John Wesley)도 "인간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그의 성품이 전적으로 타락하였고, 그의 영혼이 완전히 부패하였고, 그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말한다.[34] 더 나아가 아담의 죄는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쳤다(창 4:23, 24; 창 6:5). 범죄 이후에 사람은 평생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존재로 떨어졌다(창 17-19).

(3) 회복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들의 구원 필요성을 아시고 여자의 후손(구원자)를 약속하셨다(창 3:15). 하워드 보스(Howard F. Vos)는 그 약속이 "십자가 위에서 사단을 심판하실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첫 번째 구약 성경의 선언이다."[35] 라고 하였다. 손영규(2018)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 공로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놓인 막힌 담을 허시고 화해하게 됨으로 주님 안에서 다시 '거듭남'으로 '본래의 선한 상태'로 회복되고 치유되어 완전한 건강을 되찾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36]라고 했다. 총체적 타락에

32) 김찬기, 앞의 논문, 13쪽.
33) Wilhelm Niesel, 이종성 역,『칼빈의 신학』, 대한기독교서회, 1979, 8쪽.
34) 위의 책, 16쪽.
35) Howard Vos, 최학순 역,『구약연구의 길잡이』, 엠마오, 1988, 50쪽.
36) 손영규,『하나님의 치유』, 예영커뮤니케이션 , 2018, 174-175쪽.

서 회복과 완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롬 8:26; 빌1:6) 가능하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을 받아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 구속(구원)을 받을 때 회복의 상태로 되어 완성을 향해 비로소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치유는 회복시키는 과정이다. 타락된 상태에서 창조의 상태, 병리적 상태에서 생리적 상태, 파괴된 상태에서 온전한 상태, 무질서의 상태에서 질서의 상태, 소외된 상태에서 화해의 상태, 부조화의 상태에서 조화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과정이다.[37]

(4) 완성

종말론적인 구원은 영혼의 구속뿐 아니라. 육체의 부활로 몸이 온전한 상태로의 회복을 말한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육체가 신령한 몸(부활체)으로 변화되어 온전한 상태가 된다(고전 15:52-53; 고전 15:14).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서 완성된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이다. 온전히 회복된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사단과 마귀, 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완성된 상태는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천국 백성들과 자연 만물과 조화로운 상태에서 행복하게 살게 될 것이다.

4. 총체적치유모델 사례분석: 예수님 총체적치유사역 (요 5:1-18)

1) 베데스다 연못에서 행하신 예수님 총체적 치유사례

(1) 영적 치유

요한복음 5장에는 두 번째 유월절 기간 예루살렘 베데스다에서의 치유(요 5:1-15)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예루살렘 양문 곁 베데스다 연못의 행각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누워있는 38년된 병자를 자진해서 찾아가셨다. 요한복음 5장 6절에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

37) 김찬기, 앞의 논문, 20-21쪽.

으셨고, 병자에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요 5:8)"고 명하심으로 치유하셨다. 그런데 그 후에 성전에서 그를 만났을 때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요 5:14)고 당부하셨다. 베데스다 연못의 치유는 영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하게 한 영적 치유이다.

(2) 마음의 치유

예수는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셨다(요 5:6). 그러나 병자는 치유받고자 하는 자신의 의지를 명시적으로 드러내기보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요 5:7)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상황과 한계를 설명한다. 베데스다라는 뜻은 '자비의 집(House of mercy)'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현실은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의 장소였다. 38년된 병자의 목적은 베데스다 연못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병이 고침받는 것이다. 그런데 그는 오랜 질병으로, 진정 자신이 원하는 병고침이 아니라, 표면적으로 보이는 현상인 경쟁적으로 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말한다.[38] 예수는 3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심각한 정신적 고통으로 억눌려 있던 마음을 고쳐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요 5:14)고 말씀하시며 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셨다.

(3) 몸의 치유

예수는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에게 직접 다가가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신 후,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요 5:8)고 명하심으로 그의 육체를 치유하셨다.

(4) 사회(환경)의 치유

예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권자로 행동하셨다. 이는 예수가 이 땅에 오

38) 김균진, 『예수와 하나님 나라』, 새물결플러스, 2016, 417-418쪽.

신 목적과 하나님 나라의 계시를 삶과 사역을 통해 드러내셨음을 의미한다. 특히 예수는 공생애 기간 동안 안식일에 치유 기적을 행하심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참된 주권자이심을 나타내셨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기적의 수행을 넘어, 예수의 신적 권위와 메시아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사건으로 이해될 수 있다.[39]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한 사건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안식일의 참된 주인이심을 보여준다. 예수의 안식일 치유 사역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을 일으켰는데, 이는 불의한 지배 체제와 사회 구조에 대한 저항과 변혁의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예수의 치유 사역은 단순한 육체적 회복을 넘어 사회적·환경적 차원의 치유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40]

예수님의 총체적 치유 사역은 단순히 육체의 질병을 넘어, 영혼의 회복, 관계의 회복, 사회적 통합, 정체성의 회복까지 아우르는 하나님의 전인적 구속 사역의 표현이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병의 고침을 넘어서 인간 존재의 총체적 회복을 목표로 했다.

5. 결론: 총체적치유 교육모델 제시와 제언

하나님에 의해 총체적인 존재로 창조된 인간의 타락은 당연히 총체적 타락을 입었기에 자연스럽게 총체적 치유가 필요하다. 그래서 성경적 인간이해와 총체적치유신학 분석과 연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총체적치유사건들 중에서 예수님의 총체적 치유사례연구(요 5:1-18)를 토대로 하여 총체적 치유교육 모델을 제시한다. 6주간의 총체적 치유모델은 총체적(영·혼·몸·사회)회복을 목표로 한다.

6주 총체적 치유 교육 모델

1주 : 성경적 인간 이해 교육

39) 김홍전,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우리의 믿음』, 성약출판사, 2015, 281-282쪽.
40) 이애실, 『신약읽기 내비게이션』, 글로벌에듀포올피플, 2019, 60-117쪽.

목표 : 총체적으로 창조된 인간의 타락, 회복, 완성에 대한 이해
핵심주제 : 총체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예수님 안에서 총체적 회복
활동 : “나는 누구인가?” 묵상과 기록 및 소그룹 나눔
말씀묵상: 창 1:27, 살전 5:23
치유 도구 :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 자기 성찰 일지 작성

2주 : 총체적치유사역 필요성 교육

목표 : 총체적 치유사역이 필요한 인간 이해
핵심주제 : 총체적 회복을 위한 총체적 치유사역 필요
활동 : 총체적 치유말씀나눔, 총체적 회복이 필요한 영역 나눔
말씀 묵상 : 눅 4:18-19, 막 2:1-12
치유 도구 : 총체적 치유 말씀 연구 및 묵상, 공동체 나눔

3주 : 총체적 치유 사역 실제(총체적 접근 - 영 치유 중심)

목표: 영적 진단 - 자신의 영적 상태 인식
핵심주제: 나의 지금 영적 건강 상태는?
활동 : 영적 건강체크(기독교 전인건강검사지[41][42]), 영적일기 쓰기
말씀 묵상: 시 42편
치유 도구 : 말씀암송, 말씀쓰기, 말씀 읽기, 성령, 기도, 찬양

4주 : 총체적 치유 사역 실제(총체적 접근 - 혼 치유중심)

목표 : 내면 상처와 정서적으로 억압된 감정 치유
핵심주제 : 억압된 감정 발견, 용서와 회복
활동 : 감정표현 훈련, 상담 및 나눔, 스트레스 검사,
정신적 건강체크(기독교 전인건강검사지)

41) 기독교인의 전인건강(총체적건강)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박홍균(2020)이 개발한 ‘기독교 전인건강 척도’를 사용한다.

말씀 묵상 : 시 147:3
치유 도구 : 내적치유, 독서치유, 병원(정신,신경)활용, 산림치유,
미술치유, 음악치유, 뇌(심리)공부

5주 : 총체적 치유 사역 실제(총체적 접근- 육 치유 중심)

목표 ; 신체(몸)회복과 안정감회복
핵심주제 : 쉼과 회복
활동 : 자연 속 치유, 육체적 건강체크(기독교 전인건강검사지)
수면·건강관리 교육, 신체 교육,
말씀 묵상 : 마 4:23
치유 도구 : 푸드테라피, 산림치유, 운동, 숲길 걷기, 병원활용

6주 : 총체적 치유 사역 실제(총체적 접근 - 사회·관계 중심)

목표 : 단절된 관계 회복과 공동체성 회복
주제 : 관계 속 상처 이해, 가족 및 사회 공동체 회복
활동 : 경청 훈련, 갈등관리, 소그룹 나눔, 단체 활동
묵상 : 갈 6:2, 엡 4:2-3
도구 : 놀이치료, 웃음치료, 가족치료, 집단상담,

본 연구는 성경적 인간 이해를 바탕으로 총체적 치유 개념을 재조명하였다. 기존 치유 연구가 간과한 '총체적 차원'과 '영적 차원'을 포함함으로써 이론적 확장을 이루었다. 그리고 총체적 치유교육모델(6주과정)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문헌연구에 기반하고 있어 실증적 검증이 부족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설문 조사를 통한 효과 검증(양적연구)와 치유 경험 분석(질적연구)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인간은 총체적 존재-전인(영·혼·육)+사회(자연, 환경)-이다. 치유는 이 모든 영역의 회복을 포함한다. 따라서 교회 현장은 총체적 관점에서 총체적 치유를 실천해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총체적 존재로서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사는 존재였지만 범죄로 말미암아 총체적인 타락(하나님, 자신, 이웃, 사회)을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치유하기 위해 총체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총체적인 회복을 위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고전 15:45 참고)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 예수님은 공생애 사역을 하시면서 총체적 치유 사역의 본을 보여주셨다. 오늘날 치유사역자들은 총체적 치유 사역자이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한다. 주님의 몸된 교회(골 1:8), 예수님께서 머리로 계시는 교회(골 1:18, 고전 15:14)는 당연히 예수님의 총체적 치유사역을 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타락한 죄인들은 총체적인 치유 사역을 통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벧후 1:4)가 되고, 타락한 사회는 점점 회복되어져 갈 것이다.

총체적 치유교육 모델을 활용하여 치유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해 본다. 첫째는 전인 치유 프로그램 운영(예배, 상담, 봉사, 나눔을 통합한 사역)이다. 두 번째는 치유 공동체 구성(회복 중심 소그룹과 중보기도 팀 활성화) 셋째는 상담과 전문기관 연계(정신건강, 중독 치유 등 외부 자원 연계) 넷째는 신학적 교육 강화(치유신학, 영적 돌봄에 대한 교육 커리큘럼 개발)이다. 다섯째는 전문적인 총체적 치유사역자 양성이다.

총체적 치유교육 모델을 장착한 교회들을 통하여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총체적으로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지사충성(至死忠誠)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

참고문헌

단행본

김균진,『예수와 하나님 나라』, 새물결플러스, 2016, 417-418쪽.

김균진,『예수와 하나님 나라』, 새물결플러스, 2016.

김홍전,『주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우리의 믿음』, 성약출판사, 2015.

김 준,『창세기의 과학적 이해』, (사)한국창조과학회, 2004.

박수현,『인체 생리학』, 대학서림, 2019.

박형렬,『통전적 치유목회학』, 도서출판 치유, 1994.

손기철,『수수께끼 같던 영혼몸의 비밀이 풀린다』, 생명의 말씀사, 2025.

손영규,『하나님의 치유』, 예영커뮤니케이션, 2018.

유해무,『개혁교의학』, 크리스천다이제스트, 2000.

이명수,『치유선교학』, 한국기독교의료선교협회, 2019.

_____,『Note of Lectures on Holistic Healing』, 건양대학교, 2019.

이애실,『신약읽기 내비게이션』, 글로벌에듀포올피플, 2019.

전요셉,『치유하시는 하나님』, 크리프트, 2012.

전재규,『치유와 선교』, 한돌, 2010.

조두만,『히·헬라어 성경대사전』, 성지사, 1987.

케네스 해긴 저, 김진호 역,『인간의 세 가지 본성』, 믿음의 출판사, 2006.

폴 투르니에 저, 정동섭·정지훈 역,『폴 투르니에의 치유』, 도서출판 CUP, 2020.

헨리다이슨, 권혁봉 역,『조직신학개론』, 생명의 말씀사, 1994.

Bosworth, F. F., 오태용 역,『치유자 그리스도』, 베다니, 2004.

Hagin, Kenneth E, 오태용 역,『성경적 치유와 건강』, 베다니출판사, 2012.

Howard Clinebell, 박근원 역,『목회상담신론』, 한국장로교출판사, 2002.

Niesel, Wilhelm, 이종성 역,『칼빈의 신학』, 대한기독교서회, 1979.

Turner, John, 김선도 역,『치유하는 교회』, 광림, 1981.

Vos, Howard F, 최학순 역,『구약연구의 길잡이』, 엠마오, 1988.

Wolters, Albert M., and Michael W. Goheen, 양성만·홍병룡 역,『창조 타락 구속』,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2007.

Bonhoeffer, Dietrich. *Life Together,* New York: HarperOne, 1954.

Wimber, John. *Healing, Vol. II,* Placentia, CA: Vineyard Ministries International, 1982.

논문

구교성,「총체적 치유에 있어서 광선치료가 심리변화에 미치는 효과」, 건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김민철,「원 역사에 나타난 인간이해」, 한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2.

김영길,「치유목회가 교회성장에 미치는 영향」, 연산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김찬기,「복음을 통한 믿음 치유 경험의 현상에 대한 연구」, 건양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_____,「죄와 질병과의 상관성 및 치유」, 건양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방지아,「정신·사회적 건강증진개념으로 접근한 노인주거시설 디자인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박홍균,「기독교 전인건강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샬롬을 중심으로」, 삼육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0.

이명규,「총체적 치유 관점에서 본 기독교인의 행복에 대한 연구」, 건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5.

사전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요한복음 제1-6장, 서울: 제자원, 2006.

국문초록

본 연구는 성경적 인간 이해에 근거하여 총체적 치유개념을 재조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회 현장에 적용 가능한 총체적 치유 교육모델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대 사회에서 치유는 주로 의학적 치료나 심리 상담의 차원에서 이해되는 경향이 있으나, 성경은 인간을 육체·정신·영을 포함한 전인적 존재이자 하나님, 사회, 자연과 관계를 맺는 총체적 존재로 설명한다. 따라서 성경적 치유는 영적·정서적·육체적·사회적 회복을 포함하는 통합적 회복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인간 이해를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관점에서 고찰하였으며, 죄로 인해 하나님의 관계, 자신(영·혼·육)과의 관계, 그리고 사회와의 관계까지 단절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총체적 치유사역 안에서 회복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성경본문과 신학적 논의, 치유 관련 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문헌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성경적 총체적 치유는 단순한 질병의 제거를 넘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자아 정체성 회복, 공동체적 관계 회복을 포함하는 통합적 과정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성경적·신학적 토대를 기반으로 실제적인 총체적 치유교육 모델을 제시하며, 이 모델을 탑재한 치유하는 교회들이 총체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전인적으로 회복시키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헌신하는 치유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주제어 ● 성경적 총체적 치유, 성경적 인간 이해, 전인적 치유, 치유교육 모델, 치유 공동체

Abstract

A Study of a Holistic Healing Educational Model Based on the Biblical Understanding of Humanity*

Kim, Chang Won / Konyang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reexamine the concept of holistic healing based on a biblical understanding of humanity and to propose a holistic healing education model applicable to the church context. In modern society, healing is often understood mainly in terms of medical treatment or psychological counseling. However, the Bible describes human beings as holistic beings composed of body, mind, and spirit, who are also in relationship with God, society, and nature. Therefore, biblical healing signifies an integrated restoration that includes spiritual, emotional, physical, and social recovery. This study examined the understanding of humanity from the perspectives of creation, fall, redemption, and consummation. It argues that human beings, whose relationships with God, themselves (spirit, soul, and body), and society have been broken because of sin, can be restored through the holistic healing ministry of Jesus Christ. As a research method, this study conducted a literature review by comprehensively analyzing biblical texts, theological discussions, and previous studies related to healing. The findings confirm that biblical holistic healing goes beyond the mere removal of disease and involves the restoration of one's relationship with God, the recovery of self-identity, and the restoration of communal relationships as an integrated process. Accordingly, this study presents a practical holistic healing education model grounded in biblical and theological foundations. Furthermore, it expresses the hope that churches

* "영문 초록의 표현 교정에 생성형 AI(Claude, Anthropic)를 활용하였다."

equipped with this model will become healing communities devoted to restoring fallen humanity holistically and expanding the Kingdom of God.

Keyword ● Biblical Holistic Healing, Biblical Understanding of Humanity, Holistic Healing, Healing Education Model, Healing Community

▌논문투고일:2026.05.29. ▌심사완료일:2026.06.25. ▌게재확정일:2026.06.26. ▌

https://doi.org/10.54698/kl.2026.21.693
지식과 교양, 제21호,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Knowledge and Liberal Arts, Vol. 21, LIC, pp.693-740.

목회사역자의 인지적·사회적 특성이 지속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

: 자기효능감과 정서적 몰입의 연속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 상 호 · 김 경*

목 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4. 연구의 방법
5. 연구의 결과
6. 결론 및 시사점

1. 서론

최근 조직행동 연구에서는 조직구성원의 역량, 심리적 자원, 정서적 애착이 조직몰입과 구성원 유지에 어떠한 방식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전문직, 교육조직, 비영리조직, 종교조직과 같이 역할요구가 복합적이고 정서노동과 관계노동의 비중이 높은 조직에서는 구성원의 직무수행 특성이 조직몰입으로 전환되는 심리적 경로를 규명하는 일이 중요하다. 교회조직은 신앙공동체라는 고유성을 지니지만, 동시에 목표, 역할, 규범, 리더십, 자원배분, 갈등조정, 구성원 유

* 박상호(주저자) 목원대학교 직원
김경(공동저자) 기성중학교 교사

지가 이루어지는 조직이다. 따라서 교회조직에 소속된 목회사역자는 종교적 소명만으로 이해되기보다, 복합적인 직무요구 속에서 인지적 판단, 사회적 상호작용, 자기효능감, 정서적 애착을 형성하는 조직구성원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한국교회는 교인 수 감소, 세대 간 신앙 전승 약화, 사회적 신뢰 하락, 목회환경의 복합화라는 변화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교회조직의 지속가능성을 담임목회자의 리더십이나 제도적 운영만으로 설명하기 어렵게 만든다. 실제 목회 현장에서는 전도, 교육, 심방, 예배, 상담, 행정, 갈등조정, 돌봄, 디지털 소통 등 다양한 과업이 수행되며, 이러한 과업을 담당하는 목회사역자의 인지적·사회적 특성과 심리적 자원은 교회조직의 유지와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목회사역자의 인지적·사회적 특성이 자기효능감과 정서적 몰입을 거쳐 지속적 몰입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관계를 조직행동론의 관점에서 탐색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기존의 교회 관련 연구는 목회자의 영적 리더십, 교인의 신앙성숙, 조직몰입, 소진, 스트레스, 소명감, 자아존중감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예컨대 목회자의 영적 리더십은 교인의 신앙성숙과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며(옥장흠, 2016), 목회자의 온정적 합리주의 리더십은 교수역량과 교회의 학습조직문화, 성도의 신앙성숙 및 서번트 리더십과 구조적으로 연결된다(연지연·최은수, 2016). 또한 목회자의 직무 스트레스와 소진 연구는 소명감, 자아존중감, 가족탄력성과 같은 심리적·관계적 자원이 목회자의 지속가능한 사역에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송미옥·심은정, 2018; 최성상·김미경, 2021). 그러나 이들 연구는 대체로 리더십, 스트레스, 소진, 신앙성숙의 관점에 집중되어 있으며, 목회사역자 개인의 구체적인 인지적·사회적 특성이 조직몰입으로 전환되는 심리적 경로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였다.

조직행동 연구는 이러한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이론적 자원을 제공한

다. Bandura(1997)의 사회인지이론(Social Cognitive Theory, SCT)은 개인이 자신의 과업수행 가능성을 어떻게 지각하느냐가 행동 지속성과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설명한다. JD-R(Job Demands-Resources) 모형은 직무자원이 구성원의 동기와 몰입을 촉진하는 동기 경로를 제시하며(Bakker & Demerouti, 2007), 이 관점에서 목회사역자의 인지적·사회적 특성은 직무자원(job resources)으로, 자기효능감은 개인자원(personal resources)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조직몰입 연구는 구성원이 조직에 대해 갖는 정서적 애착, 동일시, 잔류 의지의 구조를 설명해 왔으며(Allen & Meyer, 1990; Meyer & Allen, 1991), 국내 연구에서는 한국 조직맥락에서 정서적 몰입이 조직몰입의 핵심 차원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제기하였다(안정원·이순묵, 2015, 2018). 이러한 논의는 교회조직 구성원의 몰입 형성과정을 직무자원, 개인자원, 정서적 애착, 지속의지의 관계 속에서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목회사역자의 인지적 특성과 사회적 특성으로 구분한다. 인지적 특성은 문제해결능력, 의사결정능력, 상황대처능력으로 구성되며, 직무수행 과정에서 자기효능감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자원으로 설정한다. 사회적 특성은 협업능력,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으로 구성하며, 교회조직 내 관계 형성, 신뢰, 상호작용 경험을 통해 정서적 몰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 기반 자원으로 설정한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자기효능감이 정서적 몰입을 강화하고, 정서적 몰입이 지속적 몰입으로 이어지는 연속매개 구조를 검토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교회조직에 소속된 목회사역자의 인지적·사회적 특성이 지속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자기효능감과 정서적 몰입의 연속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목회사역자의 인지적 특성인 문제해결능력, 의사결정능력, 상황대처능력이 자기효능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사회적 특성인 협업능력,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이 정서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또한 자

기효능감이 정서적 몰입을 거쳐 지속적 몰입으로 연결되는지를 살펴보고, 과업중요성과 기술다양성을 통제한 이후에도 주요 구조경로의 방향성과 유의성이 제한적으로 유지하는지를 확인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회조직 구성원으로서 목회사역자의 인지적 특성은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목회사역자의 사회적 특성은 정서적 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자기효능감은 정서적 몰입을 거쳐 지속적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가? 넷째, 과업중요성과 기술다양성을 통제한 이후에도 주요 구조경로의 방향성과 유의성이 제한적으로 유지되는가? 다섯째, 이러한 결과는 교회조직을 포함한 비영리·전문직 조직의 인적자원관리와 조직몰입 연구에 어떠한 시사점을 제공하는가?

본 연구의 차별성은 기존 조직행동 이론을 새롭게 통합한다는 데 있기보다, 사회인지이론, JD-R 모형, 조직몰입 이론에서 논의하여 온 주요 개념들을 목회사역자 및 교회조직 맥락에 적용하여 그 설명 가능성을 탐색적으로 검토한다는 데 있다. 특히 본 연구는 목회사역자의 인지적·사회적 특성이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조직몰입에 연결된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대신 각 하위요인이 자기효능감과 정서적 몰입을 거쳐 지속적 몰입으로 연결되는 차별적 경로를 검토한다. 이러한 접근은 목회사역자의 조직몰입 형성을 단순한 신앙적 헌신이나 제도적 소속의 문제로만 이해하기보다, 사역 수행 과정에서 형성되는 심리적 자원과 관계적 경험의 결과로 해석하려는 시도이다.

본 연구의 핵심 이론틀은 사회인지이론과 JD-R 모형이다. 사회인지이론은 목회사역자의 인지적 특성이 자기효능감 형성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며, JD-R 모형은 직무자원과 개인자원이 조직몰입으로 이어지는 동기적 경로를 이해하는 데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목회사역자의 인지적·사회적 특성이 자기효능감과 정서적 몰입을 거쳐 지속적 몰입으로 이어지는 연속매개 구조

를 검토한다. 다만 본 연구는 횡단적 설문자료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해당 구조를 시간적 인과관계로 단정하기보다 조직몰입 형성의 심리적 경로를 탐색적으로 확인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러한 심리적 전이 구조는 향후 조직몰입의 형성을 과정 중심으로 분석하는 동태적 연구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는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에서 제한적으로 제시한다.

2. 이론적 배경

본 연구에서 '인지적·사회적 특성'은 목회사역자가 사역 수행 과정에서 발휘하는 직무수행 관련 역량을 의미한다. 본문에서는 용어 혼란을 줄이기 위해 '행동적 특성' 대신 '인지적·사회적 특성'이라는 표현을 중심으로 사용한다.

1) 직무자원 관점에서 본 목회사역자의 인지적·사회적 특성

본 연구는 목회사역자의 조직몰입 형성과정을 직무자원과 개인자원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JD-R 모형에 따르면 직무자원은 구성원의 목표 달성, 직무요구 완화, 성장과 학습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개인자원은 구성원이 직무환경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지속적으로 행동하도록 돕는 심리적 기반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목회사역자의 인지적·사회적 특성은 교회조직 내 직무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직무자원으로 볼 수 있다.

인지적 특성은 복합적 과업상황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탐색하며, 적절한 판단과 대응을 수행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문제해결능력, 의사결정능력, 상황대처능력을 인지적 특성의 하위요인으로 설정한다. 사회적 특성은 조직 내외 이해관계자와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고 관계를 조정하며 신뢰를 형성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협업능력,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을 사회적 특성의 하위요인으로 설정한다. 이러한 구분은 목회사역자의 직무수행 특성을 단순한 사역역

량이 아니라 조직 내 과업수행과 관계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조직행동 요인으로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역량(competency)은 특정 직무 상황에서 우수한 성과를 산출하는 개인의 지속적이고 측정 가능한 내적 특성으로 정의된다(McClelland, 1973). 이후 Boyatzis(1982)는 역량을 성과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행동 패턴으로 체계화하였으며, Spencer & Spencer(1993)는 이를 지식, 기술, 동기, 자기개념을 포함하는 통합적 구조로 확장하였다.

인지적 특성은 복잡한 사역 상황에서 정보를 분석하고 문제를 구조화하며 대안을 탐색하는 고차원적 사고 능력을 의미하며, 문제해결능력, 의사결정능력, 상황대처능력으로 구성한다(Mumford et al., 2000; 박상호·강신철, 2021). 문제해결능력은 사역현장의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탐색하며 해결과정에 참여하는 능력이다. 의사결정능력은 다양한 이해관계와 가치판단이 요구되는 교회 상황에서 적절한 선택을 수행하는 능력이다. 상황대처능력은 예기치 못한 변화, 갈등, 위기, 역할요구에 유연하게 반응하는 능력이다.

사회적 특성은 조직 내외 이해관계자와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관계 기반 능력으로, 협업능력,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으로 구성한다(Goleman, 1998; Edmondson, 1999). 협업능력은 팀 사역과 공동 사역에서 구성원과 역할을 조율하고 협력하는 능력이다. 의사소통능력은 정보와 의견을 명확하게 공유하고, 이견을 조정하며, 교회 구성원과 상호이해를 형성하는 능력이다. 대인관계능력은 성도, 동료 사역자, 교회 리더십과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능력이다. 사회적 특성은 단순한 친화성이 아니라, 조직몰입 형성을 촉진하는 관계 기반 자원으로 작동한다(오홍석, 2008; 오홍석·정명호, 2006). 다만 본 연구는 인지적 특성과 사회적 특성을 상위 범주로 설정하되, 각 하위요인이 동일한 방식으로 자기효능감이나 정서적 몰입에 영향을 미친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상위개념의 일괄 효과보다 문제해결능력, 의사결정능력, 상황대처능

력, 협업능력,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의 하위요인별 차별적 효과를 검토하는 데 초점을 둔다.

교회조직의 특수성은 공식적 직무분장보다 관계적 신뢰, 헌신, 소명, 봉사규범의 영향이 크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교회는 신앙공동체이면서 동시에 목표, 역할, 규범, 리더십, 자원배분, 의사소통, 갈등조정이 이루어지는 조직이다. 따라서 목회사역자의 인지적·사회적 특성은 일반 조직구성원의 직무역량과 유사한 측면을 가지면서도, 소명과 공동체적 가치 안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전문직 맥락에서의 선행 연구들은 인지적·사회적 특성이 서로 다른 심리적 메커니즘을 통해 성과 및 조직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Boyatzis, 1982; Goleman, 1998; 박상호, 2026).

2) 사회인지이론과 자기효능감: 개인 자원의 형성

Bandura(1977, 1997)의 사회인지이론(SCT)은 인간 행동이 개인적 요인, 환경적 요인, 행동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다고 설명한다. 이 이론의 핵심 개념인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특정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의 신념을 의미한다. 자기효능감은 행동 선택, 노력의 강도, 장애에 대한 지속성, 실패 후 회복을 조절하는 핵심 심리기제이다(Stajkovic & Luthans, 1998).

JD-R 관점에서 자기효능감은 개인 자원(personal resource)으로 기능한다. 인지적 특성은 숙달경험(mastery experience)을 통해 자기효능감을 직접 강화하며, 사회적 특성은 사회적 설득(social persuasion)과 정서적 안정성을 통해 이를 보조적으로 강화한다(Bandura, 1997). 이렇게 형성된 자기효능감은 조직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정서적 유대 형성으로 확장된다(Luthans et al., 2007; 김범주, 2020). 목회사역자의 자기효능감은 설교, 교육, 상담, 행정, 관계조정, 갈등관리 등 다양한 사역과업을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타나며, 이 믿음은 교회공동체에 대한 정서

적 몰입으로 연결된다.

긍정심리자본 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은 희망, 낙관성, 회복탄력성과 함께 성과와 적응을 높이는 심리적 자원으로 다루어지며, 개발 가능한 상태적 특성을 지니며 조직적 관리와 훈련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Luthans, Youssef, & Avolio, 2007; 이동섭·최용득, 2010; 강호철·이도화, 2016). 리더십 연구 역시 리더십이 자기효능감을 통해 조직몰입과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김용재·김종완, 2008).

3) 조직몰입의 전이 구조: 정서적 몰입과 지속적 몰입

조직몰입은 구성원이 조직과 맺는 심리적 결속을 의미한다. Meyer & Allen(1991)의 3요소 모형은 조직몰입을 정서적 몰입, 지속적 몰입, 규범적 몰입으로 구분한다. 정서적 몰입은 조직에 대한 감정적 애착, 동일시, 관여를 의미한다. 지속적 몰입은 조직을 떠날 때 발생하는 비용이나 손실 인식에 기초한 잔류 의지를 의미한다.

정서적 몰입이 지속적 몰입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감정의 단순 축적이 아니라 관계 자산의 재해석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회적 교환이론(Blau, 1964)에 따르면 개인은 조직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신뢰, 인정, 관계 유대 등 관계적 자산을 축적한다. 정서적 몰입이 강화될수록 이러한 자산은 심리적으로 더욱 가치 있게 인식되며, 이탈은 곧 자산의 상실로 지각된다. 이때 핵심 기제는 희생 인식(sacrifice perception)으로, 정서적 몰입이 높은 구성원일수록 조직을 떠날 경우 상실하게 될 관계적·정체성 자산을 더 크게 인식하게 되며 이는 지속적 몰입으로 전이된다(Meyer et al., 2002; Wasti, 2002).

그러나 국내 조직몰입 연구는 서구에서 개발된 3요소 모형이 한국 조직 맥락에서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안정원과 이순묵(2015)은 지속적 몰입의 수렴타당도 문제, 규범적·정서적 몰입의 변별타당도, 역문항 방법효과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후 안정원과 이순묵(2018)

은 정서적 몰입 중심의 재개념화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교회조직에 이 논의를 적용할 때, 목회사역자의 조직몰입은 단순한 계산적 잔류나 제도적 소속 유지로만 이해할 수 없다. 목회사역자의 조직몰입은 교회공동체에 대한 정서적 애착, 사역정체성, 공동체 구성원과의 관계, 사역의 의미, 현실적 지속가능성이 결합한 개념이다. 특히 교회 맥락에서는 사역자가 조직을 단순한 근무지가 아니라 전문성 발현과 소명 실현의 장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정서적 유대가 강화될수록 이탈 비용 역시 확대할 것이다(박상호, 2026). 따라서 본 연구는 정서적 몰입과 지속적 몰입을 중심으로 조직몰입을 설정하되, 지속적 몰입을 단순한 손익계산이 아니라 사역관계의 지속을 현실적으로 고려하는 심리상태로 해석한다.

<표 1> 정서적 몰입과 지속적 몰입의 개념적 구분

구분	정서적 몰입	지속적 몰입
Meyer & Allen의 원 개념	조직에 대한 감정적 애착, 동일시, 관여	조직 이탈 시 발생하는 비용·손실 인식에 기초한 잔류 의지
교회조직 맥락	교회공동체에 대한 애착, 소속감, 친밀감, 의미 경험	사역관계, 공동체 소속, 사역정체성, 관계자산의 상실 가능성을 고려한 지속 의지
핵심 심리	“이 공동체에 애착을 느낀다”	“이 공동체와 사역관계를 계속 유지할 이유가 있다”
주요 판단 기준	감정적 동일시와 소속감	관계적·심리적 손실 인식과 지속 필요성
본 연구의 해석	정서적 유대	관계적·심리적 지속의지
해석상 주의점	지속적 몰입과 높은 상관 가능	정서적 몰입과의 경험적 변별성 추가 검정 필요

본 연구는 지속적 몰입을 Meyer & Allen의 잔류비용 기반 개념에 기초하되, 교회조직 맥락에서는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관계, 사역정체성, 공동체 소속, 소명 실현 기회의 상실 가능성을 포함하는 관계적·심리적 지속의지로 제한적으로 해석한다. 다만 이러한 재해석은 정서적 몰입과 개념적으로 인접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두 개념의 경험적 변별성에 주의하여 결과를 해석한다.

4) 조직시민행동, 사회교환, 공정성 문헌의 함의

조직시민행동(OCB)은 공식적 보상체계에 의해 직접 규정되지는 않지만 조직의 효과적 기능에 기여하는 자발적 행동이다(Organ, 1988). 문형구와 김경석(2006)은 국내 조직시민행동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OCB의 개념, 하위차원, 선행요인, 결과요인, 측정방식의 정교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교회조직에서 봉사, 배려, 협력, 공동체 지원은 조직시민행동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나, 신앙적 소명·공동체 규범·정서적 관계와 결합한다는 점에서 일반 조직의 OCB와 구별한다.

심리적 계약 문헌은 조직과 구성원 사이의 기대와 약속이 충족될 때 구성원의 긍정적 태도와 행동이 강화되고, 위반될 때 조직시민행동과 몰입이 약화될 수 있음을 설명한다(Rousseau, 1995; 김민수·박지은, 2006; 박지은·오원경·김민수, 2012). 상호작용 공정성 연구는 리더와 구성원 간 존중, 설명, 정보제공, 대인관계적 처우가 정서적 조직몰입을 형성하는 중요한 선행요인임을 시사한다(오원경·김민수·손건강·신경식, 2013). 이는 교회조직에서도 리더십의 공정한 소통, 존중, 설명 책임이 목회사역자의 정서적 몰입을 강화하는 핵심 조건임을 시사한다.

5) 리더십, 네트워크, 잡 크래프팅 및 부정적 리더십 문헌의 함의

자기희생적 리더십 연구는 리더가 개인적 이익을 유보하고 공동체 목표를 우선할 때 구성원의 긍정적 정서와 역할 외 행동이 강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손승연·윤석화·최연, 2015). 멘토링 네트워크 연구는 개인이 보유한 관계망의 중심성, 다양성, 강한 유대와 약한 유대가 자긍심, 정보획득, 사회적 자본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제한적으로 제시한다(김민정·김민수·오홍석, 2006). 교회조직에서 사역자는 담임목회자, 동료 사역자, 평신도 리더, 성도, 외부 사역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으며, 이러한 네트워크가 풍부할수록 자기효능감과 정서적 몰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잡 크래프팅은 구성원이 자신의 직무를 수동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

니라, 과업의 범위, 일에 대한 인식, 직장 내 관계를 능동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일의 의미와 몰입을 높이는 행동을 의미한다(Wrzesniewski & Dutton, 2001). 이상훈·신유형·백승익(2018)의 연구도 잡 크래프팅이 역할모호성과 업무몰입의 관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조직행동 개념임을 시사한다. 반면 부정적 리더십 문헌은 상사의 심리적 특권의식과 비인격적 감독이 구성원의 창의성, 심리적 안정감, 내재적 동기를 저해함을 보여주며(Tepper, 2000; Yukl, 2012; 황한솔·김미희·신유형, 2019), 이는 조직몰입이 단순히 헌신을 요구한다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공정성·존중·신뢰·자율성·관계적 지원이 함께 작동할 때 강화됨을 경고한다.

<표 2> 조직행동 문헌의 본 연구 반영 방식

문헌 흐름	핵심 논점	본 연구 반영
JD-R 모형	직무 자원과 개인 자원이 동기 경로를 통해 몰입을 촉진	인지적·사회적 특성을 직무 자원, 자기효능감을 개인 자원으로 개념화
사회인지이론(SCT)	자기효능감이 행동·정서 반응을 매개하는 핵심 인지 기제	인지적·사회적 특성→자기효능감 경로 설정, 연속매개 구조의 이론적 기반
조직몰입 이론	정서적·지속적 몰입의 구조와 한국 맥락의 타당화 문제	정서적 몰입→지속적 몰입의 전이 구조를 교회 맥락에 적용
조직시민행동·사회교환	자발적 역할 외 행동과 호혜적 상호작용	목회 사역의 봉사·협력·헌신을 관계적 몰입과 연결
상호작용 공정성	존중과 정보제공이 정서적 몰입을 강화	의사소통·대인관계·리더십 질의 중요성 반영
사회적 네트워크	관계망이 정보, 지지, 사회적 자본을 제공	대인관계능력을 조직몰입의 핵심 사회적 자원으로 설정
잡 크래프팅	과업·인지·관계 경계의 능동적 조정이 몰입을 강화	목회사역자의 능동적 사역 재구성 가능성 제시
부정적 리더십	비인격적 감독과 특권의식이 창의성·동기를 저해	조직몰입 저해요인과 향후 연구방향 제시

6) JD-R 동기 경로에서 본 조직몰입의 연속매개 과정

JD-R 모형의 동기 경로에 따르면, 직무자원은 개인자원의 형성을 촉진하고, 개인자원은 조직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몰입으로 연결된다(Bakker & Demerouti, 2007). 본 연구에서 목회사역자의 인지적·사회적 특성은 사역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직무자원으로, 자기효능감은 개인자원으로, 정서적 몰입과 지속적 몰입은 조직에 대한 심리적 결속의 결과로 설정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속매개 구조는 "인지적·사회적 특성 → 자기효능감 → 정서적 몰입 → 지속적 몰입"이라는 JD-R 모형의 동기 경로에 기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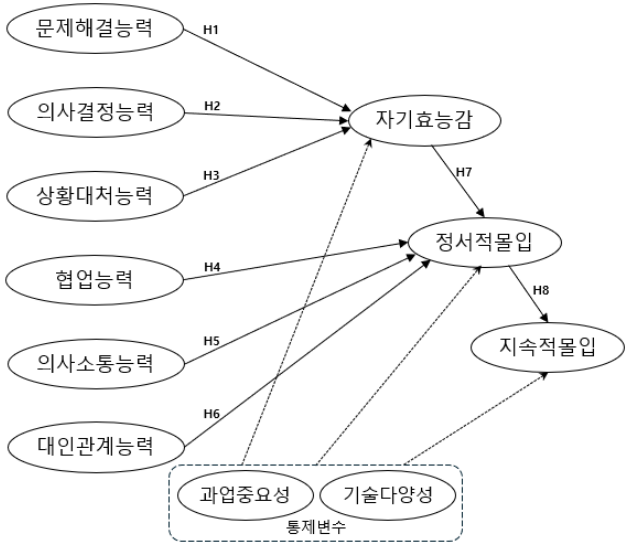
특히 목회사역자는 사역요구, 역할갈등, 정서노동, 관계 부담, 소명과 현실의 괴리 등 복합적 직무요구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해결능력, 의사결정능력, 상황대처능력은 사역문제를 인지적으로 조절하는 자원으로, 협업능력,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은 관계적 긴장을 완충하는 사회적 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들 자원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때 목회사역자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자기효능감을 형성하고, 이는 교회공동체에 대한 정서적 몰입과 지속적 몰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본 연구의 연속매개 구조는 조직몰입의 형성을 단선적 인과가 아니라 심리적 자원의 축적과 전이 과정으로 이해하는 과정 중심 연구(process-oriented research)의 출발점을 제공한다. 향후에는 목회사역자가 역할갈등, 사역 위기, 소명과 현실의 괴리를 경험하면서 심리적 임계점을 넘어 몰입 구조가 재편되는 동태적 과정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정태적 횡단자료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차원으로, 종단 설계 및 과정 중심 측정도구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박상호, 2026; Bakker & Demerouti, 2007).

3.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그림 1>과 같이 목회사역자의 인지적·사회적 특성이 자기효능감과 정서적 몰입을 거쳐 지속적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관계를 분석한다.



〈그림 1〉 연구모형

사회인지이론과 JD-R 모형의 동기 경로에 근거하여, 인지적 특성은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숙달경험을 통해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선행요인으로 설정하였다. 사회적 특성은 조직 내 관계 형성, 신뢰, 상호작용 경험을 통해 정서적 몰입을 높이는 선행요인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자기효능감은 정서적 몰입을 강화하고, 정서적 몰입은 지속적 몰입으로 이어지는 연속적 경로를 형성할 것으로 보았다.

과업중요성과 기술다양성은 조절변수가 아니라 직무특성의 영향을 보정하기 위한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과업중요성이나

기술다양성이 특정 구조경로의 강도를 변화시키는 조절효과를 검정하지 않으며, 두 변수를 각각 별도 통제모형에 투입하여 핵심 구조경로의 방향성과 유의성이 제한적으로 유지하는지를 검토한다(Hackman & Oldham, 1976; 박상호, 2026).

2) 연구설계 개요

<표 3> 연구 변수와 조작적 정의

구분		변수	조작적 정의	문헌
인지적·사회적 특성	인지적 특성	문제해결 능력	사역 현장의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탐색하며 해결에 참여하는 능력	Mumford et al.(2000); Jonassen(2000)
		의사결정 능력	가치·정보·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적절한 결정을 내리는 능력	Spencer & Spencer(1993)
		상황대처 능력	예기치 못한 변화와 위기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능력	McClelland(1973)
	사회적 특성	협업 능력	공동 사역을 위해 역할을 조정하고 협력하는 능력	Edmondson(1999)
		의사소통 능력	정보와 의견을 명확하게 공유하고 조정하는 능력	Goleman(1998)
		대인관계 능력	성도·동료와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능력	Goleman(1998)
심리적 특성		자기효능감	목회사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기 신념	Bandura(1997); Stajkovic & Luthans(1998)
조직몰입		정서적 몰입	교회공동체에 대한 애착, 동일시, 친밀감, 의미 경험	Meyer & Allen(1991)
		지속적 몰입	교회공동체와 사역관계를 지속하려는 현실적·심리적 잔류의지	Meyer & Allen(1991); Wasti(2002)
직무적 특성		과업중요성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과업에 대해 그 중요성을 인식하는 정도	Hackman & Oldham(1976)
		기술다양성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기술에 대해 그 다양성을 인식하는 정도	Hackman & Oldham(1976)

3) 연구가설 설정

본 연구는 인지적 특성과 사회적 특성을 상위 범주로 설정하되, 실증분석에서는 각 하위요인의 차별적 효과를 검토한다. 이는 동일한 범주에 속한 역량이라도 자기효능감과 정서적 몰입으로 전환되는 경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문제해결능력은 실제 사역문제 해결 경험을 통해 자기효능감과 직접 연결될 수 있지만, 의사결정능력은 교회조직의 권한 구조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대인관계능력은 신뢰와 소속감을 강화할 수 있으나, 협업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은 조직문화와 리더십 지원이 함께 작동할 때 정서적 몰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지적·사회적 특성의 전체 효과보다 하위요인별 경로를 중심으로 가설화한다.

[직접 효과 가설]

(1) 인지적 특성과 자기효능감

사회인지이론에 따르면 자기효능감은 특정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의 신념이며, 숙달경험은 자기효능감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원천이다. 목회사역자는 설교, 교육, 상담, 행정, 갈등조정 등 복합적 사역과업을 수행하므로, 사역현장의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경험은 자기효능감 형성에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특히 문제해결능력은 실제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숙달경험을 제공한다. 의사결정능력은 다양한 이해관계와 가치판단 속에서 선택을 수행하는 능력이며, 상황대처능력은 예기치 못한 변화와 갈등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능력이다. 따라서 이들 인지적 특성은 목회사역자의 자기효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H1. 목회사역자의 문제해결능력은 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목회사역자의 의사결정능력은 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목회사역자의 상황대처능력은 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사회적 특성과 정서적 몰입

교회조직은 신뢰, 돌봄, 공동체 규범, 상호 인정이 중요한 관계 중심 조직이다. 사회교환이론과 조직몰입 연구에 따르면, 구성원이 긍정적 관계 경험을 축적할수록 조직에 대한 애착과 동일시가 강화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특성은 협업능력,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으로 구성되며, 이는 공동사역 과정에서 역할을 조율하고,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며, 성도·동료 사역자·교회 리더십과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적 특성은 목회사역자의 정서적 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H4. 목회사역자의 협업능력은 정서적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 목회사역자의 의사소통능력은 정서적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6. 목회사역자의 대인관계능력은 정서적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자기효능감, 정서적 몰입, 지속적 몰입의 관계

JD-R 모형의 동기 경로에 따르면 직무자원은 개인자원의 형성을 촉진하고, 개인자원은 조직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몰입으로 연결한다. 이에 따라 자기효능감이 높은 목회사역자는 자신의 사역수행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러한 유능감은 교회공동체에 대한 정서적 애착과 지속적 몰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본 연구는 이 경로를 확정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횡단자료에 기반한 탐색적 구조경로로 검토한다.

H7. 목회사역자의 자기효능감은 정서적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8. 목회사역자의 정서적 몰입은 지속적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매개 효과 가설]

H9a. 문제해결능력은 자기효능감과 정서적 몰입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지속적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9b. 의사결정능력은 자기효능감과 정서적 몰입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지속적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9c. 상황대처능력은 자기효능감과 정서적 몰입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지속적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0a. 협업능력은 정서적 몰입을 매개하여 지속적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0b. 의사소통능력은 정서적 몰입을 매개하여 지속적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0c. 대인관계능력은 정서적 몰입을 매개하여 지속적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9a~H9c는 인지적 특성의 하위요인이 자기효능감과 정서적 몰입을 거쳐 지속적 몰입으로 이어지는 연속매개 경로를 검토하기 위한 가설이다. H10a~H10c는 사회적 특성의 하위요인이 정서적 몰입을 통해 지속적 몰입으로 이어지는 매개경로를 검토하기 위한 가설이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상위개념의 일괄효과보다 하위요인별 차별적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통제 효과 가설]

H11. 과업중요성을 통제한 이후에도 주요 구조경로의 방향성과 유의성이 제한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H12. 기술다양성을 통제한 이후에도 주요 구조경로의 방향성과 유의성이 제한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단일 출처 설문에 의존하므로 동일방법편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Podsakoff et al., 2003). Harman의 단일요인 검정 결과 단일 요인이 전체 분산의 50%를 초과하지 않아 지배적 편의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이는 제한적 검정에 불과하다. 향후 연구에서

는 시간차 설계, 다원자료, 응답원 분리, 잠재방법요인 통제 등을 통해 동일방법편의를 보다 엄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연구의 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특정 교육기관 기반 탐색적 표본

본 연구의 표본은 특정 교육기관(M대학교)의 학·석·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목회사역자 및 예비 목회사역자를 대상으로 한 편의표본이다. 따라서 연구결과를 한국교회 전체 목회사역자 집단으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특정 교육기관 기반 표본을 통해 조직몰입 형성 과정을 탐색적으로 검토한 연구로 위치한다.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월 10일까지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병행하였으며, 총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배포하였다. 회수된 설문 중 결측과 불성실 응답을 제거한 후 최종 103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표본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은 남성 41.7%, 여성 58.3%였으며, 연령은 20대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교회 직분은 전도사·부목사 등 전임 사역자와 일반 사역자가 혼재되어 있으며, 소속 교회 규모는 소형(300인 미만)부터 대형(1,000인 이상)까지 다양하였다.

〈표 4〉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항목	빈도(N)	비율(%)
성별	여	43	41.7
	남	60	58.3
	계	103	100.0
연령	20대	82	79.6
	30대	9	8.7
	40대	4	3.9
	50대	7	6.8

구분	항목	빈도(N)	비율(%)
	60대 이상	1	1.0
	합계	103	100.0
최종 학력	학부 신학과 학생	72	69.9
	웨슬리신학대학원 석사과정(포함)	25	24.3
	일반대학원 석사과정(포함)	2	1.9
	일반대학원 박사과정(포함)	4	3.9
	계	103	100.0
소속 교회 교인 수	30명 미만	12	11.7
	30명 이상~50명 미만	7	6.8
	51명 이상~100명 미만	8	7.8
	100명 이상~300명 미만	32	31.1
	300명 이상~500명 미만	15	14.6
	500명 이상~1,000명 미만	8	7.8
	1,000명 이상~2,000명 미만	8	7.8
	2,000명 이상	13	12.6
	계	103	100.2
교회 직분	목사 또는 부목사	6	5.8
	전도사 또는 수련목회자	39	37.9
	간사	23	22.3
	교사	14	13.6
	장로(권사 포함)	4	3.9
	기타	17	16.5
	계	103	100.0

2) 측정도구

모든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측정 도구는 선행연구에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정된 척도를 바탕으로 교회조직 맥락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구성하였다. 인지적·사회적 특성 문항은 Spencer & Spencer(1993)의 역량모형과 Mumford

et al.(2000)의 복합 문제해결 프레임에 근거하여 구성하였다(박상호·강신철, 2021). 조직몰입 문항은 Allen & Meyer(1990)의 척도를 기초로 교회공동체 맥락에서 정서적 몰입과 지속적 몰입을 측정할 수 있도록 표현을 조정하였다. 자기효능감 문항은 Bandura(1997) 및 Luthans et al.(2007)의 긍정심리자본 연구를 참조하여 사역수행에 대한 자신감, 목표달성 기대, 문제해결 가능성 인식으로 구성하였다. 기술다양성은 Hackman & Oldham(1976)의 직무특성이론에 기반하여 측정하였다.

〈표 5〉 측정문항의 교회조직 맥락화 예시

변수	원척도 기반 표현	수정 문항 예시	수정 이유
의사소통 능력	구성원과 정보를 공유한다	나는 교회 구성원들과 사역에 대해 활발히 토의에 참여한다고 생각한다.	사역 의사소통 맥락 반영
대인관계 능력	동료와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나는 교회 내에서 구성원들과 관계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에 대해서 알린다.	교회 내 관계대상 반영
자기효능감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나는 사역 수행 시 잘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일반 직무를 사역 수행 맥락으로 전환
정서적 몰입	이 조직에 애착을 느낀다	나는 내 경력의 대부분을 이 교회에서 보내는 것이 매우 기쁘다.	조직을 교회공동체로 맥락화
지속적 몰입	조직을 떠나면 손실이 크다	내가 지금 교회를 떠난다면 내 삶의 많은 부분에 지장을 초래한다.	경제적 잔류비용을 관계적·심리적 지속의지로 보완

3) 분석방법

자료 분석은 SPSS 22.0과 AMOS 23.0을 활용하여 실시하였다. 먼저 기술통계와 신뢰도 분석을 통해 자료의 기본 특성과 측정도구의 내적 일관성을 탐색적으로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통해 측정모형의 타당도를 검토하였으며, Fornell & Larcker(1981)의 기준

(AVE≥.50, C.R.≥.70)을 적용하여 수렴타당도와 판별타당도를 평가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SEM)을 통해 연구가설을 검정하였으며, 모형 적합도는 χ^2, CMIN/df, RMR, GFI, CFI, RMSEA를 종합하여 판단하였다.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은 AMOS의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재추출 횟수 2,000회)을 활용하여 95% 신뢰구간을 산출하고, 총효과·직접효과·간접효과를 구분하여 검정하였다.

5. 연구의 결과

1) 표본 특성

기술통계 결과는 <표 6>과 같이 성별, 연령, 학력, 학년, 소속 교인 수, 교회 직분에서 일정한 분산을 보였다. 다만 연령과 학력 일부 항목에서 왜도와 첨도가 높게 나타났으므로, 결과 해석 시 표본의 편의성과 목회사역자 교육기관 표본이라는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표 6> 기술통계 분석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통계량	통계량	통계량	통계량	통계량	표준 오차	통계량	표준 오차
성별여남	1	2	1.58	.496	-.340	.238	-1.922	.472
나이	1	5	1.41	.923	2.299	.238	4.244	.472
최종학력	1	4	1.40	.719	2.144	.238	4.768	.472
학년	1	7	2.83	1.175	.754	.238	.965	.472
소속교인수	1	8	4.46	2.113	.097	.238	-.744	.472
교회직분	1	6	3.21	1.538	.721	.238	-.676	.472

상관관계 분석은 <표 7>의 결과를 보면, 모든 변수 간 상관계수가 r=.347~.727(p<.01) 수준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며, 특히 정서적 몰입과 지속적 몰입 간 상관은 r=.706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정

서적 몰입이 지속적 몰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두 구성 개념 간 변별성에 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강한 인과관계로 단정하기보다, 교회조직 맥락에서 정서적 애착과 관계적·심리적 지속의지가 밀접하게 연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탐색적 결과로 해석한다.

<표 7> 상관관계 분석

	문제 해결	의사 결정	상황 대처	협업	의사 소통	대인 관계	자기 효능감	정서적 몰입	지속적 몰입	기술 다양성	과업 중요성
문제해결	1	.688**	.634**	.590**	.591**	.561**	.606**	.541**	.458**	.467**	.464**
의사결정	.688**	1	.638**	.599**	.456**	.635**	.610**	.488**	.578**	.465**	.494**
상황대처	.634**	.638**	1	.727**	.560**	.576**	.615**	.477**	.437**	.433**	.486**
협업	.590**	.599**	.727**	1	.577**	.616**	.562**	.506**	.442**	.446**	.461**
의사소통	.591**	.456**	.560**	.577**	1	.491**	.560**	.472**	.394**	.427**	.416**
대인관계	.561**	.635**	.576**	.616**	.491**	1	.583**	.536**	.502**	.347**	.441**
자기효능감	.606**	.610**	.615**	.562**	.560**	.583**	1	.626**	.555**	.543**	.593**
정서적몰입	.541**	.488**	.477**	.506**	.472**	.536**	.626**	1	.706**	.507**	.490**
지속적몰입	.458**	.578**	.437**	.442**	.394**	.502**	.555**	.706**	1	.486**	.532**
기술다양성	.467**	.465**	.433**	.446**	.427**	.347**	.543**	.507**	.486**	1	.633**
과업중요성	.464**	.494**	.486**	.461**	.416**	.441**	.593**	.490**	.532**	.633**	1

2)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

모든 요인의 Cronbach α는 .772 이상으로 나타나 내적 일관성이 수용 가능한 수준을 보였다. 특히 상황대처능력, 의사소통능력, 기술다양성, 과업중요성은 .84 이상으로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다. 지속적 몰입의 일부 적재값(.524~.741)은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전체 신뢰도는 .801로 수용 가능하였다.

<표 8>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요인	변수명	성분행렬a	Cronbach α
문제해결 능력	다양한 해결 방법 고민	.872	.809
	결과 예측	.775	
	해결 방법 찾기	.866	
	적극적 문제 해결 참여	.689	

요인	변수명	성분행렬a	Cronbach α
의사결정 능력	결정 고민	.758	.773
	영향 고려	.765	
	결정 능력	.833	
	적절한 결정	.736	
상황대처 능력	상황 판단	.893	.869
	상황 적응	.855	
	융통성 발취	.848	
	상황 대응	.796	
협업 능력	구성원과 협력	.835	.830
	구성원의 의견 수렴	.892	
	구성원과의 화합	.834	
	적극적 협조	.697	
의사소통 능력	구성원과 업무 토의	.875	.860
	구성원과 업무 소통	.897	
	구성원과 정보 교환	.797	
	구성원 의견 수용	.799	
대인관계 능력	관계 향상	.724	.772
	구성원과 접촉	.831	
	관계 유지	.716	
	자주 연락	.813	
자기효능감	업무수행에 대한 확신	.848	.840
	목표달성에 대한 기대	.765	
	문제해결에 대한 믿음	.898	
	구성원으로 자랑스러움	.791	
정서적 몰입	조직 애착	.791	.773
	구성원과 친밀	.762	
	조직 문제	.776	
	조직 의미	.760	
지속적 몰입	조직에 근무 지속	.676	.801
	개인 생활 지장	.524	
	조직 남기 소망	.741	
	조직에 지장	.585	
기술다양성	다양한 지식	.800	.845

요인	변수명	성분행렬a	Cronbach α
	다양한 재능	.872	
	다양한 기술	.893	
	성격이 다른 일	.743	
과업중요성	조직에 기여	.856	.831
	조직에 미치는 영향	.764	
	조직에 중요한 부분	.851	
	조직 구성원과의 관계	.800	

한편 정서적 몰입과 지속적 몰입 간 상관이 r=.706으로 높고, 정서적 몰입이 지속적 몰입에 미치는 경로계수도 β=1.087로 크게 나타나 두 구성개념 간 변별성에 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개념을 이론적으로 구분하였으나, 교회조직 맥락에서는 정서적 애착과 관계적·심리적 지속의지가 경험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지속적 몰입의 독립적 설명력보다는 정서적 몰입 이후 형성되는 지속의지의 가능성을 탐색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한다.

집중타당도 분석 결과 대부분의 요인에서 AVE와 C.R.이 수용 가능한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의사결정능력(AVE=.460), 대인관계능력(AVE=.467), 정서적 몰입(AVE=.459)은 Fornell & Larcker(1981)의 수렴타당도 기준치인 .50에 다소 미치지 못하였다.

<표 9> 표준 적재치(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

			Estimate	AVE	C.R.
문제해결1	<---	문제해결a	.773	.531	.817
문제해결2	<---	문제해결a	.601		
문제해결3	<---	문제해결a	.804		
문제해결4	<---	문제해결a	.720		
의사결정1	<---	의사결정b	.727	.460	.772
의사결정2	<---	의사결정b	.615		
의사결정3	<---	의사결정b	.682		
의사결정4	<---	의사결정b	.683		

			Estimate	AVE	C.R.
상황대처1	<---	상황대처c	.837	.629	.871
상황대처2	<---	상황대처c	.760		
상황대처3	<---	상황대처c	.833		
상황대처4	<---	상황대처c	.737		
협업1	<---	협업d	.792	.573	.841
협업2	<---	협업d	.863		
협업3	<---	협업d	.749		
협업4	<---	협업d	.600		
의사소통1	<---	의사소통e	.844	.622	.867
의사소통2	<---	의사소통e	.864		
의사소통3	<---	의사소통e	.719		
의사소통4	<---	의사소통e	.717		
대인관계1	<---	대인관계f	.612	.467	.777
대인관계2	<---	대인관계f	.697		
대인관계3	<---	대인관계f	.658		
대인관계4	<---	대인관계f	.757		
자기효능감1	<---	자기효능감g	.835	.589	.851
자기효능감2	<---	자기효능감g	.683		
자기효능감3	<---	자기효능감g	.823		
자기효능감4	<---	자기효능감g	.718		
정서적몰입1	<---	정서적몰입h	.757	.459	.771
정서적몰입2	<---	정서적몰입h	.600		
정서적몰입3	<---	정서적몰입h	.680		
정서적몰입4	<---	정서적몰입h	.663		
지속적몰입1	<---	지속적몰입i	.771	.511	.805
지속적몰입2	<---	지속적몰입i	.554		
지속적몰입3	<---	지속적몰입i	.775		
지속적몰입4	<---	지속적몰입i	.737		
기술다양성1	<---	기술다양성j	.720	.597	.853
기술다양성2	<---	기술다양성j	.868		
기술다양성3	<---	기술다양성j	.859		
기술다양성4	<---	기술다양성j	.615		
과업중요성1	<---	과업중요성k	.857	.558	.834
과업중요성2	<---	과업중요성k	.648		
과업중요성3	<---	과업중요성k	.741		
과업중요성4	<---	과업중요성k	.728		

한편 정서적 몰입의 AVE는 .459로 일반적 기준인 .50에 다소 미치지 못하였고, 정서적 몰입과 지속적 몰입 간 상관도 r=.706으로 높게 나타나 두 구성개념 간 변별성에 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론적으로 정서적 몰입을 교회공동체에 대한 감정적 애착과 동일시로, 지속적 몰입을 사역관계와 공동체 소속을 지속하려는 관계적·심리적 잔류 의지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교회조직 맥락에서는 정서적 애착, 사역정체성, 공동체 소속감이 지속의지와 밀접하게 결합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지속적 몰입의 확정적 검정이라기보다, 정서적 몰입 이후 형성되는 지속의지의 가능성을 탐색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한다.

3) 구조모형 적합도

초기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chi^2(847)=1537.220$, $p<.001$, CMIN/df=1.815, RMR=0.062, GFI=0.651, CFI=0.766, RMSEA=0.089로 나타났다. χ^2 통계는 표본크기에 민감하므로, 상대적 적합도 지수를 함께 고려하였다. RMSEA=.089는 일반적 기준에서 경계 수준 또는 다소 미흡한 수준으로 볼 수 있으며, GFI=.651과 CFI=.766 역시 권고기준인 .90에 미치지 못하였다.

최종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CMIN/df=1.670, RMR=.056, RMSEA=.081로 일부 지표에서 수용 가능하거나 경계 수준에 위치하였다. 그러나 GFI=.707, CFI=.834는 일반적 권고기준인 .90에 미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본 결과는 모형의 안정성이나 강건성을 입증한 것이라기보다, 제한된 표본과 복잡한 모형구조 속에서 주요 경로의 가능성을 탐색적으로 확인한 결과로 해석한다.

<표 10> 최종 구조모형 및 통제모형 적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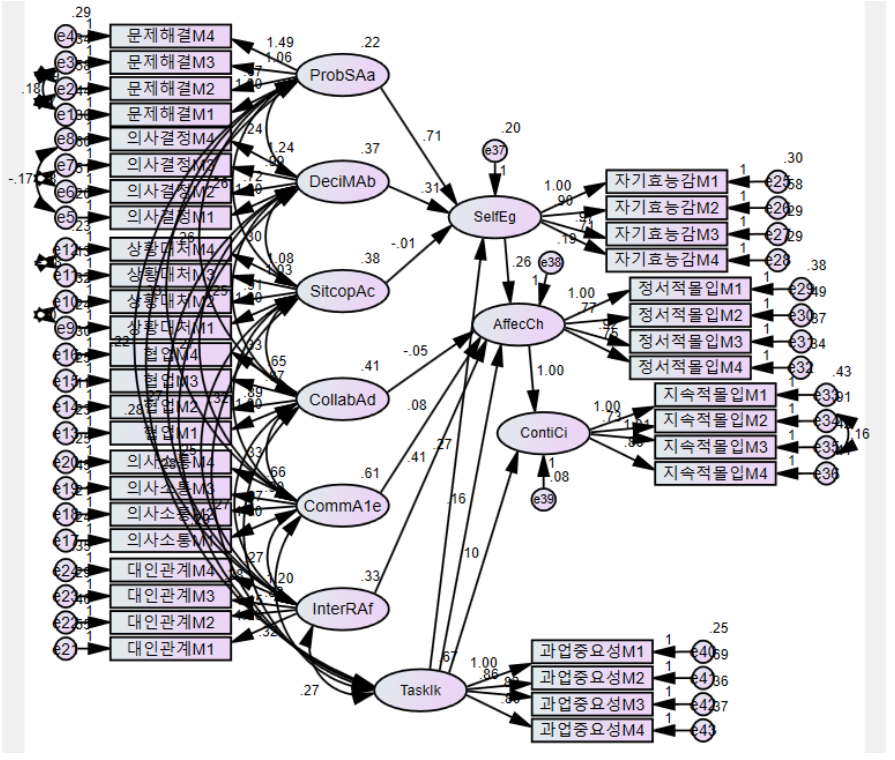
구분	최종 구조모형	과업중요성 통제모형	기술다양성 통제모형
χ^2(df)	939.933(563)	1193.201(700)	1167.499(700)
CMIN/df	1.670	1.705	1.668
RMR	.056	.059	.058
GFI	.707	.679	.689
CFI	.834	.810	.819
RMSEA	.081	.083	.081

한편 소표본·복잡 모형 상황에서는 CFI 단독 기준보다 RMSEA와 RMR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Hair et al., 2010). 본 연구의 최종 구조모형은 CMIN/df=1.670, RMR=.056으로 일정 수준 수용 가능성을 보였으나, RMSEA=.081은 경계 수준에 해당하고 GFI=.707, CFI=.834는 권고기준인 .90에 미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모형의 안정성이나 강건성을 입증한 결과라기보다, 제한된 표본과 복잡한 모형구조 속에서 주요 경로의 가능성을 탐색적으로 확인한 결과로 해석한다.

종합하면, 본 연구의 구조모형은 CMIN/df와 RMR에서는 일정 수준 수용 가능성을 보였으나, GFI와 CFI가 낮고 RMSEA가 경계 수준에 머물렀다는 점에서 확증적 모형검정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모형의 안정성이나 강건성을 입증한 결과라기보다, 제한된 표본과 복잡한 모형구조 속에서 주요 경로의 가능성을 탐색적으로 확인한 결과로 해석한다.

4) 가설검정 결과

<표 11>의 구조경로 분석 결과를 보면, 인지적 특성 중 문제해결능력은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이는 교회조직 구성원의 자기효능감이 추상적 역량 인식보다 실제 직무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축적되는 숙달경험에 의해 강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의사



<그림 2> 최종 구조방정식 모형 및 통제변수 투입 구조

결정능력과 상황대처능력은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해당 역량들이 목회사역자에게 차별적 동기자원이라기보다 직무수행을 위한 기본 역량으로 인식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사회적 특성 중에서는 대인관계능력이 정서적 몰입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이는 교회조직에서 정서적 몰입이 공식적 협업이나 정보교환보다 지속적인 접촉, 신뢰, 관계 유지와 더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협업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은 정서적 몰입에 유의한 직접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협업과 의사소통이 조직몰입에 무의미하다는 뜻이 아니라, 이들이 정서적 몰입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권한 부여, 심리적 안전감, 상호작용 공정성, 리더십 지원과 같은 조직

맥락적 조건이 함께 작동해야 함을 시사한다.

자기효능감은 정서적 몰입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고, 정서적 몰입은 지속적 몰입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이는 목회사역자의 지속적 몰입이 단순한 잔류비용 인식만으로 설명되기보다, 직무수행에 대한 유능감과 교회공동체에 대한 정서적 애착과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정서적 몰입과 지속적 몰입 간 경로계수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는 점은 두 구성개념이 교회조직 맥락에서 경험적으로 중첩될 가능성을 함께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서적 몰입이 지속적 몰입을 확정적으로 예측한다고 단정하기보다, 정서적 애착이 관계적·심리적 지속의지로 이어질 가능성을 탐색적으로 확인한 결과로 해석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교회조직 구성원의 몰입 형성을 "인지적 문제해결 경험 → 자기효능감 → 정서적 몰입 → 지속적 몰입"과 "관계 형성 능력 → 정서적 몰입 → 지속적 몰입"이라는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이해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표 11> 구조경로 분석 결과

가설	경로	표준화계수 β	S.E.	C.R.	p	결과
H1	문제해결능력 → 자기효능감	.929	.393	2.361	.018	채택
H2	의사결정능력 → 자기효능감	.368	.237	1.550	.121	기각
H3	상황대처능력 → 자기효능감	-.023	.289	-.079	.937	기각
H4	협업능력 → 정서적 몰입	-.038	.176	-.218	.827	기각
H5	의사소통능력 → 정서적 몰입	.084	.115	.732	.464	기각
H6	대인관계능력 → 정서적 몰입	.458	.221	2.068	.039	채택
H7	자기효능감 → 정서적 몰입	.358	.127	2.818	.005	채택
H8	정서적 몰입 → 지속적 몰입	1.087	.157	6.905	***	채택

<표 13>의 연구가설 종합 결과를 보면, 본 연구의 핵심 구조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직접효과 가설 중에서는 문제해결능력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H1: β=.929, p=.018), 대인관계능력이 정서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H6: β=.458, p=.039), 자기효능감이 정서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H7: β=.358, p=.005), 정서적 몰입이 지속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H8: β=1.087, 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목회사역자의 조직몰입 형성과정에서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 자기효능감, 정서적 몰입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경로로 나타났음을 시사한다.

반면 의사결정능력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H2: β=.368, p=.121), 상황대처능력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H3: β=-.023, p=.937), 협업능력이 정서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H4: β=-.038, p=.827), 의사소통능력이 정서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H5: β=.084, p=.464)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인지적 특성과 사회적 특성의 모든 하위요인이 조직몰입 경로에 동일하게 작동한 것은 아니며, 인지적 특성에서는 문제해결능력, 사회적 특성에서는 대인관계능력이 가장 설명력 있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매개효과 검정 결과, H9a~H9c는 95% bias-corrected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므로 기각되었다. 사회적 특성 중에서는 대인관계능력이 정서적 몰입을 거쳐 지속적 몰입에 이르는 간접효과가 p=.085로 나타나 p<.10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유의한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매개효과는 모든 하위요인에서 확증적으로 지지되었다기보다, 대인관계능력을 중심으로 부분적·탐색적으로 지지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교회조직 구성원의 몰입 형성이 “인지적 문제해결 경험 → 자기효능감 → 정서적 몰입 → 지속적 몰입”과 “관계 형성 능력 → 정서적 몰입 → 지속적 몰입”이라는 경로를 통해 이해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만 인지적 특성의 연속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므로, 본 결과는 확증적 매개모형의 검정이라기보다 직접경로의 부분적 지지와 매개 가능성의 탐색적 확인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의사결정능력, 상황대처능력, 협업능력, 의사소통능력의 직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들 역량이 조직몰입 형성에 무의미하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이들 역량은 목회사역자의 기본적 사역수행 역량으로 작동하거나, 자기효능감 및 정서적 몰입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제 권한 부여, 신뢰관계, 정서적 지지, 공정한 의사소통과 같은 맥락적 조건과 결합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목회사역자의 조직몰입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일반적 역량을 강화하는 접근보다, 실제 사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 교회공동체 안에서 신뢰로운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제한적으로 제시한다.

의사결정능력과 상황대처능력이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직접효과를 보이지 않은 것은 교회조직의 사역 구조와 관련될 수 있다. 목회사역자의 의사결정은 개인의 판단능력만으로 이루어지기보다 담임목회자, 당회, 부서장, 교회규범 등 조직 내 권한구조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의사결정능력이 높더라도 실제 권한 위임이나 자율성이 충분하지 않다면 자기효능감으로 직접 전환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상황대처능력 역시 예기치 못한 갈등과 위기상황을 다루는 능력이지만, 교회조직의 위계성, 역할모호성, 리더십 방식에 따라 개인의 대처 경험이 자기효능감 형성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협업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이 정서적 몰입에 유의하지 않은 결과는 이들 역량이 정서적 몰입 형성에 불필요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교회조직에서 협업과 의사소통은 공동사역의 기본 조건이지만, 이것이 조직에 대한 애착과 소속감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심리적 안전감, 상호작용 공정성, 인정, 신뢰, 역할명확성 등 조직맥락적 조건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협업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의 효과가 직접효과보다는 조직문화, 리더십, 권한구조에 의해 조절되거나 매개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표 12> 부트스트래핑을 통한 간접효과 검정 결과

가설	간접경로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Boot S.E.	95% BC CI 하한	95% BC CI 상한	p	판단
H9a	문제해결능력→자기효능감→정서적 몰입→지속적 몰입	.362	.000	.362	1.459	-.118	3.255	.120	기각
H9b	의사결정능력→자기효능감→정서적 몰입→지속적 몰입	.143	.000	.143	.606	-.072	1.742	.143	기각
H9c	상황대처능력→자기효능감→정서적 몰입→지속적 몰입	-.009	.000	-.009	.717	-.840	.428	.927	기각
H10a	협업능력→정서적 몰입 →지속적 몰입	-.042	.000	-.042	.809	-1.354	.647	.970	기각
H10b	의사소통능력→정서적 몰입→지속적 몰입	.092	.000	.092	.217	-.247	.492	.592	기각
H10c	대인관계능력→정서적 몰입→지속적 몰입	.498	.000	.498	1.256	-.074	4.755	.085	부분지지
추가경로	자기효능감→정서적 몰입→지속적 몰입	.390	.000	.390	.330	-.082	1.080	.082	부분지지

부트스트래핑을 통한 간접효과 검정 결과, 문제해결능력, 의사결정능력, 상황대처능력이 자기효능감과 정서적 몰입을 순차적으로 거쳐 지속적 몰입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95% bias-corrected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인지적 특성의 연속매개효과는 엄격한 $p<.05$ 기준에서는 지지되지 않았다. 다만 문제해결능력의 간접효과는 정적 방향으로 나타나, 자기효능감과 정서적 몰입을 경유하는 가능성을 탐색적으로 시사한다.

사회적 특성의 경우 협업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의 간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대인관계능력이 정서적 몰입을 거쳐 지속적 몰입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p=.085$로 나타나 $p<.10$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유의한 경향을 보였다. 이는 사회적 특성 전체가 일괄적으로 지속적 몰입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 교회조직 맥락에서 신뢰관계와 관계유지 능력을 포함하는 대인관계능력이 정서적 몰입을 통해 지속의지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

한다. 또한 자기효능감이 정서적 몰입을 거쳐 지속적 몰입에 미치는 간접효과 역시 p=.082로 나타나 제한적 수준에서 매개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종합하면, 본 연구의 매개효과는 모든 인지적·사회적 특성에 대해 확증적으로 지지되었다기보다, 대인관계능력과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부분적·탐색적으로 지지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H9a~H9c는 기각되었고, H10a와 H10b는 기각되었으며, H10c는 p<.10 수준에서 부분 지지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연구가설 종합 결과, 직접효과 가설에서는 문제해결능력 → 자기효능감, 대인관계능력 → 정서적 몰입, 자기효능감 → 정서적 몰입, 정서적 몰입 → 지속적 몰입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반면 의사결정능력, 상황대처능력, 협업능력, 의사소통능력의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목회사역자의 인지적·사회적 특성이 모두 동일하게 조직몰입 경로에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인지적 특성 중 문제해결능력과 사회적 특성 중 대인관계능력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경로로 작동함을 시사한다.

매개효과의 경우, 인지적 특성의 연속매개효과는 95% bias-corrected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여 유의하지 않았다. 사회적 특성 중에서는 대인관계능력이 정서적 몰입을 거쳐 지속적 몰입에 이르는 경로가 p=.085로 나타나 p<.10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유의한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매개효과는 모든 하위요인에서 확증적으로 지지되었다기보다, 대인관계능력을 중심으로 부분적·탐색적으로 지지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표 13> 연구가설 종합 결과

구분	가설	주요 결과	판단
직접효과	H1	β=.929, p=.018	채택
직접효과	H2	β=.368, p=.121	기각
직접효과	H3	β=-.023, p=.937	기각
직접효과	H4	β=-.038, p=.827	기각

구분	가설	주요 결과	판단
직접효과	H5	β=.084, p=.464	기각
직접효과	H6	β=.458, p=.039	채택
직접효과	H7	β=.358, p=.005	채택
직접효과	H8	β=1.087, p<.001	채택
매개효과	H9a	간접효과=.362, 95% BC CI [-.118, 3.255], p=.120	기각
매개효과	H9b	간접효과=.143, 95% BC CI [-.072, 1.742], p=.143	기각
매개효과	H9c	간접효과=-.009, 95% BC CI [-.840, .428], p=.927	기각
매개효과	H10a	간접효과=-.042, 95% BC CI [-1.354, .647], p=.970	기각
매개효과	H10b	간접효과=.092, 95% BC CI [-.247, .492], p=.592	기각
매개효과	H10c	간접효과=.498, 95% BC CI [-.074, 4.755], p=.085	부분 지지
추가분석	H11	일부 주요 경로 방향성 유지, 일부 적합도 지수 기준 미달	부분 지지
추가분석	H12	일부 주요 경로 방향성 유지, 일부 적합도 지수 기준 미달	부분 지지

6.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본 연구는 교회조직에 소속된 목회사역자의 인지적·사회적 특성이 지속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자기효능감과 정서적 몰입의 매개 경로를 중심으로 탐색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목회사역자를 단순한 종교적 행위자가 아니라 교회조직 내에서 다양한 사역과 직무를 수행하는 조직구성원으

로 설정하고, 사회인지이론과 JD-R 모형을 바탕으로 인지적·사회적 특성, 자기효능감, 정서적 몰입, 지속적 몰입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목회사역자의 모든 인지적·사회적 특성이 동일하게 조직몰입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인지적 특성 중에서는 문제해결능력이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사회적 특성 중에서는 대인관계능력이 정서적 몰입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또한 자기효능감은 정서적 몰입에, 정서적 몰입은 지속적 몰입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반면 의사결정능력, 상황대처능력, 협업능력, 의사소통능력의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목회사역자의 조직몰입 형성에서 모든 역량이 동일하게 작동하기보다, 실제 사역문제를 해결하는 경험과 교회공동체 안에서 신뢰로운 관계를 형성·유지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경로로 작동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속매개효과는 대부분의 하위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특히 인지적 특성이 자기효능감과 정서적 몰입을 순차적으로 거쳐 지속적 몰입에 이르는 연속매개효과는 엄격한 기준에서 지지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목회사역자의 조직몰입 형성과정을 확증적으로 검정한 결과라기보다, 교회조직 맥락에서 문제해결능력, 자기효능감, 대인관계능력, 정서적 몰입이 지속적 몰입과 연결될 가능성을 탐색적으로 제시한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 연구의 의의는 교회조직을 조직행동론의 분석대상으로 설정하고, 목회사역자의 지속적 몰입을 신앙적 헌신이나 제도적 소속만이 아니라 직무수행 과정에서 형성되는 유능감, 관계 경험, 정서적 애착의 결과로 해석하고자 했다는 데 있다. 특히 문제해결능력과 대인관계능력이 각각 자기효능감과 정서적 몰입에 차별적으로 연결된다는 결과는, 목회사역자의 몰입을 높이기 위해 인지적 직무자원과 사회적 관계자원을 구분하여 이해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2) 이론적 시사점

본 연구의 이론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교회조직을 조직행동론의 분석대상으로 설정하고, 목회사역자의 인지적·사회적 특성이 조직몰입으로 연결되는 심리적 경로를 탐색적으로 검토하였다. 기존 목회사역자 연구가 주로 리더십, 소명, 소진, 신앙성숙, 영적 리더십에 초점을 두었다면, 본 연구는 목회사역자를 조직구성원으로 보고 직무자원, 개인자원, 정서적 몰입, 지속적 몰입 간의 관계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둘째, 본 연구는 사회인지이론과 JD-R 모형을 활용하여 목회사역자의 인지적 특성과 사회적 특성이 서로 다른 심리적 경로를 통해 조직몰입과 연결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문제해결능력은 자기효능감 형성과 관련되었고, 대인관계능력은 정서적 몰입 형성과 관련되었다. 이는 조직구성원의 몰입 형성과정에서 과업수행과 관련된 인지적 자원과 관계형성과 관련된 사회적 자원이 구분되어 작동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본 연구는 교회조직 맥락에서 지속적 몰입의 의미를 재해석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지속적 몰입은 일반적으로 조직 이탈 시 발생하는 비용이나 손실 인식에 기초한 잔류 의지로 이해된다. 그러나 교회조직과 같은 가치지향적 공동체에서는 조직을 떠날 때 상실되는 것이 경제적 보상만이 아니라 사역관계, 공동체 소속, 사역정체성, 소명 실현의 기회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속적 몰입을 단순한 계산적 잔류 의지가 아니라 관계적·심리적 지속의지로 해석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넷째, 본 연구는 특수 조직 맥락의 조직몰입 연구가 일반 조직행동 이론의 적용 범위를 확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교회조직은 영리조직과 달리 소명, 가치, 공동체성, 관계규범이 강하게 작동하지만, 동시에 리더십, 직무설계, 공정성, 심리적 안전감, 구성원 유지라는 조직관리 과제를 공유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종교조직 연구와 인사조직 연구를 연결하는 교차적 연구 가능성을 제한적으로 제시한다.

3) 실천적 시사점

본 연구의 실천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회조직은 목회사역자의 문제해결 경험을 체계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문제해결능력이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결과는, 목회사역자의 자기효능감이 단순한 교육이나 지식전달보다 실제 사역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해 본 경험을 통해 강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교회조직은 사역자에게 실제 과업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권한과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사례기반 학습, 프로젝트형 사역, 갈등상황 해결 훈련, 위기대응 시뮬레이션 등은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실천적 방안이 될 수 있다.

둘째, 교회조직은 대인관계능력을 목회사역자의 정서적 몰입을 높이는 핵심 관계자원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대인관계능력은 정서적 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교회조직 구성원의 몰입이 공식적 직무수행만이 아니라 신뢰, 접촉, 인정, 정서적 지지와 같은 관계적 경험에 의해 강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멘토링, 동료 사역자 협의체, 정기적 피드백, 갈등중재 체계, 심리적 안전감 형성 프로그램 등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회조직의 리더십은 과업 부여와 관계 관리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의사결정능력, 상황대처능력, 협업능력, 의사소통능력의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해당 역량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들 역량이 자기효능감이나 정서적 몰입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조직맥락적 조건이 함께 작동해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권한 위임, 상호작용 공정성, 역할명확성, 인정과 피드백, 리더의 지원은 인지적·사회적 특성이 조직몰입으로 연결되는 데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있다.

넷째, 과업중요성과 기술다양성은 목회사역자의 조직몰입을 이해할 때 고려해야 할 직무특성이다. 본 연구에서 이들 변수를 통제한 이후에도 일부 핵심 경로의 방향성이 유지되었다는 점은, 목회사역자의 몰입이 직무 자체

의 의미나 다양한 기술 활용만으로 설명되기보다 문제해결 경험, 자기효능감, 관계 형성, 정서적 몰입의 경로와 함께 이해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4)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표본은 103명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특정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목회사역자 및 예비 목회사역자를 대상으로 한 편의표본이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전체 목회사역자 집단으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교단, 지역, 교회규모, 사역경력, 직분 등을 고려한 확대 표집을 통해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단면 횡단자료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인과적 시간순서를 엄격하게 검정하기 어렵다. 인지적·사회적 특성이 자기효능감과 정서적 몰입을 거쳐 지속적 몰입으로 전이되는 과정을 보다 정밀하게 검토하기 위해서는 종단설계나 시간차 설문을 활용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지속적 몰입의 개념은 교회조직 맥락에서 추가적인 타당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지속적 몰입을 경제적 잔류비용이 아니라 사역관계와 공동체 소속을 지속하려는 관계적·심리적 의지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정서적 몰입과 지속적 몰입 간 관련성이 높게 나타나 두 개념이 경험적으로 중첩될 가능성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정서적 몰입, 지속적 몰입, 소명몰입, 공동체몰입을 구분한 측정모형을 설정하고, AVE, HTMT, 대안모형 비교 등을 통해 변별타당도를 보다 엄밀하게 검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목회사역자의 조직몰입 형성을 횡단적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몰입 구조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조직몰입은 구성원이 역할갈등, 사역 위기, 자원 소진, 소명과 현실의 괴리와 같은 심리적 임계 상황을 경험할 때 재편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역할갈등, 자원 축적, 사역정체성의 변화를 종단적으로 추적하고, 몰입 구조의 비선형적 변화 가능성을 탐

색하는 동태적 연구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속매개효과는 대부분의 하위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특히 인지적 특성의 연속매개효과는 95%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여 기각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매개모형은 확증적 결과라기보다 후속연구를 위한 탐색적 구조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표본 규모를 확대하고, 대안모형 비교와 추가 매개·조절변수 검토를 통해 목회사역자의 조직몰입 형성과정을 보다 정교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고성주, 『직무특성이 조직몰입, 회복탄력성,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 조직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부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오홍석, 『사회적 네트워크, 사회적 자본 그리고 조직론 연구』, 21세기 매니지먼트 이론의 뉴패러다임, 위즈덤하우스, 2008, 232-251쪽.

Bandura, A. *Social learning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77.

Bandura, A.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Freeman, 1997.

Blau, P. M. *Exchange and power in social life*, New York: Wiley, 1964.

Boyatzis, R. E. *The competent manager: A model for effective performance*, New York: Wiley, 1982.

Goleman, D. *Working with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Bantam Books, 1998.

Hair, J. F., Black, W. C., Babin, B. J., & Anderson, R. E. *Multivariate data analysis (7th ed.)*,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2010.

Luthans, F., Youssef, C. M., & Avolio, B. J. *Psychological capital: Developing the human competitive ed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Organ, D. W.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The good soldier syndrome*, Lexington, MA: Lexington Books, 1988.

Rousseau, D. M. *Psychological contracts in organizations: Understanding written and unwritten agreements*, Thousand Oaks, CA: Sage, 1995.

Spencer, L. M., & Spencer, S. M. *Competence at work: Models for superior performance*, New York: Wiley, 1993.

Yukl, G. *Leadership in organizations (8th ed.)*, Boston: Pearson, 2012.

논문

강호철·이도화, 「긍정심리자본의 선행요인과 행위결과에 관한 연구」, 『인적자원관리연구』 23권2호, 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 2016, 129-151쪽.

김민수·박지은, 「심리적 계약 위반의 영향에서 집단 절차공정성 풍토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19권3호, 한국산업및조직심리학회, 2006, 421-445쪽.

김민정·김민수·오홍석, 「조직 내 멘토링 네트워크에서 멘토의 네트워크 특성이 멘토와 프로테제의 조직기반 자긍심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19권4호, 한국산업및조직심리학회, 2006, 499-521쪽.

김범주, 「교사 간 협력 정도가 학교만족도와 교사효능감을 매개로 교직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원교육연구』 37권1호, 한국교원교육학회, 2020, 163-182쪽.

김용재·김종완, 「리더십이 자기효능감을 통해 조직몰입과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인적자원개발연구』 11권2호, 한국인력개발학회, 2008, 1-20쪽.

문형구·김경석, 「조직시민행동(OCB) 연구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에서의 연구를 중심으로」, 『경영학연구』 35권2호, 한국경영학회, 2006, 609-643쪽.

박상호, 「전문직군의 인지적·사회적 특성이 지속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과 정서적 몰입의 연속매개효과」, 『벤처창업연구』 21권2호, 한국벤처창업학회, 2026, 155-172쪽.

박상호·강신철, 「창업보육센터 매니저의 역량 특성이 조직몰입과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매니저의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6권1호, 한국벤처창업학회, 2021, 71-85쪽.

박상호·김경·강신철, 「보건교사의 행동적 특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과 과업중요성을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9권4호, 한국벤처창업학회, 2024, 215-229쪽.

박상호·김경·강신철, 「대학교 직원의 행동적 특성이 정서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와 기술다양성의 통제효과를 중심으로」, 『지식과 교양』 17호,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2025, 973-1004쪽.

박지은·오원경·김민수, 「조직시민행동에 대한 심리적 계약 위반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5권3호, 한국산업및조직심리학회, 2012,

589-606쪽.
손승연·윤석화·최연,「자기희생적 리더십과 상사지향 조직시민행동」,『경영학연구』 44권4호, 한국경영학회, 2015, 959-984쪽.
송미옥·심은정,「목회자의 직무 스트레스와 소진의 관계에서 소명감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29권2호,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 2018, 163-190쪽.
안정원·이순묵,「조직몰입3요소 모형의 내적구조 검토: 탐색적 구조방정식 모형(ESEM)의 적용」,『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28권4호, 한국산업및조직심리학회, 2015, 795-827쪽.
안정원·이순묵,「조직몰입 구성개념의 개념화와 타당화: 은행의 정규직 종사자를 중심으로」,『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31권2호, 한국산업및조직심리학회, 2018, 459-497쪽.
연지연·최은수,「기독교 목회자의 온정적 합리주의 리더십과 교수 역량, 교회의 학습조직문화, 성도의 신앙성숙도와 서번트 리더십 간의 구조적 관계」,『Andragogy Today』19권2호, 한국성인교육학회, 2016, 1-27쪽.
오원경·김민수·손건강·신경식,「리더의 상호작용 공정성 지각이 구성원의 정서적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26권2호, 한국산업및조직심리학회, 2013, 297-315쪽.
오홍석·정명호,「A social network perspective on work group performance」,『경영학연구』35권3호, 한국경영학회, 2006, 825-850쪽.
옥장흠,「목회자의 영적 리더십이 신앙의 성숙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기독교교육정보』49호, 한국기독교교육정보학회, 2016, 111-139쪽.
이동섭·최용득,「긍정심리자본의 선행요인과 결과에 관한 연구」,『경영학연구』39권1호, 한국경영학회, 2010, 1-28쪽.
이상훈·신유형·백승익, "How Job Crafting Enhance Work Engagement? Effects of Role Ambiguity and ICT Presenteeism",『기업경영연구』25권5호, 한국기업경영학회, 2018, 91-109쪽.
최성상·김미경,「목회자의 스트레스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 가족탄력성과 소명의식의 매개효과」,『복음과 상담』29권1호, 한국복음주의기독교상담학회, 2021, 211-242쪽.

황한솔·김미희·신유형,「상사의 심리적 특권의식이 비인격적 감독을 통해 부하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과 부하 주도적 성격의 조절효과」,『경영학연구』 48권6호, 한국경영학회, 2019, 1569-1590쪽.

Allen, N. J., & Meyer, J. P. "The measurement and antecedents of affective, continuance and normative commitment to the organization", Journal of Occupational Psychology, vol. 63, no. 1, 1990, pp.1-18.

Bakker, A. B., & Demerouti, E. "The job demands-resources model: State of the art",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vol. 22, no. 3, 2007, pp.309-328.

Cropanzano, R., & Mitchell, M. S. "Social exchange theory: An interdisciplinary review", Journal of Management, vol. 31, no. 6, 2005, pp.874-900.

Edmondson, A. C. "Psychological safety and learning behavior in work team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vol. 44, no. 2, 1999, pp.350-383.

Fornell, C., & Larcker, D. F.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 18, no. 1, 1981, pp.39-50.

Hackman, J. R., & Oldham, G. R. "Motivation through the design of work: Test of a theory",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Performance, vol. 16, no. 2, 1976, pp.250-279.

Jonassen, D. H. "Toward a design theory of problem solving", Educational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vol. 48, no. 4, 2000, pp.63-85.

McClelland, D. C. "Testing for competence rather than intelligence", American Psychologist, vol. 28, no. 1, 1973, pp.1-14.

Meyer, J. P., & Allen, N. J. "A three-component conceptualization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Human Resource Management Review, vol. 1, no. 1, 1991, pp.61-89.

Meyer, J. P., Stanley, D. J., Herscovitch, L., & Topolnytsky, L. "Affective, continuance, and normative commitment to the organization: A

meta-analysis of antecedents, correlates, and consequenc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 61, no. 1, 2002, pp.20-52.

Mumford, M. D., Zaccaro, S. J., Harding, F. D., Jacobs, T. O., & Fleishman, E. A. "Leadership skills for a changing world: Solving complex social problems", The Leadership Quarterly, vol. 11, no. 1, 2000, pp.11-35.

Podsakoff, P. M., MacKenzie, S. B., Lee, J.-Y., & Podsakoff, N. P. "Common method biases in behavioral research: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recommended remedie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vol. 88, no. 5, 2003, pp.879-903.

Stajkovic, A. D., & Luthans, F. "Self-efficacy and work-related performance: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vol. 124, no. 2, 1998, pp.240-261.

Tepper, B. J. "Consequences of abusive supervision",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 43, no. 2, 2000, pp.178-190.

Wasti, S. A. "Affective and continuance commitment to the organization: Test of an integrated model in the Turkish context",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vol. 26, no. 5, 2002, pp.525-550.

Wrzesniewski, A., & Dutton, J. E. "Crafting a job: Revisioning employees as active crafters of their work",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 26, no. 2, 2001, pp.179-201.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목회사역자의 인지적·사회적 특성이 지속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자기효능감과 정서적 몰입의 매개 경로를 중심으로 탐색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목회사역자를 교회조직 내에서 다양한 사역과 직무를 수행하는 조직구성원으로 보고, 사회인지이론과 JD-R 모형을 바탕으로 인지적·사회적 특성, 자기효능감, 정서적 몰입, 지속적 몰입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토하였다. 인지적 특성은 문제해결능력, 의사결정능력, 상황대처능력으로, 사회적 특성은 협업능력,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으로 구성하였으며, 과업중요성과 기술다양성은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특정 교육기관(M대학교)의 학·석·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목회사역자 및 예비 목회사역자 1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구조방정식모형을 적용한 결과, 문제해결능력은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고, 대인관계능력은 정서적 몰입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또한 자기효능감은 정서적 몰입에, 정서적 몰입은 지속적 몰입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반면 의사결정능력, 상황대처능력, 협업능력, 의사소통능력의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부트스트래핑 분석 결과, 인지적 특성의 연속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대인관계능력이 정서적 몰입을 거쳐 지속적 몰입에 이르는 간접경로만 제한적으로 유의한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목회사역자의 지속적 몰입이 모든 인지적·사회적 특성에 의해 동일하게 형성되기보다, 문제해결 경험을 통한 자기효능감 형성과 대인관계능력을 통한 정서적 몰입 형성 과정과 밀접하게 관련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교회조직을 조직행동론의 분석대상으로 설정하고, 특수 조직 맥락에서 직무자원, 개인자원, 정서적 몰입, 지속적 몰입 간의 관계를 탐색적으로 검토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다만 특정 교

육기관 기반의 소표본 자료와 일부 모형 적합도 지수의 한계를 고려할 때, 본 연구결과는 확증적 일반화보다 후속연구를 위한 탐색적 결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목회사역자, 인지적 특성, 사회적 특성, 자기효능감, 정서적 몰입, 지속적 몰입, 과업중요성, 기술다양성

Abstract

The Effects of Pastoral Workers' Cognitive and Social Characteristics on Continuance Commitment

: Focusing on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and Affective Commitment

Sangho Park / Mokwon University
Kyung Kim / Giseong Middle Schoo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atorily analyze the effects of pastoral workers' cognitive and social characteristics on continuance commitment, focusing on the mediating paths of self-efficacy and affective commitment. Viewing pastoral workers as organizational members who perform diverse pastoral and job-related roles within church organizations, this study examines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their cognitive and social characteristics, self-efficacy, affective commitment, and continuance commitment based on Social Cognitive Theory and the Job Demands-Resources model. Cognitive characteristics consist of problem-solving ability, decision-making ability, and situational coping ability, while social characteristics consist of collaboration ability, communication abi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Task significance and skill variety were included as control variables.

Survey data were collected from 103 pastoral workers and prospective pastoral workers enrolled in undergraduate, master's, and doctoral programs at M University, and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Results show that problem-solving ability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self-efficac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affective commitment. In addition, self-efficacy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affective commitment, while affective commitment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continuance commitment. In contrast, the direct effects of decision-making ability, situational coping ability, collaboration ability, and communication ability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Bootstrap analysis shows that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of cognitive characteristics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while only the indirect path from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to continuance commitment through affective commitment showed a limited marginal tendency.

These findings suggest that pastoral workers' continuance commitment is not formed uniformly by all cognitive and social characteristics, but may be closely related to the formation of self-efficacy through problem-solving experience and the formation of affective commitment through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ositions church organizations as a subject of organizational behavior research and exploratorily examines the relationships among job resources, personal resources, affective commitment, and continuance commitment in a distinct organizational context. However, given the small sample drawn from a single educational institution and the limitations of some model fit indices, the findings should be interpreted as exploratory results for future research rather than as confirmatory or broadly generalizable evidence.

Keyword ● Pastoral workers, Cognitive characteristics, Social characteristics, Self-efficacy, Affective commitment, Continuance commitment, Task significance, Skill variety

▌논문투고일:2026.05.27. ▌심사완료일:2026.07.03. ▌게재확정일:2026.07.14. ▌

● ● ● https://doi.org/10.54698/kl.2026.21.741
지식과 교양, 제21호,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Knowledge and Liberal Arts, Vol. 21, LIC, pp.741-776.

주디스 버틀러의 이론으로 본 한국 시위의 공연적 전환

: 2015-2017년 광장 집회에 나타난 미학적 양식을 중심으로

신 광 민*

목 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버틀러의 '비폭력'과 '수행적 신체'
3. 한국 시위의 공연적 전환: 미학적 양식과 저항의 수행성
4. 결론 및 제언

1. 서론

21세기 한국의 시위 문화는 단순한 정치적 집합행동을 넘어, 고도의 미학적 양식이 집약된 '공연적 사건(Performative Event)[1]'으로서 세계 민주주의 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마련한다. 2016-2017년 탄핵 촛불집회는 NYT가 "세계 민주주의 운동의 새 모델"[2] 또는 "민주주의의 기적"[3]으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

1)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공연적 사건'은 단순히 무대 위 미학적 재현으로서의 공연(Performance)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는 에리카 피셔 리히테가 정립한 예술의 사건성(Eventness)을 바탕으로 하되, 주디스 버틀러가 논한 '신체의 물질적 현존을 통한 대안적 주체와 공간을 창출해내는' 수행적(Performative) 의미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2) 최상훈, "South Korea Removes President Par Geun-hye", <New York Times>, 2017.3.10.

3) Judith Butler, 「Susceptibility and Solidarity」, 제3회 호세 에스테반 무뇨스 기념 강연, 뉴욕대학교(NYU), 2017.9.14.

로 평가한 것과 같이, 200만 명 이상이 20주간 무혈로 광장을 점거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조셉 찬(Joseph M. Chan)은 홍콩 우산혁명과의 비교연구에서 한국 촛불집회가 "비폭력 지속성"과 "미학적 조직화"에서 우위를 보인다고 분석하였으며[4], APJJF는 "포스트-오큐파이 운동의 전형"[5]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세계적 주목은 참여 인원이나 정치적 성과를 넘어, 촛불의 시각적 리듬, 꽃 스티커의 촉각적 상징성, 떼창의 음향적 공명 등 '집합적 미학 양식'이 어떻게 권력 구조를 무력화하는지를 보여주는 데서 비롯된다. 즉, 동시대 한국 광장은 신체와 오브제가 상호작용하는 정치미학적 무대로 진화한 것이다.

이러한 세계적 주목과 광장의 감각적 전환에도 불구하고, 기존 국내 시위 연구는 주로 자원동원론, 정치적 기회구조, 네트워크 분석 등 '사회운동론(Social Movement Theory)'의 틀 내에서 정치·사회학적 접근을 지속해왔다.[6] 이러한 연구들은 시위의 동원 구조와 제도적 성과를 설명하는 데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광장이라는 구체적인 시공간에서 발생하는 '감각적 실천'과 '신체적 수행성'을 포착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 시위를 전략적 성과라는 결과 중심적 시각으로만 바라볼 경우, 현장의 미학적 프로세스는 소외되기 쉽다. 즉, 시민들의 신체 배열과 상징물의 감각적 효과는 물론, 이를 통한 주체성 형성 과정의 구체성마저 논의의 주

4) Chan Joseph M, *Media and Protest Logics in the Digital Era: The Umbrella Movement in Hong Kong*, Lond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참조.

5) Kim Nan, "Candlelight and the Yellow Ribbon: Catalyzing Re-Democratization in South Korea", The Asia-Pacific Journal: Japan Focus, 15, no. 14-5, 2017.7.15.

6) 한국의 광장 집회를 연극학 및 공연학적 관점에서 접근한 선행 연구로는 주현식(2018, 2020), 안선희(2018), 김성재(2018), 박희봉, 이기중, 김명준(2009), 최종렬(2008) 등이 있다. 이들 연구는 광장의 집회를 단순한 정치적 대결을 넘어 일종의 '사회적 퍼포먼스'이자 민주주의적 실천의 장으로 재규명함으로써, 집회가 지닌 미학적 가치와 대안적 공동체 형성의 가능성을 공연학적 담론으로 확산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 그러나 한국 시위 문화가 성취한 세계사적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이처럼 집회의 공연적 실천을 전문적으로 다룬 연구는 방대한 양의 정치·사회학적 선행 연구들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변부로 밀려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시위를 하나의 공연으로 바라보는 공연학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광장에 모인 신체들의 물리적 배열이 어떻게 그 자체로 강력한 정치적 발화가 되는지 규명하기 위해서는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 1956~)의 후기 수행성 담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버틀러의 초기 담론이 주로 언어적 명명 권력에 집중했다면, 후기 담론은 거리에 출현한 '취약한 신체들(vulnerable Bodies)'의 복수적 수행이 어떻게 제도적 권력의 그리드를 교란하고 새로운 주체성을 획득하는지에 천착한다. 버틀러가 제시한 '비폭력'과 '수행성' 그리고 '애도가능성(Grievability)' 담론은 취약한 신체들이 어떻게 상호의존적인 연대를 구축하고 국가의 폭력적 그리드를 미학적으로 전도시키는지 분석할 수 있는 핵심적 틀을 마련해 준다.

이처럼 버틀러의 이론을 경유하여 한국 시위 문화가 성취한 공연적 전환[7]을 고찰하는 것은, 2015년 11·14 민중총궐기라는 임계점을 거쳐, 어떻게 2016-2017년의 미학적 저항으로 전개되었는지 그 수행적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백남기 농민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희생을 넘어, 경찰 장비와 차벽, 살수차의 물리적 배열로 구조화된 국가의 통제 그리드(Grid)가 시민의 '취약한 신체'를 어떻게 파괴하고 공적 '애도가능성(Grievability)'을 박탈하는지 그 전말을 가시화한 상징적 사건이었다. 이는 곧 2016년 촛불집회로 이어지는 비폭력 시위 형식의 변화를 촉발하는 결정적인 수행적 변곡점이 된다.[8]

---

7) 본고에서 제안하는 광장 집회의 '공연적 전환'은 단순한 미학적 형식의 변화나 축제성으로의 유희적 회귀를 의미하지 않으며, 구체적으로 두 가지 패러다임의 이행을 지칭한다. 첫째, 시위 양식이 거시적 구호와 세력 대치 중심의 '물리적 충돌'에서 신체 배치가 만드는 상징적 효과 및 미학적 프로세스가 중심이 되는 '감각과 미학'으로의 전환이다. 둘째, 저항의 주체가 파편화된 개별 단독자에서 신체들의 상호의존적 연대를 통한 '집합적 주체'로의 전환이다.

8) 주디스 버틀러 저, 김응산·양효실 역, 『연대하는 신체들과 거리의 정치』, 창비, 2020, 112쪽.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버틀러의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2015-2017년 한국 광장 집회[9]의 주요 사건들을 공연학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둔다. 특히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당시 물대포에 직격당한 신체의 취약성이 노출되는 순간과 2016년 11월 12일 경찰 차벽의 위압적 그리드를 꽃 스티커와 분향소로 치환하여 이를 미학적 공간으로 전도시키는 순간, 마지막으로 2017년 3월 10일 최종집회에서 수만 명의 신체가 합창과 촛불 소등을 통해 연출한 집합적 수행의 정점을 고찰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세 가지 수행적 국면은 단순한 연대기적 나열이 아닌, 국가 폭력의 노출이 어떻게 시민들의 미학적 대안을 통해 집합적 주체성의 완성으로 이행하는지, 그 수행적 구조를 실증하기 위한 학술적 선택의 결과이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한국의 비폭력 시위가 국가의 명명 권력을 어떻게 미학적으로 무력화했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이는 한국 시위를 단순한 사회운동의 범주를 넘어, 신체의 취약성을 연대의 동력으로 삼는 '정치미학적 공연'으로 이론화하는 작업이며, 나아가 비폭력 저항 담론을 연극학적 차원으로 재구성하고, 동시대 정치미학 연구의 외연을 확장하는 데 중요한 준거가 될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버틀러의 '비폭력'과 '수행적 신체'

1) 권력의 '폭력' 명명과 공격적 비폭력

(1) 폭력의 수단화와 명명의 자의성: 프레임의 정치학

버틀러가 전개하는 비폭력 담론의 핵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권력이 폭력을 정의하고 운용하는 방식에 대한 인식론적 고찰이 선행되어야

9) 본고에서 논의하는 광장 집회의 핵심 분석 대상은 2016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전개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집회'로 제한된다. 다만, 이 집회가 지닌 비폭력 미학적 레퍼토리의 질적 전환 과정을 계보학적으로 추적하기 위해, 그 직접적 도화선이자 비극적 임계점이 되었던 2015년 11월 14일의 '민중총궐기'를 분석의 범주에 포함하였다.

한다. 버틀러에게 폭력이란 단순히 신체에 가해지는 물리적 충격의 총합을 넘어, 특정한 신체를 '제거 가능한 존재' 혹은 '파괴되어 마땅한 존재'로 분류하고 규정하는 인식론적 '프레임'의 작동 결과이기 때문이다.[10] 폭력의 실체를 규명하는 일은 물리적 현상을 넘어, 누가 어떠한 권위로 '폭력'이라는 명칭을 독점하고 배분하는지의 문제, 즉 명명의 정치학으로 귀결된다. 가령, 국가 권력의 강제력에 저항하는 대중의 집합적 행동은 권력에 의해 흔히 '폭력 시위'로 재명명된다. 이러한 권력의 재명명 전략은 저항 주체들이 내건 정치적 목적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야기하며, 나아가 이들의 시민적 권익을 박탈하거나 신체에 가해지는 사법적 처벌 및 물리적 탄압을 정당화하는 기제로 작동한다.[11] 이처럼 폭력이란 권력관계에 따라 가변하는 전략적 구성물이며, 주권적 권력이 이를 어떻게 정의하고 프레임화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와 윤리적 정당성이 결정된다.

이러한 명명의 자의성은 국가 권력이 폭력을 '사법적 질서 유지의 수단'으로 환원함으로써 자기 정당성을 획득하는 폐쇄적인 순환 구조를 형성한다. 버틀러는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 1892~1940)의 논의를 빌려, 국가가 행사하는 물리적 강제력이 '법-정립적 폭력(rechtsetzende Gewalt)', '법-보존적 폭력(rechtserhaltende Gewalt)'이라는 명목하에 그 정당성을 독점하는 과정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12] 이때 권력은 폭력을 철저히 도구화하여 '질서'라는 목적에 종속시키지만, 이에 저항하는 신체들의 집합적 현존은 국가 체제에 대한 실존적 위협으로 규정하여 '폭력'이라는 낙인을 찍어 프레임 외부로 밀어낸다. 즉, 국가의 물리력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이지 않는 인프라로 은폐되는 반면, 시민들의 저항은 오직 '파괴적 행위'로만 가시화되어 그 속에 담긴 정치적 메시지는 소음으로 치환된다.

10) 주디스 버틀러 저, 김정아 역, 『비폭력의 힘』, 문학동네, 2021, 13-16쪽.
11) 주디스 버틀러, 앞의 책(2021), 16쪽.
12) 위의 책(2021), 21-23쪽.

그러나 명명의 권력은 결코 국가에 의해 일방적으로 점유되거나 고정되지 않는다. 버틀러는 권력이 특정한 집합적 신체를 '폭도'로 명명하여 프레임 외부로 밀어낼 때, 저항하는 신체들은 역으로 국가의 강제력을 '불법적 폭력'으로 재명명함으로써 명명의 주도권을 박탈한다고 분석한다.[13] 이는 단순히 언어적 항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질서 유지의 수단'이라고 주장하며 은폐해 온 물리적 행위를 '신체의 취약성을 파괴하는 근원적 폭력'으로 폭로하는 수행적 저항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국가 폭력의 실상을 대중적 인식의 장에 새롭게 재배치한다. 즉, 시민들은 자신들에게 씌워진 '폭력'이라는 낙인을 거부하는 동시에, 국가의 그리드 자체가 행사하는 구조적·물리적 압박을 '진정한 폭력'의 실체로 가시화한다. 이처럼 폭력의 정의를 둘러싼 명명권의 경합은 광장을 단순한 항의의 장소를 넘어, 권력이 설정한 인식적 프레임을 전도시키고 새로운 정치적 윤리를 수립하는 수행적 무대로 변모시킨다. 이때 명명의 주도권은 어느 한쪽으로 귀속되지 않은 채, 국가의 사법적 권위와 시민의 수행적 현존 사이에서 끊임없이 재정의되는 역동적인 투쟁의 결과물로 나타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 권력이 저항의 동기를 왜곡하고 '애도가능성'을 차등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행사하는 명명의 프레임을 분석하는 동시에, 이에 맞서는 시민들의 수행적 재명명이 어떠한 미학적 실천력을 지니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2) 공격적 비폭력(Aggressive Nonviolence): 수행적 역설

버틀러가 제안하는 비폭력은 결코 갈등을 회피하거나 물리적 타격만을 금기시하는 도덕적 평화주의나 수동적인 인내에 머물지 않는다. 오히려 버틀러는 비폭력을 '공격적(Aggressive)'이고 '격렬한(Violence-adjacent)' 수행적 힘으로 재정의하며, 이를 권력의 인프라를 마비시키는 능동적인 거부의 기제로 상정한다.[14] 이는 내면의 파괴적 충동이나 분노를 단순히 억제

13) 위의 책(2021), 24-25쪽.
14) 주디스 버틀러, 앞의 책(2021), 26쪽.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에너지를 권력의 인식적 프레임을 교란하고 해체하는 '방해'의 기술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방해'란 상대방의 신체에 물리적 위해를 가하는 '파괴'와는 엄격히 구분되는 개념으로, 권력이 설계한 통치 매뉴얼이 더 이상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그 논리적 회로를 끊어버리는 수행적 개입을 뜻한다. 즉, 주체가 느끼는 격렬한 분노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타자를 향한 폭력으로 분출되는 대신, 권력이 유도하는 각본을 거부하는 '응축된 인내'로 치환되는 것이다. 이러한 에너지의 전환은 권력으로 하여금 자신들이 준비한 진압의 명분(폭도 프레임 등)을 상실하게 만들며, 결과적으로 국가의 물리적 강제력이 아무런 저항의 근거를 찾지 못한 채 허공을 가르게 만드는 비대칭적 타격력을 갖는다. 따라서 공격적 비폭력은 분노라는 파괴적 에너지를 '연대 가능한 공연적 형식' 내에 묶어둠으로써, 권력의 그리드 내에 균열을 내고 그 시스템을 심리적·상징적으로 마비시키는 고도의 전략적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수행적 역설의 핵심은 비폭력이 지니는 '공격성'이 타인의 생명을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파괴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설정한 폭력의 수단과 목적을 끊어내는 인식론적 완력에서 발생한다는 점에 있다. 버틀러는 비폭력을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행위"[15]라고 정의하며, 이러한 거부의 제스처 자체가 권력에게는 가장 위협적인 공격이 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공격적 비폭력의 양식은 2013년 튀르키예 게지 공원(Gezi Park) 시위의 '스탠딩맨(Duran Adam)' 사례에서 그 수행적 마비의 실체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경찰의 폭력적 진압이 극에 달한 광장에서 아무런 구호 없이 8시간 동안 부동자세로 서 있었던 이 정적인 저항은, '폭도 진압'이라는 국가 권력의 매뉴얼을 무력화하며 공권력이 지닌 물리적 강제력의 정당성을 바닥나게 만들었다. 이 퍼포먼스는 버틀러가 강조하는 '방해의 기술'이 어떻게 국가의 통치 그리드를 마비시키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수행적 사례로 평가받는

15) 주디스 버틀러, 앞의 책(2021), 15쪽.

다.[16] 이와 같은 정동(Affect)적 거부는 권력이 기대하는 '폭력 대 폭력'의 구도를 원천적으로 거부함으로써 국가의 정당성을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는 공격적 전도이며, 동시에 권력이 명명한 '폭도'라는 프레임 자체를 시각적으로 조롱하고 파괴하는 수행적 실천이다.



[그림 1] 2013년 튀르키예 '스탠딩 맨' 시위

결과적으로 공격적 비폭력은 신체의 취약성을 정치적 무기로 전환하여, 누가 진정으로 폭력적인지를 광장의 대중적 인식 속에 각인시키는 강력한 표현적 힘으로 작동한다. 이는 분노라는 파괴적 에너지가 '타인에 대한 살해'가 아닌 '체제에 대한 마비'로 치환될 때 발생하는 고도의 정치적 긴장감이며, 버틀러가 강조하듯 비폭력이 결코 나약한 타협이 아닌, 가장 격렬한 형태의 저항임을 증명하는 지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2016-2017년 한국 광장의 공연적 양식들은 분노의 부재가 아닌, 분노를 '연대 가능한 미학적 형식'으로 담아낸 공격적 비폭력의 전형적인 사례로 읽힐 수 있다.

2) 애도가능성(Grievability)의 평등과 신체의 상호의존성: 비폭력의 윤리적 토대

(1) 생명정치와 애도가능성의 차등적 배분

16) 박지원, 「비폭력 교육을 위한 시론: 주디스 버틀러의 『비폭력의 힘』을 중심으로」, 『교육철학연구』 45권 4호, 한국교육철학학회, 2023, 97쪽.

비폭력이 단순히 물리적 충돌을 피하는 기술적 선택을 넘어 하나의 윤리적 저항이자 정치적 실천으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권력이 생명을 관리하고 위계화하는 방식인 '생명정치'에 대한 존재론적 고찰이 전제되어야 한다. 버틀러는 현대 국가 권력이 모든 생명을 평등하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인식론적 '프레임'을 통해 어떤 생명은 보호받아야 할 가치가 있는지를 교묘하게 규정한다고 분석한다.[17] 여기서 프레임이란 국가에 의해 고정된 설계도가 아니라, 사회적 규범과 미디어, 지배적 담론이 복합적으로 얽혀 작동하는 인식의 여과장치이다. 이 장치는 어떤 생명을 '우리'의 일원으로 승인하여 보호의 대상으로 가시화하는 반면, 반대로 어떤 생명은 상실되어도 무방한 '부수적 피해'나 '지워야 할 소음'으로 분류함으로써 생명의 가치를 차등적으로 인지하게 만든다.

이러한 과정은 국가의 직접적 명령보다는, 무엇이 '인간적인 삶'인가에 대한 사회적 규범을 조작함으로써 대중이 특정 죽음에 대해 무감각해지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권력이 운용하는 인식의 프레임은 단순히 시각적 구도를 넘어, 누가 주체로서 승인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인식론적 문턱으로 작동한다. 이러한 위계의 중심에는 '애도가능성'이라는 핵심 개념이 자리한다. 버틀러에게 애도가능성이란 특정 생명이 상실되었을 때 사회적으로 슬퍼하고 그 죽음을 공적으로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선행적이고 사회적인 조건이다. 즉, "애도될 수 있는 삶은 이미 보호받고 있는 삶이며, 애도될 수 없는 삶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 없는 상태로 방치된 삶"[18]이다.

나아가 버틀러는《연대하는 신체들과 거리의 정치》를 통해 이러한 애도가능성의 불평등이 신체의 '취약성'을 정치적으로 조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통찰한다. 모든 신체는 타인과 사회적 인프라에 의존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근원적 위태로움을 공유하지만, 권력은 특정 집단에게 과

17) 주디스 버틀러 저, 한정라 역,『전쟁의 프레임들: 삶의 평등한 애도가능성을 향하여』, 한울아카데미, 2023, 1-2쪽.

18) 주디스 버틀러, 앞의 책(2023), 15쪽.

도한 위태로움을 전가함으로써 그들의 신체를 물리적·사회적 파괴의 위협 앞에 노출시킨다.[19] 예를 들어, 2015년 민중총궐기 당시 국가 권력이 광장에 설치한 거대한 차벽과 물대포는 단순한 질서 유지 도구가 아니라, 시민의 신체가 광장이라는 공적 인프라에 접근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차단하고, 그들을 사법적 또는 신체적 위협 속에 방치한 생명정치적 장치였다. 이때 국가의 보호를 받는 신체들은 안전한 차벽 안쪽에 위치하는 반면, 권리에 저항하는 신체들은 차벽 외부의 무방비한 공간으로 밀려나 국가 폭력의 직접적인 타격 대상이 된다. 이처럼 권력은 누구의 신체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누구의 신체가 인프라의 지지 없이 홀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지를 결정함으로써 '애도가능성'의 위계를 공고히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비폭력 저항은 권력이 구축한 생명정치적 프레임에 균열을 내어, 모든 생명의 평등한 애도가능성을 광장 위에 직접 입증해 낸다.[20] 시민들이 광장에 모여 권력이 지우려 했던 죽음을 호명하고, 그들의 이름을 딴 분향소를 차리며, 노란 리본과 같은 미학적 기표를 통해 취약성을 공유하는 행위는 단순한 추모를 넘어선다. 그것은 권력이 설정한 '애도가능성의 위계'를 거부하고 모든 신체가 상호의존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신체적 현존으로 입증하는 과정이다. 이처럼 2016-2017년 광장에서의 연대는 권력의 차별적 생명정치에 맞서 '누구의 삶도 버려질 수 없다'는 평등한 애도의 정치를 수행적으로 선언한 미학적 실천으로 재해석된다.

(2) 신체의 상호의존성과 연대의 윤리: '양가성'의 정치적 승화

권력이 설정한 애도가능성의 위계를 무너뜨리고 광장에서 실천적 연대를 가능하게 한 내적 동력은, 신체가 지닌 근원적인 '상호의존성'에 대한 자각에서 비롯된다. 버틀러는 인간을 자립적인 개인이 아닌, 타인의 존재와 사회적 인프라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관계적 주체'로 정의한다. 이러

19) 위의 책(2023), 34-36쪽.
20) 주디스 버틀러, 앞의 책(2021), 8쪽.

한 상호의존성은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먹고, 숨 쉬고, 움직이는 주체의 모든 물리적 행위가 타자의 '살'과 사회적 하부구조에 매개되어 있다는 존재론적 사실에 기반한다.[21] 버틀러는 이를 통해 비폭력이 개인의 도덕적 수양을 넘어, 모든 생명이 상호의존적으로 얽혀 있음을 인정하는 사회적 실천임을 강조한다. 즉, 비폭력은 타인을 파괴하는 행위가 곧 나를 지탱하는 세계를 무너뜨린다는 자각에서 비롯된 공동체적 연대의 결과이다.

그러나 연대는 결코 타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박애나 평화로운 사랑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버틀러는 오히려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타자를 향한 '양가성', 즉 사랑과 동시에 존재하는 파괴적 증오를 인정하는 데서 비폭력의 진정한 동력을 찾는다. 비폭력을 실천하는 주체는 타인에 대한 사랑과 미움이라는 양가적 감정 사이에 끊임없이 갈등하며, 이러한 갈등은 비폭력을 능동적이고 전투적인 성격으로 변모시킨다.[22] 내가 생존하기 위해 의존해야만 하는 타자가 나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고통을 줄 때 발생하는 파괴적 충동은 필연적이다. 하지만 비폭력은 이 충동을 외부에 투사하여 타자를 말살하는 대신, 그 에너지를 연대 가능한 정치적 형식으로 전환하는 윤리적 인내를 요구한다. 이는 파괴 본능의 부재가 아니라, 그 본능을 정치적 목표를 위해 의도적으로 억류하는 고도의 수행적 결단이다.

이 지점에서 비폭력은 수동적 인내를 넘어선 강력한 '공격성'을 획득한다. 버틀러는 비폭력을 비공격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일반적인 편견을 정면으로 비판한다. 버틀러에게 비폭력이란 오히려 폭력과 복수의 연쇄를 끊어내기 위해, 폭력의 명명 권력에 능동적으로 맞서는 하나의 기술이다.[23] 비폭력 저항은 미운 대상을 죽이는 대신, 그 대상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상호의존성의 윤리를 붙잡고 버티는 행위로서 권력을 곤혹스럽게

21) 박지원, 앞의 논문, 91-92쪽.
22) 박지원, 앞의 논문, 84쪽.
23) 박지원, 앞의 논문, 93쪽.

만든다.

이러한 양가성의 승화는 신체가 지닌 취약성을 공동의 무기로 삼음으로써 더욱 구체화된다. 모든 신체는 상처입기 쉽고 파괴될 수 있는 '살'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취약성은 권력이 통제할 수 없는 생명 본연의 영역이다. 버틀러는 신체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정치적 의미를 수행하는 매개체임을 강조하며, 집회는 이러한 복수의 신체들이 서로 관계를 맺으며 출현하는 공간임을 논한다.[24] 시민들이 광장에서 서로의 신체를 노출하며 집합적으로 현존하는 것은, 권력이 부여한 신분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체' 그 자체로서 서로의 인프라가 되어주겠다는 선언이다. 이처럼 신체의 상호의존성을 자각한 주체들은 타자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치환하며, 권력이 설정한 애도가치의 위계를 무너뜨린다.

나아가 이러한 비폭력의 윤리는 개별적인 주체를 넘어선 '집합적 주체'의 형성을 가능하게 한다. 애도가능성의 평등을 주장하는 비폭력 저항은 누구의 삶도 버려질 수 없다는 윤리적 결속을 신체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이다.[25] 이는 단순히 도덕적 연민을 넘어, 우리 모두가 서로의 생존을 지탱하고 있다는 사회적 사실에 근거한 연대다. 결국 양가성의 정치적 승화는 주체 내면의 긴장을 유지한 채 폭력의 유혹을 거부하는 가장 격렬한 형태의 저항이다. 버틀러가 강조하듯 비폭력은 결코 나약한 타협이 아니라, 우리 안의 파괴성을 직시하면서도 그 파괴성이 세계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붙잡는 '윤리적 구속'이다.[26] 2016-2017년 한국 광장의 풍경은 이러한 내면의 투쟁이 집합적 신체들의 연대를 통해 외부로 표출된 결과물이었다. 시민들은 서로를 향한, 혹은 권력을 향한 파괴적 충동을 상호의존성이라는 윤리적 틀 안에서 미학적으로 길들임으로써, 공격적 비폭력이 가진 변혁적 힘을 광장의 수행성을 통해 명징하게 증명하였다.

24) 정대훈, 「거리의 정치와 고공농성: 주디스 버틀러의 '신체의 매개'와 '미디어의 매개' 개념을 통한 고찰」, 『철학연구』 제 175집, 대한철학회, 2025, 285-286쪽.

25) 박지원, 앞의 논문, 95쪽.

26) 주디스 버틀러, 앞의 책(2021), 151쪽.

3) 수행적 신체와 집합적 주체: '출현의 공간(Space of Appearance)'과 복수적 정치성

(1) '출현의 공간'의 재구성과 리미널리티(Liminality)

버틀러는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 1906~1975)의 '출현의 공간' 개념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며, 신체의 수행성이 어떻게 정치적 장을 형성하는지 고찰한다. 아렌트에게 출현의 공간은 사람들이 언어와 행위를 통해 서로에게 나타나는 유동적인 영역이지만, 버틀러는 출현이 가능하기 위한 '물질적 조건'에 주목한다. 신체는 단순히 행위의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로 정치적 의미를 수행하는 매개체이며, 신체가 특정 장소에 '나타남'으로써 그 공간의 성격을 재규정한다.[27] 즉, 공간은 이미 주어진 물리적 토대가 아니라, 신체들이 그곳에 모여 서로 마주하는 행위를 통해 비로소 '발명'되는 사건적 장소이다. 이처럼 버틀러는 아렌트가 언어적 상호작용에 한정 지었던 출현의 공간을 신체의 물질적 현존과 인프라의 층위로 확장한다.

공간의 재구성은 기존의 사회적 질서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리미널리티'의 특성을 갖는다. 리미널리티는 일상적인 구조와 법적 규범이 효력을 잃는 '문턱'의 상태를 의미하며, 광장은 바로 이러한 경계적 공간으로서 기능한다. 주권 권력이 설정한 금지령과 통제 매뉴얼에 의해 일상적 질서가 마비된 장소일지라도, 이 리미널한 공간은 역설적으로 권력이 배제하려 했던 신체들이 집합적으로 현존함으로써 권력의 프레임을 폭로하고 새로운 정치적 관계를 실험하는 전복적인 시공간으로 변모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리미널리티가 단순한 혼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버틀러가 강조하는 '취약성의 가시화'를 위한 필수적 조건이라는 점이다. 권력은 특정 신체를 애도 불가능한 존재로 규정하여 공적 공간 밖으로 밀어내려 하지만, 리미널한 공간에 모인 신체들은 자신의 신체적 취약성을 그대로

27) 정대훈, 앞의 논문, 281-282쪽.

노출하며 저항한다. 이러한 비폭력적 저항은 경계 공간에서 신체의 취약성을 공동의 무기로 삼아, 그 누구의 삶도 배제될 수 없다는 애도가치의 평등을 수행적으로 요구한다.[28]

또한, 리미널리티는 고정된 공간의 경계를 확장하는 동력으로 작동한다. 한 예로 고공농성과 같이, 신체적 근접성이 차단된 극한의 리미널한 공간일지라도 신체가 그곳에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강력한 정치적 매개가 된다.[29] 고공에 고립되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선 신체는 미디어를 매개로 지상의 신체들과 연결되며, 이를 통해 기존의 물리적 거리감을 무너뜨리는 새로운 '출현의 공간'을 창출한다. 이는 공간의 재구성이 단순한 영토의 점유가 아니라, 신체와 신체를 잇는 '매개적 연결'의 확장임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러한 리미널리티의 확장은 광장 집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리미널리티의 공간 안에서 신체들은 '집합적 주체'로서 정체성을 획득한다. 즉, 집회에 참여한 몸들은 단순히 숫자로 합산되어 수치화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타남으로써 기존의 주체성을 해체하고 새로운 집합성을 수행하는 것이다.[30] 리미널한 광장에서 시민들은 서로의 신체를 보호하고 지탱하는 '인프라'가 되어주며, 이러한 합주된 행위는 권력이 구축한 인식론적 장벽을 허문다. 공간의 재구성은 곧 그 공간을 점유하는 주체들의 관계가 재정립되는 과정이며, 이것이 바로 버틀러가 말하는 복수적 정치성의 실현이다.

결국 출현의 공간을 재구성한다는 것은 권력이 설정한 경계를 수행적 현존으로 무력화하고, 모든 생명이 평등하게 나타날 수 있는 지평을 여는 행위이다. 2016-2017년 한국 광장에서 목격된 신체들의 연대는 아렌트적 공간을 넘어, 버틀러가 주장한 '신체의 매개'와 '리미널리티의 전복성'이 결합된 현장이었다. 시민들이 차벽이라는 물리적 한계 안에서 오히려

28) 박지원, 앞의 논문, 95쪽.

29) 정대훈, 앞의 논문, 298쪽.

30) 정혜옥, 「집합적 주체와 몸들의 연대: 주디스 버틀러와 더불어 집회를 생각하기」, 『비평과이론』 제 23권 1호, 한국비평이론학회, 2018, 12-14쪽.

신체의 연결을 극대화했고, 이를 통해 광장을 일상적 공간에서 주체성을 입증하는 거대한 수행적 텍스트로 탈바꿈시켰다. 이러한 공간의 재구성은 비폭력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신체의 배치를 바꾸고 인식을 탈바꿈하는 물리적 투쟁임을 증명한다.

(2) 신체의 수행성과 집합적 주체의 형성

리미널리티의 공간 안에서 신체들이 현존하는 행위는 단순히 물리적인 점유를 넘어, 기존의 개별적 주체 범주를 해체하고 새로운 정치적 정체성을 창출하는 수행적 사건이 된다. 버틀러에게 수행성이란 미리 존재하는 주체가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 그 자체를 통해 주체가 사후적으로 구성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집회에 참여한 몸들은 개별적인 '나'의 요구를 넘어 서로 팔짱을 끼고 스크럼을 짜는 합주된 행위를 통해 비로소 집합적 주체로 거듭나는 것이다.[31] 이들은 단일한 이데올로기로 묶인 집단이 아니라,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복수적인 몸들이 함께 나타남으로써 형성되는 유동적이고 역동적인 연대체다.

이러한 집합적 주체의 형성은 언어적 구호나 선언에 앞서, 신체의 '물질적 현존' 그 자체를 통해 정치적 의사를 표명한다. 신체는 발화하기 이전에 이미 특정 장소에 머물며 버팀으로써 '우리는 여기에 존재하며 삶을 지속할 권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수행적으로 입증한다. 이러한 신체의 수행성은 결코 수동적인 평화주의가 아니라, 권력이 그어놓은 애도가능성의 경계를 신체적 위험을 무릅쓰고 침범하는 능동적이고 전투적인 비폭력의 실천이다.[32] 즉, 광장의 주체들은 자신들의 취약성을 은폐하는 대신 이를 공적으로 노출하여 권력의 폭력성을 거꾸로 증명해낸다.

특히 집합적 주체는 개별화된 고립을 거부하고 서로의 취약성을 보완하는 '상호의존적 연대망'을 가시화한다. 신체는 홀로 생존할 수 없으며 타자와의 연결을 통해서만 주체성을 획득하고, 집회는 이러한 신체적 매개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장이다.[33] 광장의 몸들은 서로의 안전을 확인

31) 정혜옥, 앞의 논문, 12-14쪽.
32) 박지원, 앞의 논문, 93쪽.

하고 물자와 체온을 공유하는 행위를 통해 서로의 살아있는 인프라가 된다. 이러한 상호의존의 수행은 시민을 개인으로 파편화하여 통제해온 신자유주의적 통치 메커니즘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전복성을 가진다. 주목할 점은 이 집합적 주체가 내면의 '양가성'을 정치적 창의성으로 치환하는 고도의 심리적 기술을 발휘한다는 사실이다. 집합적 주체는 타자를 향한 파괴적 충동을 소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에너지를 타자의 생명을 해치지 않는 '비폭력적 기술'로 변형시킨다.[34] 2016-2017년 광장의 풍자와 해학, 합창과 퍼포먼스는 결코 분노의 결여가 아니라, 그 뜨거운 분노를 '공존을 위한 인내'라는 틀 안에서 미학적으로 정교하게 다듬은 결과물이다. 이러한 수행적 조율은 주체들이 단순한 군중을 넘어 윤리적 타당성을 확보한 '복수적 주체'로 인정받게 만든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형성된 주체성은 권력이 설정한 '살 만한 삶'의 범주를 아래로부터 재정의한다. 촛불집회의 주체들은 정권 교체라는 목적을 넘어, 누가 시민으로서 발언할 자격이 있으며 어떤 고통이 공적으로 기억되어야 하는지를 신체적 집결을 통해 직접 결정한다. 이는 주체화의 과정이 기존 제도의 승인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연대를 통해 스스로 주권을 수행해내는 민주주의의 본질적 행위임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신체의 수행성을 통해 구축된 집합적 주체는 복수적인 몸들이 서로의 취약성을 매개로 연결되어 있음을 입증하는 '윤리적 연대체'이다. 이들은 리미널리티의 공간 안에서 신체의 현존을 무기로 삼아 권력이 거둬버린 애도의 평등을 스스로 쟁취한다. 2016-2017년 한국 광장의 경험은 이러한 수행적 주체성이 어떻게 파편화된 개인들을 하나의 정치적 사건으로 묶어 세우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들의 신체적 연대는 이후 이어질 연극적 분석에서 신체-공간-기표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저항의 미학을 완성했는지를 분석하는 이론적 토대가 될 것이다.

33) 정대훈, 앞의 논문, 281-282쪽.
34) 박지원, 앞의 논문, 84쪽.

3. 한국 시위의 공연적 전환: 미학적 양식과 저항의 수행성

2016-2017년 한국의 광장은 단순한 정치적 성토의 장을 넘어, 신체와 기표가 고도로 조직된 '공연적 장소'로 변모했다. 기존의 시위가 거대 담론과 물리적 충돌 중심의 투쟁이었다면, 이 시기의 광장은 노래와 춤, 풍자와 패러디, 그리고 정교하게 설계된 퍼포먼스가 주를 이루는 미학적 실천의 장이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시위의 수단이 온건해진 것이 아니라, 권력의 폭력적 프레임에 맞서기 위해 시민들이 선택한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공연적 전환'으로 읽어야 한다. 이에 본 장에서는 광장에 나타난 미학적 실천들이 어떻게 권력의 인프라를 마비시키고, 새로운 집합적 주체성을 수행적으로 가시화했는지 구체적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공연적 전환의 배경에는 국가 권력이 특정 신체를 '애도 불가능한 존재'로 규정하고 그들의 물리적 생존 조건을 박탈해온 생명정치적 압박이 존재한다. 특히 2015년 백남기 농민의 죽음과 그에 따른 국가의 사후적 프레임 조작은, 기존의 언어적 요구만으로는 더 이상 권력의 견고한 인식론적 장벽을 허물 수 없다는 자각을 낳았다. 이는 신체의 물질적 현존을 담보로 한 새로운 차원의 수행적 저항을 추동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광장의 미학적 양식들을 단순한 '축제성'이나 '유희'로 치부하는 관성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꽃 스티커 부착, 소등 퍼포먼스, 촛불의 파도와 같은 행위들은 물리적인 타격 없이 권력의 각본을 무력화하는 수행적 전술이며, 버틀러의 '공격적 비폭력'을 현장에 가시화하는 고도의 방해 기술이다.

결국 광장의 공연적 실천은 파편화된 개인들을 하나의 집합적 주체로 묶어 세우며 공간의 성격 자체를 재구성한다. 시민들은 차벽이라는 물리적 단절을 저항의 캔버스로 탈바꿈시켰고, 서로의 신체를 보호하는 상호의존적 연대를 통해 권력이 통제하려 했던 인프라를 새로운 민주주의적 인프라로 전도했다. 이 과정에서 출현한 집합적 주체는 이데올로기적 집단이 아니라, 서로의 취약성을 매개로 연결되어 권력이 박탈한 애도가능

성의 평등을 스스로 쟁취하는 윤리적 연대체이다. 본고는 백남기 농민의 죽음이라는 비극적 임계점에서 출발하여 꽃 스티커와 촛불로 이어지는 수행적 여정을 공연학적으로 고찰함으로써, 광장의 신체들이 이룩한 저항 미학의 실체를 명징하게 입증할 것이다.

1) 애도가능성의 위계와 신체적 저항의 임계점: 백남기 농민의 죽음을 중심으로

2016-2017년 한국 광장에서 분출된 공연적 저항의 기저에는 국가 권력에 의해 파괴된 신체에 대한 집단적 분노와 애도가 자리 잡고 있다. 그 도화선이 된 사건은 2015년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의 물대포 직사로 쓰러진 뒤 317일 만에 사망한 백남기 농민의 죽음이다. 이 사건은 단순히 공권력의 과잉 진압이라는 물리적 차원을 넘어, 버틀러가 지적한 권력의 인식론적 프레임이 어떻게 특정 생명을 '보호받지 못할 존재'로 분리하고 배제하는지 적나라하게 폭로했다.[35] 국가 권력은 그의 신체가 파괴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인을 '병사'로 명명하거나 '불법 시위자'라는 프레임을 씌움으로써 그를 사회적 애도의 장 밖으로 밀어내려 시도했다.



[그림 2]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백남기 농민

35) 주디스 버틀러, 앞의 책(2023), 1-2쪽.

이러한 권력의 대응은 버틀러가 주장한 '애도가능성의 차등적 배분'이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일 것이다. 애도될 수 있는 삶은 이미 권력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삶인 반면, 애도 불가능한 삶은 인식의 프레임 안에서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로 방치된다.[36] 백남기 농민의 죽음을 둘러싼 사법적 논쟁은 실상을 규명하기 위한 절차라기보다, 그의 삶이 애도될 가치가 있는 '인간적인 삶'의 범주에 속하는가를 가로막는 인식론적 문턱으로 작동했다. 시민들은 이 과정을 지켜보며, 국가가 설정한 애도가능성의 위계로 인해 자신들의 신체 또한 언제든 배제될 수 있다는 실존적 위협을 자각하게 되었다.

이 시점에서 신체의 '취약성'은 고립된 고통을 넘어 연대를 위한 정치적 매개로 전환된다. 모든 신체는 타인의 존재와 인프라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근원적 위태로움을 공유하지만, 국가는 이러한 취약성을 불평등하게 배분하여 특정 집단을 위기 속에 방치한다.[37] 백남기 농민의 신체는 국가가 제공해야 할 최소한의 인프라가 철회된 채 물대포라는 물리적 폭력 앞에 노출되었으며, 이는 광장에 모인 수많은 '취약한 신체'들에게 강렬한 동질감과 저항의 동력을 제공했다.

하지만 2015년 민중총궐기의 현장은 단순히 국가의 일방적 폭력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다. 당시 광장에는 경찰의 차벽을 밧줄로 끌어당겨 부수거나 보도블록을 차벽에 던지는 등 시위대의 물리적 타격 또한 격렬하게 분출되었다. 이러한 맞대응식 폭력은 권력이 설정한 '폭도 프레임'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시위대의 공격성이 국가의 물리적 인프라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표출되자, 국가 권력은 이를 기다렸다는 듯 '법 집행'이라는 명분을 삼아 더 큰 물리력을 정당화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맞물린 폭력의 연쇄는 버틀러가 경고한 '폭력의 도구화'와 '복수의 논리'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이었다. 앞서 언급했듯, 비폭력은 단순히 폭력을

36) 박지원, 앞의 논문, 83쪽.
37) 정대훈, 앞의 논문, 285-286쪽.

참는 것이 아니라,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함으로써 권력의 각본을 마비시키는 기술이다. 2015년의 격렬한 충돌은 시민들에게 중요한 자각을 남겼다. 물리적 타격은 오히려 국가의 폭력 명명권을 강화하고, 저항 주체들의 '애도가능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부메랑이 된다는 사실이었다. 결국 이러한 실패의 경험은 시위 양식이 물리적 충돌에서 미학적·수행적 실천으로 이행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 임계점으로 작동했다.

궁극적으로 백남기 농민 사건은 한국 시위 문화가 '공연적 전환'을 이룰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 배경을 제공한다. 국가가 언어적 발화와 법적 논리를 통해 사인을 왜곡할 때, 시민들은 더 이상 언어에만 의존하지 않고 신체의 '수행적 재명명'을 시도했다. 노란 리본과 국화,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집합적 목소리는 그를 '폭도'가 아닌 '애도되어야 할 시민'으로 인식의 장에 재배치했다. 이는 권력의 프레임을 교란하고 해체하는 '공격적 비폭력'의 초기 양상으로서, 2016-2017년 광장에서 나타날 꽃 스티커와 1분 소등 퍼포먼스와 같은 미학적 실천들이 '생존을 위한 절박한 수행'임을 뒷받침한다.



[그림 3] 민중총궐기에 나타난 폭력과 폭력의 대응구도

2) 방해의 기술과 공격적 비폭력: 꽃 스티커와 소등 퍼포먼스

2016-2017년 광장에서 목격된 미학적 양식들은 단순한 시각적 장식을 넘어, 권력이 설계한 통제 매뉴얼을 마비시키는 고도의 '방해의 기술'로 작동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경찰 차벽에 부착된 꽃 스티커이다. 버틀러에 따르면 공격적 비폭력은 물리적 위해를 가하는 대신, 권력의 인프라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그 논리적 회로를 끊어버리는 수행적 개입이다.[38] 시민들은 차벽을 밧줄로 끌어당기는 물리적 파괴 대신, 차벽이라는 차가운 억압의 기표 위에 꽃이라는 생명과 애도의 기표를 덧씌움으로써 국가의 강제력을 미학적으로 전유(appropriation)했다. 이는 차벽을 진압의 도구가 아닌 저항의 캔버스로 전환하며 공권력이 준비한 '폭도 진압'의 명분을 내부에서부터 붕괴시킨 수행적 타격이었다.

특히 꽃 스티커를 부착하는 행위는 앞서 논의한 '상호의존성'에 기초하여 시민들이 윤리적 연대를 가시화하는 중요한 수행이었다. 차벽은 국가가 시민의 신체를 격리하고 위협하기 위해 설치한 물리적 장치였으나, 시민들은 역설적으로 그 위에 꽃을 붙임으로써 서로의 취약성을 공유하고 보호하는 공간으로 재정립했다. 꽃 스티커는 파편화된 개인들을 '서로의 생존을 담보하는 집합적 신체'로 묶어 세우는 매개체였으며, 이는 권력이 거둬버린 사회적 지지를 시민들이 서로의 신체와 미학적 행위를 통해 자발적으로 재구축하겠다는 선언이었다. 또한, 꽃 스티커의 활용은 버틀러가 강조한 '양가성'의 정치적 승화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차벽을 마주한 시민들의 분노는 물리적 파괴로 분출될 수 있는 충분한 임계점에 도달해 있었다. 그러나 시민들은 그 파괴적 충동을 '꽃을 붙이는 행위'라는 정교한 미학적 형식 안에 가두어 둠으로써, 국가의 폭력의 정당성을 마비시키는 동시에 자신들의 윤리적 우위를 수행적으로 입증해냈다.

38) 주디스 버틀러, 앞의 책(2021), 26쪽.



[그림 4] 차벽에 붙여진 꽃 스티커

꽃 스티커가 물리적 인프라를 점유했다면, 광장의 정적에서 실행된 '1분 소등 퍼포먼스'는 빛과 소리라는 감각적 인프라를 시민들이 집합적으로 통제함으로써 국가의 가시성 프레임을 무력화한 결정적 퍼포먼스였다. 광장의 시민들은 약속된 시간에 일제히 촛불을 끄고 거대한 정적 속에 잠김으로써, 국가가 규정한 통제 대상으로서의 형상을 스스로 지워버린다. 이 1분간의 어둠은 권력이 기대하는 '가시적 충돌'의 각본을 거부하는 '응축된 인내'이자 국가의 통치 그리드가 도달하지 못하는 감각적 공백을 창출해낸 방해의 기술이었다. 특히 이 소등의 순간에 수반되는 '집합적 정적'은 언어적 발화를 멈춘 자리에 '몸들의 현존'을 선명하게 각인시켰다. 수십만 명의 시민이 동시에 숨을 죽이고 어둠 속에 머무는 행위는 고도의 공연적 절제력을 요구한다. 버틀러는 신체가 발화를 멈추고 단순히 머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여기에 존재하며 삶을 지속할 권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수행적으로 입증한다고 보았다.[39]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타인의 숨소리와 옆 사람의 온기는 개별화된 개인들이 서로의 생존을 담보하고

39) 주디스 버틀러, 앞의 책(2020), 15쪽.

있는 상호의존적 실체임을 온몸으로 감각하게 하는 윤리적 사건이 된다.



[그림 5] 9차 촛불집회(12.24) 1분 소등 퍼포먼스

이러한 신체적 연대는 거창한 구호보다 더 직접적이고 타자의 고통에 응답하는 공명을 만들어냈으며, 권력이 거둬버린 사회적 보호 인프라를 시민들이 서로의 몸을 매개로 재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2015년의 현장은 물리적 충돌이 파괴적 에너지로 분출된 무대였다면, 2016-2017년 광장의 소등은 뜨거운 에너지를 '합주된 정지'라는 미학적 형식 안에 가두어 둔 수행적 결단이었다. 이 어둠 속의 몸들은 함께 나타남으로써 자신들의 존재 자체를 권력에 대한 거부의 텍스트로 전환시킨 것이다.[40]

2016-2017년 광장에서 시민들이 분노의 구호를 외치면서도 경찰의 차벽을 부수는 대신 꽃 스티커를 붙이거나 소등 퍼포먼스를 이어간 것은, 파괴적 충동을 연대가 가능한 미학적 형식 안에 가두어 둔 양가적 윤리의 실천이었다. 이러한 행위는 상대방을 물리적으로 타격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이 수행하는 폭력의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마비시키는 효과를 발휘한다. 결국 꽃 스티커와 소등 퍼포먼스는 한국 시위 문화가 도달한 공격적 비폭력의 정수를 보여준다. 이 미학적 양식들은 권력이 설정한 '폭도'라는

40) 정혜욱, 앞의 논문, 15쪽.

인식론적 프레임을 전복시키고, 시민의 신체를 단순한 진압 대상에서 주권적 행위자로 재탄생시킨다. 2015년의 물리적 충돌이 남긴 상흔을 미학적으로 치유하며 등장한 이 연대는 비폭력이 결코 나약한 타협이 아닌, 가장 격렬한 형태의 저항임을 증명한다.

3) 유희적 전복과 집합적 현존: 패러디 그리고 떼창

앞서 언급한 꽃 스티커와 1분 소등 퍼포먼스와 같은 '방해의 기술'은 권력의 매뉴얼을 마비시키는 부정의 미학이었다면, 본 절에서 다룰 패러디와 떼창은 애도와 분노라는 실존적 무게를 견디며 재구성한 '수행적 카니발'로 읽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유희적 발산이 아니라, 내면에 잠재된 파괴적 충동을 연대라는 미학적 형식 안에 가두고 정제함으로써 권력의 프레임을 내부로부터 전복시키는 고도의 수행적 결단이다. 2016-2017년 광장은 기존 시위의 엄숙함과 비장함을 걷어내고, 그 자리에 풍자와 유희를 채워 넣음으로써 권력이 설정한 '폭도' 혹은 '불순세력'이라는 프레임을 원천적으로 무력화했다. 이는 단순히 즐거운 시위를 넘어, 정형화된 저항의 문법을 해체하고 시민 개개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한 채 광장에 '출현'하게 만든 고도의 공연적 전략이었다. 특히 이 시기에 등장한 다양한 '풍자 깃발'들은 집합적 주체가 단일한 이데올리적 집단이 아님을 보여주는 수행적 기표였다. '민주묘총', '장수풍뎅이 연구회', '범야권 힙합 연합' 등 정치적 맥락과는 무관해 보이는 사소하고 유머러스한 조직들의 깃발은 광장이 거대 담론의 장이 아니라 개별적인 삶들이 교차하는 다성적 공간임을 드러낸다. 버틀러는 집합적 주체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통일된 신체가 아니라, 서로 다른 신체들이 각자의 차이를 유지하며 나란히 서는 '복수성'의 실현이라고 보았다.[41] 이러한 패러디 깃발들은 저항의 주체를 투사에서 생활인으로 전환하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낮은 문턱의 미학적 연대를 형성했다.

41) 주디스 버틀러, 앞의 책(2020), 156쪽.



그림 6. 광장 집회에 참가한 다양한 깃발

광장에서 발아한 이러한 유희적 수행성은 거대 담론에 매몰되지 않는 새로운 시민 주체의 탄생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2016-2017년의 광장 깃발들이 보여준 연대는, 저항의 주체가 더 이상 단일한 '민중'이라는 추상적 집단으로 환원되지 않음을 증명했다. 이는 버틀러가 강조한 복수적 현존이 시민 개개인의 고유한 삶의 양식 및 취향과 결합하여, 각자의 차이를 유지한 채로도 강력한 정치적 합주를 이루어낼 수 있음을 실증하는 사례였다. 시민들은 권력이 규정한 순응적인 국민이라는 틀에 갇히기를 거부하고, 스스로를 '유희하는 주권자'로 재명명하며 광장의 문법을 주도해 나갔다. 이 시기 축적된 초개인화된 기표들과 신체의 수행적 에너지는 일회적 사건으로 휘발되지 않으며, 향후 한국 사회에서 위기 상황이 도래할 때마다 더욱 분화되고 고도화된 양상으로 재소환될 수 있는 미학적 유산이자 진화의 단초로 자리 잡는다.

시위 물품의 변화 또한 주목해야 할 공연적 요소이다. 과거의 화염병이나 쇠파이프가 적을 타격하기 위한 도구였다면, 2016-2017년의 LED 촛불, 풍자 전단지, 각종 코스튬은 자신의 현존을 알리고 권력의 우스꽝스러움을 폭로하는 '수행적 오브제'로 기능했다. 특히 청와대를 향해 닭 모양

의 풍선을 띄우거나, 대통령의 발언을 패러디한 가면을 쓰는 행위는, 권력의 권위를 미학적으로 끌어내리는 카니발적 전복의 전형이었다. 바흐친(Mikhail Bakhtin, 1895~1975)이 논한 카니발적 세계관처럼, 광장의 시민들은 웃음을 통해 공포를 극복하고 권력과의 위계적 거리를 소멸시킴으로써 스스로가 주권자임을 감각적으로 체험했다. 이러한 감각적 체험의 핵심은 권력이 부여한 엄숙한 기표들을 비하하고 희화화하는 '낮추기의 미학'에 있다. 바흐친에 따르면 카니발은 일상의 모든 금기와 위계가 중단되는 해방의 시공간이며, 여기서 동원되는 풍자와 패러디는 단순히 조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낡은 질서의 사멸과 새로운 생명력을 잉태하는 생산적인 파괴 행위이다.[42] 시민들이 광장에 들고나온 수행적 오브제들은 절대 침범할 수 없을 것 같았던 통치자의 권위를 광장의 '비천한 것(the low)'의 영역으로 끌어내림으로써 권력의 공포를 웃음의 소재로 전복시켰다.

특히 이러한 수행적 오브제들은 시민의 신체와 결합하여 '그로테스크한 리얼리즘'의 양상을 띤다. 2015년 시위에서 신체가 물대포에 의해 파괴되는 수동적 대상이었다면, 2016-2017년의 광장에서 시민들은 패러디한 오브제를 자신의 신체에 부착하거나 조종함으로써 스스로를 풍자적 행위자로 재정의했다. 이는 권력이 규정한 정상적인 신체와 순응하는 시민이라는 틀을 깨트리는 미학적 반란이다. 오브제를 매개로 한 이러한 유희적 신체성은 버틀러의 '집합적 현존'에 시각적인 역동성을 부여하며, 광장에 모인 신체들은 단순히 숫자로 카운트되는 대상이 아니라 각각의 창의적 에너지를 가진 '복수적 주체'임을 증명했다. 이러한 카니발적 전복은 권력의 언어가 마비된 자리에 시민들의 생명력 넘치는 몸의 언어를 채워 넣는 결정적 과정이었다.

42) Mikhail Bakhtin, *Rabelais and His world*, Cambridge, MA: MIT Press, 1984, pp.19-21.



[그림 7] 패러디 가면을 쓴 '집합적 주체'

유희적 전복의 정점은 수만 명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이는 '떼창'에서 발견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하야가》와 같은 노래들은 단순한 음악적 행위를 넘어, 광장에 모인 수많은 신체를 하나의 리듬으로 동기화하는 수행적 장치였다. 떼창은 개별 신체들의 물리적 한계를 넘어 광장 전체를 거대한 '공명하는 신체'로 확장시킨다. 버틀러가 말한 '집합적 현존'은 여기서 극대화되는데, 노래하는 몸들은 서로의 목소리에 기대어 자신의 존재를 확장하고 그 공명 속에서 고립된 개인이 아닌 강력한 '우리'라는 연대를 경험하게 된다. 특히, 떼창은 2015년의 거친 구호가 가졌던 배타적 성격을 지우고, 남녀노소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노래라는 형식을 빌린 정치적 발화는 듣는 이의 방어기제를 해체시키며, 광장의 요구가 보편적 상식에 기반하고 있음을 수행적으로 설득해냈다. 이는 소리가 지닌 물리적 파동이 공간의 성격을 규정하고, 그 안에 속한 모든 신체를 저항의 흐름 속으로 끌어들이는 강력한 공연적 힘이었다.

나아가 이러한 유희와 떼창의 결합은 광장을 일시적인 시위 장소가 아닌, '살 만한 삶'을 리허설하는 공간으로 재구성했다. 시민들이 광장에서

춤추고 노래하며, 권력이 보장하지 않는 안전과 즐거움을 스스로의 연대를 통해 구축해 나갔다. 이는 미래의 민주주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민주주의적 주체로서 삶을 공연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집합적 행위는 기존의 법적·정치적 체계가 부여한 신분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민적 정체성을 획득하는 수행적 도약의 순간이었다.[43]

결국 본 절에서 고찰한 패러디와 떼창은 한국 시위 문화가 '고통의 연대'를 넘어 '기쁨의 연대'로 진화했음을 입증한다. 백남기 농민의 죽음이라는 비극적 출발점에서부터 꽃 스티커와 소등이라는 방해의 기술을 거쳐, 마침내 유희적 전복이라는 주체적 발현으로 완성되었다. 시민의 신체는 파괴된 대상에서, 방해하는 매체로, 그리고 마침내 창조하는 주체로 이행되었다. 이러한 미학적 양식의 축적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단순한 제도적 변화를 넘어, 신체와 감각의 차원에서 어떻게 공연으로 전환되었는지 보여주는 핵심적 사례이다.

2016-2017년 한국 광장에서 목격된 신체들의 연대는 아렌트적 공간을 넘어, 버틀러가 주장한 '신체의 매개'와 '리미널리티의 전복성'이 결합된 현장이었다. 시민들이 차벽이라는 물리적 한계 안에서 오히려 신체의 연결을 극대화했고, 이를 통해 광장을 일상적 공간에서 주체성을 입증하는 거대한 수행적 텍스트로 탈바꿈시켰다. 이러한 공간의 재구성은 비폭력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신체의 배치를 바꾸고 인식을 탈바꿈하는 물리적 투쟁임을 증명한다. 본 연구가 주목하는 미학적 양식들은 시위의 부차적인 장식이 아니라, 저항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재명명하고 권력의 프레임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실천적 행위이다. 시민들은 광장에서 스스로 배우가 되고, 연출가가 되며, 관객이 됨으로써 권력이 독점했던 공적 무대를 탈환했다. 이러한 공연적 전환은 비폭력이 지닌 창조적 역동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며, 향후 한국 사회의 다양한 갈등 구조 속에서 신체가 어떻게 미학적 저항의 중심축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시사한다.

43) 정혜옥, 앞의 논문, 18쪽.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015년 민중총궐기의 비극적 임계점에서 출발하여 2016-2017년 탄핵 시위로 이어지는 한국 광장의 저항 양상을 '공연적 전환'이라는 미학적 패러다임으로 규명하였다. 필자는 주디스 버틀러의 비폭력과 수행성 그리고 애도가능성 이론을 분석의 축으로 삼아 권력에 의해 파괴되고 배제되었던 신체들이 어떻게 광장이라는 '출현의 공간'을 탈환하며 스스로 주권적 주체로 재명명해왔는지 고찰하였다. 2015년 물대포에 직격당한 신체의 노출은 '애도가능성'에 대한 근원적 질문을 던졌으며, 이는 2016년 이후 꽃 스티커, 1분 소등 퍼포먼스, 카니발적 전복이라는 고도의 미학적 양식으로 발전했다. 이러한 수행적 이행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단순한 정치적 구호를 넘어, 신체의 배열을 바꾸고 감각의 지평을 확장하는 '공연적 사건'을 통해 실천되고 있음을 실증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첫째, 2015년 백남기 농민의 죽음은 국가 권력이 특정 생명을 '애도 불가능한 존재'로 프레임화하여 인식의 장 밖으로 밀어내려 했던 생명정치적 폭력의 정점이었다. 당시의 격렬한 물리적 충돌은 권력이 설계한 '폭도 프레임'에 휘말리는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으나, 이러한 시행착오는 저항의 에너지가 파괴가 아닌 공격적 비폭력이라는 수행적 전술로 선회하게 만든 결정적 변곡점이 되었다. 둘째, 2016년 광장의 '방해의 기술'은 권력의 통치 인프라를 미학적으로 전유함으로써 비폭력이 지닌 강력한 수행적 완력을 증명해냈다. 차벽이라는 억압의 기표 위에 부착된 꽃 스티커는 물리적 장벽을 연대의 캔버스로 전도시켰고, 1분 소등 퍼포먼스는 어둠을 통해 자발적 사회지지 체계를 구축한 행위들은 윤리적 연대의 극치였다. 셋째, 유희적 전복과 떼창의 미학은 광장을 고통의 장소에서 '기쁨의 연대'가 일어나는 복수적 정치성의 현장으로 탈바꿈시켰다. 2016-2017년이 집합적 연대의 가능성을 확인한 무대였다면, 2025년은 개별적 삶의 양식을 유지하면서도 강력한 정치적 합주를 만들어내는 고도화된 유희하는 주권자들의 공연장이었다.

본 연구는 한국의 비폭력 시위를 단순한 정치적 수단이 아닌, 신체의 취약성이 저항의 무기가 되는 '수행적 힘'의 발현 과정으로 재정의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지닌다. 광장의 시민들은 스스로 배우, 연출가, 관객이 되어 권력이 독점했던 정치를 무대화하고 재구성했다. 이러한 공연적 전환은 시민의 신체에 저항의 근육과 감각적 기억으로 각인되어, 어떠한 권력적 억압 앞에서도 주체적으로 발현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민주주의적 동력을 제공한다.

다만, 본 연구는 광장의 미학적 양식들이 지닌 수행적 가치와 경험에 집중함으로써, 공연적 에너지가 실제 제도적 정치 변화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역학 관계를 면밀히 추적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광장의 뜨거운 합창과 유희가 일상의 법적·정치적 체계 내로 수렴될 때 마주하는 현실적인 벽, 그리고 시위의 공연화가 자칫 정치적 엄숙함을 희석하거나 일회적 이벤트로 휘발될 수 있다는 비판적 지점은 본고가 해결하지 못한 과제로 남는다. 또한 신체의 현존을 강조하는 버틀러의 이론적 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광장에 나오지 못하는 가상 공간 속 '디지털 신체'들의 수행성을 오프라인의 수행성과 동일한 층위에서 비교·분석하지 못한 점 역시 본 연구가 남긴 숙제일 것이다.

이에 필자는 2025년 광장에서 발현된 하이브리드적 수행성의 정점을 추적할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특히 MZ 세대를 포함한 다층적 세대가 각자의 덕질 문화나 파편화된 개인의 정체성을 저항의 언어로 거침없이 치환해내는 과정은 한국 시위 문화가 동질적 집단주의에서 이질적 개인들의 연대로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귀중한 데이터가 될 것이다. 이러한 연속성과 변이 과정을 추적하는 일은 한국 시위의 공연성이 지닌 미래적 가치를 확보하는 중요한 과업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주디스 버틀러 저, 김정아 역, 『비폭력의 힘』, 문학동네, 2021.

주디스 버틀러 저, 김응산·양효실 역, 『연대하는 신체들과 거리의 정치』, 창비, 2020.

주디스 버틀러 저, 조현준 역, 『젠더 트러블』, 문학동네, 2024.

주디스 버틀러 저, 한정라 역, 『전쟁의 프레임들: 삶의 평등한 애도가능성을 향하여』, 한울아카데미, 2023.

주디스 버틀러 저, 김응산 역, 『지금은 대체 어떤 세계인가』, 창비, 2023.

Bakhtin, Mikhail. *Rabelais and His World,* Cambridge, MA: MIT Press, 1984.

Chan, Joseph M, *Media and Protest Logics in the Digital Era: The Umbrella Movement in Hong Kong,* London &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논문

김성재, 「오락 커뮤니케이션: '촛불혁명', 분노에서 유희로」, 『현대유럽철학연구』 제50호, 한국하이데거학회, 2018, 167-205쪽.

박준영, 「시민참여형 광장정치의 정착과 은닉대본 저항 경관 -2024-2025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구 집회를 중심으로-」, 『공간과 사회』 제35권 제4호, 한국공간환경학회, 2025, 212-241쪽.

박지원, 「비폭력 교육을 위한 시론: 주디스 버틀러의 『비폭력의 힘』을 중심으로」, 『교육철학연구』 제45권 제4호, 한국교육철학학회, 2023, 83-108쪽.

박희봉·이기중·김명준, 「퍼포먼스 이론에서 바라본 '2008 촛불집회'의 과정과 파급효과」, 『한국정책연구』 제9권 제2호, 경인행정학회, 2009, 93-114쪽.

안선희, 「예배와 촛불집회의 의례·퍼포먼스적 성격에 관한 고찰」, 『신학과 실천』 제58호, 한국실천신학회, 2018, 37-64쪽.

윤조원, 「"살 만한 삶"을 향해: 『젠더트러블』에서 『비폭력의 힘』 까지」,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제40권 제4호, 순천향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21, 5-37쪽.

정대훈, 「거리의 정치와 고공농성: 주디스 버틀러의 '신체의 매개'와 '미디어의 매개' 개념을 통한 고찰」, 『철학연구』 제175호, 대한철학회, 2025, 279-308쪽.

정혜옥, 「집합적 주체와 몸들의 연대: 주디스 버틀러와 더불어 집회를 생각하기」, 『비평과이론』 제23권 제1호, 한국비평이론학회, 2018, 7-36쪽.

주현식, 「촛불집회, 블랙텐트, 그리고 사회적 퍼포먼스」, 『한국연극학』 제1권 제66호, 한국연극학회, 2018, 183-221쪽.

주현식, 「정동(Affect)의 극장으로서 소셜 미디어」, 『드라마연구』 제60호, 한국드라마학회, 2020, 211-237쪽.

최종렬, 「사회적 공연으로서의 2008 촛불집회」, 『한국학논집』 제42호,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08, 227-270쪽.

Kim, Nan. "Candlelight and the Yellow Ribbon: Catalyzing Re-Democratization in South Korea", The Asia-Pacific Journal: Japan Focus 15, no. 14, 2017.

기타 자료

김정훈, "'주말 100만 촛불집회' 외신 반응 봤더니", <한국경제신문>, 2016.11.14.

심진용·이준영, "NYT "한국의 젊은 민주주의가 진화했다"", <경향신문>, 2017.03.10.

최상훈, "South Korea Removes President Par Geun-hye", <New York Times>, 2017.3.10.

Judith Butler, 「Susceptibility and Solidarity」, 제3회 호세 에스테반 무뇨스 기념 강연, 뉴욕대학교(NYU), 2017.9.14.

Stephen Evans, "Seoul protest targets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BBC>, 2016.11.12.

국문초록

본 연구는 2015-2017년 한국 광장 시위의 전개 과정을 기존 사회운동론적 시각에서 탈피하여 공연학적 관점에서 고찰한다. 특히 신체와 감각의 상호작용이 중심이 되는 '공연적 사건'에 주목하여 한국 시위 문화가 이룩한 '공연적 전환'을 이론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 시위의 질적 전환은 2015년 11·14 민중총궐기 당시 물대포에 노출된 신체의 취약성을 계기로 본격화되었다. 이 사건은 국가 폭력의 메커니즘과 '애도가능성(Grievability)'의 박탈 양상을 공론화하며, 2016-2017년 탄핵 촛불집회로 이어지는 수행적 변곡점으로 작용하였다. 연대하는 신체들은 국가의 물리적 통제 그리드를 무력화하는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비폭력 저항 형식을 공유하였다. 이에 본 논문은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의 비폭력 및 수행성 담론을 바탕으로 광장에서 나타난 세 가지 핵심 '미학적 양식'을 공연학적으로 분석한다. 첫째, 물대포에 직격당한 신체의 취약성이 지닌 저항적 현존을 고찰하고, 둘째, 경찰 차벽을 꽃 스티커와 분향소라는 시·촉각적 기표로 치환하여 공간을 전복시키는 메커니즘을 규명하며, 셋째, 최종집회에서 구현된 집단 합창과 촛불 소등 행위의 집합적 수행성을 고찰한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한국의 비폭력 시위가 신체의 수행성을 동력으로 삼아 국가 권력의 일방적 통제를 미학적으로 무력화했음을 실증함으로써, 공연학적 지평에서 비폭력 저항 담론의 외연을 확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주제어 ● 주디스 버틀러, 시위 문화, 공연적 전환, 비폭력 저항, 신체의 수행성

Abstract

The Performative Turn in Korean Protests: A Perspective from Judith Butler's Theory
: Focusing on the Aesthetic Forms Observed in the 2015–2017 Public Square Protests

Shin, Kwang Min / DongGuk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development of public square protests in South Korea from 2015 to 2017, moving beyond existing perspectives on social movements to adopt a performative perspective. In particular, it focuses on "performative events" centered on the interaction between the body and the senses, with the aim of theorizing the "performative shift" achieved by South Korean protest culture. The qualitative shift in Korean protests began in earnest following the vulnerability of bodies exposed to water cannons during the November 14, 2015, People's Uprising. This incident brought to public attention the mechanisms of state violence and the deprivation of "grievability," serving as a performative inflection point that led to the 2016–2017 candlelight rallies for impeachment. In the process of neutralizing the state's grid of physical control, bodies in solidarity spontaneously shared forms of nonviolent resistance. Accordingly, this paper performs a performative analysis of three key "aesthetic forms" that emerged in the public square, drawing on Judith Butler's discourses on nonviolence and performativity. First, it examines the resistant presence inherent in the vulnerability of bodies directly struck by water cannons; second, it identifies the mechanism by which space is subverted through the replacement of police barricades with poetic and tactile signifiers such as flower stickers and memorial altars; and third, it examines the collective performativity of the mass choir and the act of extinguishing candles, as

manifested in the final rally. Consequently, by demonstrating that South Korea's nonviolent protests utilized the performativity of the body to aesthetically neutralize the unilateral control of state power,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expanding the scope of nonviolent resistance discourse from a performative perspective.

Keyword ● Judith Butler, protest culture, performative turn, nonviolent resistance, performativity of the body

▌논문투고일:2026.05.31. ▌심사완료일:2026.07.07. ▌게재확정일:2026.07.14. ▌

https://doi.org/10.54698/kl.2026.21.777
지식과 교양, 제21호,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Knowledge and Liberal Arts, Vol. 21, LIC, pp.777-806.

롤랑 바르트의 게노-송 개념으로 본 한국 대중음악 보컬 유형론

: 트로트와 발라드의 후렴 창법 분석을 중심으로*

오 한 승 · 서 빛 나 래**

목 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트로트 : 피에노적 기교 위에서의 게노-송
4. 발라드 : 게노-송의 노출 또는 가려짐
5. 결론

1. 서론

어떤 목소리는 의미를 전달하기 이전에 먼저 몸에 닿는다. 어떤 가수가 클라이맥스에서 소리를 토해낼 때, 혹은 낮고 거친 숨결로 노래할 때, 청자의 신체는 의미를 파악하기 이전에 먼저 반응한다. 이 현상은 무엇인가. 그리고 왜 기술적으로 완벽한 목소리가 아름답기는 하지만 때론 덜 감동적인가.

이 질문은 한국 대중음악 보컬 연구에서 오랫동안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은 공백을 가리킨다. 음악학적 접근은 특정 보컬 테크닉 기법들을 기술

* "본고는 선행연구 검토 과정에서 문헌 조사 및 문장 교정을 위해 생성형 AI(ChatGPT, Perplexity를 보조적으로 활용하였으며, 모든 내용은 저자가 검토·검증하였다."

** 오한승(제1저자,교신저자)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보컬과 부교수
서빛나래(공동저자)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보컬과 조교수

(記述)하는 데는 객관적이기는 하지만, 그 기법들이 왜 특정 순간에 청자의 신체를 공진(共振)시키는지는 설명하지 못한다. 사회문화적 접근은 대중음악을 시대적 맥락의 반영으로읽는 데는 유효하지만, 목소리 자체의 물질성—신체가 소리에 남기는 고유한 흔적—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그동안의 음향학적 접근은 클래식 성악 분야에서 가수 포먼트(Singer's Formant)[1]의 발견과 정량화를 이루어 냈으나, 현대 대중음악에서는 발성적으로 훈련받지 않은 가수들이 워낙 많아 가수 포먼트를 장르 보편적으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다시 말해 클래식 발성을 위해 수행되어 온 음향학적 도구를 트로트·발라드 같은 대중음악 장르에 폭넓게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

본 연구는 이런 방법론 적용의 어려움과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롤랑 바르트의 '목소리의 결(The Grain of the Voice)' 개념을 분석의 중심 도구로 채택한다. 동시에 한국 대중음악 보컬의 다양성을 게노-송의 관점에서 유형화하는 새로운 분석 틀을 제안한다. 바르트의 결 개념은 서양 음악학과 문화 연구에서 활발하게 활용되어왔지만, 한국 대중음악 보컬 분석에 적용된 사례는 아직 없다. 본 연구는 바르트의 피셔-디스카우/팡제라 대비 구조를 한국 대중음악에 적용하는 최초의 시도로서, 그 대비가 한국 대중음악 보컬에서 어떻게 유형화될 수 있는지를 고찰하고 분석한다.

바르트는 1972년 발표한 「목소리의 결」에서[2] 바리톤(Baritone)음역의 두 남자 성악가를 대비시킨다. 디트리히 피셔-디스카우(Dietrich Fischer-Dieskau, 1925~2012)는 기술적으로 완벽하고 표현이 풍부하다. 그러나 바르트는 그의 목소리에서 결을 듣지 못한다. 반면 샤를 팡제라(Charles Panzéra, 1896~1976)의 목소리에는 기술적 완벽함을 넘어서

1) 가수 포먼트는 클래식 오페라 가수의 유성음에서 발견되는 3kHz 부근의 두드러진 스펙트럼 봉우리로, 주로 3, 4, 5번 포먼트가 군집하면서 발생하는 공명 현상이다. 이것은 순더베리(Johan Sundberg) 등이 정립한 핵심 음향학적 발견으로, 클래식 성악 훈련의 음향학적 근거를 제공한다.

2) Barthes, R., "The grain of the voice", Image-music-text, Trans. S. Heath, New York: Hill and Wang, 1977, pp.179-189.

는 무언가—혀가 구개에 닿는 방식, 자음이 공기와 마찰하는 질감—가 있다.[3)]

이 대비는 한국 대중음악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된다. 어떤 가수들의 목소리는 일반적으로 감미로움이나 '달달함' 등으로 대표되듯이 톤과 음색이 매우 기술적으로 정제되고 절제되어 있다. 한편 어떤 가수가 후렴 또는 클라이맥스에서 소리를 토해낼 때, 혹은 거칠고 불균질한 음색으로 노래할 때, 그 목소리에는 기술적 완성도로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 바르트가 팡제라에게서 들었던 것, 즉 결이다. 이 '목소리의 결'의 측면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핵심 질문으로 제시해 볼 수 있다. 첫째, 바르트의 피셔-디스카우/팡제라 대비는 한국 대중음악 보컬에서 어떻게 재현되는가. 둘째, 한국 대중음악 보컬은 게노-송의 발현 방식에 따라 어떻게 유형화될 수 있는가.

이를 위한 본 연구의 분석 방법론은 '현상학적 청취(phenomenological listening)'라고 할 수 있다.[4)] 이는 분석 대상 가수들의 보컬을 전반적으로 반복 청취하면서 각 가수의 음성적 '경향성'—음색의 특성, 발성 방식, 기교의 패턴, 감정적 밀도가 높은 구간에서의 변화—을 기술하고, 그 기술을 바르트의 이론적 틀과 대화시키는 방법이다. 여기서 대중가요 보컬의 음성적 사건을 분석하는 데 스펙트로그램[5)]이나 포먼트 측정 같은 음향학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방법론적 선택은 분석 대상의 본질에 대한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스펙트로그램은 주파수·진폭·시간의 관계를 정밀하게 시각화한다. 그것은 소리에

3) Ibid., pp.181-182. 바르트는 피셔-디스카우에 대해 '그의 예술은 완벽하지만 어디에도 결은 없다'고 평하는 반면, 팡제라에 대해서는 '그의 목소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무언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쓴다.

4) Frith, S., *Performing rites: On the value of popular music*,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96, pp.183-202. 프리스는 대중음악 보컬에서 진정성(authenticity)의 문제를 논하며, 진정성 있는 목소리란 신체의 흔적이 살아있는 목소리임을 시사한다. 이는 본 연구의 게노-송 개념과 정확히 조응한다.

5) 스펙트로그램(Spectrogram)은 소리나 파동을 시각화하여 파악하기 위한 도구로, 파형(waveform)과 스펙트럼(spectrum)의 특징이 조합되어 있다.

서 무엇이 '발생했는가'를 객관적으로 기록하는 도구이다. 그러나 본 연구가 묻는 질문은 그것과 다르다. 본 연구는 그 음성적 사건이 어떻게 청자의 신체에 도달하여 판단 이전의 반응을 일으키는가를 묻는다.[6] 이것은 음향학적 사실의 차원이 아니라 수용과 체현(embodiment)의 차원이다.

이 구분은 바르트 자신의 방법론적 선택과 일치한다. 바르트는「목소리의 결」전체에서 단 한 번도 음향학적 측정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는 결을 '언어학이나 정보 이론, 혹은 신호 이론의 범주들로는 설명될 수 없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정의한다.[7] 이것은 자의적인 회피가 아니라, 결이라는 대상의 정의 자체가 요청하는 방법론이다. 결은 정량화되는 순간 신체적 사건으로서의 성격을 상실한다. 이 입장은 음악현상학(phenomenology of music) 전통에서 이미 정립된 것이다.[8][9] 페라라와 클리프턴은 음악 분석에서 현상학적 기술이 악보 분석이나 음향 측정과 다른 차원—음악이 의식에 주어지는 방식 그 자체—을 다룬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현상학적 방법이 음향학적 분석을 부정하거나 그것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10] 두 방법은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하며, 어느 한쪽이 다른 쪽보다 더 '엄밀하다'고 말할 수 없다. 음향학적 엄밀성과 현상학

6) Ibid., pp.183-202. 프리스는 대중음악의 '진정성' 경험이 음향학적으로 측정 가능한 속성으로 환원되지 않으며, 청취 주체의 신체적·문화적 위치에서 발생하는 수용의 사건임을 강조한다.

7) Barthes, op. cit., p179. 바르트는 결을 '언어학적 범주들로 설명될 수 없는 것'으로 정의하며, 이는 음향학적 환원에 대한 명시적 거부를 함축한다.

8) Ferrara, L., "Phenomenology as a tool for musical analysis", *The Musical Quarterly*, Vol. 70, No. 3,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4, pp.355-373.

9) Clifton, T., *Music as heard: A study in applied phenomenology*, CT: Yale University Press, 1983. 클리프턴은 음악 현상학이 '음악이 의식에 주어지는 방식'을 기술하는 작업이며, 이는 음향학적 측정과 상호 배타적이지 않으나 별개의 질문에 답하는 것임을 명확히 한다.

10) 후설의 현상학적 환원(에포케)은 자연과학적 설명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설명이 전제하는 자연적 태도를 일시적으로 괄호 안에 넣고 경험이 의식에 직접 주어지는 방식을 우선적으로 기술하려는 시도이다. 이런 의미에서 현상학적 방법은 음향학적 분석과 양립 가능하지만 그것에 선행하거나 그것과 무관하게 수행될 수 있다.

적 엄밀성은 그 적용 대상과 목적이 다른 별개의 기준이다.

따라서 본 연구가 음향학적 분석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음성적 사건을 측정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 아니라, 측정 가능한 것과 본 연구가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 다른 차원에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방법론적 선택이 분석의 객관성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현상학적 청취는 연구자의 청취 경험에 의존하는 만큼 검증 가능성의 측면에서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수용미학적 측면에서 연구자의 청취경험이 일반 대중의 청취경험으로 환원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한편 본 연구가 분석 대상으로 태진아·나훈아(유형 1), 김현식·전인권(유형 2), 나얼·성시경(유형 3)을 선정한 것은 임의적 선택이 아니라 다음 세 가지 기준에 근거한다.

첫째, 유형적 대표성이다. 각 가수는 해당 유형이 보여주는 음성적 특성의 전형으로 기존 음악 비평과 대중음악사 서술에서 이미 광범위하게 인정받고 있다. 본 연구가 이들을 특정 유형의 사례로 '지정'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비평적 합의가 이미 가리키고 있는 위치를 바르트의 이론으로 재해석한 것이다.

둘째, 문화적 가시성과 영향력이다. 여섯 가수 모두 한국 대중음악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작품 한두 편에 그치지 않으며, 수상 경력·활동 기간·후대에 대한 영향력·현재까지의 대중적 인지도에서 충분한 검증을 거쳤다. 이는 본 연구의 분석이 특이하거나 주변적인 사례가 아니라 한국 대중음악 보컬의 주류적 경향을 다루고 있음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이다.

셋째, 비교 가능성이다. 각 유형에 두 명씩 배치하여 유형 내부의 비교(예: 동일 유형 안에서 결이 드러나는 방식의 차이)와 유형 간의 비교(예: 유형 1과 유형 2의 구조적 대비)가 모두 가능하도록 분석 대상의 수와 균형을 설계하였다. 이는 단일 사례 분석이 안고 있는 일반화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법론적 장치이다.

또한 각 가수에 대한 분석 대상 곡 또한 각 가수의 대표적 히트곡들로 선

정하고 분석 구간도 대중들이 가장 익숙하게 기억하고 있는 1절 후렴부를 분석 구간으로 삼았다.

2. 이론적 배경

롤랑 바르트가 1972년 발표한「목소리의 결」은 하나의 비교로부터 시작된다. 바르트는 피셔-디스카우와 샤를 팡제라, 두 성악가를 대비시킨다. 이 대비는 단순한 취향의 차이가 아니라 목소리를 듣는 방식 자체의 근본적인 차이를 드러낸다.

피셔-디스카우는 기술적으로 완벽하다. 그의 음정은 정확하고, 음색은 균질하며, 표현은 풍부하다. 슈베르트의 가곡을 부를 때 그는 가사의 감정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음악적 구조를 완벽하게 구현한다.[11] 청자는 그의 음악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한다. 그러나 바르트는 그의 목소리에서 어떤 결핍을 느낀다. 그것은 기술적 결함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피셔-디스카우의 음악은 너무 완벽하게 의미를 전달하기 때문에, 의미 이전에 신체가 반응하는 무언가가 들리지 않는다. 반면 팡제라의 목소리에는 어떤 '과잉'이 있다. 그것은 기술이나 표현을 넘어서는 무언가이다.[12] 혀가 구개에 닿는 방식, 자음이 공기와 마찰하는 질감, 음절이 끝날 때 성대가 남기는 흔적. 이것들은 음악적 표현의 범주에서 설명되지 않는다. 그것들은 단순히 신체가 소리에 남기는 흔적이다. 바르트는 이것을 '결(grain)'이라 부른다.

> "목소리의 결이란 목소리가 신체와 언어 사이에서, 그리고 그 이면에서 무언가를 노래할 때 그 목소리 안에 있는 신체이다. 그것은

11) YouTube, Dietrich Fischer Dieskau, 'Ständchen' Schubert, https://www.youtube.com/watch?v=5CXCvB90g08&list=RD5CXCvB90g08&start_radio=1, 2026.05.20.

12) 팡제라의 1923년도 음반인 "Clair de Lune"을 들어보면 어떤 한(恨)의 정서도 느껴지며 전형적이지 않은 크로스오버 장르의 느낌도 목소리에서 드러난다. YouTube, Panzera sings Faure Clair de Lune, https://www.youtube.com/watch?v=l7ZtPh_gF2E&list=RDl7ZtPh_gF2E&start_radio=1, 2026.05.20.

두 생산—언어의 생산과 음악의 생산—이 하나의 동일한 기호화 실천에 의해 완성되는 지점이다."[13]

1) 게노-송과 피에노-송: 두 층위의 구조

바르트는 이 대비를 이론화하기 위해 줄리아 크리스테바(Julia Kristeva)의 개념을 차용하여[14] 음악적 수행을 두 층위로 구분했는데, '피에노-송(pheno-song)'과 '게노-송(geno-song)'이다.[15]

피에노-송은 문화적으로 코드화된 음악성의 층위이다. 언어의 구조, 장르의 관용어, 기술적 완성도, 수행의 스타일이 이 층위에서 작동한다. 피에노-송은 '올바른 소리'의 기준이다. 음정의 정확성, 음색의 균질성, 호흡의 안정성, 발음의 명료성이 피에노-송의 평가 기준이다. 이 기준들은 문화적으로 구성된 것이며, 장르와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 트로트의 피에노적 기준과 발라드의 피에노적 기준은 다르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완성도'라는 피에노적 가치를 중심으로 보컬을 평가한다.

게노-송은 이 피에노적 평가 기준 밖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것은 목소리가 공연되는 신체의 공간, 기호들의 물질성이 작동하는 층위이다. 게노-송은 의미를 전달하지 않는다. 그것은 의미 이전에 신체에 도달한다. 청자가 '좋다'고 판단하기 이전에 이미 신체가 반응하는 무언가, 그것이 게노-송이다. 그리고 그 게노-송이 바로 '결'이다. 게노-송은 피에노-송의 부재에

13) Barthes, op. cit., p.188.

14) 크리스테바의 게노-텍스트/피에노-텍스트 구분은 『세메이오티케(Séméiôtiké, 1969)』에서 언어 생산의 두 층위를 구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바르트는 이 구분을 음악적 수행의 분석에 전용하면서 게노를 '신체의 충동이 소리에 남기는 물질적 흔적'의 층위로, 피에노를 '문화적으로 코드화된 음악성'의 층위로 재정의한다.

15) 그리스어 어원으로 보면 **geno(γένο)**는 '생성·기원·발생'을 뜻하고, **pheno(φαίνο)**는 '드러남·현상·표면'을 뜻한다. 그러니 게노-송은 '발생하는 노래', 피에노-송은 '드러나는 노래' 정도로 번역될 수 있다. 한편 '송(song)'은 영어 단어 그대로 노래를 뜻하는데, 바르트가 줄리아 크리스테바의 '게노-텍스트(geno-text) / 피에노-텍스트(pheno-text)' 구분을 음악 분석에 적용하면서, 텍스트(text) 자리에 송(song)을 넣어 조어한 것이다.

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훈련받지 않은 아마추어의 목소리에 자동적으로 게노-송이 있는 것이 아니다. 바르트가 팡제라에게서 결을 들었을 때, 팡제라는 높은 수준의 훈련을 받은 성악가였다. 중요한 것은 그의 피에노-송이 신체의 흔적을 완전히 덮어버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게노-송은 피에노-송과 공존하거나, 피에노-송을 뚫고 나오는 방식으로 발생한다.

이 논점은 한국 대중음악 보컬 분석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트로트의 꺾기와 요성[16]은 훈련된 기교이다. 그것은 트로트라는 장르의 피에노적 규범이다. 트로트답게 들리기 위해서는 꺾기와 요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태진아와 나훈아가 클라이맥스에서 감정의 무게를 담아 소리를 토해낼 때, 피에노적 기교를 뚫고 게노-송이 터져 나온다. 트로트 보컬에서 게노-송은 피에노적 기교의 바깥이 아니라, 그 기교를 넘어서는 순간에 발생한다.

2) 주이상스: 결이 발생시키는 쾌락의 성격

바르트의 결 개념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위치한 더 넓은 이론적 맥락을 함께 파악해야 한다. 바르트는 『텍스트의 즐거움(Le Plaisir du texte, 1973)』에서[17] '즐거움(plaisir)'과 '주이상스(jouissance)'를 구분한다.

'즐거움'은 문화적으로 코드화된 안락한 경험이다. 청자는 기대를 충족받고 만족한다. 보컬이 음악의 흐름에 맞게 기대하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기술이 예상대로 구사될 때 즐거움이 발생한다. 피에노-송의 완성도가 높을수록, 즉 음악적 기대를 정확하게 충족할수록 이 즐거움은 커진다. 나얼과 성시경의 목소리는 이 즐거움을 탁월하게 생산한다.

주이상스는 전혀 다른 성격의 경험이다. 그것은 불편하고 예측 불가능하며 주체를 위기에 빠뜨리는 쾌락이다. 주이상스는 기대의 충족이 아니라 기대의 파괴에서 발생한다. 나훈아가 클라이맥스에서 예상치 못한 방

16) 요성(搖聲)은 성악이나 관악기 연주, 판소리 창법 등의 국악에서 음을 가늘게 떨어 울리게 하는 비브라토 기법을 의미한다.

17) 바르트 R. 저, 김희영 역, 『텍스트의 즐거움』, 동문선, 1997, 14-21쪽.

식으로 소리를 토해낼 때, 전인권이 거칠고 날 것의 목소리로 청자의 기대를 벗어날 때, 청자는 판단 이전에 신체적으로 반응한다. 무엇이 자신을 움직이는지 설명할 수 없지만 이미 움직여져 있다. 이것이 주이상스이다. 그리고 결은 이 주이상스를 발생시키는 음성적 메커니즘이다.

주이상스 개념이 한국 대중음악 분석에서 특별히 유효한 것은, 그것이 감동의 경험을 문화적 맥락에서 부분적으로 독립시키기 때문이다.[18] 트로트를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청자가 특정 공연 현장에서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경험, 김현식의 음원을 처음 듣고 이유를 알 수 없는 파토스(pathos)적 감응을 느끼는 경험—이것들은 문화적 코드나 세대적 공감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게노-송이 피에노적 판단 이전에 신체에 직접 도달한 사건, 즉 주이상스의 순간이다.

또한 주이상스 개념은 한국 대중음악의 청자들이 이미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것에 이론적 언어를 제공한다. '기술은 좋은데 감동이 없다'—이것은 피에노-송의 완성도는 높지만 게노-송의 결, 즉 주이상스의 원천이 없는 상태를 기술한다. '음정이 틀렸는데 왜 이렇게 좋지?'—이것은 피에노적 판단 이전에 게노-송이 청자의 신체에 먼저 도달한 상태를 기술한다. 바르트의 이론은 이 직관에 정밀한 언어를 부여한다.

3) 결의 훈련 불가능성과 피에노화 압력

바르트의 결 개념에서 보컬 교육의 맥락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논점이 있다. 결은 피에노-송의 완성도와 독립적이다. 그것은 기술적 숙련의 산물이 아니라, 신체가 소리에 불가피하게 남기는 흔적이다. 이 논점은 두 가지 방향에서 이해될 수 있다.

첫째, 결은 의도적으로 만들어질 수 없다. 바르트가 팡제라에게서 결을 들었을 때, 그것은 팡제라가 의도적으로 '거칠게' 불렀기 때문이 아니다.

18) Frith, op. cit., pp.183-202. 프리스는 대중음악 보컬의 '진정성(authenticity)'이 특정한 수행 양식과 연결됨을 논한다. 이는 게노-송의 결이 청자에게 '진정성 있는 목소리'로 경험되는 이유와 조응한다.

그것은 신체가 소리에 남긴 불가피한 흔적이다. 결을 흉내 낼 수 있지만, 그 흉내는 피에노-송에 머문다. 감동적인 창법을 분석하고 그것을 기계적으로 재현하려 하면, 재현의 순간 결은 사라진다. 이것이 많은 보컬 교육 현장에서 느끼는 역설—기술을 완벽하게 가르칠수록 감동이 줄어드는 현상—의 이론적 설명이다.

둘째, 피에노-송의 완성을 향한 훈련은 게노-송을 억압할 수 있다. 음정을 정확하게 교정하고, 음색을 균질하게 만들고, 브레스(breath)를 제거하고, 음역 경계를 매끄럽게 처리하는 것은 피에노-송의 완성도를 높이지만, 동시에 신체의 흔적을 소거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나얼과 성시경의 목소리가 많은 청자에게 감동을 주면서도 어떤 청자에게는 '뭔가 빠진 것 같다'는 느낌을 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들의 피에노-송은 너무 완성되어 있어 게노-송이 가려진다. 나얼은 압도적인 최고음 테크닉 처리로 인한 청각적 즐거움이고, 성시경은 너무나도 감미롭고 달콤한 보이스로 인한 청각적 즐거움이다.

「목소리의 결」 외에 바르트의 음악 에세이 「뮤지카 프락티카(Musica Practica, 1970)」도 이 논문의 이론적 배경으로 중요하다.[19] 이 에세이에서 바르트는 음악을 '듣는' 것과 '하는' 것의 차이를 논한다. 그는 기술적 복제 시대에 음악이 점점 더 청취의 대상이 될 뿐, 신체적으로 수행하는 행위로 경험되지 않는다고 진단한다. 이 진단은 현재 한국 대중음악의 상황에 직접적으로 적용된다. 디지털 음원과 스트리밍 플랫폼이 지배적인 환경에서, 청자들은 고도로 처리된 음원을 소비한다. 피치 교정(vocal tuning), 노이즈 제거 알고리즘이 적용된 음원에서 게노-송의 흔적은 체계적으로 감소된다. 음정의 불규칙성, 성대 마찰음, 브레스의 기식 성분, 이것들은 믹싱 및 디지털 처리 과정에서 EQ(equalizer) 작업을 통해 균일화 및 안정화 작업을 거치게 된다. 음반 후작업 과정에서 원래 가수의 목

19) Barthes, R., "Musica practica", Image-music-text, Trans. S. Heath, New York: Hill and Wang, 1977, pp.149-154.

소리 결이 어느 정도 정돈된 음악들이 유통되는 것이다.

유형 3—나얼·성시경—의 위치도 이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것은 단순한 '감동없는 목소리'의 사례가 아니다. 나얼과 성시경은 탁월한 가수이다. 그들의 피에노-송은 바르트가 피셔-디스카우에게서 인정했던 것처럼 높은 완성도를 가진다. 유형 3의 사례는 피에노-송의 완성이 게노-송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비적 거울이다. 또한 유형 3은 주이상스의 부재가 아니라 즐거움이 지배적이 되는 상태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이 논문의 분석 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바르트의 피에노-송/게노-송 구분이 분석의 기본 좌표를 제공하며, 주이상스 또한 이 분석에서 중요한 핵심 개념이다.

[표 1] 바르트의 이론 틀과 한국 대중음악 보컬 유형

유형	피에노-송과 게노-송의 관계	바르트적 대응	분석 사례
유형 1	피에노적 기교 위에서 게노-송이 터져 나옴	피셔-디스카우 기교 위에서 팡제라적 결 발생	태진아•나훈아 1절 후렴부
유형 2	피에노적 기교 없이 날 것의 게노-송	팡제라적 구조 그 자체	김현식•전인권 1절 후렴부
유형 3 (대비 사례)	피에노-송 우세— 게노-송이 가려짐(즐거움 지배적)	피셔-디스카우적 구조	나얼•성시경 1절 후렴부

3. 트로트 : 피에노적 기교 위에서의 게노-송

2장에서 논의한 것처럼, 바르트는 피에노-송과 게노-송이 항상 대립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 팡제라의 목소리에는 높은 수준의 훈련이 전제되어 있다. 그러나 그 훈련이 신체의 흔적을 완전히 덮어버리지 않았다. 유형 1의 트로트 보컬은 이보다 더 적극적인 구조를 가진다. 피에

노적 기교—꺾기와 요성—가 게노-송의 조건으로 기능하며, 그 기교가 클라이맥스에서 감정의 무게에 의해 뚫릴 때 게노-송이 발생한다.

이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트로트 보컬의 피에노적 규범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 트로트는 꺾기와 요성 없이는 트로트답지 않다. 이 두 기법은 장르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피에노적 규범이다. 가수는 이 규범을 훈련을 통해 체화하고, 청자는 이 규범을 통해 '트로트다움'을 인식한다. 꺾기와 요성은 트로트라는 장르의 피에노-송이다.

그런데 트로트 가수들의 보컬에서 관찰되는 것은 이 피에노적 규범이 특정 순간에 '흔들린다'는 점이다. 꺾기의 굴곡이 예측 가능한 패턴을 벗어나고, 요성의 주기가 불규칙해지며, 음역의 경계가 노출된다. 이 흔들림이 바르트의 결이다. 피에노적 기교가 감정의 무게를 견디는 과정에서, 혹은 그것을 넘어서는 순간에, 신체의 흔적이 소리의 표면으로 각인된다. 이 유형의 게노-송이 발생하는 순간은 대부분 곡의 클라이맥스와 일치한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 클라이맥스는 감정의 무게가 가장 집중되는 순간이다. 피에노적 기교가 그 무게를 담으려 하지만, 무게가 너무 클 때 기교를 뚫고 목소리의 결이 분출된다. 이것이 바르트가 말한 게노-송의 발생 방식—피에노-송을 뚫고 나오는 순간—의 트로트적 구현이다.

1) 사례 분석 1: 태진아 ≪사랑은 아무나 하나≫

태진아의 ≪사랑은 아무나 하나≫에서 가장 감정이 고조되는 1절 후렴부인 '사랑은 아무나 하나 / 어느 누가 쉽다고 했나'는 트로트 보컬에서 유형 1의 구조—피에노적 기교 위에서 게노-송이 터져 나오는 방식—를 분석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례 중 하나이다. 이 곡에서 태진아의 보컬은 꺾기와 요성이라는 트로트의 피에노적 규범을 충실하게 구현하면서도, 특정 순간에 그것을 넘어서는 게노-송적 사건들을 발생시킨다.

태진아 보컬의 피에노적 특성을 먼저 기술해야 한다. 그의 꺾기는 트로트 장르의 규범 안에서 매우 정교하게 작동한다. 음절의 배치, 꺾기가 발생하

는 위치, 요성의 진입 시점이 모두 트로트의 피에노적 문법을 따른다. 청자는 이 문법을 통해 '트로트다움'을 경험한다. 이 피에노적 완성도가 태진아 보컬의 기반이다.

그러나 이 피에노적 기반 위에서, 특히 감정적으로 밀도가 높은 후렴 구간에서, 게노-송적 사건들이 발생한다. 꺾기의 굴곡이 예측 가능한 패턴을 벗어나고, 요성의 주기가 불규칙해지며, 흉성이 음역 경계 너머로 강하게 밀어 올려지는 순간들이 관찰된다. 이 순간들에서 태진아의 신체가 소리의 전면에 등장한다. 피에노-송이 감정의 무게를 담으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에너지가 분출되는 것이다.

바르트의 언어로 해석하면, 태진아의 보컬에서 결이 발생하는 순간은 피에노-송의 완성을 향하는 운동과 그것을 넘어서는 게노-송의 운동이 충돌하는 순간이다. 이 충돌이 주이상스를 발생시킨다. 청자는 피에노적 기교의 정교함을 인식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뚫고 나오는 신체의 에너지에 의해 신체적으로 압도된다. 이것이 유형 1 트로트 보컬의 미학적 구조이다.

태진아 보컬에서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게노-송적 사건은 강한 성문 폐쇄음(glottal stop)이다.[20] 그것은 모음으로 음절이 시작되는 1절 후렴부의 '어느 누가'의 '어' 음절의 시작점에서 일어난다. 감정적 과부하 상태에서 성대가 완전히 닫혔다가 열리면서 발생하는 이 미시적 사건은 악보에 표기되지 않으며 훈련을 통해 의도적으로 생산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신체가 감정의 무게에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가장 순수한 결의 형태이다.

2) 사례 분석 2: 나훈아 ≪울긴 왜 울어〉≫

나훈아는 트로트 역사에서 유형 1의 구조가 가장 극적으로 구현되는 보컬을 가진 가수로 파악된다. ≪울긴 왜 울어≫의 1절 후렴부와 그 직전의

20) 성문 폐쇄음(glottal stop)은 성대가 완전히 닫혔다가 갑자기 열리면서 발생하는 짧은 파열음이다. 이것은 악보에 표기되지 않으며 보컬 트레이닝에서 의도적으로 훈련되는 요소가 아니다. 바르트가 결을 '신체가 소리에 남기는 불가피한 흔적'으로 정의할 때, 성문 폐쇄음은 그 가장 미시적인 형태이다.

‘어차피 인생이란 이별이 아니더냐 / 울지 마 울긴 왜 울어’ 부분은 그의 보컬 미학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사례이다. 반세기에 걸쳐 축적된 트로트 보컬의 피에노적 완성도 위에서, 감정의 무게가 그것을 뚫고 나오는 방식이 이 곡에서 집약적으로 관찰된다.

나훈아 보컬의 가장 두드러진 피에노적 특성은 ‘울지’와 ‘울긴’ 구절의 시작에서 드러나는 ‘지연 개시(delayed onset)’ 패턴이다. 음절의 첫 부분을 직성(直聲, 진동 없는 곧은 소리)으로 처리한 후 음절의 중간 혹은 후반부(‘울지’의 ‘지’)에서 요성을 진입시키는 이 패턴은 트로트 장르 안에서 나훈아가 발전시킨 고유한 피에노적 기법이다. 이 패턴은 매우 정교하게 훈련된 것이며, 트로트 보컬 교육에서 ‘나훈아 창법’으로 별도로 다루어질 정도로 장르 내에서 피에노화된 기법이다.

그런데 이 피에노적 패턴이 감정적으로 부하가 높은 구간에서 흔들린다. 직성 구간이 예측보다 짧아지거나, 요성의 진입이 앞당겨지고 진폭이 예상보다 커진다. 무엇보다 클라이맥스에서 나훈아의 발성은 지연 개시 패턴의 정교한 제어를 벗어나 소리를 토해내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 전환의 순간, 피에노적 기교를 뚫고 게노-송이 분출된다.

나훈아 보컬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피에노적 기교의 축적 시간과 게노-송의 분출 사이의 관계이다.[21] 직성 구간은 단순한 안정이 아니라 요성과 분출을 향한 내적 긴장의 축적 시간이다. 청자의 신체는 이 긴장을 감지하며, 게노-송이 분출되는 순간 그 긴장의 방출로 인한 주이상스를 경험한다. 판단 이전에 신체가 먼저 반응하는 것이다. 이것이 나훈아의 클라이맥스가 청자에게 즉각적이고 강렬한 신체적 감응을 일으키는 이유이다.

[표 2] 유형 1 트로트 보컬의 게노-송 분석 요약

21) 트로트 보컬에서 클라이맥스의 게노-송 발현은 단순히 음량이 커지는 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피에노적 기교—꺾기와 요성의 통제된 패턴—가 감정의 무게를 더 이상 담지 못하고 무너지거나 그것을 뚫고 더 큰 신체적 에너지가 분출되는 순간이다. 이 ‘뚫고 나옴’의 순간에 바르트가 말하는 주이상스가 발생한다.

분석 항목	태진아 보컬 전반	나훈아 보컬 전반
피에노적 기교	정교한 꺾기 조합 트로트 문법의 충실한 구현	지연 개시 패턴 직성-요성의 정교한 운용
게노-송 발생 방식	꺾기 굴곡의 불규칙성 곡 전반의 지속적 내재	직성 구간의 긴장 축적 클라이맥스의 폭발적 분출
결의 형태	꺾기 굴곡 속 신체 흔적 성문 폐쇄음	지연-분출의 낙차 토해내는 발성

4. 발라드 : 게노-송의 노출 또는 가려짐

바르트가 팡제라의 목소리에서 결을 들었을 때, 그것은 팡제라가 장르적 기교를 구사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팡제라의 목소리에는 혀가 구개에 닿는 방식, 자음이 공기와 마찰하는 질감이 있었다. 이것들은 기교의 층위가 아니라 신체가 소리에 남기는 직접적 흔적이다. 유형 2의 한국 대중음악 보컬은 이 팡제라적 구조와 조응한다. 장르적 기교로 다듬어지지 않은, 신체가 날 것으로 드러나는 목소리이다.

유형 1의 트로트 보컬이 피에노적 기교를 조건으로 그것을 뚫고 게노-송이 발생하는 구조라면, 유형 2는 그 조건 자체가 다르다. 꺾기와 요성이라는 트로트의 장르적 기교도, 일반 발라드의 매끄러운 피에노적 발성도 아닌, 신체의 흔적이 피에노적 정련의 과정 없이 직접 소리에 각인되는 방식이다. 이것이 유형 2를 유형 1과 구분 짓는 핵심이다.

그렇다면 유형 2의 보컬에는 피에노-송이 없는가. 그렇지 않다. 김현식과 전인권은 높은 수준의 음악적 경험을 쌓은 가수들이다. 김현식은 1980년대 초반부터 라이브 클럽과 소극장 공연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독보적인 보컬 세계를 구축했다. 특히 악화된 건강으로 신체적 소진이 깊어지는 상황에서도 공연을 지속하면서, 신체의 한계가 목소리에 직접 각인되는 방식으로 그의 결이 형성되었다. 전인권은 들국화 시절부터 록 음악의 발성 방식을 체화했다. 많은 록 기반 가수들에게도 자신들만의 체화된 피에노-송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 피에노-송이 트로트의 꺾기·

요성이나 발라드의 믹스 보이스(Mixed Voice)[22]와 같은 '공인된 장르적 기교'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 그들의 피에노-송은 스타일적 세련됨이 아니라 신체 자체의 물질성을 통해 구현된다.

이 구조가 청자에게 어떤 경험을 만드는지를 바르트의 주이상스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트로트 팬이 아닌 청자가 나훈아의 목소리를 들을 때, 그는 트로트의 피에노적 규범—꺾기와 요성—을 먼저 인식한다. 반면 김현식이나 전인권의 목소리를 들을 때, 청자는 장르적 기대 없이 신체의 흔적과 직접 대면한다. 어떤 규범도 매개하지 않는 이 직접성이 유형 2 게노-송의 주이상스적 충격을 만든다.

1) 유형 2의 음성적 특성

(1) 음색의 불균질성

유형 2 보컬의 가장 두드러진 음성적 특성은 음색의 불균질성이다.[23] 이것은 음색을 균질하게 유지하려는 피에노적 범위를 넘어서는 순간 신체가 소리에 남기는 흔적이다. 성대의 생리적 상태, 신체의 긴장과 이완, 감정의 무게가 그대로 음색에 각인된다.

음색의 불균질성은 여러 방식으로 나타난다. 첫째, 강한 성문 마찰음(glottal fricative)의 존재이다. 성대가 완전히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 공기가 통과하면서 발생하는 이 마찰음이 목소리에 거칠고 '쉰' 질감을 부여한다. 이것은 피에노적 관점에서는 성대 관리의 문제이지만, 게노-송의 관점에서는 신체의 역사가 성대에 각인된 결이다. 둘째, 음절과 음절 사

22) 미국의 팝 보컬 트레이너인 세스 릭스(Seth Riggs)가 처음 사용한 최고음 발성 테크닉으로서, 2000년대 이후 국내에서도 최고음 발성의 가장 정통한 테크닉으로 인정받고 있다. 나얼과 성시경의 최고음에서 느껴지는 유연함과 부드러움이 이 테크닉의 주된 특징이다.

23) 성문 마찰음(glottal fricative)은 성대가 완전히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 공기가 통과하면서 발생하는 마찰음이다. 이것이 김현식 특유의 쉰 목소리 질감의 음성학적 기반이다. 피에노적 관점에서 이것은 성대 관리의 문제로 볼 수 있지만, 게노-송의 관점에서 그것은 신체의 역사가 성대의 생리적 상태에 각인된 결이다.

이, 혹은 음절 내부에서 공명의 위치가 다소 거칠게 변화하는 것이다. 흉강에서 두강으로, 또는 그 역방향으로의 이행이 매끄럽게 처리되지 않고 그 변화의 과정이 소리에 드러난다. 흉성을 강하게 사용하는 가수들의 경우는 대부분 최고음역으로 올라가거나 하강할 때 두드러지는 경우가 많다.

음색의 불균질성이 결이 되는 이유를 바르트의 관점에서 이해하면 다음과 같다. 균질한 음색은 신체를 소리 뒤로 숨긴다. 청자는 소리를 듣지만 그 소리를 만드는 신체를 만나지 못한다. 반면 불균질한 음색은 신체를 소리의 전면으로 끌어낸다. 청자는 소리를 통해 가수의 신체와 직접 만난다. 이것이 유형 2 보컬이 청자에게 강한 친밀성과 즉각적 감응을 만드는 이유이다.

(2) 브레스의 게노-송적 기능

유형 2 보컬의 두 번째 핵심 음성적 특성은 브레스(breath)의 처리 방식이다. 바르트는 결을 정의하면서 목소리가 청자의 몸 속에서 숨쉬는 방식을 언급한다. 브레스는 이 숨쉼의 가장 직접적인 표현이다.

피에노적 보컬에서 브레스는 관리되고 은폐된다. 청자에게 들리지 않도록, 혹은 최소한으로 들리도록 처리되는 것이 기술적 완성도의 기준이다. 반면 유형 2의 보컬에서 브레스는 은폐되지 않는다. 음절 이전에 들리는 흡기음, 음절 사이의 기식 성분, 음절 끝에 남는 숨결의 흔적—이것들이 소리의 표면에 그대로 각인된다.

브레스의 게노-송적 의미는 그것이 신체의 현존을 가장 직접적으로 전달한다는 데 있다. 브레스는 소리가 되기 이전의 신체이다. 폐와 횡격막, 성도 전체의 상태를 담고 있다. 마이크를 통해 청자에게 전달될 때, 이 브레스는 가수의 신체적 존재감을 청자와 매우 가깝도록 근접시킨다. 이것이 유형 2 보컬의 청취에서 '가수가 바로 옆에서 노래하는 것 같다'는 경험의 물질적 기반이다.

2) 사례 분석 1: 김현식 ≪내 사랑 내 곁에≫

김현식의 보컬 전반에서 게노-송은 특정 기교적 순간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 전체에 걸쳐 지속적으로 존재한다. 성문 마찰음에서 비롯

된 거칠고 쉰 목소리의 질감, 브레스의 존재감, 음색의 불균질성이 보컬 전반에 걸쳐 결을 만들어낸다. 이것은 기교로 만들어진 음색이 아니다. ≪내 사랑 내 곁에≫의 1절 후렴부인 '힘겨운 날에 너 마저 떠나면 / 비틀거릴 내가 안길 곳은 어디에' 부분은 신체의 역사—병마로 인한 신체적 소진, 감정의 누적—가 성대에 각인된 흔적이다. 바르트가 결을 '신체가 소리에 남기는 불가피한 흔적'으로 정의할 때, 김현식의 목소리는 그 정의에 가장 가까운 한국 대중음악의 사례 중 하나이다.

바르트의 언어로 해석하면, 김현식의 보컬에서 결은 특정 기교적 순간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 전체에 걸쳐 지속적으로 존재한다.[24] 피에노적 완성도보다 게노-송의 밀도가 높은 목소리이다. 이것이 피셔-디스카우에 비교되는 팡제라의 구조이다. 기술이 완벽하지 않지만 신체가 더 풍부하게 드러난다.

한 가지 더 중요한 논점이 있다. 김현식의 보컬은 '칼칼하게 웅변적으로' 부르는 창법이다. 그것은 억압된 감정을 내면에서 삭이는 방식이 아니라, 신체의 흔적을 소리의 표면에 직접 드러내는 방식이다. 트로트 보컬의 클라이맥스적 분출과는 다른 느낌이지만, 동일하게 외향적 방향을 가진다. 이것이 김현식과 전인권이 트로트 가수들과 유형적으로 구분되면서도 내향적 발라드 가수들과도 다른 위치에 있는 이유이다.

3) 사례 분석 2: 전인권 ≪걱정말아요 그대≫

전인권의 ≪걱정말아요 그대≫의 1절 후렴부인 '우리 다함께 노래 합시다 / 후회없이 꿈을 꿨다 말해요' 부분은 유형 2의 또 다른 차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25] 김현식의 보컬이 음색의 불균질성과 브레스의 질감을 통해 결

24) Barthes, op. cit., p.183. 바르트는 결을 논하면서 듣는 자가 판단하기 전에 이미 신체가 반응한다는 논점을 강조한다. 유형 2의 보컬에서 이 반응은 장르적 기대를 배반하는 방식으로 더욱 강렬하게 발생한다.

25) 전인권의 보컬은 들국화 시절(1985년~)부터 형성된 것으로, 록 음악의 영향을 받은 거칠고 시원한 창법이 특징이며, 장르적 세련됨 대신 신체의 직접성이 소리의 전면에 드러나는 이 방식이 유형 2의 핵심 특성이다. 따라서 많은 록 가수들이 자신만의

을 만들어낸다면, 전인권의 보컬은 발성 방식 자체의 '거침없이 거칠고 시원한' 특성이 결의 원천이 된다.

전인권의 창법은 록 음악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흉성을 강하게 활용하고 음절을 시원하게 내뱉는 방식이 특징이다. 이것은 트로트의 꺾기나 발라드의 팔세토처럼 특정 장르의 피에노적 기교가 아니다.[26] 그것은 전인권 자신의 신체가 오랜 음악적 실천을 통해 형성한 고유한 발성 방식이다.

전인권 보컬의 게노-송적 특성을 바르트의 언어로 기술하면, 그의 목소리는 신체와 소리 사이에 피에노적 여과 과정이 최소화된 상태이다. 감정의 무게가 장르적 기교를 통해 정련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신체의 발성 방식 그대로 소리에 직접 각인된다. 이것이 청자에게 '전인권의 목소리는 날 것이다'라는 직관적 느낌을 주는 이유이다. 피에노적 정련의 거리가 없기 때문에, 신체와 청자의 신체가 소리를 매개로 더 직접적으로 만난다.

전인권의 경우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감정적 강도가 높아질 때의 발성 변화이다. 평상시의 구간에서도 이미 거칠고 시원한 창법이 결을 만들어내지만, 감정적으로 밀도가 높은 구간에서 발성의 강도가 달라진다. 이 달라짐의 순간에 유형 1의 트로트 보컬과 유사한 방식으로 피에노-송이 감정의 무게에 의해 흔들리고, 게노-송이 더욱 선명하게 표면화된다.

4) 두 사례의 비교: 유형 2의 특성

김현식과 전인권은 동일한 유형 2의 구조—장르적 기교 없이 날 것의 게노-송이 드러나는 방식—를 공유하면서도, 그 결의 성격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김현식의 결은 목소리의 질감 자체에 배어 있다. 성문 마찰음에서 비롯된 쉰 목소리의 질감, 브레스의 존재감, 음색의 불균질성—이것들이 곡 전반에

게노-송을 형성하기 위해 고민한다.

26) 록 샤우팅(shouting)이라는 테크닉이 알려져는 있으나 이는 말 뜻처럼 소리를 지른다는 행위적인 성격이 강해서 록 장르의 보편적 테크닉은 아니며, 일부 록 가수들만 사용하는 창법이라고 볼 수 있다.

걸쳐 지속적으로 결을 만들어낸다. 청자는 노래를 들으면서 끊임없이 가수의 신체를 경험한다. 결이 특정 클라이맥스 순간에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 전체에 내재된 상태이다.

전인권의 결은 발성 방식의 직접성에서 온다. 시원하고 거칠게 내뱉는 창법이 신체의 에너지를 소리에 직접 각인한다. 김현식의 결이 목소리의 질감에 배어 있는 방식이라면, 전인권의 결은 발성의 방향성—신체의 에너지가 소리를 통해 청자에게 직접 향하는 방식—에서 온다. 이 방향성이 청자에게 강렬한 즉각적 감응을 만든다.

두 사례를 통해 유형 2의 공통적 특성을 정리할 수 있다.[27] 첫째, 장르적 기교가 피에노-송의 주된 기반이 아니다. 신체 자체의 물질성이 피에노-송이면서 동시에 게노-송의 원천이다. 둘째, 결은 특정 순간에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 전반에 걸쳐 내재되어 있다. 이것이 팡제라적 목소리의 구조이며, 한국 대중음악에서 유형 2가 구현하는 게노-송의 방식이다.

이 경로는 바르트가 피셔-디스카우와 팡제라를 대비시킨 구조와 정확히 조응한다.[28] 유형 1은 피에노-송의 완성도 위에서 게노-송이 터져 나오는 방식으로, 기교와 신체의 에너지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결이 발생한다. 유형 2는 피에노적 기교의 완성 없이 신체가 직접 드러나는 방식으로, 팡제라의 목소리에서 바르트가 들었던 것과 구조적으로 동일하다. 한국 대중음악은 바르트가 서양 클래식 성악에서 발견한 이 대비를 자신의 방식으로 재현하고 있는 것이다.

27) Frith, op. cit., pp.187–188. 프리스는 발라드 보컬에서 '목소리와 청자의 거리'가 감정 경험의 핵심임을 지적한다. 유형 2의 날 것의 게노-송은 피에노적 정련의 거리를 제거하고 신체와 청자 사이의 직접적 접촉을 만든다.

28) Barthes, op. cit., p.188.

[표 3] 유형 2 보컬의 게노-송 분석 요약

분석 항목	김현식 보컬 전반	전인권 보컬 전반
피에노-송의 기반	장르적 기교 없음 신체 자체의 물질성	장르적 기교 없음 록 발성의 직접성
결의 원천	음색 불균질성 성문 마찰음·브레스 신체적 소진의 각인	발성의 직접성 신체 에너지의 즉각적 각인
결의 존재 방식	목소리 전반에 내재된 지속적 결	발성 방향성에서 오는 즉각적 결

5) 일반 발라드 : 유형 3의 특성

앞선 분석을 통해 한국 대중음악 보컬에서 바르트의 게노-송이 유형은 피에노-송과 게노-송의 관계 방식에 따라 구분되는 사례를 트로트와 록 발라드 장르에서 살펴 보았다.

유형 1—태진아·나훈아—은 피에노적 기교를 조건으로 그것을 뚫고 게노-송이 터져 나오는 방식이다. 트로트의 꺾기와 요성이라는 장르적 피에노-송 위에서, 클라이맥스에 감정의 무게가 그 기교를 뚫을 때 결이 발생한다. 결은 피에노적 기교를 매개로,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면서 분출된다.

유형 2—김현식·전인권—은 피에노적 기교 없이 신체가 날 것으로 드러나는 방식이다. 장르적 기교라는 매개 없이 신체의 흔적이 소리에 직접 각인된다. 결은 피에노적 정련의 과정 없이 목소리 자체의 물질적 질감과 발성의 방향성을 통해 직접 구현된다.

유형 3—나얼·성시경—은 대비군으로서 제시되는 사례로서 피에노-송의 완성도가 높아 게노-송이 가려지는 방식이다. 결이 없는 것이 아니라, 피에노적 완성도가 그것을 덮어버린다. 이 유형은 바르트가 피셔-디스카우에게서 느낀 것—완벽하지만 결을 느끼기 어려운 목소리—의 한국적 판본이다. 유형 3의 분석은 이 논문의 유형론을 완성하는 데 필수적이다. 나얼과 성시경은 기술적으로 탁월한 가수들이다. 그들의 피에노-송은 바르

트가 피셔-디스카우에게서 인정했던 것처럼 높은 완성도를 가진다. 그러나 바르트가 피셔-디스카우보다 팡제라를 더 높이 평가했듯이, 본 연구는 피에노-송의 완성도가 반드시 게노-송의 결을 동반하지는 않음을 주장한다.

나얼의 ≪바람기억≫의 1절 후렴부인 '우리의 만남 우리의 이별 / 그 바래진 기억에' 부분에서 그의 피에노-송은 믹스 보이스를 통해 극도로 완성되어 있다. 음색의 균질성, 음정의 정확성, 최고음의 매끄러운 연결—이것들이 탁월한 피에노-송의 전형이다. 그러나 이 완성도가 결을 만들기보다 오히려 가린다. 성시경의 ≪거리에서≫의 1절 후렴부인 '널 그리는 널 부르는 내 하루는 / 애태워도 마주칠 추억이 반가워' 부분도 마찬가지이다. 그의 깔끔하고 편안하고 정확한 발성, 달콤하고 균질한 음색, 절제된 감정 표현은 피에노-송의 최고 수준을 보여주지만, 바르트의 의미에서 결—신체가 소리에 남기는 불가피한 흔적—은 최소화된다.

유형 3이 이 논문에서 갖는 의미는 단순한 비교 기준 이상이다. 그것은 '결'과 게노-송 이론이 함축하는 보컬 미학의 역설을 보여준다. 꼭 더 완벽한 기술이 반드시 더 감동적인 목소리를 만들지는 않는다. 오히려 때로는 피에노-송의 완성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게노-송을 억압할 수 있다. 이것이 청자들이 나얼과 성시경의 목소리에 감탄하면서도 태진아·나훈아·김현식·전인권의 목소리에서 다른 종류의 감동을 경험하는 이유의 이론적 설명이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유보적 단서를 붙여야 한다. 바르트도 피에노-송이 즐거움을 생산한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았다. 나얼과 성시경의 목소리는 높은 수준의 청각적 즐거움을 생산한다. 다만 그것이 피에노-송의 즐거움인지 게노-송의 주이상스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이 논문의 주된 관심사이며, 유형 3에서 발생하는 감동의 성격은 유형 1·2의 주이상스와 다른 것으로 파악된다.

바르트가 서양 클래식 성악에서 피에노-송과 게노-송의 대비를 발견했을 때,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서양 성악의 훈련 방식이 피에노-송의 완성을 지향하기 때문이었다. 한국 대중음악에서 이 대비는 더욱 다층적이고 풍부

한 방식으로 실현된다. 트로트의 장르적 기교, 대중가요 가수들의 자신만의 시원한 창법, 그리고 피에노화된 발라드 가수들의 다듬어진 균질한 음색이 바르트의 대비를 한국 대중음악의 고유한 방식으로 재현한다.

[표 4] 세 유형의 게노-송 비교

비교 범주	유형 1 태진아·나훈아	유형 2 김현식·전인권	유형 3 (대비) 나얼·성시경
피에노-송의 성격	장르적 기교 (꺾기·요성)	신체 자체의 물질성 (최소한의 피에노)	높은 기술적 완성도 (균질한 음색)
게노-송 발생 방식	기교를 뚫고 터져 나옴	직접 각인됨	가려짐
결의 형태	클라이맥스의 폭발적 분출 기교의 균열	목소리 질감·발성의 직접성 전반	존재하나 청취 어려움 (즐거움 지배적)
바르트적 대응	피셔-디스카우의 기교 위에서 팡제라적 결이 터져 나옴	팡제라적 구조 그 자체	피셔-디스카우적 구조

5. 결론

본고는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해 대중음악 보컬 교육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피에노-송과 게노-송을 구분하는 교육적 언어가 필요하다. 피에노-송을 기교적 가창, 게노-송을 감각적 가창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현재 실용음악 보컬 교육의 평가 기준은 대부분 피에노-송의 언어로 제시된다. 음정의 정확성, 음역의 넓이, 음색의 균질성, 호흡의 안정성 등이 그것이다. 이 기준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이 교육의 목표가 될 때 게노-송이 억압된다. 세 유형의 분석이 보여주듯, 피에노-송의 완성도와 게노-송의 결은 본질적으로는 독립적이다.

둘째, 목소리의 '결'은 직접 훈련되기는 어렵더라도 간접적으로 결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은 만들 수 있다. 대중음악에서는 밴드 합주 수업을 통

해 감정과 연결된 호흡, 피에노적 규범의 압력에 억압되지 않는 가창 표현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줄 수 있다. 교수자의 역할은 학생이 자신의 신체를 고유한 악기로 인식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신체를 다루는 정신적 측면에서도 늘 자신의 개성과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나가야 함을 잊지 않도록 졸업 때까지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세 유형의 구분은 가수 지망생들이 자신의 보컬 방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을 제공한다. 유형 1의 방향을 가진 학생과 유형 2의 방향을 가진 학생은 서로 다른 교육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 유형 1 지향의 학생에게는 피에노적 기교의 완성과 동시에 그것을 넘어서는 감정적 분출의 허용이 필요하다. 유형 2 지향의 자유로운 생각을 지닌 학생에게는 과도한 피에노적 교정을 강요하는 것도 조심스럽지만 그렇다고 너무 자유의지에만 기대는 것도 위험성이 있음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비 유형이었던 유형 3의 경우는 유형 1의 방향성을 통한 신체적, 감성적 발산 및 해소를 체험한 이후 이를 절제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보컬 실기 교육에서 우리는 '기본기'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가장 기술적으로 갖추어야 할 호흡과 발성에 대한 지도를 진행하게 되지만, 이 기본기의 단계를 넘어서는 순간 단지 보컬 테크닉의 완성도만을 추구하기보다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가창의 정서적인 측면과 악기로서의 자신의 고유 신체 표현까지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된 성문 파열음이라던가 성문 마찰음이라고 하는 발성적 요소들도 성대에 건강한 방식으로 음의 선명한 시작(clean onset)에 관한 가창 훈련이 어느 정도 성숙해지기 전까지는 조심스럽게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가창이 최소한 타인이 감상 가능한 단계로 발전하게 되면 그 이후로는 보편적인 음악성과 아름다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개별적인 미학적 존재론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고, 가수들은 자신들만의 감성을 기반으로 성문 파열음 및 마찰음 등을 더 자유롭게 활용하여 스타일과 개성을 더욱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본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는 보컬 테크닉과 음악적·정서적 전달의 측면이 서로 대조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가수의 존재론적 측면에서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된다. 또한 본고에서는 분석 대상을 남자 가수로 한정하였으나 향후 여자 가수들의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 필요할 경우 후속 연구가 가능할 수도 있음을 밝히며, 크게 3개의 유형으로 분류한 가수들의 가창 스타일을 다른 분석 이론을 기반으로 다르게 유형화하는 것도 충분히 흥미롭고 의미가 있을 수 있음을 언급하는 바이다. 한편 이후 후속 연구로서 개별 가수 또는 특정 대중음악 장르에 대해 세부적인 분석을 음향학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본 논문의 한계를 보완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본다.

참고문헌

단행본

김창남, 『대중음악의 이해』, 한울아카데미, 2010.

바르트 R. 저, 김희영 역, 『텍스트의 즐거움』, 동문선, 1997.

신현준, 『가요, 케이팝 그리고 그 너머』, 돌베개, 2005.

이영미, 『한국 대중가요사』, 민속원, 2006.

천이두, 『한의 구조 연구』, 문학과지성사, 1993.

Barthes, R., *Camera lucida,* Trans. R. Howard, New York: Hill and Wang, 1980.

Cavarero, A., *For more than one voice: Toward a philosophy of vocal expression,*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5.

Clifton, T., *Music as heard: A study in applied phenomenology,* CT: Yale University Press, 1983.

Dolar, M., *A voice and nothing more*, Cambridge, MA: MIT Press, 2006.

Frith, S., *Performing rites: On the value of popular music*,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96.

논문

오한승, 「K-POP시대의 새로운 실용음악 보컬 교육 개념에 대한 제안」,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4권 9호, 한국산학기술학회, 2023, 257-265쪽.

이소영, 「한국 발라드 음악의 특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 『대중음악』 4권, 한국대중음악학회, 2009, 38-72쪽.

최유준, 「한국 대중음악의 감성 구조와 한(恨)의 미학」, 『음악과 문화』 21권, 세계음악학회, 2009, 69-97쪽.

최유준, 「한의 감성 구조와 한국 대중음악의 미학」, 『음악과 민족』 45권, 민족음악학회, 2013, 43-72쪽.

Barthes, R., “The grain of the voice”, Image-music-text, Trans. S. Heath, New York: Hill and Wang, 1977, pp.179-189.

Barthes, R., “Musica practica”, Image-music-text, Trans. S. Heath, New York: Hill and Wang, 1977, pp.149-154.

Boutin, A., “Roland Barthes' grain of the voice: From mélodie to media”, *Romance Studies*, vol. 34, no. 3-4, London: Routledge, 2016, pp.163-173.

Dunsby, J., “Roland Barthes and the grain of Panzéra's voice”, *Journal of the Royal Musical Association*, vol. 134, no. 1, London: Routledge, 2009, pp.113-132.

Ferrara, L., “Phenomenology as a tool for musical analysis”, *The Musical Quarterly*, Vol. 70, No. 3,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4, pp.355-373.

인터넷 사이트

YouTube, Dietrich Fischer Dieskau, ‘Ständchen’ Schubert, https://www.youtube.com/watch?v=5CXCvB90g08&list=RD5CXCvB90g08&start_radio=1, 2026.05.20.

YouTube, Panzera sings Faure ‘Clair de Lune’, https://www.youtube.com/watch?v=l7ZtPh_gF2E&list=RDl7ZtPh_gF2E&start_radio=1, 2026.05.20.

국문초록

본 연구는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의 '목소리의 결(The Grain of the Voice, 1972)' 개념을 분석의 중심 도구로 삼아, 한국 대중음악 보컬의 유형을 게노-송(geno-song)의 관점에서 분류하고 이것이 목소리의 물질적·신체적 차원에 어떻게 각인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바르트는 음악적 수행을 문화적으로 코드화된 음악성의 층위인 '피에노-송(pheno-song)'과, 신체의 충동이 소리에 직접 각인된 층위인 '게노-송(geno-song)'으로 구분하고, 두 성악가—피에노-송의 완성을 이룬 피셔-디스카우(Fischer-Dieskau)와 게노-송의 결이 드러나는 팡제라(Panzéra)—를 대비시킨다. 본 연구는 이 대비 구조를 한국 대중음악 보컬 분석에 적용한다.

분석을 통해 한국 대중음악 보컬은 게노-송의 발현 방식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제안한다. 첫째, 장르적 기교(꺾기·요성)를 피에노적 조건으로 삼되 그것이 감정의 무게 아래에서 흔들릴 때 게노-송이 발생하는 유형이다. 둘째, 장르적 기교 없이 신체가 날 것으로 드러나는 게노-송 유형이다. 셋째, 피에노-송의 완성도가 높아 게노-송이 가려지는 유형이다. 다만 이 세 번째 유형은 게노-송의 부재가 아니라 피에노-송이 지배적이 되어 주이상스보다 즐거움(plaisir)이 우선되는 상태이다.

연구의 핵심 논지는 다음과 같다. 목소리의 결은 이 세 유형 모두에서 게노-송을 발생시키는 내적 조건으로 작동한다. 결은 목소리에 '담기는' 것이 아니라 피에노-송의 층위를 뚫고 나오거나 그것을 우회하여 신체의 흔적으로 소리에 각인되는 사건이다. 본 연구는 또한 보컬 교육의 실천적 함의를 갖는다. 피에노-송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게노-송을 억압할 수 있다는 바르트의 통찰은, 기술적 완성도 중심의 보컬 교육이 결을 소거할 위험이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 목소리의 결, 게노-송, 피에노-송, 주이상스, 롤랑 바르트, 음성 신체론

Abstract

A Typology of Korean Popular Music Vocals Based on Roland Barthes' Concept of the Geno-Song

: Focusing on the Analysis of Chorus Singing Techniques in Trot and Ballad

Oh, Hanseung / Dong-Ah Institute of Media and Arts
Seo, Bitnarae / Dong-Ah Institute of Media and Arts

This study adopts Roland Barthes' concept of "The Grain of the Voice" (1972) as a central analytical tool to classify types of Korean popular music vocals from the perspective of geno-song and to investigate how this is imprinted on the material and physical dimensions of the voice.

Barthes distinguishes musical performance into "pheno-song," a layer of culturally coded musicality, and "geno-song," a layer where bodily impulses are directly imprinted on the sound; he contrasts two vocalists: Fischer-Dieskau, who achieved the perfection of pheno-song, and Panzéra, in whom the grain of geno-song is revealed. This study applies this contrasting structure to the analysis of Korean popular music vocals.

Through this analysis, this study proposes that Korean popular music vocals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based on the manner in which geno-song is manifested. First, there is a type in which genre-specific techniques (vocal bending and vibrato) serve as conditions for pieno-song, but geno-song emerges when these techniques sway under the weight of emotion. Second, there is a type of geno-song where the body is revealed in its raw form without genre-specific techniques. Third, there is a type where the perfection of pieno-song is so high that geno-song is obscured. However, this third type is not

a case of the absence of geno-song, but rather a state where pieno-song becomes dominant, prioritizing pleasure (plaisir) over jouissance.

The core thesis of this study is as follows: The texture of the voice functions as an internal condition that generates geno-song in all three types. Texture is not merely 'contained' in the voice, but is an event in which it penetrates the layers of pieno-song or bypasses them to be imprinted on the sound as a trace of the body. This study also has practical implications for vocal education. Barthes' insight that enhancing the perfection of the pieno-song can suppress the geno-song suggests that vocal education centered too much on technical perfection risks erasing grain.

Keyword ● Grain of the Voice, Geno-song, Pheno-song, Jouissance, Roland Barthes, Vocal Somatology

▌논문투고일:2026.05.26. ▌심사완료일:2026.06.23. ▌게재확정일:2026.06.30. ▌

● ● ● https://doi.org/10.54698/kl.2026.21.807
지식과 교양, 제21호,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Knowledge and Liberal Arts, Vol. 21, LIC, pp.807-836.

지역공동체 기반 마을축제의 지속가능성 연구

: 홍성군 마을축제 사례를 중심으로

이 화 형 · 이 희 성 · 김 수 지 · 최 용 석*

목 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고찰
3. 홍성군 마을축제 운영 현황 분석
4. 국내외 마을축제 성공 사례 비교 분석
5. 홍성군 마을축제 지속 가능 방안
6. 결론

1. 서론

최근 지방 소멸과 인구 감소 문제가 전국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지역공동체 회복과 지역문화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1] 특히 농촌지역은 고령화와 청년층 유출로 인해 공동체 기능이 약화되고 있어,[2] 지역 정체성과 주민 간 관계망을 회복하기 위한 문화적 접근의 중요

* 이화형(제1저자) 한국문화예술연구원 원장
이희성(제2저자) 단국대학교 공공경영대학원 문화예술콘텐츠학과 교수
김수지(제3저자) 한국문화예술연구원 연구위원
최용석(교신저자) (재)홍주문화관광재단 팀장

1) 이상호, 「지방 소멸 2024: 광역 대도시로 확산하는 소멸 위험」, 『지역산업과 고용』, 한국고용정보원, 2024, 126-137 쪽; 구자인, 「농촌사회의 변화와 지역공동체의 재구성」, 『농촌사회』 제32권 제1호, 한국농촌사회학회, 2022, 191-228 쪽.

성이 강조되고 있다.[3] 이러한 상황에서 마을축제는 단순한 행사나 관광 이벤트를 넘어 지역공동체를 재구성하고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는 문화적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농촌지역에서는 마을사업(녹색농촌체험 마을사업 등 농촌체험마을사업) 혹은 권역사업(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이 추진되면서 마을 혹은 권역단위에서 많은 축제들이 기획되고 개최되고 있다.[4] 중앙정부와 광역 차원에서는 주로 '지역축제·문화관광축제' 등으로 시군 단위의 축제를 관리·지원하고 있으며,[5]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 중 일부를 '대표축제'로, 그보다 작은 단위의 생활문화 행사를 '마을축제·우수마을축제' 등으로 분류해 다층 구조로 관리하는 추세이다.[6]

그동안 축제는 주로 지역발전과 함께 관광객 유치 등 경제적 효과에 초점을 둔 정책을 기반으로 성장해 온 것이 사실이라 할 수 있다. 마을축제 역시 문화도시 사업과 도시재생 사업, 농촌지역 활성화 정책 등이 확대되면서 지역의 역사·문화·생활자원을 활용한 지역성장형 축제로 양적인 발전을 도모해 왔다고 할 수 있다.[7] 그러나 마을축제의 양적 확대가 반드시 질적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마을축제 간 차별성이 부족하고, 운영 경험과 성과가 지역과 마을에 체계적으로 축적되고 계승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8]

다행히 최근 마을축제가 지역 정체성 형성과 공동체 활성화의 중요한

2) 마상진, 「농촌과 청년: 청년세대를 통한 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2/2차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3.

3) 임묵·장인식. 「지역공동체 기반 마을축제가 활성화방안」, 『관광학 연구』 35권 2호, 한국관광학회, 2011, 167-188쪽.

4) 윤상헌·이한성, 「농촌 마을축제 실태 및 활성화 방안」, 『한국농촌계획학회지』 제20권 제3호, 한국농촌계획학회, 2014, 1-9쪽.

5) 문화체육관광부, 「2024 문화관광축제 종합평가보고서」, 2025.04.04.

6) <영남일보>, 「주민이 만들다 '마을축제'」,www.yeongnam.com, 2026.06.24.

7) 유지윤, 「문화 콘텐츠를 이용한 지역재생사업의 방향 모색: 농촌 공동체 지역 활성화 사례 중심으로」, 『사회통합연구』 제3권 제1호, 2022, 121-140쪽.

8) 안성혜, 「지역문화축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기획 방안의 모색」,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제8권 제12호, 한국콘텐츠학회, 2008, 168쪽.

수단으로 강조되면서,[9] 주민 참여, 공동체 회복, 지역자원 활용, 지속가능성 등 양적 확대에서 질적 가치 중심으로 변화를 도모하고 있지만,[10] 다수의 마을축제는 여전히 행사 운영 중심의 접근에 머물러 있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11] 마을축제는 이제 단순한 지역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강화하는 중요한 문화적 매개체임을 인식하고,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며, 지역문화의 보존과 계승, 지역브랜드 창출이라는 다중적 가치를 고취시켜야 한다.[12]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 또한 주민참여형 소규모 축제를 지역문화 정책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13]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마을축제 관련 연구는 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효과 분석에 집중된 경향이 있어, 주민참여와 공동체 기능, 지역문화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마을축제를 심층 분석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할 수 있다.

충청남도 홍성군의 경우 2024년 예비문화도시에 지정된 이후 주민주도형 마을축제를 지속적으로 육성해 오고 있다. 홍성은 천수만을 중심으로 한 해양환경과 농촌경관, 홍주읍성 등 역사문화 자원, 그리고 풍부한 지역 먹거리 문화를 보유한 지역으로, 이러한 고유 자원을 활용한 마을축제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데, 특히 (재)홍주문화관광재단 문화도시센터를 중심으로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마을축제 지원사업을 적극적

9) 유상춘,「농촌지역 축제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진안홍삼축제를 중심으로」,『전북학연구』제2집,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 2020, 229-265쪽.

10) 오훈성,「문화관광축제 정책에 대한 가치비평적 접근분석」,『관광연구저널』제34권 제7호, 한국관광연구학회, 2020, 21-35쪽.

11) 유상춘,「농촌지역 축제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 진안홍삼축제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0.

12) 변상이,「마을축제 참여 동기와 감정이 지속참여 의도 및 추천 의도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5.

13) 구문모,「문화관광축제 지원 사업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 시사점 연구」,『인문사회과학연구』제6권 제1호, 국제인문사회연구학회, 2024, 19-34쪽.

으로 추진하여 2024년 20개, 2025년 대한민국 문화도시 선정 이후 16개 마을축제를 지원·운영하였다. 나아가 2026년과 2027년에는 대표 마을축제 육성, 주민역량 강화, 콘텐츠 차별화 등을 추진하며 지역공동체에 기반한 마을축제 지속가능 환경 구축에 힘쓰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공동체에 기반한 마을축제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고 있는 홍성군 마을축제 사례를 집중 분석하여 마을축제의 지속가능한 운영 방안과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마을축제 관련 보고서 및 기존 연구 등 문헌 연구의 바탕 위에, 마을축제 관계자 및 주민과의 심층 면담을 통한 개선점 파악 및 국내외 성공 사례와의 비교 연구를 실시하여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마을축제의 개념과 특징

마을축제는 일반적으로 마을 단위의 생활문화와 전통문화, 자연환경, 지역자원을 기반으로 주민이 직접 기획과 운영에 참여하는 공동체 기반 축제를 의미한다.[14]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마을만들기 사업, 문화도시 정책, 생활문화 정책과 연계되면서 지역문화 활성화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주민자치와 공동체 회복의 실천적 장으로 기능하고 있으며,[15] 주민참여와 공동체 회복,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적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다.[16]

14) 고영은·주소현, 「마을축제 경험, 축제만족도, 사회적 자본의 관계」, 『사회과학연구논총』 제38권 제1호, 이화사회과학원, 2022, 133-164쪽.

15) 김동례·박진영·임형택, 「마을만들기 참여도 및 관심도와 문화예술 인식도 및 참여도가 지역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 21』 제10권 제2호, 아시아문화학술원, 2019, 779-790쪽.

16) 김숙희, 「마을음악회와 문화예술 활동의 효과 및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4.

2) 전국 마을축제 현황

전국 마을축제 현황을 살펴보면, 마을축제는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며 농산물, 전통문화, 생태자원 등을 활용한 체험형 프로그램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는 마을축제가 지역자원을 활용한 주민참여형 문화행사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1] 전국 주요 마을축제 현황

지역	마을명	축제명	주요 테마 및 체험
경기	양평군 청운면 신론리	청운 황토마을축제	민속놀이, 전통음식 만들기
	양평 양수리마을	양평 배꽃축제	배꽃 수경재배
	안성 종산개마을	안성 종산개축제	캐너드로스체험
	가평 아홉마지기마을	가평 아홉마지기 자라섬축제	곡밸문화체험
	강화 도래미마을	강화 도래미마을 바닷바람축제	바닷바람 운동회
	이천 자채방아마을	자채방아마을 한마당축제	비누화체험
	양평 마른기마을	양평 체험마을 물놀이축제	물놀이체험
	원주 백화마을	원주 백화축제	메기잡기 체험
강원	고성 왕곡마을	왕곡마을 전통민속체험축제	전통생활체험, 민속놀이
	인제군 산촌민가촌리	방태산 고로쇠축제	민속놀이, 풍어낚시
	평창 산채으뜸마을	눈드리축제	눈드리농업 만들기
	강릉 복사꽃마을	허수아비축제	미니허수아비 만들기
	횡성 정금문화마을	횡성 회다지소리축제	회다지소리 시연
	화천 토말마을	농촌산나물축제	산나물 만들기
	영월 삼굿마을	삼굿축제 및 송이따기체험	송이따기, 삼굿 체험
	횡성 안흥찐빵마을	안흥찐빵축제	찐빵만들기체험
	춘천 실레마을	실레마을 책축제	작가와 만남, 낭송대회

	영월 산솔마을	산솔마을 소나무축제	소나무 사진, 누피미체험
	태백 구와우마을	해바라기축제	해바라기 사진 촬영
	양양 탁장사마을	탁장사 마당놀이축제	박장사 씨계 전기, 복조놀이
	원주 취호마을	회촌 정원대로봄 달맞이축제	민속놀이, 달집 태우기
충북	영동 비단강숲마을	봉하산 봉수대축제	뗏목타기, 소보끼기체험
	보은 구병아름마을	구병산골 꿩먹고알먹기축제	숲체험, 무공해체험
	충주 목계마을	목계뱃신제	세시풍속, 민속놀이체험
	증평 남하리	장뜰들노래축제	장뜰들노래 사전형성대회
충남	부여 세도마을	부여 세도장군제	마을회의 체험
	태안 부가리마을	부가산대 놀이	부가산대 세우기체험
	예산 삽교천갈암마을	삽계천 갈암마을축제	삽계손잡기
	아산 외암전통마을	외암민속관축제	전통 공예품 만들기
	당진 왜목마을	왜목해돋이축제	해돋이 감상, 공연 감상
	태안 별주부마을	별주부마을 어살축제	갯벌체험
	금산 용도마을	홍도화축제	홍도화길 꽃차여행
	금산 장동마을	장동 된장인축제	담천메우기, 민속놀이
전북	임실 필봉꽃마을	정월대보름꽃축제	꽃봉놀이축제
	순창 고추장민속마을	순창장류축제	고추장 이송·요리체험
	순창 강천마을	강천 휴휴축제	산수유·노래 만들기
	진안 비밀삼마을	진안 도라지축제	산야초 음식경연대회
	완주 비비정마을	비비정마을축제	가족 낚시대회
	완주 고기마을	고기마을축제	가족 낚시대회
전남	장흥 진목마을	못생긴 호박축제	호박 가공품 시식
	광양 매화마을	광양 국제매화축제	매화감상체험
	해남 땅끝마을	해맞이 해맞이축제	해맞이 감상, 강강술래 체험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	곡성 심청축제	심청전 뮤지컬 관람
	순천 해룡리	중흥 해창 용줄다리기	용줄다리기 체험
경북	안동 외관마을	외고산 농기축제	농기 만들기 체험
	영주 수도리 전통마을	누엠 외나무다리축제	외나무다리 건너기
	달성 오리길	대니골마을 민속축제	민속놀이, 전통놀이 체험
	울진 굴다리 산촌마을	왕피천 피래미축제	민물고기잡기
경남	남해 다랭이마을	다랭이논축제	농사체험, 전통생활체험
	밀양 꽃새미마을	소원 논밭축제	민속놀이, 달집 태우기
	남해 독일마을	남해 독일마을 맥주페스티벌	독일음식 판매
	하동 사기마을	찻사발과 연꽃 반반의 축제	도예체험
제주	성산 성읍민속마을	정의골 민속한마당축제	전통문화체험
	제주 구억마을	구억마을 전통농기축제	농기 만들기 체험
	제주 하도리	최남단 방어축제	방어잡기체험
	제주 저지예술마을	웃뜨르문화제	합창·아리랑 노래자랑

출처: 최자운·김은자·김상범, 「마을축제의 현황과 프로그램 발전방안: 이천 자채방아마을 한마당 축제를 중심으로」, 『농촌지도와 개발』 18권 2호, 2011, 242-244쪽.

3) 지역축제 지속가능성 이론

(1) 문화적 지속가능성

문화적 지속가능성은 지역의 전통문화와 생활문화, 공동체 가치가 지속적으로 유지·계승되는 것을 의미한다.[17] 마을축제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 주민의 삶을 기반으로 운영되며,[18] 특히 주민 참여와 지역문화 자원 활용

17) Mahmoud Zain El Shandidy, 「지속 가능한 발전에 있어서 무형유산의 힘」, 『세계고고학 고등 연구 국제 저널』 제6권 제2호, 2023, 92-97쪽.

18) Deng, Fang, Ruan, Wen-Qi & Zhang, Shu-Ning, "National Traditional Festival Tourism and Visitors' National Identity: A Dual Collaborative Framework of Cultural Inheritance and Inherited Innovation", *Tourism Review*, Vol. 78, No. 3,

을 통해 지역 정체성과 문화생태계 형성에 기여한다.[19]

(2) 경제적 지속가능성

경제적 가능성은 예산 기반과 지역 경제 연계 구조를 기반으로 중장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20] 최근 마을축제는 관광, 지역 상권, 로컬푸드 산업과 연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나,[21] 소규모 축제의 분산 운영은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한계도 제기되고 있다.

(3) 환경적 지속가능성

환경적 지속가능성은 축제 운영 과정에서 환경과 생태 가치를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22] 최근에는 친환경 운영, 로컬푸드 활용, 탄소저감 프로그램 등이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으며,[23]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농촌형 마을축제에서는 환경적 지속가능성이 핵심 요소로 강조되고 있다.[24]

4) 마을축제 연구 동향 및 선행연구 검토

마을축제에 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김성현(2005)과[25] 송태수·최

2023, pp.1019-1035.

19) Alazaizeh, Mohammad M., Mura, Paolo & Jamaliah, Malek M., "How Value Orientation Toward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Matters in Developing Local Cultural Festivals?", *Journal of Heritage Tourism,* Vol. 20, No. 3, 2025,

20) 박희경·전수진·황조혜, 「지속가능한 한국음식축제 활성화시키려고」, 『아태연구』 29권 4호, 2022, 5-37쪽.

21) 조우제, 「성주군축제 지역활성화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 37권 8호, 2022, 85-107쪽.

22) 우미나·손수연, 「친환경적 국내 꽃축제 개최방안 연구 -관광산업 목적을 중심으로-」, 『한국화예디자인학 연구』 제49집, 한국화예디자인학회, 2023, 65-92쪽.

23) 김우혁·김민주·이수연, 「그린축제 속성이 축제 이미지 및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 『MICE관광연구』 제20권 제4호, 한국마이스관광학회, 2020, 7-19쪽.

24) 전영옥, 「축제효과 인식이 지속가능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9권 제4호, 한국자치행정학회, 2025, 1-24쪽.

25) 김성현, 「지역축제의 지역경제활성화 영향 분석」, 『한국행정학보』 제39권 제4호, 한국행정학회, 2005, 221-246 쪽.

재용(2007)은[26] 지역축제가 관광객 유치와 소비지출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분석하였으며, 신동주·허윤정(2013)은[27] 어촌체험축제를 중심으로 체험프로그램이 방문객의 몰입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체험형 축제의 농어촌 활성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김성헌·황찬규·이경영(2023)과[28] 진신·유지건·김영국(2024)은[29] 축제 브랜드자산, 지역이미지, 지역애착도 간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지역축제의 브랜드가치와 경쟁력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마을축제에 관한 기존 연구는 주로 농촌관광 활성화, 지역경제 효과, 축제 브랜드화 등 축제의 경제적·관광적 가치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최근에는 문화도시 정책과 연계하여 생활문화 활성화와 지역문화 생태계 구축 측면에서 마을축제의 역할을 조명하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마을축제의 운영 구조와 주민참여 과정, 공동체 가치 형성, 지역문화 생태계와의 연계,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마을축제의 지속가능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

26) 송태수·최재용, 「지역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한국지역경제연구』 제10권, 한국지역경제학회, 2007, 147-168쪽.

27) 신동주·허윤정, 「어촌체험동기가 체험프로그램의 몰입경험 및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장호어촌체험축제를 중심으로」, 『관광연구』 제27권 제6호, 대한관광경영학회, 2013, 259-278쪽.

28) 김성헌·황찬규·이경영, 「지역축제 브랜드자산과 축제성과의 관계에서 개최지역태도의 매개효과」, 『주거환경』 제21권 제3호, 한국주거환경학회, 2023, 151-166쪽.

29) 진신·유지건·김영국, 「지역축제 브랜드자산, 지역이미지 및 지역애착도 간의 관계 연구: 다롄 맥주축제를 중심으로」, 『비즈니스융복합연구』 제9권 제2호, 한국비즈니스학회, 2024. 167-172 쪽.

3. 홍성군 마을축제 현황 분석

1) 홍성군 마을축제 지원사업[30)]

홍성군은 농촌·해양·역사문화 자원을 기반으로 다양한 마을축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과 문화도시 사업의 추진에 따라 마을축제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25년에는 홍주문화관광재단 문화도시센터의 「마을축제 지원사업」을 통해 총 16개의 마을축제가 운영되었다. 선정된 축제들은 자연환경, 농산물, 전통문화, 생활문화 등 지역 고유 자원을 활용한 주민참여형 축제가 주를 이루며, 체험프로그램, 먹거리 행사, 생활예술 공연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마을축제가 주민 교류와 공동체 활성화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2] 홍성군 주요 마을축제 현황 및 특성

축제명	개최일시	축제유형	주요 특성
원천마을 조롱박축제	2025.8.2.	경관·공동체형	12년 이상 지속된 주민주도형 축제로 조롱박 터널을 활용한 경관자원과 공동체 활동이 결합된 대표 사례
배롱나무축제	2025.8.20.	경관·관광형	배롱나무 가로수길을 활용한 여름 경관축제로 주민참여와 관광자원화가 결합된 축제
동산마을 메밀꽃·무궁화 축제	2025.9.16.	경관·건강·공동체형	꽃길 걷기, 행복걷기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건강·환경·공동체 가치를 결합한 자연친화형 축제
잉어와 나무꾼 스토리 야행축제	2025.9.27.	스토리텔링·야간형	마을 설화를 활용한 야간축제로 조명, 포토존, 체험프로그램을 결합한 가족형 콘텐츠 운영

30) (재)홍주문화관광재단 문화도시센터, 「2025년도 마을축제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참조.

오서산 상담마을 콩·두부축제	2025.9.30.	농촌먹거리·체험형	오서산콩과 두부를 활용한 체험·공예·음식문화 중심의 농촌 특화형 축제
마한시대 사람들 축제	2025.10.2.	역사문화·교육형	마한 유적과 생활문화를 재현한 역사체험 축제로 지역 정체성과 역사교육 기능을 수행
꽃무릇축제	2025.10.3.	생태·경관형	꽃무릇 군락지와 다랭이논 경관을 활용한 생태관광형 축제로 전통 의례와 자연체험이 결합
은하봉 들돌축제	2025.10.9.	전통문화·전승형	농경문화 유산인 들돌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세대 간 전승과 공동체 결속을 강화
원촌마을 어울림한마당 & 노래자랑	2025.10.11.	생활문화·공동체형	주민이 주인공이 되는 참여형 축제로 노래자랑, 전시, 전통놀이를 통해 공동체 소통 강화
발자국 소리 축제	2025.10.11.	생태·농업체험형	친환경농업과 생태교육을 중심으로 걷기·농촌체험·전통놀이를 결합한 녹색문화축제
꽃보다 농부축제	2025.10.18.	농촌교육·생활문화형	농부의 삶과 농업문화를 교육·체험 콘텐츠로 재구성한 가족 중심의 농촌문화축제
구항거북이축제	2025.10.25.	전통민속·의례형	거북이마당놀이와 오방제를 중심으로 전통의례와 민속놀이를 계승하는 문화전승형 축제
놀궁리 해상공원축제	2025.11.15.	해양생태·문화관광형	천수만의 해양생태와 어촌문화를 활용한 해양·생태·야간관광 복합형 축제
홍고통 행복마을 페스티벌	2025.11.22.	생활문화·도시재생형	주민동아리, 전시, 체험, 골목문화가 결합된 도시재생 기반 생활문화 축제

출처: (재)홍주문화관광재단 문화도시센터(2025), 「2025년도 마을축제 지원사업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재구성.

2) 마을축제 운영 특성 분석

(1) 주민참여 구조

홍성군 마을축제는 주민이 기획·운영·홍보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주도형 구조를 통해 공동체 유대감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축제는 특정 운영진 중심으로 참여가 제한되고 있으며, 청년층 참여 부족과 고령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운영 경험과 전문성 부족으로 프로그램이 반복적이고 단순하게 운영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2) 지역자원 활용

홍성군 마을축제는 농산물, 자연환경, 전통문화 등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특색을 반영한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축제는 지역 고유성이 충분히 드러나지 못하고 있으며, 먹거리와 공연 중심의 유사한 프로그램이 반복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3) 관광 연계성

홍성군 마을축제는 소규모 행사 중심으로 운영되어 관광객 유입 효과가 제한적이며, 체류형 관광과 관광상품 연계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합 홍보와 브랜드 인지도가 낮아 지역 관광자원 및 상권과의 연계, 관광 네트워크 구축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3) 홍성 마을축제 관계자 및 주민 심층면담 분석

홍성군 마을축제의 운영 실태와 개선 과제를 파악하기 위해 2025년 지원 대상 16개 마을축제 관계자와 주민을 대상으로 운영 및 참여 경험을 보유한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목적표집(purposive sampling) 방식으로 선정 하여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은 2025년 8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축제 담당자, 주민대표, 자원봉사자, 청년 참여자, 방문객, 행정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반구조화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수집된 자료는 전사(transcription) 후 반복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유사한 의견과 주요

내용을 범주화하여 운영상의 문제점과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였다.

심층면담 결과, 홍성군 마을축제는 주민 참여와 공동체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해결해야 할 몇 가지 과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마을축제의 운영 경험과 노하우가 체계적으로 축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 매뉴얼, 기록화, 성과관리 체계가 미흡하여 담당자 변경 시 경험이 단절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축제 종료 후 평가와 환류 과정도 부족해 운영 역량의 지속적인 발전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둘째, 마을축제의 효과가 축제 기간에 집중되어 장기적 지속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체 화합과 주민 교류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객 유입, 공간 재생 등 지속적인 성과로 이어지는 사례는 제한적이며, 여전히 단기 행사 중심의 운영 구조를 보이고 있다.

셋째, 마을축제 간 교류와 협력체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 경험과 우수사례를 공유할 기회가 제한적이며, 축제 간 네트워크와 정보 공유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지역 차원의 연계와 협력이 이루어질 때 축제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이 더욱 향상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 홍성 마을축제 문제점 분석

(1) 전문인력 양성체계 부족

홍성군 마을축제는 주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기획·홍보·브랜딩을 담당할 전문인력이 부족해 콘텐츠 차별화와 고도화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운영 경험과 노하우의 축적, 전문인력 양성 체계가 미흡하여 축제의 연속성과 지속가능성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2) 콘텐츠 중복

홍성군 마을축제는 농산물과 먹거리 중심의 프로그램 비중이 높으며,

유사한 체험·공연 콘텐츠가 반복되어 축제 간 차별성이 약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외부 방문객 유치와 관광 경쟁력 확보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

(3) 소규모 분산 운영

홍성군 마을축제는 소규모·분산형 운영으로 인해 예산, 인력, 홍보 역량이 분산되고 있으며, 축제 간 경쟁력 격차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운영 구조는 콘텐츠 고도화와 브랜드 구축을 어렵게 하여 축제의 지속가능성과 지역 대표성 확보에 한계를 초래하고 있다.

(4) 지속가능성 한계

홍성군 마을축제는 주민 고령화, 청년 참여 부족, 예산 의존 구조 등으로 인해 지속가능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일부 축제는 행정 지원 없이 독자적 운영이 어려운 상황으로, 주민역량 강화와 청년 참여 확대, 연중 운영체계 구축 등 자생력 확보를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5) 홍성 마을축제 SWOT 분석

[표 3] 홍성 마을축제 SWOT 분석

구분	주요내용
강점	·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생태·농촌자원을 보유 · 문화도시 사업과 연계하여 마을축제 지원체계가 구축되어 있음
약점	· 주민조직의 역량과 참여 수준이 마을별로 차이가 크며, 공동체 기반이 취약한 지역도 존재함. · 축제 운영 경험과 노하우가 체계적으로 기록·관리되지 못하고 있음. · 마을 간 교류와 협력 네트워크가 부족
기회	·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에 따른 정책적·재정적 지원 · 로컬문화, 생활문화, 농촌관광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
위협	·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마을공동체의 유지 약화 · 차별화된 콘텐츠와 브랜드가 부족

SWOT 분석 결과, 홍성군 마을축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지역자원과 문화도시 정책이라는 강점을 활용하는 동시에, 주민조직 역량 강화와 공동체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약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 공동체의 참여와 협력 구조를 강화하고 세대 간 역할 승계를 촉진함으로써 주민이 주체가 되는 지속가능한 마을축제 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6) 홍성 마을축제 개선 방향

전체적인 결과를 종합하면, 홍성군 마을축제는 주민주도 참여와 공동체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문화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운영 경험의 체계적 축적, 축제 효과의 지속성 확보, 마을축제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마을축제 지원사업 및 운영의 방향성은 주민 자생력을 기반으로 한 운영체계 구축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주민역량 강화, 운영 매뉴얼 구축과 성과 기록화, 축제 간 네트워크 형성, 지역 자원과의 연계 확대 등이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즉, 주민역량 강화를 통해 공동체 가치와 지역 정체성이 지속적으로 축적·재생산되는 구조를 마련할 때 지역공동체 기반 마을축제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국내외 마을축제 성공사례 비교 분석

1) 국내 마을축제 사례

(1) 용인시 신갈동「소소한 마을축제」[31)]

「소소한 마을축제」는 주민들이 직접 기획과 운영에 참여하는 주민주도형 마을축제로, 주민 간 소통과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지역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화한 우수사례이다. 특히 도시지역에서도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마을축제 운영이 가능함을 보여주며, 지역공동체 회복과 주민자치 역량 강화에 기여한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2) 대전 어은동「안녕마을 축제」[32)]

「안녕마을 축제」는 주민, 상인, 청년, 대학생 등이 함께 기획하고 운영하는 지역공동체 기반 마을축제로, 주민참여와 협력을 통해 공동체 활성

31) 로컬세계 (2015.09.05.)「용인, 주민공동체 주도 '소소한 마을축제'」 참조.

32) 국토교통부·도시재생지원기구(2021),「마을의 역사는 적극적인 주민참여의 발자취이다 – 대전 어은동 안녕축제 사례」,『도시재생 우수사례집』. 참조

화와 지역 정체성 형성에 기여한 우수사례이다. 특히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주민 간 관계 회복과 지역 네트워크를 강화함으로써, 마을축제가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형성의 핵심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2) 일본 마을축제 사례 분석

(1) 일본 마을만들기와 주민참여형 마을축제[33)]

일본의 마을축제는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지역문제 해결과 공동체 회복을 실현한 대표적인 지역공동체 기반 축제 사례이다. 주민들이 지역의 역사·문화·생활자원을 직접 발굴하고 활용하며 공동체 역량과 자치 능력을 강화하였고, 이를 통해 마을축제가 주민 간 협력과 지역 정체성 형성의 핵심 플랫폼으로 기능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구축하였다.

(2) 일본 히로시마현 구레시「미타라이 야구라 축제」

미타라이 야구라[34)] 축제는 280년 이상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운영해 온 지역공동체 기반 마을축제로, 주민 참여와 협력을 통해 전통문화 계승과 공동체 결속을 실현한 우수사례이다. 특히 주민조직이 축제의 기획과 운영을 주도하며 전통경관 보전, 문화유산 계승, 공동체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공동체 기반 마을축제의 지속가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3) 유럽 마을축제 성공사례 분석

(1) 이탈리아「Alba White Truffle Fair」[35)]

33) 김영주·박남희,「지속가능한 커뮤니티 관점에서 본 일본의 마을만들기 사례 분석」,『가정과삶의질연구』제30권 제4호, 가정과삶의질학회, 2012, 133-146쪽.

34) "야구라"(櫓, やぐら)는 원래 일본의 성에서 '망루'나 '높게 만든 구조물'을 뜻하는 말입니다. 축제에서의 야구라는 봉오도리를 위해 광장이나 신사 경내 한가운데에 임시로 설치하는 높은 단 형태의 무대를 말함

35) Fontefrancesco, M. F., "Food Festivals and Local Development in Italy: A

「Alba White Truffle Fair」는 지역 주민, 농가, 생산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운영하는 지역공동체 기반 축제로, 지역의 전통과 정체성을 공유하고 공동체 협력을 강화한 우수사례이다. 특히 지역 특산물인 화이트 트러플을 중심으로 주민참여와 지역자원의 가치를 높이며,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 발전을 동시에 실현한 대표적인 지역공동체 기반 축제로 평가된다.

(2) 네덜란드 「Festival Hongerige Wolf」[36)]

Festival Hongerige Wolf는 주민들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지역공동체 기반 마을축제로, 주민참여와 공동체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의 장소성과 정체성을 문화예술 콘텐츠로 발전시킨 우수사례이다. 특히 주민, 예술가, 방문객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를 통해 공동체 결속을 강화하고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높였으며, 문화예술을 매개로 지역재생과 공동체 활성화를 실현한 대표적인 지역공동체 기반 축제로 평가된다.

4) 국내외 마을축제 성공 사례의 비교분석 및 시사점

[표 4] 국내외 마을축제 사례의 종합 시사점

분석영역	국내 사례	일본 사례	유럽 사례	홍성군 마을축제에 대한 시사점
운영체계	주민참여 확대 중심	상설 주민조직 운영	주민·민간·공공 협력 거버넌스	지속 가능한 주민주도 운영조직 구축 필요
축제 목적	공동체 활성화	마을만들기 및 관계인구 확대	지역재생 및 지역브랜드 형성	축제를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할 필요
콘텐츠 특성	농산물·체험 중심	전통문화·생활문화 중심	장소성과 스토리 기반 콘텐츠	지역 고유 자원의 차별화 필요
공간 활용	행사장 중심 운영	골목·논·항구 등 생활공간 활용	유휴공간·역사공간 활용	마을 전체를 축제공간으로 활용 필요

Viewpoint from Economic Anthropology", *International Journal of Gastronomy and Food Science*, Vol. 21, 2020.

36) Koreman, M. C. J., "Reinventing a Rural Area: A Case Study into Cultural Festivals in Oldambt, The Netherlands", *Sustainability*, Vol. 15, No. 8, 2023.

방문객 역할	관람객 중심	공동체 참여자	지역 경험자	체험형·관계형 방문객 확대 필요
성과관리	방문객 수 중심	장기적 관계 축적	경제·문화·공동체 종합 평가	지속가능성 중심 평가체계 구축 필요
발전전략	개별 축제 운영	대표 축제 집중 육성	지역브랜드와 연계	대표 마을축제 육성 및 브랜드화 필요

자료: 국내·일본·유럽 마을축제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연구자 재구성.

국내·외 마을축제 성공 사례를 분석한 결과, 성공적인 마을축제는 주민이 주체가 되어 자생력을 갖춘 상태에서 지역의 역사·문화·생활자원을 활용하고, 공동체의 정체성과 결속을 강화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주민과 축제 방문객, 지역사회 간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형성하며 지역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실현하고 있었다.

5. 홍성군 마을축제 지속가능 방안

홍성군 마을축제 운영 현황과 심층면담, 국내외 성공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홍성군 마을축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

홍성군 마을축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 확대, 지역 자원 활용,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중심으로 하는 다음과 같은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주민이 축제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기획단과 마을축제 위원회 등 상설 운영조직을 구축하여 공동체 중심의 운영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축제기획, 홍보·마케팅, 스토리텔링 등의 교육을 통해 주민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내 축제 전문인력을 육성해야 한다. 특히 청년층의 참여

를 확대하여 세대 간 역할 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홍주읍성, 천수만, 농촌경관, 로컬푸드 등 지역 고유의 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하여 마을축제의 경쟁력과 지역 정체성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개별 축제 간 교류와 협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축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우수사례와 운영 경험을 공유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방문객 수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주민참여, 공동체 활성화, 지역 정체성 강화 등 지속가능성 중심의 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결국 홍성군 마을축제의 지속가능성은 주민조직의 역량 강화와 지역공동체의 참여 확대를 통해 실현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공동체 기반의 지속가능한 마을축제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지역정체성 및 시스템 체계 구축

(1) 지역자원 기반 콘텐츠 강화

지속가능한 마을축제는 지역의 역사·문화·생태·생활자원을 기반으로 운영될 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홍성군은 로컬푸드, 농촌경관, 해양자원, 역사문화유산 등 지역 고유의 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축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

(2) 주민 중심의 연중 운영체계 구축

마을축제는 일회성 행사가 아닌 주민이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 활동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주민기획단과 마을축제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축제 준비, 운영, 평가가 연중 이루어지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3) 주민 중심의 축제 네트워크 구축

지속가능한 축제를 위해서는 주민 중심으로 마을 간 운영 경험과 우수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축제 운영 역량을 축적하고 지역공동체 간 연대를 강화할 수 있다.

(4) 성과관리 체계 마련

마을축제의 성과는 방문객 수나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주민참여, 공동체 활성화, 지역 정체성 강화 등 사회·문화적 가치까지 포함하여 평가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다.

3) 홍성 마을축제 육성 단계별 실행 로드맵

지역공동체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홍성 마을축제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별 실행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 5] 홍성 마을축제 육성 단계별 실행 로드맵

단계	전략 방향	세부 실행 내용
1년차 기반 구축	홍성 전체 마을축제 진단 및 경쟁력 평가	16개 마을축제 정량·정성 평가를 통한 대표 마을축제 선정
	마을축제 집중 지원 기반 조성	홍주문화관광재단·문화도시센터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
	주민기획단 및 청년축제기획팀 구성	대표 마을축제별 주민기획단 조직 및 주민참여 비중 확대
	마을축제 프로그램 및 콘텐츠 재정비	운영 프로그램 정비 및 정체성 강화 콘텐츠 재구성
2년차 실행 확장	관광과 지역경제 연계 구축	관광코스·로컬푸드·상권 연계 프로그램 본격화
	프로그램 고도화	브랜딩·홍보·스토리텔링을 통한 콘텐츠 차별성 확보
	연중형 축제 운영 확대	사전 교육·상시 체험·사후 평가로 이어지는 연중 운영 모델 정착
	친환경 지속가능성 강화	친환경 운영 기준 및 탄소저감형 운영 방식 도입
	마을 간 네트워크 활성화	대표 마을축제 운영자 간 정례 회의 및 공동 프로젝트 운영
3년차 고도화·안정화	성과 평가 및 체계 개선	지원 효과성·경제 파급력·지속가능성 종합 평가 실시
	홍성형 지속가능 마을축제 모델 확립	브랜드화된 대표 마을축제 기반의 홍성형 운영 모델 구축
	국제 교류 기반 마련	일본·유럽 해외 마을축제 교류 및 해외 전문가 자문 추진
	정책 체계화	기획·지원·평가 시스템 구축을 통한 중장기 안정 구조 정착

6. 결론

1) 지역공동체 기반 마을축제 지속가능 방안

본 연구는 지역공동체 기반 마을축제의 지속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홍성군 마을축제 사례를 중심으로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국내외 마을축제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 마을축제의 지속가능성은 단순히 축제의 규모나 방문객 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참여, 공동체 역량, 지역 정체성, 지역자원의 활용, 주민주도의 운영체계, 그리고 축제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홍성군 마을축제의 경우 농촌·해양·역사문화 자원 등 지역 고유의 자원을 기반으로 주민이 직접 기획과 운영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문화 생태계 형성에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운영 경험과 노하우의 체계적 축적 부족, 전문인력의 부재, 주민조직 역량의 편차, 청년층 참여 부족, 축제 간 협력체계 미흡, 예산 의존적 운영구조 등은 지속가능성을 제약하는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공동체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마을축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행사 지원을 넘어 주민조직의 역량 강화, 지역자원 기반 콘텐츠 고도화, 축제 네트워크 구축, 지속가능성 중심의 성과관리 체계 마련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본 연구의 학술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 이번 연구는 마을축제를 단순한 지역행사나 관광 이벤트가 아니라 지역공동체를 재구성하고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며 지역문화 생태계를 재생산하는 문화적 플랫폼으로 해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존 지역축제 연구가 주로 관광객 유치, 경제적 파급효과, 축제 만족도, 브랜드 가치 등에 초점을 둔 반면, 이번 연구는 주민참여와 공동체 역량, 지역 정체성, 문화적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마을축제를 분석함으로써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였다. 둘째, 마을축제의 지속가능성을 문화적·경제적·환경

적 지속가능성의 관점과 함께 주민조직, 지역자원, 거버넌스, 성과관리 체계라는 운영 구조의 문제로 접근하였다. 이는 지속가능한 마을축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축제의 외형적 성과뿐 아니라 축제를 준비하고 운영하는 공동체 내부의 역량, 주민 간 관계망, 세대 간 역할 승계, 지역자원 활용 방식 등을 함께 분석해야 함을 보여준다. 셋째, 홍성군 마을축제 사례를 통해 주민주도형 축제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사례연구로서의 의의가 있다. 홍성군은 문화도시 정책과 연계하여 다양한 마을축제를 육성하고 있으나, 축제별 운영 수준과 주민참여 범위, 콘텐츠 차별성에는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은 마을축제의 지속가능성이 행정적 지원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조직의 자생력, 운영 경험의 축적, 지역 간 협력구조의 형성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사례 비교를 통해 마을축제의 지속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는 공통 요인을 도출하였다. 국내 사례는 주민참여와 도시재생 연계, 일본 사례는 전통문화 계승과 주민조직의 지속성, 유럽 사례는 지역 특산물과 장소성을 활용한 브랜드화 및 지역재생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마을축제는 지역의 역사·문화·생활자원을 주민이 주체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공동체적 경험과 지역 브랜드로 전환할 때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마을축제 지원정책은 단기적 행사비 지원을 넘어 지속가능한 축제 생태계 조성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행정과 중간지원조직은 축제 기획, 주민교육, 홍보, 성과관리, 기록화, 네트워크 구축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민주도형 운영체계의 안정적 구축이 필요하다. 특정 인력 의존을 줄이기 위해 주민기획단과 축제위원회 등 상설조직을 운영하고, 청년층·귀촌인·지역 예술인 등의 참여를 확대하여 세대 간 역할 승계와 개방형 참여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지역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차별화가 필요하다. 홍성군은 다양한 자연·역사·문화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일부 축제는 유사한 프로그램이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각 마을의 고유 자원을 스토리텔링, 체험, 교육, 관광 콘텐츠와 연계하여 차별화된 축제 브랜드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마을축제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홍성군 차원의 협의체를 통해 운영 매뉴얼, 홍보 플랫폼, 공동 교육 및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축제 간 상호학습과 연대를 기반으로 지역문화 생태계를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성과관리 체계는 방문객 수와 경제효과 중심에서 주민참여, 공동체 활성화, 지역 정체성 강화 등 지속가능성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또한 축제 종료 후 평가와 환류를 체계화하고, 운영 노하우와 기록을 축적하는 아카이브 구축이 필요하다. 여섯째, 마을축제를 지역관광 및 지역경제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 관광코스, 로컬푸드, 농촌체험, 지역상권 등과의 연계를 통해 관계인구를 확대하되, 주민의 삶과 지역 정체성을 중심에 두는 균형 있는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정책적 제언 및 연구의 한계

이러한 연구의 시사점을 통해 지역공동체 기반 마을축제는 인구감소와 공동체 약화라는 지역사회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문화적 실천이자, 지역 정체성과 사회적 자본을 재생산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마을축제가 지속가능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민이 축제의 주체가 되고, 행정과 중간지원조직은 이를 지원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지역자원의 차별화, 주민역량 강화, 축제 간 네트워크, 지속가능성 중심의 성과관리가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홍성형 마을축제 모델은 지역문화 생태계 구축과 공동체 회복의 실질적 기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유의미한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홍성군 마을축제를 사례 중심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모든 지역의 마을축제에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전국 단위 마을축제 사

례를 비교 분석하고, 주민참여가 공동체 의식, 사회적 자본, 지역애착도, 지역경제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축제 참여 주민, 방문객, 행정 담당자, 중간지원조직 간의 인식 차이를 비교하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지역공동체 기반 마을축제의 지속가능성 논의를 더욱 심화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논문

고영은·주소현, 「마을축제 경험, 축제만족도, 사회적 자본의 관계」, 『사회과학연구논총』 제38권 제1호, 이화사회과학원, 2022, 133-164쪽.

구문모, 「문화관광축제 지원 사업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 시사점 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제6권 제1호, 국제인문사회연구학회, 2024, 19-34쪽.

구자인, 「농촌사회의 변화와 지역공동체의 재구성」, 『농촌사회』 제32권 제1호, 한국농촌사회학회, 2022, 191-228쪽.

김동례·박진영·임형택, 「마을만들기 참여도 및 관심도와 문화예술 인식도 및 참여도가 지역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21』 제10권 제2호, 아시아문화학술원, 2019, 779-790쪽.

김성현, 「지역축제의 지역경제활성화 영향 분석」, 『한국행정학보』 제39권 제4호, 한국행정학회, 2005, 221-246쪽.

김성헌·황찬규·이경영, 「지역축제 브랜드자산과 축제성과의 관계에서 개최지역 태도의 매개효과」, 『주거환경』 제21권 제3호, 한국주거환경학회, 2023, 151-166쪽.

김숙희, 「마을음악회와 문화예술 활동의 효과 및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4.

김영주·박남희,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관점에서 본 일본의 마을만들기 사례 분석」, 『가정과삶의질연구』 제30권 제4호, 가정과삶의질학회, 2012, 133-146쪽.

김우혁·김민주·이수연, 「그린축제 속성이 축제 이미지 및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 『MICE관광연구』 제20권 제4호, 한국마이스관광학회, 2020, 7-19쪽.

마상진 외, 「농촌과 청년: 청년세대를 통한 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1/2차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Vol.202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2, 1-274쪽.

박희경·전수진·황조혜, 「지속가능한 한국음식축제 활성화 연구」, 『아태연구』 제29권 제4호,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2022, 5-37쪽.

변상이, 「마을축제 참여 동기와 감정이 지속참여 의도 및 추천 의도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5.

송태수·최재용, 「지역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한국지역경제연구』 제10권, 한국지역경제학회, 2007, 147-168쪽.

신동주·허윤정, 「어촌체험동기가 체험프로그램의 몰입경험 및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장호어촌체험축제를 중심으로」, 『관광연구』 제27권 제6호, 대한관광경영학회, 2013, 259-278쪽.

안성혜, 「지역문화축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기획 방안의 모색」,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8권 제12호, 한국콘텐츠학회, 2008, 168-177쪽.

오훈성, 「문화관광축제 정책에 대한 가치비평적 접근분석」, 『관광연구저널』 제34권 제7호, 한국관광연구학회, 2020, 21-35쪽.

유상춘, 「농촌지역 축제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진안홍삼축제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0.

유지윤, 「문화 콘텐츠를 이용한 지역재생사업의 방향 모색: 농촌 공동체 지역 활성화 사례 중심으로」, 『사회통합연구』 제3권 제1호, 강원대학교 사회통합연구센터, 2022, 121-140쪽.

윤상헌·이한성, 「농촌 마을축제 실태 및 활성화 방안」, 『한국농촌계획학회지』 제20권 제3호, 한국농촌계획학회, 2014, 1-9쪽.

이상호, 「지방소멸 2024: 광역대도시로 확산하는 소멸위험」, 『지역산업과 고용』, 한국고용정보원, 2024, 126-137쪽.

임묵·장인식, 「지역공동체 기반 마을축제 활성화 방안」, 『관광학연구』 제35권 제2호, 한국관광학회, 2011, 167-188쪽.

전영옥, 「축제효과 인식이 지속가능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9권 제4호, 한국자치행정학회, 2025, 1-24쪽.

조우제, 「성주군축제 지역활성화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 제37권 제8호, 대한관광경영학회, 2022, 85-107쪽.

진신·유지건·김영국, 「지역축제 브랜드자산, 지역이미지 및 지역애착도 간의 관계연구: 다롄 맥주축제를 중심으로」, 『비즈니스융복합연구』 제9권 제2호, 한국비즈니스학회, 2024, 167-172쪽.

최자운·김은자·김상범, 「마을축제의 현황과 프로그램 발전방안: 이천 자채방아마을 한마당축제를 중심으로」, 『농촌지도와 개발』 제18권 제2호, 한국농촌지

도학회, 2011, 242-244쪽.

El Shandidy, Mahmoud Zain, “The Power of Intangible Heritage in Sustainable Develop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Research in World Archaeology*, Vol. 6, No. 2, 2023, pp.92-97.

Deng, Fang, Ruan, Wen-Qi & Zhang, Shu-Ning, “National Traditional Festival Tourism and Visitors’ National Identity: A Dual Collaborative Framework of Cultural Inheritance and Inherited Innovation”, *Tourism Review*, Vol. 78, No. 3, 2023, pp.1019-1035.

Fontefrancesco, M. F., “Food Festivals and Local Development in Italy: A Viewpoint from Economic Anthropology”, *International Journal of Gastronomy and Food Science*, Vol. 21, 2020.

Koreman, M. C. J., “Reinventing a Rural Area: A Case Study into Cultural Festivals in Oldambt, The Netherlands”, *Sustainability*, Vol. 15, No. 8, 2023.

Alazaizeh, Mohammad M., Mura, Paolo & Jamaliah, Malek M., “How Value Orientation Toward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Matters in Developing Local Cultural Festivals?”, *Journal of Heritage Tourism*, Vol. 20, No. 3, 2025.

인터넷 사이트

군산시 - 도시재생사업, https://www.gunsan.go.kr/urban, 2025.05.29.

문화체육관광부 - 지역축제 운영 가이드라인, https://www.mcst.go.kr, 2023.3.17

문화체육관광부 - 2024 문화관광축제 종합평가보고서, https://www.mcst.go.kr, 2025.4.4.

서대문구 도시재생지원센터 - 나와 우리의 이야기로 탄생한 천연충현 도시재생 마을축제 나우리 축제, https://www.sdmurc.or.kr, 2020.10.30.

홍주문화관광재단 - 2025년 마을축제 지원사업 선정 공고, https://www.hjctf.or.kr, 2024.7.18.

広島県文化財情報サイト - 御手洗櫓祭りの歴史（280年以上の伝統）, https://bunka.nii.ac.jp, 2025.05.29.

국문초록

본 연구는 지역공동체 기반 마을축제의 지속가능성을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충청남도 홍성군 사례를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최근 지방소멸과 공동체 약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마을축제는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공동체 회복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이끄는 문화적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마을축제의 문화적·경제적·환경적 지속가능성을 검토하고, 운영 현황과 과제를 분석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마을축제 관련 선행연구와 정책자료에 대한 문헌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홍성군 16개 마을축제 관계자와 주민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수행하였다. 또한 국내 마을축제 사례와 일본 및 유럽의 주민참여형 마을축제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지속가능성 요인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홍성군 마을축제는 축제 운영 경험의 체계적 축적 부족, 전문인력 부재, 청년층 참여 저조, 축제 간 협력체계 미흡, 예산 의존적 운영구조 등의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축제는 콘텐츠 차별성과 관광 연계성이 부족하여 지속가능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주민역량 강화, 청년 참여 확대, 지역자원 기반 콘텐츠 고도화, 마을축제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속가능성 중심의 성과관리 체계 마련 등을 주요 발전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마을축제를 단순한 지역행사나 관광상품이 아닌 지역공동체 회복과 사회적 자본 형성, 지역문화 생태계 구축을 위한 문화적 플랫폼으로 조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연구 결과는 향후 지역공동체 기반 마을축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수립과 정책적 지원 방향을 모색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마을축제, 지역공동체, 지속가능성, 주민참여, 지역문화생태계

Abstract

Sustainability of Community-Based Village Festivals
: A Case Study of Village Festivals in Hongseong County

Lee, Hwa Hyung / Korea Culture and Arts Research Institute
Lee Hee Sung / Dankook University
Kim, Su JI / Korea Culture and Arts Research Institute
Choi, Young Seok / Hongju Cultural & Tourism Foundation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sustainability of local community-based village festivals and explore development strategies, focusing on the case of Hongseong-gun, Chungcheongnam-do. Amidst the recent intensification of regional decline and community weakening, village festivals are garnering attention as cultural platforms that lead to community recovery and the revitalization of local culture based on resident participation. Accordingly, this study examined the cultur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of village festivals, analyzed their operational status and challenges, and based the results, presents direction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 research methodology involved a literature analysis of prior studies and policy data related to village festivals, as well as in-depth interviews with stakeholders and residents of 16 villages hosting festivals in Hongseong-gun. Additionally, sustainability factors were derived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domestic village festival cases with resident-participatory village festivals in Japan and Europe.

The research results revealed that village festivals in Hongseong-gun face limitations, including a lack of systematic accumulation of operational

experience, an absence of professional personnel, low participation among youth, insufficient cooperation systems among festivals, and an operational structure dependent on the budget. Furthermore, it was analyzed that some festivals are struggling to secure sustainability due to a lack of content differentiation and tourism connectivity.

Accordingly, this study proposes key development strategies, including strengthening resident capabilities, expanding youth participation, enhancing content based on local resources, establishing cooperative networks among village festivals, and creating a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centered on sustainability. Furthermore, this study contributes to a broader understanding of village festivals by positioning them not simply as local events or tourism products, but as cultural platforms that strengthen community resilience, foster social capital, and support the development of regional cultural ecosystems. The findings offer prac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community-based village festivals and may serve as a useful reference for future cultural policy and regional development initiatives

Keyword ● Village festival, Local community, Sustainability, Resident participation, Local cultural ecosystem

▌논문투고일:2026.05.31. ▌심사완료일:2026.06.19. ▌게재확정일:2026.06.25. ▌

● ● ● https://doi.org/10.54698/kl.2026.21.837
지식과 교양, 제21호,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Knowledge and Liberal Arts, Vol. 21, LIC, pp.837-868.

AI 연구의 발전과 사회적 책임

: 기술에서 통제와 거버넌스까지*

오 상 훈**

목 차

1. 서론
2. AI 기술의 발전
3. AI 기술의 응용
4. 기대와 현실
5. 위험과 안전성
6. 통제와 거버넌스
7. 맺음말

1. 서론

2022년 12월 OpenAI가 ChatGPT를 발표한 이후로 거대언어모델(LLM. Large Language Model)의 활용은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전공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생활 속에 깊숙이 스며들게 되었다.[1] ChatGPT의 기반이 되는 GPT는 지속적으로 성능을 개선하고

* 본 논문은 최근 AI와 관련하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정리한 다섯 가지 프레임의 명칭 부여와 각 영역의 내용 보완을 위해 생성형 AI(ChatGPT GPT-5, Perplexity)를 보조적으로 활용하였으며, 모든 내용은 저자가 검토·검증하였다.

** 목원대학교 AI응용학과 교수

1) ChatGPT, https://openai.com/chatgpt, 2026.04.23.

있으며, 구글은 2025년 11월에 추론 능력, 멀티모달 이해, 에이전트 기능 등을 지닌 Gemini 3.0을 발표하여 GPT-5와 경쟁 관계를 형성하였다.[2] 또한, 2025년 1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LLM 모델 딥시크-R1을 발표하여 미국 거대 기술 기업 위주의 인공지능 판도를 크게 흔들어놓았다.[3] 2026년 2월 발표된 중국 바이트 댄스의 AI 영상 생성 모델 '시댄스 2.0'은 프롬프트 몇 줄로 생성한 짧은 영상이 미국 할리우드 영화 산업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4] 이제 전 세계의 많은 국가와 기업들이 미래의 핵심 기술인 AI 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AI 기술이 LLM 위주의 언어 활동을 위한 영역을 넘어서, 사람의 대리자 역할을 수행하는 AI 에이전트(Agent)도 개발되고 있으며, 그 응용 영역을 과학 연구로 넓혀가고 있다. 실로 AI가 세상의 변혁을 이끌어 갈 것이라는 기대가 전 세계적으로 가득하다. 그렇지만, 이러한 기대와 달리 현실에는 아직 많은 간극이 존재하며, AI 기술의 위험성 역시 우리 곁에 등장하고 있다. 이에, AI 기술을 안전하게 다루기 위한 통제와 거버넌스(Governance)에 대한 논의가 깊어지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AI 기술의 핵심인 트랜스포머(transformer)를 간략히 소개하고 트랜스포머가 언어모델의 영역을 넘어서 영상, 시계열 예측 등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음을 설명한다. 또한, 편향(bias)을 유발하는 데이터 불균형 문제의 접근법들도 알아본다. AI의 응용이 과학 연구 자동화의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구글이 개발한 부과학자(Co-Scientist), 알파이볼브(AlphaEvolve), 알파지놈(AlphaGenome)을 살펴본다. 이와 같이 AI 기술이 세상을 변혁시키어 나가는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현실의 간극도 알아본다. AI 기술의 위험성과 관련하여,

2) 구글 코리아 블로그-기업소식, https://blog.google/intl/ko-kr/company-news/technology/google-gemini-3/, 2025.11.19.

3)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딥시크, 2026.04.23.

4) 박종진, "딥시크 이어 시댄스…중국 AI에 미국 또 '설 연휴 충격'", <전자신문>, 2026.2.15.

LLM 모델이 지닌 환각(Hallucination)의 구조적 원인과 AI 안전성의 구체적인 영향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AI 시스템의 동작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논의와 안전한 AI 모델의 배포를 위한 AI 레드팀 활동을 설명하고,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한 보건의료 분야의 윤리 및 거버넌스를 알아본다. 즉, 최근 AI와 관련하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기술 발전, 응용, 기대와 현실, 위험과 안전성, 그리고 통제와 거버넌스의 다섯 단계 프레임으로 정리하였다.

2. AI 기술의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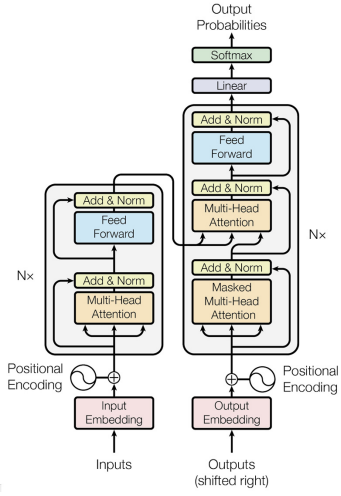
1) 트랜스포머

LLM의 핵심 기술인 트랜스포머는 기존의 시퀀스 변환 구조인 인코더-디코더를 따르면서 어텐션(Attention)에 기반한 모델이다. 이 모델의 우수한 성능은 그 적용 영역을 자연어처리(NLP, Natural Language Processing)에서 넓혀나가, 영상에 적용된 비젼 트랜스포머(ViT, Vision Transformer)와 다변량 시계열 데이터에 적용된 시계열 트랜스포머(TST, Time Series Transformer) 등이 제시되었다. 여기서는 NLP의 핵심기술로 자리 잡은 트랜스포머의 구조와 동작 원리를 살펴보고, 영상처리 ViT와 다변량 시계열 트랜스포머 TST도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신중하며 분석적인 사고인 “시스템 2 사고”를 모방하여 모델의 학습과 사고 능력을 동시에 확장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된 에너지 기반 트랜스포머(EBT, Energy-Based Transformers)에 대하여 알아본다.

(1) 트랜스포머의 구조와 동작원리

시퀀스 변환을 위해 복잡한 구조를 완전히 없애고, 오직 어텐션 메커니즘만을 기반으로 새롭게 제시된 간단한 네트워크 아키텍처가 트랜스포머이다.[5)]

대부분의 신경망 기반 시퀀스 변환 모델은 인코더-디코더 구조를



[그림 1] 트랜스포머 구조

가지고 있다. 인코더는 입력 시퀀스 $\boldsymbol{x}=(x_1,x_2,...,x_n)$를 받아, 연속적인 시퀀스 $\boldsymbol{z}=(z_1,z_2,...,z_n)$로 변환한다. 그런 다음, 디코더는 이 z를 바탕으로 기호들로 이루어진 출력 시퀀스 $\boldsymbol{y}=(y_1,y_2,...,y_m)$을 한 번에 하나씩 생성한다. 각 단계에서 모델은 자기회귀 방식으로 작동하며, 이전에 생성된 기호들을 다음 기호를 생성할 때 추가 입력으로 사용한다. 트랜스포머는 전체적으로 이러한 아키텍처를 따르며, 인코더와 디코더 모두에 대해 스택 형태의 셀프 어텐션과 포인트 와이즈(point-wise) 완전 연결 계층을 사용한다. 그림 1의 왼쪽이 인코더이고 오른쪽은 디코더이다.

먼저, 인코더는 동일한 구조가 N층(N=6)으로 구성된 스택이다. 각 층은 두 개의 서브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서브 레이어는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MHSA, Multi-Head Self Attention) 메커니즘 층이며, 두 번째 서브 레이어는 위치별 완전 연결 전방향 신경회로망이다. 각 서브 레이어에는 잔차 연결 적용 후 레이어 정규화(LayerNorm)가 수행된다. 즉, 해당 서브 레이어 함수 $\mathrm{Sublayer}(\boldsymbol{x})$가 계산된 후에 각 서브 레이어의 출력이 $\mathrm{LayerNor}(\boldsymbol{x}+\mathrm{Sublayer}(\boldsymbol{x}))$과 같이 잔차 연결과 결합 된 형태이다.

디코더 역시 동일한 구조의 N층(N=6)으로 구성된 스택이다. 각 인코더 층에 포함된 두 개의 서브 레이어 외에, 디코더는 세 번째 서브 레이어를

5) Vaswani, A. et al. "Attention Is All You Need", *Proceedings of the 31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Long Beach, 4-9 December 2017, pp.6000-6010.

추가로 포함하며, 이는 인코더 스택의 출력에 대해 멀티-헤드 어텐션을 수행한다. 인코더와 마찬가지로, 각 서브 레이어에서 잔차 연결 적용 후 레이어 정규화가 수행된다. 또한 디코더 스택의 셀프 어텐션 서브 레이어는 현재 위치가 이후 위치를 참조하지 못하도록 마스킹을 사용하였다. 이 마스킹은 출력 임베딩이 한 위치만큼 오른쪽으로 이동(offset)되는 것과 결합되어, 위치 i의 예측이 위치 i보다 이전 위치들의 출력에만 의존하도록 한다.

특히, 트랜스포머는 각각 서로 다른 변환을 h번 수행하는 MHSA을 적용하는데, 이 방식은 서로 다른 표현 서브 공간에서 서로 다른 위치의 정보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해준다. 셀프 어텐션 기반 아키텍처인 트랜스포머는 NLP에서 최선호 모델이며, 대규모 텍스트 코퍼스로 사전 학습(pre-training)을 수행한 후, 작은 크기의 작업(task) 특화 데이터 셋으로 미세 조정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트랜스포머의 계산 효율성과 확장성 덕분에, 1000억 개가 넘는 파라미터를 가진 초대형 모델도 학습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2) 비젼 트랜스포머, 시계열 트랜스포머, 에너지 기반 트랜스포머

NLP에서의 트랜스포머 성공 사례에 착안하여 표준 트랜스포머를 가능한 최소한의 수정만으로 컴퓨터 비젼 분야에 적용한 모델이 비젼 트랜스포머 ViT[6]이다. 즉, 이미지를 작은 패치들로 나눈 뒤, 이 패치들의 선형 임베딩 시퀀스를 트랜스포머에 입력한다. 이때 이미지 패치들은 NLP에서의 토큰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이를 위해 이미지 $\boldsymbol{x} \in R^{H \times W \times C}$를 평탄화된 2차원 패치들의 시퀀스 $\boldsymbol{x}_p \in R^{N \times (P^2 C)}$로 변환한다. 여기서 (H, W)는 원본 이미지의 해상도이고, C는 채널 수, (P, P)는 각 이미지 패치의 해상도이다. $N = HW/P^2$는 생성되는 패치의 수로, 이는 트랜스포머의 실질적인 입력 시퀀스 길이

6) Dosovitskiy, A. et al. “An image is worth 16x16 words: transformers for image recognition at scale”, 2021, arXiv:2010.11929v2.

로 사용된다. ViT를 큰 데이터(1,400만~3억 개 이미지)로 사전 학습시킨 후 데이터가 적은 작업에 전이 학습하면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

시계열 데이터 트랜스포머 TST[7]는 입력 디노이징 목적 함수를 통해 트랜스포머 모델을 먼저 학습시켜, 다변량 시계열의 밀집 벡터 표현을 추출한다. 이렇게 사전 학습된 모델은 이후 회귀, 분류, 결측치 보간, 예측 등 다양한 작업에 적용될 수 있다. TST의 핵심은 트랜스포머의 인코더만을 사용하고 디코더 부분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며, 다변량 시계열 데이터가 트랜스포머와 호환되도록 변경시킨 것이다.

이제 에너지 기반 트랜스포머 EBT[8]에 대하여 알아보자. 심리학은 인간의 사고를 "시스템 1 사고"와 "시스템 2 사고"로 분류한다. 시스템 1 사고는 빠르고 직관적이며 자동적인 반응이 특징으로, 이전의 경험에 의존하여 단순하거나 익숙한 문제를 해결한다. 반면, 시스템 2 사고는 느리고 신중하며 분석적인 사고로, 복잡한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의식적인 노력과 논리적 추론이 필요하다. 시스템 2 사고는 수학, 프로그래밍, 다단계 추론 등과 같이 자동적인 패턴 인식을 넘어서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때 필수적이며, 정밀성과 깊이 있는 이해가 중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현재 AI 모델은 시스템 1 사고에 적합한 과제에서는 뛰어나지만, 시스템 2 능력이 요구되는 과제에서는 여전히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먼저, 계산 자원의 동적 할당으로, 인간이 직면하는 과제의 난이도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과제에 할당하는 계산 자원의 양을 조절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연속 상태 공간에서의 불확실성 모델링으로, 인간은 결정에 도달하기 전에 자신이 얼마나 불확실한지를 고려한다. 세 번째는 예측의 검증으로, 언제 사고를 멈출지 또는 가장 정확한 예측을 선택할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실제로, 예측 검증

7) Zerveas, G. et al. "A Transformer-Based Framework for Multi-Variate Time Series Representation Learning", 2020, arXiv:2010.02803v3.

8) Gladstone, A. et al. "Energy-Based Transformers are Scalable Learners and Thinkers", 2025, arXiv:2507.02092v1.

이 인간 사고의 핵심 구성 요소이다.

이 세 가지 측면을 달성하고 시스템 2 사고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시되었던 에너지 기반 모델(EBM, Energy-Based Model)은 입력 변수들의 각 구성(configuration)에 에너지 값을 부여함으로써, 문맥과 후보-예측 사이 같은 변수 간의 호환성과 상호작용을 모델링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방식은 진짜 데이터가 존재하는 영역에는 낮은 에너지를 부여하고, 그 외의 영역에는 높은 에너지를 부여하는 것에 집중한다.

그렇지만, EBM은 병렬 처리 가능성, 학습 안정성, 확장성에서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트랜스포머가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을 지녔다. 따라서 트랜스포머가 EBM을 확장하기에 적합한 아키텍처로 간주 되어, 인간의 시스템 2 사고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EBT가 제안되었다.

트랜스포머는 AI의 핵심 모델로 널리 활용되고 있지만, 시퀀스 길이가 증가할수록 계산 복잡도와 메모리 요구량이 많이 늘어나고, 더불어 동적 상태 추적과 장기적 일관성 유지에 한계가 있다. 결국, 하드웨어 자원 확대와 운영 비용 증가를 초래하며, 출력 일관성 저하로 사용자 경험을 악화시킬 수 있다.

2) 데이터의 불균형

AI 모델에서 나타나는 편향은 단순히 기술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으로도 심각하게 영향을 끼친다. 즉, 학습 데이터에 있던 성별·인종·문화적 고정관념이 그대로 답변에 반영되어 사회적 편향이 재생산된다. 채용·의료·법률 같은 민감한 분야에서 특정 집단에 불리한 추천이나 평가에 의해 불공정한 판단이 발생한다. 편향이 사실처럼 사용자에게 전달되어 잘못된 인식이 강화되고, 허위 혹은 왜곡된 정보가 확산된다. 영어권 중심 데이터에 치우치면 비서구권 언어, 문화, 지역에 대해 성능이 저하된 답변이 얻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편향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가 학습 데이터의 불균형 문제이다. AI 모델들은 학습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들의

분포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가정 하에, 다양하게 개발되었다. 그렇지만, 많은 영역에서 데이터 분포가 심각하게 치우쳐있는 불균형 데이터를 다루고 있으며, 이 경우 일반적인 AI 모델들은 성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제까지 데이터 불균형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제시되었던 기존 기법들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뉘어 질 수 있다.[9)10)] 먼저, 데이터 전처리 기법은 주어진 불균형 데이터를 처리하여 데이터 분포를 수정함으로써 표준 알고리즘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불균형 데이터를 학습에 직접 적용하기보다는, 먼저 데이터 분포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전처리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 기법은 기존의 어떤 학습 기법에도 적용할 수 있다. 그렇지만, 새로운 합성 데이터를 생성하는 경우에는 합성 데이터의 목표 변수 값을 정확하게 결정하는 것은 어렵다. 알고리즘 구조 접근 방식은 불균형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새로운 알고리즘을 만들거나 기존 알고리즘을 수정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들은 학습 목표가 모델에 직접적으로 반영된다. 그렇지만, 데이터 분포에 맞게 적절한 알고리즘을 선택하기 위한 깊은 지식이 필요하다. 하이브리드 기법은 불균형 문제를 처리하거나 전체 솔루션의 특정 부분에 여러 접근 방식을 사용한다. 이러한 기법은 서로 다른 방법들이 적절히 상호 보완됨을 바탕으로 다양한 유형의 전략을 혼합하여 각 방법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시도한다.

3. AI 기술의 응용

트랜스 포머를 기반으로 한 AI 기술의 발전은 거대 기술 기업들이 LLM을 개발하여 널리 배포하게 하였다. LLM은 광범위한 작업에서 전문인 수준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언어 모델이 소수의 특화된 작업 만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에이전트형(Agentic) AI 시스템의 부상은 전문적인 영역에서 전

9) Rezvani S. & X. Wang., “A Broad Review on Class Imbalance Learning Techniques”, *Applied Soft Computing*, vol. 143, 2023, p.110415.

10) Oh, S.-H., “Error back-propagation algorithm for classification of imbalanced data”, *Neurocomputing*, vol. 74, 2011, pp.1058-1061.

문인을 대신하는 AI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물론, AI 에이전트를 구동하는 핵심 구성 요소는 LLM이지만, AI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AI 에이전트의 LLM을 충분한 성능을 지닌 소형 언어모델(SLM, Small Language Model)로 대체하면 비용 절감을 비롯한 AI 자원의 효율적 활용 효과를 얻을 수 있다.[11] 즉, 추론·배포·운영이 가벼워지는 비용절감 효과와 민첩한 작업이 가능하게 되어 사용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킨다. 또한, 자원 절감과도 연결된다.

한편, LLM을 과학 연구에 적용하여 자동화를 이루려는 시도는 가설 수립, 실험 계획 및 구현, 과학 문서 작성, 동료 심사 분야에 걸쳐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었다.[12] 여기서는 LLM을 과학 연구 자동화에 응용하기 위하여 개발된 에이전트형 AI의 대표적 사례인 구글의 부과학자, 알파이볼브와 알파지놈을 설명한다.

1) 구글의 부과학자, 알파이볼브, 알파지놈

구글의 부과학자[13]는 Gemini 2.0을 기반으로 한 다중 에이전트 AI 시스템으로, "과학자 중심 협력 모델"을 기반으로 과학적 방법론을 반영하도록 설계되었다. 연구자가 자연어로 연구 목표를 입력하면, 이 시스템은 관련 문헌을 검색하고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기존 연구를 요약 및 종합한 후, 이를 바탕으로 새롭고 독창적인 연구 가설과 실험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또한, 제안의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문헌을 인용하고, 그 근거를 설명한다. 연구자들은 AI가 생성하는 가설이나 연구 제안에 원하는 특성과 제약 조건을 지정할 수도 있다. 연구자가 아이디어와 가설을 제시하고, AI 생성 가설을 직접 수정하거나, 자연어 채팅으로 AI의 방향성을 조정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스템과 협업할 수 있다. 테스트 시점 연산 확장(scaling of test-time compute)을 활용하여, 점진적으로 논리적 사

11) Belcak, P. et al. "Small Language Models are the Future of Agentic AI", 2025, arXiv:2506.02153v2.

12) Luo, Z. et al. "LLM4SR: A Survey on Large Language Models for Scientific Research", 2025, arXiv:2501.04306v1.

13) Gittweis, J. et al. "Towards an AI co-scientist", 2025, arXiv:2502.18864v1.

고를 수행하고, 가설을 발전시키며, 점점 더 정교한 결과를 도출한다.

시스템의 핵심 알고리즘은 크게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자기 대결(self-play) 기반 과학적 토론 과정을 통해 새로운 연구 가설을 생성한다. 그 다음으로, 토너먼트 평가를 통해 가설 간 승패 패턴을 분석하여 우수한 가설을 선별하고, 가설 진화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가설의 품질을 향상시킨다. 또한, AI 부과학자는 자기 비판 능력을 갖추고 있어, 웹 검색 등의 도구를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하고 가설과 연구 제안을 반복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AI 부과학자를 구성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특화 에이전트인 생성 에이전트, 반영 에이전트, 순위 에이전트, 근접도 에이전트, 진화 에이전트, 메타리뷰 에이전트가 있다. 생성 에이전트는 연구 목표에 부합하는 초기 가설 목록을 생성한다. 이 가설들은 반영 에이전트의 검토를 거쳐, 순위 에이전트의 토너먼트 평가를 받는다. 진화, 근접도, 메타 리뷰 에이전트들은 토너먼트 상태를 기반으로 시스템 출력을 향상시킨다. 감독 에이전트는 이 특화 에이전트들을 조율하여 입력된 연구 목표에 맞는 타당하고, 참신하며, 검증 가능한 가설과 연구계획을 만들어 준다.

이 시스템은 범용적 활용이 가능하며, 우선적으로 생물의학 분야의 세 가지 영역인 약물 재창출, 신규 표적 발견, 박테리아 진화 및 항미생물 저항성의 메커니즘 설명에서 개발 및 검증을 진행하여, 그 우수성이 입증되었다.

구글 딥마인드는 알파고(AlphaGo) 이후에도 꾸준히 혁신적인 연구 결과들을 발표하고 있다. 2025년에 발표한 대표적인 사례로서, 6월에 발표한 알파이볼브와 7월에 발표한 알파지놈이 있다.

알파이볼브[14]는 진화연산과 LLM기반 코드 생성을 결합한 LLM 기반 코드 최적화 에이전트이며, LLM과 진화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복잡한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최적화 해준다. 이를 위해 LLM들로 구성된 자율

14) Novikov, A. et al. “AlphaEvolve: A coding agent for scientific and algorithmic discovery”, 2025, arXiv:2506.13131v1.

파이프라인을 조율하여 알고리즘을 진화 연산을 통해 직접적으로 수정함으로써 개선된 알고리즘을 제시하며, 하나 이상의 평가자로부터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받아 알고리즘을 반복적으로 향상시킨다.

알파이볼브를 실제 문제에 적용하여, 데이터 센터를 위한 효율적인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하드웨어 가속기의 회로 설계에서는 기능적으로 동일하지만 더 간단한 방식을 찾아냈고, 알파이볼브를 구동하는 LLM의 학습 속도 또한 가속되었다. 더군다나, 수학 및 컴퓨터 과학 분야의 문제에서 특히 주목할 성과로, 4×4 복소수 행렬 곱셈을 48회의 스칼라 곱셈으로 수행하는 방법을 찾아내었다. 이는 이 분야에서 Strassen 알고리즘 이후 56년 만에 이루어진 개선이다. 알파이볼브와 같은 코딩 에이전트들이 과학의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 해결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다.

알파지놈[15)16)]은 DNA 서열의 유전자 기능 예측과 질병 생물학 연구에 혁신을 가져왔다. 즉, 최대 100만 염기쌍의 DNA 서열을 입력받아 염기 수준의 고해상도 생명현상과 다양한 유전자 조절 변이의 효과를 예측한다.

알파지놈 아키텍처는 입력된 DNA를 인코더, 트랜스포머, 디코더 단계를 거쳐 처리한 후, 여러 해상도에서 중요한 내부 표현을 생성한다. 이 학습된 1차원 임베딩과 2차원 쌍별 임베딩은 다양한 유전체 특징을 예측하는 기반이 된다. 예측은 특정 생물종(인간 또는 생쥐)에 맞게 조정되며, 이를 위해 생물종별로 학습된 임베딩을 해당 함수 내에 통합하여 사용한다. 이들 공유 임베딩을 생성할 때 적용되는 생물종별 임베딩 외에도, 각 출력 헤드는 인간과 생쥐 예측을 위해 별도의 독립적인 파라미터 세트를 학습한다. 알파지놈을 변이 효과 예측에 대한 26가지 평가에 적용시킨 결과, 24가지에서 기존의 최고 모델과 동등하거나 이를 능가하는 성능을 보였다.

15) Avsec, Ž. et al. “AlphaGenome: advancing regulatory variant effect prediction with a unified DNA sequence model”, *Nature*, vol. 649, 2026, pp.1206-1218.

16) Callaway, Ewen. “DeepMind’s new AlphaGenome AI tackles the ‘dark matter’ in Our DNA”, *Nature*, vol. 643, 2025, pp.17-18.

구글 부과학자, 알파이볼브와 알파지놈은 완전 자동화된 연구 결과물을 제시하지 않고 과학자들과의 협력이 필요한 시스템이지만, 이미 현재의 결과 만으로도 과학연구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만약, 과학 연구가 완전 자동화된 'AI 과학자'가 등장하면, 인간 과학자의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해짐은 물론 AI 기술을 지녔으며 이를 운용할 충분한 자본을 지닌 거대국가와 거대 기업이 모든 과학적 발견을 독식하는 과학 연구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제, AI 과학자의 기대와 현실에 대하여 살펴보자.

4. 기대와 현실

인류 문명의 발전을 이끌어 온 과학적 발견은 과학 연구 주체인 인간의 체계적인 탐구 과정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이 과정은 일반적으로 관찰과 학습을 통한 과학적 기초 지식 마련 단계인 지식획득, 미해결 질문을 다루기 위한 과학적 가설수립 단계인 아이디어 생성, 강도 높은 실험과 이론적 분석을 통한 가설의 엄격한 검증 및 반증, 그리고 실험 또는 이론적 결과에 기반한 지속적 연구의 정교화(진화) 과정을 거치면서 과학지식의 발전이 이루어진다. 연구 과정은 인간의 제한된 시간과 인지능력에 의해, 느린 문헌조사, 협소한 지식, 편향된 가설, 비효율적 실험 등의 문제를 지니며, 그 해결책으로 과학 연구 자동화의 관심이 높아져 왔다.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LLM을 기반으로 한 에이전트형 AI 시스템은 과학 연구의 자동화에 괄목할 만한 성과들을 보여주고 있으며, 머지 않아 AI 과학자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현상을 규명할 날이 다가올 것이다. 이제, "AI 과학자가 세상을 바꾸고 과학 연구 패러다임을 재편할 수 있는 세상이 얼마나 가까이 왔는가?"[17]에 대한 질문에 초점을 맞추어 보자.

과학 연구의 자동화에 필수적인 능력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식획득은 기존 과학 문헌에서 분야별 지식을 스스로 검색, 검토, 및 이해하여 연

17) Xie, Q. et al. "How far are AI scientists from changing the world?", 2025, arXiv:2507.23276v2.

구를 위한 과학적 지식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자율적 능력이다. 다음으로 아이디어 생성이란, 획득한 지식을 기반으로 혁신적이고 실현 가능한 과학적 가설을 자율적으로 수립하는 능력이다. 이 능력은 자동화된 과학 도구와 AI 과학자 시스템을 구별 짓는 핵심 요소이다. 검증과 반증은 AI 생성 가설을 AI 과학자가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반증하기 위해 실험을 설계, 실행, 분석할 수 있게 한다. 이는 AI 과학자가 연구 사이클을 완성 시키고 자율적 과학 지능을 갖추게 하는 핵심 요소이다.

AI 리뷰 시스템은 AI 과학자 시스템이 생성한 원고를 포괄적으로 평가하여 통찰력을 지닌 심사 결과를 제공해준다. Q. Xie 등이 5개의 주요 AI 과학자 시스템이 생성한 연구논문 28편을 AI 리뷰어 모델 Deep-Reviewer14B 를 이용하여 평가한 결과에 의하면 현재 AI 과학자 시스템의 자율 연구 전반에 걸쳐 구조적인 한계가 드러났다. 실험적 약점은 모든 논문에서 발견되어, AI 과학자 시스템의 구현 능력이 실험의 설계, 실행, 분석과 관련된 심각한 한계가 있음을 나타낸다. 이외에도, 방법론적 불명확성 혹은 결함, 논문 작성 및 표현 문제, 혁신성 부족 등도 많이 발견되어, 과학적 실행과 연구 결과의 문서화에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 주었다. 또한, 이론적 약점이나 관련 연구 검토 미비의 평가는 독창적인 결과를 제공하거나 주장에 대한 견고한 이론적 틀 제공에 실패하였음을 나타낸다. 정리하자면, 현재의 AI 과학자 시스템이 확립된 기준을 충족하는 고품질의 과학적 산출물을 독립적으로 생성하기에 부족함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한계의 극복 방법으로 내부 평가 혹은 외부 입력을 바탕으로 전체적 연구 역량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진화적 메커니즘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진화적 메커니즘의 핵심기술로 동적 계획과 자율학습이 있다. 동적 계획은 제한된 탐색 공간 내에서 가장 가치 있는 연구 방향을 탐색한다. 이를 통해, AI 과학자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가설의 우선 순위를 정하며, 진행 중인 결과와 피드백에 기반하여 연구 경로를 적응적으로 정교화시킨다. 자율학습은 자기 성찰 기반 방법과 외부 주도 방법으로 나뉘

어 진다. 자기 성찰 기반 방법은 LLM이 스스로 피드백 제공자의 역할을 수행하여 특정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출력을 반복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는 방법이다. 외부 주도 방법은 가설의 품질을 평가하고 수정 제안을 제공하기 위해 생성 과정에 인간의 감독을 포함시키는 방식과 인터넷 기반 학술 플랫폼을 활용해 기존과 유사한 가설을 걸러내어 참신성을 확보하는 방식이 있다. 이외에, AI 과학자 시스템 만으로 구성된 연구 커뮤니티를 구축하여 협업을 통해 산출물의 품질을 높이는 방법도 있다.

AI 과학자 시스템이 상당한 진전을 보였지만 세상을 변화시키고 과학 연구 패러다임을 재편할 획기적인 발견을 만들어 낼 자동화 에이전트로 성장하기까지 여전히 큰 격차가 존재한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격차는 AI 과학자의 기반 모델인 LLM의 한계에 의한 것이다. LLM에는 환각, 지식 업데이트의 비용과 비효율성, 파국적 망각 등의 여러 가지 내재적 한계가 있다. 환각에 의해 연구 결과, 실험 데이터, 참고 문헌, 혹은 존재하지 않는 이론들이 사실인 것처럼 조작하여 생성된다. 또한, 신뢰할 수 없거나 출처가 부정확한 자료를 제공되어 연구자들이 제공받은 정보의 근거와 타당성을 추적하고 검증하기 어렵게 한다. 또한, 미묘한 논리적 모순이나 맥락에 어긋난 주장으로 연구자들을 오도하고 과학적 산출물의 신뢰성을 저하시킨다. 과학 연구의 빠른 발전은 최신 연구 결과의 지속적 업데이트를 요구하지만, 방대한 양의 최신 과학 논문을 LLM에 통합시키기 위해 대규모 모델을 재학습하거나 미세조정 하기에는 막대한 비용 지출이 수반된다. 결국, 지식의 늦은 갱신으로 최신 과학 지식과 AI 과학자 시스템의 지식 사이에 격차가 존재하게 된다. 또한, LLM이 새로운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습득한 정보를 잊어버리는 파국적 망각도 큰 걸림돌이다.

AI 과학자 시스템의 연구 역량 한계도 과학 연구 자동화의 잠재력을 제한하고 있다. 방대한 최신 과학 문헌으로부터 지식을 획득하고, 체계화 및 내재화를 하는 능력은 AI 과학자에게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역량이다. 이

는 관련 연구 결과를 검색 및 탐색하고 핵심 아이디어를 추출하고, 실험적 세부사항에 반영하며, 여러 연구결과들을 통합하여 일관된 통찰력을 제공해줄 것이다. 그렇지만, 지식 획득 단계에서 정보검색 정밀도의 문제 즉, 특정 연구에 가장 관련성 높은 최신 정보를 정확하게 검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타 문서 요약 및 통합 시 자료의 출처를 잘못 인용하거나 왜곡하며, 의미적 이해와 사실적 정확성 측면에서 여전한 어려움이 있다. 아이디어 생성 단계에서는 참신하고 실현가능한 과학적 가설의 생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AI가 생성한 가설을 평가하기 위한 신뢰성 높고 객관적이며 확장 가능한 평가 체계의 부족도 AI 과학자 시스템 발전의 병목으로 작용한다.

검증 및 반증 단계에서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다른 AI 에이전트, 인간 과학자 혹은 다양한 외부 도구와의 협업이 과학 발전에 필수적인데, 현재의 AI 과학자 시스템은 견고성, 적응성, 장애 허용성 측면에서 큰 약점을 보이고 있다. 또한, 자동으로 생성된 실험 설계가 과학적 엄밀성, 혁신성, 실용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결국, AI 과학자 시스템이 정적 템플릿과 제한된 문헌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어 최신 기술이나 새로운 실험 방법론을 반영하기 어려워진다. 진화 단계는 AI 과학자의 장기적인 혁신에 필수적이지만, 핵심 기술인 동적 계획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으로, 탐색(exploration)과 활용(exploitation)의 균형을 효율적으로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자율 학습 기술의 자기 성찰 기반 방법에서는 효과적인 자기 비판 메커니즘이 부족할 경우 시스템의 오류가 누적되는 악순환에 빠져 연구 결과의 독창성과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다. 외부 평가의 피드백을 통합하기 위해 필요한 AI 과학자 간 상호작용 프로토콜이 부족하여, 아이디어 교환과 외부 비판의 통합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직 AI에 의한 과학의 완전 자동화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많이 존재한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제네시스 미션을 통하여 미 연방의 연구 인프라인 컴퓨팅 자원과 AI 기반 자동화 연구실 등을 총동

원해 과학 연구를 가속화 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중국을 비롯하여 유럽연합과 영국도 비슷한 정책을 추진 중이며, 대한민국도 k-문샷 정책을 발표하여 AI에 의한 과학 연구 자동화를 적극 추진 중이다.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AI 기술과 자본력을 AI 과학 자동화에 투입하여 얻게 되는 결실이 향후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정부의 거버넌스 역시 국가의 발전에 필요한 AI 기술에 저해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국제적 거버넌스는 국가 간의 양극화를 해소시켜, 모든 인류가 AI 기술의 혜택을 누리도록 할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5. 위험과 안전성

AI의 가장 큰 위험적 요소로 LLM의 환각 현상이 언급된다. 여기서는 환각이 왜 발생하는 지에 대한 구조적 원인을 알아보자. 그리고, AI 시스템이 사회·경제·정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안전성 측면에서 살펴보자.

1) 환각(Hallucination)의 구조적 원인

언어모델이 만들어내는 지나친 확신에 찬 그럴듯한 거짓 정보를 환각이라는 오류 유형으로 부르며, 인간의 지각적 환각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AI 모델의 상당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환각은 여전히 AI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유효한 문자열 집합을 V, 오류의 일반 집합을 E라 하고, 그럴듯한 문자열 집합을 $X = E \cup V$로 정의하자. 기본언어모델은 학습 데이터 분포 p에서 사전학습으로 $\hat{p}$을 생성한다. $err = \hat{p}(E) = \Pr_{x \sim \hat{p}}[x \in E]$로 기본 모델의 오류율이 정의되며, 최적의 기본 모델은 $\hat{p} = p$이므로 오류가 없다.

err의 하한을 구하기 위해, 언어모델의 출력이 유효한 출력인가에 답하는 IIV(Is-It-Valid) 이진 분류 문제를 정의하자. 이는 교사학습 문제이며, 유효한 예시와 오류 예시를 50:50으로 학습 및 시험 데이터를 구성한다. 유효한 예시는 V에서 가져오고, 오류 예시는 E에서 무작위로 균일하게

선택한다. 그러면, 학습 대상 목표 함수 $f : X \rightarrow [-,+]$와 X에 대한 분포는

$$D(x) = \begin{cases} p(x)/2 & \text{if } x \in V, \\ 1/2|E| & \text{if } x \in E, \end{cases} \text{ and } f(x) = \begin{cases} + & \text{if } x \in V, \\ - & \text{if } x \in E, \end{cases} \quad (1)$$

와 같이 된다. 그러면, IIV의 오분류율은

$$err_{iiv} = \Pr_{x \sim D}[\hat{f}(x) \neq f(x)] \text{ and } \hat{f}(x) = \begin{cases} + & \text{if } \hat{p}(x) > 1/|E| \\ - & \text{if } \hat{p}(x) \leq 1/|E| \end{cases} \quad (2)$$

이다. 이를 통해, $err \geq 2 \times err_{iiv}$임이 증명되었다.[18] 즉, 언어모델의 오류율이 IIV 문제의 오류율보다 2배 이상이어서 환각을 피할 수 없다.

한편, 후속 학습은 기본 모델을 정교화하여 주로 환각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런데, 왜 언어모델은 "모르겠습니다(IDK)"라는 답 대신, 확신에 찬 환각을 생성하는 것인가? 언어모델을 "정답이면 1점, 오답·무응답·IDK는 0점"으로 채점되는 방식에서는 확신이 없을 때 추측이 기대 점수를 극대화한다. 즉, 채점 방식이 환각을 조장하므로, 환각을 줄이기 위해서는 불확실하면 답변을 생략하더라도 벌점을 받지 않도록 평가 방식 자체를 수정해야 한다.

언어모델의 환각은 항상 존재하며, 이에 따른 문제는 상당히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난다. 우선, 존재하지 않는 자료를 제시하는 사실적 오류가 있다. 법률, 의료, 금융의 영역에서 오답 제시로 의사결정이 왜곡될 수 있다. 자신감 있는 답변 제시가 결국은 신뢰도 저하를 유발한다. 각종 연구 보고서에 허위 정보가 포함되어 연구 품질이 저하되고, 또한 소프트웨어 개발 시에는 시스 템 오류를 일으키기도 한다. 허위사실에 기반한 조언 제시로 법적 책임 문제가 발생하며 보안 사고로 연결될 수도 있다.

2) AI 안전성

생성형 AI의 등장 이후로 AI 시스템의 영향은 사회 시스템 및 산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기술적 영역으로 확장되었음을 일본 AISI(AI Safety Institute)와 미국 NIST(National Institute of

18) Kalai, A. T. et al. "Why Language Models Hallucinate", 2025, arXiv:2509.04664v1.

Standards and Technology) 등에서 언급하고 있다. “사회·기술적”이란 AI 자체 및 AI 시스템과 관련된 기술적 요소와 이들을 둘러싼 사회적 요소 간의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AI 및 AI 시스템이 사회의 다양한 요소들과 어떻게 상호작용 하며 현실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윤리·법, 경제활동, 정보 공간, 환경 네 가지 범주로 알아보자.[19]

윤리와 법에 대한 영향으로, AI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심리·신체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언급된다. 생성형 AI가 사용자의 정서적 의존을 강화시키고, 심지어 부적절한 프롬프트 제공으로 자살을 유발한 사례가 있다. 또한, AI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뇌 활동과 독창성을 저하시키고 비판적 사고능력이 약화되는 ‘인지 부채’의 축적 현상이 나타난다. AI의 편향은 학습 데이터 때문이다. 이러한 편향은 역사·사회적으로 형성된 차별과 불균형을 재생산하며, 인종·성별·종교·장애·문화적 배경 등의 요인에 기반한 불공정한 대우와 고정관념을 조장한다. 그리고, 이 편향이 제도화되고 구조화되어 장기적으로 사회적 불이익을 고착화 시킬 수도 있다. 생성형 AI의 자연어 생성, 멀티모달 처리, 코드 생성 등의 기능은 효율적인 사이버 공격 도구로 활용된다. 특히, 수작업 편집과 고도의 기술이 필요했던 음란물 생성이 이제는 손 쉽게 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즉, AI-CSAM(AI-generated Child Sexual Abuse Material)와 리벤지 포르노 등을 통해 아동과 여성의 권리 침해·성적 착취와 같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유발시킨다.

경제 활동에 미치는 영향으로, AI로 생성된 콘텐츠의 지식 재산권이 있다. 다양한 콘텐츠가 AI에 의해 생성되어 창작활동에 큰 혁신을 이끌어왔지만, 특정 캐릭터나 예술적 스타일의 모방이 저작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브랜드 가치 훼손과 초상권 및 출판권 침해를 유발할 위험도 있다. 많은 기업들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AI 시스템의 도입은 고용 및 노동시장에 큰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AI 시스템의 효율성 향상과 같은 긍

19) Japan AI Safety Institute, *Reports on the Specific Influence on AI Safety*, Oct. 31, 2025.

정적 요소와 함께 업무 대체에 따른 일자리 감소의 부정적 영향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생성형 AI에 의한 저비용 고속 콘텐츠 생성으로 대량의 저품질 정보가 범람하게 되었다. 또한, AI의 혜택이 사회 전체적으로 공정하게 배분되지 않고, 기술적 우위에 있는 개인·기업·국가에 집중되어 기존의 격차를 확대시키고 새로운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다. AI 시스템의 학습에 사용되는 대규모 정보는 기밀정보나 개인 데이터를 포함하게 되어, 기밀정보 외부 유출·개인정보 침해·기업 경쟁력 약화·법적 책임과 같은 위험을 초래한다.

정보 공간에 미치는 영향으로, 우선 허위 정보 및 조작 정보의 생성과 확산이 있다. 생성형 AI에 의해 가짜 뉴스나 허위 영상이 짧은 시간에 제작되어 손쉽게 전파되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다. 이 과정에 개인은 자신의 선입견이나 의견을 뒷받침하는 정보 만을 수집하는 '에코 챔버 현상'이 일어난다. 에코 챔버 현상이란 유사한 가치관을 가진 개인들이 서로의 공감을 강화 함으로써 특정 의견이나 이데올로기가 과도하게 증폭되고 그 영향력이 커지는 상태를 말한다. 또한, AI에 의해 생성된 결과물이 사회의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소외된 집단이 결과물에 보이지 않게 되거나 기존의 고정관념을 고착화시킨다.

생성형 AI의 등장은 데이터 시스템의 막대한 전력 수요를 일으켜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인 구글 검색은 요청 당 평균 0.3Wh의 전력을 소비하는 반면 ChatGPT 요청은 평균 2.9Wh의 전력이 소모되며, GPT-3의 학습에 약 1,300MWh의 전력이 필요했다고 한다. GPT-4와 5는 훨씬 더 많은 전력 소모가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전력 소모는 막대한 CO_2 배출, 전력망 부담 증가, 냉각수 대량 소모 등 환경에 부정적 요소이다.

6. 통제와 거버넌스

AI 시스템의 발전은 사회를 풍요롭게 하지만 한편으로 위험적 요소도 지니고 있기에 개발, 배포 및 사용과 관련된 통제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

와 관련된 활동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100개 이상의 생성형 AI 제품에 대한 레드 팀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권고사항을 제시하였다.[20] 여기서는 통제의 핵심에 해당하는 AI 시스템의 모니터링에 대한 내용과 AI 레드팀 활동을 알아보고 거버넌스 활동의 대표 사례도 살펴본다.

1) 모니터링 가능성(Monitorability)

AI 시스템의 의사결정을 관찰하는 것은 점점 더 강력해지는 AI 에이전트들을 안전하게 배포하고 사용하기 위하여 필수적이다. 특히, 추론(reasoning) 모델의 CoT(Chain-of-Thought) 모니터링은 이상 행동 탐지에 아주 효과적이다. 여기서, 모니터링 가능성을 '모니터가 AI 에이전트의 행동과 관련된 속성들을-예를 들어, 해로운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거나 앞으로 행동할 것인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며, 이는 평가대상 모델의 행동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동으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느냐에도 의존한다. 모니터링 가능성은 관심 속성들이 모델의 출력으로부터 신뢰성 있게 식별될 수 있는 지 여부에 초점을 두며, 이는 효과적인 AI 시스템 통제를 위한 핵심적 조건이다.

모니터링 가능성 평가를 위한 방법으로 다음 세 가지의 상호 보완적 방법이 제시되었다.[21] 첫째, 개입평가는 AI 에이전트의 환경이나 입력에 통제된 개입을 가한 뒤, 그 개입에 의해 에이전트의 행동이 변화되었는 지를 측정하고 최종적으로 특정 추론 상의 변화를 모니터가 추론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이 평가는 모니터가 개입에 대한 모델 추론의 증거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직관에 기반하며, 왜 에이전트의 행동이 변화했는 지를 감지할 수 있게 한다. 둘째, 과정평가는 허용 가능한 해법 경로의 집합이 작고 명확한 문제를 구성하고, 모델이 올바른 최종 답을 산출했을 때, 모니터를 통해 모델이 유효한 해법 경로를 실제로 따랐다는 증거를 찾을 수 있

20) Bullwinkel, B. et al. "Lessons for Red Teaming 100 Generative AI Products", 2025 arXiv:2501.07238v1.

21) Guan, M. Y. et al. "Monitoring Monitorability", 2025, arXiv:2512.18311v1.

는지 평가한다. 예를 들어, 특정 수학 문제의 경우 올바른 해답은 반드시 소수의 특정 정리 중 하나를 호출해야 함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셋째, 결과-속성 평가는 모델 출력의 특정 속성을 명확하게 라벨링 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고, 이후 모니터에게 해당 속성과 관련하여 모델이 어떤 결정을 내렸다는 증거를 식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개입평가와 과정평가는 결과에 대한 측정을 모델의 추론 과정과 연결하는 반면, 결과-속성 평가는 단순히 결과의 특정 측면이 예측 가능한 지 여부 만을 묻는다.

모니터링 가능성은 클래스 불균형 문제와 관련이 있다. 즉, 이상 행동이란 아주 드물게 발생하기에 이러한 데이터 불균형 문제를 고려하여 지표를 설정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이에 모니터링 가능성 지표로 제시된 방법이 민감도(TPR, true positive rate)와 특이도(TNR, true negative rate)의 기하평균 $g-mean=\sqrt{TPR\times TNR}$ 이다.

2) AI 레드팀 활동(Red Teaming)

레드팀 활동은 19세기 초 프로이센 군대의 전술적 전쟁게임에서 기원하였다. 미국 국가안보국은 1980년대 처음으로 사전적 사이버보안 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기밀 시스템의 보안을 평가하는 '레드팀' 개념을 개척하였다. 1990년대 디지털 위협이 진화함에 따라 사이버보안 레드팀도 발전했다. 특히, 2001년 9·11 테러에서의 정보 실패 이후 미국 국방부는 향후 유사한 참사 방지를 위해 레드팀 부대를 설립하였고, CIA는 "레드셀(Red Cell)"이라는 새로운 부서를 만들었다. 현대 사이버보안 레드팀은 물리적 보안, 사회공학, 기타 비기술적 요소까지 아우르는 총체적인 보안 평가로 전환되었다.

레드팀에서 기술전문가는 모델 취약점을 조사하는 데 적합하다. 정책전문가는 규제 충돌을 식별해내고, 윤리학자는 가치 일치 정렬문제를 드러내며, 도메인전문가는 실제 세계에서의 영향 시나리오를 평가한다. 레드팀은 단순히 교묘한 허점을 잡아내거나 시스템을 깨뜨릴 방법을 찾는 데 목적이 있는 활동으로 국한되지 않으며 "현실 세계 조건에서 실패를 초

래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내는 협력적 과정이다. 이를 위해 AI 시스템의 레드팀 활동은 AI 개발 생애주기 전체를 아우르는 시스템 차원의 거시적 수준 활동과 AI 시스템을 구동하는 개별 모델에 초점을 맞추는 미시적 수준 활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22]

먼저 거시적 수준의 레드팀 활동을 착수, 설계, 데이터, 개발, 배포, 유지보수, 폐기의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자. 착수단계에서 레드팀은 문제를 어떻게 규정하고 해당 해결책이 적절한지를 근본적으로 의문시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AI가 정말 필요한가? AI 해법주의에 빠져드는 것은 아닌가? 이해 관계자들의 프로젝트 추진 동기는 무엇이며 서로 다른 집단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의도치 않은 문제가 만들어지는가? 어떻게 악용이나 조작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와 같은 탐구적 질문을 검토해야 한다.

설계단계에서는 인터페이스 결정, 아키텍처 선택, 기존 시스템과의 통합 지점 등에서 발생하는 취약점을 식별한다. 데이터 단계에서는 단순한 데이터 품질 뿐만 아니라 수집 방법, 저장 방식, 접근 제어, 계보 추적, 라이프 사이클 관리에 이르는 데이터 생태계 전체를 검토한다. 특히, 데이터의 대표성과 품질에 대한 가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개발단계에서는 구현 방법의 선택이 어떻게 시스템적 취약점을 만들어내는지, 개발 관행 자체가 어떠한 위험을 유발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개발 환경의 보안도 다루어야 하며, 공급망의 위험에도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 배포 인프라도 면밀히 검토되어야 하고, 다양한 실패 양상에 대한 중요한 제어 지점을 식별해야 한다. 모델 산출물의 배포 및 업데이트 메커니즘은 보안 취약점 뿐만 아니라 버전 불일치로 인한 시스템 신뢰성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 유지보수 단계에서는 다양한 실패 양상에 대한 1차 방어선으로 모니터링 및 경보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포괄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출력 품질 추세, 공정성 지표, 안전성능 지표 등을 추적해야 한다. 폐기단계에

22) Majumdar, S. et.al. "Red Teaming AI Red Teaming", 2025 arXiv:2507.05538v1.

서는 데이터 보관 및 폐기 관행을 검토해야 한다. 학습데이터와 운영 로그를 포함한 데이터 저장소는 지속적인 개인정보 위험을 초래하지만 동시에 시스템 동작 패턴과 향후 안전 및 신뢰성 개선에 유용한 실패 양상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산이다.

미시적 수준의 모델 레드팀은 모델 능력의 한계를 식별하는 경계 탐색, 예상치 못한 능력이나 제한을 드러내는 경계사례 생성, 배포 전에 모델의 내재된 위험을 파악하는 모델 고유위험 발견을 목표로 활동한다. 거시적 레드팀과 미시적 레드팀은 상호보완적 접근방식으로 포괄적 검토를 제공한다. 거시적 통찰은 미시적 테스트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고, 미시적 발견은 거시적 위험 평가의 기초 정보를 제공한다. 효과적인 AI 레드팀 활동은 개발 수명 주기 전반에 걸친 두 관점의 일관된 적용이 필요하다.

3) 거버넌스(Governance)

AI 거버넌스는 "AI를 어떻게 잘 통제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개발·배포·활용 전 과정에서 책임성, 안전성,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 및 규범 그리고 관리 체계를 의미한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활동으로 WHO가 2021년 "보건 분야에서 AI의 윤리와 거버넌스에 관한 포괄적인 가이던스"를 발표하여 (i)자율성 보호, (ii)인간의 복지·안전 및 공익 증진, (iii)투명성, 설명 가능성 및 이해 가능성 보장, (iv)책임감과 책무성 강화, (v)포용성과 형평성 보장, (vi)반응성 높고 지속가능한 AI 촉진의 6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23] 그 후속으로 2025년 3월에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윤리 및 거버넌스: 대규모 멀티모달 모델에 대한 지침"를 발표하여 LMM(Large Mulit-modal Model)을 보건 분야에서 활용하기 위하여 원칙에 부합하는 기업 내 거버넌스, 정부의 역할, 국제 협력을 통한 거버넌스 권고사항을 제시하였다.[24] 이에 대하여

23) Geneva:World Health Organization, E*thics and governa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for health*, 28 June 2021.

간략히 알아보자.

먼저 설계 및 개발단계에서 WHO는 의료용 AI 개발자가 제품의 설계, 감독, 신뢰성 및 자율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에 투자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개발자는 최소 편향, 개인정보, 노동문제, 탄소 및 물 발자국, 허위 및 거짓 정보와 혐오 발언, 안전 및 사이버 보안, 인간의 인식적 권위 보존, LMM의 독점적 통제와 관련된 위험을 정부의 법률 및 규정 제정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연대와 같은 가치를 설계의 기반으로 삼는 가치 기반 설계를 강조한다.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하여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환경적 우려를 고려한 설계도 요구한다. 정부는 데이터 보호법을 통하여 권리 기반 접근 방식으로 데이터 처리규제 기준, 개인의 권리 보호, 그리고 공공 및 민간 데이터 관리 책임자와 처리자의 의무를 설정하고 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와 구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현재 150개국 이상이 데이터 보호법을 제정하여 AI 기술 개발의 기반으로 삼고 있지만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적용의 한계가 존재하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는 공공 인프라를 제공하여 윤리 원칙을 준수한 개발을 이끌어 갈 수도 있다.

의료 서비스 제공 단계에서 정부는 서비스 배포 전에 AI 기술의 사용을 평가하고 규제할 책임이 있다. 배포 전에 해결해야 할 주요 위험으로는 편향, 환각 또는 잘못된 정보, 개인정보 보호, 조작 위험, 자동화 편향 등이 있다. 개발자와 공급자는 의료 분야에서 LMM을 비롯한 AI 기술을 사용함에 공동 책임을 지며, 법 혹은 계약으로 책임을 명시할 수 있다. 특히, 범용 모델이 의료서비스 제공에 사용될 경우 의료기기 규제의 적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소비자 보호법을 통해 사용자와 환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법은 조작적 관행, 차별, 편향을 방지하고, LMM이 인간처럼 보이도록 오도하는 표현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여야 한다.

24) Geneva:World Health Organization, *Ethics and governa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for health: Guidance on large multi-modal models*, 25 March 2025.

보건의료 서비스 사용을 위한 AI 기술의 배포 단계에서는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응답, 편향, 입력 혹은 출력에 포함된 개인 정보, 접근성 및 경제성, 노동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자동화 편향과 기술 저하, 그리고 의료 제공자와 환자 간 상호작용의 수준에 대한 위험을 해결하여야 한다. 개발자와 제공자는 정부의 승인 이후에도 배포 중에 발생하는 위험에 대하여 지속적인 책임을 지닌다. 특히, 배포자는 부적절한 환경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위험과 오류를 명확히 알리고 사용 중단이나 시장 철수 조치의 책임도 지며, 경제성과 접근성을 개선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LMM을 비롯한 AI 시스템이 의료 분야에 널리 사용되면서 발생되는 피해가 불가피하므로, 이를 보상하고 구제하기 위한 책임을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AI 기술의 설계, 개발, 품질 보증, 배포 단계에서 여러 기관이 관여하므로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것이 복잡하다. WHO는 AI로 인한 의료 부상에 대해 보상 기금을 설정할지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마지막으로 국제 거버넌스를 통하여 기업들 간의 안전성 및 유효성 기준 무시와 정부 간의 기술적 우위를 위한 경쟁 격화를 방지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모든 기업이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고, 각국 정부와 기업이 규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또한, AI 시스템 개발과 배포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묻고, 윤리적 원칙과 인권을 존중하는 규제를 도입하도록 한다. 특히, 국제 거버넌스를 고소득 국가나 대규모 기술 기업만 주도하지 않도록 하여, 저소득이나 중소득 국가들이 AI 기술의 혜택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는 AI 기술이 과학기술 분야를 넘어서 경제력과 국방력을 결정짓게 될 것이기에 아주 중요하다.

7. 맺음말

본 논문에서는 AI의 기술적인 측면부터 과학 연구에의 응용, AI에 대한 기대와 현실의 간극, AI 기술이 지닌 위험성, 그리고 AI의 통제와 거버넌

스에 이르기까지 살펴보았다.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는 AI인 LLM의 핵심 요소 트랜스포머는 언어영역을 넘어 영상처리를 위한 ViT, 시계열 데이터 처리를 위한 TST 등으로 적용 분야가 확대되고 있으며, 인간의 시스템 2 사고를 모방하여 신중한 결정을 내리는 데 적합한 EBT도 개발되었음을 알아보았다. 에이전트로 진화하는 AI 기술을 과학기술 분야에 응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구글 부과학자, 알파이볼브, 알파지놈 등을 살펴보았다. 이렇게 세상을 바꾸어가는 AI에 대한 기술적 가능성과 실제 사이의 간극을 알아보았으며, 특히 AI 기술이 지닌 위험성을 살펴보았다. LLM에서 나타나는 환각 현상의 이론적 분석을 기반으로 사람이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하여 질의에 응답하듯이 LLM도 평가의 기대치를 극대화 하기 위하여 환각적 답변을 함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사회·기술적 측면에서 AI의 안전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AI의 통제와 거버넌스 측면에서, LLM이 질의에 대한 답변 생성에서 작동하는 CoT을 모니터링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고, AI 시스템의 레드팀 활동을 AI 개발 생애주기 전체를 아우르는 시스템 차원의 거시적 수준 활동과 AI 시스템을 구동하는 개별 모델에 초점을 맞추는 미시적 수준 활동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AI 기술 적용에서 부작용이 가장 민감하게 작동하는 의료 보건 분야에서의 거버넌스 활동으로 WHO가 발표한 보건의료 분야의 윤리 및 거버넌스를 알아보았다.

AI의 기술적 측면부터, 응용, 기대와 현실, 위험, 그리고 통제와 거버넌스에 걸쳐 살펴본 내용들을 기반으로 AI가 과학 기술 분야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불러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기술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트랜스포머가 지닌 단점에 의해 하드웨어 자원 확대와 운영 비용 증가가 초래되며, 출력 일관성 저하에 의한 사용자 경험 악화가 나타나므로 기술적 해결이 필요하다. 데이터 불균형에 따른 편향은 인종·종교·성별·소수자·약자 등에게 차별을 유발하므로, 편향적 답변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AI 과학자의 출현은 높은 수준의 기술과 자본력을 지닌 거대 국가 및 기업 위주의 과학 결과 산출로 과학 기술의 양극화가 심화

될 것이다. 아직 환각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으며, 시스템 2 사고에 의해 신중하며 분석적인 사고로 복잡한 결정을 실행하는 AI 학습 모델이 필요하다. 사전 학습된 AI 모델에서 새로운 지식의 지속 학습 시 일어나는 망각 현상의 해결과 인간 수준에서의 소량 학습 능력을 지닌 데이터 효율성도 필요하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AI 모델의 동작을 모니터링하고 답변 제시 과정을 인간이 해석할 수 있어야 하며, AI 모델의 동작 목표가 인간 사회와 일치하는 방향인지도 중요하다. 급격하게 발전하는 AI 모델이 기술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에 이로운 기술이 되기 위하여 사회·기술적 측면에서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통제와 거버넌스 활동이 더 중시 되어져야 한다. 특히, LLM과 이를 기반으로 한 에이전트 시스템 뿐만 아니라 AI 과학자에 이르기까지, 고수준의 AI의 기술을 보유하였느냐에 따라 각 국가의 영향력은 과학기술의 영역을 넘어 경제력과 국방력에 이르기까지 심화되어질 것이다. 이에, 이러한 국가 차원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AI 기술의 혜택을 약소국들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제적 거버넌스 활동이 시급히 구축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보고서

Japan AI Safety Institute, *Reports on the Specific Influence on AI Safety*, Oct. 31, 2025.

Geneva:World Health Organization, *Ethics and governa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for health*, 28 June 2021.

Geneva:World Health Organization, *Ethics and governa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for health: Guidance on large multi-modal models*, 25 March 2025.

논문

Vaswani, A. et al. "Attention Is All You Need", *Proceedings of the 31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Long Beach, 4-9 December 2017, pp.6000-6010.

Dosovitskiy, A. et al. "An image is worth 16x16 words: transformers for image recognition at scale", 2021, arXiv:2010.11929v2.

Zerveas, G. et al. "A Transformer-Based Framework for Multi-Variate Time Series Representation Learning", 2020, arXiv:2010.02803v3.

Gladstone, A. et al. "Energy-Based Transformers are Scalable Learners and Thinkers", 2025, arXiv:2507.02092v1.

Rezvani S. & X. Wang. "A Broad Review on Class Imbalance Learning Techniques", *Applied Soft Computing,* vol. 143, 2023, p. 110415.

Oh, S.-H. "Error back-propagation algorithm for classification of imbalanced data", *Neurocomputing*, vol. 74, 2011, pp.1058-1061.

Belcak, P. et al. "Small Language Models are the Future of Agentic AI", 2025, arXiv:2506.02153v2.

Luo, Z. et al. "LLM4SR: A Survey on Large Language Models for Scientific Research", 2025, arXiv:2501.04306v1.

Gittweis, J. et al. "Towards an AI co-scientist", 2025, arXiv:2502.18864v1.

Novikov, A. et al. “AlphaEvolve: A coding agent for scientific and algorithmic discovery”, 2025, arXiv:2506.13131v1.

Avsec, Ž. et al. “AlphaGenome: advancing regulatory variant effect prediction with a unified DNA sequence model”, *Nature*, vol. 649, 2026, pp.1206-1218.

Callaway, Ewen. “DeepMind’s new AlphaGenome AI tackles the ‘dark matter’ in Our DNA”, *Nature*, vol. 643, 2025, pp.17-18.

Xie, Q. et al. “How far are AI scientists from changing the world?”, 2025, arXiv:2507.23276v2.

Kalai, A. T. et al. “Why Language Models Hallucinate”, 2025, arXiv:2509.04664v1.

Bullwinkel, B. et al. “Lessons for Red Teaming 100 Generative AI Products”, 2025 arXiv:2501.07238v1.

Guan, M. Y. et al. “Monitoring Monitorability”, 2025, arXiv:2512.18311v1.

Majumdar, S. et al. “Red Teaming AI Red Teaming”, 2025 arXiv:2507.05538v1.

신문기사

박종진, “딥시크 이어 시댄스…중국 AI에 미국 또 ‘설 연휴 충격’”, 전자신문, 2026.2.15.

인터넷 사이트

ChatGPT, https://openai.com/chatgpt, 2026.04.23.

구글 코리아 블로그-기업소식, https://blog.google/intl/ko-kr/company-news/technology/google-gemini-3/, 2025.11.19.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딥시크, 2026.04.23.

국문초록

본 논문은 최근 인공지능(AI)과 관련하여 진행되는 일들을 최신 발표 논문과 보고서들을 기반으로 기술-응용-기대와 현실-위험과 안전성-통제와 거버넌스의 5단계 프레임으로 정리하고, 향후 필요한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ChatGPT를 계기로 확산된 거대언어모델(LLM)의 핵심 요소 트랜스포머는 언어 영역을 넘어 영상(ViT), 다변량 시계열(TST)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으며, LLM은 에이전트 형태로 진화하여 과학 연구 자동화(구글 부과학자, AlphaEvolve, AlphaGenome 등)에까지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발전은 사회 전반의 변혁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그렇지만, 실제 기술 수준은 이러한 기대와 간극이 존재하며, 데이터 편향과 환각(hallucination)과 같은 구조적 문제와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환각 현상은 모델이 평가 기대를 극대화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성으로 설명되며, AI 안전성 확보의 핵심 과제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AI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모델 동작의 모니터링과 CoT 기반 추론 과정의 해석 가능성 확보, 레드팀 활동(거시적·미시적 수준), 그리고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한 국제적 거버넌스 체계(WHO 등)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결론적으로 AI는 과학기술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나, 환각 문제 해결, 지속 학습 시 망각 방지, 데이터 효율성 향상과 같은 기술적 과제와 더불어, 인간 가치와 정렬된 통제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특히, 국가 차원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국제적 거버넌스 활동이 필요하다.

주제어 ● 트랜스포머, 거대언어모델, 인공지능 에이전트, 환각과 안전, 통제와 거버넌스

Abstract

Advancements in AI Research and Social Responsibility
: From Technology to Control and Governance*

Oh, Sang-Hoon / Mokwon University

Drawing upon recent academic publications and reports, this paper systematically examines current developments in artificial intelligence (AI) through a five-stage framework encompassing technology, applications, expectations and reality, risks and safety, and control and governance. Based on this analysis, the paper identifies key challenges and proposes future directions for AI research and development.

Following the emergence of ChatGPT, large language models (LLMs) have rapidly proliferated. Their core component, the transformer, has expanded beyond natural language processing into diverse domains such as computer vision (Vision Transformer, ViT) and multivariate time-series analysis (Time Series Transformer, TST). Furthermore, LLMs are evolving into agent-based systems and are being applied to the automation of scientific research, as exemplified by Google's Co-Scientist, AlphaEvolve, and AlphaGenome. These developments have significantly heightened expectations regarding the transformative potential of AI across society.

However, a gap remains between these expectations and the current state of technology, as structural issues such as data bias and hallucination continue to pose substantial risks. In particular, hallucination is interpreted as a phenomenon arising from the model's tendency to maximize expected evaluation outcomes, and it is identified as a critical challenge for ensuring AI

*"영문 초록의 표현 교정에 생성형 AI(Claude, Anthropic)를 활용하였다."

safety.

Accordingly, the safe deployment of AI requires effective monitoring of model behavior and improved interpretability of chain-of-thought (CoT) reasoning processes, red-teaming activities at both macro- and micro-levels, and the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governance frameworks, including those in the healthcare domain such as guidelines from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In conclusion, while AI is driving profound changes not only in science and technology but also across society as a whole, addressing technical challenges—such as mitigating hallucination, preventing catastrophic forgetting in continual learning, and improving data efficiency—must be accompanied by the development of control and governance systems aligned with human values. In particular, international governance initiatives are needed to reduce disparities between countries and address polarization at the global level.

Keyword ● Transformer, Large Language Models, AI Agents, Hallucination and AI Safety, AI Control and Governance

▌논문투고일:2026.05.06. ▌심사완료일:2026.06.24. ▌게재확정일:2026.07.01. ▌

https://doi.org/10.54698/kl.2026.21.869
지식과 교양, 제21호,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Knowledge and Liberal Arts, Vol. 21, LIC, pp.869-894.

응급의료 종사자의 환자 취급 (인력, 장비, 기술)과 근골격계 질환 사이의 연관성

: 서술적 문헌 고찰

손 정 원*

목 차

1. 서론
2. 연구 방법
3. 본론
4. 연구 결과
5. 연구 한계점
6. 결론 및 제언

1. 서론

응급의료 종사자(Emergency Medical Services Personnel)는 현대 보건 의료 시스템의 최전선에서 지역사회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필수 인력이다. 응급의료 시스템은 병원 단계(In-hospital stage)와 병원 전 단계(Pre-hospital stage)로 구성된다. 병원 전 단계에서 활약하는 응급의료 종사자 대부분은 응급구조사(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EMT or Paramedic)이며, 소수의 응급간호사(Nurse)와 응급처치 자격증 소지자(First aid certification)로 구분된다. 이들은 좁은 골목,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 공사장, 교통사고 현장, 산악사고 현장 등 통제되지 않고

* 목원대학교 응급구조학과 교수

예측 불가능한 다양한 현장에 매일 투입되며, 열악한 물리적 환경에서 장시간 활동 압박과 높은 심리적 스트레스를 감내하며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직무 특성은 높은 수준의 신체적 부하를 필연적으로 수반하며, 전 세계 응급의료 종사자의 근골격계 질환(Musculoskeletal Disorder, MSD) 전체 유병률은 56.52%(95% CI: 35.00-78.04)로 보고되는 등 상당히 높은 수준임이 체계적 문헌 고찰 및 메타분석을 통해 확인되었다.[1] 2002년 Maguire 등이 명명한 숨겨진 위기(Hidden crisis)는 응급의료 종사자들이 일반 대중이나 타 공공 안전 직종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부상 및 사망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였다.[2] 통계에 따르면 응급의료 종사자의 업무 관련 부상률은 전 직종 평균의 약 3배에 달하며, 이는 전체 보건의료 종사자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산재 보상 청구율로 이어진다.[3] 이러한 경향은 국내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국내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공무상 재해 신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근골격계 질환 발생 원인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환자 이동 작업(27.4%)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화재 진압이나 구조 활동보다도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4]

복수의 선행 연구를 통합한 체계적 문헌 고찰 및 메타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응급의료 인력의 근골격계 질환 전체 유병률은 56.52%(95%

1) Tahernejad A., et al. "Musculoskeletal disorders in emergency medical services personnel: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Public Health*, vol. 237, 2024, pp.107-115.

2) Du B, et al. "Existing science on human factors and ergonomics in the design of ambulances and EMS equipment", *Prehospital Emergency Care*, vol. 23, no. 5, 2019, pp.631-646.

3) Friedenberg R, et al. "Work-related musculoskeletal disorders and injuries among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and paramedics: A comprehensive narrative review", *Archives of Environmental & Occupational Health*, vol. 77, no. 1, 2022, pp.9-17.

4) Yoon JW. "Musculoskeletal disorders of Korean fire fighters: applicants for public worker's compensation from 2011 to 2013",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vol. 30, no. 3, 2016, pp.133-137.

CI: 35.00-78.04)로 추산되었으며, 신체 부위별로는 허리 통증이 47.38%로 가장 빈번하게 보고되었다. 이어 등 상부(35.15%), 목(31.19%), 어깨(30.00%), 무릎(27.07%) 순으로 나타났다.[5)]

요르단 응급의료 종사자를 대상으로 수행된 단면연구에서는 허리 통증 유병률이 70.8%, 목 통증이 57.9%로 보고되어, 의료 인프라 수준과 무관하게 이 문제가 보편적인 직업적 건강 위협임을 시사한다.[6)] 이러한 질환은 단순한 통증을 넘어 조기 퇴직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데, 응급의료 직종의 의학적 조기 퇴직 사유 중 70%가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7)]

본 연구가 주목하는 핵심 위험 요인은 환자 취급(Patient Handling) 업무로, 다수의 선행 연구에서 이는 응급의료 종사자의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는 주요 직업적 위험 요인 중 하나로 보고되고 있다. 산재 청구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응급의료 종사자의 부상 중 90% 이상이 환자나 장비를 들기, 내리기, 운반, 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며, 연령, 성별, 경력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함께 부상 발생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8)] 국내에서도 이러한 실태는 일찍이 보고된 바 있다. 119구급대원의 구급활동 전반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에서 환자 들기 및 운반 작업이 근골격계 증상 발생의 핵심 위험 요인으로 규명되었으며, 허리와 어깨를 중심으로 한 신체 부위에서 유병률이 집중적으로 나타남이 확인되었다.[9)]

---

5) Tahernejad A., et al. op. cit., p.108.

6) Nazzal, MS, et al. “Prevalence of work-related musculoskeletal disorders and associated factors affecting emergency medical services professionals in Jordan”, *BMJ Open*, vol. 14, pp.1-7.

7) Davison C, et al. “Ergonomic assessment of musculoskeletal risk among a sample of Portuguese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Ergonomics*, vol. 82, 2021, pp.1-12.

8) Kim H., et al. “Patient handling and musculoskeletal disorders among hospital workers: Analysis of 7 years of institutional workers' compensation claims data”, *American Journal of Industrial Medicine*, vol. 55, no. 8, 2012, pp.683-690.

환자 취급 업무는 단순히 하중을 들어 올리는 동작에 그치지 않고, 좁은 공간에서의 비틀림, 구부리기, 불안정한 지면에서의 하중 이동 등 복합적인 생체역학적 스트레스를 수반한다.[10] 특히 대만 응급구조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평균 5.3년의 근무 기간 이후 첫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는 경향이 확인되어, 경력이 누적됨에 따라 신체적 손상이 가속화됨을 알 수 있다.[11] 태국에서 수행된 단면연구에서도 23kg 이상의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하는 경우 근골격계 질환 위험이 5배 이상(OR=5.13) 높아진다는 구체적인 임계치가 제시되었다.[12]

따라서 본 서술적 문헌 고찰의 목적은 응급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 기전과 위험요인을 인력(Personnel), 장비(Equipment), 기술(Techniques)의 세 가지 핵심축을 중심으로 체계적 분석하는 것이다. 인력 측면에서는 팀 구성과 조직적 안전 시스템의 영향을 탐구하고, 장비 측면에서는 전동화 시스템의 성과와 그에 따른 한계를 검토하며, 기술 측면에서는 현장 행동 패턴과 교육의 실효성을 고찰한다. 현재 미국의 KKK-1822F와 같은 구급차 설계 표준은 인체공학적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13][14], 본 고찰은 이러한 시스템적 결함을 통계적 근거

9) Kim DS, et al. "A survey of musculoskeletal symptoms & risk factors for the 119 emergency medical services (EMS) activities", *Journal of the Ergonomics Society of Korea*, vol. 29, no. 2, 2010, pp.211-216.

10) Tanguay M, et al. "Paramedics' behavior patterns when transferring non-mobile patients from the ground to a stretcher", *Healthcare*, vol. 13, no. 6, 2025, pp.611-629.

11) Huang TF, et al. "Injury profiles and attitudes toward safety handling skills among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An integrated behavioral model analysis", *BMC Public Health*, vol. 25, 2025, pp.2986-2996.

12) Thongkum W, et al. "Prevalence and associated factors of work-related musculoskeletal disorder symptoms amongst emergency medical service workers in Mahasarakham, Thailand: a cross-sectional study", *Studies in Health Technology and Informatics*, vol. 328, 2025, pp.525-529.

13) Du B, et al. op. cit., p.635.

14) Du B, et al. "Exploring the need for and application of human factors and ergonomics in ambulance design: Overcoming the barriers with technical standards", *Applied Ergonomics*, vol. 88, 2020, pp.1-9.

를 바탕으로 규명하여 실질적인 예방 전략을 제언하고자 한다. 단, 본 연구의 주요 분석 대상은 병원 전 단계에서 환자 이송 업무를 전담하는 119구급대원 및 응급구조사로 한정하며, 인력 · 장비 · 기술 요인에 관한 근거의 충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무 특성이 유사한 병원 단계 응급실 의료 종사자를 대상으로 수행된 일부 연구를 보완적으로 포함하여 고찰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응급의료 종사자의 환자 취급 업무와 근골격계 질환 사이의 연관성을 고찰하기 위하여 서술적 문헌 고찰(Narrative Review)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1) 검색 데이터베이스 및 검색 기간

문헌 검색은 국제 학술 데이터베이스인 PubMed, Scopus, Web of Science와 국내 데이터베이스인 RISS, DBpia를 활용하여 수행하였다. 검색 기간은 전동 들것 관련 주요 연구가 본격화된 2012년부터 본 고찰 수행 시점인 2026년까지 발표된 동료 심사(Peer-reviewed) 학술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2) 검색어 조합 및 검색 전략

국외 문헌의 경우 (“Emergency Medical Service” OR “Paramedics” OR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AND (“Patient Handling” OR “Lifting” OR “Stretcher Manipulation”) AND (“Musculoskeletal Disorders” OR “MSDs”) 조합하였고, 국내 문헌의 경우 (“응급구조사” OR “응급의료 종사자” OR “구급대원”) AND (“환자 취급” OR “환자 이송” OR “장비 운용”) AND (“근골격계 질환” OR “근골격계 손상”)으로 적용하였다.

3) 문헌 선정 기준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문헌을 선정 대상으로 하였다. 첫째, 119

구급대원, 응급구조사, 혹은 이와 직무 특성이 유사한 응급의료 종사자를 연구 대상으로 명시한 연구, 둘째, 환자 취급 업무(인력 운용, 장비 조작, 이송 기술)와 근골격계 질환 또는 업무상 부상 사이의 연관성을 주요 연구 목적으로 다룬 연구, 셋째, 원저 논문, 체계적 문헌 고찰, 메타분석, 종설(Review article) 등 동료 심사를 거친 학술지 게재 논문을 포함하였다.

4) 문헌 제외 기준

다음에 해당하는 문헌은 고찰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첫째, 응급의료 종사자가 아닌 일반 병원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이종 직군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 둘째, 단순 사례 보고(Case report) 또는 증례 시리즈(Case series)에 해당하는 연구, 셋째, 학위 논문, 학술대회 초록, 미출판 보고서 등 동료 심사를 거치지 않은 문헌, 넷째, 원문 전체에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연구 방법론이 불명확한 문헌을 제외하였다.

5) 문헌 선정 절차

초기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해 수집된 문헌은 제목 및 초록 검토 단계에서 선정 및 제외 기준에 따라 1차 선별하였으며, 이후 원문 전체를 검토하는 2차 선별 과정을 거쳐 최종 분석 대상 문헌을 확정하였다. 또한 선정된 핵심 문헌의 참고문헌 목록을 수동 검색(Hand searching)하여 데이터베이스 검색에서 누락된 관련 문헌을 추가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선택 편향(Selection bias)을 최소화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고찰에는 총 32편의 문헌이 포함되었으며, 이는 인력(7편), 장비(9편), 기술(9편) 요인 및 배경·통계 근거(7편)로 분류되어 분석에 활용되었다.

3. 본론

1) 인력 요인

응급의료 서비스 현장에서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은 단순히 대원 개개

인의 신체적 역량 부족이나 부주의의 결과가 아니라, 인력 운용 방식 및 조직의 시스템적 환경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특히 인력 수급의 적정성은 응급의료 종사자의 건강 수명을 결정짓는 가장 기초적인 조직적 요인이다. 1,300명 이상의 응급의료 종사자를 대상으로 수행된 단면연구에 따르면, 인력이 부족하다고 인지하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허리 통증 발생 위험이 1.5배(OR=1.50, 95% CI: 1.04-2.15)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5] 인력 부족은 각 작업 단계에서 충분한 휴식 시간을 박탈하고 작업 속도를 무리하게 높이는 물리적 압박을 가할 뿐만 아니라, 직무 요구도 상승과 같은 심리사회적 스트레스를 가중시켜 통증 부위의 수를 늘리는 결과를 초래한다.[16]

팀원 간 익숙함(Crew familiarity)은 파트너와 공유한 근무 시간 및 출동 횟수를 의미하며, 이는 부상 발생률을 낮추는 강력한 보호 요인 중 하나로 확인되었다.[17] 약 6만 개의 고유 파트너 조합을 분석한 대규모 관찰 코호트 연구에 따르면, 동일한 파트너와 10회 이상 근무한 경우 부상 발생률비(IRR)가 0.03(95% CI: 0.02-0.04)으로 현저히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18] 이는 익숙한 파트너 간에는 상호 간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하중 이동 시 신호를 명확히 공유함으로써 신체 부하를 효과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19] 반면 인력난으로 인해 파트너가 빈번하게 교체되는 환경에서는 비언어적 소통과 동작 동기화가 어려워져 특정 대원에게 가중된 하중이 전가되고, 이는 급성 부상으로 이어진다.[20]

---

15) Kim SS, et al. "Association between perceived inadequate staffing and musculoskeletal pain among hospital patient care workers", *International Archives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Health*, vol. 86, no. 8, pp.864-874.

16) Ibid., pp.870.

17) Weaver MD, et al. "An observational study of shift length, crew familiarity, and occupational injury and illness in emergency medical services workers",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vol. 72, no. 11, 2015, pp.798-804.

18) Patterson PD, et al. "Teammate familiarity and risk of injury in Emergency Medical Services", *Emerg Med J*, vol. 33, no. 4, 2016, pp.280-285.

19) Ibid., pp.282.

근무 일정과 직무 만족도 역시 근골격계 질환 유병률의 주요 예측 인자이다. 야간 근무는 응급의료 종사자의 생체 리듬을 파괴하고 신체적 회복력을 저하시키는 결정적 요인이다. 야간 근무가 잦은 응급실 종사자는 주간 근무자에 비해 전반적인 근골격계 질환 유병률이 높으며, 특히 손목/손, 무릎, 등 상부 통증을 더 심각하게 지각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1] 응급의료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전향적 관찰연구에서는 16~24시간의 장기 교대 근무를 수행하는 대원이 8~12시간 근무자에 비해 업무상 부상 위험이 약 60%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22]

국내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조직 체계의 결함과 보상의 부적절성이 근골격계 질환 발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이 확인되어, 심리사회적 스트레스가 근골격계 질환의 보이지 않는 촉매로 작용함이 지지 되었다.[23] 결론적으로 응급의료 현장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은 개별 대원의 주의력에 의존하기보다 적정 인력 배치, 팀 구성의 안정성 보장, 그리고 심리사회적 위험요인을 관리하는 조직적 시스템 접근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참여형 인간공학적 중재를 통해 관리자와 대원이 함께 위험요인을 개선해 나가는 체계적인 안전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다.[24]

2) 장비 요인

응급의료 현장에서 환자 취급 장비의 진화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

20) Kim SS, et al. op. cit., p.870.

21) Bazazan A, et al. “Association of musculoskeletal disorders and workload with work schedule and job satisfaction among emergency nurses”, *International Emergency Nursing*, vol. 44, 2019, pp.8-13.

22) Weaver MD, et al. op. cit., p.780.

23) Kim MG, et al. “Relationship between Occupational Stress and Work-related Musculoskeletal Disorders in Korean Male Firefighters”, *Annals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vol. 25, no. 9, pp.1-7.

24) Wahlin C, et al. “A systematic review of work interventions to promote safe patient handling and movement in the healthcare sector”, *International Journal of Occupational Safety and Ergonomics*, vol. 28, no. 4, 2022, pp.2520-2532.

한 가장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어 왔다. 최근의 생체역학적 고찰은 전동화 장비와 저마찰 이송 보조 기구가 척추 하중과 상지 근육 활동을 유의미하게 줄여줌을 입증하였다.[25)26)27)28)] 특히 응급의료 종사자의 업무 중 물리적 부하가 가장 큰 운반 도구의 조작 및 차량 적재 작업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전동 들것(Powered Cot)와 전동 로딩 시스템(Powered Load System)은 현장의 위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29)30)31)]

캐나다 나이아가라 응급의료 시스템의 대규모 코호트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동 들것 도입 후 환자 운반 관련 근골격계 질환 사고가 78% 감소한 반면, 수동 운반을 유지한 대조군에서는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32)] 미국의 또 다른 연구에서도 전동 들것 도입으로 전체 부상률이 53%, 들것 관련 부상은 70% 감소하는 효과가 확인되었다.[33)] 경제적 측면에서도 전동 장비 도입은 높은 초기 비용에도 불구하고 산재 보상 비용

25) Fray M. & Davis KG. "Effectiveness of safe patient handling equipment and techniques: A review of biomechanical studies", *Human Factors*, vol. 66, no. 10, 2024, pp.2283-2322.

26) Hayden MA, et al. "Review of powered, safe patient-handling equipment for emergency medical services via an insurance safety intervention grant program", *Prehospital and Disaster Medicine*, vol. 40, no. 2, 2025, pp.64-72.

27) Armstrong DP, et al. "Implementing powered stretcher and load systems was a cost effective intervention to reduce the incidence rates of stretcher related injuries in a paramedic service", *Applied Ergonomics*, vol. 62, 2017, pp.34-42.

28) Hegewald J, et al. "Do technical aids for patient handling prevent musculoskeletal complaints in health care workers?—A systematic review of intervention studies",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vol. 15, no. 3, 2018, pp.1-19.

29) Ibid., pp.37.

30) Hayden MA, et al. op. cit., p.66.

31) Du B, et al. op. cit., p.641.

32) Armstrong DP, et al. op. cit., p.37.

33) Studnek JR, et al. "Evaluation of occupational injuries in an urban emergency medical services system before and after implementation of electrically powered stretchers", *Applied Ergonomics*, vol. 43, no. 1, 2012, pp.198-202.

절감을 통해 약 5.8년 내에 투자 비용 회수(ROI)가 가능함이 분석되었다.[34]

최근에는 특수 환경용 보조 장비의 효용성도 주목받고 있다. Raizer나 Elk와 같은 휴대용 들것 보조 장치는 지면에서 쓰러진 환자를 들어 올릴 때 수동 운반 대비 응급구조사가 느끼는 지각된 노력을 유의미하게 줄여주며, 비만 환자 이송 시 추가 인력 요청 빈도를 낮추는 것으로 보고되었다.[35] 또한 계단 이송 시 에어 스트레처를 활용하여 환자를 끄는(Dragging) 방식이 전통적인 들기 방식보다 응급구조사의 신체적 부하를 저감한다는 결과도 보고되었다.[36]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 진보 뒤에는 새로운 도전 과제가 존재한다. 전동 들것은 배터리 장착으로 인해 수동형 대비 본체 중량이 약 20~40kg 이상 더 증가하며,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협소한 공간에서 수동으로 조작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더 큰 부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37] 국내의 경우, 119구급대원의 환자 운반 작업 전반에 대한 인간공학적 평가 연구에서 수동형 운반 도구 사용 시 OWAS 3점, REBA 4점 이상의 고위험 작업 자세가 관찰되었으며, 이는 전동화 장비 도입 이전 국내 구급대원이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던 신체 부담 수준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38] 이러한 국내 실정은 전동 장비 도입의 시급성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협소한 국내 건축 환경에 최적화된 장비 설계의 필요성을 부각한다.

그러나 전동 들것의 명확한 효용성이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34) Armstrong DP, et al. op. cit., p.34.

35) Nestor HM, et al. “Exploring the usability and perceived benefits and barriers of portable lift assist devices among paramedic workers”, *Applied Ergonomics*, vol. 130, 2026, pp.1-8.

36) Takei Y, et al. “Use of the Airstretcher with dragging may reduce rescuers' physical burden when transporting patients down stairs”, *PLOS ONE*, vol. 17, no. 9, pp.1-10.

37) Armstrong DP, et al. op. cit., p.41.

38) Hong SG. “The evaluation of musculoskeletal symptom and patient transport work of 119 EMTs by ergonomics tools”,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vol. 28, no. 4, 2014, pp.81-88.

도입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은 다층적으로 존재한다. 가장 직접적인 장벽은 초기 구매 비용이다. 전동 들것 1대의 가격은 수동형 대비 수배에 달하며, 전동 로딩 시스템을 포함한 완전 전동화 구급차 구축에는 차량 개조 비용이 추가로 수반된다. 국내 소방조직의 경우 구급 장비 예산이 중앙 및 지방 소방행정 예산 체계 내에서 경쟁적으로 배분되는 구조하에 있어, 전동 들것의 전면 보급을 위한 일괄적 재원 확보가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도서·산간 지역의 소규모 소방서에서는 장비 유지보수 인프라와 배터리 관리 역량의 부재로 인해 도입 후 운용 효율이 저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차량 구조와의 물리적 적합성 문제 또한 중요한 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 국내에서 운용되는 구급차는 북미 · 유럽의 대형 구급차에 비해 차체 규격이 소형화되어 있어, 전동 들것 및 전동 로딩 시스템의 설치 공간 확보와 차량 내부 구조 개조에 제약이 따른다. 전동 로딩 시스템은 차량 바닥면의 레일 구조물과의 정밀한 규격 정합을 요구하므로, 신규 차량 도입 시에만 일체형 적용이 가능하고 기존 차량에의 사후 장착은 기술적 · 비용적으로 상당한 난관이 따른다. 이러한 현실은 전동화 장비의 효과가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 전면 보급을 기대하기 어려운 국내 구조적 조건을 명확히 보여준다. 따라서 전동 들것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구급 장비 예산의 독립 항목화, 신규 구급차 발주 기준에 전동화 시스템 탑재를 의무 규격으로 명시하는 제도적 접근이 병행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향후의 장비 개선은 단순한 전동화를 넘어 장비의 경량화와 시스템 전체의 사용자 중심 설계(User-centered design)로 나아가야 한다.

3) 기술 요인

응급의료 종사자의 환자 취급 기술과 행동 양식은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 있어 가장 변화시키기 어려운 영역이다. 수십 년간 인체공학 교육은

"허리가 아닌 다리로 들어라"는 원칙을 강조해 왔으나, 실제 현장 영상 분석 데이터는 이러한 전통적 자세 교육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39] 실제 국내 119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관찰 연구에서도 가변형 들것이나 긴 척추 고정판 사용 시 인간공학적 평가 도구인 REBA 기준으로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한 고위험 동작이 확인되었다.[40] 이 결과는 이후 수행된 후속 연구에서도 일관되게 재확인되었다. 신임 구급대원 45명을 대상으로 계단에서의 환자 운반 작업을 OWAS 및 REBA로 정량 평가한 국내 연구에서, 긴 척추 고정판을 사용한 환자 운반 시 REBA 최빈값이 11점(즉각적 개선 필요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가변형 들것을 사용한 경우에도 REBA 최빈값 9점으로 자세 교정이 시급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이 연구는 구급대원의 신장 및 체격 조건에 따라 자세 위험도가 더욱 가중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향후 훈련 프로그램 개발 시 인간공학 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정량적 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41]

포르투갈의 연구 결과 역시 계단 의자 이송 시 하단 작업자의 자세 위험도가 극도로 높음을 확인하였다.[42] 복수의 무작위 대조 연구를 통합한 체계적 문헌 고찰 및 메타분석에서는, 환자 이송 기술 교육을 단독으로 적용한 경우 12개월 추적 기준 요통 발생률을 유의미하게 낮추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OR=0.83).[43] 이는 현장의 압박감이 교육받은 안전 수칙보다

39) Tanguay M, et al. "Paramedics' Behavior Patterns When Transferring Non-Mobile Patients from the Ground to a Stretcher", *healthcare*, vol. 13, 2025, pp.611-628.

40) Son JW. "Evaluation of 119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work related musculoskeletal disorders risk with regard to patient lifting procedures", *The Korean Journal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vol. 23, no. 1, 2019, pp.101-112.

41) Son JW. "Assessing the risk of work-related musculoskeletal disorders in 119 EMT: a focus on patient-carrying tasks", *The Korean Journal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vol. 27, no. 3, 2023, pp.33-46.

42) Davison C, et al. op. cit., p.7.

43) Kugler HL, et al. "Patient handling training interventions and musculoskeletal injuries in healthcare workers: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Heliyon*, vol. 10, no. 2, 2024, pp.1-13.

신속한 이송이라는 직무 목표를 우선시하게 만들기 때문이다.[44]

대원들이 교육받은 기술을 현장에서 적용하지 못하는 핵심 원인은 현장 상황의 가변성과 물리적 공간의 제약이다. 협소한 화장실이나 침대 사이와 같은 제한된 공간에서는 인체공학적으로 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빈번하다. 이 과정에서 숙련 대원들은 상황에 맞게 기술을 변용하는 암묵적 예방 전략을 활용하는데, 예를 들어 환자 운반 전 장애물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들것의 높이를 최적화하는 준비 단계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는 방식으로 신체 부하를 관리한다.[45][46][47]

교육 인프라의 국제적 격차 또한 대원들의 안전 행동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다. 대만 응급구조사의 법정 교육 시간이 연간 2시간에 불과한 반면, 호주 빅토리아주는 3일간의 집중 프로그램을 통해 최소 리프팅 정책(Minimal lifting policy)을 조직 문화로 정착시키고 있다.[48][49] 통합 행동 모델 분석에 따르면, 대원들의 안전 행동은 지각된 이익과 자기효능감에 의해 촉발된다. 따라서 향후 기술 교육은 단순한 자세 교정을 넘어 팀원과의 협응, 현장 장애물 분석 능력, 그리고 물리적 한계 상황에서의 의사결정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50][51]

---

44) Larouche D, et al. "To what extent do paramedics apply safe handling principles when transferring patients from stair chairs to stretchers?", *Ergonomics,* vol. 62, no. 10, 2019, pp.1313-1326.

45) Tanguay M, et al. op. cit., p.615-6.

46) Nestor HM, et al. op. cit., p.3.

47) Larouche D, et al. op. cit., p.1317.

48) Roberts MH, et al. "Occupational injury risk among ambulance officers and paramedics compared with other healthcare workers in Victoria, Australia: analysis of workers' compensation claims from 2003 to 2012",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vol. 72, no. 7, 2015, pp.489-495.

49) Huang TF, et al. op. cit., p.2990.

50) Ibid., pp.2991-2.

51) Tanguay M, et al. op. cit., p.620.

4) 인력 · 장비 · 기술 요인의 상호작용

앞서 서술한 인력, 장비, 기술의 세 요인은 각각 독립적인 위험원으로 기능하는 동시에, 현장에서는 상호 연동된 복합 시스템으로 작동한다. 이 세 영역이 동시에 결핍될 때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은 단순 합산이 아닌 승수적(multiplicative) 방식으로 증폭되며, 이는 단일 요인 중재만으로는 유의미한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구체적인 현장 시나리오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전동 들것이 도입되더라도 2인 1조의 최소 인력 체계에서 엘리베이터 없는 다세대 주택, 좁은 계단 등 협소한 국내 주거 환경에서는 전동 장비의 물리적 조작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빈번하다. 이 상황에서 대원은 결국 수동 운반을 선택할 수밖에 없으며, 배터리 중량이 추가된 전동 들것을 수동으로 다루게 되어 오히려 신체 부하가 가중된다. 나아가 장비 사용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대원은 전동 기능을 적절한 시점에 활성화하지 못하거나 하중 분산 기법을 숙지하지 못한 채로 운용하여 장비 도입의 보호 효과가 실질적으로 상쇄된다. 인력 요인과 기술 요인이 복합되는 경우에도 유사한 기제가 작동한다. 파트너 교체가 잦은 환경에서는 팀원 간 동작 동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교육을 통해 습득한 개인 수준의 안전 행동이 2인 협동 작업에서 실제로 발현되지 못하는 구조적 장벽이 형성된다.

이러한 요인 간 상호작용은 스위스 치즈 모델(Swiss Cheese Model)의 적층적 오류 구조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52] 각 요인(인력, 장비, 기술)은 근골격계 부상을 차단하는 독립적인 방어막으로 기능하나, 각각의 결함이 동시에 정렬될 때 부상이 발생하는 경로가 열린다. 따라서 효과적인 예방 체계는 특정 요인에 대한 단독 중재가 아니라, 세 영역이 유기적으로 연동된 통합적 시스템 접근(Integrated Systems Approach)을 전제로 설계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적정 인력 배치를 제도적으로

52) Reason J. "Human error: Models and management", *BMJ,* vol. 320, no. 7237, 2000, pp.768-770.

보장하는 동시에 현장 환경에 최적화된 장비를 공급하고, 이를 팀 단위로 숙련하는 실전형 통합 교육이 병행될 때 비로소 각 중재의 효과가 강화되는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53]

4. 연구 결과

본 서술적 문헌 고찰은 응급의료 종사자의 환자 취급 업무와 근골격계 질환 사이의 연관성을 인력, 장비, 기술의 세 가지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고찰 결과, 응급의료 종사자의 근골격계 질환은 단일 요인에 의한 우발적 사고가 아닌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결함이 누적된 결과임이 확인되었다.

첫째, 인력 측면에서 팀 구성의 안정성과 적정 인력 수급은 근골격계 질환 예방의 가장 강력한 조직적 보호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파트너 간 익숙함이 확보된 팀은 동작 동기화를 통해 부상 발생률비를 현저히 낮추며(IRR=0.03, 95%, CI: 0.02-0.04), 이는 약 6만 개의 고유 파트너 조합을 분석한 대규모 관찰 코호트 연구에 의해 지지된다. 반면, 인력 부족 인지는 허리 통증 위험을 1.5배(OR=1.50, 95% CI: 1.04-2.15) 높이며, 야간 근무 빈도 증가 및 낮은 직무 만족도는 생체 리듬 파괴와 피로 누적을 매개로 근골격계 질환 유병률을 유의미하게 상승시킨다. 또한 16~24시간의 장기 교대 근무는 8~12시간 근무 대비 업무상 부상 위험을 60%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장비 측면에서 전동 들것 및 전동 로딩 시스템의 도입은 환자 운반 관련 근골격계 부상을 최대 78%까지 감소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공학적 중재로 입증되었다. 경제적 분석에서도 초기 도입 비용은 산재 보상 비용 절감을 통해 약 5.8년 내 회수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동 들것의 배터리 장착으로 인한 본체 중량 증가(수동형 대비 약 20~40kg)는 협소한 공간에서의 수동 조작 시 오히려 대원에게 가중된 하중을 전가하

53) Wahlin C, et al. op. cit., p.2528.

는 역설적 문제를 초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Raizer, Elk 등 휴대용 리프트 보조 장치와 에어 스트레처를 활용한 계단 이송 기법 역시 수동 운반 대비 지각된 신체 부하를 유의미하게 저감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셋째, 기술 측면에서 전통적인 환자 운반 자세 교육은 체계적 문헌 고찰 및 메타분석 결과(OR=0.83) 기준으로 12개월간의 요통 발생률을 유의미하게 낮추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단독 중재로서의 실효성이 제한적임이 입증되었다. 이는 현장의 공간적 제약과 급박한 직무 압박이 교육받은 안전 수칙의 적용을 물리적으로 차단하기 때문이다. 국내 119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인간공학적 평가(REBA)에서도 가변형 들것 및 긴 척추 고정판 사용 시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한 고위험 동작이 관찰되었다. 반면, 숙련 대원의 경우 공간 내 장애물 사전 제거, 들것 높이 최적화 등 상황 적응적 예방 전략을 운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단순 자세 교정을 넘어선 현장 판단 역량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5. 연구 한계점

본 연구는 몇 가지 중요한 한계를 지닌다.

첫째, 포함된 대다수 연구가 응급의료 종사자의 자기 보고식 설문이나 회고적 산재 청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회상 편향이나 경미한 부상의 과소 보고서 작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연구 대상 국가가 주로 북미와 일부 아시아 국가 등 고소득 국가의 응급의료 시스템에 편중되어 있어, 건축 환경이나 의료 인프라가 상이한 지역으로의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다.

셋째, 본 고찰은 서술적 고찰 형식을 취하고 있어 체계적 문헌 고찰과 같은 엄격한 질 평가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며, 특정 핵심 문헌을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다.

넷째, 기술 요인 분석에서 교육의 실효성을 평가한 선행 연구들은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구성, 실시 빈도, 교육 시간, 강사의 전문성 수준 등 교육

의 질적 변인을 충분히 통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본 고찰에서 도출된 교육 효과의 제한성이라는 결론을 모든 교육 형태에 일반화하는 데에는 신중함이 요구된다. 연 1회 이하의 단편적 자세 교정 교육과 팀 기반 시나리오 교육을 동일한 기술 교육으로 묶어 분석하는 방법론적 이질성이 기존 문헌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며, 이는 교육 중재의 순수 효과 추정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교육의 형식(강의식 · 실습식 · 시뮬레이션 기반), 빈도(연 1회 이하 vs 분기별 이상), 팀 단위 시행 여부 등의 변인을 체계적으로 구분하여 교육 효과를 비교한 추가 연구가 향후 과제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실시간 작업 자세 동작 분석 기술을 활용한 객관적 신체 부하 측정과 고령화되는 대원을 위한 연령별 맞춤형 예방 모델 개발에 대한 탐구가 보완되어야 한다.

6. 결론 및 제언

본 서술적 문헌 고찰을 통하여 응급의료 종사자의 환자 취급 업무가 근골격계 질환 발생의 결정적 매개 요인임이 확인되었으며, 그 위험은 인력 · 장비 · 기술의 유기적 시스템 중재를 통해 관리 가능하다는 근거가 축적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와 향후 연구 방향을 제언한다.

첫째, 국내 응급의료 인력 운용 제도의 구조적 개선이 요구된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 운영되는 119구급대의 2인 1조 운용 체계는 환자 취급 시 팀원 간 하중 분산의 생체역학적 이점을 충분히 발휘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본 고찰에서 확인된 팀 연속성의 보호 효과(IRR=0.03) 및 인력 부족 인지에 따른 근골격계 부상 위험 증가(OR=1.50) 근거에 기초하여, 장기 파트너 배정 시스템의 제도화, 상시 출동 시 최소 3인 출동 체계 도입 등 국내 응급의료 현장 특성에 부합하는 인력 운용 기준의 법령 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또한 야간 근무 연속 횟수 제한 및 교대 근무 간 최소 휴식 시간 보장을 명문화하는 근무 형태 개선이 병행되어

야 한다.

둘째, 전동 들것 등 인체공학적 장비의 도입 확대와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국내 소방청 및 민간 응급의료 기관의 전동 들것 보급률은 선진국 수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실정이며, 본 고찰에서 확인된 장비 도입의 경제적 타당성(약 5.8년 내 ROI 회수)은 공공 재정 투자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다만 전동 장비의 중량 증가에 따른 역설적 과부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장비 구매 기준에 경량화 및 협소 공간 적용성을 필수 평가 항목으로 포함하는 구매 · 관리 지침의 개정이 요구된다.

셋째, 현장 중심의 환자 운반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제도적 의무화가 필요하다. 본 고찰에서 단순 자세 교정 교육의 실효성 한계가 확인된 만큼, 향후 교육 과정은 표준화된 자세 교정의 반복 훈련을 지양하고, 협소 공간 · 비표준 환경에서의 상황 판단, 팀원 간 하중 분산 소통, 그리고 현장 장애물 사전 평가 역량을 통합한 실전형 시나리오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호주 빅토리아주의 3일 집중 최소 리프팅 정책 교육 모델을 참조하여, 국내 응급구조사 보수 교육 체계 내에 인체공학적 환자 취급 교육을 법정 필수 과목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제도화해야 한다.

넷째, 차세대 보조 기술의 응급의료 현장 적용 가능성에 대한 실증 연구가 요구된다. 외골격(Exoskeleton) 슈트는 요추부 하중 보조 기능을 통해 환자 취급 시 근골격계 부하를 획기적으로 저감할 잠재력을 지니나, 국내 응급의료 현장의 물리적 환경(협소 공간, 계단, 불규칙 지형)에서의 착용성과 작업 수행 효율에 관한 실증 연구는 현재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아울러 IMU 센서 및 착용형 동작 분석 시스템을 활용한 실시간 작업 자세 모니터링 기술의 현장 적용, 그리고 고령화되는 응급구조사 인력을 위한 연령별 맞춤형 신체 능력 유지 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후속 과제로 추진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논문

Armstrong, DP. Ferron, R. Taylor, C. McLeod, B. Fletcher, S. MacPhee, R. & Fischer, S. “Implementing powered stretcher and load systems was a cost effective intervention to reduce the incidence rates of stretcher related injuries in a paramedic service”, *Applied Ergonomics*, vol. 62, 2017, pp.34-42.

Bazazan, A. Dianat, I. Bahrampour, S. Talebian, A. Zandi, H. Sharafkhaneh, A. & Maleki, A. “Association of musculoskeletal disorders and workload with work schedule and job satisfaction among emergency nurses”, *International Emergency Nursing*, vol. 44, 2019, pp.8-13.

Davison, C. Cotrim, TP. & Goncalves, S. “Ergonomic assessment of musculoskeletal risk among a sample of Portuguese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Ergonomics*, vol. 82, 2021, pp.1-12.

Du, B. Boileau, M. Wierts, K. Hignett, S. Fischer, S. & Yazdani, A. “Existing science on human factors and ergonomics in the design of ambulances and EMS equipment”, *Prehospital Emergency Care*, vol. 23, no. 5, 2019, pp.631-646.

Du, B. Boileau, M. Wierts, K. Karch, SB. Yung, M. Fischer, S. & Yazdani, A. “Exploring the need for and application of human factors and ergonomics in ambulance design: Overcoming the barriers with technical standards”, *Applied Ergonomics*, vol. 88, 2020, pp.1-9.

Fray, M. & Davis, KG. “Effectiveness of safe patient handling equipment and techniques: A review of biomechanical studies”, *Human Factors*, vol. 66, no. 10, 2024, pp.2283-2322.

Friedenberg, R. Kalichman, L. Ezra, D. Wacht, O. & Alperovitch, D. “Work-related musculoskeletal disorders and injuries among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and paramedics: A comprehensive narrative review", *Archives of Environmental & Occupational Health*, vol. 77, no. 1, 2022, pp.9-17.

Hayden, MA. Reichard, A. Lowe, BD. Naber, SJ. & Wurzelbacher, SJ. "Review of powered, safe patient-handling equipment for emergency medical services via an insurance safety intervention grant program", *Prehospital and Disaster Medicine*, vol. 40, no. 2, 2025, pp.64-72.

Hegewald, J. Berge, W. Heinrich, P. Staudte, R. Freiberg, A. Scharfe, J. Girbig, M. Nienhaus, A. & Seidler, A. " Do technical aids for patient handling prevent musculoskeletal complaints in health care workers? —A systematic review of intervention studies",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vol. 15, no. 3, 2018, pp.1-19.

Huang, TF. Chang, CC. Chang, YT. "Injury profiles and attitudes toward safety handling skills among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An integrated behavioral model analysis", *BMC Public Health*, vol. 25, 2025, pp.2986-2996.

Hong, SG. "The evaluation of musculoskeletal symptom and patient transport work of 119 EMTs by ergonomics tools",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vol. 28, no. 4, 2014, pp.81-88.

Kim, DS. Moon, MK. & Kim, KS. "A survey of musculoskeletal symptoms & risk factors for the 119 emergency medical services (EMS) activities", *Journal of the Ergonomics Society of Korea*, vol. 29, no. 2, 2010, pp.211-216.

Kim, MG. Kim, KS. Ryoo, JH. & Yoo, SW. "Relationship between Occupational Stress and Work-related Musculoskeletal Disorders in Korean Male Firefighters", *Annals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vol. 25, no. 9, 2013, pp.1-7.

Kim, H. Dropkin, J. Spaeth, K. Smith, F. & Moline, J. "Patient handling and

musculoskeletal disorders among hospital workers: Analysis of 7 years of institutional workers' compensation claims data", *American Journal of Industrial Medicine*, vol. 55, no. 8, 2012, pp.683-690.

Kim, SS. Okechukwu, CA. Dennerlein, JT. Boden, LI. Hopcia, K. Hashimoto, DM.& Sorensen, G. "Association between perceived inadequate staffing and musculoskeletal pain among hospital patient care workers", *International Archives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Health*, vol. 86, no. 8, pp.864-874.

Kugler, HL. Taylor, NF. & Brusco, NK. "Patient handling training interventions and musculoskeletal injuries in healthcare workers: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Heliyon*, vol. 10, no. 2, 2024, pp.1-13.

Larouche, D. Corbeil, P. Bellemare, M. Authier, M. Prairie, J. & Hegg, S. "To what extent do paramedics apply safe handling principles when transferring patients from stair chairs to stretchers?", *Ergonomics,* vol. 62, no. 10, 2019, pp.1313-1326.

Nazzal, MS. Oteir, AO. Alrawashd, A. Alwidyan, MT. Obiedat, Q. Almhdawi, KA. Ismael, NT. & Williams, B. "Prevalence of work-related musculoskeletal disorders and associated factors affecting emergency medical services professionals in Jordan", *BMJ Open*, vol. 14, 2024, pp.1-7.

Nestor, HM. Calford, AM. Ho, DC. Ferron, R. Cleworth, T. Laing, AC. & Fischer, SL. "Exploring the usability and perceived benefits and barriers of portable lift assist devices among paramedic workers", *Applied Ergonomics*, vol. 130, 2026, pp.1-8.

Patterson, PD. Weaver, MD. Landsittel, DP. Krackhardt, D. Hostler, D. Vena, JE. Hughes, AM. Salas, E. & Yealy, DM. "Teammate familiarity and risk of injury in Emergency Medical Services", *Emerg Med J*, vol. 33, no. 4, 2016, pp.280-285.

Reason, J. “Human error: Models and management”, *BMJ,* vol. 320, no. 7237, 2000, pp.768-770.

Roberts, MH. Sim, MR. black O. & Smith P. “Occupational injury risk among ambulance officers and paramedics compared with other healthcare workers in Victoria, Australia: analysis of workers' compensation claims from 2003 to 2012”,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vol. 72, no. 7, 2015, pp.489-495.

Son, JW. “Evaluation of 119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work related musculoskeletal disorders risk with regard to patient lifting procedures”, *The Korean Journal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vol. 23, no. 1, 2019, pp.101-112.

Son, JW. “Assessing the risk of work-related musculoskeletal disorders in 119 EMT: a focus on patient-carrying tasks”, *The Korean Journal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vol. 27, no. 3, 2023, pp.33-46.

Studnek, JR. Crawford, JM. & Fernandez, AR. “Evaluation of occupational injuries in an urban emergency medical services system before and after implementation of electrically powered stretchers”, *Applied Ergonomics*, vol. 43, no. 1, 2012, pp.198-202.

Tahernejad, A. Makki, F. Rezaei, E. Marzban, H. Tahernejad, S. & Sahebi, A. “Musculoskeletal disorders in emergency medical services personnel: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Public Health*, vol. 237, 2024, pp.107-115.

Takei, Y. Sakaguchi, E. Sasaki, K. Tomoyasu, Y. Yamamoto, K. & Yasuda, Y. “Use of the Airstretcher with dragging may reduce rescuers' physical burden when transporting patients down stairs”, *PLOS ONE*, vol. 17, no. 9, 2022, pp.1-10.

Tanguay, M. Bouffard, J. Vallee, J. & Corbeil, P. “Paramedics' behavior patterns when transferring non-mobile patients from the ground to a stretcher”, *Healthcare*, vol. 13, no. 6, 2025, pp.611-629.

Thongkum, W. Tudpor, K. Yoosook, W. Nghiep, LK. & Thronsao, C. “Prevalence

and associated factors of work-related musculoskeletal disorder symptoms amongst emergency medical service workers in Mahasarakham, Thailand: a cross-sectional study", *Studies in Health Technology and Informatics*, vol. 328, 2025, pp.525-529.

Wahlin, C. Stigmar, K. & Strid, EN. "A systematic review of work interventions to promote safe patient handling and movement in the healthcare sector", *International Journal of Occupational Safety and Ergonomics*, vol. 28, no. 4, 2022, pp.2520-2532.

Weaver, MD. Patterson, PD. Fabio, A. Moore, CG. Freiberg, MS. & Songer, TJ. "An observational study of shift length, crew familiarity, and occupational injury and illness in emergency medical services workers",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vol. 72, no. 11, 2015, pp.798-804.

Yoon, JW. "Musculoskeletal disorders of Korean fire fighters: applicants for public worker's compensation from 2011 to 2013",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vol. 30, no. 3, 2016, pp.133-137.

국문초록

본 연구는 응급의료 종사자의 환자 취급 업무와 근골격계 질환 사이의 연관성을 인력, 장비, 기술의 세 가지 축으로 분석한 서술적 문헌 고찰 연구이다. 2012년부터 2026년까지 국내외 5개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된 총 32편의 동료 심사 논문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인력 측면에서는 팀 연속성 확보와 적정 인력 배치가 부상 발생률비를 0.03(95% CI: 0.02–0.04) 수준으로 저감하는 강력한 보호 요인으로 확인된 반면, 인력 부족 인지는 허리 통증 위험을 1.5배(OR=1.50)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비 측면에서는 전동 들것 도입이 환자 이송 관련 부상을 최대 78% 감소시켰으나, 중량 증가에 따른 역설적 과부하 문제와 국내 예산 및 구급차 규격으로 인한 도입 장벽이 병존하였다. 기술 측면에서는 단편적 자세 교육의 실효성이 메타분석 결과(OR=0.83) 기준으로 제한적임이 확인되었으며, 국내 119구급대원 대상 인간공학적 평가(REBA 최빈값 11점)에서도 고위험 작업 자세가 관찰되었다. 결론적으로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인체공학적 장비 보급, 팀 안정성 제도화, 현장 중심 실전형 교육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통합적 시스템 중재가 요구된다.

주제어 ● 응급의료 종사자, 환자 취급, 근골격계 질환, 서술적 문헌 고찰, 전동 들것

Abstract

Association between patient handling tasks (personnel, equipment, and techniques factors) and musculoskeletal disorders among emergency medical services personnel
: A narrative review

Son, Jeong Won / Mokwon University

This narrative review examines the association between patient handling tasks and musculoskeletal disorders (MSDs) among emergency medical services (EMS) personnel, structured around three core axes: personnel, equipment, and techniques. A total of 32 peer-reviewed articles published between 2012 and 2026 were retrieved from five Korean domestic and international databases. In the personnel dimension, ensuring crew continuity and adequate staffing was identified as a robust protective factor, reducing the incidence rate ratio to 0.03 (95% CI: 0.02−0.04), whereas perceived understaffing increased the risk of low back pain by 1.5-fold (OR = 1.50). In the equipment dimension, the introduction of powered stretchers reduced patient transport-related injuries by up to 78%; however, paradoxical overloading due to increased device weight, compounded by domestic budget constraints and ambulance size limitations, was identified as a significant barrier to adoption. In the techniques dimension, fragmented posture education demonstrated limited effectiveness based on meta-analytic evidence (OR = 0.83), and ergonomic assessments of Korean 119 EMTs revealed high-risk work postures requiring immediate corrective action (REBA mode score: 11). In conclusion, preventing MSDs among EMS personnel requires integrated systemic interventions that

organically combine the expansion of ergonomic equipment, the institutionalization of crew stability, and field-centered practical training programs.

Keyword ● Emergency medical services personnel, Patient handling, Musculoskeletal disorders, Narrative review, Powered stretcher

▌논문투고일:2026.05.30. ▌심사완료일:2026.06.22. ▌게재확정일:2026.06.26. ▌

논문투고 규정

제정 : 2018년 3월 1일
최근 개정 : 2026년 1월 2일

제1조(학술지 명칭)

1) 본 학술지는 <지식과 교양>이라 칭한다.
2) 본 학술지는 교양교육, 지식의 대중화, 교양 관련 이론, 학문간 통섭 등에 관한 논문을 발간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목원대학교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의 학술지 <지식과 교양>의 투고·편집 및 발간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발간횟수 및 시기) (2023년부터 적용)

1) 본 학술지는 연 3회 발행한다.
2) 본 학술지의 발행일은 3월 30일, 7월 30일, 11월 30일로 정하되, 편집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발간회수를 조정할 수 있다.
3) 학술지의 논문 접수 마감일은 매년 3월호 학술지는 1월 31일, 7월호 학술지는 5월 31일까지, 11월호 학술지는 9월 30일까지로 한다.
4) 본 학술지에 게재가 결정된 논문은 투고일자(접수일자), 심사(수정)일자, 게재확정일자를 논문 마지막에 명기한다.

제4조(투고자의 자격과 연구윤리규정 준수) (2020.12.01. 개정)

1) 논문투고자는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https://lic.jams.or.kr)에

회원가입을 한 후 논문투고신청서와 윤리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2) 논문투고자는 <지식과 교양>의 연구윤리규정을 숙지,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에 의거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5조(게재불가 논문)

본 학술지에 투고할 수 없는 원고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항에 속하는 논문이 투고되었을 경우 심사과정 이전에 투고를 제한할 수 있다.

1) 본 학술지의 논문주제 영역에 부합하지 않은 논문
2) 학술지 및 간행물을 통해 이미 출판되었던 논문과 이와 유사한 논문
3) 외국저서, 논문, 저널의 단순한 번역 논문
4) 석·박사 학위 논문을 단순 축약한 논문

※ 석·박사 학위 논문의 전체 또는 일부를 보완, 발전시킨 논문의 경우 투고 가능하다. 단, 각주를 통해 그 사실을 반드시 사전에 적시해야 한다. 적시하지 않은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투고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5) 이전 학술지 논문심사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을 내용의 수정을 가하지 않고 투고한 논문
6) 이전 호에서 '게재철회'를 요청한 논문은 제목이나 내용을 수정했다고 하더라도 <지식과 교양>에 재투고할 수 없다.
7) 게재확정 이후라도 이상이 확인된 논문의 경우, 연구윤리규정에 따라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6조(논문투고 방법)

투고자는 원고 마감일 이전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1) 논문투고는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홈페이지(https://www.mokwon.ac.kr/lic) '논문투고 안내'에 따라,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https://lic.jams.or.kr)에 회원가입 후 직접 업로드 한다.
2) 삭제
3) 모든 투고자는 논문투고 시 '연구윤리서약서' '저작권이양동의서' '논문유사도검사결과서' '논문원문파일(저자, 소속 삭제)'을 첨부해야 한다.
4) 원고마감 일자를 경과한 논문은 해당 투고자의 동의하에 다음 호의 투고 대상으로 삼는다.

제7조(투고자 논문작성 양식) (2023.03.01. 개정)

논문 투고자는 다음의 논문작성 요령에 따라 논문을 작성해야 한다.

1) 논문은 <지식과 교양> 논문편집양식(제7조 8)항) 기준 10매~ 20매(국.영문 초록, 그림.각주 포함) 내외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논문의 총 매수는 <지식과 교양> 논문편집양식 기준 25매(참고문헌, 초록 제외)를 초과할 수 없다. 기준 매수를 초과할 경우 쪽당 1만원의 추가 게재료를 부과한다.
2) 원고 작성 시 사용할 소프트웨어는 '한글2007' 이상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논문은 한국어·영어·기타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 모든 논문에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을 제출해야 한다.
4) 원고는 논문 제목, 성명과 소속 및 직위, 목차, 본문, 참고문헌, 국문초록 및 주제어, 영문제목, 영문성명, 영문초록,영문 키워드의 순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5)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주저자(제1저자)와 부저자(교신저자, 공동저자 등)를 구분하여 주저자가 첫 번째로, 부저자는 두 번째 이후로 표기한다. 공동저자 모두 윤리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6) 참고문헌을 구비하되, 완벽한 서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논문의 경우는 반드시 논문 수록지의 해당 페이지를 명시해야 한다.

7) 투고자는 게재 확정 후에는 성명의 오른쪽 위에 별표 첨자를 붙이고 각주란에 다음의 형식으로 투고자 정보를 표시한다.

소속기관	직위	투고자 정보
대학	교수, 강사	성명/ 대학명/ 직위(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 등)
	박사 후 연구원	성명/ 대학명/ 박사 후 연구원
	학생	성명/ 대학명/ 과정(학부생, 석사과정, 박사수료 등)
유초중고 학교	교사	성명/ 학교명/ 교사
	학생	성명/ 학교명/ 학년
연구기관	연구원	성명/ 기관명/ 직위(연구위원, 부연구위원 등)
기타기관	공무원, 사원 등	성명/ 기관명/ 직위
소속 없음	성인	성명/ 대학명/ 종별 학위 성명/ 전 소속/ 직위 성명/ 연구자(또는 시인, 소설가, 비평가 등)
	미성년자	성명/ 학교명/ 졸업(또는 수료, 중퇴 등)

8) 논문의 세부 편집양식은 <지식과교양> 논문작성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1) 삭제

① 삭제

② 삭제

(2) 삭제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3) 삭제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4) 각 항목별 작성 방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논문제목 : 글자크기 18, 진하게, 가운데 정렬

② 성명 : 글자크기 9.5, 진하게, 가운데 정렬(논문제목과 이름 사이 한줄 뗌)

③ 소속 : 글자크기 9, 진하게, 가운데 정렬, 괄호 안에 소속을 명기

④ 소제목 : 글자크기 10.5, 정렬방식 왼쪽, 진하게

⑤ 본문 : 글자크기 10.5, 정렬방식 양쪽정렬

(5) 원고의 번호 붙임은 아래와 같이 한다.

- 1단계 : 1. 2. 3.
- 2단계 : 1) 2) 3)
- 3단계 : (1) (2) (3)
- 4단계 : ① ② ③

(6) 논문에서 사용되는 기호는 아래와 같이 한다.

① 영화/영상/웹툰 작품의 경우는 < >를, 문학작품, 논문의 경우는 「 」를, 단행본인 경우 『』를, 음악관련 작품인 경우는 ≪ ≫를 사용한다.

② 강조 및 간접인용의 경우에는 홑따옴표 ‘ ’를, 직접인용의 경우에는 겹따옴표 “ ”를 사용한다.

(7) 논문의 각주 작성 요령

① 각주는 본문의 하단에 저자명, 저서명, 출판사명, 출판사 소재지(외국어일 경우), 출판연도, 인용쪽수 등의 순서로 표기한다.

② 각주는 각 언어권 학술문헌의 일반적인 예를 따른다.

• 한국어 저서인 경우 다음의 순서로 작성한다.
저자,『저서명』,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쪽수
예)홍길동,『교양교육의 역사』, 한바퀴, 2005, 78쪽.

• 한국어 논문(학술지 및 학위)인 경우 다음의 순서로 작성한다.

저자, 「논문명」, 『학술지』권/호,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쪽수.
예)홍길동, 「교육연구의 궤적」,『교양연구』 24집, 2009, 21쪽.

• 번역서인 경우 다음의 순서로 작성한다.
저자, 번역자,『저서명』,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쪽수.
저자, 번역자, 「논문명」, 『저서명/학술지』권/호,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쪽수.
예) 잭 우드 저, 홍길동 역, 『교양교육』, 한바퀴, 2005, 81쪽.

• 영문(외국어)인 경우 저서는 이탤릭체로, 논문은 “ ”로 표기한다.
예) Jack Wood, Social effectiveness: on some Asian College's education in the 1980s, trans. Celia Britton. Annwyl Williams, Ben Brewster, and Alfred Guzzetti, London: HumanArts, 1982, p.23.
예) Kimberly Woods, “Social effectiveness: on some Asian College's education in the 1980s”, Education, vol. 30, no. 3, 1989, pp.51-65.

• 신문기사의 경우 작성자, “기사명”, <신문/잡지명>, 기사날짜 순으로 작성한다.
예) 홍길동, “2000년대 대학교육 현황”, <교양일보>, 2011.05.21.

• 인터넷 사이트를 참조할 경우 사이트 명, 사이트 주소, 자료 확인 날짜순으로 표기한다.
예) <지식과 교양>, www.mokwon.or.kr, 2011.05.21.

③ 중복된 참고문헌을 인용할 경우 다음 표기의 예를 따른다.

• 한국어인 경우 바로 위의 주(註)에서 인용한 참고문헌을 다시 인용할 때는 위의 책, 위의 논문 이라 표기한다.
예) 위의 책(위의 논문), 21쪽. 또한 바로 앞이 아닌 그 앞의 주(註)에서 인용된 참고문헌을 다시 인용할 경우는 저자명을 먼저 명기한 후 앞의 책, 앞의 논문 이라 표기한다.
예) 홍길동, 앞의 책(앞의 논문), 21쪽.

- 영문(외국어)인 경우 바로 위의 주(註)에서 인용한 참고문헌을 다시 인용할 때는 Ibid., 로 표기한다.

  예) Ibid., pp.20-21. 또한 바로 앞이 아닌 그 앞의 주(註)에서 인용된 참고문헌을 다시 인용할 경우는 저자명을 먼저 명기한 후 op. cit.,로 표기한다.

  예) Michael, op. cit., p.21.

④ 참고문헌 작성요령 : 글자크기 9.5 (단, 제목은 10, 진하게)

- 참고문헌은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 정보를 수록한다. 논문의 경우 전체 쪽수를 명기하고, 저서의 경우는 쪽수를 생략할 수 있다.
- 참고문헌은 국내문헌을 먼저 표기하고 영어, 외국어 순으로 작성하되, 단행본, 논문, 신문기사, 인터넷 사이트로 나누어 표기한다. 국내문헌은 저자 이름에 따라 가나다 순서로, 영어 및 외국어 문헌은 저자 이름에 따라 알파벳 순서로 배열한다.
- 영문(외국어) 서적의 경우는 이탤릭체로 하고, 국문 서적은『 』를 사용하고 학술지의 경우는 권, 쪽 수 순으로 작성한다.
- 참고문헌 작성 시 다음의 예를 참고한다.

  예) 김병정,「영화 <혼자>의 롱테아크와 촬영기술 연구」,『지식과 교양』8호,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2021, 25~47쪽.

  예) 홍길동,『교양교육의 역사』, 교양과 교육사, 2005.

  예) Bergstrom, Jojns. ed. "Human Arts: Culture and Society", Arts Histories, Berkel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9, pp.50-85.

  예) Donald, Stephen. Questions of Liberal Arts,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9.

  예) Lacan, Jacques. "The mirror stage as formative of the function of the 'I'.", In Ecrits: a selection, Trans. Alan Sheridan. New York : Norton, 1977.

⑤ 국문·영문(외국어)초록 및 국문요약문 작성요령: 글자크기 10.5 (단, 제목은 진하게)

- 국문초록은 논문의 전체요지를 500자 내외의 분량으로 작성하고 국문으로 된 5개 이상의 주제어를 국문초록 다음에 반드시 첨부한다. 영문(외국어) 논문의 경우에도 국문 논문과 동일하게 국문 초록 및 국문 주제어를 명기한다.
- 영어 이외의 외국어를 사용해 작성한 원고는 본문의 언어 종류에 관계없이 영문 초록을 반드시 첨부한다. 단, 이때의 영문 초록은 국문 논문의 영문 초록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또한 최소 1,000자 이상, A4 1매 내외의 분량의 한국어 번역본을 함께 제출한다.

(8) 기타 편집사항은 『지식과 교양』 논문작성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제8조(투고자 논문심사)

투고된 논문은 본 연구소의 논문심사 규정에 따라 심사과정을 거친다. 단, 편집위원회가 기획, 의뢰한 논문의 경우 게재의 우선권을 부여하되, 일반논문과 동일한 심사과정을 거친다.

제9조(논문 수정)

1)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따라 투고자에게 논문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정 요구일 10일이 지나도록 저자로부터 회신이 없으면 해당호의 논문게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2) 논문 심사를 통과한 논문은 편집규정에 근거하여 그 편집형식을 편집위원회에서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
3) 논문 제목은 1차 수정본 제출 이후로는 변경할 수 없다.

제10조(논문 책임)

게재 논문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해당 논문의 저자에게 있다.

제11조(심사료와 게재료)

투고자는 논문투고와 동시에 본인의 논문에 대한 심사비를 납부한다.

1)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비는 60,000원으로 한다. 논문 심사료는 일반 논문과 연구지원논문 모두 동일하게 부과된다.
2) 심사 후 원고 게재가 확정되었다면 아래와 같이 해당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 일반 논문 : 200,000원
   - 연구비 수혜논문 : 400,000원
3)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영문초록 감수비 20,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 논문편집양식(제7조 6항 참조) 기준보다 분량이 초과될 경우 소정의 추가 게재료를 부과할 수 있다(제7조 1항 참조).

※ 투고자가 해당 논문에 대해 '게재철회'를 요청한 경우라도 심사 후 원고 '게재가 확정'된 경우 투고자는 '게재철회'와 관계없이 해당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12조(저작권) (2021.11.01. 개정)

1) 게재된 모든 논문에 대한 '저작물의 이용' 권한은 목원대학교(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에 위임한다.
2) 투고자는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을 다른 공동연구자와 함께 <지식과 교양>에 위임할 것을 '논문투고신청서'를 통해 사전에 서약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

본 세부 규정에 미비된 사항은 사안별로 본 편집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한다.

제14조(개정)

본 규정은 <지식과 교양>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본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본 개정규정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본 개정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본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본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본 개정규정은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시행일) 본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논문심사 규정

2018년 3월 1일 제정
2020년 12월 1일 개정
2022년 3월 1일 개정
2023년 3월 1일 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지식과 교양>에 투고할 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집위원회 구성 및 연구윤리규정 심사)

1) 본 <지식과 교양>의 논문 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주관한다.
2)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편집위원 10인 내외로 구성됨을 원칙으로 한다.
3)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을 구성하기 전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투고 논문의 영역과 게재의 적합성, 연구윤리규정의 준수 여부, 논문투고 규정의 준수 여부 등을 검토, 해당 투고 논문의 심사여부를 결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제3조(심사 및 판정) (2023.03.01. 개정)

1) 편집위원회를 통해 심사대상으로 확정된 투고 논문은 편집위원회와 편집위원이 위촉한 3인 이상의 전문 심사위원의 심사를 받는다.
2) 심사위원은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https://lic.jams.or.kr/co/main/jmMain.kci) 내에서 심사할 논문을 확인하고 '연구윤리규정준수서약서'에 동의하여야 한다.

3) 편집위원회가 인정하는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투고자와 동일한 소속기관인 경우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4) 심사위원은 심사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초심인 경우 10일 이내, 재심인 경우 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에 입력 또는 첨부해야 한다.

5)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을 심사서에 제시된 논문 평가항목을 참조하여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전면수정 후 재투고', '게재 불가'의 4등급으로 판정한다.

심사자 1	심사자 2	심사자 3	판정
게재가능	게재가능	게재가능	게재가능
게재가능	게재가능	수정후게재	
게재가능	게재가능	전면수정후재투고	수정후게재
게재가능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게재가능	수정후게재	전면수정후재투고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전면수정후재투고	
게재가능	전면수정후재투고	전면수정후재투고	전면수정후재투고
수정후게재	전면수정후재투고	전면수정후재투고	
전면수정후재투고	전면수정후재투고	전면수정후재투고	
게재가능	전면수정후재투고	게재불가	
수정후게재	전면수정후재투고	게재불가	
전면수정후재투고	전면수정후재투고	게재불가	
게재가능	게재가능	게재불가	편집위원회 재심
게재가능	수정후게재	게재불가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게재불가	
게재가능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전면수정후재투고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6) 심사위원의 판정은 80점 이상 '게재가능', 70점 이상 '수정 후 게재', 60점 이상 '전면수정 후 재투고', 59점 이하 '게재 불가'로 한다.
7) '전면수정 후 재투고', '게재 불가'의 판정을 내렸을 경우, 심사위원은 심사서에 평가 항목에 따른 구체적인 판정 사항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8) 심사위원 3인의 판정을 종합한 결과 '게재가능',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당 호의 [지식과 교양]에 게재한다.
9) 기타 판정에 관한 결정은 편집위원회의 의견에 따른다.

제4조(이의 심사)

1) 논문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논문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는 '게재불가'로 판정이 난 논문 투고자에 한해서만 할 수 있다.
3) 이의 제기는 결과 통지 후 1달 이내에 접수되어야 한다.
4) 접수된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편집위원회에서 이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해당 논문의 저자에게 통지한다.
5) 편집위원회가 이의를 인정하게 되었을 경우 변경된 평가 결과를 논문 투고자에게 1주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제반 절차를 바로 진행하도록 한다.

제5조(기타)

1)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지식과 교양>이 소유한다.
2) 논문의 심사 및 편집·출판, 온라인 제공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기타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논의를 거친 후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결정한다.
3)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6조(개정)

본 규정은 <지식과 교양>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부 칙

제7조 본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 본 개정 규정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연구윤리 규정

2018년 3월 1일 제정
2021년 3월 1일 개정
2022년 3월 1일 개정
2026년 6월 1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목원대학교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에서 발행하는 <지식과 교양>에 수록되는 논문 등 저작물의 투고,심사윤리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대상 및 서약)

1) <지식과 교양>의 편집위원 및 학술운영위원, 논문 심사위원, 투고자는 본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하여야 한다.(서약서. 별첨 1, 2)
2) <지식과 교양>의 편집위원회는 원고모집을 공고할 때 본 규정을 함께 공고하여야 하고, 심사자는 심사를 승낙할 때 본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하여야 한다.
3) 투고자는 논문 투고시 연구윤리를 준수할 것을 서약하는 '연구윤리규정 준수서약서'와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술지인용색인(http://www.kci.go.kr)에서 제공하는 '문헌 유사도 검사' 서비스의 검증결과(KCI 문헌유사도 검사 종합결과 확인서)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3조(저자의 투고윤리기준 및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원고는 독창성을 갖는 저작물이어야 하며, 다른 정기학술지나 단행본에

이미 발표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또한 타인의 저작물을 표절한 내용이 담겨서는 아니 된다. 타인의 저작물은 문서를 포함한 이미지 자료도 포함된다. 표절의 기준은 국가기관 혹은 아래의 기준을 따른다.

1) 표절 :

(1)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 체계 등을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의도적으로 자기 것인 것처럼 활용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이는 사용언어가 다른 경우에도 해당한다.

(2)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의 핵심 개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부호 없이 원문 그대로 옮기거나 광범위하게 인용하는 경우

(3) 가져온 원 저작물의 출처를 밝혔더라도 인용된 저작물이 내용 또는 분량에서 새로운 저작물의 주된 부분을 구성하게 되는 경우

(4) 타인의 연구계획서 및 기고된 논문에 대한 동료심사를 통해 연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아이디어 전체나 일부분을 그대로 또는 피상적으로 수정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하여 타인의 연구를 도용하는 경우

2) 위조 : 실험, 관찰 등의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

3) 변조 :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의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마음대로 변형·삭제하는 행위

(1) 수집한 원 자료의 내용을 결과를 왜곡할 의도로 변경, 누락, 추가하는 것

(2) 연구기록에서 날짜나 실험과정을 사후에 바꾸는 것

(3) 연구대상이나 연구방법 등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는 것

(4) 임의로 표본을 자르거나 통계 분석 결과를 그릇되게 설명하는 것

4) 중복 게재 :

(1) 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을 포함해 자신이 기존에 발표한 논문, 자료, 연구결과를 인용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학회지에 재수록하는 경우로, 사전에 해당 학술지의 허락을 받는 경우는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2) 대부분의 연구 결과가 같고 대부분 문장이 같은 경우도 중복게재에 해당한다.

(3) 단행본이나 정기학술지에 출간되지 않은 자신의 석, 박사 학위 논문의 일부를 활용하여 작성된 원고는 중복게재에 해당한다. 단 자신이 이미 발표한 저작물을 부분적으로 활용하며 새로운 학술적 논점을 추가시켜 분석하고 있는 저작물은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그 작성 경과를 반드시 저작물에 적시하여야 한다.

5) 부당한 저자표시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에 실질적으로 공헌 또는 기여하지 않은 사람을 제1저자, 공동 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올리는 경우

(2)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3) 논문의 저자 중 특수관계인(미성년 연구자, 논문 투고자의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으로서, 논문투고의 공동저자일 경우 논문의 투고, 심사, 출간 과정에서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6) 논문에서 저자는 주저자(제1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로 나눈다.

(1)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 저자의 역할을 표시하여야 한다. 연구와 논문작성에 있어서 가장 많은 기여를 한 저자를 “주저자”로, 논문의 투고, 심사, 출간 과정에서 <지식과 교양> 편집위원회, 혹은 운영위원회 등과 연락을 담당한 저자를 “교신저자”로 표시한다.

(2) 교신저자

① 교신저자는 논문투고 및 심사자와 교신하는 투고의 전 과정을 책임지는 연구책임자이다.

② 교신저자는 공동저자의 표시와 그 순서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지고, 저자 표시 순서에서 맨 뒤에 배치한다.

③ 교신저자는 공동저자들에게 최종 논문을 회람하여야 하고 투고 사실을 알려 확인받아야 한다. 또한 논문 심사 후 수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교신저자는 이를 공동 저자에게 알려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주저자(제1저자)

저자의 표시 순서에서 제일 앞에 두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실험한 자, 그 결과를 해석하고 원고 초안을 작성한 연구의 주요 기여자이다.

(4) 공동저자

① 연구에 참여한 공동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연구 수행 중 중요한 연구 정보를 상의하고 결론에 도달하는데 기여한 자이다.

② 공동저자의 포함 범위는 연구의 계획, 개념 확립, 수행, 결과분석 및 연구 결과의 작성에 현격히 기여한 자이다.

③ 공동저자의 표시순서는 연구에 참여한 상대적 기여도에 따라 배치한다. 저자 표시순서는 교신저자 주도하에 참여한 저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제4조(젠더혁신정책)

투고자의 논문은 젠더혁신 정책에서 추천하는 가이드라인(http://gister.re.kr)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 논문은 생물학적 차이를 나타내는 성(sex)과 정체성에 관한 것이거나 정신적 혹은 문화적 구분을 나타내는 젠더(gender)를 구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논문은 연구 참가자의 성, 젠더, 또는 둘 모두를 보고해야 하며, 동물이나 세포의 성을 보고해야 한다. 또한 성과 젠더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도 기술해야 한다.
3) 연구내용이 한쪽 성 또는 젠더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 저자는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예를 들면 전립선암) 그 이유를 논문 내에 합리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4) 저자는 인종(race) 또는 민족집단(ethnicity)을 결정한 방법과 그 구분의 연 구상 필요성을 기술하여야 한다.

제5조(편집위원의 편집윤리기준)

1) 편집위원은 투고된 저작물에 대하여 지체 없이 심사에 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투고된 저작물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진다.
2) 편집위원은 투고된 저작물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저작물의 질적 수준과 투고규정 및 심사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3) 편집위원은 투고된 저작물의 심사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능력을 지닌 심사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4) 편집위원은 투고된 저작물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저작물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되고, 저자의 인격과 학문의 자유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자의 심사윤리기준)

1) 심사자는 편집위원회가 심사 의뢰하는 저작물을 심사기준이 정한 바에 따라 성실하게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신이 해당 저작물의 내용을 평가하는 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실을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2) 심사자는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관계를 떠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저작물을 심사하여야 한다. 심사자는 저자의 인격과 학문의 자유를 존중해야 하고,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또는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게재불가 또는 전면수정 후 재투고로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3) 심사자가 투고된 저작물이 제3조의 각항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편집위원회 및 제7조에 의한 연구윤리 진실성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4) 심사자는 심사를 의뢰받은 사실, 심사대상 저작물의 모든 사항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저작물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의2(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

1) 본 학술지의 투고·심사·편집 과정에서 생성 형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함에 있어서는 학술적 진실성,비밀유지,그리고 결과물에 대한 저자 의 책임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2) 생성형 인공지능은 본 규정 제3조 제6항에서 정한 저자(주저자·교신저자·공동저자)의 지위 를 가질 수 없으며,이를 위반한 경우 동 제3조 제5항에 의한 부당한 저자표시에 해당하는 것 으로 본다.
3) 투고자가 원고 작성 과정에서 생성형 인공지 능을 활용한 경우 그 내역을 원고의 정해진 위치에 공개하여야 하며,소정의 양식을 투고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편집위원,심사위원은 미공개 원고 등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 자료를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 에 입력·업로드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그 밖에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인공지능 활용 윤리 지침」에 따른다.

제2장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7조(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본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식과 교양>의 연구윤리진실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위원회는 목원대학교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장 및 편집위원장이 위촉하는 인사 5인 내외로 구성되며,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장이 그 위원장을 맡는다.
3)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케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5)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6)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제도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 부정행위 조사 결과의 처리 및 후속 제재 조치에 관한 사항
   (3) 조사위원회 구성 및 조사 결과 승인에 관한 사항
   (4) 제보자 보호 및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1)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 위반행위의 조사

제9조(위반행위의 조사 개시)

1)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본 규정 위반행위(이하 '위반행위'라고 한다)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편집위원장과 협의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1) 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2)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위반행위의 입증은 위원회에 있다. 다만, 피조사가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파기한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제11조(위반행위 조사의 기간)

1) 위반행위의 조사 기간은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나누어 실시한다. 예비조사는 제보 또는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며, 본 조사는 예비조사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2)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시효는 만 5년으로 한다. 그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3) 다음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5년 이전의 위반행위라도 후속 연구의 기획, 연구비 신청,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가 5년 이내일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2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1)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 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제보자의 신원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2) 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비밀을 준수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구체적인 혐의가 인정되기 이전까지 피조사자는 연구윤리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3) 제보, 조사, 심의, 의결 등 조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제척, 기피, 회피)

1) 당해 조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조사 및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신청이 인용된 경우에는 당해 안건의 조사 및 심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3)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이의제기 및 진술기회의 보장)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반론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5조(판정)

1) 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반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피조사 사실과 관련한 피조사자의 위반행위 여부를 확인하는 판정을 한다.

제4장 조사 이후의 조치

제16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1) 위원회가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를 부과하여야 한다.
   (1) 본 규정에 위반된 저작물이 <지식과 교양>에 게재된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의 게재의 소급적 무효화 및 논문목록에서 삭제
   (2) 향후 10년 이상 <지식과 교양> 투고 금지
   (3) 본 규정의 위반 사실을 <지식과 교양> 및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홈페이지에 공지
   (4) 본 규정의 위반 사실을 한국연구재단에 통보
   (5) 기타 윤리의 준수를 위해서 필요한 사안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제재사항
2) 전항 제3호의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의 수록 권·호수, 취소일자, 취소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7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 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보자 및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이를 통지한다.

제18조(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17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재심의 결과 위반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 혹은 혐의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0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1)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판정이 끝난 이후 결과는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지식과 교양> 학술운영위원회와 편집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다만, 제보자, 조사위원,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위원회의 결의로 그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1조(개정)

본 규정은 <지식과 교양>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제21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부 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준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개정 규정 시행 전 투고되어 현재 심사 중인 원고에 대해서도 이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편집위원회 규정

2018년 3월 1일 제정
2022년 3월 1일 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학술지 <지식과 교양> 편집위원회 업무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제2조(업무)

편집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⑴ 학술지 <지식과 교양> 투고 논문 심사와 편집
⑵ 학술도서 기획과 편집
⑶ 기타 학술지 관련 업무
⑷ 본 연구소의 편집 관련 업무

제3조(구성 및 임기)

편집위원회 구성 및 임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⑴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센터장이 위촉하며,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센터장이 위촉한다.
⑵ 편집위원회는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⑶ 편집위원은 각 분야에서 대내외적 지명도가 높고 학술적 성과가 우수한 이로 하며,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연구자들이 고루 선임될

수 있도록 한다.

⑷ 심사 및 편집 실무를 위해 약간 명의 조교, 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⑸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회의 개최)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투고 마감 이후 심사위원 선정과 위촉을 위한 편집회의를 개최하며, 심사가 일단락된 후 심사결과 판정과 학회지 편집을 위한 편집회의를 개최한다. 편집회의는 필요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5조(결정 사안)

편집위원회의 주요 결정 사안은 다음과 같다.

⑴ 학술지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 위촉

⑵ 투고 논문 심사결과의 검토와 판정

⑶ 논문 수정사항 확인을 통한 게재 여부 확정

⑷ 기타 학술도서 기획 및 심사 편집에 관한 건

제6조(규정준수 의무)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심사 및 편집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학술지 발간 및 논문 투고 규정과 논문 심사 규정,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인공지능 활용 윤리 지침

2026년 6월 1일 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본 학술지에 투고·게재되는 학술 저작물의 작성, 심사 및 편집 과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이하 “생성형 AI”) 도구의 활용에 관한 윤리적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연구의 진실성과 학술적 신뢰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학술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이 지침은 본 학술지에 원고를 투고하는 저자(투고자), 원고를 심사하는 심사위원, 학술지를 운영·관리하는 편집위원 및 학술운영위원 전원에게 적용한다.

②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학술지의 「연구윤리규정」, 교육부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의 관련 권고사항을 준용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성형 AI”란 이용자의 입력(프롬프트)에 따라 텍스트·이미지·표·코드 등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하는 인공지능 도구(예: ChatGPT, Claude, Gemini 등 대규모 언어모델 기반 서비스)를 말한다.
2. “AI 활용”이란 학술 저작물의 착상·구성·집필·번역·교정·자료조사·분석·시각화 등 연구 및 저술의 전 과정 중 어느 한 과정에서라도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공개(disclosure)”란 저자가 AI 활용 사실과 그 내역을 원고의 정해진 위치에 명시적으로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본 원칙) ①(투명성) AI 활용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활용 범위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책임성) AI 활용이 포함된 내용의 정확성·진실성·독창성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전적으로 저자(이용자)에게 있으며, AI는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③(검증) 저자는 AI 활용 결과물을 그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실관계·인용·출처를 반드시 직접 검증하여야 한다.
④(기밀유지) 심사위원·편집위원·학술운영위원은 미공개 원고 등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 자료를 생성형 AI 도구에 입력·업로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공정성) AI의 편향·차별적 결과를 경계하고, 학문적 공정성과 인격권·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5조(저자(투고자)의 책무) ①생성형 AI는 본 학술지 「연구윤리규정」 제3조 제6항에서 정한 주저자·교신저자·공동저자 어느 지위에도 해당될 수 없으며, 교신저자는 공동저자의 표시뿐 아니라 본 지침의 준수와 AI 활용 사실 공개에 대하여도 입증책임을 진다.
②저자는 AI 활용으로 작성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에 사용된 모든 내용의 정확성, 진실성, 표절 및 저작권 비침해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③저자는 AI 활용이 있는 경우 제7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저자는 생성형 AI가 거짓 정보나 존재하지 않는 문헌·인용을 생성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모든 사실·인용·참고문헌을 원자료를 통해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⑤저자는 타인의 미공개 연구물, 개인정보, 비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를 생성형 AI에 입력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생성형 AI 활용의 범위) ①다음 각 호의 보조적 활용은 제7조에 따라 공개하는 것을 전제로 허용한다.
1. 연구 착상 단계의 아이디어 탐색 및 문헌 조사 보조
2. 문장의 가독성·문법·표현 개선 등 언어 교정 및 번역 보조
3. 자료의 요약·정리, 분류 체계 구성 등 분석 보조

②다음 각 호의 행위는 본 학술지 「연구윤리규정」 제3조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금지한다.

1. AI가 생성한 텍스트를 출처 표시 없이 또는 검증 없이 핵심 학술 콘텐츠로 그대로 사용하는 행위는 「연구윤리규정」 제3조 제1항(표절)에 해당한다.
2.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인용·참고문헌을 AI로 생성하거나, 연구 데이터를 위조·변조하는 행위는 「연구윤리규정」 제3조 제2항(위조) 및 제3항(변조)에 해당한다.
3. 타인의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AI를 통해 재생산하여 표절에 이르는 행위는 「연구윤리규정」 제3조 제1항(표절)에 해당한다.
4. 생성형 AI를 논문의 저자·공동저자·교신저자로 표시하는 행위는 「연구윤리규정」 제3조 제5항(부당한 저자표시)에 해당한다.

제7조(AI 활용 내역의 공개 및 표기 방법) ① 생성형 AI를 활용한 저자는 활용한 도구의 명칭과 버전, 활용 목적 및 범위, 활용 시기를 원고의 "연구방법" 또는 본문 말미의 별도 항목(예: '생성형 AI 활용 고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단순한 언어 교정·번역 보조에 한정하여 활용한 경우에는 '감사의 글' 또는 각주에 그 사실을 간략히 밝힐 수 있다.

③AI 생성 내용을 인용·표기할 때에는 도구명, 버전, 생성 플랫폼, 접속 일자를 포함하여 본 학술지 인용 형식에 따라 표기한다. 표기 예시는 [별표]와 같다.

④투고자는 「연구윤리규정」 제2조 제3항에 따른 '연구윤리규정준수서약서' 및 'KCI 문헌유사도 검사 종합결과 확인서'와 별도로, 별첨 서식에 따른 '생성형 AI 활용 고지서(또는 미활용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편집위원회 및 학술운영위원의 책무) ①편집위원 및 학술운영위원은 투고된 미공개 원고를 기밀 문서로 취급하며, 이를 생성형 AI 도구에 입력·업로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편집위원회는 본 지침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제10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9조(심사위원의 책무) ①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원고 및 심사 관련 자료를 생성형 AI 도구에 입력·업로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는 「연구윤리규정」

제6조 제4항의 비밀 누설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②심사위원은 심사의견을 생성형 AI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작성하지 아니하며, 심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심사위원은 원고에서 본 지침을 위반한 정황을 발견한 경우 「연구윤리규정」 제6조 제3항에 따라 편집위원회 및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를 알린다.

제10조(위반에 대한 조치) 이 지침의 위반은 본 학술지 「연구윤리규정」 제3조의 연구부정행위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지침의 개정 및 보완) 이 지침은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및 국내외 학술 규범의 변화, 학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보완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 편집위원회 등이 시행한 사무는 이 지침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 생성형 AI 활용 고지·표기 예시

구분	기재 예시
본문 고지	“본고는 초고 작성 과정에서 문헌 조사 및 문장 교정을 위해 생성형 AI(ChatGPT, GPT-4o, OpenAI)를 보조적으로 활용하였으며, 모든 내용은 저자가 검토·검증하였다.”
언어 교정만 활용	“영문 초록의 표현 교정에 생성형 AI(Claude, Anthropic)를 활용하였다.” (감사의 글 또는 각주)
참고문헌 표기	OpenAI. (2025). ChatGPT (Aug 14 version) [Large language model]. https://chat.openai.com

◇ 연구센터장 : 여상수
◇ 편집위원장 : 조용림
◇ 편 집 위 원 :
고혜영(서울여대), 곽내정(배재대), 구진희(목원대), 권용진(경성대),
김경래(한국교원대), 김광환(건양대), 김혜정(경인교대), 배병윤(한라대),
변진이(경일대), 서유석(경상국립대), 원은석(목원대), 정옥희(전주교대),
조기웅(전북대), 조준희(동국대), 최병진(제주대), 최혜진(목원대),
홍태한(전북대)

◇ 윤리위원장 : 여상수
◇ 윤 리 위 원 :
박현선(한국교원대), 서정일(목원대), 유경아(목원대), 이아람찬(목원대),
이철우(공주대), 이태화(고려대), 장영란(한국외대)

◇ 표지디자인 : 현승훈

본 학술지는 목원대학교 학술연구지원에 의하여 발행되었음

지식과 교양 ***Knowledge & Liberal Arts***

2026년 07월 30일 / 30 July 2026
2026 통권 제21호 / No. 21

발행인 **여상수**
발행처 **목원대학교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담당 조교 **박해인**
발행일 **2026년 7월 30일**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북로 88 목원대학교 캠퍼스타운(I관)
103호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우편번호 35349)
Tel 042-829-8198
E-mail kl@mokwon.ac.kr Homepage
https://lic.jams.or.kr

편집·인쇄처 **㈜칸디자인뱅크**
전화 : 042-826-0291